

제2편 양평의 생활문화



제 1 장 생업

제 2 장 유통과 장시

제 3 장 의·식·주생활

제 4 장 친족과 관혼상제

제 5 장 마을과 사회조직

제 6 장 세시풍속과 놀이

제 7 장 민속신앙과 의례

제 8 장 노년문화

여 백

제1장 생업

제1절 농업*

1. 논농사

수전농업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통일벼 품종이 도입·보급되기 직 전까지를 대상으로 삼아, 농사력(農事曆), 단위면적당 생산량, 두레나 작업반 등 공동노동조직, 소작이나 각종 대부와 관련된 관행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통해 파악한 양평군 수전농업의 특징과 특기사항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결과들은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수전농업의 농사력과 관련하여, 파종·이앙·제초·수확 작업의 시기에 대해 마을별로 조사하였다. 특히 모내기의 적기, 중모, 만앙, 최종한계시기(끝내 비가 오지 않아 건답에 호미모를 내거나 메밀 등 대체작물을 파종하거나 논을 묵히기로 결정하는 등 수전이앙을 포기하는 시기)를 파악함으로써, 농사력을 규정하고 있었던 군내의 기후환경조건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양평군내에서는 음력 5월 10~20일 사이를 적기로 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월면 산음리 등 내륙산지에서는 5월 5일에서 15일 사이를 적기로 보는 반면, 강상·강하면 등 군내 남쪽지역에서는 빠르면 5월 15일이고, 보통 5월 20일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차이가 있었다. 한편 과거에는 수리시설이 지금보다 더 불안했으므로

* 제1~2절은 안승택 집필임.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는 일을 자주 겪어야 했다. 이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중모, 마냥[晩秧] 또는 중마냥, 하마냥 또는 끝마냥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그 시기 역시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 역시 기온, 위도, 지형, 수리 등의 요인에 따라 양평군 내에서도 편차를 보였는데, 양평지역은 대체로 하지 중모 또는 하지파만앙으로 나타나며 소서를 끝마냥, 즉 마지막으로 모내기를 하는 시기로 보고 있었지만, 산음리 등에서는 망종을 기준으로 삼아 기후를 보아가며 대체작물을 심기 시작하는 등 끝마냥이 더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¹⁾

농사조직과 관련해서는 두레조직의 유무, 소벌시기, 활동방식, 대규모의 품앗이와의 차이 등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단지 산음리의 두레에서 “한 사람당 다섯 마지기씩은 차고 들어가고, 그 이상을 땀 때 더하는 논이 두 마지기면 술 한 동이를 내고, 네 마지기면 점심이나 저녁 밥 한 끼를 냈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두레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마을에 따라 한 마지기를 몇 평으로 보는가, 보통 한 마지기에서 몇 가마의 소출을 기대하는가, 소출량에 따라 논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 또 소출량은 모내기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관련된 주요 질문이었다. 이를 통해 제꺼풀, 마대, 양식, 삼배출과 같은 용어들이 파악되었으며, 양평군내의 지역별 · 마을별 지력 수준, 그리고 이것과 기후 · 지형 등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해마다의 강수량 편차에 따른 진폭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각종 관행들과 관련 의례 및 세시풍속들이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못자리를 만들고 바로 또는 이앙 직전에 올리는 ‘못자리 고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2. 발농사

한전농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양평군내의 전작은 그루같이(그루콩)지대, 대우치기(대

1) 이하 농사력 관련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절기와 그 대체적인 일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음력월	절기	양력일자	음력월	절기	양력일자	음력월	절기	양력일자
1월(孟春月)	입춘(立春)	2월 4일경	5월(仲夏月)	망종(芒種)	6월 6일경	9월(季秋月)	한로(寒露)	10월 8일경
	우수(雨水)	2월 19일경		하지(夏至)	6월 21일경		상강(霜降)	10월 23일경
2월(仲春月)	경칩(驚蟄)	3월 6일경	6월(季夏月)	소서(小暑)	7월 7일경	10월(孟冬月)	입동(立冬)	11월 7일경
	춘분(春分)	3월 21일경		대서(大暑)	7월 23일경		소설(小雪)	11월 22일경
3월(季春月)	청명(淸明)	4월 5일경	7월(孟秋月)	입추(立秋)	8월 8일경	11월(仲冬月)	대설(大雪)	12월 7일경
	곡우(穀雨)	4월 20일경		처서(處暑)	8월 23일경		동지(冬至)	12월 22일경
4월(孟夏月)	입하(立夏)	5월 6일경	8월(仲秋月)	백로(白露)	9월 8일경	12월(季冬月)	소한(小寒)	1월 6일경
	소만(小滿)	5월 21일경		추분(秋分)	9월 23일경		대한(大寒)	1월 21일경

우콩)지대, 그리고 부분적인 삼월갈이지대가 섞여 있다.²⁾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양평군 자체가 그루갈이지대와 대우치기지대의 점이지대로서 군내의 각 면·리별로 차이를 보이며 군경제 내에서 경계선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마을 안에서도 그루갈이밭과 대우치기밭, 그리고 삼월갈이밭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작부 체계의 경계선 자체가 시기적으로 차츰 복잡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헌에서 이 작부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군내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작부방식들이 어떻게 조직·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경계선을 찾고 점이지대로서의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분명히 하는 작업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어떤 변수들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와 관련한 조선 후기 농서의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대표적이다.

밭농사에서 한 해에 두 번 갈아 이를 그루갈이라고 한다. 농사의 근면함이나 토지의 이용은 여기에서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루갈이에서 곡식이 나는 것이 몹시 대단한 것은 아니어서 곡식 나는 것이 또한 많기로는 대전법(민간에서 가을보리밭 사이의 이랑에서 조를 심는 것이다)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 …… 근래의 밭농사 짓는 이들이 이를 또한 많이 한다(『應旨進農書』 2 : 241).

모맥류(보리와 밀-인용자) 그루갈이의 법이 이로부터 농업의 방책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代耨)의 절묘함만 하지는 못하다. 소위 대우라는 것은 즉 모맥의 두둑에 호미로서 흙을 파내고 두태류를 심는 것이며, 고로 호미로써 곶방매를 대신하여 갈(鋤以代耨耕)을 이른다. 마땅히 3, 4월 사이에 그 해의 모맥이 배태될 때를 당하여 두태류의 종자로써 요회(尿灰)와 섞어 찌리나무로 만든 다래끼(柵器)에 담아 나아가 두둑 사이에 흙을 파고 파종한다. 한 그루(科)에 각 3, 4알씩을 넣는다. 그 모맥을 베어낸 후에 호미로 새로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또한 후치법을 사용하여 모맥의 뿌리를 갈아 그 (두태의-인용자) 뿌리를 덮어주면, 즉 뿌리는 자연히 견고해지며 고로 바람과 가뭄을 견딘다. 또한 세 가지 농사로 극히 바쁜 시기에 그루갈이를 하는 공력을 덜 수 있으며, 또 혹 가뭄이나 장마를 당해 갈고 파종하는 일이 어려울 때에도 대우를 하여 싹을 내게 하면, 즉 이미 그 싹이 무성함에 이를 것이니 이는 농가에서 만전의 방책이 된다(『農家總覽』 : 288).

이를 둘러싸고 농업사 분야에서는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 발전의 한 고리로서 한전농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바 있다.³⁾ 그 논쟁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한전

2) 한전농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이 현실이므로 개관에서 설명을 좀 길게 하기로 한다.

3) 논쟁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영학(1987)을 참고할 것.

농법의 발전방향이 두둑 위에 맥류를 심는 농종법(壟種法)에서 고랑에 맥류를 심는 견종법(畛種法)으로 변화는 것이었는지(김용섭 1969), 아니면 조선시대를 일관하는 견종법을 전제로 하여 1년 2작 지대의 확산으로 바라볼 것인지(민성기 1980 : 1982)를 둘러싼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말에 작성된 문헌에서 일본인 농상무성 기사는, 처음 조선농업의 작부방식, 특히 밭농사의 작부방식을 관찰했을 때는 그 복잡함에 놀라워하는 한편으로 그 유치함·조방함을 조롱하고 있었다(農商務省, 1905 : 498). 그리고 이와 더불어 경기도내에서 한전 작부체계에 대한 간략한 서술을 하고 있다(같은 책 : 492~494). 그러나 여기에서는 1년 2작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차이, 즉 그루갈이와 대우치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약 30년 뒤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에 속한 다른 일본인 기사는 같은 문제를 다른 식으로 파악하였다. 역시 그 복잡성과 난해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경제조건에 대해서도 탄력성이 생겨 유리하고도 안전한 농업경영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高橋昇, 1998 : 108).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수원·화성, 의정부와 홍천·횡성·강릉·삼척 등지를 돌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한전 작부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적작(跡作)’과 ‘간작(間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그루갈이와 대우치기에 해당한다.

그루갈이란 전해 늦가을에 심은 보리 또는 밀을 늦봄 또는 초여름에 벤 다음 그 자리[跡]를 갈아 기존 이랑에 직각으로 새로운 이랑을 만들고 그 두둑 위에 콩 또는 팥을 파종하고 일부는 수수나 조를 이랑하기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을에 콩 또는 팥을 베면 바로 다시 새로 밭을 갈아 고랑에 보리나 밀을 파종함으로써 1년 2작(또는 작물을 교체할 경우 2년 4작)의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우치기란 밭에서 보리·밀[大小麥] 등 전년 늦가을에 심은 곡식을 베기 전에 고랑에 심은 보리·밀 사이의 두둑에 콩이나 팥, 조 등을 파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같은 1년 2작 지대 중에서도 기온이 한랭한 지역에서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대소두나 조가 자랄 수 있는 숙기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 사이짓기[間作]를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그루갈이 농법이 경기남부·강원남부의 1년 2작 지대에서 지배적인 파종법이라면 이 대우치기 농법은 경기북부·강원중부지방의 1년 2작 지대에서 지배적인 파종법이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경기동부권에서는 양평·광주 등 남한강 연안의 어딘가에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용어들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개관을 대신한다. 그루갈이와 대우치기가 1년 2작 지대 내에서의 작

4) 또한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인 농업당국자들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그 지 한 개인의 입장의 문제가 아님을 전하고 있다.



강상면 교평리 교암마을 대우치기 모습 재연



단월면 산음리 산대마을 도리깨 타작

부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삼월갈이는 하나의 밭에서 1년에 한 번 갈아 단작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를 '단파' 또는 '노백이' 라고도 부른다. 삼월갈이밭 중 풀이 많은 밭에서 풀을 죽이기 위해 파종 한 달 이상 전인 음력 3, 4월경 미리 가는 것을 '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음력 3, 4월경에 한 번 되고 5월경에 다시 갈아서 콩을 심었다.

高橋昇(1998)은 대우치기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⁵⁾ 이 중 양평군내에서 주로 관찰한 방식은 첫 번째, 즉 보리·밀이 자란 사이에서 호미로 구멍을 파고 파종·복토하는 것이었다. 이때 작업하는 사람은 다 자란 보리그루 사이에서 골을 타고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파종작업을 해야 하므로 노동강도가 상당히 센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작업방식을 '골을 타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골을 탄다'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 글기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파종작업을 할 때 종자를 담아 허리춤에 차는 작은 바구니가 '종다래끼'이다. 종다래끼는 '대우종대미', '종다래미', '씨앗종대미' 또는 '짚종대미' 등으로도 불린다. 종다래끼 대신 여성들이 그냥 앞치마에 담아서 작업에 나서기도 하지만, 종다래끼를 가지고 하는 것만은 못하다. 그루갈이에는 종다래끼처럼 작은 바구니가 아닌 조금 더 큰 바구니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우치기를 하면 콩을 심은 뒤 보리를 베고, 보리그루를 호미로 파서 보리그루가 '안백히게'(보이지 않게) 흙으로 덮는데, 이를 '복(覆)을 준다'고 부른다. 그러나 이를 '맹이 튼다'고

5) 첫째는 대소맥이 자란 사이에서 호미로 파종구를 내고 파종·복토하는 경우, 둘째는 후치라고 불리는 작은 크기의 중경용(中耕用) 보습으로 보리·밀밭의 두둑을 깨고 그 사이에 파종·복토하는 경우(이상 황성의 사례), 셋째로 아직 대소맥이 많이 자라지 않은 음력 3월 하순에 조생종 대두를 보리밭 두둑에 발로 파종·복토하는 경우(의정부의 사례)가 그것이다.

부르는 지역도 꽤 있었다. 가령 맹이 튼다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강상면 화양리 일대에서는 '북 준다'는 말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땅 속에 열매가 맺는 식물이 노출되지 않게 흙을 보태 주는 말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외에 양동면 금왕리에서는 이를 '복돋운다'고 하였다.

이 북주기 또는 맹이트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호미로 보리·밀의 그루를 파 얹어서 흙으로 덮음으로써 제초를 함과 동시에 콩·팥의 새싹을 지지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극쟁이' 또는 '글기채'라고 불리는 중경용의 작은 쟁기로 보리그루가 있는 고랑을 췌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양평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후자의 방법은 '글기질'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았다.⁶⁾ 글기질을 할 경우 소의 입에는 콩 새싹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짚으로 짠 망을 씌우는데, 이를 '소망' 또는 '주둥망'이라고 부른다.

이번 조사에서 면밀히 점검되지 못한 변수 중 특히 일제강점기, 해방직후 시기의 농업개량과 관련 있는 것은 개량종자의 보급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개량콩인 울콩은 해방 전후 시기 또는 한국전쟁 직후 시기에 양평관내에 도입·보급된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이 종자가 도입되면서 이전 시기의 대우치기시대와 그루갈이지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풀을 타고 바닥을 기면서 하는 작업인 대우치기보다는 서서 하는 그루갈이가 일이 수월하므로, 울콩이 도입되면서부터는 많은 지역에서 그루갈이 울콩 재배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의 역량 부족으로 조사가 끝나갈 시기에 파악된 또 하나의 변수는 보리 종자의 문제이다. 즉 재래종 늘보리 일변도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보다 수확시기가 약간 빠른 개량종 얇은뱅이보리가 도입되면서 역시 대우치기시대 일부가 그루갈이지대로 변하게 된다.⁷⁾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얇은뱅이보리에 대한 도입 당시 농민의 반응은 호의적인 경우도 있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어서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업개량 중 역시 주민들로부터 양가적인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 보리의 파종구를 확장하여 종전에 한 자 가량 되던 고랑의 폭을 한 자 반('자가웃')으로 넓히는 파종방식이다. 이를 '개량보리'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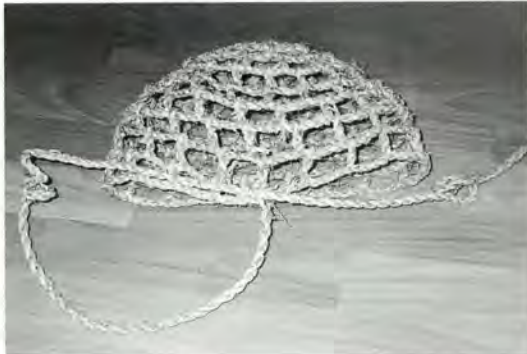
한편 양평 관내의 밭작물로 조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 즉 산촌에서는 화전에 보통 조를 많이 심고 평지밭에 콩이나 (드물게) 팥을 심는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조라는 것이 원래 산의 풀이어서 산을 막 개간한 화전에서도 잘 자란다'고 설명을 단다. 한편 양평군내 강변마을들 중에는 거의 전적으로 조를 재배하여 주민들이 '제2의 북간도'라고 농담삼아 부르기도 하는 곳들이 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구하면, "콩은 산골에서나 하지 좋은

6) 그러나 '글기질'이라는 말로써 연자방아를 돌리는 일을 가리키는 지역도 있었다.

7)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1978:158)은 우리 나라의 재래종 보리로 늘보리와 얇은뱅이보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후자는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도입된 개량종이다.



서종면 명달리 명달이마을 글기채



강상면 세월리 세심마을 소망

밭은 콩을 심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즉 산촌에서는 ‘조=산지/콩=평지’로 이해하는 데 반하여 강촌에서는 ‘조=평지/콩=산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⁸⁾

3. 화전

화전이란 산간지대에서 풀과 나무를 베어 불살라 버리고 그 자리를 파 일구어 농사짓는 밭이다. 4~5년이 지나면 땅기운을 북돋우려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수가 있다. 그런 밭을 두고 경기·강원지역에서는 ‘묵밭’이라고 한다.

『고려사(高麗史)』 문종 8년(1054) 3월에, 1년 1작의 불역산전(不易山田), 2년 1작의 일역전(一易田), 3년 1작의 재역전(再易田)이 나온다. 산전(山田)은 화전, 전(田)은 숙전(熟田)일 것이다. 화전은 3~4년 연작이 가능하였기에 그때 1년 1작의 ‘불역전’은 오직 화전에서만 이루어졌던 모양이고, 숙전은 휴한(休閑)이 필수였던 모양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충청도 청풍군(淸風郡) 풍속조는, 고려의 문신 정공권(鄭公權, 1333~1382)의 시를 인용, 그곳 사람들은 “화경(火耕)을 숭상하여 조를 많이 재배한다(尙火耕 多種粟)”고 했다.

정약용(丁若鏞)은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화전은 일정한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깊은 산속의 백성들은 쟁기 대신 큰 호미로 땅을 일굴 뿐이었다(火田 本無定地 深山之民 長柄大鋤以當耒耜)”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화전은 한반도 심산유곡 어디서나 이루어졌는데, 나무나 풀을 베

8) 물론 밭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지역은 또 대체로 예전부터 논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이는 토질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인데, 향후 이에 대해서도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어 불을 태우고 큰 호미로 땅을 일구어 지력이 다할 때까지 4~5년 동안 조를 비롯한 밭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와 제주도의 화전을 조사하여 『火田の現狀』(1927, 朝鮮總督府)을 출간했다. 그에 따르면 화전민을 ① 화전·숙전(熟田) 겸 화전민, ② 순화전민, ③ 유랑화전민으로 분류했다.

① 유형의 화전민은 남부에, 그리고 ②와 ③ 유형의 화전민은 중부와 북부지역에 쏠려 있다고 했다. 또 그 당시(1924년 9월말 현재) ②와 ③ 유형의 화전민은, 그 면적이 14만 1,804정보, 호수는 6만 5,265호, 인구는 31만 2,436명에 달했다고 한다.

1967년까지만 하더라도 1만 7,200호가 화전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1968년 「화전정리법(火田整理法)」이 공포되면서 화전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화전은 법령으로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화전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므로 간접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선 단월면 산음리 일대에서 화전자리 고르기부터 거두어들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수집한 사례를 통해 양평군의 화전농업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양평군내에서 화전이 성했던 많은 고장 중 산음리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곳이 양평군내에서 화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마을의 화전관행은 아래의 마을별 사례 중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산음리에서의 조사는 2001년 8월 20일~26일(6일간) 지역문화연구소 공동조사단이 참여하여 이 마을 이병태(남, 1942년생), 백석현(남, 1936년생), 손억조(남, 1937년생) 여러분의 증언으로 이루어졌다.

1) 화전자리 잡기

경사도, 습도, 비옥도(肥沃度), 돌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개 식물의 군락 모양으로 고르는 수가 많았다. 갈참나무·줄참나무 밭은 양지일 뿐만 아니라, 화전을 일구었을 때 곡식의 알갱이가 여물고, 물참나무·떡갈나무 밭은 음지이면서 곡식 알갱이가 그렇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음지쪽에는 김이 많이 자라지만, 양지쪽은 그것도 덜 자라서 좋았다. 이런 땅을 고르는 일을 두고 '화전자리 잡는다'고 했다.

2) 나무 자르고 풀베기

가을이나 봄에 풀과 나무를 베거나 자른다. 가을에 이루어지는 일을 '푸대기', 봄에 이루어지는 일을 '푸자리'라고 했다. '푸자리'는 밭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다.

3) 불농기

음력 3월 그믐에서 입하(立夏) 전에 불을 놓았다. '화전 불 놓는다'고 했다. 여럿이 힘을



단월면 산음리 수침마을 광포괭이와 막괭이

모아 품앗이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봄에 이루어진 '푸자리' 보다 가을에 베어둔 '푸데기'에서 불이 잘 일었다. 화전자리에 있는 썩은 나무뿌리 따위는 괭이로 땅바닥을 파서 묻었다. 그것에 불이 붙으면 불씨가 남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두고 '방둥이 묻는다'고 했다. 나무 뿌리의 토막을 '방둥이'라고 했던 모양이다. 또 불길이 화전자리 바깥으로 번지지 않게 사방을 돌아가며 한 발 너비로 흙이 드러나도록 호미로 풀대를 자르고, 갈퀴로 바닥의 먼지까지도 긁어 뽀뽀하게 다듬었다. 이런 일을 두고 '불깃 올린다'고 했다. 대낮에는 불기둥이 잘 안 보이기에 해가 기울어질 때부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차근차근 불을 놓았다.

4) 밭갈이

경사 45도 이상의 밭을 '비알밭', 그 이하의 밭을 '순평밭'이라고 하였다. 비알밭과 순평밭에 따라 밭갈이가 달랐다. 순평밭에서는 거리갈이로 밭갈이하였다. 산비탈을 따라 좌우로 치켜오르며 갈았다. 이런 모양의 밭갈이를 두고 '홀골갈이'라고 하였다. 숙전(熟田)에서 이루어지는 골치기와는 썩 달랐다. 비알밭은 괭이로 갈았다. 위에서 아래로 골을 내며 '홀골갈이'처럼 갈았다. 이런 일을 두고 '내리갈이', 이때의 괭이를 '내리갈이괭이'라고 하였다. 순평밭은 거리로 하루에 2,000~3,000평, 그리고 비알밭은 괭이로 하루에 1,000평 정도 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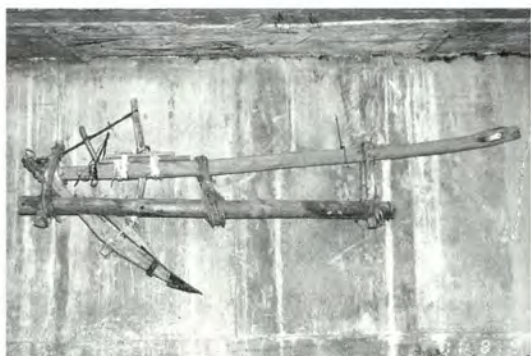
음력 4월중에 숙전에서 조의 씨앗을 고랑에만 뿌렸지만, 화전에서는 그것을 흩뿌렸다. 앞의 것을 '고랑조', 뒤의 것을 '헛뿌리조'라고 하였다. 흩뿌리고 나서 괭이로 긁으며 씨앗을 묻고, 찌리비로 쓸어 땅바닥을 골랐다.



청운면 다대리 거리쟁기



청운면 다대리 거리쟁기의 몸에



단월면 향소리 거리쟁기



단월면 향소리 거리쟁기 개량형 보습



단월면 향소리 거리쟁기 재래형 보습(앞면)



단월면 향소리 거리쟁기 재래형 보습(뒷면)

5) 윤 작

조선총독부의 『조선부락보고서(朝鮮部落報告書)』(1924)의 화전 윤작은 다음과 같다.

연차 토양조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보통	조	팔	조(옥수수)	콩	메밀	휴경
비옥토	조	팔	조(옥수수)	귀리(메밀)	휴경	휴경
부식토	감자	조	콩(팔)	귀리	메밀	휴경
박토	귀리	메밀	귀리	휴경	휴경	휴경

6) 김매기

음력 5~6월중 두 번 댔다. 첫 밭매기를 ‘아이맨다’, 두벌매기를 ‘두벌맨다’고 했다. 아이매기는 ‘양귀호미’, 두벌매기는 호미로 이루어냈다.

7) 거두어들이기

보통 조 한 되에 한 섬이 나왔다.

이렇게 일군 밭을 ‘새밭’ 또는 ‘푸대밭’, 지력이 떨어져 휴경하는 밭을 ‘묵밭’이라고 한다. 중북 안팎에 묵밭을 태우고 일구어 메밀을 갈았다. 이 때의 밭을 ‘메밀자리’라고 했다.

이하 이번에 조사한 화전 관련용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음리에서 푸대기와 푸자리라고 불렀던 나무·풀 베는 시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종면 명달리에서는 ‘칠월비’와 ‘봄비’로 나누어 부른다.

내리갈이는 밭을 강하게 하여 ‘내리카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화전이 아닌 완만한 밭에서는 경사지를 올라가며 밭을 가는데 이를 ‘치갈이’ 또는 ‘거리갈이’라고 부른다. 불을 놓은 후 씨를 뿌리고 복토할 때 이렇게 씨가 파묻히라고 밭을 파는 것을 ‘파개질’이라고도 하였다. 파개질을 해서 고랑을 짓거나 복토를 하는 외에 서종면 명달리에서는 팽이질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때를 떠서 들고 다니면서 파종한 위에 털어 씨앗을 덮기도 하였다고 한다.

명달리에서는 묵혔던 화전을 다시 일군 곳 또는 그러한 행위를 ‘재글루’라고 부르고, 양서면 청계리·징동리·국수리 일부(대아동)의 동유림내 화전의 도지를 정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사하러 가는 것을 ‘화속 잡으러 간다’고 부르는 등도 주목할 만하다.

4. 지역별 현황

1) 양평읍

(1) 양평읍 도곡리 밤나무골마을

도곡리에서도 한국전쟁 전까지는 두레로 논일을 하였다. 도곡리에서는 밤나무골과 가마울이 하나의 두레를 결성하고 간말에서는 별도로 하나의 두레를 결성하여 논농사를 지었다. 양○석(73세)은 “두레는 가입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인데, 농사짓는 사람끼리 하는 원두레와 농사짓지 않는 사람끼리 하는 두레가 있었다. 원두레에 속한 사람의 경우 머슴을 두었으면 머슴이 대신 두레에 참여했다. 두레패의 우두머리는 상쇠라고도 하고 영좌, 좌상이라고도 했는데, 다른 동네까지 가서 하는 큰 두레의 우두머리는 보통 영좌, 좌상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2) 강상면

(1) 강상면 세월리 세심마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로부터 밭보다 논이 면적이 더 많았다고 하며, 현재는 논이 비중이 더 커진 상태이다. 비료가 충분치 않던 시절에는 논을 여러 번 갈아 논을 비옥하게 하였는데, 땅이 풀리면서 바로 시작해서 많이 갈 때는 다섯 번까지도 갈았다고 한다.

또한 비료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인분이 가장 중요한 비료였다. 따라서 외출을 나가다가도 불일이 보고 싶어지면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대석리가 20리길인데, 대석리까지 갔다가도 오줌, 똥이 마려우면 다시 집에 왔다는 거야. 그거 뉘서 거름 하려고……”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내기에는 ‘물이 좋으면’(풍부하면) 5월말에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6월에 많이 심었다고 한다. 늦으면 초복 때까지도 심는 일이 있었다. 세월리에서는 음력 5월 보름께에 심으면 이른모라고 하였으며, 하지에 심으면 중모, 소서나 초복 때까지 심는 것을 ‘늦마냥(晩秧)’이라고 하였다. 늦마냥으로 심으면 한 마지기에 벼 한 가마도 나지 않고 벼 낫 말 정도를 수확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세월리에서는 한 마지기에 벼 한 가마 나는 것을 ‘제꺼풀’, 벼 두 가마 나는 것을 ‘마대’, 벼 네 가마 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였는데, 하지 중모로 심으면 양식 논에서 마대로 수확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바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모내기가 끝나면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아놓고 놀았다.

논매기는 물 사정이 좋으면 호미로 한 번 매고 손으로 한 번을 훑었지만, 두벌매기도 호미

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호미로 매는 초벌매기는 모내기를 한 지 20일 가량 후에 하며, 두벌매기는 초벌 후 15~2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손으로 덩어리를 푸는 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논에 물이 없을 때에는 손으로 만져도 흙이 풀어지지 않으므로 두벌매기도 호미로 하게 된다. 세월리에는 물이 많은 논이 없다시피 하였으므로 두벌매기도 호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세벌매기는 풀이 있는 논만 하며, 풀이 나면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없었다. 이렇게 두 벌 또는 세 벌까지 논을 매면 그 다음에는 피사리를 하면서 수확을 기다린다. 벼 수확은 9월말이나 10월초쯤 했다.

과거 세월리의 밭에서 키우던 주요작물은 보리, 밀, 콩, 들깨, 수수, 조, 팥 등이었다. 보리가 잘된 해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밭을 갈아엎고 그루갈이로 콩을 심지만, 보리농사가 여의치 않았던 해에는 보리 사이로 대우콩을 심었다고 한다. 이 점은 밀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세월리에서 대우치기를 하는 밭과 그루갈이를 하는 밭은 애초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대우치기를 할 것인가 그루갈이를 할 것인가는 그 해의 보리 작황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우치기를 하면 보리를 벤 뒤 보리그루를 호미로 파서 보리그루가 '안백히게'(보이지 않게) 흙으로 덮는데, 이를 '맹이 튼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보리그루가 흙 속에서 썩어 거름이 되므로 콩이 잘된다고 한다. 보리베기는 망종이 지난 직후인 6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콩 수확은 10월이 한창인데, 콩은 여물어야 뽑는 것이므로 그 시기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것 같다.

조, 수수, 참깨, 땅콩의 경우 보통 입하 무렵에 심는데, 가을에 베고 보리를 심기도 하고, 겨울을 쓴 뒤 이듬해 입하 때 다시 심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보리와 밀의 전작(前作) 농사에 대하여 후작(後作)으로 심는 작물을 한 해는 콩, 다른 한 해는 기타 잡곡으로 교체해 나가는 2년 4작 농사가 되는데, 보리 심기가 촉박하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1년 1작의 단작 농사가 된다. 세월리에서 1년 2작(보리와 콩, 또는 밀과 콩만을 번갈아 심는 경우) 또는 2년 4작 농사를 지었던 시기가 1965년경까지였다고 한다. 세월리에서는 밭을 지주에게 얻어서 부칠 경우, 전작이나 후작이나 할 것 없이 지주와 작인이 모두 반반씩 나누는 것이 관행이었다.

화전이 금지되기 전인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월리에는 화전이 많았다. 세주봉 근처의 국유림이 세월리의 주요한 화전터였다. 화전에는 보통 조를 많이 심는데 간혹 팥이나 콩을 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조라는 것이 원래 산의 풀' 이기에 산을 개간한 화전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이다.

화전을 만들 때는 보통 겨울에 초목을 잘라 놓았다가 봄에 불을 지르고 입하를 전후해서 조를 파종하였다. 불을 지를 때는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불깃'을 하였다고 한다. 불깃이란 화전을 만들 자리 주위를 갈퀴로 미리 빙빙 돌려가며 긁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초목이 없는 맨땅이 화전자리 주위에 만들어지며, 화전을 일구기 위한 불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부터 불을 놓아야 한다. 세월리에서는 불깃을 하거나 실제 불을 놓는 일을 보통 해당 경작자 혼자서 했다고 한다.

화전은 보통 쟁기를 집어넣지 않고 팽이로 파서 밭을 일군다. 나무뿌리, 풀뿌리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쟁기날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처음 화전을 개간했을 경우 초목을 태우고 좁씨를 뿌린 다음 팽이로 파 있어서 좁씨와 재가 흙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조와 잡초가 섞여서 돌아나올 때 풀만 뽑아주면 조만 남게 된다. 이렇게 화전을 만들면 재가 많은 곳은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조가 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옛날에 아들 많이 낳으라고 했다는 거라구. 화전하고 조 저내고 하려면 아들이라야 되니까. 딸은 그거 못하잖아?”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확한 조는 입동 때 남가리를 만들어서 건조시킨다.

세월리에는 원래 호리도 있었고 쌍거리도 있었으며, 호리와 쌍거리 모두 논밭 양쪽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한국전쟁 무렵부터 쌍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호리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호리도 쌍거리도 모두 벼이 있지만, 호리는 흙이 한쪽으로 넘어가고 쌍거리는 흙이 양쪽으로 넘어간다”고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세월리 마을회관에는 노인들이 심심풀이삼아 제작한 짚으로 만든 농구와 생활용구들이 쌓여 있었다. 콩을 파종할 때 종자를 넣어 차고 다니는 ‘종다래끼’(‘종다래미’ 또는 ‘짚종대미’라고 부르는 주민도 있었다), 논이나 밭을 갈 때 소가 풀을 뜯어먹어서 작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 입에 채우는 ‘소망’, 각종 크기의 짚신, 그리고 겨울에 심는 장화에 해당하는 ‘두꺼비 짚서기’ 등이 그것이다.

세월리에 거주하는 임○현(72세)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소년시절에 여주로 이주했다가 36세 때 강상면 세월리로 이주해 들어왔다.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집안에 머슴을 두면 일 년 새경이 벼 네 가마(두 섬) 정도였다고 한다. 보통 일 년 세 가마로 계약을 하는데 먼저 한 가마를 그냥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벼 네 가마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벼 한 가마에 10원 하던 시절이었다. 머슴에게는 새경 외에 옷을 주는데, 일 년에 바지저고리 한 벌, 작업복으로 입는 ‘등걸잠뱅이’ 한 벌, 요즘으로 따지면 신사복에 해당하는 나들이옷인 ‘중의적삼’ 한 벌씩을 주었다고 한다. 옷은 부인이 직접 지어서 마련했다.

세월리로 이주해 들어오던 즈음의 6, 7년간은 30마지기의 논을 경작했는데, 그 당시 머슴의 새경은 벼로 여덟 가마(쌀 네 가마) 정도로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리 이주 이후 5~6년간 일꾼을 두었으나 이후로는 농사량을 줄여 일꾼 없이 농사를 짓게 되었다. 머슴들은 사랑방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3년간 있었던 것이 오래 머문 경우였으며, 뜨내기 일꾼들은 몇 달만 살다가 가기도 했다. 여자들은 보통 밭매는 일 등을 품으로 얻어서 했다. 품팔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흘을 일하면 쌀 한 말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를 두고 ‘쌀 한 말에 품 셋이다. 넷이다’라고 말했다.

(2)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

연양마을의 밭에서는 보리를 베기 전에 후작으로 콩을 심는 대우치기를 하였다. 대우콩을 심는 시기는 보리농사가 잘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었고, 그 시기는 하지 무렵이 되는데 보통 하지 전에 이루어졌다. 대우치기를 할 때는 밭을 따로 갈지 않고 보리밭 고랑 사이의 두둑을 호미로 파서 콩을 한 줄로 심어 나간다. 호미로 판 구멍에는 콩을 서너 알씩 넣으며, 콩밭 두둑의 폭은 30~40cm가 된다.

보리를 베어낸 뒤 호미로 대우밭을 매는데, 이를 '맹이 튼다'고 한다. '맹이 트기'는 흙으로 풀을 덮어나가는 것인데, 보통 호미를 사용한다. 화양리 일대에는 양귀호미가 없다. 한편 화양리에서 '북 준다'는 말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땅 속에 열매 맺는 식물이 노출되지 않게 흙을 보태주는 말로 인식하고 있었다. 콩은 입동 전 상강 무렵에 수확하였다. 보리를 재배하지 않게 되면서 대우치기 역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보리밭갈이는 콩을 수확한 후 바로 한다. 보리를 파종한 후 고물개로 끌어서 고랑을 덮는데, 복토작업 후 보리밭은 거의 평탄한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된다. 보리는 망종 무렵에 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망종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다 베어야 했다. 가을에 화양리의 대우밭에 파종하는 보리는 '중보리' 품종이다.

3) 강하면

(1) 강하면 운심리 운포마을

운포의 농업은 밭농사의 비중이 컸는데, 팔당댐 건설 과정에서 하천변의 경작지가 수몰됨으로써 당시의 밭은 거의 모두 없어졌다. 밭에서는 보리와 밀을 전작으로 하고, 이를 벤 자리에 조를 심는 것이 대중이었으며, 조 외의 여름 잡곡농사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이에 대해서 "콩은 산골에서나 하지 좋은 밭은 콩을 심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운포를 '제2의 북간도'라고 농담삼아 불렀다고 한다. 북간도가 조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60년대부터는 밭에서 배추농사를 많이 하였다.

밭에서의 곡식농사가 활발하던 무렵에는 하지에 보리를 베고 바로 조를 심는 그루같이 농사를 하였으며, 조밭의 김매기는 초복에 애벌을 매고 중복에 두 벌을 매었다고 한다. 조 수확 시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이다. 조와 벼는 수확시기가 같았기 때문에, 이때쯤이 되면 "벼 베랴, 조 베랴,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보리밭의 제초작업은 봄에 괭이로 북북 긁어주는 정도로만 하였다.

운포에서는 적어도 76~78세 된 노인들이 기억하는 한 과거에도 겨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며, 주민들은 "두 마리 소로 끄는 쟁기는 강원도 산골에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논이나 밭에서 조를 갈 때나 보리를 갈 때나 쟁기는 동일하다. 단 갈이방법에서 '조밭

을 갈 때는 두렁을 짓지만 보리밭을 갈 때는 풀을 짓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두렁을 지을 때는 '네거우치기'나 '다섯거우치기'를 하는데, 다섯거우치기는 두둑을 넓게 하기 위해서 네거우치기를 한 위에 한 번 더 떠서 두둑을 넓히는 것이다.

논농사의 경우 양력 6월 10일경이던 모내기의 '이른 심기' 시기가 1972년쯤 통일벼가 나오면서 6월 3~5일경으로 당겨졌다. 과거에는 모내기를 하고 한 달 후인 7월 10일경 초벌을 댔으며, 두벌매기는 보름 후인 7월 25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운포에서는 두벌만 매는 것을 보통으로 알았다.

(2) 강하면 성덕리 성촌·아주·대곡·덕촌마을

성덕리에는 일제시대부터 밭보다는 논농사가 많았고, 밭은 화전밭이 많았다. 화전밭을 제외하고 논밭 비율을 따지면 논이 3분의 2, 밭이 3분의 1 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성덕리에서는 논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친다. 밭의 주요작물은 보리, 밀, 콩, 조, 수수이고, 이 외에 들깨, 참깨, 목화 등도 재배했다. 조는 화전에서 많이 심으며, 평지밭에서는 콩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960년대까지는 모내기를 양력 5월 20일부터 시작하였다. 모내기는 한 달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보통 6월 10일경까지 끝내며, 6월 20일이 넘으면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한다. 가장 늦게 모내기를 하는 경우 칠월 칠석까지 내보았다는 주민도 있었다. 초벌매기는 '애머리'라고 부르는데, 모내기 후 30~40일이 지난 시기에 한다. 두벌매기는 손으로 흙치는데 초벌매기로부터 20~30일 지난 음력 7월에 하였다고 한다.

논매기는 두레로 하였다고 하는데, 두레와 품앗이의 차이를 묻자 '두레도 품앗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논을 매러 다닐 때 '쟁이'를 치고 다니는 것이 두레인데, 두레패에 들어있는 사람끼리는 품앗이로 논을 매고, 두레패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 논을 매달라고 부탁을 하면 두레패가 그 사람의 논으로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레도 품앗이라는 것이다. 이때 얼마를 내놓는가는 그때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가령 날이 가물면 힘 있는 사람이 파도 파지지 않을 정도로 논이 굳어지기 때문에 돈을 더 받게 되고, 또 논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역시 품값을 많이 주어야 일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레패는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될 때가 있었지만 보통 12명 정도의 인원이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쟁이'는 쟁과리가 들이고(상쇠, 부쇠), 나머지 징, 장구, 북, 호적은 하나씩, 제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으며, 나머지 인원은 범고(소고)를 들었다고 한다. 이외에 '깃대잡이'가 한 명 있었는데, 깃대는 보통 사람을 들고 있다가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힘이 장사인 사람이 들었다. 크기는 '장치(길이)가 6~7m, 폭이 2m 정도였다고 한다. 두레패에서 결산하는 날을 '호미씨세'(호미씻이)라고 하였는데, 보통 음력 7월말에 개최하였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크게 노는 날로, 논매기는 그 전에

끝나지만 다른 급한 농사일을 마무리하면 이때가 할 만한 때였으므로 7월말로 날을 잡았다.

밭농사에서 그루갈이와 대우치기 중 어느 쪽이 주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 혼선을 빚었다. 결국 정리된 것은 “그루갈이를 하는 밭과 대우치기를 하는 밭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밭에서도 대우치기를 하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그루갈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대우치기의 시기는 음력 5월 20일경이며, 이 시기를 놓쳐서 그루갈이로 콩을 심게 되면 6월초에 파종하였다.

대우치기를 할 경우 보리를 베고 나서 애머리(초벌)매기를 하는데, 이때는 호미로 매면서 보리뿌리를 뽑는다. 애머리 밭매기는 콩을 심은 뒤 20일 이내에 하며, 두벌 밭매기는 다시 애머리 뒤 20일 이내에 하였다. 콩 수확은 음력 9월초이며, 콩을 뽑고 바로 밭을 갈아서 보리를 파종한다. 보리밭매기는 음력 3월에 아무 날이나 정해서 하며, 한 번만 맨다. 보리는 망종 지나고 보름에서 20일 후에 베는데, 하지가 보리타작의 적기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3) 강하면 향금리 향금마을

향금리에는 예나 지금이나 논농사가 많다. 모내기에는 망종 무렵인 음력 5월말이 한창이다. 하지 전후 삼일이 평년작을 기대할 수 있는 모내기의 마지막 시기였는데, 하지에 모를 내도 ‘만양(晩秧)’이라고 하였다. 이○완은 1951년에 음력 칠월 칠석에 모내기를 하였는데 이때는 평년작의 10% 정도를 거두었다고 하며, 이○수는 소서 때 벼이삭이 나온 것을 자르고 모내기를 해보았는데 반수확(13가마 내던 곳에 8가마가 나왔다고 함)이 나왔었다고 했다.

향금리에서는 손으로 훑치는 것까지 포함하여 두 벌을 매고 피사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초벌매기는 모내기 후 한 달 시점에, 두벌매기는 초벌 후 다시 한 달 시점에 하며, 이후의 피사리는 수시로 하였다. 벼베기는 음력 8월 20일경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향금리에서 한 마지기는 200평인데, ‘고논’(물이 많은 논)으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은 한 마지기에서 벼로 3가마 반 내지 4가마(두 섬)를 수확하며 이를 ‘양석논’이라고 하였다. 한 마지기에 두 가마(한 섬)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다음 등급의 논을 ‘마대’라고 하며, 그 이하의 논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없다.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는 전작으로 밀과 보리, 후작으로 콩, 팥, 들깨 따위를 주로 심었으며 일부 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하였다. 전작의 경우 좋은 밭에서는 보리를, 약간 떨어지는 밭에서는 밀을 주로 심었으며, 따라서 보리밭에서는 계속 보리만 심고 밀밭에서는 밀만 계속 심는 것이 보통이었다. 향금리 전체로 따져서 보리밭과 밀밭의 비율은 6대 4 정도였다고 한다.

이때 보리밭은 원칙적으로 보리를 베고 콩을 심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그루콩’이라고 하였다. 보리와 밀은 파종시기가 같지만 수확시기는 밀이 보리보다 늦기 때문에, 밀밭에서는 전작을 베기 전에 후작을 심는 ‘대우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후작에서 밭을 매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손이 되는대로 또는 김이 나는대로 매었다.

4) 개군면

(1) 개군면 구미리 후미개마을

구미리에는 원래 논이 없다시피 하였다. 밭에 심었던 곡식은 보리, 콩, 고추, 참깨, 팥 등이었다. 보리를 베고 콩을 심으면 늦기 때문에 콩은 보리 속에서 대우치기로 심는다.

전작농사를 하지 않은 밭에서 콩만을 심는 경우 '(음력)삼월갈이'라고 해서 음력 3월에 콩을 많이 심었다고 하였다. 그래야 콩이 잘 여물기 때문인데, 파종시기는 음력으로 3월 10~15일경이 된다. 후작으로 대우치기를 할 경우, 망종이 5월에 많이 드는데 망종 안에 심어서 망종 안에 콩이 나와야 한다.

콩밭을 매는 시기는 해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심은 지 15~20일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 풀이 없으면 한 달 가량 있다가 매기도 한다. 콩밭을 벨 때는 보리그루가 땅에서 7, 8cm쯤 올라와 있는데, 손이 풀에 닿아서 일을 하다보면 몹시 쓰렸다. 주민들은 "옛날에는 호미질을 하도 많이 해서 손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면서 일이 힘이 들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콩밭을 두 번째 매는 시기는 첫 번 매고 보름 정도 지난 후인데, 이때는 긁어주기만 한다.

콩밭의 김매기는 소가 있으면 극쟁이로 타기도 하였다고 한다. 즉 콩을 심은 뒤 콩잎이 나와서 20~25cm쯤으로 자라면 소로 보리그루를 갈아서 복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로 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호미로 만지작거려야 했다. 보리 파종은 콩을 뽑고 나면 바로 고랑을 캐서 하였다. 극쟁이로 콩밭에 김을 매는 것에 관하여 주민들은 '겉기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연자방아 돌리는 것을 '굴기질'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마을에는 연자방아가 하나 있었는데, 연자방아를 이용하는 샅은 한 가마를 쪼으면 반 말 정도를 냈다. 마을에는 디딜방아도 두 대가 있었고 이것으로 도정작업을 하면 샅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연자방아로 하면 많이 쪼을 수 있으므로 샅을 내더라도 연자방아로 쪼게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나온 기름으로 돌리는 방아는 '뚝뚝이방아'라고 했는데, 보리쌀 한 가마를 쪼으면 한 말씩 샅을 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디딜방아로 쪼으면 샅도 내지 않고 좋지 않은가 하고 묻자, 보리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었다. 보리라는 것이 겉은 멀쩡해도 '바금'이 속에 들어가 생기는데,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먹은 다음 나중에 껍데기를 뚫고 나온다고 한다. 방아를 쪼기 전에 보리를 조금 덜 말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 덜 말리면 아무래도 바금이 더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바금이 생기기 전에 타작하려고 미리 쪼어놓는다는 것이다. 쌀의 경우 "전에는 두고 먹을 만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놓아두고 어찌고 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람을 불러 품일을 시킬 때는 목수의 경우 하루 한 말, 목수 밑에서 심부름하는 '되모이'는 하루 반 말, 토역쟁이는 하루 한 말, 토역하는데 진흙 대주고 심부름하는 사람은 하

루 반 말 정도를 받았다. 쌀 한 말 가져다 먹고 사흘, 나흘씩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어려울 때는 닷새, 엿새 해야 한 말을 받았고, 나이 어린 사람은 6, 7일 일을 해야 쌀 한 말을 받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있는 집에 가서 눈 쓸어주고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을 때”의 이야기이다. 장리쌀은 한 가마 가져다 먹으면 닷 말을 보태서 줬는 것이다.

옛날에 구미포에 양반들이 살던 시절에 종이 와서 밥을 먹는데 주인은 쌀밥을 먹고 종은 보리밥을 먹었다. 하루는 주인이 밥을 주는데 보리밥에 쌀이 한 알 섞여 들어왔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종은 그 쌀을 밥상 위 천정에 매달고는 “너 어떻게 양반이 쌍놈한테 왔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회초리질을 하였다. 종이 자기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양반이 보고 기가 막혀서 나중에는 조금씩 쌀을 섞어서 주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후미개에 사는 김창○(74세)가 그의 아버지가 본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라고 한다.

(2) 개군면 상자포리 웃자진개마을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에 상자포리의 경작지는 면적으로 보아 논이 3분의 2, 밭이 3분의 1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한다. 모내기는 날이 가물면 6월말이나 7월초까지도 늦어지는 수가 있었는데, 보통 7월에 들어서면 ‘마냥’이라고 하였다. 적기파종은 6월 중순까지를 제일로 치지만 보통 6월 안이면 적기파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지까지도 대체로 적기파종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논매기는 모내기 후 20일이 지나서 ‘아이’, 즉 초벌매기를 하며 이는 호미로 한다. 두벌매기는 아이 뒤 다시 20일이 지난 시점이 되며, 상자포리에서는 보통 두 벌은 손으로 훑치고, ‘세 벌은 피사리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벼 수확은 양력 11월 15일경이 되었다고 한다.

과거 상자포리에서 밭농사의 전작(前作)으로는 보리와 밀을 재배하였는데, 보리가 전체 밭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보통 보리는 땅이 좋은 곳이 잘 되고 밀은 토박해도 잘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리와 밀의 후작(後作)으로는 콩과 조, 수수, 메밀 등을 심었다. 그리고 보리밭에서는 콩을 대우치기로 재배하며, 밀밭에서는 후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우로 콩을 심으면 풀이 적게 나고 따라서 품이 적게 드는 반면, 그루갈이를 하면 풀이 많이 나서 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심는 시기가 느리기 때문에 대가 여리게 나서 작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사정이 좋지 않아 대우치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모를 심을 때와 겹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우콩을 미쳐 심지 못하면 그루갈이로 콩을 파종하였다.

주민들이 ‘골타기’라는 말을 쓰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건 대우치기를 할 때 골을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수확을 앞둔 보리그루 사이에서 콩을 파종하기 때문에 엮드리다시피 하여 골을 ‘타고’ 다닌다는 것이다. 대우치기를 하는 시기는 양력 6월 초였으며, 보리의 수확은 대우치기 후 20일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우치기를

한 뒤에 모내기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콩밭매기는 보리를 벤 뒤 콩이 20cm 정도 자랐을 때 하였다. 보통 보리를 베고 20일 정도 지난 시점이 된다. 콩밭매기는 두 번을 매면 좋지만 한 번 매는 사람도 있고 두 번 매는 사람도 있어서 대중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밭에 대한 도지는 일년일작을 하거나 일년이작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한 번을 냈다고 하며, 보통 겉벼 또는 겉보리로 남입하였다고 한다. 박용○(85세)은 “그래서 노력 하나 지으면 하나 더 나오는 게 농사”라고 설명을 달았다. 상자포리에는 화전은 거의 없었다.

박태○(73세)·이○순(73세) 부부는 ‘먹고 살 만큼’인 3,000평 정도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남의 땅도 조금씩 짓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랑채에 머슴을 두고 일을 시켰다. 나무를 해오거나 여름에 논두렁 깎는 일도 도맡아 했고, 집안 허드렛 일들도 도와주었다. 당시는 ‘살 만하다 싶은 사람’은 다 일꾼들을 두고 살았는데, 이 태에서 머슴에게 벼 5가마를 새경으로 주었다. 쌀로 2가마 반 정도가 되는데, 여름에는 일하는 옷인 등걸잠뱅이 두 벌과 중의적삼 한 벌, 겨울에는 솜바지저고리 한 벌을 해주어야 했다. 대체로 이들은 1년도 못살고 떠나가는데, 연고가 없는 노인네는 집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 솜바지저고리 두서너 벌을 해주어야 한다. 한번은 나이가 좀 많아 50살이 넘는 일꾼을 둔 적이 있는데 일하다가 돌아가서 물어주고 벌초까지 해준 적이 있다고 한다. 할머니가 점을 보니 자식 없는 사람 벌초해 주면 좋다더라는 점괘도 나왔었다고 한다. 이북에서 온 노인이었는데 살아 있을 때 이 집에서 일한 기간은 3, 4년 정도였다.

5) 단월면

(1) 단월면 보룡리 한터마을

보룡리의 밭에서는 비가 많이 오든지 해서 보리가 쓰러지면 베고 소로 갈아서 그루갈이로 콩을 심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기 전에 콩 대우를 쳤다고 한다. 따라서 대우치기가 원칙이다. 콩은 호미로 땅을 파면서 심는데, 파종시 파종할 콩을 넣는 용기인 ‘대우종대이’는 앞으로 찬다. 옆으로 차지는 않나고 묻자, 옆에다 차면 다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콩만 단작으로 재배할 경우 콩 세 둔덕에 옥수수 한 둔덕씩을 심는 집도 많았다.

콩밭을 맬 때 초벌은 호미로 파서 덮는 식으로 매고, 두 벌은 보리그루를 캐면서 잡아 뽑는데, 콩이 이미 컸을 때는 극쟁이로 끌었다고 한다. 올콩은 6월에 수확해서 ‘유두’라고 이름이 붙은 콩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음력 9월 중순에 수확한다.

보리는 일찍 갈아서 파종할수록 뿌리가 깊어지며,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겨울에 덜 얼기 때문에 좋다. 보리를 심을 때는 씨를 뿌리고 그 위로 재를 뿌려 덮는데, 재를 많이 뿌리면 날이 추워도 덜 얼어죽는다. 보리고랑은 고물개로 덮었다.

(2) 단월면 덕수리 백동마을

백동에서는 1992년에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물이 귀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논바닥에 물이 많아 수렁이 지는 ‘고래논’을 좋다고 했는데, 기계로 논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기계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봄논에 물을 대는 보는 해마다 장마가 지면 쓸려 내려가므로 봄에 새로 수축을 해야 했다. 보는 개울에 비스듬하게 나무를 놓고 거기에 물이 흘러오는 쪽에 솔가지를 걸쳐놓는다. 비스듬하게 놓는 통나무는 아무 나무나 곧은 나무면 된다. 한 사람이 논을 여러 마지기 할 경우에 한 보에 다른 보작인이 없는 수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 혼자 보를 만들었다. 백동에 있는 보의 경우 혼자 해서 이를 걸릴 정도의 일이었다.

백동에는 그루갈이와 대우치기 모두 했다고 한다. 밭농사를 잘 하려는 사람은 보리밭 곶랑으로 콩을 심었다고 하여 대우치기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는 콩을 ‘대우백이콩’이라고 불렀으며, 흰콩이고 올콩(조생종)이었다.

밭에 호밀(주민들은 ‘호기리’라고 부름)을 심을 경우 수확기가 7월쯤으로 늦기 때문에 후작으로는 메밀밖에 할 것이 없었다. 호밀 사이로 대우치기를 하여 콩을 심을 경우 호밀을 벨 때쯤이면 호밀 그늘에서 콩이 너무 커버리므로 호밀을 베고 나면 콩이 쓰러지고 만다. 그래서 호밀밭에는 메밀을 심고 보리밭에는 콩을 심는 식으로 작부체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 경우 호밀을 심고 이어서 메밀을 심는 것보다는 보리를 심고 콩을 심는 것이 나았다. 곡가도 곡가지만, 콩은 콩국수나 콩죽도 해먹는 등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밭이 나쁜 곳에만 호밀을 심었다. 호밀은 여름에 양식이 떨어질 때 수제비국을 해서 먹는다.

백동의 화전에서는 첫해에는 봄에 나무를 베거나 쳐서 말려놓고 초여름에 불을 놓아서 보통 메밀을 갈았다고 한다. 이듬해부터는 조도 심고 콩도 심고 보리도 심는데, 조가 제일 잘되었다.

백동에서도 일제시대까지는 겨리로 갈았는데, 한국전쟁 후 호리 또는 왜쟁기로 갈기 시작했다고 한다. 겨리쟁기는 보습과 벼를 때었다 달았다 할 수 있었는데, 화전을 갈 때는 벼를 달지 않고 평지를 갈 때는 벼를 단다.

소가 없는 사람이 소를 빌리고 일로 갚는 ‘소품앗이’를 할 때는, 겨리의 경우 소가 두 마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품으로 한 마리당 하루씩 이틀간 일을 해서 갚는 것으로 계산했다. 겨리쟁기를 부릴 줄 아는 ‘센 일꾼’까지 부를 경우 품값으로 하루를 더 하므로, 하루 겨리쟁기를 돌리고 사흘 일을 해주어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소 있는 사람은 소만 돌려도 일 년 농사가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겨리쟁기는 항상 좌측으로 도는데, 겨리쟁기를 끄는 소 중 ‘안소’는 항상 좌측에 서는 소이고, ‘마라소’는 항상 우측에 서는 소이다. 안소는 바깥에 서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안에 세우고, 마라소는 돌 때가 되면 항상 부지런히 돈다. 힘의 차이는 없다고 하며, 오히려 소는 힘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였다. 힘센 놈이 먼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단월면 덕수리 덕수터마을

덕수터는 원래 50%는 천수답이고 50%는 보답이었다. 거의 300m 간격으로 방천이 있었고, 덕수천을 따라 단월면에만 12곳의 보가 있었다.

보를 만들 때는 우선 2, 3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운다. 기둥의 수는 하천을 가로질러 십여 개가 된다. 다음 기둥들 사이로 가로대를 건다. 다시 가로대에서 45° 각도로 상류방향으로 나무를 기댄다. 기대는 나무는 바닥에 놓이는 상류방향으로 나뭇잎 부분이, 가로대에 걸치는 하류방향으로 뿌리 부분이 가게끔 기댄다. 보는 대체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세우며, 보의 높이는 상류측으로 올라간 쪽이 높고, 하류측으로 내려간 쪽이 낮다. 가장 낮은 쪽은 구멍만 내놓고 돌을 많이 쌓아야 한다. 나무를 세운 뒤에는 크고 작은 돌과 개천에 있는 자갈모래를 끌어다가 보의 위아래로 쌓아 보를 보강한다. 보를 쌓을 때는 보담을 경작하는 보작인들이 봇논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한 집에 한 명씩 나와서 일을 하는데, 보통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여기저기에 논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 세 개 정도의 보에 관계하게 된다. 덕수리 앞의 덕수천에 보 하나를 만드는 데는 삼 일 정도 걸린다. 보가 유지되는 기간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보강공사를 해야 하기는 했지만 한 번 만들면 5년씩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며, 그 위로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로도 활용했다고 한다. 1970년대부터는 시멘트로 보를 만들게 되었다.

덕수터에서는 이러한 보를 '방천'(防川)이라고 부르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덕수천변의 다른 단월면 주민들은 방천이 하천의 공격사면에 홍수가 나도 독이 터지지 않도록 나무를 세워 제방을 보강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앞서 보를 방천이라고 불렀던 주민은 암거(暗渠)를 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보는 암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마을에서는 '음퐁'이라고도 부르는 수리시설이다. 암거를 만들 때는 우선 개울바닥을 가래로 물 흐르는 방향에 비스듬하게 파서 골을 만든다. 이를 '쨌다'고 한다. 그리고 쨌 골의 양옆으로 돌을 늘어세우고, 골 양쪽으로 늘어선 돌 위에 걸쳐서 '소나무등걸이'를 나란히 놓아 나간다. 소나무등걸이란 패지 않고(쪼개지 않고) 길이가 두 자 정도 되게 자른 지름 15cm 정도 되는 목재를 말한다. 암거는 덕수리에 4개가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아시안게임 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암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세 명이 있어야 한다. 땅을 파고 메우고 하기 위해서 가래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거 하나를 만드는 데 보통 이삼 일이 걸리는데, 일꾼이 많으면 그만큼 암거의 규모도 커지고 일손도 많이 필요하므로,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일꾼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 이삼 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보는 물이 상시 흐르는 곳에 만드는 반면 암거는 물이 흐르지 않거나 조금만 흐르는 곳에 만든다는 차이가 있다. 한 주민은 암거가 "실은 개울바닥의 지하수를 빼내는 셈"이라고 설명하였다. 암거로부터 하천 기슭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서 다시 300m 가량 도랑을 빼는 것

은 암거에서 물이 빠지는 지점의 바닥 높이가 몽리답의 가장 높은 곳보다 높아야 논에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4) 단월면 산음리 산대마을

산대에는 예전에 논이 없었고, 주민들은 “전지를 개간해서 마을이 커진 것”이라고들 하였다. 특히 산에 나무를 베고 화전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 1960년대 말에는 280~30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하며, 화전을 금지하고 화전민을 이주시키면서 다시 마을이 축소되었다.

산대의 전작(前作) 농사는 보리가 많았고, 밀은 그 사분의 일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보통 보리 서 말 하면 밀 한 말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메밀은 곡식이 잘 안되어 묵혀두었던 밭에 주로 심었다. 이때는 7월초(초복 무렵)에 한 번 갈고, 중복 즈음에 다시 한 번 갈아서 파종한다. 두 번이나 가는 이유는 밭이 늦도록 묵어 있어서 풀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이다.

화전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것은 이른봄에 하기도 하고 겨울에 해서 말리기도 하는 등으로 대중이 없었다. 화전에서는 조를 많이 재배했는데, 화전을 처음 일구면 조를 심고, 그 다음에는 콩을 심었다. 그러면 땅이 그을어서 낮게 되니까 다음해에는 다시 조를 심는다. 그렇게 해를 번갈아가며 조와 콩을 심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밭을 갈 때 비탈진 곳은 팽이로 밭을 일구고, 어느 정도 완만하면 소로 갈았다. 팽이로 일굴 때는 꼭대기에서부터 고랑을 만들며 내려오는데 이를 ‘내리카리’라고 한다. 소로 한 번 가서 골을 켜는 식으로 가는 방법은 ‘골치기’라고 불렀다. 콩, 옥수수, 팥 등을 심는 봄밭갈이는 밑에서 위로 ‘치간다’. 보리를 심는 시기는 상강 전 한로 때인데, 고랑을 깊게 하는 ‘골밭갈이’를 하기 때문에 ‘내려 간다’. 내려 갈면 간 흙이 아직 갈지 않은 맨 땅에 떨어져서 새로 갈리기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치갈면 먼저 간 곳이 갈아올린 흙으로 다시 메워지기 때문에 골이 얕아진다.

봄밭갈이는 양력 4월초부터인데, 호리로 갈면 땅이 깊이 패이지 않고 두 바리(마리)로 갈면 보습이 크니까 깊이 갈리고 김도 덜 나고 곡식도 낮게 된다. 따라서 밭은 두 바리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산골에는 경사가 많이 졌으니까 겨리를 오래도록 쓰게 되고, 평야지대는 밭전도 되고 호리로 갈아도 되니까 겨리가 없다.

보리밭갈이는 고랑의 폭도 ‘자가웃’(한 자 반), 두둑의 폭도 자가웃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말엽 ‘개랑보리’를 갈게 되면서부터는 고랑 폭이 두 자가 되었다. 소로 간 다음 고랑을 팽이로 고르기 때문에 고랑폭이 넓어지는데, 밭이 좋은 곳이나 개랑보리를 하지, 산골에는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 특히 경사가 진 밭은 고랑을 넓게 할 수가 없다.

비료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논에 갈을 꺾어서 넣었는데, 가지째 꺾는다. 소만 때 꺾어서 논에 퍼고 소로 끄는데, 갈로 쓰는 수종은 소나무만 빼면 다 할 수 있었다. 소나무는 거름도 덜

되고 기르는 나무라 베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 갈을 꺾는 일은 힘이 들기 때문에 품값은 일반 품값의 곱을 쳐준다. 퇴비는 논밭에 모두 한다. 잘하는 사람은 7월에 풀을 베서 쌓았다가 퇴비를 만들어 밭에 퍼는데, 밭에도 하고 논에도 한다.

밭에서 콩을 거둔 후 보리밭을 갈면 하루 정도는 묵는 일도 있었지만, 보통은 당일 갈아 당일 일에 심었다. 보리를 파종하면 고물개로 덮는다. 고물개는 폭이 두 자, '고'(높이)는 일곱 치 정도인데, 구멍을 뚫어서 잡아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둑의 높은 부분을 끌어서 잡아당기면 흙이 고랑으로 떨어져서 파종한 씨가 묻힌다. 고물개로 덮고 나면 두둑과 고랑의 높이 차이가 한 치나 두 치 정도가 된다.

보리밭은 겨울을 난 뒤 봄에 호미로 김을 매는데, 그렇게 하면 보리 고랑에 흙이 더 들어간다. 따라서 봄에 보리밭을 매는 것은 김을 매는 역할만 아니라 보리에 복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두둑의 흙이 고랑으로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김을 매고 비가 오고 나면 두둑과 고랑의 높이차가 더 줄어든다. 그래도 두둑이 조금 더 높다. 보리는 망종 때 보리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망종이 지나고 수확하는데, 얼마를 지나서 할지는 해에 따라 다르다. 주민들은 "아래(남쪽)는 망종 때 보리타작이 한창인데, 여기는 하지 밑(전)에 늦은 보리타작을 끝낸다"고 하였다.

후작(後作)으로 콩을 심을 때 나중에는 보리를 베고 심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보리 골 속에 심었다. 대우콩을 심을 때는 보리밭의 두둑을 호미로 파고 씨를 넣고 다시 호미로 덮는다. 콩을 심고 보리를 베고 콩잎이 나면 아이김을 맨다. 그리고 나서 보리를 벤 고랑을 소로 갈아 콩에 복을 주면 콩도 잘 나는데, 이를 '글기질' 이라고 한다. 글기질을 할 때는 소가 콩잎을 뜯어먹으니 소의 입에 '소망' 을 씌우고 하게 된다. 콩밭의 김매기는 보리를 베고 손이 되는 대로 하는데, 보통 콩대우치기, 보리베기, 아이김매기, 글기질이 모두 열흘 정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루갈이를 하면 보리를 베고 보리 두둑을 갈아서 콩을 심을 두둑을 만드는데, 보리그루가 묻히면 거름도 되고 해서 이점이 있다. 산음리에서는 한국전쟁 전에는 대우치기를 하다가 한국전쟁 후에 그루갈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농업전환의 원인을 올콩 종자가 나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을 한 주민은 곧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를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달았다.

콩 수확은 뽑든지 꺾든지 손으로 한다. 조금 이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한로 때가 콩 수확기의 중심시기가 되었다.

모내는 시기는 단월이 양평읍내보다 빠르는데 산대에서는 보통 소만 때 시작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소만에서 한 20일 정도 지나서 쪼이 모내기 철이다. 모내기는 물이 없으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물이 대지지 않으면 논을 묵혔다. 산대의 윤○정(68세)은 비를 기다리다가 논을 묵히게 되는 시점은, 양평은 소서까지 모내기를 하지만, 산음리는 망종이 기준이 된다

고 하였다. 산음리에서도 망종 지나서 소서까지도 심는 경우가 있지만 반수확도 얻지 못했다.

‘대두레’로 논을 매는 것은 한국전쟁이 나고 3년 정도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하다말다 했던 것 같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였다. 대두레의 우두머리는 ‘영좌’인데, 영좌는 내논네논 없이 논을 맬 때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분을 말한다. 대두레에는 영좌 외에 총무가 있다. 아 이논 매는 것은 대두레로 하면 일끝이 빠르는데, 하다 안하다 했던 것은 두레를 하다가 싫증이 나면 그해에는 안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윤○정(68세)은 두레는 한 사람 앞에 닳 마지기씩은 ‘차고 들어가고’(공평하게 매고) 나머지는 매는 값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산대에서 두레를 하던 시절에는 닳 마지기에는 차고 들어가고, 더하는 논이 두 마지기면 술 한 동이를 내고, 네 마지기면 점심이나 저녁 밥 한 끼를 내었다고 한다. 영좌님이 “오늘은 누가 점심을 해 오너라”, “누가 점심에 술 가져 오거라” 하면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남는 논이 있으면 돈으로 내는데, 돈을 내면 두 마지기에 한 사람 하루 품값을 냈다고 한다. 그는 품값이 하루에 흰 쌀 닳 되었을 때 두레로 논을 매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또 그는 아랫녁은 대두이지만 여기는 소두기 때문에 여기 쌀 두 말이 아랫녁의 쌀 한 말이 된다고 하였다.

(5) 단월면 산음리 고북마을

화전에서 불이 더 퍼지지 않게 풀을 퍼뜨려 놓는 것을 ‘불깃한다’고 하였다. 낮에는 불길 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어두워야 불을 놓았다. 보통 낮으로는 조그만 나무를 찍어내고 큰 나무는 톱이나 도끼로 자르는데, 주로 톱을 많이 사용하였다. 불을 놓은 후 씨를 뿌리고 복토를 하는데, 씨가 파묻히라고 밭을 파는 것을 ‘파개질’이라고 하였다.

고북에 살고 있는 김중○(68세)댁에는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구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중 거리쟁기는 남편이 경운기를 부리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밭을 갈 때 사용하고 있다. 논을 갈 때는 경운기를 얻어서 쓰고 있다고 한다. 대우치기를 할 때 콩씨 따위를 넣고 작업하는 용기를 ‘대우종댕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하나만 차고 작업하지만 콩밭 사이로 다른 것을 심으려면 두 개를 찬다고 한다. 아랫면의 넓이는 18.0cm×9.0cm, 높이 18cm, 타원형인 윗면은 긴 쪽의 지름이 15.0cm였다.

광주리는 시집을 때 지평에 사시던 친정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인데, 윗지름 67.5cm, 아랫지름 60.5cm, 높이 20.3cm이다. 쇠죽을 주기 위한 ‘쇠물구박’(쇠죽구박)은 재료인 버드나무를 아주머니가 구하고 마을에서 그런 일 잘하기로 유명했던 이상○에게 부탁하여 만들었다. 이상○은 산음리에 살았는데, 이사 가고 지금은 살지 않는다. 일을 한 품값으로 수고비를 주었는데, 얼마를 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무절구는 도끼로 속을 쪼고 ‘까귀’로 속을 깎다가, 깎아낸 나무 속을 없애기 위해 불을 놓아가면서 만든다. 절구공이(‘절구꿍이’)의 재료로 사용하는 나무는 뿌리 쪽이 무겁고 가지

쪽이 가벼운데, 뿌리 쪽은 공이의 '뿌리'라고 하고, 가지 쪽은 '수마리'라고 한다. 뿌리는 떡 가루와 고추 등 젖은 것을 부술 때 사용하고, 수마리는 보리를 '엮치는' 등 마른 것을 부술 때 사용한다. 보리를 '엮친다'는 것은 보리를 넷이나 다섯으로 쪼개는 것을 말한다. 절구공이의 전체 무게는 3.6kg이며, 공이뿌리의 머리지름은 9.5cm, 수마리의 머리지름이 8.5cm였다.

(6) 단월면 산음리 수청마을

화전에 나무를 베고 불을 놓는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백석○(67세)는 "전에는 대부분 봄에 베었다. 관청이든 개인이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는 것은 아니다. 음력 3월 그믐께나 입하 전에 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놓는다. 이를 '화전불 놓는다'고 하는데, 화전불을 놓을 때는 합동으로 가서 놓고는 했다.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처럼 하는 것이다. 모두들 손에 갈퀴, 낫, 쟁이 등을 가지고 가서 불을 놓는데, 화전을 만들기 전에 특별히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따위는 없다"고 하였다. 이병○(59세)는 "화전은 잡목이 서 있는 곳을 깎아서 만든다. 봄에도 베고 가을에도 베는데, 부지런하고 살림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가을에 베어서 말려서 불을 놓고, 없는 사람들은 봄에 닦쳐야 겨우 베었다. 봄에 베는 것은 '푸자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나무베기는 낫과 톱으로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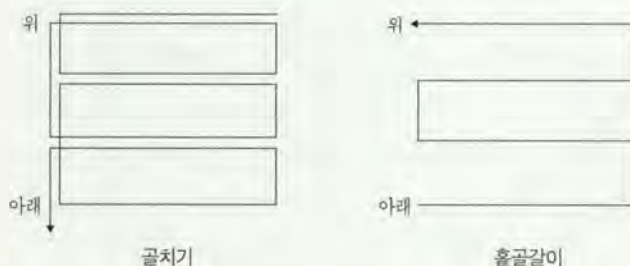
한 번 화전을 일구면 '거름기 있는 대로 해먹으려면' 3, 4년은 하게 된다. 그 후에는 놓아 두었다가 다시 불을 놓아서 화전을 일구게 되는데, 화전을 하던 막바지 시기에는 비료가 나왔으므로 비료를 써서 휴경하지 않고 계속 경작하였다고 한다.

화전을 오래도록 부치면서 숙전이 되면 이를 '산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비탈이 가팔라서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소를 넣어서 쟁기로 밭을 갈 수도 있게 된다. 산밭을 가는 방법은 '겨리갈이'와 '내리카리'(내리갈이)가 있는데, 산밭에서 겨리갈이를 할 경우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갈아야 소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소는 '치갈아' 올라간다. 반면 내리카리는 사람이 쟁이를 들고 갈면서 내려오는 것이다.

한편 '골치기'는 평밭을 위에서 아래로 두 번 갈아 한 이랑을 만들면서 갈아내려가는 것이고, '홀골갈이'는 한 번 갈아 한 이랑을 만들면서 아래서 위로 갈아 올라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음리에서는 겨리쟁기를 사용했는데, 소가 왼쪽으로만 돈다 함은 골치기에서만 가능한 상황일 것이다. 홀골갈이의 경우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돌게 된다.

홀골갈이의 경우 고랑의 폭은 비탈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비탈이 어지간하면 좁게도 갈고 비탈이 심하면 1m까지도 벌어진다고 한다. 이는 쟁기에 긴 멍에를 매게 해서 소의 간격을 벌리는가, 아니면 짧은 멍에를 매게 해서 소의 간격을 좁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겨리로 갈 때 '멍에 두렁 뜬다'고 하면 면적을 많이 간다는 것이다. 넓게 뜨는 것은 1m 정도의 폭으로 떠나간다. 일반적으로 산밭이 비탈진 곳은 두렁을 멀리 두고, 완만한 곳은 가깝게 둔다고 한다.

화전에는 조·콩·팥을 주로 심는데, 콩은 음력 4월 소만 때 심고, 조는 입하 전에 논에 모



내기가 끝나면 바로 심었다고 한다. 조는 벼(음력 9월)보다 수확이 늦다. 화전밭에 산감자를 심는 일은 별로 없었다.

파종 작업에서 화전을 금방 만든 곳은 씨를 흩어 뿌리며, 조는 싸리비로 덮고 콩과 팥은 팽이로 파묻는다. 파종 후 김을 났을 때 솟아서 간격을 맞춤으로써 비로소 밭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조차도 전부 하기는 어려우므로 '뵈인'(조밀한) 곳만 솟아낸다고 한다. 그 다음 해부터는 고랑을 만들게 된다.

화전에는 자기 밭이라고 달리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다. 그냥 '내가 한다' 하고 화전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화전을 만들 산으로는 양지바른 참나무밭이 제일 기름진 밭으로 선호되었다. 김이 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먹고 살기가 어렵고 화전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들어선 곳도 베어서 화전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좋은 화전이 따로 있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해먹을 것인가 또는 누가 우선권이 있는가를 놓고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비료가 없던 시절에는 2, 3년 하면 몇 년을 쉬었는데 전에 누가 하다가 몇 년 묵은 곳이라도 먼저 하던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 한 마디 하면 그 사람이 시작할 수 있었다. 산이 많으니 까 자리 난 곳으로 여기저기 가서 하면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대우치기에 대해 묻자 풀이 많은 밭은 김을 매야 되니까 그루갈이를 하고 풀이 적은 밭은 대우치기를 한다거나, 날이 너무 가물면 보리를 벤 후 그루갈이를 하고, 날이 가물지 않으면 대우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또한 그전에는 대부분 대우치기를 했다고도 하였다.

보리는 밭곡식을 추수한 다음인 음력 10월 4, 5일경 파종한다. 그래서 '서리올 때 간다'고 한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6, 7월이다. 대우치는 시기는 보리베기 15일쯤 전이다. 또한 대우치기나 그루갈이를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심는 밭은 '노백이'라고 하였다. 한편 '질밭'은 빨간 찰흙으로 된 밭을 가리킨다고 한다.

모내기는 5월 10일경에 시작했으며, 예전에는 '하지 중모'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벼베기는 음력 9월경이었다. 물이 아주 없는 논을 '천둥지기논'이라고 하였고, '반고래'는 물이



도리깨 장치

많은 논을 가리킨다. 보통 천둥지기는 양지쪽에, 반고래는 음지쪽에 많았다.

백석○ 집에는 본인이 사용하던 농기구들이 꽤 보관되어 있었다. 가래, 논고물개(논을 소가 끄는 씨레로 삼고 나서 논바닥을 고를 때 사용), 호구(두엄을 치울 때 사용), 귀움(재료는 주로 낙엽송), 각종 팽이와 호미, 도리깨, 씨앗종대미(종다래끼), 절구공이, 호비칼(바가지, 함지 등을 만들 때 안을 파내기 위해 사용) 등이다.

이 중 '양귀호미'는 '벽제'라고도 한다. 일반호미가 김을 뿌리썰 캐낼 때 쓰는 것이라면, 양귀호미는 풀이 뽕송뽕송 났을 때 두둑 위를 긁어 잡아당겨서 풀이 죽게 한다. 이때는 잡초 뿌리가 여리기 때문에 굵기만 해도 햇빛에 그냥 말라죽는다.

'광포팽이'는 날끝이 직사각형 모양(Π)을 하고 있어서 때를 뜯 때나 산에서 나무뿌리를 자를 때 사용한다. 고랑을 어느 정도 폭이 있게 만들어준다. 날끝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팽이는 '막팽이'라고 한다. 내리카리를 할 때는 막팽이를 사용한다. 산음리에는 위낙에 돌이 많기 때문에 막팽이가 꼭 필요하다.

산음리에서는 손으로 잡는 대신 '도리깨장치'와 타작할 때 작용을 하는 대신 '아들'은 노가지나무나 자작나무로 만든다. 도리깨장치와 아들의 연결부위는 원래 물푸레순으로 만들었는데, 백석○집의 것은 산수유나무로 만들었다.

(7) 단월면 산음리 고가소마을

고가소의 논에서는 보통의 만생종은 되지도 않고 중생종을 만생종으로 치는데, 과거 모내기 시기도 양평관내의 저지대들보다 훨씬 빨라 5월 4, 5일부터는 시작했다. 모내기가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곡식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었다. 5월 중순을 최적기로 간주하며 늦으면 6월초까지도 했지만, 5월 20일이면 다 끝난다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벼는 음력 8월 추석이면 베었다.

화전자리는 사유지에서는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나라땅에서 하였다. 좋은 화전자리는 '양지쪽의 땅이 여문 곳'이며, 구나무나 참나무, 도토리나무가 자란 곳이 땅이 여문 곳이다. 그러나 물갈도토리가 자란 곳은 땅이 여문 곳이 아니다. '혜숙은' 곳(또는 '땅이 뜬 곳', 즉 토박한 곳)은 곡식이 잘 안 된다. 혜숙은 곳은 곡식이 잘 커서 싹은 되지만 막상 영글지를 않는다고 한다. 고가소의 화전에서는 두태(팥과 콩), 조, 메밀,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고가소에 거주하는 손억○은 만든 지 40년 가량 된 맷돌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무를 파서 만들었지만 모친이 가끔씩 황토흙을 개어서 바르셨기 때문에 붉은색이 되었다. 윗면의

바깥넓이가 76.0cm×48.0cm, 안넓이는 57.0cm×45.0cm, 밑면의 넓이가 57.5cm×46.5cm이다. 손억○이 직접 만든 종다래끼들도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치수를 측정한 결과, 윗면 넓이 21.5cm, 높이 24.5cm, 밑면 32.0cm×18.5cm였다.

(8) 단월면 향소리 동막골마을

주민들은 “내 땅 없는 사람들이 화전밭을 가는 것”이라고 말을 꺼낸 뒤, 평지밭에는 거름을 하지만 화전에는 불을 놓은 재로 거름을 하기 때문에 조를 많이 심는다고 하였다. 개인 소유의 산을 부치지 못하고 국유림에 많이 했는데, 국유림에서 화전을 할 경우에도 산림계 직원에게 ‘도지’로 몇 말씩은 주어야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것을 “위에 상납해서 나눠먹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산에 불을 놓는 시기는 곡식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메밀은 초복 때 나무를 깎아 중복 때 불을 놓고 씨를 뿌리면서 밭을 일군다. 조는 2, 3월에 나무를 자르는데 이는 생나무라 마르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불은 위에서부터 내려 놓는데, 밑에서 맞불을 놓아 끈다. 주로 해질녘에 바람이 잔잔하고 촉촉할 때 불을 놓는다. 불을 내려놓는 이유는 불이 내려갈 때는 힘을 못쓰고 올라가면서 힘을 쓰기 때문이다.

평지밭에서는 보리와 밀, 콩이 주요작물이었다. 보리와 밀은 파종시기가 같으나 수확기는 밀이 보리보다 20일 가량 느리다. 동막골에서는 보리의 수확기가 망종 지나고 한 달 후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보리(밀)를 베기 전 보리 고랑에 대우치기로 콩을 심고 나중에 보리를 베어냈는데, 나중에 올콩이 나오면서 보리를 베어내고 그루갈이로 콩을 심어도 괜찮게끔 되었다.

극쟁이는 나무에 보습을 끼우고 ‘귀췌기’라고 불리는 나무조각을 끼워 고정한다. 나무조각을 끼우기에 따라 보습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귀췌기를 올리면 쟁기가 올라가 깊어 쫓힌다고 한다. 깊게 쫓으면 겨리쟁기보다 극쟁이가 더 깊게 팔 수 있다. 쟁겨리의 보습은 길이 40cm 정도의 삼 모양을 하고 있다.

화전에서 쟁기를 넣어 가는 경우에 소 한 마리로는 안 되고 두 마리의 힘으로 쟁겨리를 끌어야 갈 수 있다. 위에 있는 소고삐를 잡아 끌어올려 힘을 받쳐준다. 자기네 소 한 마리와 빌어온 다른 집 소 한 마리를 짝을 지워 쟁기질을 하는 것을 ‘ 짝소로 한다’고 했다. 두 마리 중 ‘안소’는 익숙한 소를 두고 ‘마라소’는 좀 어설픈 소를 둔다.

소는 보통 3살 정도 되어야 쟁기질을 시킨다. 한 살까지를 송아지, 2살이 된 것을 중송아지라 부르고 세 살부터는 쟁기소가 되는 것이다. 한 마리로 쟁기질을 하면 쟁기를 내오기에도 혼자 갈기에도 편하지만 깊은 쟁기질이 되지 않는다.

소명에는 ‘멍아’라고 부르는데, 짧은 멍아를 만드느라 큰 멍아를 만드느라 어떤 고랑을 만들 것인가에 맞추어서 한다. 산골사람들은 밭이 많고 일할 시간이 짧아서 처음에 얇게 갈고 잡초가 생기면 두 번째 갈아서 김을 맨다. 예를 들어 보리·밀 베어내고 콩이 10cm 자랐을

때 두벌매기를 소로 갈아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훑어내는 것을 ‘뜨개침’이라고 한다. 소로 김을 땔 때 두벌매기부터는 이미 콩이 자라 있기 때문에, 소가 콩을 먹지 못하도록 짚으로 ‘소멍’ 또는 ‘주둥망’을 만들어 입에 씌운다.

초벌매기는 ‘아이매기’라고 하는데, 재에 섞어 뿌린 조를 재배하는 경우 초벌은 뿌리를 건드릴 정도로 밭을 해쳐서 매야 기존의 뿌리가 끊기고 덧뿌리가 나게 되어 더 강하게 뿌리를 박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조밭의 김은 성질 나쁜 사람이 매야 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다. 콩을 땔 때는 복을 주어가면서 매고, 팔도 콩과 비슷하게 한다.

동막골에서 밭의 두벌매기는 소 쟁기로 맨다. 동막골 주민들은 “강원도 사람들이 1960~70년대에 많이 나와서 화전하는 것과 쟁기로 김매는 것을 가르쳤다. 강원도는 풍년 들면 몇 해 먹고 흉년 들면 몇 년 고생한다는 지역이지만 우리는 흉풍년의 기복이 적기 때문에 이리 로들 많이 나왔다”고 전후사정을 설명하였다.

6) 서종면

(1) 서종면 명달리 명달리마을

명달리에서는 논과 밭이 반반 정도였다. 논농사의 경우 곡우 때 볍씨를 담그고 망종인 양력 6월 6일경에 모내기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비만 오면 열흘이나 보름 안에 전체 모내기가 끝나지만 역시 물사정이 항상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다.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하지를 지나면 마냥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중복때 모내기를 하는 것을 ‘중마냥’, 말복을 지나서 모내기를 하는 것을 ‘하마냥’이라 하였다고 한다.

못자리를 만들고 난 후 올리는 고사를 ‘못자리고사’라고 하는데, 명달리에서 여러 대를 살아온 이현○과 김○영은 모두 못자리고사를 직접 올린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올리는 사람은 꽤 있었다고 하였다. 못자리고사는 각자 개인적으로 올리지만 고사에 쓴 떡은 보통 친구들끼리 나누어먹는다. 그 철이 되어 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 못자리고사 했구나?”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곤 하였다고 한다. 못자리고사는 못자리를 만들고 바로 올리기도 하고 모내기 직전에 올리기도 하였다. 못자리고사는 못자리를 만든 논에 떡만 가져가거나 술과 함께 떡을 가지고 가서 논두렁에 놓고 “올 일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하고 간단한 축을 올리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고사에 사용하는 떡은 시루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떡을 베어 다래끼나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고사가 끝나면 담아온 떡을 떼어서 주위로 세 번 던지기도 하고 술도 세 번 부어서 주위에 붓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김매기는 모내기 후 한 달이 되면 ‘애벌매기’로 호미로 파 뒤집고, 애벌 후 다시 한 달이 되면 ‘두벌매기’를 손으로 훑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역시 ‘논을 잘 다루는 사람’은 세

별을 매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두 별까지 호미로 매고 세 별은 손으로 훑었다고 한다.

벼베기는 양력 10월 초순에 드는 한로 때 시작하였다. 명달리에서 한 마지기는 200평이었는데, 한 마지기에서 벼 두 섬이 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고 벼 한 섬이 나는 것을 ‘마대’라고 하였다. 명달리에서 양식논은 별로 없었고, 좋은 논이라야 그 정도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주민들은 “옛날에는 마대도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밭에서는 보리와 밀, 콩과 팔을 주로 심었다. 전부 대우치기로 하던 것이, 한국전쟁 무렵에 울릉 종자가 생기면서 보리를 베고 밭을 갈아 콩을 심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대우치기를 하는 시점은 입하 지나서였다고 한다. 대우콩은 보리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특히 보리농사가 잘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보리가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리에 눌린 콩대까지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들깨 모종을 만들어두었다가 쓰러진 콩밭에 이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보리를 베고 난 콩밭에 복을 주는 것은 소로 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의 두 방식이 있었고, 후자의 방식은 다시 강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소는 원래 말을 잘 듣는 것은 가(밭두렁)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대로 따라 하고, 말만 안했다 뿐이지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소가 있는 경우 소를 이용해 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글긴다’고 하는데, 소에 ‘글기채’(또는 ‘걸기채’)라는 것을 매게 하여 보리그루를 갈게 해서 콩밭에 복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은 “남녘에서 훑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글기채인데 호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김○영의 집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글기채가 보관되어 있다. 글기채의 보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날의 끝에 해당하는 쇠 부분은 흙을 파고 들어가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장 넓은 곳의 폭이 23.0cm이며 길이는 24.3cm이다. 이 보습은 장에 가서 사왔다고 한다. 그 위로는 역시 쇠로 되어 있는 역사다리꼴 모양의 넓직한 판이 붙어 있는데, 이는 날의 아랫부분에 의해 파들어간 고랑을 더 넓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은 김○영이 직접 펴서 만들었다고 하며, 윗부분(역사다리꼴의 넓은 면)의 한 쪽(날의 앞쪽에서 바라보아 왼쪽)은 둥글게 다듬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날카롭게 세워져 있다. 이 윗부분에서 가장 넓은 곳의 길이는 33cm였다. 보습의 이 두 부분(파는 부분과 넓히는 부분)을 합친 길이가 46.3cm이다. 걸기채의 다른 부분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술의 길이는 81.0cm, 술과 성에에 양끝이 끼워져 있는 한마루에서 술과 성에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는 29.0cm, 성에는 중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술에 끼워진 부분으로부터 갈라진 지점 사이의 길이는 57.0cm, 두 갈래로 갈라진 성에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는 138.0cm였다(이상 글기채의 부분명칭은 김○영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리자가 편의상 사용한 것임).

사람의 손으로 복을 주는 경우, 비가 와서 콩밭에 습기가 있으면 보리그루가 있는 주변을 흙과 함께 파서 뒤집어 묻는 방식으로 복을 주었다. 반면에 비가 오지 않으면 호미로 보리그

루를 파낸 뒤 털어서 뿌리가 위로 올라가게 콩밭 두둑에 기대어 놓으면 자연히 말라죽은 뒤 콩밭의 두둑을 지탱하면서 비료가 되게 하는 식으로 복을 주었다고 한다.

명달리에는 화전도 많아서 화전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화전을 만들기 위해 불을 놓는 시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7월에 베어놓고 말렸다가 이듬해 봄에 불을 놓는 것을 '칠월비'라고 하고, 봄에 베어서 바로 불을 놓는 것을 '봄비'라고 하였다. 칠월비로 화전을 일구면 풀이 덜 나서 좋지만 그렇게 미리 해놓을 수 없었던 경우에 봄비로 화전을 일구었다.

화전을 만들면 처음에는 조를 심고 그 다음해부터는 콩이나 팔도 심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를 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화전에서 조가 잘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밥을 해서) 먹는 게 조"이기 때문이었다. 화전을 일군 곳이 경사가 완만하면 소를 들어서 가는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탈진 곳이었고 비탈진 곳은 팽이로 갈았다. 보통 불을 놓은 곳에 좁쌀을 뿌리고 팽이로 밭이랑을 만들어나가는데, 이때는 '치올라가면서'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소로 가나 팽이로 가나 아래(낮은 곳)에서 위(높은 곳)로 갈기는 마찬가지로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약간 비탈진 보리밭에 '채골치기'를 하여 '겉골'을 만들어 넓고 깊은 고랑을 만들려고 할 때뿐이었다고 한다. 한편, 불을 놓은 곳에 아주 뿌리가 많아 팽이질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좁쌀을 뿌린 뒤 때를 떠서 들고 다니면서 파종한 위에 털어 흙을 덮기도 하였다.

화전을 경작하다가 묵혔던 곳에 다시 화전을 일군 곳 또는 그러한 행위를 '재글루'라고 하였다고 한다. 가령 "거기 재글루로 곡식이 돼?" 하면 "재글루라도 잘 돼" 하는 식이다.

화전에는 사유림을 가는 경우와 국유림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제시대에는 국유림에서도 사유림처럼 도지를 받아갔다고 한다. 평지밭에서 한 가마 소출나는 곳에서 반 가마를 도지로 내던 시절(논이나 밭이나 모두 '반병작'이었다)에, 사유림인 화전에서는 세 가마 나는 곳에서 한 가마나 여덟 말 정도를 도지로 내는 정도였다고 한다. 국유림의 도지는 사유림보다 더 썼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송아지와 다 자란 소 사이에는 전체 이빨 여섯 대 중 해마다 두 대씩 빠지는 소 이빨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 '중소'는 이 중 첫 단계의 이름으로 양쪽으로 젓니 두 대가 붙은 것을 말한다. '대문다리'는 중소보다 1년이 더 자라 앞니 두 대가 빠진 소를 가리킨다. '제보지기'는 대문다리보다 이빨 두 대가 더 빠진 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보다 1년 더 자란 소는 그저 '이가 다 나갔다'고 할 뿐 정해놓고 달리 부르는 이름이 없다고 한다. 일소의 경우 대문다리가 되면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제보지기부터는 일을 시작한다. 소에게 일을 가르칠 때 돌을 싣고 가르치는지 여부를 묻자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끔 보기는 했어도 별로 없고, 대부분 연장을 메우고 사람이 앞에 서서 끌고 가면서 가르친다고 하였다.

(2) 서종면 노문리 벽계 샘말마을

노문리에는 계곡을 따라 논이 펼쳐져 있어 비교적 볏논이 많았다고 하는데, 물론 천수답도 있었다. 논에서는 음력 3월에 못자리를 만들고 이어서 보를 막는다. 보는 큰 돌을 쌓고 흙을 붓고 나뭇가지를 걸치는 식으로 축조하는데, 장마철이 되면 쓸려가므로 해마다 새로 쌓아야 했다. 볏논을 경작하는 밭작인들은 모두 나와서 보를 쌓는 일에 참여하였다. 음력 4월이 되면 모내기를 시작하여 음력 5월까지도 모내기를 하였다고 한다.

모내기 후 한 달이 지나면 호미로 애벌을 매고, 다시 한 달 후에 두벌매기를 하는데, 이때는 손으로 훑치기만 한다. 세 벌은 넉넉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하지 않는다. 벼를 베는 시기는 품종에 따라 다른데, 올벼는 추석 전에 베고 늦벼는 음력 9월에 베다.

밭에서는 보리와 밀, 콩, 팥, 고추, 참깨, 들깨를 주요한 작물로 심었고, 이 외에 감자와 고구마를 조금씩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보리밭과 밀밭에서는 수확 전에 대우치기로 콩을 심었는데, 대우치기를 하는 시기는 이른 모내기가 끝난 직후이다. 보리와 밀을 베 후에는 볍을 주는데 전부 손으로 한다. 소로 볍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건 평지밭에서나 하지 여기는 밭에 소를 넣으려면 너무 밭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7) 양동면

(1) 양동면 금왕리 밤나무골마을

금왕리는 원래 논이 귀하고 밭이 많았던 것이 관정을 뚫게 되면서 논이 많아져서 밭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얼마 되지 않던 논에 그나마 물이 귀해 모내기가 늦어지는 일이 많았다. 금왕리는 지대가 높고 일찍 서리가 내려 만생종인 아끼바리를 심지 못하고 조생종만을 심었다고 한다.

금왕리에서는 보리를 베기 전 대우치기로 콩을 심었다. 대우치기를 하는 이유는, 보리를 베고 콩을 심으면 생육기간이 짧아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콩밭에 김을 매는 것을 ‘복돋운다’고 한다. 콩의 수확기는 늦가을인 음력 9월로 서리가 내리기 전이며, 콩을 수확한 후 바로 보리를 심는다. 겨울이 지나고 음력 3월 호미로 밭을 매고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즈음인 음력 4월에 콩대우를 친다. 보리수확은 음력 4월 그믐이나 늦어도 5월 초순에 마치며, 보리 수확기가 되면 대우치기로 심은 콩이 5, 6cm로 자라있게 된다.

콩대우를 치고 복돋을 때는 소 한 마리로 극쟁이를 끌게 해서 작업을 하였다. 소는 잘 가르쳐 놓으면 알아서 콩을 밟지 않으며, 콩을 밟지 말라고 소에게 지시하면 콩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랄하는 소’는 앞에서 끌어주어야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다. 극쟁이는 ‘호리에 다는 쟁기’로 설명했다. 그러나 극쟁이로 흙을 뒤집으면 콩이 덮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은 쫓아가며 콩대를 붙들고 흙을 다독인다고 한다.

논이나 밭을 갈 때는 쌍겨리를 사용하였고 쟁기와 '버성'(보습)을 달았다. 송아지 때부터 우측에 서서 힘이 덜 드는 마라소와 좌측에 서서 흙이 넘어오기 때문에 힘이 더 드는 일소는 구분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제는 하려고 해도 소가 안 된다. 옛날 소는 그냥 하지만 지금은 앞에서 끌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여기는 소 모는 소리도 강원도식이며, 청운·양동·단월에서는 원래 거리를 했고 용문부터는 외쟁기를 사용하고 쌍겨리를 안 했다, 그것도 산골에서만 한다. 지질이 소가 힘이 덜 드는 명계토(명계토)에서는 쌍겨리를 하지 않지만 돌이 많고 땅이 굳은 배알밭(비탈밭)에서는 쌍겨리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마지기가 버덩 넓은 데서는 200평, 300평 되지만 여기는 150평이다. 뽕씨 한 말을 '정조밀식'으로, 즉 조밀하고 촘촘히 심으면서도 정확하게 보이게 심는다"고 하여 마지기를 정하는 과거식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 양동면 계정리 가래골마을

해방 무렵 가래골에는 논의 면적이 밭보다 넓었다. 지금은 특수작물재배가 늘면서 밭의 면적이 늘었지만 그래도 면적상으로는 여전히 논의 면적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많이 재배하는 특수작물로는 부추와 씀바귀(쑥새)가 있고, 이 외에 고추가 더러 있는 정도라고 한다.

예전의 논농사에서는, 망종 때 모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아주 견해서' 하지를 지나서도 모내기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망종 때 심으면 '올모'이고, 하지 때 심으면 '중모', 하지를 지나면 '마냥'인데, 보통 중모를 제일 늦모로 친다고도 하였고, 초복 지나면 메밀을 심고 아니면 묵한다고도 하였다.

초벌 논매기는 '아이(매기)'라고 하는데, 모내기 후 20일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호미로 맨다. 두벌매기는 손으로 하며 아이 뒤 보름이나 열흘 정도 지난 시기에 한다. 풀이 많으면 세 벌도 매는데, 이는 풀이 많으면 매는 것이므로 시기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벼 수확은 음력 9월이나 10월이 된다.

밭에서는 전작으로 보리와 밀을 많이 심었는데, 나쁜 밭에서는 밀과 보리를 심지 못하고 호밀을 심었다. 입동 전에 보리밭을 갈고 입동 때 '가새보리가 저야'(보리싹이 올라와서 두 잎이 나와야) 제대로 보리농사가 된다고 하였는데, 보통 농사가 늦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적었다. 후작을 심을 때는 밀은 늦게 되니까 배고 그루같이로 심는 경우가 많고 보리는 대우치기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보리밭에 대우치기를 하는 시기는 보통 망종 때인데, 모내기가 빠르면 보통 모내기를 끝내고 하지만 모내기가 늦어지면 대우치는 시기와 겹치기도 한다. 밀밭에 그루같이를 하는 것은 음력 6, 7월경이라고 하였으며, 보리를 베는 것과 밀을 베는 것은 20일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한다.

대우치기를 한 보리밭에 보리를 베면 보리그루를 소로 굶히기도 하는데, 이 작업은 보통 '극쟁이'로 하였다. 김○돌은 "극쟁이는 아마 걸기채와 같은 기구일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

소로 대우콩밭을 긁히면 그 다음에는 호미로 밭을 정돈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는 때에 따라 혼자 여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여럿이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통은 한 사람이 소로 긁히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쫓아가면서 '받기' 작업을 하였다. 극쟁이로 긁히면 보리 사이에서 자란 콩이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콩 포기가 쓰러지지 않게 돌아주는데 이를 '받는다'고 한다. 긁히는 작업은 물론 받는 작업도 보통 남자들 일이었다고 하며, 여자들은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였다.

계정리에서도 예전에는 논과 밭 모두를 겨리쟁기로 갈았다고 한다. 그루갈이콩을 파종한 후 복토작업은 고무래를 사용하였다. 화전은 '더러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8) 양서면

(1) 양서면 청계리·징동리 대골(대아동)

대골은 주민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원래 논농사가 많은 편이었다. 곡우를 전후로 해서 볍씨를 담가 망종을 전후로 해서 모내기를 하면 모내기가 빠른 편으로 졌다. 모내기 시기에 따라 6월 10일 전이면 '이른내기', 그 후면 '중모', 하지가 지나면 '마냥(晩秧)'이라고 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른내기 농사가 적었으며, 소서에 벼이삭을 뽑아내면서까지 심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삭을 뽑아서 심으면 뽑아낸 옆에서 가지를 쳐서 다시 싹이 나온다. 소서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할 수 없으면 메밀이나 콩을 심는데, 이를 '대파(代播)'한다'고 하였다.

이 일대의 밭에서는 가을에 보리와 밀을 심고 봄에 콩, 조, 팥, 호밀, 메밀을 심는데 보리와 밀을 전작(前作), 콩 등을 후작(後作)이라고 한다. 원래는 전작을 베기 전에 후작을 심는 대우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리가 쓰러지거나 날이 가물어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으면 전작 작물을 베고 후작을 심는다. 대우치기 시기는 보리 수확보다 보름이나 20일 정도 전으로 양력 6월 초순이며,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되면 콩잎 세 개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보리의 수확기는 장마 때가 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시기는 해에 따라 변동이 있다. 장마 전에 수확을 하려면 임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빨리 거두기도 하고, 수확 전 났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비가 시작되면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기를 기다리므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리는 망종 때 뿌리가 굵어지고 성장이 멈추므로, 모내기를 이른 내기로 이앙을 하면 모내기가 끝나고 바로 보리를 수확하게 된다.

밭에서 전작과 후작으로 1년 2작을 하지 않고 단작을 하면 이를 '삼월같이'라고 하여 음력 3월에 '단파'(單播)로 콩을 심는다. 대아동에서는 '보리도 잘 안 되고 하는 바닥'에서나 삼월같이 하며, 따라서 보리를 심고 콩 대우를 치는 밭이 더 좋은 밭이다. 삼월같이 할 때는

싹을 티워서 감주의 원료로도 쓰고 흔히 '콩나물콩'으로 통하는 '질금태'(기름콩 또는 유태(油太))를 심는다.

대우콩밭의 두둑 폭은 한자 두치나 한자 세치(약 40cm)가 되며 콩은 한 줄로 심어나간다. 단파로 삼월갈이를 하는 경우 콩밭두둑의 폭은 90cm 정도가 되며, 이때는 콩을 세 줄로 심어나간다.

대우치기와 그루갈이, 삼월갈이는 파종방법도 달라진다. 대우콩을 심을 때는 보리 사이에서 호미로 구멍을 파고 콩을 넣고 호미로 덮어가므로, 밭에 엎드리다시피 하여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리가 수확 전에 쓰러진다고는 하여 보리를 베고 그루갈이로 심거나 삼월갈이 단파로 심을 때는 일어난 자세에서 발뒤꿈치로 구멍을 파고 콩을 넣은 다음 밭로 툇 쳐서 덮어나가는 식으로 파종을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고랑 두 개를 타고 두 줄을 한꺼번에 심어나가며, 당연한 일이지만 허리가 덜 아프고 일하는 방식은 훨씬 편하게 된다.

콩을 심은 뒤 콩밭 제조작업을 할 때 빨리 매기 위해 소 한 마리로 극쟁이를 끌게 해서 보리를 벤 자리에 풀을 켜는 일이 있는데, 이를 '글긴다'고 한다. 대아동에서 극쟁이는 소 한 마리로 끌며, 극쟁이보다 보습이 크고 소 두 마리로 끄는 재래식 쟁기를 '연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또한 왜쟁기는 보습에 쇠못을 주지만 한국쟁기는 나무로 췌기를 박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재래식 한국쟁기는 벼를 때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는데, 붙일 때는 끈으로 붙들어 매며, 논을 갈 때는 벼를 달고 밭을 갈 때는 벼를 때어서 작업을 하였다.

밭을 갈 때 평지밭은 '치갈고'(올라가며 갈고) 산비탈밭은 내려갈아 작업방식을 달리 했다. 한편 풀이 많은 밭에서 풀을 죽이기 위해 파종보다 한 달 이상 전인 음력 3, 4월경 미리 가는 것을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음력 3, 4월경에 한 번 되고, 5월경에 다시 갈아서 콩을 심었다고 한다.

과거 대아동의 동유림에는 화전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화전을 부칠 경우 마을에 도지를 물어야 했다. 도지를 정하기 위해 동네회의 전에 한 사람이 생산량을 조사하러 가는데, 이를 '화속 잡으러 간다'고 했다. 이때는 총생산량만 조사해오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네회의에서 도지를 정했다. 대아동 동유림의 화전은 한국전쟁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2)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마을

보리밭을 갈 때 고랑과 두둑이 만들어지면 보리는 고랑에 심는다. 심은 뒤에 두둑의 흙으로 보리를 심은 고랑을 덮어주므로, 보리심기가 끝나고 나면 보리밭은 거의 평탄한 모양이 된다. 김○기(74세)와 허○호(64세)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보리밭 고랑과 두둑의 폭이 모두 27cm 정도였는데, 그 전에는 고랑이 더 좁고 두둑이 넓었다. 일본사람들이 와서 고랑을 넓게 하라고 해서 고랑이 넓어지고 두둑이 좁아졌다. 그래야 한 고랑에 보리씨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막대기로 고랑을 평평하게 고르도록 하였다. 그러면 V모양의 고랑이 무너져서

□모양이 되고, 그래서 전보다 고랑이 넓어지고 두둑이 좁아진다. 그때는 비료가 없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걷는다고 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심리에는 원래 쌍겨리를 썼고 호리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나왔는데, 쌍겨리는 해방 전에 없어졌다. 겨리를 끄는 두 소 중 왼쪽에 서는 소를 ‘마라소’라고 하였다.

당시는 비료가 보리밭에는 가랑잎재와 인분을 사용하고, 논에는 갈밖에 없었다. 일본사람들이 높이 1m 50cm, 사방 1m 50cm 정도로 비료통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그 비료통이 하나가 차는 일이 없었으니까 비료가 태부족이었다.

한여울의 밭에서는 매주콩의 경우 보리를 베고 그루갈이로 심기도 했지만, 보통은 보리를 베기 전에 대우치기로 콩을 심었다. 대우치기로 콩을 심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콩이 늦을 까봐서’라고 설명하였다. 한여울에서는 보통 보리를 베기 전에 콩을 심고 이를 대우치기라고 불렀지만, 다른 한편으로 날이 가물어서 대우치기를 하지 못하고 보리를 베 뒤 콩을 심는 것도 ‘대우콩’, ‘대우치기’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민들의 설명 중에는 가령 ‘보리는 베자마자 바로 타작을 하는데, 보리타작은 초복 무렵이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콩대우를 치는 것은 양력 7월 초순’에 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대우치기에 의한 후작작물의 파종이 우세한 가운데 간혹 있었던 ‘그루(갈이)콩’ 역시 ‘대우(치기)콩’으로 부르게 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점은 주민들에게 콩의 파종방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대우치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했던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 때는 콩이 10cm 길이로 자라 있었다. 보리를 베 후에는 보리를 뿌리 켜 캐면서 콩에 ‘복을 주었다’. 한여울에서는 보리뿌리 캐낸 것을 걷어내지 않고 콩이 심어진 줄을 따라 흙과 함께 덮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을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장마가 지나면 보리뿌리가 썩어 없어져서 비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콩은 한 줄로 심으며, 행 주치마에 콩을 넣고 오른손은 호미를 들고 구멍을 파고, 왼손으로 구멍에 씨앗을 넣어가면서 나아간다. 종다래끼를 앞애다 매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려면 한 집에 그 사람들이 다할 만큼 종다래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행주치마에 넣고 콩을 심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콩을 심는 방법을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다.

한여울에서는 보통 대우치기를 하고 나면 모내기를 했다고 한다. 양력 7월 20일경이 되면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90%는 7월 초순 안으로 끝냈다. 이러한 농사력이 바뀌게 된 것은 통일벼가 나면서부터였다.

(3) 양서면 신원리 샘골마을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보리를 베 후에는 조를 많이 심었고, 콩은 ‘마을밭’에 많이 심었다고 한다. “조가 누르면 (비가 많이 와서 남한강에) 물이 가고 물이 가고 그랬다”. 보리를 베고 조를 심지 보리를 베기 전에 조를 심는 일은 없었다.

(4) 양서면 부용리

음력 3월에는 모자리고사(못자리고사)를 지내는데, 봄에 벼 모자리를 만들고 집집마다 팔시루떡을 해서 가을 고사 지낼 때 늘 놓는 자리에 제물을 놓는다.

9) 옥천면

(1) 옥천면 신복리 북동마을

보통 한로 때 콩을 수확한 밭을 갈아 보리를 파종했다고 한다. 고랑에 보리를 파종한 후 고무레로 두둑 위를 끌어서 고랑에 흙을 덮는다. 봄에 보리싹이 나오면 호미로 보리밭을 매며, 보리베기는 6월 상순에 했다. 보리를 베기 전 대우치기로 콩을 심으므로, 콩을 심는 두둑의 폭은 한 자나 '자가웃'(한 자 반으로 집계뽕으로 세 개 정도)이 된다. 콩밭은 호미로 김을 매며, 그 시기는 6월 중순이다.

북동에서는 모내기를 하지 전에 끝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양○환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그냥 두고 묵히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모내기를 하지 못해서 대체 작물을 심거나 마른 땅을 호미로 파고 모를 심는 일은 별로 없었다. 지금은 거름이 좋아졌으니 마른 땅에도 거름만 넣으면 뿌리가 살아서 벼농사가 되지만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북동에서도 전에는 두레로 논일을 했는데 한국전쟁 후에 조금 있다가 없어졌다고 한다.

10) 청운면

(1) 청운면 여물리

여물리의 제보자들은 "봄에 갈(풀)을 켜는 것은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로도 넣지 못하고 퇴비도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는 거름으로 긴요한 구실을 하였다. 여물리에서는 주로 음력 사월 중순 소만 때 핀 참나무 갈잎을 꺾어다가 논에 넣었다. 퇴비 대신으로 갈잎과 가지를 집어넣고 소로 갈면 풀도 덜 나고 쌀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저녁 해질 때까지 갈을 켜는데, 하루 일을 하면 열두 짐이나 열세 짐을 하게 된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루 갈을 꺾으면 쌀 한 말을 쳐주었다. 이는 보통 품값의 세 배에 해당하였다.

여느 일을 하면 품값은 하루 세 되였다. 그러면 사흘 일해서 한 말 버는 꼴이 된다. 장이 닷새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닷새 동안 사흘 일을 해야 장날 쌀 한 말을 사다가 먹을 수 있게 된다. 품값은 그날그날 일이 끝날 때마다 쳐서 준다. 품을 사는 사람은 보통 농사가 많은 소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품값을 쳐줄 여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품앗이로 일을 하

려 오면 참 두 번과 점심 한 번을 주는데 품을 사면 아침, 점심, 저녁과 참 두 번 해서 다섯 차례 먹을 것을 준다고 한다.

품을 살 때의 기준은, 모내기품의 경우 하루에 두 마지기를 세 명이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도급을 주면 하루 한 마지기를 한 명이 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 따라서 스무 마지기 도급을 주면 20명이 하루 품값씩을 받고 일을 하는데, 실제 도급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알아서 일을 마치면 되는 것이다.

여물리에서는 모내기철이 되면 동네에서 다 모여서 차례로 순서를 정해서 '못날'(모내기 하는 날)을 받았는데, 일꾼이 많으면 하루에 두 집 일을 하기도 했다. 모내기는 하지를 지나고 초복 때까지도 심었다고 한다. 한 달 동안 모내기를 한다면 하지 전에 15일, 하지 후에 15일 정도로, 하지 때가 모내기철의 한가운데였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초복이 지나고 일 주일 있다가 모내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때도 마지기당 세 가마의 소출이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보통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다른 것을 심거나 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비가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건답직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물이 없는 마른 논에 그냥 벼씨를 심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모내기하려고 마련해두었던 모는 그냥 버리고 새로 벼씨를 사다가 직파를 하였다고 한다.

못날이 되면 모내기꾼들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씨레질을 하는데, 주민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군'이라고 불렀다. 씨레질을 하면 바로 뒤로 모내기꾼이 따라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서 가는 일꾼이라는 뜻이다. 선군은 '소몰이꾼'과 그 뒤를 쫓는 '쇠스랑잡이' 그리고 '밀개일꾼'의 세 명이 한 조가 된다. 보통 모내기꾼은 조반을 안 주어도 선군은 조반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 한다.

여물리에는 겨리도 있고 한 마리로 모는 쟁기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였다. 소를 모는 채찍은 물푸레나무로 만들며, 논밭갈이나 씨레질 등을 하기 전날 물에 담가 놓으면 일하는 중에 꺾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 채찍으로 두 마리를 연속해서 '찰싹찰싹' 하고 때리고 나가면 소도 부지런하게 달려 나갔다.

씨레질을 하고 바로 모내기 일꾼이 쫓아가는데, 선군의 작업속도가 늦으면 모내기꾼들이 '소대가리에 모춤 올라간다'며 농을 하였다. 그러면 선군은 일 속도를 내서 대충 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마련이었다. 씨레질이라는 것이 하기 나뉘어서서 두 번 고를 것을 한 번 고르면 그만큼 속도가 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개는 선군이 먼저 일을 끝내고 앉아서 기다린다. 선군은 일이 먼저 끝나도 논두렁에서 담배나 피우고 앉아 있지 절대 모심는 일을 돕거나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의 모내기는 대개 가로줄까지 띄고 정조식으로 심었지만, 산골의 구불구불한 논에는 가로줄을 띄지 않고 주욱 심어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주민들은, 보통 면에서 나오는 데는 가로줄을 띄고 심는데, 산골에는 면직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소주밀식'이라는 모내기법을 잠깐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가로줄을 띄고 모 한 포기씩을 심을 곳에 네 포기씩을 심는 방법이다. 증산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소출이 좋지 않아 2년인가 하고 바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모내기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초벌매기를 하는데, 이를 '아이논 맨다' 고도 한다. 초벌매기는 호미로 한다. 두 벌은 대중이 없고 중복 무렵이 되는데, 손으로 한다. 호미로 맨 자리를 훑치고 다니면서 논바닥을 고르고, 또 풀도 뽑는다. 그 다음에는 피사리를 한다.

한편 보를 관리하는 사람을 '봇감고' 라고 하였다. 장마 저서 땅이 험거나 하면, 논에 물을 대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봇논의 작인들이 보수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다 같이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벼베기는 음력 9월까지도 했다. 서리를 맞으면 더 좋다고 해서 일부러 하루 정도 서리를 맞게 하고 벼를 베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품종은 지금과 달라 유구, 신이호, 관산도 따위인데, 이 품종은 쌀도 좋고 밥맛도 좋다.

벼를 베면 일단 논에 깔아 놓고 말린다. 어느 정도 마르면 낫으로 뒤집어서 밑에 있던 쪽을 다시 말린다. 다 마르면 묶는데, 벼는 두 묶음이 한 단이 된다. 집으로 가지고 와 타작을 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불과 광솔 쪼갠 것, 빗자루와 도리깨도 매놔야 되고, 일꾼들 먹게끔 밀주도 만들어 놓아야 했다. 바닥은 흙을 발라 '공구리'(콘크리트)를 친 것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야 타작한 쌀에 먼지나 흙이 섞이지 않는다. 일단 타작을 하면 키로 까불어 쪼단과 먼지를 날리는데, 이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타작 날짜가 정해지면 며칠날 타작을 한다고 지주한테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타작날 타작관이 오면 닭을 잡아서 특별대접을 해야 한다. 타작관을 거스르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초저녁에 타작을 하러 가면 그 이튿날 새벽까지도 계속되는데, 그러면 집에 왔다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일을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여물리의 밭에서는 콩뿐만 아니라 조도 대우치기로 파종을 하였다. 아예 보리밭이나 밀밭에 콩이나 조를 심는 것을 대우친다고 이야기하였다. 보리가 노릇노릇해지면 콩이나 조를 심는다. 보리가 익는 것을 봐서 대우치는 시기가 정해지는데, 대략 보리를 베기 10일 전쯤에 콩이나 조를 심는다. 그 정도에 심으면 콩이나 조가 땅에서 5~10cm 정도로 자란다. 그보다 일찍 심으면 보리나 밀에 의지해서 키만 꺾충하게 자라게 되어서 보리를 베고 나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쓰러지고 만다.

조를 심을 때는 먼저 소로 끌고 고랑을 캐는데, 이를 '걸기질' 이라고 한다. 걸기질이 끝나면 재를 섞은 줍씨를 뿌리고 발로 슬슬 해서 흙을 덮는다. 보리를 베기 전에 다시 줍씨를 숨는데, 이는 조의 간격과 포기 수를 고르게 맞추기 위한 것이다. 보리 사이에 들어가서 줍씨를 숨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 날은 덥고 졸려서 어른한테 야단 맞아가며 줍씨 숨는 일을 하고는 했다.

보리를 베고 나면 보리그루를 뽑는데, 보통 아주머니들을 불러서 호미로 보리그루를 뿌리까지 뽑고, 뽑아낸 보리그루를 조가 나온 옆으로 나란히 길게 놓는다. 그 다음에 보리그루 캔

곳에 있는 흙을 보리그루 늘어놓은 위에 덮는다. 이를 '복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잔풀도 죽고 비료도 되어 조가 잘 자라게 된다. 그래도 그 위로 나오는 풀은 사람 손으로 뽑는다.

조는 스무 단이면 한 짐이 되는데, 이를 모아 세워서 말린다. 다 마르면 시기를 보아 울력을 해서 집으로 운반하였다. 한 번씩 지고 나르면 끝날 때도 있고 두 번 질 때도 있다. 집으로 운반한 후 '어리땅'을 한다. 어리땅이란 낟가리인데, 바람이 잘 통하게 잘 쌓아야 한다. 그렇게 놔두었다가 도리깨꾼을 불러서 도리깨질을 하는데 보통 세 번을 툰다. 세 번 툰고도 아직 조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는 세 번 툰고도 만팔만 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추석 전에 벼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사용으로 따로 조금만 조생종(올벼)을 미리 심어둔다. 그런데 벼는 익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벼를 훑어서 이를 볶기도 한다. 익지 않은 벼는 안에 물이 들어 있고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벼가 뽕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깨나 콩을 볶듯이 약한 불에 볶는다. 그러면 안에 물기가 말라서 뽕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여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 배가 고프면 보리 익지 않은 것을 찌서 먹는 것을 보리방아라고 한다. 주민들은 보리방아 이야기만 들었지 이 마을에서 직접 본 일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자가 집안에 씨 놓아둔 것을 먹었다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엄청나게 맞는 것은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원래 농사꾼은 굶어죽어도 씨는 베고 죽는다는 것'인데 한 번은 마을여자가 하도 배가 고파서 남편이 매밀씨 둔 것을 해먹었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나마 집에 먹을 것이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아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장리쌀로 한 가마를 가져다 먹으면 그해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는 한 가마 반으로 갇아야 한다. 여물리에서는 이를 '십오장리'라고 하였다. 연 50%의 장리쌀 이자율은 지금 살아 있는 주민들이 어려서부터 장리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갇았다. 장리쌀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가 장리쌀은 갇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이후 통일벼가 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소작료가 반반씩(병작반수)이었기 때문에 소작료를 내고 십오장리를 갇으면 수확을 해도 쌀이 남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 농촌이 못살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리쌀이 아니더라도 주민들끼리 쌀을 한 말 단위로 빌리는 일도 잦았다. 쌀을 한 말 갇다 먹으면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에 사흘 일을 해주어야 했다. 이렇게 하는 일을 특별히 부르는 표현은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옛날에는 다른 먹을거리가 없고 밥만 바라고 사니까 아침 한 끼에 한 말을 먹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침 한 끼 먹고 사흘 일을 해주어야 하는 셈'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에는 밀가루를 뽕아서 만든 국수나 감자, 옥수수 따위로 때우게 되었다. 결국 흰 쌀밥은 보통 일 년에 한두 번 제사 치를 때나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산골치녀가 일 년에 세 번만 쌀밥을 먹으면 잘 먹는다고 했던 것'이다. 보통 쌀을 한 말 가져다 먹으면 사흘 일을 해주고, 보리쌀 한 말을 가져다 먹으면 하루나 이틀 일을 해주었다고 한다.

여물리에는 모두 세 개의 디딜방아가 있었는데 모두 동네 공동소유라 그냥 썼다고 한다. 연자방아는 마을에 하나가 있었고, 개인소유였다. 연자방아를 쓰면 방아를 쓰는 샅을 내야 하는

데, 연자방아 샅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집에서 절구로 찧는 경우가 있었다. 옛날에 벼로 보관하지 않고 찧어서 보관했던 것은 어차피 집에 남아 있는 곡식이 얼마 없어서 벼로 보관할 만큼 나락이 많지가 않은데다가, 한 번 방아를 찧을 차례가 오면 다음에 언제 또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 찧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뚝뚝이방아'라고 해서 기름으로 돌리는, 짙어지고 다닐 만한 크기의 방아가 있었다. 여물리에서는 해방이 되고 '뚝뚝이방아'가 나왔는데, 이것을 짙어지고 다니면서 방아를 찧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번 뚝뚝이방아가 오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것이다.

당시는 인민군이 공출을 하고 나면 곡식 남는 것이 없었다. 인민군은 조 달린 숫자까지 세어서 공출을 해갔다. 이를 '수확고 잡는다'고 하였다. 과실수의 수확고를 잡으면 나무에다가 칠분의 일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열 개 나면 일곱 개를 공출로 내라는 뜻이었다.

어느 정도 비탈밭까지는 소로 갈았지만, 화전은 보통 사람이 팽이로 파야 한다. 우선 톱이나 낫으로 나무를 깎고 불을 놓는다. 그리고 대여섯 명 정도 품을 얻어서 팽이로 고랑을 판다. 화전을 일군 곳에 많이 심었던 것은 조였다고 한다. 화전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울력'이 힘이 들었다. 화전을 그만둔 것은 화전민 보상금을 주고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취하면서부터인데, 보상금액은 40만 원이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2) 청운면 용두리

용두리 일대에는 원래 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여름철에 쌀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옥수수밥을 먹었다.

용두리에서는 전에 전부 겨리쟁기를 썼으며, 겨리가 완전히 없어진 지는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용두리는 밭에서 소가 앞무릎을 꿇고 돌아야 했을 정도로 경사가 심한 지대가 많았다. 주민들은 겨리로 50, 60도까지는 다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밭을 갈 때 안소는 힘도 더 세고 말도 잘 듣는 소라야 한다.

용두리 일대의 밭에서는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을 많이 재배하였는데, 가장 많이 심은 것은 콩과 팥이다. 밭이 좋은 곳에서는 전작(前作)으로 보리나 밀을 심고 후작(後作)으로 콩과 팥을 심어서 '두 그루를 먹었다'. 밭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삼월같이콩'이라고 하여 음력 3월에 단작으로 콩을 심었다. 올콩이 나오면서부터는 보리와 밀을 베고 그루같이로 콩을 심었지만 그 전에는 보리와 밀을 베기 전 보리가 누르스름할 때 대우치기로 콩을 심었다. 삼월같이콩을 심는 밭과 대우콩(올콩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루콩)을 심는 밭 중에서는 후자가 더 좋은 밭이다. 올콩이 나온 다음에도 그루같이밭과 대우치기밭 양자가 모두 있었는데, 이때는 더 좋은 밭이 그루같이를 하는 밭이었다. 대우치기를 하는 밭에서는 보리가 쓰러지면 콩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루같이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용두리 일대는 과거에는 '다 화전'이다시피 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화전을 했지만 60년

대밭, 70년대초에 보상금을 주고 이주를 시켰다. 화전을 포기하는 데 따른 이주비용은 2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3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횡성에서는 40만 원을 받고 이주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랐는데 아주 산골짜기는 더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용두리에 논이 많지는 않았지만, 논에서는 모내기 후 두벌 또는 세벌 김매기를 했다. 풀이 많고 적음에 따라 김매는 횟수가 달라졌으며, 가뭄이 들면 풀이 많았다. 논을 맬 때는 원래 호미로 두 벌을 매던 것을 나중에는 ‘아이’(초벌)만 호미로 매게 되었다고 한다.

강가에 ‘방천’을 만드는 것은 ‘강둑 파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둑이 파이는 위치에 큰 나무로 가로지르고 작은 나무들을 세운 다음에 돌을 얹어놓아 방천을 만드는 데, 장마 때 물줄기가 그것을 치고 돌아가기 때문에 강둑이 파이지 않는다. 방천은 그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것이었다.

암거를 파서 만드는 수리시설은 ‘엷은깁이’ 혹은 ‘어푼’, ‘어푼’, ‘어푼’ 등으로 불린다. 개천으로부터 물리답 사이에 물길을 낸 도랑을 땅 속에 암거로 숨길 뿐만 아니라 개천 안에도 하천복류수를 모으는 암거를 설치한다. 엷은깁이를 설치하면 몇백 년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예전에 설치한 엷은깁이가 남아 있다. 언제부터 시작된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일제시대보다 더 훨씬 전인 옛날부터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약 삼사십 년전부터 정부에서 시멘트로 수리시설을 해주면서 만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제2절 임업

1. 임업의 특성

이 절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양평군내의 크고 작은 임업 생산현장들과 그 유통방식에 관한 것이다. 양평읍내의 나무장, 그리고 이 나무장에 땀감을 출하하던 주변지역의 농민들의 존재는 양평읍의 도회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근지역에서의 조사를 통해 그 출하권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양평읍내에는 무척 많은 산판이 있었다. 이 글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다루지 못한 점은 무

척 쉽다.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못해서 신지 못한 것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판에 관해 얻어진 자료들은 산판이 단순히 목재와 뿔감을 벌채하는 하나의 현장이 아니라 그것을 운반·유통시키는 여러 현장들의 연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인근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들 중 특정한 부분에 종사하며 이 연쇄에 참여하고 있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나루터와 주막 등 임업 관련 운송로 및 운송시설에 대해서는 제2장 유통과 장시 중 제1절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서, 목재를 유통하는 목상의 활동에 관해서는 역시 제2장 제2절 장시와 상인에서 다룰 것이다.

2. 군내 임업 생산현장과 유통방식

1) 양평읍내 나무장과 그 출하권역

양평읍은 1930년대에 남한강변의 유수한 상업중심지였고 상주인구 또한 적지 않았던 만큼, 읍내 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뿔감을 공급하기 위한 나무장(柴炭場)이 매일같이 형성되었다. 읍내 나무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주민들의 이야기 또한 '보통 하루에 50짐 이상,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00짐 이상'(엄이○, 79세, 양평읍 양근리)이라는 수준에서부터 '들쭉날쭉하지만 적게 설 때는 15, 16인 정도'(김홍○, 71세, 강상면 화양리)라는 수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읍내에 나무장이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후반까지였으며, 나무장이 서는 위치는 현재 양평읍내 대장간이 있는 관문거리 일대이다.

나무장에서 나무를 구입하는 사람은 읍내의 가갯집이나 일반 가정집의 주민인데, "식당에서 곰탕도 끓이고 집에서 밥도 하고 방에 불도 때려고" 구입하는 것이다. 화양리의 한 주민은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라 나무할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할 곳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읍내에는 마땅한 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장에 나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배후에 사유림이 아닌 큰 산을 갖춘 인근 농촌마을 사람들이었다. 강상면에서는 송학리, 신화리, 화양리가 중심지였고, 이들 3개리의 주민들이 읍내에서 나무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같은 강상면에서도 교평리는 마땅한 산이 없어서, 세월리와 대석리는 읍내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 출하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그 경계선은 화양리와 세월리의 사이이며, 직선거리로 4~5km 범위이다. 남한강 북쪽(우안)의 회현리와 창대리쪽으로는 그렇게 큰 산이 없다. 반면 옥천면 북쪽으로는 산이 깊다. 이 방향으로는 옥천면 신북리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매일같이 읍내 나무장에 나무장사를 하러 오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북리 북동과 읍내 양근리 사이는 직선거리로 6km를 약간 넘는다.

양근리 인근에서 나무장사를 하는 주민들은 11월경이 되면 일을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 겨울철 내내 매일같이 나무를 하러 갔다. 화양리 연양마을 사람들의 경우 균유림인 양자산(큰산) 줄기에 가서 나무를 해왔는데, 사유림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해와서 집에서 장작으로 패고, 새벽에 지고 나가 양평읍내에 가서 '지게를 뺏쳐놓으면' 아침에 나무를 살 사람들이 나온다. 연양마을에서는 서너 집이 '전문적'으로 매일같이 나무를 해서 읍내로 팔러 나가는 나무장사였으며, 보통 '비전문적'으로 가끔 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하루 5, 6명 정도가 나무를 하러 갔다고 한다.

신복리 복동에 거주하는 양귀○는 읍내 나무장에 나무를 팔러 가려면 "지게를 한 짐씩 지고 밤중에 나가니까 남자가 죽어나는 일"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집에 반으로 쪼갬 장작 60개 정도를 지고 장에 나가면 "잘 받아서 흰쌀 한 되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장작이 아닌 솔가지를 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땀내 적네 시비를 붙이고 별짓 다하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술회하였다. 읍내 양근리에 거주하는 엄이○도 "나무를 팔려고 농촌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생나무를 끊어가지고 왔다고 해서 나무장사를 잡아가지도 하는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2) 강상면 대석리·세월리 산판과 세월리 심벼루

양자산의 동쪽 자락에 위치한 강상면 대석리는 산이 깊어서 숲을 굽고 화목을 패서 강상면 세월리 심벼루 포구를 통해 삼풍, 광주나 뚝섬으로 나갔다. 양자산 줄기인 새주봉(강상면 세월리 다리골 뒷산)이나 거명지 일대에서도 산판이 있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장작들 역시 심벼루를 통해 뚝섬을 거쳐 서울 등지로 팔려 나갔다. 새주봉은 일인 소유의 산으로 나중에 적산이 되었고, 거명지는 국유림이었다. 여기서 베어진 나무는 여름에는 짐배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얼음 위로 날랐다고 하며, 땃목을 짜는 목재들은 이 일대의 산판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다고 한다.

산판에서 벨 나무들이 웬만큼 모이면 마차를 이용하여 심벼루까지 운반하였다. 물론 사람들이 지고 나르는 경우도 있었다. 심벼루에 장작을 적치한 후 뱃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이들이 배에 싣고 주로 뚝섬으로 운반하였다.

산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산으로 일을 나가며 대석리, 세월리 일대의 주민들이 많았다. 특히 교평리에서 산판 일을 하던 몇 사람은 양자산쪽의 산판만이 아니라 강 건너 개군산 일대의 산판에도 일을 나가는 전문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강상면 남쪽의 산이 깊었기 때문에 강 건너 다른 마을에서도 땃나무를 하러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마을에서는 이들이 마을 뒷산에서 땃나무를 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두 명을 정해 나무를 지키기도 했다고 한다. 가끔 타동 사람들이 나무를 해가다가 이들에게 들키면 마을에서는 이를 압수하여 마을 공동의 것으로 했다고 한다. 때론 나무를 뺏긴 사람들이 억

올해서 아예 나무 해온 것에 불을 질러 버린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나무를 둘러싼 마을간의 실랑이 과정을 전하였다.

강상면쪽의 양자산 자락에서 나는 임산물은 솔가지, 부목용 가지, 장작, 숯 등이었다. 세월리 주민들은 내다팔기 위해 솔나무 가지 묶은 것을 '송기단'이라고 부른다. 오이 등을 재배할 때 부목으로 쓰는 싸리가지 등을 세월리에서는 '썩'이라고 부른다. 당시 뚝섬과 잠실 일대가 온통 오이밭이어서 "말뚝 박고 줄만 꽃으면 오이밭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싸리가지 등으로 썩을 만들어 오이를 심을 때 사용하는 '오이꼬쟁이'가 이들 부목용 가지의 주요 사용처였다.

3) 강하면 항금리 산판과 운심리 구름개

강하면 하동(下洞)에서 앵자봉 방향으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항금리에는 1966년까지 산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목과 숯 등이 운심2리 운포를 통해서 뚝섬으로 반출되었다. 이 산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80세 전후의 노인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930년대까지는 거슬러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양자산은 국유림이지만 항금리 뒷산은 사유림이었고, 목상들이 산 임자와 이야기를 해서 산판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항금리에서 만들어진 목재나 땔감, 참숯 등 임산물은 남한강 연안의 강하면 운심리 구름개(雲浦)로 운반하여 수로를 통해 뚝섬으로 이동하거나 육로로 운반하여 광나루로 이동하였다. 물론 최종 소비지는 서울 일대였다.

항금리의 산판에서 나오는 땔감은 '쪼꼬리', '평썩', '동낭구'의 세 종류가 있었다. 쪼꼬리는 나무를 잘게 쪼갠 것으로 원목의 굵기에 따라 둘로 쪼개기도 하고 넷으로 쪼개기도 했다. 그리고 굵게 묶은 것은 값을 더 받고 조금 가늘게 묶인 것은 값을 덜 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나무값은 그때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에 어떻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평썩은 지름이 65cm 정도 되는 굵은 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만든 널찍한 장작이다. 동낭구는 솔가지를 잘게 묶은 것을 말한다.

항금리의 주민들은 인근의 산에 말도 못하게 참숯가마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말도 못하게 많다'는 것은 이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가마까지를 합한 이야기이다. 숯가마는 한 곳에서 여러 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하고 이듬해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숯을 구워내야 했다. 따라서 실제 한 해에 돌아가는 숯가마는 열다섯 곳 정도였다고 한다.

산판은 그전부터 활발했지만 숯가마는 휴전 후 군인후생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숯가마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지인들도 있고 항금리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숯을 굽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하지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강하면에서 현재도 사용되는 산판용 GMC 트럭(좌: 앞면, 우: 뒷면)

항금리에서 생산된 참숯은 서울로 바로 운반되었는데, 나중에는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그 전에는 배편으로 실어냈다. 배편으로 반출할 경우, 운심2리에 있는 '구름개'에서 배에 실었다. 그 사이의 시기에는 자전거로 숯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20~30명 규모로 와서 자전거에 숯을 싣고 광나루로 갔다고 한다. 이들은 '염티고개'(또는 영치고개, 염치고개, 영동고개,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서 도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 변천(광주시 중부면 상변천리·하변천리)을 지나고 다시 운고개를 넘어 광나루로 나갔다. 광나루에는 숯도매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였다.

항금리의 숯가마에서는 검탄과 백탄 모두가 생산되었다. 검탄을 만들려면 숯가마에 불을 때서 다 타면 구멍을 흙으로 막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한다. 그 상태에서 3일을 놓아두었다가 꺼내면 검탄이 된다. 백탄을 만들 경우 숯가마에서 다 탄 뒤에 가마를 열어서 불이 시뻘겋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꺼내어 다시 땅 속에 묻는다. 검탄은 탈 때 불뚝이 탁탁 하며 튀지만 백탄은 그런 일이 없다. 일단 꺼냈다가 다시 묻으면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한 번 불이 시뻘겋게 확 돌았다가 꺼지므로 나중에 태울 때 불꽃이 튀는 일이 없게 된다. 용도는 거의 구별이 안 되지만, 백탄이 더 단단하고 수명이 오래 가며 불꽃도 튀지 않기 때문에 더 고급으로 친다. 시간상으로는 검탄이 한 30분을 간다면 백탄은 40~50분을 간다고 하며, 이에 따라 가격도 차이가 나서 40kg들이 검탄 한 포대가 만 원 한다면 같은 양의 백탄은 만 오천원 정도를 했다고 한다.

숯가마를 만들 때는 나무를 죽 세워놓고 흙을 덮는데, 이때 마치 회단이를 하는 것처럼 몽둥이로 마구 두들기면 흙을 덮은 곳에서 기포가 빠져나가고 밀폐가 된다. 처음에 숯가마를 만들 때는 나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흙을 덮고 두드리지만, 그 가마에서 숯을 다 구워서 빼내고 나면 가마는 그대로 두고 숯을 구울 나무만 새로 넣어 가마를 재사용한다. 가마는 크기에 차이가 있는데, 40kg들이 숯 포대로 20개 가량 채울 양의 숯을 굽는 가마는 흙으로만 다져

서 만들고, 30~40포 정도 들어가는 솥가마는 철근 따위로 골조를 만들어 대고 흙으로 덮어서 만든다고 한다. 골조를 만드는 이유는 솥을 꺼낼 때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다.

솥가마만 놓고 본다면 수명이 보통 일 년 정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가까이에서 솥을 굽는 것이고 나무가 다 되면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 가마를 옮기게 되므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가마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주민들은 어디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인근의 산 여기저기에 솥가마가 있다고 하였다.

운심리 운포의 주민들은 이 산판과 관련하여 장작과 솥 등을 실어내는 일에 참여했는데, 하루 일을 하면 해방 전에는 지계를 지고 하루 종일 실어내고 모판 두 되 분량의 곡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 일하고 품값을 받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일공'이라고 하였다. 1965년 경 산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우마차로 한 번 운반하면 쌀 한 말씩을 운임으로 받았다.

4) 강하면 성덕리 양자산과 제방전

성덕리의 고창국은 원래 성덕리 주민만이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노는 큰 마을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제7장 민속신앙과 의례 참조). 이렇게 고창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데는 성덕리라는 마을이 원래 큰 마을이라는 점, 성덕리 고창국에 불거리가 많았다는 점 외에도, 성덕리 배후에 있는 양자산이 인근마을의 주요한 땔감 공급지였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즉 고창국을 하기 위한 재원은 몇 가지의 큰 원천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내는 '제방전[契房錢]'이었다.

성덕리에 장산이 있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해서 굿판을 크게 벌이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니까 성덕리 사람이 아닌데도 땔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방전이라 해서 얼마간 주류를 받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제방전은 성덕리 뒤편의 양자산 일대에서 땔나무를 해가는 다른 마을의 주민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는 돈이었다는 것이다. 제방전을 내던 인근의 마을들로는 양서면 대심리(건너상심),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강하면 왕창리(부루개) 등이 꼽혔다.

5) 개군면 개군산 산판과 구미리 후미개

개군면의 개군산에는 1939년경부터 약 10년간 산판이 있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임업생산에 종사하였다. 산판이 컸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남한강 건너의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살띠마을의 주민들도 금사면 전북리와 개군면 구미리를 잇는 후미개 나루를 건너서 이 산판에 일을 하러 다녔다고 한다. 당시는 개군면도 여주군에 속해 있었다.

개군산의 산판은 10년 정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전부 합치면 76~78정(1정은 3,000평)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개군산에 산판이 있을 때는 나무를

왕래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후미개에는 주막집도 한 채가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2장 유통과 장시 참조).

6) 양서면 대아동 동유림 산판과 대심리 한여울

행정구역상으로 양서면 청계리와 징동리, 국수리 일부에 해당하는 대아동에는 270정 가량의 동유림이 있었는데, 대아동 주민들은 이 동유림에서 땔나무를 해서 썼다. 대아동의 이웃 마을인 양서면 북포리 원북포마을, 국수리 일부 마을, 대심리에서는 대아동의 동유림에서 땔나무를 해가는 대신에 그 댓가로 시초비를 내고 마을의 길 닦는 일 등도 하였다고 한다.

해방후에는 이 중 100정 정도에서 산판을 벌여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마을에 전기를 놓았다(자세한 사항은 제5장 마을과 사회조직 참조). 대아초등학교는 1953년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아동의 전기가설은 양평읍을 제외하면 양평군에서 처음이었으며, 대아동의 전체 가구에 해당하는 200여 가구가 전기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유림에서 이와 같이 산판을 벌여 임목을 팔거나 화전을 경작하게 하여 받은 돈을 적립하였기 때문에 대아동에는 동네 재산이 많았다. 동유림에서의 화전은 한국전쟁 전까지 있었으며, 산판은 1980년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1957년에 대아동에서 산판을 하던 무렵에는 한여울까지는 '지에무시(GMC)' 트럭으로 운반하고 한여울에서 땔목을 짜서 뚝섬과 마포로 갔다고 한다. 당시 이미 중앙선 국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땔목을 짜서 목재를 운반했던 것은, 국수역에서 화물열차에 싣는 것보다 수로를 통해 뚝섬까지 운반하는 것이 목재운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7)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평양 조씨 종중산

땔나무를 사용할 당시 평양 조씨 종중산에서 땔감을 했으며,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솔가지를 굽는 정도라면 평양 조씨뿐만 아니라 마을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솔가지 등 땔감의 채취에 따른 별도의 입산료는 받지 않았다. 단지 타지 사람들이 이 산에서 땔감을 해가는 것은 막고 있었는데, 산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서는 '산림순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두었다. 산림순산은 딱딱이를 치면서 마을의 야경도 돌았으며, 활동시기는 겨울로 한정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 산에 산판도 있었다. 보통 나무는 미리 해서 놓았다가 여름에 띄워 보냈다. 나무를 베어 흑천으로 띄워 보내면 삼성리 집하장(삼성터널 밑의 집하장)에서 일단 모은 후 신내를 거쳐 개군면 석장리 돌테미와 양평읍 회현리 가소의 경계 지점에서 남한강 분류와 합쳐진다.

제3절 어로*

1. 강 어구

1) 민물조개와 어구

남한강 중류에서 채패(採貝) 대상의 민물조개는 '비단조개(콩재첩)'·'말조개(작은말조개)'·'우렁이(논우렁이)'·'달팽이(다슬기)' 등이다. 산란기 안팎에 비교적 많이 잡았다. 달팽이는 음력 3~4월, 말조개는 5~6월이 산란기다. 비단조개와 우렁이는 달팽이와 말조개를 잡을 때 부수적으로 잡았다.

2) 민물고기 낚시 어구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 어부 김건수씨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에 살고 있는 김건수(남, 1921년생)는 스무 살부터 낚시를 배웠으며 낚시를 하지 않은 지 다섯 해 정도 되었다. 그에게 낚시를 가르쳐준 사람이 현재 양평의 비원매운탕집의 87세 된 주인인데, 그 당시 양평군내에는 낚시꾼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강으로는 양수리에서 청평까지, 남한강 상류로는 도담삼봉까지, 하류로는 독섬까지 가서 채질을 했으니까 가지 않는 곳이 없었고, 하루에 쏘가리를 10여 근도 잡았다”. 당시는 남의 마을이나 남의 군으로 낚시를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었는데, 김건수씨는 이에 대해 “그때는 할 줄도 모르고 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⁹⁾

어법은 건지낚시와 주낙이 대부분을 이룬다. 어구에 대한 설명은 양평군의 자료를 주로 하되, 이번 조사기간 중 그 주변 지역에서 조사된 어구들도 여기에 포함한다. 여기 소개된 어구들은 모두 강상면 화양2리 김건수(남, 1921년생)가 쓰던 것이다.

* 제3절은 고�광민 집필임.

9) 낚시질을 해서 잡은 생선의 판로를 묻자, “(낚시를 배우던)당시에는 고기가 워낙 귀하니까 생선을 많이 먹었으며, 양평읍에 상설로 영업집이 있어서 주로 그곳에 생선을 팔았다고 하였다. 당시 생선을 파는 영업집에서는 조리거나 굽거나 생선국을 해서 먹었고, 매운탕은 없었다고 하였다. 매운탕이 없었던 이유를 묻자 “양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틀 체

강바닥을 긁으며 조개를 떠내는 체라는 말이다. 물 흐름을 거스르며 배로 잡거나 걸터다니며 강바닥을 긁어 민물조개를 잡는다.

① 손 광주리처럼 철사로 틀을 세우고 7mm 그물코의 철망을 씌워 만들었다. 그 위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묶어 강바닥을 닿길 수 있게 만들었다(700g).

②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이아몬드이고, 앞면에서 보았을 때 정사각형의 철사 테두리에 직경 7mm 그물코의 철망을 씌워 만들었다. 그리고 강바닥을 긁기 좋게 바닥에는 날카롭고 넓적한 쇠조각을 대었다. 그 위에 손잡이를 끼우고 묶어 강바닥을 긁어가면 저절로 조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졌다(2,050g).



(단위 : cm)

쓰레

‘쓰레’라고도 한다. 얼음이 언 강에서 고기를 낚거나 그물을 드리우려고 빙판을 뚫는 끝이다. 자루에 쇠붙이 날을 끼워 만들었다. 얼음을 뚫는 동안에 그 속으로 쉬 들어가지 않게 자루 끝을 뚱뚱하게 만들었다(2,350g).



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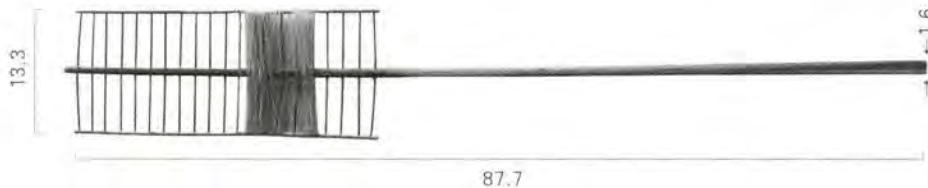
마룻대는 아카시아나무, 살은 왕대나무, 섯은 산죽(山竹)으로 만들었다. 무게는 50g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도 이런 낚시를 두고 일근 삼구(一根三鉤)의 삼봉(三鋒)이라고 하고 있다. 얼레의 몸·살·섯으로 이루어졌다. 몸을 마룻대라고 하는데, 왕대나무 세 조각을 붙여 만든다. 밑에 황경피나무 껍질을 대고 실로 묶어 손잡이를 삼았다. 그 위에 왕대나무의 대오리 16개를 줄줄이 박았는데, 이를 ‘살’이라고 한다. 살을 고정시키려고 그 양쪽에 이대를 끼우고 고정시켰다. 이를 ‘섯대’라고 한다. 그 구멍에 파리머리 하나씩을 넣고 끼우는데, 그것이 점착제 구실을 한다. 이것에 100m 줄이 감겨 있고, 그 끝에 삼봉 낚시가 묶여 있는데, 주로 겨울에 잉어를 낚아챈다. 커다란 뱀장어·쏘가리가 걸리면 낚시가 망가지는 수도 더러 있다.



외봉

얼레에 줄이 감겼고, 줄 끝에 인조미끼가 달린 낚시가 묶여 있다. 낚시에서부터 60cm 위쪽에 봉돌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가을에 배를 타고 어장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으로 쏘가리를 많이 낚았다고 한다. 어장은 강물 속에 바위가 있는 곳이다. 경기도 양평지역에는 ‘천바위’, ‘형제바위’라는 곳이 소문난 쏘가리 발이었다. 1968년 전후부터 인조미끼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꾸라지를 미끼로 썼다. 삼봉(三鋒)이 세 개의 낚시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낚시 하나만 매달려 있기에 ‘외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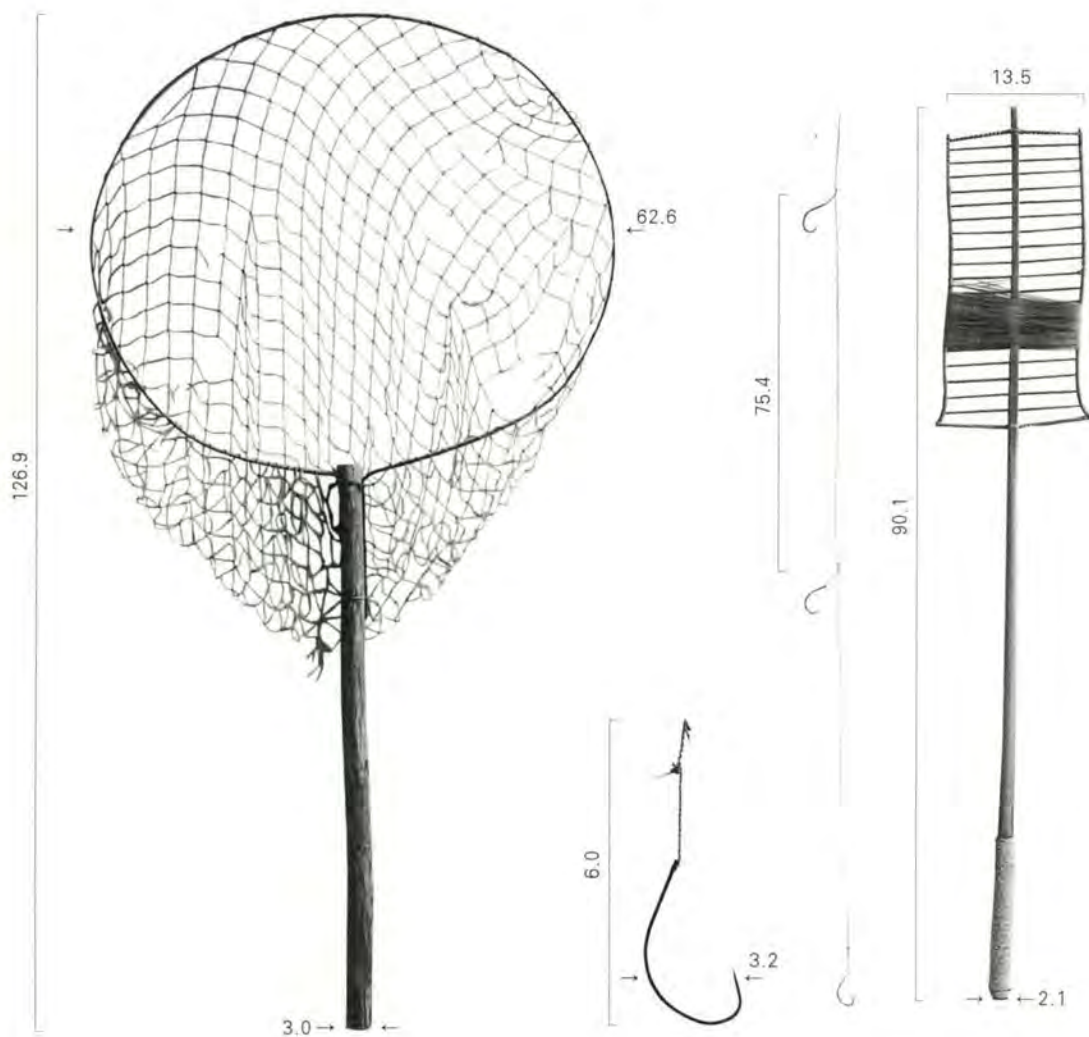
(단위 : cm)

떨 체

'사슬낙'으로 고기를 낚아채는 대로 떠담아 올리는 그물주머니로, 사슬낙의 보조용구라고 할 수 있다. 그물코 2.2cm의 그물을 철사고리에 걸고, 그것을 자작나무 자루에 붙여 만들었다.

사슬낙

얼레에 줄이 감겼고, 그 줄 끝에 낚시 세 개가 사슬처럼 줄줄이 매달렸다. 그래서 '사슬낙'이라고 한다. 낚시에서부터 50cm 위쪽에 붕돌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가을에 '매생이'라는 자그마한 배를 타고, 강줄기를 오르내리거나 가로질러 다니며 미끼도 끼우지 않은 채 고기를 낚아채며 걸려 잡는다. 그래서 달리 '챙질낚시'라고도 이른다. 붕어·모래무지·눈치 등이 비교적 많이 잡혔다.



(단위 : cm)

돌 무

철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것에 녹인 납을 부어 만들었다. 위쪽에는 줄을 묶은 불박이 고리가, 아래에는 여닫이 고리가 달렸다. 배를 타고 다니며 이루어지는 '외봉', '사슬낙' 중에 낚시가 강바닥의 바위나 나무등걸에 걸리는 수가 많다. 여닫이 고리를 풀어 낚싯줄을 걸고 나서 고리를 채운다. 이것을 물 속으로 드리워 낚싯줄 따라 쪽 내려가면, 걸린 낚시는 무게로 탄력을 받고 쉬 빠진다(690g).



주 낙

직경 2mm, 길이 300m의 실로 이루어진 몸줄에 319cm 간격으로 직경 1mm, 47.5cm의 아릿줄이 묶여 있고, 그 끝에 1호 낚시가 매달렸다. 낚시는 모두 106개다. 몸줄을 '등줄', 아릿줄을 '목줄'이라고 한다. 몸줄 3.2m 간격으로 달걀 크기의 돌맹이와 등줄 양쪽에 부표와 닻을 매단다. 돌맹이를 봉돌, 부표를 '등이'라고 한다. 등이는 참나무껍질, 닻은 돌맹이로 만든다.

주낙은 봄과 가을로 이루어졌는데, 저녁에 드리웠다가 아침에 걷었다. 대상 어류에 따라 시기와 미끼가 조금씩 달랐다. 봄부터 장마 때까지는 주로 뱀장어를 대상으로 낚시를 했는데, 이때 미꾸라지를 미끼로 삼았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치는 지금의 팔당댐 주변에서는 장마 때 주낙으로 자라를 많이 잡았다. 남한강과 북한강에 있던 자라들이 산란을 하려고 이리로 몰려들었다. 고둥어를 잘게 썰어 미끼로 삼았고, 강변을 따라가며 주낙을 드리웠다. 자그마한 자라는 덩석 미끼를 물지만, 큰놈은 지혜로워 발로 미끼를 요리조리 밟다가 낚시가 발에 걸려 잡히는 수가 많았다. 자라는 장마 때 강변 모래톱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30~40개의 알을 묻었다.

장마 뒤에는 잉어·꺼지·메기·모래무지·뱀장어 등이 잡혔는데, 지렁이를 미끼로 삼았다.

가을에는 쏘가리가 비교적 많이 잡혔는데, 물벌레를 미끼로 삼았다.



잡어(雜魚) 그물

속그물코 10cm, 겹그물코 36cm의 삼중망(三重網)이다. 옷벼릿줄에는 참나무껍질로 만든 부표(浮標)가 72개 붙어 있고, 알벼릿줄에는 낚으로 만든 봉돌이 229개 붙어 있다. 부표를 '등이', 봉돌을 '그물똥'이라고 한다.



그물바늘

그물을 뜨는 바늘이다. 왕대 나무로 만들었다. 바늘 꼭대기에 실을 걸러 빼는 머리를 '바늘대가리'라고 한다.

뭇

'무시'라고도 한다. 다섯 가닥의 작살 날이다. 꼭대기에 기다란 박달나무 자루를 박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지만, 그것이 빠져 버렸다. 이것으로 물고기를 쏘아 잡는 일을 두고 '뭇질'이라고 했는데, 음력 10~11월중에 밤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두 사람이 밤에 횃불을 밝히고 배를 타고 다니며, 비교적 쏘가리를 많이 쏘아 잡았다(730g).



(단위 : cm)

2. 참게와 그 어법(漁法)

참게잡기는 여러 가지 어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참게는 강은 물론 섬의 개울에도 있었다. 정약전(丁若銓)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참게를 '진궤(眞跪)'라고 하면서, 섬(혹산도)의 계곡에도 있다고 지적인 바 있다.

지역에 따라 산란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알을 품은 참게는 가을에 약 한 달간 상류에서 기수역으로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낮에는 적당한 곳에서 쉬고 밤에 이동한다. 그곳에서 산란하고 겨울을 난 참게는 이듬해 봄에 상류로 거슬러오른다.

팔당댐이 있는 한강유역에서 참게의 하행은 음력 6월 그믐에서부터 7월 초순 사이에, 상행은 음력 2~3월에 이루어진다. 올라가는 새끼 참게를 두고 '방거의'라고 한다.

가을에 알을 품고 하행하는 참게를 어로대상으로 삼는다. 하천의 유역에 따라 다양하게 어법이 이루어졌다.

양평군과 그 주변에서는 주낙으로 낚시를 했다. 100m의 몸줄에 12cm의 간격으로 4cm의 아릿줄이 묶여 있고, 그 줄 아래 6cm 길이의 수수깅을 매단다. 수수깅은 솔에서 켜진 것이다. 한강유역에서는 몸줄을 '등줄', 아릿줄을 '목줄'이라고 하고, 띄엄띄엄 돌맹이를 매단다. 이런 어구를 두고 '거의낙'이라고 한다. 저녁에 드리웠다가 30분 후에 배를 타고 다니며 등줄을 당겨 수수깅에 붙어 있는 참게를 잡아낸다.

이러한 어법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誌)』에서도 '현촉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3. 잉어잡이와 두미강 머리계

양평군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던 잉어 잡는 법이다. 두미강은 현재의 팔당댐 바로 하류부에 해당하는 한강 본류를 일컫는 지명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현재의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속한다. 그런데 두미강에서는 '머리계'라고 불리는 어업조직을 결성하여 그물바탕을 만들고 겨울철에 잉어낚시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 중심은 두미강이지만, 머리계 그물바탕은 경안천과 남한강의 합류지점인 광주시 남종면 정자끼미 일대까지 펼쳐져 있었고, 양수리 등 양서면의 주민들도 개인 자격으로 두미강 머리계 그물바탕에서 입장료를 내고 잉어낚시를 하고 있었다.¹⁰⁾

10) 두미강 머리계 그물바탕에서 낚시를 하는 양평군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오락' 내지는 '푼돈마련'의 수준이었지만, 현재의 팔당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것은 흥미로운 어업조직이며, 양평군민도 개인자격이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 어기(漁期) : 잉어는 남한강과 북한강 줄기에 있다가 겨울에 수심이 깊은 한강으로 몰려든다. 음력 4월에는 다시 남한강과 북한강 줄기로 거슬러올라가 수초에 산란한다. 그러니 한강의 얼음이 쫑쫑 얼어 빙판을 이루는 동짓달·섣달이 어기다.

• 어장(漁場) : 그물로 잉어를 가두어 두는 자리를 두고 '바탕'이라고 한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4권(농상공부수산국, 1911 : 233)은 '바탕'을 바다로 잘못 듣고 '해(海)'라고 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창우리·배알미·이석리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팔당리까지 약 6km에 걸쳐 있는 한강의 깊이는 '열두 길'이라고 할 만큼 수심이 깊었다. 이곳을 두고 '두밧강'이라고 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 광주부(廣州府) 산수(山水)는 '두미천(斗迷遷)'이라고 하고 있다. 이곳에 12바탕이 있었으니, 약 500m 간격으로 한 바탕이 있었던 셈이다. 그 이외에 경기도 미금시에 1바탕, 광나루에 2바탕이 있었다. '두밧강' 12바탕에는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들은 12바탕의 중지를 모아 세운 우두머리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우두머리를 영좌(領座)라고 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드리우는 일, 커다란 나무망치로 얼음장을 내려치며 잉어를 한쪽으로 모는 일, 그리고 다시 그물로 몰아놓은 잉어를 막는 일 등이 이루어졌다.

영좌는 "오늘 어느 바탕에 그물 피라!"고 명령을 내린다. 12바탕의 안배를 고려함은 물론이다. 바탕마다 그물 조직이 있었다. 그 성원을 두고 '그물쟁이'라고 했다.

상류쪽의 그물을 '웃가심', 하류쪽의 그물을 '알가심'이라고 했다. 위아래 그물의 거리는 약 150m이고 그 안에서 잉어를 다시 한쪽으로 몰고 그물을 치는 '내리새기'가 있다. 각 2명씩 6명으로 이루어진다. 3개 조마다 12개의 그물을 갖추고 있었다.

그물의 규모는 그물코 11cm, 폭 1.8m, 길이 18~27m, 그 위에 부표, 아래에 봉돌이 매달렸다. 부표는 참나무 껍질로 만든다. 이를 '웃툇'이라고 하였다. 봉돌은 흙으로 구워 만든다. 이를 '아래툇'이라고 했다.

정오 안팎부터 일이 벌어진다. 12바탕 중 비교적 하류쪽의 바탕인 경우, '알가심'의 그물을 드리워 막았다. 상류쪽 바탕인 경우는 그와 반대로 '웃가심'의 그물을 드리워 막았다. 그리고 가운데 낀 바탕인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해가며 '웃가심'이나 '알가심'의 어느 한쪽 그물을 먼저 드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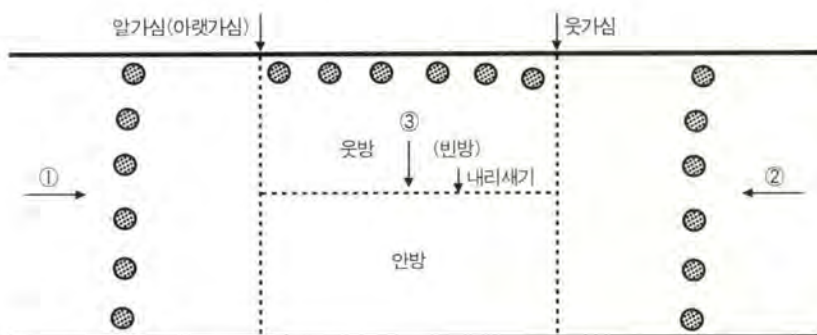
얼음장 줄줄이 구멍을 뚫고, 장대로 그물의 끝을 보내고, 걸이로 그물을 얼음장 위로 빼내며 열두 개의 그물을 이어붙이며 그물을 친다. 장대를 '대장대', 걸이를 '걸잇대'라고 했다. 이것으로 '알가심' 또는 '웃가심'의 일은 끝이다. 반대쪽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물은 똑같은 방법으로 얼음장을 뚫고 그 바로 밑에 그물을 설치하여 줄로 묶어 얼음장에 걸여뒀다.

그물을 드리운 쪽으로 잉어를 모는 일이 이어진다. 직경 50cm, 높이 180cm, 무게 50~60근의 통나무 위에 동아줄을 걸어 묶어 만들었는데, 이것을 머리토막이라고 했다. 머리토막 양쪽에서 두 사람이 동아줄을 잡아 들어올렸다가 얼음장 위로 내려칠 수 있는 것 여섯 개를 준

비한다. 그러니 12명이 그물을 드리울 경계점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일렬로 여섯 개의 머리토막을 동시에 내려치며 잉어를 물고 나서 그물을 내려 막아버렸다. 이것으로 '웃가심'과 '알가심'의 그물은 드리워졌고, '내리새기' 그물만 남은 셈이다.

'웃가심'과 '알가심'으로 막힌 바탕 안에서 강바닥이 비교적 바위·돌맹이가 많은 쪽으로 고기를 몰려고 마음먹는다. 그 반대쪽 강가에서부터 머리토막을 얼음장 위로 내려치며 고기를 한쪽으로 몰고 나서, '내리새기' 그물을 내린다. 그러면 그물의 평면도는 H 모양이 되는데, 고기가 몰려 있는 칸살을 '안방', 그 반대 칸살을 '웃방'이라고 했다.

두미강 머리계 한바탕의 구성



머리토막을 울리며 고기를 '웃방'으로 모는 사람을 두고 '머릿계꾼'이라고 했다. 이때의 '머리'는 머리토막이 아닌가 한다.

오후부터 낚시꾼들도 '웃방'으로 몰려든다. 계원들은 입장료를 받는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4권(농상공부수산물, 1911 : 236)는, "입장료는 2전 5리~5전이고, 많을 때 1,000명, 보통 때 2~300명이 몰린다"고 했다. 1910년대 이 지역 하루 품삯이 25전이다.

이튿날 새벽 해가 뜨면 그물을 걷는다. 그물마다 잉어가 걸려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갖는 것으로 그물 사용료를 대신한다. 입장료는 계원들이 나누어 갖는다, 영좌는 한 계원의 수입 금보다 1배 더 받는다.

제4절 수공업과 생활용구

1. 제지업

예전에 항금리는 양평군내에서 '닥종이의 본고장' 이었다고 한다. 항금리에서 종이가 생산되던 무렵 인근의 종이터는 군내의 강상면 송학리와 광주시 천진암이 있었다. 이 중 송학리 종이터는 항금리 종이터와 규모가 비슷했고, 천진암은 항금리보다 작았다고 한다. 항금리에서 닥종이를 만들지 않게 된 것은 30여 년 전인데, 항금리에서 제지업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 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후로는 양서면 땃골에서 닥종이를 만들었고, 그 뒤로는 용문으로 주요 생산지가 옮겨졌다. 제지업을 하지 않게 된 이유로는 '땃골이 교통이 좋아서' 또는 '배가 불러져서' 따위가 거론되었다. 항금리에서 만드는 닥종이는 양지 원료를 섞지 않고 닥원료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몇 십 년이 지나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질 좋은 종이였다고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항금마을에 거주하는 이근○는 부친이 하던 '종이터'(제지공장)를 물려받아 닥종이 생산에 종사한 바 있다. 조부 역시 이 일을 하였는지는 불확실한데, 잘 모르지만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항금리에는 제지에 사용할 닥나무를 키우는 집이 상당히 많았으며, 일손이 달릴 때 종이터에서 품값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들도 꽤 되었지만, 종이터는 이근○의 종이터가 유일했다. 종이터에는 정해진 작업인원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종이를 건져서 건조시킬 때는 보통 이주머니 5인, 종이 건지는 작업보조 1인, 직접 종이 건지는 역할을 하는 이근○, 이렇게 7명이 기본 인원이 되어 작업을 하였다.

닥종이를 만드는 일은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해서 한창 더운 철만 피하고 일 년 내내 일이 계속된다. 닥나무는 이근○ 자신도 키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항금리의 여러 주민들이 각자 재배하는 닥나무로 종이의 재료를 충당해야 했다. 따라서 항금리에는 닥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지용의 재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었던 나무들이 일부러 재배할 이유가 없어진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닥나무는 뿌리만 잘라다 심으면 아무 곳에서나 잘 자랐기 때문에 닥나무 재배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닥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을(음력 9, 10월경)에 베어놓은 닥나무를 '닥구집'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구덩이에 넣고 훈증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닥구집은 아래로 통기구멍 또는 불구멍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구덩이의 한쪽에는 닥나무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땔나무를 넣는다. 땔나무 위에는 자갈을 덮는다. 땔나무에 불을 당기고 자갈이 달아오르면 그 위로 물을 붓는다. 이렇게 하면 자갈 위에 부은 물이 아래로 스며들면서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 수증기가 미리 파놓은 통기구멍을 타고 땀나무가 있는 곳에서 닥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보통 수증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구멍 위로는 때를 덮음으로써 잡작을 태워서 나오는 화기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닥구집 작업이 끝난 상태의 닥나무를 ‘피닥’이라고 한다.

닥구집의 크기는 보통 7m×10m 정도가 되고, 큰 웅덩이 안에서 달아오른 자갈이 식기 전에 작업을 진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물을 부어야 한다. 보통 한 번 닥구집을 만들면 동네사람이 전부 동원되다시피 하여 100명도 넘는 인원이 닥구집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품을 주고 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일차로 닥구집 작업이 끝나면 겨우내 그 피닥의 겹대기를 긁어서 벗기는 작업을 한다. 겹대기를 벗겨낸 상태의 닥나무를 ‘백닥’이라고 한다. 백닥은 다시 잣물을 넣은 술에다가 삶아서 익히며, 다 익으면 종이를 뜨는 통인 지통에 넣고 확 풀어버린다. 이때 닥잣물을 사용하면 닥이 마치 솜처럼 확 풀어지게 된다.

이를 방망이로 두드리고, 다시 개울에서 빨고 난 후 지통에 넣고 ‘풀대질’을 한다. ‘풀대’란 길이가 한 발 정도 되는 짚는 막대기를 가리킨다. 풀대질을 하면 닥이 확 풀어지게 된다. 또 풀대질 직전에 닥풀을 넣으면 닥이 매끈매끈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종이발로 건져서 건조시키면 닥종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근○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건져서 차곡차곡 쌓고 그 위에 돌을 다시 쌓아서 종이를 압축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신히 들 만한 큰 돌을 일 톤 트럭으로 실어도 남을 만큼 쌓아야 좋은 종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건져놓은 종이를 압축시키면 그냥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한 장 한 장 일으켜 뜯어내면 떨어진다고 한다.

닥종이를 건조시키는 건조판은 처음에는 눅혀서 작업을 하는 ‘평판’이었는데 나중에는 세워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평판이 사라지고 세워서 하는 건조판이 등장한 것은 이근○이 20살 때인 43년 전의 일이었다. 건조판을 세워서 하는 작업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동네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건조판을 세우게 된 뒤로는 작업을 서서 하니까 여러 모로 일이 편해지게 되었다.

이근○이 닥종이를 만들 때 넣은 닥잣물은 화학품으로, 양평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사왔다고 한다. 항금리에서 닥종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던 무렵에는 닥잣물을 쓰지 않고 양잣물을 쓰게 되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화학품인 닥잣물을 쓰기 전에는 메밀짚으로 잣물을 만들어서 썼던 것으로 이근○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닥종이는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이들에게 맡기면 보통 정해놓은 단골들에게 팔아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러나 종이를 구입하는 시점에 농가에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종이를 먼저 내주고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뒤 닥종이 행상들이 수금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멜빵 등에 종이를 걸어 짊어지고 농촌마을을 다니며 종이를

팔았다. 닥종이의 주요 용도는 문창호지를 바르는 것이었으며, 겨울이 되기 전에는 어느 농가에서나 어느 정도의 닥종이를 필요로 하기 마련이었다.

이근○가 본격적으로 종이터를 경영하던 시절에는 전문적으로 닥종이를 팔러다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서 종이를 팔아오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단지 종이를 내줄 때 몇 축을 가지고 가는지를 장부에 적고 그들이 알아서 어디든 가서 팔아오면 그 종이값을 가을에 받는 것으로 거래는 끝났기 때문이다.

백닥을 만들어서 제대로 닥종이를 만들면 보통 백닥 15근에 종이 한 축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항금리 종이터가 생산을 중단할 무렵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백닥 열세 근으로 닥종이 한 축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근○는 이어서 “요즘은 아마 백닥 여덟 근으로도 한 축을 만들 것”이라면서 옛날 종지와 지금 종지가 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항금리에서 닥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닥나무를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닥종이를 주고 교환해 왔다. 보통 백닥 15근 분량을 가져오면 종지로 닷 근 양을 주는 것, 즉 3분의 1을 쳐주는 것이 기본적인 교환비율이었다고 한다. 항금리에서 생산되는 닥종이는 한 해에 7동(종이 20장=1권, 10권=1축, 10축=1동) 정도였으며, 닥종이의 가격은 항금리에 체지업이 중단되던 3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닥종이 한 권=쌀 한 말’이었다고 한다.

2. 대장간업

청운면 용두1리에 그릇 굽고 보습을 굽는 증간[점간]이 있어서, 증간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용두1리 노인정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렇게 보습을 만드는 곳이 양평군내에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서 만드는 보습은 양평 관내뿐만 아니라 홍천, 횡성, 여주 등 사방으로 다 나갔다고 하였다. 증간에 있던 주민들은 이를 ‘보습공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원래 청운면 갈운리 상갈에 있었던 것이 50년쯤 전에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그러나 대장간이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인근의 주민들이 이곳에 직접 와서 보습을 사가기도 했고, 상인들이 와서 사가기도 했다고 하며, 특히 홍천 등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왔다고 한다. 증간의 보습공장에서는 8명 가량의 일꾼들이 일을 했다고 하며, 보습공장 주인은 박종○라고 하는 용두리 사람이었지만 쇠를 부는 기술자는 갈운리 사람이었다고 한다.

양서면 대심1리 한여울마을에도 대장간이 있어서 일대에서 이곳으로 농기구를 구하거나 수리를 하러 왔다고 한다. 대장간 주인은 홍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을 잘해서 일부러 말발굽을 하러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한여울에 거주하고 있는 허병○(64세)네 집이 대장간 자리였다고 하며, 일하는 사람은 주인까지 들어있었다고 한다. 역시 한



양평읍 양근리 최주열씨 대장간 내부



양평읍 양근리 최주열씨 대장간 작업용 망치



양평읍 양근리 최주열씨 대장간 화덕 보수작업



양평읍 양근리 최주열씨 대장간 조선모루

여울에 거주하는 김향○는 어려서 그 대장간을 보았다고 하고 허병○는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60여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양서면 양수리의 시장터에도 대장간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주차장이 있는 자리 서쪽에 접한 편의점이 있는 부근이 예전에 우물이 있던 곳인데 그 우물 북쪽이 대장간 자리이다. 대장간 주인의 아들 역시 양수시장에서 철물점을 하였는데, 몇 해 전부터 업종을 전환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또 용문면 용문리에는 마룻대장간이 있었는데, 마룻대장간집 아들은 홍천으로 가서 현재도 대장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제면 지평리 여촌의 경우 한자로 이촌(梨村)으로 쓰기도 하나 원래 려촌(梨村)을 리촌으로 읽어 이촌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버습구지' 또는 '보습골'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보습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단월면 산음1리에는 고북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이 있던 위치는 현재의 가게집 앞인데, 단

월장이 생기기 전에는 단월면 일대에서 이곳으로 와서 농기구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현재 양평읍내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는 최주○은 43년 전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대장간을 시작하였다. 원래 고향은 양서면 대심리인데 “군 제대 후 먹고 살 길이 희박했고, 누가 철공업이 좋다고 해서” 그때 돈으로 3만 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동두천으로 가서 최주○이 돈을 대고 다른 한 사람이 기술을 대서 일을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원금을 탕진하였다. 그러나 “죽어도 이대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서” 양평읍내로 와서 다른 기술자를 데리고 다시 대장간일을 시작하였다. 그가 양평으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할 당시 읍내에는 대장간이 다섯 집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곧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를 내보내고 혼자 일을 하게 되었다. 그의 대장간에는 조선모루와 양모루 모두 있는데, 조선모루는 예리하게 세울 때, 양모루는 편편하게 펼 때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용기점업

양평읍에서는 오빈리와 도곡리에 용기가마가 있었는데, 한국전쟁 직전까지 용기장사가 이곳에서 구운 용기를 들고 동네를 돌았다고 한다.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에서는 오빈리에서 나온 용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용기장사에게서 용기를 구입하였다. 용기장사는 보통 동이, 자박지처럼 작은 용기들을 용기점에서 떼어다가 지게에 짊어지고 다녔으며, 큰 용기의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오빈리의 용기점에 가서 구입했다고 한다.

양동면 계정리에 있는 (동이)점말은 대원군 집권기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숨어들어 용기를 구웠던 곳이다. 용문면 덕촌리에서는 덕동과 퇴촌에 천주교인들이 많았는데, 이후 용문면 마룡리, 다문리로 옮겨왔다. 이들이 덕촌리에 거주하던 당시 그 천주교인들이 용문면 금곡리에서 소짐바리로 점토흙을 해다가 골짜기에서 독을 많이 구웠다고 한다. 지금도 덕동에는 ‘큰독정굴’, ‘작은독정굴’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들이 용기를 구웠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4. 생활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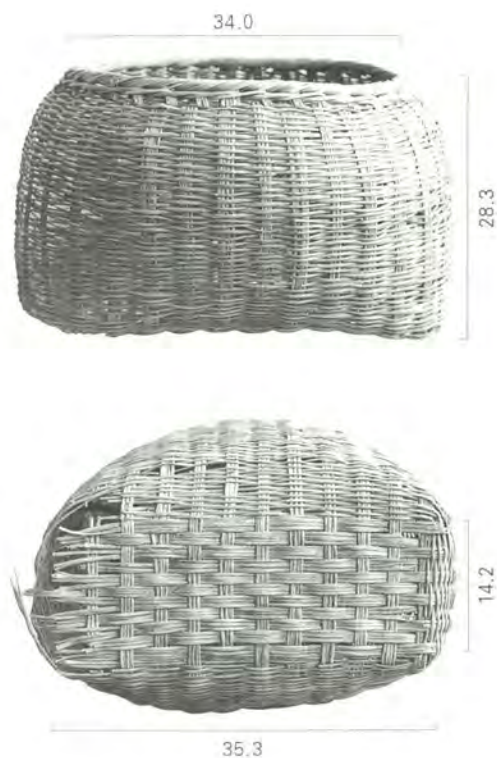
밭 호미

밭일 때 쓰는 호미다. 논일 때 쓰는 '논 호미'와 구분하는 말이다. 강상면 교평2리 100번지 김명철(남, 1921년생)씨가 사서 쓰는 것이다. 총 길이는 26cm, 무게는 210g이다. 손잡이를 '자루', 날의 목을 '뿌링이', 날의 넓은 쪽을 '머리', 그리고 뾰족한 쪽을 '날'이라고 한다. '뿌링이'는 뿌리의 이곳 말인 듯하다.



다래끼

밭에서 옥수수·고추 따위를 따는 대로 담거나, 나르는 그릇이다. 강상면 교평2리 100번지 김명철(남, 1921년생)씨가 싸리나무가지로 만들어 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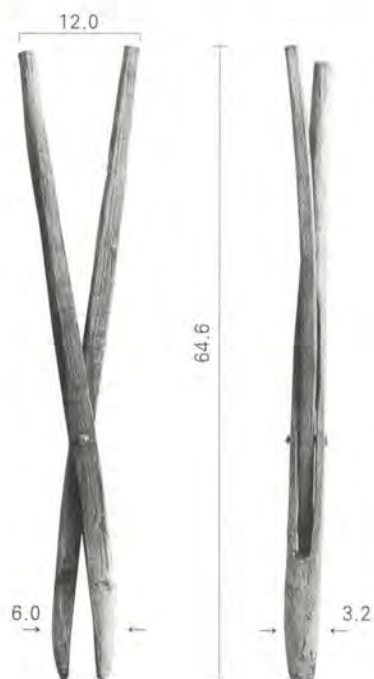
(단위 : cm)



한 아낙네가 옥수수를 다래끼에 담고 어깨에 매어 집으로 가고 있다(단월면 산음1리, 2001.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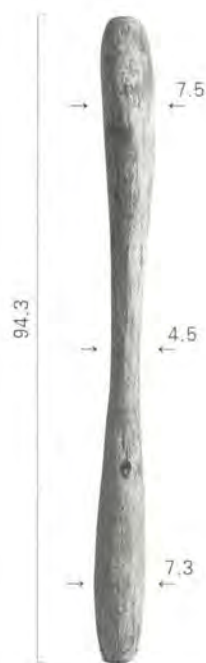
뱀 집게

뱀을 잡는 도구다. 단월면 산음2리 이씨(남, 1943년생)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물푸레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다. 끝이 두 가닥으로 갈렸는데, 서로 마주치는 곳을 나사로 고정시켜 뱀을 집거나 놓기 좋게 만들었다. 무게는 390g이다.



절구괘이

절구공이라는 말이다. 단월면 산음2리 이병태(남, 1943년생)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가운데 손잡이는 홀쭉하고, 양쪽 머리는 뭉툭하다. 무게는 2,150g이다.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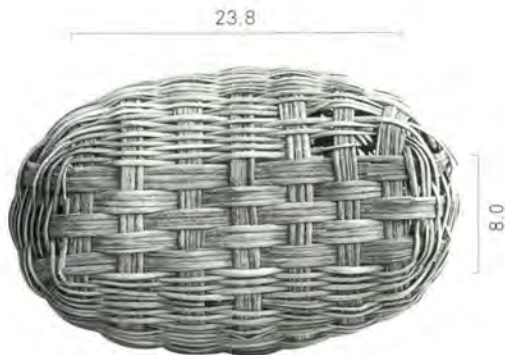
대우종댕이

단월면 산읍1리 김종렬(남, 1934년생)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대우종댕이'는 '대우' 때 종자를 담는 '댕이'라는 말이다. '대우'는 『농가월령가』 음 6월조에,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비어 내고 / 늦인콩, 팥, 조, 기장을 뿌기 전 대우 드러"의 '대우'가 바로 그것이다. 생장기간을 맞추려고 겨울작물인 보리·밀·귀리를 베어내기 전에 여름작물인 메주콩·팥·조·기장 따위를 사이짓기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우종댕이'는 그럴 때 씨앗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다. 짚줄로 날을 세우고 짚으로 결어 만들었다.



종대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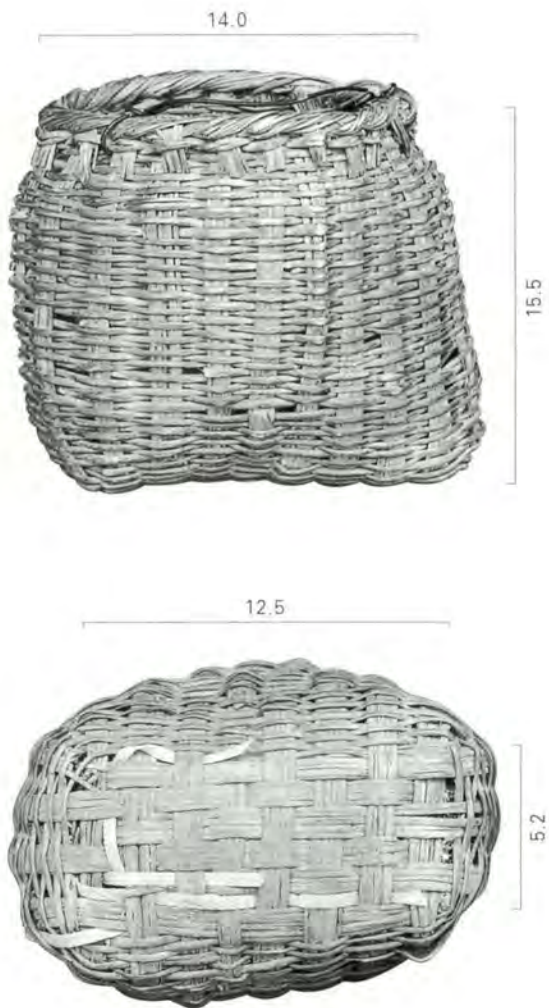
단월면 산읍2리 손억조(남, 1937년생)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싸리개비로 결어 만들었다. 앞의 '대우종댕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릇이지만, 싸리개비로 만들었기에 '대래끼'라고 하면서 구분할 뿐이다. '대래끼'는 다래끼의 이곳 말이다.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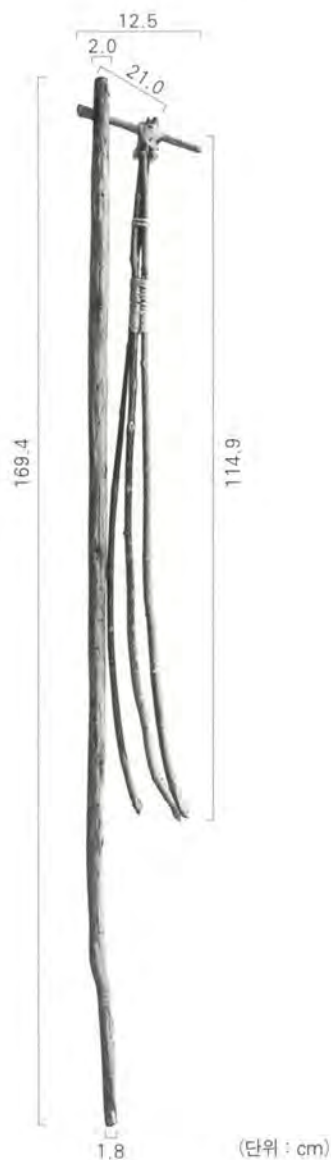
종드래끼

강상면 교평2리 김명철(남, 1921년생)씨가 싸리개비로 만들어 쓰던 것이다. 이곳에서는 '드래끼'라고 한다.



도리깨

단월면 산음2리 이병태(남, 1943년생)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어느 지역의 것이나 도리깨는 타부(打部), 손잡이, 연결부(連結部)로 짜여졌다. 타부를 '아덜'이라고 한다. '산유수'로 만들었는데, 물푸레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손잡이를 '장치'라고 한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연결부를 '비네'라고 한다. 비너라는 말이다. 비네는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다. 전체 무게는 930g이다.



낫

강상면 교평2리 김명철(남, 1921년생)씨가 구입하여 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 시절에 보급된 일본 낫과 구분하여 '조선 낫'이라고도 한다. 전체 무게는 370g이다.



쇠물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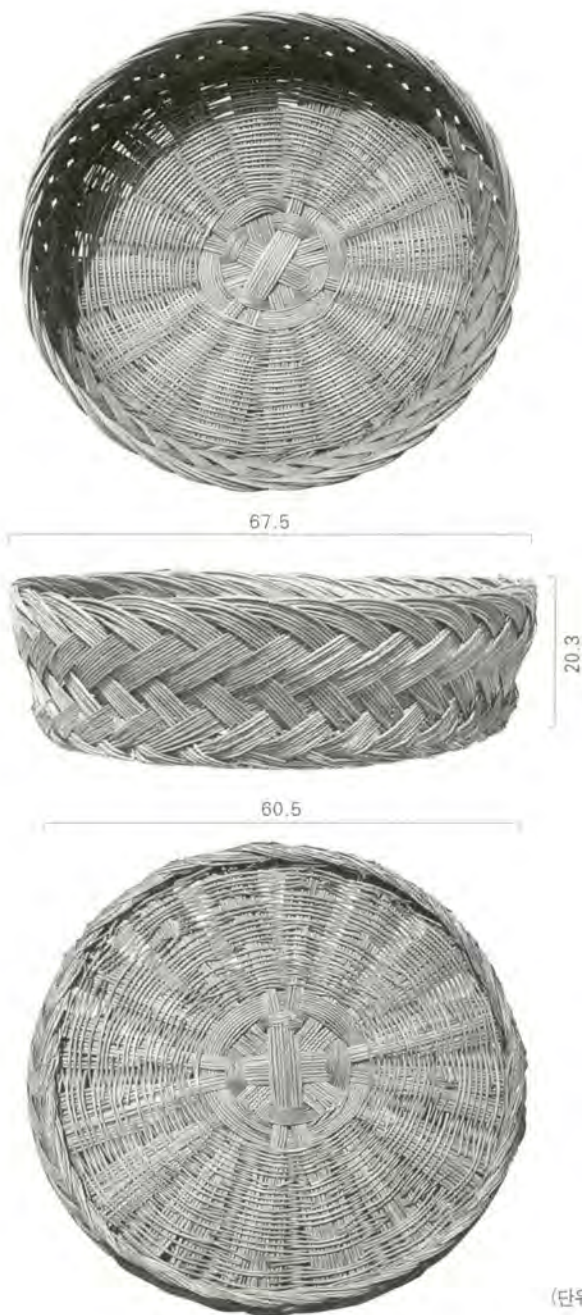
쇠죽을 짓거나 푸는 바가지인 쇠죽바가지의 이곳 말이다. 버드나무로 손잡이가 달린 바가지 모양으로 만들었다. 단월면 산음1리 김종렬(남, 1934년생)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1986년에 김씨가 같은 마을 이씨에게 부탁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전체 무게는 700g이다.



(단위 : cm)

광주리

단월면 산읍리 김종렬(남, 1934년생)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이웃 지평리로 시집간 시누이로부터 선물받았다고 한다. 온통 산죽(山竹)으로 만들었다. 집 바깥에서는 새참을 담고 머리에 이고 나르는 그릇으로, 또 집안에서는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쓰였다.



여 백

제2장 유통과 장시*

제1절 사람과 물자의 이동

이 절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옛길들, 특히 장길이나 서울길, 소로들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는 지금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옛길들이 있는가 하면 4차선 도로로 확장된 도로도 있다. 이들 길에 관한 이야기는 양평군의 각 마을 및 지역들이, 또는 양평군과 인근의 시군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방식들을 드러내준다.

우선 육로와 관련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고갯길에 대한 정보들이 수집되었고, 또 북한강을 걸어서 건너던 다양한 길들, 남한강변으로 대로가 개척되기 전의 서울길이었다고 보여지는 옛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다. 이것들은 장시변동이나 읍치이전에 관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옛길에 대한 조사에서 단지 길을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길에 있던 주막·마방 등 육로교통 관련 시설들, 그 시설과 길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관행이나 이용권역, 이용목적, 관련 민간신앙 등의 조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수로와 관련해서는 나루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도강을 목적으로 하는 나루터, 기항을 목적으로 하는 나루터, 양자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나루터들이 구분되며, 이들 나루터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던 물자들, 나루터와 관련된 옛길과 장시들, 이용관행과 이용권역, 이용목적이나 관련산업들이 드러난다. 단지 물에 위치한 나루터와 뱃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되다 보니 한강 수운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해방전후에 등장하여 발전하였던 노선버스에 대한 조사도 이번 조사의

* 제2장은 안승택·정법모 집필임.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읍내를 지나는 노선버스로 제일 먼저 생긴 것은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였다. 강원여객의 시발지는 서울 본사가 있는 종로2가 관수동이었는데, 동해상사의 시발지가 어디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손정목(『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 346)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승합자동차 운전상황』을 자료로 하여 1928년 10월 1일 현재 서울 기점 시외승합자동차의 운전상황을 표로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양평 간에는 두 개 영업자가 승합차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리는 140리, 소요시간은 3시간, 1일 1회 왕복에 덕소·양수를 주요 경유지로 하여 10리당 요금이 30전이며, 편도 요금이 4원 20전이었다고 한다. 이 문헌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손정목의 자료에서 서울~양평 간을 운행하는 2개 영업자는 아마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였을 것이고, 이 자료는 25인승 버스가 등장하기 전 '검은 차' 단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자료의 편도요금 4원 20전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중앙선 개통 직전 25인승 버스의 편도요금 2원 10전의 정확히 두 배가 된다. 이것이 요금인하를 반영하는 것인지 기억의 착오나 미성년 요금할인 등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결과인지는 추가적인 조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양평군의 나루관련 현황을 나타내는 문헌들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양근군읍지 여지도성책(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1899, 奎 10728)의 「진도(津渡)」에는 다음과 같이 나루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용진도(龍津渡) : 군 서 50리 大灘水와 합류하여 并灘으로 간다.

갈산진(葛山津) : 군 남 3리 小路通于驪州利川界

상심진(上心津) : 군 서 20리 서종면 小路通于廣州界

월루진(月樓津, 다루레기) : 군 서 15리 고읍면 小路通于南中面

청탄진(靑灘津) : 군 서 30리 남종면 小路通于西始面

수여진(水餘津) : 군 북 50리 서종면 小路通于楊州境

수입진(水入津) : 군 북 60리 서종면 小路通于楊州境

사참진(沙站津) : 군 북 70리 북면 小路通于加平境

『양근군사례(楊根郡事例)』(1869년경, 奎 27186)의 「각양잡탈(各樣雜頭)」에는 진부복(津夫復) 13결은 초미(草米)로 한다고 하였고, 「공방(工房)」에서는 균청선세전(均廳船稅錢)은 춘추 각 5량 5전이되 경내 지토선(地土船)은 수세상납(收稅上納)하고 산과(山果)·산사(山査)·고읍산직처(古邑山直處)에 분정봉용(分定捧用)한다고 하였다.

1899년에 간행된 『양근군읍지(楊根郡邑誌)』에는 양근지역의 풍속에 대해 “백성들이 수수와 조를 심고 땀감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적고 있다. 지금도 강변에 위치한 마을들에서는 과거에는 주로 조나 수수를 밭에 심어 수확을 하고 배를 이용하여 땀감·채소 따위를 서울로 내다 팔았으며, 상류에서 내려오는 땀감·목재 따위를 실은 배나 뗏목을 부리는 뗏사공들,

그리고 도보로 서울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숙식편의를 제공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 1937년 양수교의 건설, 1939년 청량리-양평 간 중앙선 철도의 개통, 1940년 양평~원주 간 중앙선 철도개통 등이 이 일대 나루기능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들이다. 1925년의 을축대홍수를 계기로 시작된 한강상류에서의 댐 건설로 화천댐(1939~1944)과 청평댐(1939~1943)을 완공했고, 해방후에는 팔당댐을 1968년 5월에 착공하여 1974년 5월 24일에 준공했는데, 이러한 댐 건설 역시 수운의 단절은 물론 이에 의존해온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하의 사례들을 통해 그 구체적인 현장을 확인해 본다.

1. 북한강을 건너는 옛길과 나루

1) 양서·옥천면 일대의 옛길

양서면의 대아동(청계리·징동리·국수리 정자동) 일대에서의 주막거리는 북포리 원북포 마을이었다. 원북포는 '늪대울'이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전에는 여기가 주막거리였으며, 마방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자고 서울로 갔다. 이외에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나 구전되는 주막은 양서면 도곡리의 반장과 옥천면 옥천리의 장고개 등이 있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장'이라는 지명은 홍천에 살던 덕수 이씨가 홍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가다가 반장까지의 거리가 딱 반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한티고개 너머의 양서면 북포리의 이병모 묘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연결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양서면 신원리 샘골마을에서 부용산을 넘어 목왕리로 넘어가는 길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 길은 신원리에서 양수장을 갈 때 이용하던 길인데, 강가로 큰 길이 나기 전에는 이 길이 큰 길이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성황당 나무는 도토리나무였는데, 지나갈 때 침을 뱉고 다니고 집에서 고사를 지낸 뒤 나무에 천 등을 잡아매 놓았다고 한다. 샘골 주민인 강정순은 성황당 나무는 아직 남아 있겠지만 현재 이 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험해져서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서울에 가는 대로가 강변으로 뚫린 후, 이 육로는 기본적으로 양서면 용담리의 기두원에서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고랭이나루(高浪津)를 건너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를 빠져나가는 길이었다. 현재는 팔당댐 담수로 인해 연중 물에 잠겨 있지만, 과거 기두원에서 두물머리로 빠지는 길은 우기를 제외하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길이었고, 고랭이나루 역시 갈수기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한다. 이 길을 두고 양수리의 주민들은 '고랭이나루이길'이라



양서면 양수리 고랭이나루터 전경



양서면 양수리 돌데미나루터 전경

고 부르고 있었다. 현재 양수교가 놓여 있는 돌데미나루 역시 과거 갈수기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한다. 식민지 시기에 다리가 놓인 후 돌데미나루는 폐쇄되었지만, 한국 전쟁기에 양수교가 폭파되자 다리가 복구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북한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이곳에서 운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 체육공원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으로 건너가는 또 다른 길도 있었다. 이는 '마루고리길'이라고 불리는데 이 역시 갈수기에는 걸어서 건너는 일이 있었다고 하며,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여기에 부교를 놓아 도하작전을 폈다고 한다. 이 중에서는 마루고리길이 직선최단거리가 되지만 아주 가물 때 외에는 걸어서 건널 수가 없었고, 따라서 고랭이(나들이)길이 기본도로가 된 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옥천면 신북리 북동에서는 두 시간을 걸어서 양평읍내로 장을 보러 갔다. 양평장으로 가는

장길은 현재의 37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351번 지방도와의 교차점인 백현을 지난 뒤 신애리에 못 미쳐 남쪽으로 꺾어 오빈을 지나 양평읍내로 들어가는 길이며, 주민들은 그 거리가 걸어다니면 20리가 멀다고 하였다.

다루레기나루의 마지막 뱃사공이었던 최옥현은 한여울에는 주막집이 한 집 있었고, 다루레기에 두 집, 검천리 건너 신원리쪽 월계마을(신원역 밑 전나무 아래)에 한 집, 수청리 건너 반장에 한 집이 있었고, 양덕에도 한 집이 있었으며, 개군에도 한 집, 기두원에는 땃 집이 있었다고 하였다. 기두원은 서울 다니는 배가 쉬면서 먹고 오는 곳이라서 주막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막의 위치 및 숫자는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각 나루별로 보도록 하겠다.

2) 무드리나루

수입(水入)나루라고도 불리는 무드리나루는 '물이 마을 앞으로 돌아든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종면 수입리 서쪽 북한강에 위치한 나루로 남양주시 화도면 금남리, 서울, 청평 등지를 다니기 위해 건넌으며, 현재도 운영중이다. 무드리나루는 벽계천이 북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벽계천은 서종면 북동부와 설악면 남서부의 넓은 구역을 관류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지천으로, 용문산 바로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고 있다. 또한 개천 하구에 솟은 200m가 넘는 산이 '人'자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서 마치 우산처럼 북한강의 물살을 막아주고 있다. 이러한 지형 때문인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강의 물이 불어서 물살이 급해져도 나루터 주변은 잔잔하였다고 하며, 짐배나 뗏목이 급한 물살을 피하여 이 나루터에 정박하여 여러 날에 걸쳐서 묵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로 인하여 나루터 주변은 거의 주막과 색시집이었는데, 이러한 광경은 팔당댐 완공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무드리나루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나루이다. 이 나루 또한 나루에 대한 권리는 양평군이 가지고 있으며, 남양주에 있는 나루도 양평에서 관리하는데 남양주측에는 나루터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수입리, 노문리, 명달리 주민들이 마석장을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무드리나루의 나룻배는 주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수입리에서 나루를 건너고 화도읍 금남리 금대마을 남쪽의 금남저수지 옆 고갯길을 넘으면 46번 국도인 경춘가도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서 버스 또는 도보로 마석장으로 이동하였다.

서종면 노문리에 거주하는 김동성(71세)은 여름에 보리, 가을에 벼로 나루삿을 내는데, 식구가 많은 집은 많이 내고 식구가 적은 집은 적게 내기 때문에 정해진 양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서종면 명달리에 거주하는 김주영(76세)은 명달리에서 마석까지는 50리 길인데 예전에는 마석장에서 일상 생활물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무드리나루를 통해 북한강을 건넌다면 서, 명달리는 무드리나루에서 거리가 있었고 다른 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제방을 내지 않고, 건널 때마다 선가를 내고 건너다녔다고 이야기하였다. 명달리에서 마석장이 아닌 양수장을 이용하는 경우 양수장은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었고, 따라서 생활물자의 구입은 양수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김주영은 나루터의 뱃사공에게 일 년에 정해놓고 곡식을 주는 것을 '제방(契房)'으로, 건널 때마다 현금으로 값을 내는 것을 '선가(船價)'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었다. 명달리에서 '선가'를 내고 무드리나루를 건널 경우 일제시대에는 30~40전을 받았다고 한다.

무드리나루에는 이렇게 마석장 출입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건너다녔는데, 특히 여름 행락철에는 강 건너 화도읍 새터유원지를 찾은 관광객들까지 수송하느라고 쉴새없이 운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하루에 3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이 허다할 정도였다. 그런데 수입리나루터에서는 반대편 강변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이용객이 전화로 연락을 하면 배를 건너는데, 3년 전만 해도 연락이 없어도 빈 배로 강을 건너서 승객 유무를 확인해야 했다고 한다. 현재 반대편 금남리 강변에는 노란색 간판에 '수입리↔금남리간 나루터'라 명기하고, 그 아래에 수시로 운행한다는 글귀와 함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있다. 금남리 주민들의 경우 서종면 일대의 산에서 겨울철 장작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룻배를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무드리나루의 사공은 안진삼(39세)으로 1991년에 도선업을 인수하였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도로가 정비되고 나루를 건너는 승객은 점차 줄게 되었다. 마석장을 찾는 주민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격감하였고,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여 양수리장을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공일을 전담했던 주민이 나룻배 운행을 포기하였고 마을에서는 어부로 일하는 주민을 선정하여 부업으로 사공일을 하도록 위임하게 되었다. 마을과 사공의 계약은 1년 단위로 맺는데, 과거 나룻배 이용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엄격한 규약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를 정하고 세부사항은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나루터 운영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면서, 나룻배 운행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이 거의 불필요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990년까지 수입리 주민들은 1년에 두 차례 보리쌀과 쌀 각 한 말씩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의 돈을 내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1년 하반기부터 주민간에 나룻배의 이용빈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다른 마을 주민과 마찬가지로 편도 250원의 요금을 정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400원, 600원, 8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었고, 현재는 1,000원을 받고 있다.

현재 나룻배로 사용되는 철선은 약 20년 전 2,500만 원 가량의 마을기금으로 제작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목선이었다. 현재 나룻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천 이용료, 하천부지 사용료,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공에게서 받은 입찰대금으로는 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마을기금에서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 벽계천 상류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에 대규모 골프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가 나루터 부근에 쌓이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에 처음으로 나루터 근방의 준설을 실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준설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천 준설 허가를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승객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나룻배 운영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주민이 많다. 사공인 안진삼 자신도 조만간에 그만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소군이나루

소군이나루는 서종면 수입리 바치울마을과 꽃대울 사이에 있다. 소군이나루는 설악에서 덕소를 거쳐 서울로 가는 최단 경로였다고 한다. 바치울에서 내수입으로 넘어가는 고개 아래에는 마방이 있어서 설악에서 서울로 가는 소장수들이 이곳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소군이나루를 건너 덕소장까지 갔다. 즉 설악장에서 출발하여 가평군 설악면 솔고개-배치고개-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석바탕-내수입-(마방)-바치울을 경유하여 소군이나루를 건넜다는 것이다. 소군이나루를 건넌 후에는 현재의 86번 지방도를 거쳐 덕소장으로 향했는데, 일부 채꾼(소몰이꾼)들은 서울까지 가서 휘경동 떡전거리에 있던 마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부근에 수입리 무드리나루가 있었으나, 우회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넌 후 덕소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강변을 따라 소군이나루 건너편의 신당재마을까지 걸어야 했기 때문에 덕소 방면으로 가는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입리 무드리나루는 오히려 수입리 인근 주민들이 마석장을 출입할 때 주로 이용하던 나루라고 할 수 있다. 바치울에서 덕소장과 설악장은 각 40리, 마석장은 20리, 양수리장은 30리, 청평장은 30리 거리였다.

소군이나루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관리하는 나루였는데, 지금은 서울로 이주한 김수일이 마지막 사공이었다고 한다. 나룻배에는 15명 내외가 탈 수 있었으며, 자주 이용하는 주민은 여름과 가을에 각각 보리 한 말과 벼 한 말을 냈다. 백월리마을을 제외한 금남리의 학생들이 문호리의 중학교를 통학할 때에도 소군이나루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집이라 하여 곡식을 더 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4) 무네미나루

무네미(또는 무너미)를 문호(汶湖)라고 쓰는데, 이는 홍수가 나면 물이 넘나든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무네미나루는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한 나루로서, 서종면 일대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과 임산물을 서울로 운반해내는 거점이었다. 과거에는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뗏목과 40~50여 척의 배가 몰려 호황을 누렸으나 육로교통의 발달과 팔당댐 건설로 그 기능을 잃고 쇠퇴하였다.

무네미나루는 서종장이 있었던 문호사거리에서 강변으로 300~400m 거리에 있으며, 건너

편은 고노골과 백월리 사이의 언덕배기에 닿았다고 한다. 초·중학교가 있어서 강 건너 조안면 삼봉리와 화도읍 금남리 일부 마을 학생들이 문호리로 통학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오일장도 개설되었던 까닭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나루였다. 문호리, 도장리, 수릉리 주민들은 서울 나들이를 위하여 버스를 타거나, 마석장에서 소를 거래하기 위하여 나룻배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나룻배로 소를 건네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전문적인 채꾼들보다는 대개 문호리 등지의 농민들이 일소를 구입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었다고 한다. 소는 새벽 4시에서 늦어도 7시 이전에 모두 건넜고, 통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은 대개 그 이후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무네미나루는 팔당댐이 완공(1974년)된 후 1~2년 더 운영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사공 이진태(63세)는 중단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무네미나루 뱃사공일을 보았다. 당시 배 3척으로 무네미나루를 운영하였는데, 가장 큰 배는 약 30명, 중간 배는 약 20명이 탈 수 있었으며, 10명 이하의 인원을 실을 때에는 뒷노만을 짓는 조그만 거루를 이용하였다. 큰배와 중간배는 모두 사공 2명(삿대와 뒷노)이 배를 저었다. 나룻배 관리는 면에서 했으며, 2년에 한 번씩 입찰 방식으로 사공을 정하였다. 사공은 서종면 문호리, 도장리, 수릉리, 그리고 건너편 조안면 삼봉리의 고노골마을과 아양마을, 화도읍 금남리의 백월리마을 주민 약 300호로부터, 보리 한 말과 벼 한 말을 거두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가구에서는 1인당 한 말씩 더 걷었으므로, 때로는 서너 말씩 내는 가구도 있었다고 한다. 곡식을 내지 않는 주민들은 전날 때마다 현금으로 도선요금을 냈다.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의무는 사공에게 있었으며, 배 목수는 조안면 능내리 능내마을에 거주하던 목수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문호리는 큰배가 99척이 있었다고 하는 큰 하항(河港)마을이었다. 장작이나 쌀, 잣 등 농·임산물을 독점, 광나루, 마포 등지로 운반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주민들이 많았다. 문호리에서 뱃사공으로 일했던 이진태는 소금배가 올라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단지 마을의 큰배들이 서울로 갔다 돌아올 때 소금 등 생활용품을 사서 왔다고 하였다.

과거 오이꼬쟁이를 싣고 가던 큰배가 양수리의 북한강 철교 교각과 충돌하여 파선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운항을 피하던 장마철에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였던 까닭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로 가는 길은 때로 2일이 걸릴 때도 있는데, 그 경우 광주의 '바우절이' 등지에 정박하여 밤을 보냈다고 한다. 돌아올 때 순풍을 만나면 하루만에 올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4일이 걸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5) 수대골나루

수대골나루는 서종면 문호리 수대골과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아양마을을 잇는 나루로 아양나루라고도 불린다. 명달리와 동대문을 오가며 소를 거래했던 김○○(76세)는 당시 육상 이동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중에 수대골나루를 통해서 서울로 소를 끌고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즉 명달리에서 서울로 가는 지름길은 정배리를 지나 강가로 나가고, 수대울나루를 통해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로 건너 시우티, 먹치고개를 넘어 덕소 뒷골로 나가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이 중 삼봉리 이후 구간 현재 서울로 가는 자동차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면 잠은 망우리에서 자고 새벽 4시경 동대문시장에서 소를 팔았다고 한다.

또한 수대골은 99골이라 불릴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여 강변 가까운 곳에도 산판이 많았다. 산판은 10~4월에 벌어졌으며, 장작 운반은 4~10월까지 장마기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쉴 틈이 없는 전업이었다고 한다. 수대골에서 산판이 활발하게 벌여졌기 때문에 인근의 짐배들은 이를 서울로 운반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다. 수대골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자리잡은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는 아양나루(또는 앵골나루)가 있었고 1960년대 초중반까지 이 나루터에는 15척 내외의 짐배가 있었는데, 수대골의 산판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실어나르는 일에 이 아양나루의 짐배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가령 삼봉리에 사는 김현태(1897년생)는 4척의 짐배를 소유하여 마을 또는 상류로 가서 산판 또는 숯판에서 나오는 땀감을 실어 뚝섬 등지로 내다 팔아 돈을 벌었다고 한다. 물론 수대골의 산판뿐만 아니라 삼봉리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산판(이들 산판에서는 마차로 실어서 강가로 옮겨야 했다)에서 나온 장작이나, 때로는 청평댐 '오대골' 까지 가서 그곳까지 운반된 장작을 배로 옮겨 실어서 서울로 내가기도 했다. 장작을 실을 때는 단을 불리기 위하여 2~4조각으로 썰었는데, 뚝섬 등지에 도착하면 소매상들이 다시 여러 조각으로 썰어서 단을 불렸다고 한다.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상달에는 나루터에 짐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간단한 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비용은 짐배 소유자들이 냈으며, 돼지를 잡고 백설기를 찌서 절을 올린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간단한 의례였다고 한다. 장작을 싣는 짐배는 안전을 위해, 그리고 짐을 더 싣기 위해 2척을 묶어서 운항하기도 하였다. 1척에 약 3,000단의 장작을 실을 수 있었는데, 2척을 묶으면 6,000단이 넘게 실었다고 한다. 뚝섬까지는 하루에 충분히 갈 수 있었으며, 올라올 때에도 순풍을 만나면 쌍돛대를 펴서 하루에 올라올 수 있는 거리였다.

서울을 왕래할 때 가장 위험한 곳은 조안면사무소가 위치한 여울, 속칭 '고랭이', 그리고 팔당 근방 소, 광진교였다. 고랭이에서는 배 밑바닥이 닿아서 파선하고, 팔당 근방의 소에서 역풍을 만나면 배가 방향을 잃고 강변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광진교에서는 교각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장작을 싣고 간 짐배가 올라올 때에는 본인 또는 마을 주민들이 부탁한 쌀, 소금, 젓갈 등 생활용품 싣고 왔다고 한다.

아양마을 주변의 짐배는 1963년경에 대부분 운항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제3공화국 초반기에 한편으로는 산림녹화를 이유로 벌채를 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의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군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인을 동원하여 산림을 벌채하고 군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로 반출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장작 반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6) 용진나루

용진(龍津)나루는 문헌에 등장하는 양근지역의 대표적인 나루이기도 한데, 북한강 하류의 남북한강 합수부에 해당한다. 용진나루 건너편에 있는 양주군 조안면 진중리(鎭中里)는 과거 혼련도감에 소속된 진(鎭)을 둔 곳으로 군사요충지였다. 1462년(세조 8) 10월에는 어가(御駕)가 '용진' 나루의 부교(浮橋)를 건너 양근의 용두(龍頭)에 닿았다는 기록도 있다.

용진은 골용진, 벌용진, 배용진, 배나무용진 등 여러 이칭 또는 하위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양서면 양수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또는 송촌리를 잇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용진나루의 위치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위치 변화가 있었고, 같은 시기에도 갈수기에는 걸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이 일대에 여럿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중 시기에 따른 위치변화는 특히 양근읍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변화가 일어난 18세기 초기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즉 1747년(영조 23)에 양근읍치가 지금의 옥천면에서 양근나루가 있는 갈산, 즉 지금의 양평읍으로 옮겨지는데, 그 이전에 양근으로부터 두물머리까지 강을 따라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고읍(古邑)을 통과하여 용진나루를 건너 조안을 거쳐 와부로 가던 길이 바뀌어 남한강변을 따라가다가 용진나루 아래 고랭이나루나 마루고리길로(후에는 여기에 돌데미나루가 추가된다) 건너거나 아니면 두물머리나루를 건너 다음 소내나루를 건너 서울로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서울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열리면서 이전에 있던 나루들과 새로 통행된 나루들을 통칭하여 '열두 용진'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7) 돌데미나루와 고랭이나루, 마루고리길

돌데미나루는 양서면 양수리의 양수교의 바로 상류지점과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를 잇는 나루이다. 양수교가 세워지기 전에 북한강을 건너 남양주로 나룻배가 다니던 곳이며, 한국전쟁기에 양수교가 폭파되자 일시적으로 나룻배가 부활하기도 했던 곳이다. 돌데미나루는 갈수기에는 바지를 걷고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길이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이런 길이 돌데미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돌데미나루로부터 북한강을 건너는 '돌데미길'과 지금의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부터 남한강을 건너는 '마루고리길', 그리고 두물머리로부터 고랭이나루로 건너는 '고랭이길', 이 모두가 갈수기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길이였다.

고안(高安, 지금의 조안면 조안리)은 고랭이나루(高浪津)가 위치한 마을이다. 돌데미는 석장(石牆)으로 표기되고 석장리라는 마을 명칭도 있다. 양수시장에서 양서농협 앞을 지나 돌데미 표석이 있는 나루터로 빠지는 돌데미길을 기준으로 상석정과 하석정(또는 웃돌데미와 아랫돌데미)으로 나뉜다. 주민들은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는 용담리 기드원에서 양수리 두물머리로, 그리고 다시 고랭이길을 통해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로 걸어서 건너고, 물이 차서

걸을 수 없을 때는 돌데미나 고랭이의 나룻배로 건너다니는 길이 과거 서울로 가는 주요 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한 1920년대 후반부터 돌데미나루로 승합차가 다녔다고 한다.

2. 남한강을 건너는 옛길과 나루

1) 강상·강하면 일대의 옛길

강상면 세월리 세심마을에서는 양평장과 여주 이포장을 이용하였다. 두 장은 거래물품 등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양평장이 더 컸기 때문에 양평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양평장은 야트막한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지만 이포장은 고개가 없어서 길 자체는 이포장이 편했다. 세심마을에서 양평장까지는 7km, 이포장은 8km 떨어져 있다.

특히 세월리에 양조장이 있던 1975년경까지는, 양조장에서 양평읍내로 막걸리를 내기 위한 '장배'가 있어서 세월리와 양근리 사이를 왕래하였으므로, 장날에는 이 배를 이용하여 양평장에 출입했다고 한다. 이 장배는 매일같이 양평을 출입하였는데,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산 물건과 함께 자신도 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건만 싣고 걸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장에서 사온 소금, 정미소 기름, 온갖 생필품 등이 배로 운반되었다. 장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날에 많았지만, 장날이 아닐 때도 다른 곳에 일이 있어 가는 사람들을 운반해주고 10원, 20원을 받았다. 장배의 배삯은 양조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수입으로 배사공 둘이서 분배하였고, 그래서 세월 양조장 배사공이 월급은 적어도 할 만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송학리 송산마을이나 화양리 연양마을 등 강상면의 주민들은 양근나루를 건너 양평장에 출입했는데, 장날 아침 나루터 양편에는 서울에서 온 무곡상('서울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곡식을 빼앗을듯이 달려들어서 돈으로 바꿔주고 서울로 가지고 올라갔다. 주민들은 이들을 통해 곡식을 돈으로 바꿔 장을 보았다(자세한 사항은 뒤의 '곡물유통' 관련 사례를 볼 것).

강하면에서는 다루레기나루를 건너 양평장을 다녔는데, 이 길은 남한강을 따라 있는 현재의 도로와 같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루레기나루와 양평장 사이에는 다루레기 주막(아세아연합신학대학 앞)과 굽여울 주막(북포2리)이 있었고, 현재의 양평휴게소 뒤에 주막이 있어서 막걸리와 국밥을 팔았다고 한다. 강하면에 사는 한 주민은 양평장에 다녀올 때에 꼭 현 양평휴게소 뒤의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왔다고 하였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여기서 양평까지 가려면 10km를 걸어서 가야 하는데, 갈 때는 집에서 밥을 먹고 떠나지만, 돌아올 때 양평에서 밥을 먹고 나와야 한다.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터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양서면 국수리 정자동에 사는 한 주민은 이천에 친척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 갈 때는 상심나루를 건너 걸어서 갔다고 한다. 상심나루를 건너 항금리까지 간 후 산을 넘어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로 가고, 이곳에서 여주군 금사면이나 이천으로 간다는 것이다.

강하면 운심리·왕창리 일대에서 경안장으로 갈 때는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염티고개→퇴촌면 관음리→정자골고개→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사마루→경안으로 가는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또 뗏꾼들은 남한강을 따라 뗏목을 타고 내려갔다가 일이 끝나면 걸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도중 분원이나 검천 등에 색주가가 있어 약주를 좋아하는 이들이 이곳에 들렀다고 한다.

강하면과 강상면을 잇는 88번 지방도가 놓인 것은 약 30년 전의 일이다.¹⁾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양평읍내와 강하면을 잇는 버스편이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후 다루레기나루는 폐쇄되었다. 이 노선을 운행했던 것은 처음에는 마이크로버스였는데, 버스는 운심리와 동오리를 지나 항금리가 종점이었다. 당시 상동 사람들은 운심리까지 나와서 버스를 탔다고 한다. 그러나 눈이 쌓여서 고개를 넘기가 힘들어지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가끔씩 성덕리를 지나 항금리 방향으로 돌기도 하였다는 주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엇갈렸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상자포나루

상자포나루는 윗자진개나루라고도 하는데, 개군면 상자포리 윗자진개마을에서 강 건너 개천 어귀 양편에 해당하는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의 발들마을과 금새마을 두 곳으로 사람을 건네주었다. 상자포나루에는 나룻배 외에 강배나 뗏목이 들르는 일은 없었다.

상자포나루로 내려가는 끝 집에 김연희(69세)가 살고 있다. 김연희는 상자포나루의 마지막 뱃사공인 김종남(작고)의 부인이며, 남편이 나룻배를 몰지 못할 때는 직접 나룻배를 몰기도 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마지막 뱃사공이기도 하다. 김종남의 부친은 김춘배(작고)이며 조부는 김윤한(작고)인데, 이들은 3대를 이은 상자포나루의 뱃사공이었다. 원래 상자포 뱃사공 김씨 집은 현재의 위치 아래터에 있었는데, 1972년 대홍수 때 잠겨서 그 위의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 원래의 뱃사공 김씨집 자리는 빈터로 남아 있다.

김연희에 따르면, 뱃사공일은 사람들이 건네달라고 하면 밤중이나 식사중이거나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뛰어나가야 되는 일이므로 고달픈 일이었다. 배를 부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흐르는 물을 고려하여 멀리 대각선으로 삿대를 놓아야 하는데 서둘러 삿대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려다가 사람까지 따라 떨어지는 일도 있었으며, 삿대질을 하다가 삿

1) 주민들은 팔당댐이 되면서 바로 생겼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70년대 말에 생겼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1976년에 딸을 낳았는데 버스가 없어서 상심에서 나루를 건너갔다는 주민의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버스가 들어온 것은 그 뒤의 일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전에 생겼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개군면 상자포리 옷자진개나루터에서 김연희씨가 용왕고사를 올리고 있다(제7장 민속신앙과 의례 참조)

대를 떠내려 보내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금사리는 금사교를 중심으로 개울 북서편의 금새(금계동, 벌말)와 개울 남동편의 밭들로 나누어지는데, 상자포나루의 나룻배는 손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금새 쪽 강기슭에 대기도 하고 밭들 쪽의 강기슭에 대기도 하였다고 한다. 김종남이 작고한 것은 13년 전 일이며, 그 5년 쯤 전부터 뱃사공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므로 상자포나루가 소멸한 것은 1985년 이전의 일이 된다. 한편 이포대교(공사기간 : 1987. 11~1991. 12)를 놓으면서부터 상자포리의 나룻배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상자포리와 금사리의 주민들은 상자포나루를 이용하기 위해 보리 때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씩을 내다가 그후 가을에 쌀 한 말씩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보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이거나 타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돈을 내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곡식을 건으러 다닐 때는 보통 10/ 들이 양동이를 들고 다녔다. 상자포나루에서는 나룻배를 이용하기 위해 곡식을 내는 것을 '나루추렴'(또는 '무곡' 아니면 '나루삿을 건으러 다니다')이라고 하였는데, 나루추렴이 보리/벼의 연 2회에서 쌀 연 1회로 바뀌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일 년에 며칠간 뱃사공집 일을 해주고 나룻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일수는 그때마다 곡식으로 환산한 품값의 기준을 따랐다. 나룻배가 없어지기 직전에 한 번 건널 때마다의 배삿은 200~300원 정도였다. 상자포나루의 나루추렴을 걷는 범위는 양평군 개군면에서는 상자포리, 하자포리, 자연리, 부리, 내리 일대, 여주군 금사면에서는 금사리, 외평리, 소유리, 하호리, 그리고 상호리 일부였다. 추렴시에는 뱃사공이 각기 개군면 추읍산 밑의 내동과 금사면 대림봉 밑의 윗범실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나루추렴을

건었다. 나루추렴은 사공이 직접 마을로 건너러 다니는데, 김연희는 한 번 건너도 잘 주는 사람이 있고 몇 번밖에 안 건넜다고 안 주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집에 학생이 많다고 해서 나루추렴을 의무적으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사람마다 생각해서 한 말 정도씩 더 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상자포나루를 왕래하는 규모는 바로 하류의 하자포나루와 비슷했다고 한다. 상자포리 사람들이 이포장을 이용할 때는 상자포나루를 이용하지 않고 이포나루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포나루에 대해서는 나루추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널 때마다 뱃삿을 내고 건넜다고 한다. 이포나루는 번성하여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없어지기 직전 경매입찰을 할 때에는 1, 2억을 호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개군면 사람들이 상자포나루를 건너는 주요 목적은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여주군 금사면의 뿔범실과 소유리의 소리실은 개군면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많이 다니던 곳이었다. 반대로 금사리 쪽에서 상자포리로나루를 건너는 사람은 곡수장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상자포나루의 나룻배는 목조선이었다가 25~30년 전에 철선으로 바뀌었다. 목조선은 정원이 20명 정도로 나룻짐을 하는 사람의 왕래가 잦았을 당시에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철선은 정원이 50명쯤 되는 큰배를 군에서 마련해주면서 목조선을 대체하게 되었는데, 과도기에는 큰배와 작은배 두 척으로 나루를 운영하였다. 큰배는 혼자 몰 수 없었지만, 보통 사람이 많이 타면 배를 몰 줄 아는 마을 사람이 한두 사람씩은 있기 때문에 같이 배를 부렸다고 한다. 군에서 마련해준 철선은 큰물에 떠내려가서 양평중학교 뒤에 박혀 있는 것을 찾아왔는데, 배가 부서져 있어서 정원이 8명쯤 되는 작은 철선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다. 배는 이포에 가서 당시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한다. 이 철선 역시 삿대와 노로 움직이는 배였다.

상자포리 뱃사공 김씨집에서는 겨울에도 나룻배를 물으로 끌어올려 걸거나 하지 않고 강에다 항상 놔두었다고 한다. 얼음이 얼면 쓰레 따위로 배의 가장자리만 깨주어도 배가 다치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연희 집에 있던 쓰레는 길이가 4m 정도로 삿대하고도 비슷해서 급하면 배를 지어나갈 때 사용하는 일도 있었고, 얼음 깨고 미는 부분 옆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부분이 달려 있었다. 한편 겨울에 얼음이 집더미처럼 떠내려가거나 서로 뭉쳐서 가장자리가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얼음장난 한다'고 하는데, 유달리 얼음장난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해가 있었다. 얼음장난을 하며 얼음이 밀려 내려올 때는 배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서까래를 배의 가장자리에 대놓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얼음이 닳쳐와도 배가 얼음 위로 얹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겨우내 배 가장자리는 쓰레로 매번 깨주었다.

3) 하자포나루

하자포나루는 아랫자진개나루라고도 부르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다. 이 나루터



개군면 하자포리 아랫자진개나루터



개군면 하자포리 아랫자진개나루터에서 본 뱃사공 집

와 관련하여 『치수급수리답사서(治水及水利踏査書)』(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 389)에는 “하자포나루는 이포의 하류 약 1리에 해당하는 여주군 개군면 좌안에 있으며, 호수 90호 내 외의 작은 마을이지만, 동방으로 약 2리 떨어진 곡수장의 물자를 지배하여 집산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입품으로 주요한 것은 1년에 식염 약 1,000석, 건어물 약 30태(駄)이고, 이출품으로 주요한 것은 벼 약 5,000석, 백미 약 500석, 대두 약 500석 등이다”라고 하였다. 하자포나루가 없어진 것은 4, 5년 전이고, 그 밑의 후미개나루는 30여 년 전까지 있었다. 강폭이 넓지 않아 나룻배에서 사고가 나는 일은 별로 없었다.

후미개나루가 없어진 뒤에는 후미개나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하자포나루를 이용했다. 후미개나루가 없어지기 전에도 후미개와 하자포나루 중에는 하자포나루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으며, 외지 사람들도 하자포나루를 더 많이 이용했다. 후미개는 나루터와



개군면 구미리 후미개나루터 전경



개군면 구미리 후미개(九尾浦)나루터 표석

뱃사공집이 멀어서 특히 밤에는 사공이 집에 들어가 있으면 건너는 사람이 큰 소리로 불러도 잘 들리지를 않았던 반면, 하자포나루의 경우는 바로 나루터 옆에 뱃사공집이 있어서 부르면 바로 나와 이용률이 높았다.

4) 후미개나루

후미개나루는 구미포(九尾浦)나루라고도 하는데, 개군면 구미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루터로부터 마을로 들어온 곳에는 「구미포나루비」가 세워져 있다. 내용은 임진왜란 때 강원도 조방장(助防將) 원호(元豪)장군이 향병을 모아 왜군을 기습하여 50여 명을 치고 대장도 베는 전과로 여주 백성을 보호했던 향군승전 나루터라는 것이다. 후미개나루는 1970년경에 없어졌다. 나루터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땅에 말뚝을 박아놓고 밧줄로 끌어당겨서 매어놓는 정도였다.

후미개나루에서 남한강을 건너면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살띠마을이다. 구미리에서 전북리 방면으로 건너는 목적은 주로 이포장 출입을 위해서였다. 또 예전에 구미리 산판이 컷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살띠 사람들도 그 산판에 가느라고 후미개나루를 많이 건넜다고 한다.

구미리에서는 뱃사공을 나루주인이라고도 하였는데, 후미개나루의 뱃사공은 후미개 사람이었다. 후미개 사람들과 살띠 사람들은 건널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정해놓고 나루주인에게 곡식을 주었다. 여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씩을 낸다. 식구가 많거나 적거나 마찬가지로 건너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한 명이어도 한 말, 네 식구가 건너도 한 말이었다고 한다. 나루주인은 한 집에서 대대로 맡아서 했으며, 나룻배는 뱃사공 소유였다. 나룻배는 삿대와 노 모두를 이용하는 배였다.

후미개나루의 나룻배는 30명 정도가 타는 배였는데 장날 한 번에 10명 정도가 타면 많이 타는 셈으로 이용객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타는 사람이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장날이 아닌 경우 두 사람이 타면 많이 타는 셈이었다. 나룻배라는 것은 한 사람이 건너자고 해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타고 건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주민들은 “외지에 사는 사람이라도 후미개나 살때에 한집안 사람이 살면 그냥 건넌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후미개나루를 건너면서 돈을 내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전북리 살때에서는 더러 양평장을 보러 가는 일이 있는데, 이때는 후미개나루보다는 양덕나루를 많이 이용했다. 구미리에서는 이포장에도 가고 양평장에도 가는데, 이포장에서는 주로 석유를 샀다. 소금이나 북어를 구입하거나 대장간에서 호미를 손보려면 양평장으로 갔다. 후미개나루가 없어진 것은 약 30년 전의 일인데, 나루가 없어진 뒤에 강을 건너려면 하자포나루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구미리에 사는 김창기(74세)에게는 후미개나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옛날 후미개나루는 메[멧목]가 다니고, 다니다가 여기서 부서지고, 그러면 다시 메를 짜서 가고, 산판을 해서 그 나무를 저다가 나루터에서 실어서 서울로 올라가고 하던 나루터이다. 나무는 서울 뚝섬으로 가지고 간다. 큰배는 영월서 오는데, 그 배들이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살던 ‘홍판사’, ‘이판사’라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맡아야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부친에게 들었다. 부친도 그것을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마을에 그 홍판사와 이판사의 묘가 있는데, 자손이 망가졌는지 묘가 아주 묵살이 났다. 이 이야기는 함상헌씨라는 노인한테서도 들었다. 홍판사와 이판사의 묘에는 비석도 없다. 그때 홍판사는 못 살고, 이판사는 잘 살았는데, 홍판사가 지관을 꼬여서 이판사의 묘를 잘못 쓰게 해서 이판사가 망하고, 끝이어 홍판사도 이곳을 떠났다고 한다.

5) 양덕나루

양덕나루는 강상면 세월리와 개군면 양덕리를 이어주는 나루터였다. 양덕나루 역시 한집에서 대대로 사공을 보았는데, 현재 뱃사공을 보았던 사람은 살고 있지 않다. 양덕나루의 나룻배는 40명 이상이 타는 큰배였다고 한다. 양덕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어 원래 살던 노인들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서울 지주의 땅을 짓던 소작인들로 서울 지주는 마차 10대 분량의 소출을 한 배로 싣고 가져갔다고 한다. 양덕리나루터의 맞은편이 되는 강상면 세월리에는 주막이 1개 있었고 운송회사 창고도 있었다. 해방 후에는 비료의 경우 양평에서 배로 이포로 가져온 것을 다시 세월리로 가져왔다고 한다.

강상면 세월리 세심마을의 주민들에 따르면, 양덕나루의 뱃사공이 마을로 와서 가을에 벼 한 말, 여름에 쭉보리 한 말을 걷어갔고, 학생이 있는 집은 각 두 말씩을 걷었다. 이들은 양덕



개군면 양덕리 양덕나루터



개군면 양덕리 양덕나루터 옆 왕버들

리 사람들이 땔나무하러 세월리로 많이 왔기 때문에, 양덕나루를 건너가는 세월리 사람보다 양덕리 사람들이 이리로 오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세심마을 주민들은 양덕나루와 양근 나루 양쪽에 대해서 일 년에 두 번 여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을 배삔으로 내고 있었다. 이를 '하곡' 또는 '나룻배추럼'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살띠마을은 개군면 구미리의 후미개나루의 맞은편이 되고, 따라서 강을 건널 때는 주로 후미개나루를 이용했지만, 전에 더러 양평장을 보러 갈 때는 양덕나루를 이용했다고 한다. 양덕나루는 개군면 석장리에서 이포장을 보러 갈 때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6) 강상면 세월리양조장과 장배

세월리에는 배가 한 척 있었는데, 이 배는 양조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장배' 였다.²⁾ 양조장

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없었고, 주민들은 그냥 세월양조장이라고 불렀다. 이 장배는 주로 양조장에서 읍내로 술을 나르는 데 이용되었지만, 한편으로 주민들이 장에서 구입한 쌀, 기름, 소금 등을 나르는 운반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이 물이 좋아서 술맛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였고, 그래서 양평뿐만 아니라 여주, 개군, 이포, 홍천, 삼풍(여주) 등 안 가는 곳이 없었으며 서울까지도 갔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 가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배에 실어 나갔으며, 그러다 순경에 걸리면 술통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서울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었다.

당시 양평 군내의 양조장은 이곳 외에 양평, 용문, 지평에 있었는데, 세월리양조장은 양평 양조장에 합병되어 주민들은 “여기는 말하자면 양평 막걸리의 지점같은 셈이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만드는 술은 배로 이동하거나 지게를 사용하여 양평읍내로 운반하였다. 양조장이 잘 되고 주인집도 으리으리해서, 일반 사람은 출입도 못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지게로 젖서 나르는 사람은 양조장에서 고용하여 쓰는 인부들이 있고 날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날품을 팔 경우 ‘한통에 얼마’ 하는 식으로 일당을 주었다. 지게꾼들은 육지로만 대석리, 홍천, 이포까지 지게로 나르는 사람이었다. 겨울에 물이 얼면 지게꾼들은 리어카에 짐을 실어서 갔다. 그 사람들은 작은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양조장에 고용되어 있는 인부는 서너 명 정도였고, 양조기술자 1명, 서사 1명 등 모두 합해 5명 정도가 양조장에서 일을 했었다. 지게로 짐을 나르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수도 없었다. 그때는 배가 고파 막걸리 찌개미로라도 아침을 때우고 술 배달하고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세월양조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이 동네 사람이었다.

양조장에서 장배를 부리던 변○용은 월급으로 쌀 1가마를 받으며 일했고, 배에 다른 짐이나 사람들을 실어 운반해주는 비용은 별도로 받아서 개인의 수입으로 삼았다. 이런 부수입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작아도 장배 일을 볼 수 있었던 셈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였다. 뱃일은 항상 바빠서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한다. 한 주민은 30~40년 전의 운임이 사람이나 물건을 한 번 실어주고 100원 정도 하였다고 하였고, 다른 주민은 1전짜리 나오던 시절인데 그럴 리가 없고 1962년에 쌀 1가마가 1만 원하던 시절인 것을 생각한다면, 100원은 안 되고 몇십 원 되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배의 크기는 사람 40명 정도가 타는 규모였고, 배는 두 명이 조종했다. 둘이 부리는 배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배에는 선장과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다. 앞에 있는 선장은 앞에 바우(바위) 등이 있는지를 보거나 샷대를 이용해 조종을 했다. 여울(심벼루나루 앞에는 ‘심벼루’ 또는 ‘셈배루’라는 근처에서 가장 센 여울이 있었으며, 현재 한국방송광고공

2) 양조장은 윤씨 집안에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세월리의 아랫동네에서 하다가 한국전쟁 때 불타면서 현재의 부동산 자리로 옮겨서 운영되었다. 양조장은 1970년대에 구역제도가 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사 남한강종합수련원이 들어선 자리 앞에는 '거저울'이라는 여울이 있었고, 그 다음은 한여울이었다)에 갈 때는 쓴살같이 내려가지만, 민물에서는 천천히 가니까 옆 노를 저어야 했는데 이 일도 선장 몫이었다. 뒤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계속 노만 젓는 일을 했는데, 둘 다 힘들겠지만 힘이 더 드는 것은 뒤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은 석돌봉, 장명산, 김명수 등이었으나 모두 작고하였다. 주민들은 부수업으로 챙긴 운반값은 양조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장과 노젓는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산 물건과 함께 자신도 탕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건만 싣고 자기들은 걸어왔다. 장에서 사서 온 소금, 정미소 기름, 온갖 생필품 등이 배로 운반되었다. 배는 매일 가는 것으로 장날에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장날이 아닌 때도 다른 곳에 일이 있어 가는 사람들을 나르면서 10원, 20원씩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돈 역시 배를 조종하는 사람 둘이 분배하였다.

7) 심벼루나루와 가소나루

강상면 세월리에는 양덕나루도 있었지만 그 하류쪽 700m 지점에는 심벼루나루라고 하는 배 대는 곳이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세월리 앞 심바라 또는 심벼루여울은 한여울보다 더 위험한 여울이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심벼루여울에 골을 파는 대가로 골세를 받기도 했다.

심벼루나루는 강을 건너는 도선 기능은 없었지만, 약 40여 년 전까지는 강의 항구와 마찬가지로 배가 많이 드나들었으며, 이에 따라 세심마을이 배가 쉬었다 가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앞의 사례에서 양조장의 술을 나르던 세월리 장배가 대던 곳도 심벼루나루였다. 한국 전쟁 전에는 이곳 일대가 서울에 장작을 공급하는 곳 중 하나였으므로 여기에서 장작을 실어내고 서울로 가는 배들이 많이 쉬었다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배가 15~20척은 왔다갔다 한 것 같다고 하였다. 심벼루에는 잠을 자고 가는 주막이 하나 있었으며, 주막에서 색시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였다. 주막집에는 방이 3개 있었고 내외가 장사를 하였으며, 술 파는 여자들은 서울에서 사왔다고 한다. 심벼루에서 나오는 나무는 인근 50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심벼루에서 집하되어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였다. 장작과 숯 외에 곡식도 서울로 실려 나갔고, 심벼루나루를 통해 기름, 소금, 새우젓, 기타 가정에서 쓰는 물품 등이 들어와 인근지역으로 이동되었다. 그러나 심벼루에서 판매를 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상인들이 사온 물품들이 심벼루를 통해 들어와서 각자 사놓은 것을 찾아가는 식이었다고 한다.

심벼루나루와 남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양평읍 회현리 가소마을에는 가소나루가 있었다고 한다. 가소에 사는 유희영(65세)은 원래 집에서 누룩공장을 했는데, 가소나루에 배가 들어와서 누룩공장의 누룩과 회현리 일대에서 나가는 쌀·잡곡을 반 배씩 실어 하류 방면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이 집의 누룩공장에서 밀을 가지고 만든 누룩은 독섬으로 실려 갔다. 또

가소나루의 바로 상류부는 '진여울', 그 위는 '꼭두여울'이라 불렀는데, 배들이 꼭두여울을 못 올라가고 가소나루에서 쉬었다 가거나, 내려오는 뗏목들이 여울을 지나 가소나루에 대고 쉬었다 가기도 했다고 한다. 심벼루나루가 그렇듯이 가소나루에도 도강을 하는 나룻배는 없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강상면 교평리 교암마을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8) 양근나루

양근나루는 갈산나루, 양평나루, 읍내나루 등으로도 불리며, 양평읍 양근7리(칠미)에서 강상면 교평리 진변마을로 건너는 나루터이다. 강상면에 해당하는 남한강 남쪽 기슭만을 가리킬 때는 그저 진변이라고만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양근나루, 갈산나루, 읍내나루 등은 강북쪽의 나루터만을 가리키는 이름이 된다. 1971년 4월에 양평~강상 간 대교가 세워져 나루터는 흔적만 남아 있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4)』(農商工部水産局, 1911 : 238)는 양근나루에서 일년 중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산물의 양이 조기 150웅(甕), 새우젓[鮑鰯] 4섬웅(石甕), 명태 500태(駄) 가량이라고 적고 있다. 『치수급수리답사서(治水及水利踏査書)』(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 390)에는 양근나루의 물자출입 증가추세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나루터는 머무르기에 적합하고 하역도 편하다고 쓰고 있다.

특히 양평이 커진 것은 중앙선 개통 이후다. 중앙선은 산업철도로 주로 여객보다 양회(洋灰)와 석탄, 목재 수송에 이용되었다. 일제 때 서울 마포나 뚝섬에서 실은 새우젓이 양근나루에 내려 강원도 홍성이나 횡성까지 마차로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장작을 실었다. 마차로 양근에서 용두까지 1일이고 용두에서 횡성과 홍천까지가 1일 여정이었다. 양평에서 횡성까지는 왕복 4일이었다. 횡성, 홍천에서 내려올 때는 물길을 따라 내려왔고 올라갈 때는 양평에서 육로로 갔다. 마차가 양평으로 돌아올 때는 비어 있었고, 가끔은 나무를 실었다.

수로에 의한 목재·땔감과 새우젓의 수송이 없어진 이후에도 양근나루는 번성하였다. 양평 읍내장을 보러 오는 강상면 주민들이 모두 양근나루를 건넌기 때문이었다. 다루레기나루와 양근나루는 각기 강하면 주민들과 강상면 주민들이 양평 읍내장을 보기 위해 출입하는 대표적인 나루터였는데, 강하면보다는 강상면 주민이 많았으므로 장을 보기 위해 강을 건너는 숫자 역시 양근나루가 우세했다. 이들이 장을 보러 강을 건널 때면 무곡상(貿穀商)들이 진을 치고 이들을 맞았다. 양근나루 건너 강상면 쪽 모래사장과 다루레기나루 건너 강하면 쪽 모래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곡상들이 곡식을 사모으는데 역시 강상이 강하보다 동네가 크기 때문에 무곡상의 숫자 역시 강상이 더 많았다고 한다. 또 겨울철에는 양평읍내에서 쓸 땔감을 공급하는 인근주민들이 주로 지게에 화목거리들을 싣고 양근나루를 건너 읍내로 들어오기도 하였다(양평장 및 읍내 풍경, 땔감 장사 등에 대해서는 제1장 제2절의 양평읍내 나무장과 그 출하권역 사례 및 제2장 제2절의 양평읍내장 사례 참조).

강상면 세월리 세심마을에서는 양덕나루와 양근나루 양쪽에 대해서 나룻배삯을 곡식으로 지불했다. 곡식 건어가는 것을 '하곡' 또는 '나룻배추렴'이라고 하였는데, 양근나루가 아무리 커도 배를 탈 때 이름을 적어 놓기 때문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꼼짝없이 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보통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나룻배추렴으로 받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아예 돈을 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일제강점기의 양근나루터에는 주막집이 너댓 채 있었고, 해방 무렵에도 서너 집 있었다고 한다. 나루터 부근에는 주막 외에 일반농가도 한두 집 있었다. 양평읍 도곡리에 사는 양혜석(전 양평문화원장)은 양근나루의 객주는 전(全)서방네인데 이름이 아마 전창식이었을 것이라면서, 양근나루가 지금은 깎아지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에는 강가에 모래사장이 비스듬했었고, 장국밥을 하는 집이 '한강옥'이라고 있었고 그 너머에 객주집이 있었다고 하였다. 읍내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양근나루 남쪽 진두마을에는 현재 우체국 앞, 강상체육공원 근처에 주막집이 열댓 집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상설영업집이 아니라 장날 술을 팔러 나온 술장수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지만, 읍내장을 보러 가기 위해 양근나루를 건너는 인원이 많았음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근나루의 주막에서는 술과 국밥을 팔았는데, 나룻배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 가기 때문에 건너려는 사람이 많았고 술장사도 많았다. 술은 주로 '뒷박술'과 '잔술'(대접잔)로 팔았는데, 막걸리는 주로 잔으로 먹었고 한 되면 석 잔이 나왔다. 한 되 정도를 먹을 때는 '빈 안주'로 김치 등을 놓고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배추국, 아욱국, 기타 채소로 끓인 국과 김치 등은 주막에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내주었지만, 육류 안주는 돼지고기를 삶아놓고 돈을 받고 팔았다. 돈을 받는 돼지고기 안주는 '얼마치 달라'고 하면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잘라서 내주었다. 양평읍내 토박이인 엄이섭(79세)은 '한상 차려서' 파는 일은 양근나루의 주막에는 없었다고 하였다. 강상면 화양리에 거주하는 김홍수(71세)는, 술과 안주 함께 차려서 한 상에 얼마로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팔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엄이섭은 1960년경 양근나루의 주막에서 뒷박으로 파는 막걸리는 한 되에 200~300원 정도였으며, 고기 한 접시는 몇백 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양근나루의 나룻배는 식민지시기부터 이미 행정당국에서 관장하고 입찰로 뱃사공을 정했다고 한다. 강상면 주민은 1년에 비로 몇 말씩 모곡을 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1920~1930년 정도에 아이는 2전, 어른은 5전을 내고 건너다녔다. 양평읍내 사람들도 건널 때마다 돈을 냈다. 이에 대해서 한 주민은 나룻배는 강상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1년 4월 양평교가 완공되면서 양근나루의 나룻배가 없어지게 되었다.

9) 덕구실나루

덕구실나루는 오빈리에 있어 오빈나루라고도 하며, 강상면 병산리 병산마을과 양평읍 오

빈리 덕구실마을 사이를 건너던 나루터였다. 6번 국도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상류쪽으로 가다보면, 옥천면에서 양평읍으로 넘어서자마자 왼편으로 덕구실마을이, 오른편으로 주유소가 나온다. 이 주유소의 뒤편이 덕구실나루터다. 덕구실나루는 팔당댐을 막으면서 나루터가 수몰되었으며, 1971년 완공된 양평교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되었다.

마지막 뱃사공은 홍윤식이며, 그의 부친인 홍금태도 나루주인을 보았다고 한다. 덕구실나루의 나룻배는 10명 가량이 타는 작은 배였는데 뒤에는 노가, 앞에는 삿대가 있어서 물이 많을 때는 노를 짓고, 적을 때는 삿대를 이용해서 강을 건넜다.

덕구실나루는 주로 강의 남쪽에 해당하는 강상면 병산리 사람들이 서울을 가거나 옥천면에서 일을 보기 위해 건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병산리 남쪽에 있는 송학리에서는 주로 양근나루를 이용하였다고 하므로, 덕구실나루의 이용객은 그리 많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강상면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중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병산리의 중학생들 역시 덕구실나루를 이용하여 등하교하였다. 이를 두고 덕구실 사람들은 “그때는 나루가 없으면 병산리에서는 서울도 못 가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기차역과 6번 국도, 옥천면이 있는 강북쪽의 덕구실 사람들은 청첩이나 부고가 와서 경조사에 참석할 목적으로 건너는 외에는 별달리 강을 건널 용건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배삯을 내는 방법도 덕구실 사람들과 병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달랐다. 덕구실 사람들은 한 번 건널 때마다 약주 한 잔을 사거나 돈 몇 푼을 내고 건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병산리 사람들은 해마다 정해놓고 곡식을 내고 건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덕구실나루에서는 이렇게 철을 정해놓고 곡식을 걷는 것을 ‘수세’라고 하는데, 병산리에서는 하곡인 보리는 걷지 않고 가을에 쌀(도정미) 한 말을 걷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루가 없어지기 직전에는 그 사정이 바뀌어 덕구실에서는 해마다 곡식을, 병산리에서는 건널 때마다 돈을 내고 건너게 되었다고 한다.

덕구실나루에는 강배가 들르는 일은 없었지만 뗏목이 들어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일은 가끔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자고 가는 집은 본격적인 영업집이 아니었지만, 뗏꾼들이 오면 밥을 해주고 잠도 재워주어서 일정한 돈을 받았다. 가끔 뗏꾼들이 덕구실에 들렀던 이유는 덕구실 바로 아래의 창말(현재 옥천쉼터 휴게소가 들어선 자리) 앞이 여울이었으므로 날이 저물면 아예 밤을 지나고 내려가는 편이 안전했기 때문이다. 이 뗏꾼들이 자고 가는 집 외에 주막집이 덕구실에 세 집, 창말에 한 집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육로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업집이었다.

덕구실나루의 마지막 뱃사공인 홍윤식 집에서는 음력 3~4월 사이에 한 번, 음력 10월에 한 번 나루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방생(放生)을 하였다고 한다. 방생은 낱을 받아서 하며 방생하는 어종은 잉어와 거북이 등이었다. 특히 가을 방생은 10월 상달의 시루고사를 겸하였으며, 고사를 치른 후 방생을 하였다고 한다.

10) 다루레기나루

강하면의 주민들은 다루레기나루를 전의나루라고도 부른다. 다루레기나루의 남쪽 기슭이 강하면 전수리 전의마을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강하면에서 양근나루 건너의 강상면 도선장까지 이어지는 88번 도로가 없었다. 그 길이 난 것이 약 20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강하면에서 양평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전의마을로 와서 다루레기나루로 건너 양평으로 질러가는 길이었다. 다루레기나루에 나룻배가 없어진 것은 15~20년 전으로, 아직 포장도 되지 않았던 새로 열린 길에 버스가 다니면서부터였다. 강하면 사람들이 배로 건너지 않고 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나룻배는 없어지게 되었다.

강하면에 버스가 다니지 않고 다루레기나루가 주요 교통로였던 시절, 양평장이 서는 날 아침에는 다루레기나루 건너 강하면 쪽 모래사장에 무곡상이 와서 곡식을 사갔다. 이들은 쌀과 잡곡을 팔아 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곡식을 수집했는데, 장날 아침 이들이 모이는 규모가 300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 다루레기나루가 번성했던 것은 강하면 사람들이 양평으로 다닐 때 모두 다루레기로 건넌기 때문이다.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도 다루레기나루를 건너는 것이 다른 나루들을 건너는 것보다 가깝기 때문이었는데, 6번 국도를 지나는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다루레기나루가 다른 나루들에 비해 더 편리하였다. 한여울 또는 상삼나루를 건너면 다시 도보로 고개를 넘어야 버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루레기나루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 집당 여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을 내면 그냥 건너다녔고, 학생이 있는 집은 여름에 보리 세 말, 가을에 벼 세 말을, 학생이 둘이 다니면 여름에는 받지 않고 가을에 벼 한 가마씩을 받았다고 한다. 부친(최웅선, 1910~1998)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 다루레기나루의 마지막 사공이었던 최옥현(61세)에 따르면, 정확히 얼마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시세가 계속 변했지만 보통 막걸리 한 사발 값이 사람 한 번 건네주는 값의 기준이었다고 하였다. 그때 다루레기나루를 건너는 외지 사람들이 하루 평균 20~30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곡식 받는 것은 항상 그 정도였고, 15년 전 다루레기나룻배가 없어질 즈음에 타지인은 500원 정도 받았다고 하였다.

강상면과 강하면을 잇는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강하면 하동과 상동을 잇는 길 역시 산기슭을 따라 나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하동 주민들은 이 길을 따라 강하면 전수리 전의마을까지 이동해 다루레기나루를 건너 양평읍내로 들어갔다. 강하면 하동의 주민들, 심지어 한여울나루의 나룻배가 닿는 구름개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다루레기나루의 뱃사공에게도 춘추로 나루추렴을 냈다. 운심리 구름개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를 '나루추렴'이라고 불렀는데, 나루추렴은 뱃사공이 건으러 오는데, 하절에 길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을 준다면서 나루추렴을 건여가는 '빠게쓰'(양동이)는 말이 한 말이지 두 말도 넘게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새삼스러워하였다. 이들도 다루레기나루의 나루추렴은 한 호에 '한 말씩'으로 정해놓고, 나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는 사람이 조금씩 보태서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옥천면 아산리 다루레기나루터 전경



옥천면 아산리 다루레기나루 주막터 전경



전의나루터에서 본 옥천면 아산리 다루레기나루터 전경



강하면 전수리 전의나루터 전경

강하면 항금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서도 다루레기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주민들은 항금리에서는 한여울나루, 북상심나루, 다루레기나루를 건넜는데, 제일 많이 건넌 것은 한여울나루라고 하였다. 한여울나루는 중앙선 국수역을 이용하기에 편하고, 양평 읍내로 갈 때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노인들은 항금리에서는 양평장을 주로 가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았을 때나 버스요금을 아끼려고 걸어갈 때는 다루레기나루를 많이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루사공에게 해마다 내는 곡식은, 한여울나루의 경우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일정량을 냈고, 다른 나루의 경우 뱃사공이 마을을 다니면서 해당나루를 많이 이용하여 낫이 익은 사람들에게서만 곡식을 걷어가는 식이었다고 한다. 곡식을 걷을 때는 두세 말 정도 들어가는 '큰 양동이'를 들고 다녔으며, 기본이 이 양동이로 하나씩이었다. 장사를 한다거나 해서 많이 건너다니는 사람에게는 한 번 쏘고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뱃삿삼아 주민들로부터 곡식을 거두는 것을 다루레기나루의 뱃사공이었던 최옥현은 '수곡' 또는 '모곡'이라고 하였다. 당시 강하면 전 지역에서 모곡을 걷으면 가을에 벼가



최옥현씨 덕 쓰레. 나룻배 주위에 낀 살얼음을 깨는데 사용(좌:정면, 우:측면)

한 70~80가마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배를 보는 사공이 가졌다. 면에서 배를 만들어 준 다음에는 낙찰가가 오히려 비싸져서 한 70~8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나룻배가 없어질 즈음에는 나룻배 손님이 없어서 몇만 원씩 써내고 거저 하다시피했다고 한다. 최옥현은 “우리는 1·4 후퇴 갔다 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 장날이면 하루에 300~400명씩 다루레기나루를 건너다녀서 따로 일꾼을 쓰기도 하였다. 나룻배는 한 사람이 와도 건네주고 두 사람이 와도 건네주지,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단지 댐을 막기 전에는 장마가 지면 몇 사람이 모여야 건넜다. 나룻배는 밤에도 다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도 늦게까지 다니니까 몸이 고된 일이다. 얼음이 어는 겨울철 한달 반 정도는 나룻배 운행을 중단하였다. 강물이 불었을 때는 나루를 건널 때 20분 이상 걸렸으나, 물이 많지 않으면 10분으로 족했다. 강을 건널 때에는 물살에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승객들과 함께 약 200m 상류로 끌고 올라가서 건넌다”고 하였다.

강이 어는 겨울에 얼음이 5cm 정도 되면 걸어서 건너는데, 사공이 대충 두들겨 봐서 괜찮다고 하면 사람이 걸어서 다녔다고 한다. 해토물 때는 얼음이 힘이 없어 잘 빠지는데, 발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팔을 벌리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얼음이 단단한 곳으로 건너가는 길에 흙을 뿌려 표시해 둔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빠지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미끄럼 방지도 된다.

배를 조종할 때는 얕은 데서는 상앗대로 깊은 데서는 노를 이용하였는데, 노는 앞에 없고 뒤에만 있다. 장작 싣는 배와 달리 나룻배는 옆에 노가 없다. 배는 폭이 두 발 정도 되었으며 길이는 30~40m 정도가 되었다. 이 배를 큰배로 불렀고 100명 정도 탄다. 다루레기나루에는 큰배와 작은배가 있었는데, 작은배는 50명 정도가 탈 수 있었다. 큰배는 2명, 작은배는 1명이 조종했다. 노는 참나무, 배는 육송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는 영월 같은 데서 제재를 해서 기차로 운반하여 양평역에서 내려 강을 통해 가져왔다.

최옥현의 부친인 최응선이 다루레기나루의 뱃사공일을 보기 시작한 것은 최옥현이 16세이던 45년 전부터였다. 그 전에는 전의에 사는 노인이 뱃사공을 맡아서 도선장 일을 하였다고 한다. 최옥현은 “옛날에는 모곡은 받아 잡숫고 관에 입찰하거나 누군가에 세를 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셨다고 들었다. 전의의 할아버지가 하실 때는 타지 사람들은 돈도 안 받고 그냥 술이나 한 잔씩 사주면 그거나 자시고 그냥 건네준 모양”이라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였다.

한국전쟁이 휴전되던 무렵 다루레기의 나룻배는 30명 정도가 타는 규모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하면에서 배를 크게 지어 주어서 70~80명씩 타고 다니게 되었다. 이는 약 40년 전의 일인데, 강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루레기나루를 건너니까 면에서 배를 만들고 나루터를 관리하면서 뱃사공을 입찰해서 뽑게 된 것이다. 최옥현은 군에서 입찰을 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양평나루의 나룻배도 강상면에서 지어준 것으로 아는데, 다른 나루는 배를 지어주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면에서 나루터 관리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상심나루는 강하면에서 관리하고 한여울나루는 양서면에서 관리하였는데, 약 20년 전에 모두 강하면으로 관할이 넘어갔다고 한다. 입찰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응찰자가 서너 명씩 있었다. 면에서 나룻배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개인 소유의 배로, 낙찰을 받은 나룻배사공이 바뀌면 나룻배를 다음 사공에게 팔아넘겼다. 1960년대 초에 낙찰가가 30만 원으로 버 20가마 값이다. 1년에 두 번씩 여섯 번에 나누어서 낸다. 팔당댐이 완공된 후에는 다루레기나루에서 나룻일을 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척의 배를 제공하여 3년간 이를 사용하였다.

다루레기에서 나룻배의 건조 및 수리 작업에는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에 사는 함춘옥이라고 배짓는 목수에게 부탁하였다고 한다. 배목수를 불러와 식사 대접하고 잠도 재워가며 일을 맡겼으며, 하루 품값으로 세 끼 숙식제공에 쌀 한 말 반을 주었다고 한다. 이는 보통 품값의 세 배 정도가 된다. 배 만드는 송판은 주인이 조달하였다. 남한강 상류 영월 등지에서 벌채한 것을 기차로 양평역까지 운송하고 이를 강으로 흘려 받게 된다. 배는 송판이 바짝 말라야 하기 때문에 보통 봄철에 만들며 만드는 기간은 100명이 승선하는 배는 1개월 정도, 5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거루는 약 20일이 소요되었다. 새로 건조된 배의 수명은 7~8년 정도였다고 한다.

다루레기나루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자리의 아래쪽 강가에 있었는데, 현재 버스정류장이 들어선 앞쪽으로 주막이 두 집 있었다. 없어진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막에서는 막걸리를 팔고 돼지고기 안주를 내놓았다. 막걸리를 한 사발 사면 고기 한 점은 안주로 거저 주고 김치는 달라는 대로 준 것이 30년 전의 상황이었다. 팔당댐을 막기 직전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에 10원 정도를 했으며, 댐 공사할 즈음부터는 안주값을 받기 시작했다.

다루레기 나룻배의 경우, 해토(解土) 무렵인 음력 정월 보름께에 강물이 녹으면 돼지머리, 북어, 시루팔떡, 막걸리 등을 놓고 뱃고사를 올렸다. 과일과 밥은 올리지 않았다. 고사는 배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막걸리를 붓고 절을 하고 뱃삼에 3번 올리고 떡시루에 올려놓는 것으로 간단히 끝난다. 무당은 부르지 않았으며 배를 처음 내리는 진수식 때에도 똑같이 하였다고 한다. 배는 여름에는 안 지으며 봄에 많이 지었다. 여름 장마철에는 배 송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뱃고사를 지낼 때는 돼지머리를 놓지 않고 약간의 떡과 술을 마련하여 간단히 올릴 때도 있었다. 뱃고사를 올리거나 배를 걸 때 돼지머리를 사오는 적도 있지만 하는 집은 하

고 안 하는 집은 안 하고 그러지, 꼭 돼지를 올려야 한다거나 돼지를 잡고 놀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겨울에 강물이 얼기 직전에 배를 물에 올려두는데, ‘배를 건다’ 함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11) 상심나루

양서면 대심리 상심마을과 강하면 운심리 상심마을을 잇는 나루터이다. 강하면은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골짜기를 따라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강의 상류쪽 그러니까 동쪽의 골짜기를 따라 위치한 전수리·성덕리를 상동, 강의 하류쪽이 되는 서쪽의 골짜기를 따라 자리잡은 운심리·왕창리·동오리·항금리를 하동이라고 부른다. 상심나루는 이 중 상동의 주민들이 도보나 차편으로 또는 국수역을 통해 기차편으로 서울에 갈 때 남한강을 건너던 나루터다. 상동 주민들이 읍내에 출입할 때는 다루레기나루를 이용했으므로 자연히 그 규모는 다루레기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강의 남북 기슭에 해당하는 강하면 운심리 상심마을과 양서면 대심리 상심마을이 모두 자신의 마을을 ‘상심’이라고 부르는데, 운심리 주민들이 대심리 상심마을을 가리킬 때는 ‘북상심’으로, 대심리 주민들이 운심리 상심마을을 가리킬 때는 ‘남상심’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양서면 대심리 상심마을의 주민들은 서울로 나무를 싣고 다니는 배가 집집마다 있다시피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현재 (북)상심마을에 거주하는 최옥현이 1·4 후퇴를 다녀왔을 때 마을에는 27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서울로 나무를 싣고 다니는 배는 집집마다 있다시피해서 그것으로 벌어들여 살았기 때문에 (북)상심에는 20척 정도의 강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 도선업은 한 집이 전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은 모두 남한강 선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루레기나루의 마지막 사공이었던 최옥현의 부친은 다루레기나루의 사공을 맡기 전인 1956년경 상심나루의 사공일을 4, 5년간 맡아 보았다고 한다.

남상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상심나루와 관련하여 “북상심 쪽은 산이 많고 비탈진 곳이어서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고, 이곳은 평야지대로서 그곳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배를 부릴 줄 아는 어부가 있는 북상심에 사공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주로 이곳(남상심) 사람들이므로 강 건너로 부르면 배가 오고 뱃삿으로 일년 중 여름과 가을에 보리와 쌀 한 말씩 낸다”고 설명하였다.

혼한 일은 아니었지만 운심리 구름개마을의 주민들도 상심나루를 건너는 일이 있었다. 우기에 강물이 불면 대하섬과 구름개 사이에 물이 들어와 샛강이 되었으므로 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없었고,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상심나루로 가서 도강하여야 했다. 또한 한여울의 나룻배가 대심리 쪽으로 출발했을 경우 건너간 배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학길을 서둘러야 하는 학생이나 국수역의 기차시간이 임박해서 서둘러야 하는 사람 등은 (남)상심마을로 이동해서 상심나루를 통해 도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용



양서면 대심리 상심나루터 전경

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운심리 주민들이 어찌다 건널 일이 있으면 돈을 내고 건넜다고 한다.

선운이 활발했을 때 상심마을에는 주막집이 세 집 있었다고 한다. 한 주민은, 여주에는 장호원이나 문막 방면으로 가는 소금을 실은 배들이 짐을 부렸는데, 이 배들이 상심마을의 주막에서 하루를 머물고 강을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배들은 기차 한 량 정도를 싣는 배(벼 300가마)였으며 길이 30m, 폭이 4m 정도가 되었다.

해토 시기인 음력 정월 보름 즈음에 강물도 녹는데, 이때는 떡과 술을 조금씩 장만해서 뱃고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강이 얼 때가 되면 배를 끌어올리고 배걸이를 하였다. 뱃고사나 배걸이를 할 때는 돼지머리를 사오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뱃고사는 돼지머리, 통북어, 팔시루떡, 막걸리 등을 뱃전에 차리고 막걸리잔을 떡시루 위에 얹고 절을 한 후에 통북어로 뱃전을 세 번 때린 후에 절을 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마친다.

12) 한여울나루와 구름개나루

한여울나루는 대심나루라고도 한다.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大灘]마을에서 강하면 운심리 구름개[雲浦]마을로 건너가는 나루터이다. 대심리라는 지명은 대탄리와 상심리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합쳐지면서 생겼다. 대탄(大灘)의 우리말이 한여울이다. 한여울마을 앞에는 '한여울'이라는 여울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곳만 지나가면 서울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마지막 큰 여울이란 의미에서 한여울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한다.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나루터 전경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 물이 돌아 여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배가 이 곳을 통과할 때 조종을 잘 하지 못하면 파선하게 된다. 특히 떼배가 파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곡물을 실은 배가 파선하면 주민들이 벼를 거두어내어 이를 말려서 밥을 지어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한여울마을의 아이들은 여울을 지나는 뗏목을 보고 “뗏집지라”고 장난삼아 악담을 하고, 그러면 뗏꾼들이 맞받아 욕을 하고 어떤 때는 뗏목에서 뛰어내려서 쫓아오기도 해서 달아나고는 했다면서 노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인들이 배를 잘 지나가게 한다고 TNT로 강바닥 바위를 깨뜨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나 뗏목이 지나가기 쉽지는 않았다. 떼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짓는 데는 한 달이나 두 달씩 걸린다. 한여울에서 하루면 서울에 가는데, 하루면 끝날 일을 한두 달 걸려서 가게 되므로 뗏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나는 셈이다. 그래도 목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으므로 망가진 떼의 나무들을 주워 모아 한여울을 지난 곳에서 사람을 사서 다시 떼를 짓는다. 다시 떼를 짓는 장소는 여울이 아니라 물살이 병병한 곳이어야 하므로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검단 사람들은 가뭄이 되면 물이 줄어서 배가 다니기 힘들므로 뱃길(또는 뱃골)을 파놓고 배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일정한 통행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여울에도 여울을 내려주고 얼마씩 받는 사람이 있었다. 해방이 되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마을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한여울(마을)은 농사가 많지 않고 배로 먹고살았다. 여기 농사는 비가 오는 곳만 모를 내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배 아니면 못 사는 동네가 바로 여기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름에 모기가 많을 때 강가에 나가면 오히려 모기가 없는데, 밤에 모기를 피해 강가로 나가면 배가 20척씩 늘어서 있었는데 그때는 대단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뱃길이라는 것이 항상 강

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일 나간 배를 빼고도 항상 그 정도는 나루에 정박해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에는 거의 두 집에 한 척 꼴로 배가 있었고, 많은 집은 한 집에 두 척도 있었다고 한다. 마을 전체로 서른 척 정도가 있었고, 많이 들어와 있는 날은 강가에 배를 댈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 중 외손거루가 20척 정도 있었고, 큰배가 5, 6척 정도 있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다 했으며, 아마 마을남자의 거의 80% 정도가 뱃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뱃일은 지금으로 치면 트럭 운수업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한여울나루는 남한강을 건너는 나루터이면서 동시에 남한강 선운에 종사하는 뱃사람들의 생활근거지였다.

대탄마을 앞 남한강 가운데의 대하섬에는 예전에 섬말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운심리의 주민들은 대하섬을 그냥 '섬'이라고 부르는데 섬에는 제일 바위, 장사 우물 등이 있었고 백사장이 아름다워 주민들의 유희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여름밤에는 모기를 피해 잠을 자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하섬의 구름개[雲浦]에는 하항 검 나루터가 있었다. 팔당호 담수로 인해 현재는 상시 물이 들어차 있지만, 대하섬과 운포마을 사이의 셋강은 우기가 아니면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배를 가진 운심리 주민들이 배를 대는 곳이기도 했던 대하섬의 구름개 포구는 한여울과 운포를 오가는 나룻배의 배터이면서 동시에 남한강을 오가는 짐배들의 기항지이기도 했다. 이들 짐배는 운포 주민들에 의해 운항되는 것도 있었고, 타지의 배들이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기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포 주민들에 의해 운항되는 짐배는 5, 6척 가량이 있었다. 이 중 세 척은 한 집의 소유였고, 나머지는 한 집에 한 척이 있는 정도였다. 다섯 척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이 모는 외거루가 한 척, 세 명이 모는 큰배가 네 척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한 채, 두 채'라고 하여 배를 세는 단위로 '척'이나 '대'가 아닌 '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여울나루의 나룻배는 외거루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20명까지도 탔다고 한다. 한여울나루를 건널 때 마을 사람은 가을에 벼 한 말, 여름에 보리 한 말씩을 주고 건너다녔고, 타지 사람은 건널 때마다 돈을 내고 건너다녔다. 이 나룻배 모곡과 관련하여 한 주민은 "말이 '한 말'이지, '빠게쓰'로 받아가니까 두 말도 주고, 학생 있는 집은 많으면 한 집에서 보리 한 가마, 쌀 한 가마씩을 내야 했다. 나룻배 사공이 세도가 컸다. 그렇지만 일제 때는 이동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벌이가 되지는 않았고, 사변 나고 나서 많이 건너다녔는데, 그때부터는 관에서 입찰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배가 많을 때는 술집 장사가 잘되어서 한여울마을에도 아가씨를 두 명 두고 영업을 하는 집이 한 집 있었다. 배는 몰려다니기 때문에 배 한 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면 여러 척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다보니 그 영업집에서는 "장날마다 돼지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인근의 나루터들로 시야를 확대해보면, "팔당이 뱃사람들 먹는 원 술집"이며, "뱃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 팔당을 거친다"고 한다. 그밖에 강가의 주막은 광주 수청

리에도 있고, 상심에도 있었다.

배를 만드는 목수는 아무나 못 하는데, 한여울마을에 배 짓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원래 “배는 새 배를 짓고 집은 현 집을 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집은 현 집이라야 집값이 싸기 때문일 것이고 배는 그만큼 망가지기 쉽다는 뜻이라고 주민들은 하였다. 배는 물 속에 있으니까 썩어서 2, 3년이면 망가진다고 한다.

강물이 얼어붙는 겨울내 배를 물에 올려두었다가 배를 다시 띄울 때가 되면 뱃고사를 올린다.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배가 출발하기 전날 아침이다. 한 주민은 ‘예전에 일 년에 돼지 두어 번 먹으면 잘 먹는다고 할 때 모든 배에서 돼지 한 마리씩은 잡았던 것 같다’고 하였고, 다른 주민은 배마다 돼지 한 마리씩을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돼지머리 하나씩을 고사상에 올린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진술이 엇갈리자 주민들은 뱃고사를 지낼 때는 아이들은 가지도 못했고 어른들만 가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노인들도 먼 발짝에서 구경이나 하는 처지였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았던 머리만 사왔든, 고사상에는 돼지머리와 술 몇 통, 배와 사과 같은 것을 놓았던 것 같다. 이때 여자들(안식구)이 나가서 비는 지도 불명확했다.

한강물이 얼어붙기 직전 마지막으로 배로 실어나르는 것을 ‘막서리판’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배를 잘못 맞춰서 뚝섬서 강물이 얼어서 배를 두고 걸어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 강물이 얼어붙을 때가 되면 얼음 속에 갇혀서 배가 휘지 않도록 강 옆 땅위에 막대기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배를 올려놓는다. 이것을 ‘배를 건다’고 한다. 배를 걸려면 한두 사람 힘으로는 배를 그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한다. 배를 걸러 나가면 사람들이 어울려서 술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한다. 일단 배를 걸면 봄까지는 돛을 전부 꿰매고 배 수리를 한다.

운포나루에서 실어내는 주요산물은 항금리 일대에서 생산한 목재와 숯이었다. 곡식도 실어냈지만 그 양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운포에서 화물을 실어내는 일에 양평보다 상류의 배들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보통 이 마을의 배들로 충당이 되는 정도였다. 운포나루가 있는 섬에는 주막이 두 집 있어서 색시까지 데려다 놓고 영업을 했으며, 장작이 나올 때는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산판에서 내려와 여기에서 놓고 잤다고 한다.

겨울이 되어 강이 얼면 강에 매어두었던 배를 물으로 올려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때 겨울에 배를 물으로 올리는 것을 ‘배를 건다’고 하고 봄에 배를 강에 내리는 것을 ‘배를 뺄다’고 한다. 배를 걸거나 떼는 일은 기본적으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배를 물에 올려놓을 때 받치는 ‘권목’을 해오는 일이라든가 배를 끌어올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밖의 마을 사람들도 전부 강가로 나가서 여기에 참가하거나 참견을 하였다고 한다. 일이 끝나고 간단한 고사를 치르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나루터

또한 운심2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어부심’ 이라고 했는지 ‘어부시’ 라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 정월에 강가에 나가 밥을 풀어 흘려보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를 그냥 ‘고기밥 준다’ 고도 했는데, 그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는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13) 두물머리와 기도원의 나루터, 주막, 마방

두물머리나루는 두머리나루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양수두(兩水頭)’ 또는 ‘이수두(二水頭)’ 라고 적는다.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마을에서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귀실마을로 건너가는 나루이다.

양수리시장에서 두물머리마을로 들어온 길이 끝나는 곳까지 가면 노변에 가옥들이 없고 나무와 잡초가 우거진 길이 남쪽으로 이어지는데,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두물머리나루터가 나온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배를 대던 작은 나루터가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가끔씩 광주시를 오가던 나룻배는 10년쯤 전부터는 아예 끊기고 말았다.

양수리에 거주하는 신○○(89세)는 부친에 이어서 22년간 두물머리나루터의 뱃사공을 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뱃사공을 했는데, 그 전에는 한 사람이 하면 죽 했다. 소임을 두고 혼자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두물머리나루터의 샅은 3전을 하다가, 해방 후는 5전을 받았다고 한다. 원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일 년에 두 번 가을에 벼 한 말, 여름에 보리 한 말씩을 냈는데, 이렇게 모곡을 했던 것은 일제강점기 말년 때까지였다고 한다. 해방 무렵 그가 젊었을 때는 종일 봐야 그때 돈 1원 20전, 1원 50전, 제일 받아야 1원 80전밖에 못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때 강원도 홍천에 사는 할머니가 용인 딸네 집에 가니까 딸네 집이 굶고 지내더라. 그래 내가 그날 품삷 받은 거 다 그 할머니 드리고 그랬지.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황포돛배 진수식(1999. 4. 26)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황포돛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라면서 당시의 상황을 전하였다.

두물머리나루의 경우 동네에서 의논하여 뱃사공을 정하던 것을 해방 되고 나서 입찰로 정하게 되었다. 신○○는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들어가면서 돈 많이 써낸 놈이 하게 되었다면서, “돈 많이 썼다가 고랑 떼먹지,……거지 되잖아, 밀진다 말이야, 낙찰이 되도 그만큼 뽀지를 못해요, 그 이후로는 건너다니는 사람이 하루 두서너 명밖에 안 되거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안 했어”라고 말했다.

두물머리는 광주시 남종면과 양평군 양서면을 이어주는 나루터일 뿐만 아니라 남한강 수운의 하항이기도 했다. 두물머리에 40호 가량 거주하던 시절에 배가 30척 넘게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유통하는 물품은 무 등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것에 머무르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변의 산판에서 생산된 땔감들이었다. 이들이 운반하는 땔감은 양서면 목왕리나 징동리, 서종면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었고 때로는 청평댐 바로 아래까지 배를 끌고 올라가서 땔감을 싣고 서울의 광나루나 뚝섬, 마포, 용산 등지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하항으로서의 두물머리는 자연조건상 그리 유리한 입지는 아니었다. 즉 두물머리의 나루터는 바로 앞의 병탄이라는 여울로 인해 물살이 세서 뗏목은 전혀 댈 수도 없었고, 또 병탄만 빠져나가면 바로 팔당이었기 때문에 강배들 역시 이곳에 머물기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팔당에 정박하거나 아예 서울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에는 너댓 집의 주막이 있었고, 마방집도 있었다고 한다. 또 팔당댐이 서기 전 우기를 제외하고는 두물머리와 육로로 바로 이어져 있었던 기두원에도 여러 채의 주막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는 두물머리 일대가 남한강의 기항지일 뿐 아니라 육로상의 요충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양수리에 거주하는 최태현(89세)은 “그때는 서울 다니던 사람들이 차가 없고 보행으로 많이 다녔지 않았든가. 서울서 늦게 출발하면 여기서 자고, 여기서 자고 가면 이르니까 서울서 볼 일도 볼 수가 있고, 해방 후에도 그러고 다녔지. 해방되면서 점점 줄어들었지”라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신○○(89세)도 두물머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고랭나들이길'이라고 했다면서, "두머리에는 객줏집이 있었다구. 이 신작로 안 나서. 서울서 온 사람들이 해가 넘어가지고 두머리서 자고 갔다고. 약방 모퉁이 지나서 두머리서 자고들 갔지. 경상도서도 와서 자고 가구. 마방집이 있었다구. 홍수 나서 서울로 죄 가고 그 사람들 지금은 아무도 안 남았지. 손순국(사망)씨가 객줏집을 하셨어. 밥 해 파시고, 사람 채우고, 막걸리 뒷박으로 팔고.……가갯집은 없었다구. 그리고 옛날에 하정신이라는 분이 마방집을 하셨다구. 말 채우고, 죽 맥이고, 객줏집이나 마찬가지지. 나 아홉 살이나 여덟 살 때 했어. 홍수 난 뒤로는 30집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때 살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 라고 이야기하였다.

양수리의 바로 이웃인 용담리에 거주하는 권오형(90세)도 "두물머리에는 배들이 잘 머무르지 못했지. 대개 머무르고 할 게 없는 게, 족자섬만 돌아가면 거기란 말야. 두물머리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면 뚝섬에 아침 5시, 6시면 닿아. 물론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대개 물건 팔라고 가는 거그던. 그러니까 두물머리에는 불일이 없지. 빨리 뚝섬 가서 물건 넘기려고들 하나까.……(두물머리에 주막과 마방이) 있었지. 강원도서 걸어가던 사람이 두물머리 지나서 가는데, 거기서 자지 않으면 안 돼. 약방모퉁이[기두원]는 열 몇 집, 한 열 몇 집이 있었고, 두물머리에는 왜정 말년에 한 40집이 있었지. 고랭이(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건너가면 걸어가는 판이거든. 거기는 무인지경이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서는 걸어가지지를 않았거든"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두물머리에 거주하는 손○○(71세)는 15대째 양수리에 살았는데, 60여 년 전 용담리 기두원마을로 이사를 나갔다가 몇 해 전 다시 양수리로 돌아와 살고 있다. 그의 부친은 양수리에서 마방을 경영하다가 기두원으로 옮겨서 주막집을 운영하였다. 그가 태어나기(1932년) 전에 이미 마방은 없어진 상태였으며, 그 후로도 주막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숙박업을 했는데, 두물머리에 그러한 주막마저 없어진 것은 그가 4살 때의 일이다. 두물머리의 주막이 영업이 안 되자 기두원으로 옮겼으며 기두원의 주막마저 없어진 것은 1953~1954년경이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양수리 마방의 규모는 아마 열 마리나 이십 마리 정도를 채우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며, 소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숙박시켜 주고 술도 팔고 밥도 팔았다고 한다. 또 마방에 소 채우는 값을 따로 받았을 것이고, 밥값을 내면 따로 숙박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물론 밥 먹고 자는 외에 술이나 떡 따위를 먹으면 그 값은 따로 받았다. 날이 안 좋거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뱃사람이나 뗏꾼들이 며칠씩 주막이나 마방에 머물다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손○○는 "그러다가 돈을 낼 수 없게 되면 따라가서 돈을 받아오기도 했다. 뗏목 타고 며칠이고 걸려서 가서, 기차 태워줘서 타고 왔다. 열두어 살 때까지 돈을 받으러 서울로 다녔다"고 이야기하였다.

3. 내륙지역의 옛길

1) 단월·용문·청운면 일대의 옛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서 같은 군 남면 양덕원리를 지나 양평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는 신당고개에는 술 등을 파는 주막집 2채가 이웃해 있었다. 한 집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위치해 뒷방은 경기도 쪽에 아랫방은 강원도 쪽에 속했다고 하며, 다른 한 채는 완전히 강원도 쪽에 있었다. 양덕원리에 남접해 있고 양평군과 신당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남면 유목정리에는 마방이 있었다. 양덕원장에서 용두장까지는 15~20리 정도가 되는데, 소를 끌고 홍천에서 용두리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주로 유목정리 마방에서 묵고 양평으로 넘어왔다고 한다.³⁾ 홍천장이 있는 신대(새터)로부터 머느리고개를 넘고 양덕원을 지나 신당고개를 넘는 길은 대체로 현재의 44번 국도와 일치하는 길이다. 홍천군 홍천읍과 남면의 경계가 되는 머느리고개에는 시집이나 장가갈 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홍천과 청운면 사이에는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며 홍천읍내에서 용두리까지의 소요시간은 20분 가량이다. 홍천읍내~용두리, 용두리~양평읍내 간의 소요시간은 대체로 비슷하며, 용두리에서 양평읍내로 갈 때는 대흥리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양평으로 넘어오는 길은 대체로 현재의 6번 국도와 일치하며, 횡성군과 양평군 사이에는 도둑고개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고개를 넘으면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마을인데, 고개가 높고 험해 예전에는 도둑이 많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도둑고개에도 두 채의 주막집이 있었는데, 경기-강원 간 도계(道界)를 사이에 두고 횡성 쪽에 한 채, 양평 쪽에 한 채가 있었다고 한다. 횡성 쪽의 주막집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도 휴게소가 있어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으며, 아주머니 한 명이 이 휴게소를 지키고 있다. 도둑고개를 넘어 갈운리를 지나 용두리로 향하면, 용두장에 가까운 은구비마을에도 주막 한 채가 있었다.

홍천길이나 횡성길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서 청운면으로 들어오는 또 하나의 길이 홍천군 서면으로부터 용두리로 이어져 있었다. 용두장은 홍천군 서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굴업리 주민들은 용두장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 길은 홍천군의 서면장으로부터 서면 중방대리 아우랏치→대곡리 돌고개→귀랭이(귀랑)→터일→점말(店村)→굴업리 버딩말→뽕치(白楊峙)마을→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통골마을까지는 현재의 70번 지방도와 같은 길을 오는데, 여기서부터 현재의 도로와 갈라져 통골고개를 넘어 여물천 개울을 따라 청운면 여물리로 넘어오는 길이다.

용두장이 번성하던 시절, 특히 단월장이 없어진 후로 버스편이 원활해져서 용문장에 출입하

3) 양덕원에는 우시장이 서지 않았다. 한편 홍천에서 출발한 소는 바로 용두리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홍천에서 늦게 출발한 소들이 이날로 용두리까지 이르지 못하고 유목정리 마방에 묵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 되기 전까지는⁴⁾ 단월면에서도 용두장을 보러 왔다. 이때 단월에서 청운으로 넘는 길은 '단월고갯길' 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길은 단월면 행소리에서 같은 면 덕수리 백동마을을 지나 백동고개 → 여물리고개로 넘어 용두리로 이어져 있었다. 덕수리에 거주하는 49세의 한 주민에게 이 길에 대해 묻자 "그 길이 과거에 사연이 많은 길"이라며 이야기를 받았다. 과거 단월에 중학교가 없고 용두리, 용문, 지평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중 단월면 쪽에서 가장 많이 간 학교가 용두리의 청운중학교였다고 한다. 덕수리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하면 8시에 학교에 도착하는데, 장날에는 장을 보러 가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고개를 넘어다녔던 기억이나, 고개를 넘어다니면서 청운면 쪽 아이들이 뒷세를 부렸던 기억 등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었다.

용문면 덕촌리에서는 지금도 '구천제' 라고 불리는 거리제사를 지내고 있다(구천제에 대해서는 제7장 민속신앙과 의례 참고). 구천제를 올리는 위치는 '장승거리' 라고 불리는 마을 앞의 오거리인데, 331번 지방도와 5번 군도의 합류점 남쪽 500m 지점이다. 이곳은 과거 북쪽 용문사로 가는 길과 남쪽 마룡리로 가는 길(대체로 현재의 331번 지방도에 해당함), 북동쪽 조현리 · 단월면 덕수리로 가는 길(대체로 현재의 4번 군도에 해당함), 동남쪽 금곡리 · 광탄리로 가는 길, 그리고 서쪽 연수리로 넘어가는 길의 교차점이었으며, 장승은 그 이정표 구실을 했다. 금곡리로부터 덕촌리 장승거리와 연수리를 지나 비호고개를 넘은 뒤 양평읍 백안리로 내려가는 길은 직통으로 양평장과 연결되는 길로서 용두리에서 소를 끌고 양평읍내로 향할 때 이용하던 길이라고 한다.

단월장이 없어진 후에 단월면 산음리 주민들은 용문장을 출입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주민들은 행소리를 거치는 우회로를 이용하기보다는 해발 400m가 넘는 용문산 중턱의 고개를 넘었다. 고개를 넘으면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331번 지방도와 합류하여 남쪽으로 가면 용문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2) 청운면 여물리마방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용두장에는 강원도 홍천 · 횡성 등지로부터 물자가 모여들었고, 청운면뿐 아니라 단월면, 일부 양동면 지역에서도 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동대문 밖으로는 규모는 작아도 용두장을 제일로 쳤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용두장에 대해서는 제2절의 용두장과 단월장을 참조). 특히 서울로 가는 소의 이동경로에서 용두장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두리와 천 하나를 사이에 둔 여물리 입구에는 큰 마방이 한 채 있었으며, 여물리마을 안에도 여러 채의 마방이 있었다. 여물리마방에는 1975년경까지는 소를 몰고 다니는 '채꾼'(또는 '몰이꾼')과 소장수들이 들렀다고 한다. 장이 용두

4) 이 시기는 버스노선이 개통되던 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늦게 잡는 것이 옳다. 주민들은 대부분 "버스가 있어도 타지 않고 걸어서 장에 다녔으며, 버스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고, 특히 시골 할아버지들은 버스 할인권이 나오면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리에 있었는데 굳이 마방이 여물리에 위치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과거 우시장이 용두리 개천변에 있었으므로 우시장으로부터의 거리는 여물리마을이나 용두리마을이 거의 같았고,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홍천에서 오후 2, 3시에 출발한 채꾼들은 6, 7시경 용두리에 도착하였고, 바로 여물리마방으로 향해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용두리 우시장에 소를 출시하였다고 한다. 용두장에서 팔리지 않았거나 용두장에서 새로 소장수들에게 팔려 서울 방면으로 이동할 소들은 이 날로(또는 다시 여물리마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양평읍내로 이동한다. 여물리에는 소를 끌고 다니던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에 마방(‘김○○네 마방’ 또는 ‘우씨네 마방’이라고 불렸다)을 꾸며놓고 소와 소몰이꾼을 재웠다고 한다. 또 나무를 끊어다가 품값을 받고 우마차로 운반하는 일도 했으며, 집에는 약 여남은 바리의 소를 키웠다고 한다. 여물리에서는 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몰이꾼’이라고 불렀다. 몰이꾼들은 보통 한 사람이 앞에 한 마리, 뒤에 두 바리를 묶어서 총 세 마리까지 몰았으며, 김○○은 여물리에 살면서 홍천과 양평을 오가며 소몰이를 했다고 한다.

3) 청운면 다대리 목다리

청운면 다대리에는 마을 앞 시냇가에 나무로 다리를 놓아 건너다녔고, 이를 ‘목다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목다리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다음 나무를 가로로 끼워놓고 그 위로 뗏장을 덮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거운 것이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소를 데리고 건널 때 소는 개울바닥으로 가고 사람은 다리로 건넜다고 한다. 현재 정자가 있는 왼쪽길에 마을 입구였고 이곳이 다리가 서는 자리였는데, 음력 8월 초에 명절 전이라고 해서 새로 다리를 놓았다. 1960년에 마지막으로 놓았다고 하였는데, 2001년 7월에 다대리를 찾았을 때 주민들은 이 목다리를 복원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다리 너머에는 주막거리가 있었으며, 이 주막에는 홍천으로부터 용두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들러서 쉬어갔다고 한다.

4) 개군·양동면 일대의 옛길

남한강을 따라 양평읍내로부터 개군면으로 이어진 37번 국도로 버스가 처음 다닌 것은 1937~38년경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는 양평과 여주를 오가는 버스로 하루에 한두 대가 지나가는 정도로 운행되고 있었다. 버스는 도선으로 여주나루를 건너서 여주읍내로 들어갔다. 여주-양평 간에 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양평과 여주를 왕래하는 역마차가 있었다고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생긴 여주~양평 간 버스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였다.

이 역마차는 말이 끌어서 움직였는데, 말을 모는 주인 외에 다섯 사람이 탔으며, 약 60년 전까지 다녔다고 한다.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지나가는데, 개인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타지 못하였고 주민들은 신랑신부 결혼해서 장가

들고 시집갈 때나 타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역시 여주나루를 건너서 여주읍내로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요금은 5원이나 10원 정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상자포나루나 하자포나루 등 개군면 일대의 나루를 건너던 주민들도 우마차 등을 끌고 남한강을 건너려면 이포나루를 이용하여야 했다. 이포나루에는 우마차(후에는 자동차)가 탈 수 있는 큰 나룻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마차로 건널 때 정확히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아마 곱 쯤 내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자신없다는 듯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개군면으로부터 양평읍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개군면 공세리 신내마을의 해장국집이 유명했는데, 원래 신내는 이 인근에서 주막이 제일 번성했던 곳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기억하기로는 해방 전에 대여섯 집이 있었는데, 여주에서 양평으로 소를 끌고 가다가 와서 자고 소 여물을 먹인 뒤 양평장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다는 것이다.

양동면 삼삼리 금곡마을에 사는 이인용에 따르면, 도보로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 같은 면 판대리 중구현 → 하구현 → 양평군 양동면 삼삼리 금곡 → 석곡리 석실(섬실) → 금왕리 → 고송리 → 용문면 광탄리 → 다문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양동면 석곡리 섬실에서 매월리 → 구둔치 → 지제면 일신리 구둔 → 무왕리 → 지평리로 지나는 길이 가깝기는 했으나, 구둔치고개가 가파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까닭에 지평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광탄에 장이 서지 않았던 까닭을 묻자, “거긴 싹 지나가는 길이야!”라는 대답이 바로 나왔다. 한편 금왕리에서는 삼거리가 과거 주막거리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원주·양동 → 양평·서울을 오가는 교통로변의 주막기능으로서보다는 광산이 흥했을 때 광부들을 상대하는 성격의 것이었는데, 광산일이 한창이던 시절에 하나는 점말에, 다른 하나는 울곡에 있었다고 한다.

양동면 계정리 가래골에서는 보통 양동장을 많이 이용하였지만, 더러는 양동에 없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여주나 원주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주장에 갈 때는 일단 양동으로 나가서 지금 도로와 거의 비슷한 길을 따라 여주로 향했다. 가래골에 거주하는 김복돌(81세)은 해방 직후 계정리에 들어왔지만 걸어서 원주장에 많이 다녔는데, 양동까지 나가지 않고 스무나리고개를 넘어 횡성군 서원면을 거쳐 원주로 들어갔다고 한다. 즉 계정리 아랫새터 → 윗새터 → 스무나리고개를 넘으면서 횡성 땅으로 들어가고, 고개를 내려선 다음에는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새점터 → 같은 면 옥계리 삿절이(사절리) → 대산 →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 호저면 만종리를 통해 원주로 들어가게 된다. 또 가래골에서 곡수장에 갈 때는 쌍학리 → 여주군 북내면 서원리 → 같은 면 주암리 → 국사령(일명 고다리고개) → 곡수리로 넘어가는 길을 따랐다. 양평장으로 갈 때는 가래골에서 석곡리 → 매월리 → 구둔치고개 → 지제면 일신리 구둔마을 → 지평 → 용문을 통해서 갔다고 한다.

5) 일제강점기·해방전후의 노선버스와 읍내차부

양평읍내에 거주하는 엄이섭(79세)에 따르면, 중앙선 개통(1939년) 직전에 25명 가량이 타는 버스가 서울까지 다니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8인승의 '검은 차'가 버스구실을 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2가 관수동까지 가는데,⁵⁾ 철도가 개통되기 1년 전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편도요금인 2원 10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중앙선 철도 개통 당시 양평에서 경성역까지의 철도편도요금이 82전이었고, 당시 남의 집 일을 해주면 하루에 50전을 받을 때였으므로, 그 버스를 타는 일은 여간해서는 없었고, 서울로 가는 화물은 주로 배로 다녔다고 하였다.

양평읍 도곡리에 거주하는 양혜석 전 양평문화원장(73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보았는데, 당시 오후 2시쯤 양평에서 타면 서울에 어둑어둑해질 때쯤 닿았다. 당시 버스가 양평에서 여주, 이천, 광주로 돌아서 서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양평으로 바로 온다. 양평에서 여주로는 이포나루를 건넜고, 광주에서 서울로 들어갈 때는 뚝섬나루를 건넜다. 이들 나루에는 버스째로 강을 건너주는 배가 있었다"고 하였다. 양혜석원장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면 1938~1939년경이 되므로, 이 이야기는 25명 가량이 타는 버스가 최초로 운행을 개시하던 무렵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버스는 구간을 왕복하는 노선이 아니라, 서울-양평-여주-이천-광주-뚝섬-서울로 순환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엄이섭은 "버스노선은 강원도의 홍천·횡성으로 가는 것과 여주·이천으로 가는 것이 있었는데, 여주·이천행은 많이 다니지 않아 하루에 한번 갔다가 왔다. 양평에서 여주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포나루에서 큰배로 한강을 건너며, 이포에서 이천은 40리 길이다. 그런데 버스가 이천으로 가면 그 차는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차가 이천에서 양평으로 온다"고 하였다. 한편, 『승합자동차운전상황(乘合自動車運轉狀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8)에 따르면, 서울-양평노선(덕소·양수 등 경유, 1일 1회 왕복)과 서울-광주 노선(1일 1회 왕복), 서울-여주 노선(광주·이천 등 경유, 1일 1회 왕복), 서울-이천 노선(광주 등 경유, 1일 2회 왕복)등은 모두 별도의 노선으로 되어있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회사의 버스노선이 모두 서울→양평→횡성→대화→하진부→강릉으로 같았다. 1950년대에도 버스로 서울 시발점에서 양평읍까지는 3시간 가량, 강릉까지는 10시간 가량이 걸렸다고 한다. 물론 당시는 비포장도로였다. 그리고 서울~강릉 간 여행길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대화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강원여객과 동해상사를 합해서 서울-강릉을 왕래하는 버스는 3시간 정도 간격으로 양평읍을 통과하고 있었다.

양평읍내의 버스 정류소는 처음에는 양평삼거리에 있었고 전병훈이 이를 관리했다고 한

5) 엄이섭옹은 귀가 어둡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종로5가 관철동'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주민들은 '종로2가 관수동'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이야기를 따라 엄이섭옹의 이야기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 이어서 군청 앞 신신다방 자리와 경찰서 자리에 차부가 생겼는데, 그 선후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그 마지막 시기에 차부의 운영권이 고순업(1905년생)에게로 넘어가면서 차부의 위치도 현 삼화식육점·농협연쇄점 앞(구 청해약국터)로 옮기게 되었다. 고순업은 전직 경찰로 다년간의 사냥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경 경찰직에 발탁되었는데, 차부를 인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순업의 딸인 고손도(65세)는 “차부 직영시대의 마지막 파견소장이 그만두면서 어느날 아버지를 불러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 전의 양평읍내차부는 강원여객에서 직영하고 있었는데, 1951년에 고순업이 이를 인수하면서부터 구 청해약국터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고, 강원여객과 동해상사가 양평차부를 같이 쓰게 되었다고 한다. 양평시장변영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호(65세) 역시 강원여객과 동해상사가 각자 있었고 자기네들 편리하게 차고를 만들었다가 아마 청해약국 자리로 옮기면서 종점이 통합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양평차부가 구 청해약국터로 통합되던 무렵의 버스는 ‘도피차’라고 해서 앞이 불쑥 나고 뒤에 짐을 싣는 함이 있는 것이었다. 당시는 그것만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가득 타서 매달려서 갈 정도로 승객수가 많았다고 한다. 한 번 버스가 쉴 때 양평에서 타는 사람은 20~30명이었으며, 보통 한 차에 100명 이상이 타서 이동을 하였다. 게다가 당시는 자동차보험이 없던 때이므로 한번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차부의 주요수입은 표를 팔고 받는 수수료와 매점을 운영하여 물건을 팔아 얻는 수익 등이었는데, 당시 수수료는 직행버스의 경우 5부, 완행버스의 경우 6부에서 7부를 떼었다고 한다. 차부 안에서 운영하는 가게는, 당시 가게가 별로 없을 때였고 게다가 버스를 타고 있는 시간이 길어서 먹을 것을 사서 승차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보기보다는 ‘이가 많이 남는’ 일이었다.

또한 당시는 장사꾼들이 모든 물건들을 버스로 실어나르던 시절이므로, 버스에 사람과 생선 등 물건이 뒤섞여서 아주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던 시절이기도 했다. 장사꾼들로서는 운전수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다니던 고생 많던 시절이었고, 그런 짐들을 실으려면 일반 승객보다 좀더 많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이 웃돈은 보통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와 차장의 수입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여객회사의 버스들은 지입제(지금도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인데, 당시에는 그냥 일어식으로 읽어 ‘모치코미’라고 불렀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버스회사가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휴전 직후 서울의 종로6가를 시발지로 하는 경기여객의 버스노선이 개설되었고, 1960년을 전후로 해서 금강운수가, 곧이어 동원여객의 버스노선이 개설되어 양평읍내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어느 시기인가에 영월여객이 운행을 개시했던 것 같다. 금강운수는 종로5가 동대문시장을 시발지로 하여 인제→원통 소화동→간성→속초의 노선을 운행하였으며, 동원여객은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와 같은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하루 한두 대가 다

니는 정도였다. 금강운수가 운행하는 속초노선의 마지막 구간은 38선 이북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차에 커튼을 치고 통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금강운수와 동원여객은 기존의 양평차부를 이용하지 않고 큰길에 별도의 승하차장을 만들어 손님을 내리고 태운 뒤 양평읍내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차부가 있던 길은 일약 '소로길'이 되면서 양평차부는 이원화되었다. 그런데 차부가 이원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워한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기존의 차부를 운영하던 고순업은 각처에 진정하여 양평차부를 통합해달라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로부터는 당시 도지사 명의로 누구든지 먼저 큰길가에 좋은 자리를 확보하여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요지의 회신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자 기존의 양평차부를 운영하던 고순업 측에서는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을 주고 현 동아서점(축협 양근지소) 자리에 500평이 조금 못 되는 대지를 구입하여 새로운 차부자리를 마련하고 허가를 얻어냈다. 이것은 고순도가 스무 살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허가가 나온 후 실제로 새로운 읍내차부를 운영하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아 시간이 흘렀고, 재합동한 새로운 양평차부가 운영을 시작한 것은 고순도가 스물세 살 되던 해부터였다. 김기호 역시 동아서점 자리에서 새로운 버스종점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 1961년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아서점으로 차부가 옮겨지던 무렵부터는 삼룡여객에서 여주편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후 대진여객이 노선버스 영업에 나섰다. 삼룡여객과 대진여객은 나중에 금강운수에 통합되었다고 한다. 그후 차부자리가 협소해지고 금강운수에서도 터미널을 직영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해짐에 따라 1980년에 양평길병원 앞으로 터미널을 옮기고 이를 금강운수에서 직영하게 되었다.

제2절 장시와 상인

젠쇼(『조선의 시장(朝鮮의市場)』, 善生永助, 1924 : 74)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본 시장(양평읍내장)은 고읍면 옥천리로부터 갈산면으로 이전되었다. 그 부지가 한강 연안에 접하였으므로 점차 발전하게 되어……”라고 적고 있다. 그는 아마 조사 당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어서 적었을 것이다. 이미 읍치가 갈산 아래 남한강변으로 옮겨지고 130년 이상 지난 1880년에 들어서야 장이 옥천리로부터 갈산면으로 이전되어 읍내장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표 1. 조선 후기~일제시기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변화

장시소재지 (읍·면/리)	양근군							지평현					
	양평/ 양근	?	양서/ 양수	설악/ 신천	옥천/ (오빈)	남중/ 우천	강하/ 상심	청운/ 비룡	청운/ 용두	지제/ 지평**	용문/ 다문	양동/ 쌍화	지제/ 곡수
東國文獻備考 (1770)*	갈산 1·6	좌곡 2·7		미원 2·7	사탄 3·8	우천 4·9	상심 5·10	노음평 1·6		읍내 2·7		부연 3·8	곡수 4·9
林園經濟志 (1830)	×	가좌곡 2·7		미원리 2·7	사탄 3·8	우천 4·9	심리 5·10	유평 1·6		×	전곡 2·7	부연 3·8	곡수 4·9
京畿誌 (1842~1843)	×	×		미원 2·7	사탄 3·8	우천 4·9	상심 5·10	북면 1·6		읍내 3·8	상서 2·7	상동 3·8	곡수 4·9
京畿邑誌 (1871)	읍내 3·8	×		미원 2·7	사탄 1·6	우천 4·9	상심 5·10	북면 1·6		읍내 3·8	상서 2·7	상동 3·8	곡수 4·9
韓國土地農産 調査報告(1905)	양근 3·8	×		×	×	우천 4·9	남중 2·7	×	용두 2·7	×	×	×	곡수 4·9
朝鮮産業誌 (1909)	홍문동 3·8	×		×	×	우천 4·9	×	×	용두 2·7	월하 4·9	×	×	곡수 2·7
朝鮮の市場 (1922)	읍내	×		미원	×	우천	×	×	용두	×	×	×	곡수
市街地の商圏 (1923)	양근 3·8	×		×	×	우천 4·9	×	×	용두 2·7	×	×	×	곡수 4·9
朝鮮の市場經濟 (1926)	양근 3·8	×		미원장 3·8	×	분원 4·9	×	×	용두 2·7	×	×	×	곡수 4·9
朝鮮の市場 (1938)	양근 3·8	×	양수 2·7	미원 3·8	×	분원 4·9	×	×	용두 2·7	×	×	×	곡수 4·9

* 1770년의 자료는 『증보문헌비고』를 참고하였으나, 증보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국문헌비고』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서술인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자료의 연도는 자료가 실린 책의 발간연도가 아닌 책에 실린 자료의 조사연도를 적은 것이다. 자료의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을 볼 것

** 지평읍내정에 대해서 『증보문헌비고』에는 “읍지에는 3·8일로 적었다”는 설명이 달려 있으며, 이는 증보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 및 『경기읍지』 관련내용에는 “중년에 파하여 지금은 없다”·“지금은 없다”는 설명이 달려 있으므로 이 당시에는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1은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서, 19세기 중엽 이후 양평군지역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중심적인 장시의 개시일이 옛 양근지역에서는 읍내장의 3·8일과 우천장의 4·9일이었다면, 옛 지평지역에서는 용두장의 2·7일과 곡수장의 4·9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으로부터의 상황을 점검해보면, 위의 중심적인 장시의 소재지 및 개시일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일제강점기에 들어 광주군에 이속된 우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장시를 중심으로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변동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한다.⁶⁾

1770년경의 자료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양근군에 6개, 지평현에 4개의 장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이미 읍치가 옥천에서 갈산으로 이진된 후

의 기록이다. 이 시기에 읍내장에 해당하는 갈산장 개시일은 1·6일, 고읍면(현재의 옥천면)에 있었던 사탄장 개시일은 3·8일이었다. 사탄장이 개설되던 사탄리는 1914년에 그 일부가 옥천면 옥천리에, 일부는 양평읍 오빈리에 편입된 뒤 소멸하였다. 전쇼가 고읍면 옥천리에 있었다는 읍내장은 이 사탄장을 가리킬 것이다.

1830년대의 자료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읍내장인 갈산장이 폐지되었지만, 사탄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좌곡 또는 좌곡장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在郡南十五里”라는 『임원경제지』의 서술을 바탕으로 현재의 강상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갈산장은 이미 읍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경제지』 단계에서 강건너의 가좌곡장에도 밀려서 폐지된 셈이 된다. 그런데 이는 (가)좌곡장의 강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읍내에 있었던 사탄장의 여전한 강세(읍치 이건 후에도 지속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갈산장과 사탄장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갈산장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40년대의 『경기지(京畿誌)』에서는 갈산장에 이어 가좌곡장마저 폐지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1870년대의 『경기읍지(京畿邑誌)』에서는 갈산에 읍내장이 개설되었고, 사탄장의 개시일이었던 3·8일이 양근읍내장의 개시일이 되며, 사탄장의 개시일은 2·7일이 된다. 1905년의 자료에는 사탄장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양근읍내장은 이후 3·8일에 열리는 장으로 안착하게 된다. 전쇼가 양근리의 읍내장이 고읍내에서 옮겨왔다 함은 『경기읍지』 단계에서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근군내의 중심시장은 3·8일을 개시일로 삼는데, 사탄장은 읍치 이건 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중심시장의 지위를 읍내장(갈산장)에 내주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의 지평(읍내)장은 곡수장 등에 밀려 제대로 장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 2·7일이었던 개시일이 19세기 말에는 3·8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조차 중간에 소멸하여 남아 있지 않았다. 김종혁(2001)은 지평읍내장을 전곡으로 이설하여 전곡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거리가 가깝고 개시일이 모두 2·7일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논리로 용두장의 신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05년의 자료에서는 청운면 비룡리의 북면장, 지평장의 후신인 용문면 다문리의 전곡장, 상동면(현재의 양동면) 쌍학리의 상동장이 없어지고, 용두장이 신설되고 있다. 용두장이 전곡장의 개시일이었던 2·7일을 개

6) 우천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양근군에 속해 있다가 1914년 광주군으로 이속되었는데, 『증보문헌비고』에는 양근조에, 『임원경제지』에는 광주조에 실려 있다. 우천장의 경우, 1923년의 자료에는 남종면 우천리에 있는 우천장으로 적혀 있는데, 1926년의 자료에는 남종면 우천리에 있는 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장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나온다. 1938년의 자료에는 남종면 분원리에 있는 분원장이고, 우천리에는 장이 서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장의 위치까지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시일은 모두 4·9일로 동일한데, 실제 그러한 위치의 이동이 있었는지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표 2. 1960년대 이후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변화

연도	군내 시장수	개시 상황 및 개시일											
		읍내	양수	국수	단월	용두	양동	지평	곡수	용문	개군	옥천	서종
1961	9												
1962	11												
1963	11(12)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1964	9	3·8	1·6	폐지	1·6	2·7	3·8	1·6	4·9	5·10	5·10	폐지	폐지
1966	10	3·8	2·7	1·6	1·6	2·7	3·8	1·6	4·9	5·10	5·10	-	-
1967	8	3·8	1·6	폐지	1·6	2·7	3·8	1·6	4·9	5·10	폐지	-	-
1968	9	3·8	?	-	1·6	2·7	3·8	1·6	4·9	5·10	5·10	-	-
1969	9	3·8	2·7	-	1·6	2·7	3·8	1·6	4·9	5·10	5·10	-	-
1970	9	3·8	2·7	-	4·9	2·7	3·8	1·6	4·9	5·10	5·10	-	-
1971	9	3·8	2·7	-	1·6	2·7	3·8	1·6	4·9	5·10	5·10	-	-
1978	7	3·8	1·6	-	폐지	2·7	3·8	1·6	4·9	5·10	폐지	-	-
1988	6	3·8	1·6	-	-	2·7	3·8	1·6	폐지	5·10	-	-	-
1992	4	3·8	폐지	-	-	폐지	3·8	1·6	-	5·10	-	-	-

시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용두장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상동장(양동장)의 시장권을 여주장, 곡수장 등과 분할하고 북면장 및 전곡장의 시장권을 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곡수장의 지속적인 변성, 지평장·북면장·전곡장·상동장의 잇따른 몰락 및 용두장의 부상으로 구 지평현 지역 장시의 기본적인 변동추세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장시별 세부 조사 내역은 표 2에 자세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표 2는 『양평통계연보』에 나타난 양평군 정기시장의 개시일을 정리한 것이다. 1961년과 1962년의 통계는 시장의 수만 나와 있을 뿐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증설된 시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데, 국수장은 생긴 지 1, 2년 만에 생겼다 없어졌다 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국수장이 이 기간에 신설된 장의 하나였던 것은 거의 분명하다. 서종장과 함께, 양수장에 경쟁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가 곧 사라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의 시장수는 11기로 적혀 있지만 시장의 위치는 12개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개시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1968년 각 시장들의 개시일은 분명하지 않은데, 일단은 전후년도에 개시일이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양수장은 전년도와 이듬해의 개시일이 달라 물음표를 달아놓았다.

통계의 세부사항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양평통계연보』에는 양수리의 시장이 1992년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주민들은 2002년 현재까지 양수리시장이 폐지된 적은 없다고 한다. 표에 나타난 개시일의 변화도 주민들의 제보와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조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평군 일대를 통과하는 소(牛)의 이동경로 및 유통권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소는 두 가지,

영남 소는 한 가지의 유통경로 또는 유통거점이 확인되었다. 강원도 소의 첫째 이동경로는 홍천과 횡성으로부터 용두장을 경유하여 양평과 덕소를 지나 서울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일단 개군면 곡수장까지는 이 강원도 소의 이동경로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도 소의 둘째 이동경로는 춘천으로부터 가평군 설악면으로 들어와서 마석을 지나 서울로 가는 길이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북한강을 건너야 한다. 특히 둘째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기존의 잘 알려진 나루들 외에 소군이나루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영남 소의 이동경로는 일단 경안을 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앙선 철도의 부설과 관련하여 한 차례 변동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철도가 영남 소의 유통경로가 되면, 양평장과 양수장을 비롯하여 양평군 중남부의 주요 장시들은 영남 소의 유통권에 좀더 확실히 포섭된다. 경안과 마석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로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 강원도 소와 영남 소의 유통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1. 양근지역의 장시

1) 양평읍내장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農商務省, 1905 : 670)에는 양근군의 물산을 다루면서 주요수출품으로는 도라지[桔梗根], 벼[粳], 대두, 소두, 잣묵[油粕]을, 주요수입품으로는 소금과 절인 생선[鹽魚]을 들고 있다. 이들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및 도매상에 대해서는 “객주가 4채 있으며, 구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물이 팔렸을 때 보관료[倉敷料]로써 얼마간을 지급할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들 객주들은 당시의 양근나루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보다 5년여 뒤에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된 『한국수산지』(農商工部水産局, 1910 : 238)에서는 양평읍에 대해 “원래 양근읍으로 경성으로부터 동남쪽 16리허 떨어진 강의 왼편기슭에 있으며, 원래는 인가 400여 호의 작은 도회지이나 전년의 폭도로 인하여 전읍이 거의 화재를 입어 지금은 190여 호의 마을이 되었다. 그 과반수는 화재 후에 신축된 것으로서 모두 초가집이다. 그러나 부근의 농업이 성하며 강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이 성행하니, 매 음력 3·8일에 장시가 개설된다. 일년 중 강에 의해 이입되는 주요 수산물물은 조기 150웅(甕), 새우젓[醃蝦] 4섬웅(石甕), 명태 500바리[駄] 남짓이 된다. 이 땅은 양평군의 치소로서 군청 외에 우편국, 헌병분견소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로부터 10여 년 뒤에 조사·기술된 『치수금수리답사서』(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 389~390)에서는 양평읍에 대하여 “별명은 양근이고, 본강 중류부 연안에서 유수의 도회이며, 일부에는 시구개정을 시행하여 가옥이 즐비하다. 인구 약 1,500명이 거주하며 군청과 헌병분견소가 있다. 부근에는 소평야가 많고 산물이 풍부하여 번성하는 시장이 있다. 오지는 강원도

횡선군 및 홍천군에 이르는데, 최근에 도로가 개수되어 일부 우마차의 왕복이 번성하게 되었다. 본 하진(양근나루)의 물자출입은 점차로 증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나루터는 머무르기에 적합하고 하역도 편하다”고 적었다.

앞서도 잠깐 인용한 바 있는 『조선의 시장(朝鮮의市場)』(善生永助, 1924 : 74~75)에서도 양평읍에 대하여 “양평읍 갈산면시”라 하여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시장의 설치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본 시장은 고읍면 옥천리로부터 갈산면에 이전되었다. 그 부지가 한강 연안에 접하였으므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양근리 중앙을 공동으로 경영하지만, 명치 42년(1909년 - 인용자) 본 군에서 시장 부근에 거주하는 이범기라는 자를 시장관리자로 정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왔는데, 대정 3년(1914년 - 인용자) 12월 25일 경기도고시 제71호로서 면장이 이를 경영하게 되었다. 시장부지는 국유이지만 곡물시장은 사유이다. 시장의 구역은 양근리내 시가지 일원으로서 읍내시장이라고 칭하며, 음력 3·8일에 개시한다. 주요취급상품은 소, 곡물, 직물, 잡화, 목재, 철물(金物)이다.
- 一. 수요공급의 구역 본군 갈산, 감상, 고읍, 강하, 용문, 양서, 지제의 각면, 이천군, 여주군, 홍천군, 횡성군
- 一. 시장출입상인의 행정구역 본군 지제면 곡수시, 청운면 용두시, 광주시 남종면 우천시, 양주군 와부면 평구시, 이천군 읍내시, 여주군 주내시
- 一. 시장취급품종별 수량 및 가격

종류	수량	가격	종류	수량	가격
소(생우)	53두	4,800원	조[糶]	70파	42원
배추	7석	385원	목면	80척	16원
콩	1석	20원	백지	15채	45원
팥	5두	20원	미투리	80족	24원
소고기	250근	150원	면화	30근	9원
식료품	-	80원	철물	-	200원
잡화	-	580원			

여기에서 ‘시장관리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범기는 당시 양평읍 일원의 유력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읍내 갈산 위에 서 있는 영호정은 일제가 신사를 만드느라고 이축했던 것을 해방 직후 김연수가 신사를 헐고 그 자리에 재건하였는데, 이것이 1950년에 소실되자 1991년에 양평군청에서 세번째로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일제가 신사를 짓기 전 이 자리에 있었던 영호정을 1930년대에 건립한 인물이 바로 당시 양근리에 거주하던 이범기이다.

현재의 양평읍내장은 우리예식장통, 시장통(중앙통 또는 신중앙통), 구중앙통의 세 길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세 구역 중에서는 구중앙통에서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1981년경 현재의 시장중앙통으로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에식장통의 경우 지금도 도로 및 주차장 부지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직거래 형태로 물건을 파는 좌판들이 늘어서서 세번째 시장구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에식장통에 좌판이 형성되던 당시에는 도로를 점거하여 무질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 관계자들은 이들을 구 중앙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식장통에 나오던 사람들은 민원을 넣으면서 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50m 구간에 대해서만 2년여 전부터 임시로 노점 개설을 허락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당시 김장철로, 좌판과 사람이 넘쳐 장이 혼란스러웠는데다가 농산물 판로가 막혀서 농민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상인이 아닌 농민들에 한해서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임시로 허락하자고 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번영회 상인들은 시장 안에 있는 구 곡물시장건물을 채소장으로 하자고 절충안을 냈지만, 우리에식장통의 좌판 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냥 우리에식장통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곡물시장 건물이란 원래 곡물시장의 장옥이 있던 곳을 말한다.

그러나 구 중앙통에 장이 형성되었던 것도 1958년 이후의 일이다. 원래는 현재의 양평초등학교에서부터 동쪽으로 삼거리까지가 양근리 읍내장이 서던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가게와 노점이 혼잡하여 1955년에는 양평경찰서부터 성당입구까지 사이의 구간으로 시장이 확대되었다. 이것이 1958년에 구 중앙통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상인조직으로는 '양평시장번영회'가 있다. 약칭해서 '번영회'라고 부르는데, 번영회가 생긴 것은 1982년의 일이다. 현재는 1999년 12월 1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고문 4인,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 1인, 사무장 2인, 지도위원장 1인, 위원장 외 지도위원 12인, 운영위원 11인, 질서경비 1인으로 운영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번영회가 생기기 전에는 1961년에 발기된 양평상업조합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번영회가 생겼다. 2001년 현재 번영회에 가입한 상인이 173명이며, 정례모임은 여름의 하계단합대회(6월 15일이나 20일), 겨울의 정기총회(11월 15일경)의 연 두 차례다. 번영회에서는 대외지원사업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장 안팎의 경조사,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양평읍내의 오일장에 참여하는 노점상은 300여 명인데, 이들이 번영회의 하부조직으로 '양평시장상인회'를 조직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00명 가량은 외지인이고, 300명 중 30명 정도가 번영회의 회원으로도 가입해 있다. 2001년 10월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특정 좌판을 벌이는 경우 규모에 따라 1,000원 이상, 불특정으로 때에 따라 이것저것 소규모로 좌판을 벌이는 경우 500원의 청소비(속칭 '장세' 또는 '자릿세')를 받고 있다. 청소비가 가장 비싼 출장상인은 보리밥, 안주, 순대 등 그 중 크게 먹거리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2001년 10월 현재 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이들의 숫자는 전체 양평 오일장 출시상인 중 5~6개 소에 불과하다.

현재 양평장에서 이불을 파는 한 상인은 양평장에 다닌 지 10년 정도 되었고, 양평(3·8



양평읍 양근리 양평장 구중앙통 입구 추석대목장



양평읍 양근리 양평장 구중앙통 추석대목장

일) → 모란(4·9일) → 발안(5·10일)의 순서로 장을 순회하고 있다. 아침 7시에 개시하는데, 오전 10시 정도에 제일 손님이 많다고 한다. 이불을 사가지고 오는 곳은 대구의 서문시장으로, 이곳이 가장 싸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물건을 떼온다. 그는 서울에서 파는 이불의 70~80%는 대구에서 올라오는 이불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양평시장변영회에 속한 상인들이 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는 시가

지미화사업을 통해 오수·우수 분류하수관로를 만들어 하수도체계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권의 위축을 벗어나는 일이다. 상인들은 팔당상수원 주변에서의 수질개선편책으로 인해 신규입점이나 업종 변경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 관광객에 의존하다 보니 기후와 절기에 따라 경기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한 시장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지원이 미정상태여서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1차 사업으로 군 예산 중 26억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내년 7월의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완공, 2005년으로 예정된 전철개통 등도 양평시장 관계자들의 의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평군의 인구가 이들 사업을 통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1938년 시점에서 양평은 경성부, 인천부, 개성부를 제외한 경기도의 장시 중, 수원, 안성과 함께 거래액 100만 원이 넘는 3대 시장 중의 하나였다(이현창·김종혁,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215). 의병운동기에 폐허가 되었던 양평읍내는 상업의 융성을 발판으로 시가지를 재건하였고, 주민들은 식민지 시기의 변화했던 읍내풍경을 많



양평읍 양근리 양평장 우리예식장통 추석대목장

이 기억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읍내에 나무장이 켜고 그곳에 땀감을 공급하면서 농한기 생업으로 삼는 주민이 인근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양평읍의 도회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장 생업 제2절 임업 참조).

양평읍내는 군소재지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말에 500호 정도가 거주했으며, 접대부를 놓고 비싸게 술을 파는 집도 7, 8집이 있었다. 이들 술집은 색시가 7, 8명씩 있어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노는 곳인데, 일반 술집보다 많이 비싸고 색시가 있기 때문에 요새로 말하면 큰 요정과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양평읍내의 술집에는 맥주도 있었지만, 주로 '돛구리병'에 담은 정종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1943년경 한 홑이 채 들어가지 않는 '돛구리' 한 병에 50전에서 1원을 받았다. 1937년경(제보자가 15세 무렵이던 65년 전) 주막에서는 막걸리 1잔에 2전을 받던 시절이었다. 1940년대 전반 읍내의 '요정 같은' 술집에서 먹는 안주는, 상을 차리면 세 명 정도가 먹는 작은 상 한 상 값이 3원이었고, 한 상에 6, 7점시의 안주가 나왔다고 한다. 신선로, 오징어 등 마른안주 같은 것이 나오고, 3인 기준이었지만 4, 5인도 먹을 수 있었다. 한 상 차리는 외에 따로 주문하는 안주로는 '스키야키'나 육회 등이 있었는데, 그 가격은 제보자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안주 내용은 비슷하지만 6, 7인이 먹을 수 있는 큰 상이 있는데, 큰 상은 5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평군내를 관통하는 중앙선이 개통된 것은 청량리-양평 간에 1939년 4월 1일(52.5km, 1937년 1월 18일 착공), 양평-원주 간에 1940년 4월 1일(55.9km, 1938년 2월 6일 착공), 원주-단양 간에 1942년 2월 8일(74.3km, 1940년 4월 1일 착공)이었다(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617쪽). 양평읍내에 거주하는 엄이섭(79세)에 따르면, 청량리-양평 간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기 6개월 전 양평읍내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중앙선 개통 직전에 버스는 25명 정도 타는 차가 다녔고, 그전에는 8인승의 '검은 차'(목탄차)가 버스구실을 했다(개통초기의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같은 장 제1절의 사례 '일제강점기·해방 전후의 노선버스와 읍내차부'를 참조할 것).

교통의 요지이자 군의 행정·상업중심지답게 읍내에는 여관도 여러 채가 들어서 있었다. 해방 직전 양평 읍내의 여관은 양평, 조일, 동평, 홍화 등 6개였고, 이 중 양평·조일여관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이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은 안내도 친절하게 하고 해서 고급 여관으로 쳤으며, 여관들은 주로 '상거래' 하는 사람이나 '관청일'을 보는 사람들이 묵었다. 당시에는 여관에서 식사도 제공하였는데, 1935~1940년 사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관은 1박에 2식이 딸려서 하룻밤 묵는 데 2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볼 때는 1968년에 등록되어 있던 양평여관이 최초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폐업하였다고 한다. 1971년 관광단지가 용문에 들어서며 양평시장 안에 '별여관'이 생겼는데, 현재로서는 이 별여관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오래된 여관에 해당한다.



양평읍 양근리 양평장 대보름장 나물좌판



양평읍 양근리 양평장 대보름장 부럼좌판

음식점은 해방직전 양평읍내에 10여 집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 국밥집에서 파는 장국밥은 막걸리 한 잔에 5전일 때 15전을 받았으며, 메밀국수가 10전, 순대국밥은 10~15전 정도였다. 1942년에 면 호적서기로 근무하는 공무원 월급이 21원이었고 쌀 한 가마가 25원이었다. 이밖에 먹을거리를 파는 상설점포로는 떡집이나 빵집 같은 것들이 읍내에 있었다. 그리고 1943년 양평읍내에는 세 곳의 이발소가 영업중이었다고 한다.

양복점은 현재 살아 있는 주민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처음 생긴 것이 언제였는지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일정이 깊숙할 때”인 1930년경에는 읍내에 두 집의 양복점이 있었다고 한다. 양복은 수준이 있는 사람, 농촌 같으면 노적가리나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나 입는 것이었다. 상설포목점도 일제시대 읍내에 서너 곳이 있었다. 1943년에 읍내에 대장간을 열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자신이 대장간을 열 당시 읍내에 다섯 집의 대장간이 있었다고 하였다.

양평읍내에 대중목욕탕이 처음 생긴 것은 1960년대 초의 일이었다고 한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행정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목욕탕 운영권에 대해 입찰을 받아서 운영토록 했다. 당시 읍내에서 처음 목욕탕을 열었던 한 주민은, 돈을 벌 목적이라기보다는 맡아서 운영을 하고 당국에 갚다 바치는 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목욕탕의 목욕물은 자동차 페타이어를 태워서 데웠다고 한다.

양평읍내의 우시장터는 읍내 축협 뒤에 있던 것이 현 창대리보건소터로 옮겼었는데, 80년대에 창대리 입구 북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현재도 우시장에는 ‘마방’들이 있어서 소를 맡길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다. 현재 마방에서 일박을 시키면, 송아지의 경우 7,000원,

큰 소는 7,000~1만 원 정도를 낸다. 양평우시장의 마방은 우시장이 옮기면서 함께 창대리로 갔던 것이 다시 신애리로 옮겨갔는데, 이 마방은 축협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읍내에 우시장이 있던 시절 마방은 읍내 우전(우시장)터에 있었는데 개울까지 소를 묶어둘 만큼 많았고, 보통 한 장에 100~150바리의 소가 모여들었다.

2) 남중장과 강하면의 장시 이용

강하면 남중장은 문헌에서는 상심장, 심리장, 남중장 등으로 나타나며, 장시의 위치는 남중면(현재의 강하면) 운포리인 것으로 나온다. 남중장은 장이 없어지기 직전에는 '강하장'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는 1914년의 군면폐합에 따라 남중면이 강하면으로 된 데 따른 결과일 것이다. 개시일은 적어도 1871년까지는 5·10일이었던 것이, 늦어도 1905년부터는 2·7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22년에 조사된 자료에는 이미 상심장 또는 남중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강하면 성덕리에서 태어나 같은 성덕리 내에서 혼인을 한 86세의 할머니는, 아주 어려서 운심리에 장이 섰었는데 자신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1920년대 초까지 남중장(강하장)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성덕리에 거주하는 74세 된 주민은, 자신은 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도 이미 없어진 뒤였다고 하면서도, 어른들한테 남중장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하였다. 왕창리에서 만난 70, 80대의 노인들은 을축년(1925) 홍수 때 쓸려내려간 뒤 강하장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문헌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말에 이미 장세가 미약해져서 관청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되었지만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은 1920년대 전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을축년 홍수를 계기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사 기간에 만난 주민 중에 남중장의 개시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마지막에 장이 섰던 장소는 왕창교회 뒤에 있는 벌판이었다. 주민들은 강하장이 없어진 이후 다시 강하면에 장을 세우려고 했던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성덕리 아주마을에서 운심리 부루개(부로)로 넘어가는 고개를 장고개라고 부르는데, 이는 남중장이 열리던 당시 성덕리에서 장을 다니던 장길이기에 붙은 이름이다.

남중장이 서지 않게 된 후로 강하면 주민들은 양평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강 건너 양서면 국수리에 국수장이 있을 때는 국수장을 보기도 했지만, 양평장보다 물건이 많지 않으므로 그 당시에도 양평장을 이용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한다. 국수장이 강하장(남중장)을 잃은 강하면 주민들까지를 시장권으로 겨냥한 것이었다고 할 때, 강하면 주민들조차 국수장보다는 양평장을 선호했다는 것은 국수장이 개설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곧 폐지되고 만 사실을 설명해준다.

양평장과 국수장 외에 인근의 장시로는 광주시의 경안장, 퇴촌장, 분원장 등이 있다. 이 중

퇴촌장은 나중에 생긴 것이며, 분원장은 우시장이 없었고 주로 곡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강하면 사람들이 출입하였다.

경안장은 3·8일이 개시일이었는데, 곡식을 파는 목적 외에 소를 사기 위해 출입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같은 장 제3절의 우상 사례 참조). 경안장은 또한 양평장에 비해 곡식을 팔기에도 유리하였다. 주민들이 쌀 외의 콩, 팥 등 잡곡을 팔 때, 양평의 곡물시장에서는 '고봉'으로 수북하게 되어서 사들이는 반면 경안의 싸전에서는 깎아서 한 되를 샀기 때문에 파는 주민들이 유리하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고봉 한 말이면 석 되가 올라갔다면 그 차이가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쌀값이나 쌀을 되는 방식은 양평이나 경안이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왕창리에서 경안까지는 50리길, 양평까지는 30리길, 분원까지는 원래는 좀 멀지만 곧장 질러가면 역시 30리길이 된다고 한다. 분원장을 질러가는 길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청탄에서 남분리고개를 넘는 길과 광주시 남종면과 퇴촌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협산을 끼고 돌아 남종면 금사리 구터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왕창리 주민들은 후자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경안장으로 갈 때는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엷티고개→퇴촌면 관음리→정자골고개→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사마루→경안으로 가는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양평장을 갈 때는 다루레기나루(전일나루)를 이용한다. 중앙선편으로 서울에 상경하기 위해 국수역으로 갈 때, 중앙선이 생기기 전 도보로 상경할 때는 한여울나루를 건너서 간다.

3) 서종면의 장시 이용

이번 조사에서는 서종장이 언제 생겼는지를 명확히 조사하지 못했는데, 1940년 이전의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양평통계연보』에는 1962년 이후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다. 서종장은 이 사이의 시기에 신설되어 서종면 문호리에서 열리다가 주변 장시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여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종장의 개시일은 1·6일이었다고 한다. 서종면 노문리 벽계 샘말에 사는 김동성은 걸어서 다닐 때는 마석장(3·8일)과 설악장(1·6일)을 다녔는데, 차가 다니면서부터는 양수장에 많이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노문리에서 마석장까지는 50리, 설악장(미원장)까지는 40리 길이 된다. 노문리 일대에서 마석장에 가려면 무드리나루(수입나루)를 건넌다. 수입리에서 북한강을 건너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로 가면 점촌방면으로 질러가는 장길이 있다.

서종면 명달리에서도 생활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마석장, 양수장 등을 주로 출입하였으며, 가끔씩 양평장을 드나들었다. 소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경안장이나 동대문장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마석장과 양수장은 일상 생활물자를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드나들었고, 양평장에는 명달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바꿔서 또는 드문 경우이지만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쌀을 사려는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한다. 명달리에서도 마석장을 가려면 무드리나루를 통해 북한강을 건너서 갔다.

4) 양수장

앞서 양평군내 정기시장의 개시상황을 정리한 표 1에 따르면, 양수장은 1926년과 1938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개설된 것으로 된다. 양수장이 개설된 시기에 대해서 한 주민은 양수리에 장이 서게 된 것은 을축년 홍수 나고 바로라고 하였고, 1917년생인 다른 주민은 자신이 열두 살 무렵이라고 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1920년대 후반에 생긴 것은 거의 확실하다. 양수장이 생기기 전 양수리의 주민들은 1914년에 광주군으로 이속된 남종면 우천장(분원장)이나 현재는 남양주시에 속하게 된 덕소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양수리시장이 서는 곳은 예전부터 '돌데미'라고 불리던 곳인데, 장이 서기 전의 돌데미에는 북한강에 면한 나루터 쪽에 잡화상을 겸하는 '담배가갯집' 두 채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양수장이 개설되던 무렵인 1928~1929년 무렵에는 서울을 향하는 경강가도가 두물머리가 아닌 돌데미를 지나게 되었으며,⁷⁾ 이는 일제시대에 들어 용담리에 들어선 양서면 사무소, 돌데미에 설치된 양수장과 함께, 이 일대에서 돌데미의 중심지적인 지위를 확고한 것으로 만드는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37년에 건설된 양수교, 1939년에 개통된 중앙선 양수역 등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수장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시장권이 재편된 결과 양서면 일원은 물론 서종면,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진중리·능내리·봉안리·삼봉리·시우리와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귀여리 일대에서도 양수장으로 장을 보러오게 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육로로 걸어서 덕소나 분원까지 장을 보러가기보다는, 나룻배로 강만 건너면 되며, 조금만 수영을 하거나 심지어 갈수기에는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강 건너의 양수장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양수리의 주민들은 양수장에서 백중놀이를 하던 시절을 양수장이 제일 잘 되던 때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백중놀이는 양수장의 시장번영회가 주관하였으며 1960~1970년대까지는 했던 것 같다고 한다.

현재도 양평군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양평, 양서, 청운, 양동, 지제, 용문 중 양평장과 양서장(양수장)만 제대로 운영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어도 양평군내에서는 양수장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이 되고 있다. 현재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양수장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의 팔당댐 건설과정에서 시장부지가 수몰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시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법화원 시장을 옹기지 않고 버텨으로써 양수장을 다시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평군이 나서서 공유수면매립면허(1979년 12월 5일자 건설부고시 제457호)를 취득함으로써 양수장은 재합법화되었다. 1998년 여름을 기준으로 양수장에는 60개 안팎의 좌판이 들어서고, 각종 점포수가 230여 개에 이르렀다.⁸⁾

7) 돌데미와 두물머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장 제1절 사람과 물자의 이동 참조.

양수리의 우시장은 1974~1975년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1980년을 전후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양수 우시장에서 소장사를 했던 한 주민은 “사러 오는 사람이 없고, 안 오니까, 매매가 적으니까, 당시 소에 대한 공인 중매인이 따로 있었는데, 중매인들도 안 오고, 소장을 주관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러다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우시장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소장수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하여 장날이 바뀌게 되기도 하였다. 즉 당시 마석장의 개시일이 3·8일, 덕소장의 개시일이 4·9일이었는데, 양수장을 2·7일로 보고 마석으로 가기에 빠듯했기 때문에 양수장의 개시일을 1·6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표 1에서 양수장의 개시일이 2·7일과 1·6일로 변경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2. 지평지역의 장시

1) 지평장, 전곡장, 용문장

앞의 표 2의 장시개설상황을 보면, 1830년 단계에서 지평장이 전곡으로 이설되면서 이후 지평읍내에는 장시가 개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1909년의 자료를 사용한 『조선산업지』에는 군내면 월하리(현재의 지평면 지평리 월하마을)에 4·9일을 개시일로 하는 지평장이 생기고 곡수장의 개시일이 2·7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서는 『대한매일신보』(1909. 2. 16)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양평군수 정원모가 전 지평군 읍저에 장시를 신설하고 민간에 고시하기를 장시일에 매 동 인민이 2명씩 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인당 벌금 2원씩 받겠다고 한다(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2002 : 462).

즉 이 시기에 관의 주도로 지평장이 복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곡수장은 개시일까지 변경당한 셈이다. 그러나 관주도로 복설된 지평장은 다시 주변의 장시들에 밀리게 되었으며, 결국은 폐지되고 곡수장은 원래의 개시일을 되찾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평장이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양동면 삼산리에 사는 한 주민은 원주에서 서울로

8) 양수장의 불법화 및 재합법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논문(안승택, 「양수리에서의 지역의 시공간적 구성 : 기술의 도입과 문화적 전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을 볼 것. 그러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양수장의 강세는, 순수하게 양수장 시장권내 주민들의 구매력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권을 오가는 행락객 등 이동인구의 구매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제면 지평리 지평장 입구



지제면 지평리 지평장 장날

가는 육로에 대해 설명하면서(이에 대해서는 같은 장 제1절 사람과 물자의 이동 참조), 지평리를 지나는 길이 가깝기는 했지만 구둔치고개가 가파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고는, 그런 까닭에 지평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홍천·횡성과 서울을 잇는 육로로부터도, 남한강 수로로부터도 빗겨나 있고, 원주와 서울을 잇는 직선교통로상에 위치하지만 구둔치라는 가파른 고개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평은 교통상의 요충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만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중혁(『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은 지평읍내장이 1830년 단계에서 전곡으로 이설되어 전곡장이라 불리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전곡장의 위치를 지제면 송현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중혁, 위의 논문 : 268). 지제면 송현1리 송곡마을은 조선시대에 전곡역이 있던 곳으로 1896년 전곡역이 폐지된 후 역말 또는 전곡이라는 지명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후 마을 뒷산에 소나무가 무성하다 하여 송곡이라 바뀌 부르게 되었다(양평문화원, 『황맥』1, 1989 : 416). 그리고 1914년 군면폐합에 의해 송정리, 전곡리, 산현리, 이촌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송현리라 부르게 되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상), 1985 : 552).

그런데 1872년의 『지평현여지도』에서는 전곡역과 전곡장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전곡역의 위치는 역시 현재의 지제면 송현리에 해당하지만, 전곡장은 전곡역으로부터 ‘문현(文峴)’이라는 고개를 넘은 뒤 현재의 흑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울을 건너기 직전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송현리는 본래 지평현 군내면 지역인데, 전곡장은 상서장으로도 불렸으므로 지평현 상서면 지역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곡장의 위치는 지제면 송현리의 전곡역말이 아니라 현재의 용문면 화전리의 전곡마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전리는 본래 지평현 상서면 지역에 해당한다.

현재 지제면 송현리 송곡마을과 용문면 화전리 전곡마을 사이의 고개를 두고 지제면 쪽에서는 ‘그루고개’로, 용문면 쪽에서는 ‘그룻고개’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한글학회, 앞의 책 ; 양



용문면 다문리 장대마을 전곡장터

평문화원, 앞의 책). 이를 그릇고개라고 부르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용기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릇고개라고 불리게 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평현여지도』에 나오는 문현[글고개, 글월고개]이란 이 그릇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문면 화전리 전곡마을과 흑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용문면 다문리 지역에는 '장대(場臺)'라는 마을이 있다. 장대란 곧 장터인데, 한글학회(앞의 책 : 546)와 양평문화원(앞의 책 : 363)은 모두 "용문면시장이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용문면시장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없던 것이 해방 후 생긴 것이며, 용문역전에 있다가 현재는 그 중심지가 성당앞 주차장길 일대로 옮겨진 상태이다. 따라서 장대마을에 '용문면시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용문장이 서던 용문역전과 장대마을이 모두 다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장대마을에서 나고 자란 83세의 주민에게 들은 바로는, 그가 어려서 이미 장이 없었는데 부친에게 왜 장터라고 부르는지 여쭙었더니 몇 해 전까지는 장이 섰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니까 한 90년 전에 없어졌을 것이라면서, 당시 개울(흑천)을 끼고 양편으로 시장이 조성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용두리장이 없었고 우시장이 여기에 섰던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에 개울이 끼고 해서 불편하니까 없어진 것 같다는 것이다. 그의 부친이 이야기한 '몇 해 전'이 정확히 몇 년 전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만 제외하면, 이는 앞의 표 2에서 제시한 양근·지평 관내의 장시변동상황과 일치한다. 전곡장의 개시일이었던 2·7일을 용두장의 개시일로 삼게 된 내력도 이로써 설명이 된다. 즉 적어도 폐지 직전의⁹⁾ 전곡장은 흑천을 끼고 양편으로 장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설이든 폐지에 이은 신설(또는 신설에 이은 폐지)이든 전곡장은 용두장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된 것이다. 다문리 역시 과거 지평현 상서

9) 여기에서 '적어도 폐지 직전의'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앞서의 『지평현여지도』에서 전곡장의 위치가 개울 동편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개울 양편으로 있던 것이 한편으로만 표시되었을 수도 있고, 전곡장의 발전에 따라 1872년의 지도 작성시점 이후 개울 양편으로 장이 확대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용문면 다문리 구 용문장터 입구 상점



용문면 다문리 구 용문장터



용문면 다문리 구 용문장터 옆 용문역전 노점



용문면 다문리 현재의 용문장터

면 지역이었다.

앞서의 장대마을 주민에 의하면 그가 어려서 장대마을에는 20호 가량이 거주하였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마을의 상포계와 가마계는 모두 흑천 건너의 화전리 사탄말(전곡마을)과 함께 조직하였다고 한다. 당시는 하천제방공사를 하기 전이어서 흑천의 수량도 지금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고 천변의 땅도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따라서 흑천을 건너다니는 일은 현재보다 수월하였으며 장대마을과 사탄말은 한마을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즉 전곡장이 흑천을 끼고 양편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울 양편의 이름을 달리하는 두 마을은 사실상 한마을로 기능하고 있었다. 흑천은 마을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보다는 마을 안의 지형지물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마을을 가르는 경계로 작용하였던 것은 그루고개였던 셈이다.

다문리 일대의 주민들은 용문장이 서기 전까지는 양평장과 곡수장에 주로 출입하였으며, 소를 사려면 양평장이나 용두장에 갔다고 한다. 양평장과 용두장은 모두 다문리에서 30리 길이 된다.

지평읍내장이 전곡으로 이설된 배경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교통상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평읍내는 지평군만을 놓고 보면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기는 했어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한강을 따라 오는 수로 및 육로 교통과 강원도 홍천·횡성으로부터 용두리를 경유하여 양평·서울로 이어지는 육로로부터는 약간 빗겨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읍내장을 상서면 화전리의 흑천변으로 끌어냈으면서도 그곳에 군내면의 지명으로 행정구역상 맞지 않는 '전곡'이라는 이름을 군이 붙인 것은, 유통망상의 요지를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압력과 '읍내'장의 성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이 충돌할 결과일 것이다. 구한말에 지평읍내장을 복설하려 했던 움직임 역시 후자의 압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일제강점기 내내 지평시장은 폐지상태에 있었고, 복설의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미미한 세력밖에 지니지 못하였다.

해방후에는 '지평시장변영회'가 생겨서 장의 부흥을 꾀하였으며,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해서는 지평장에서 백중(장)을 세웠다. 백중의 주된 행사는 씨름대회였는데, 양쪽 장날을 끼고 벌여서 마지막 날을 장날에 맞추어 시상식을 열었다. 1등 상품은 '말은 황소라고 하는' 수컷 중송아지였으며, 2등 이하는 광목 1등 정도를 상품으로 주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상품이 좋아 서울에서도 원정을 왔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황소' 값 등 백중을 세우기 위한 비용은 상인들이 각출하였는데, 보통 양조장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냈다고 한다.

현재 지평장터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평노인회와 계약을 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노인회에서 장세를 걷어 이 중에서 양평군에 사용료를 내고 남은 돈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장에서 거래되는 곡물이 많아서 지평장이 나름대로 활기 있게 운영되었다고 한다. 당시는 말감고가 군과 계약하여 장을 운영하였다. 지평장이 다시 쇠퇴하게 된 것은 1977년경인데, 이때부터는 인근에서 용문으로 다니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평장은 다시 쇠퇴하게 되었다. 가령 양동면 고송리 일대는 지평장의 시장권에 들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용문을 생활권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용문장의 활성화를 단지 버스 등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등장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버스가 왜 그곳으로 다니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단월면 산음리에서는 용문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20년 정도 되었지만 그 전부터도 걸어서 용문장에 다녔다고 한다. 이는 단월장이 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산음리에서 용문시장으로 가려면 새벽에 밥을 지어 먹고 나가서 한나절이 되어야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먼 길이었고, 물리적으로는 단월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그러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당연히 용문장이 생긴 후의 일이며 시기적으로도 근래 들어서의 일이겠으나, 용문장이 지닌 입지상의 유리함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옛 지평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장시는 용문장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용문장은 원래 용문역전의 장터에 있었는데, 현재는 그 중심지가 신시장터로 옮겨진 상태이다. 그 이유는 장이 협소했던 것, 장차의 주차문제로 인한 것 등이었다. 즉, 장에 나오는 상인들이 대중교통이나 공동의 장차가 아닌 개인소유의 장차로 다니게 되면서 장차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장터가 새 부지로 지목된 것이다. 현재의 장이 서는 모습을 보면 인도를 따라 상인들이 장차를 일렬로 주차시키고 그 앞으로 차에 차양이나 파라솔 등을 잇대어 좌판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용두장과 단월장

앞서도 언급했듯이 용두장은 지평장이 이설되어 만들어진 전곡장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육로상의 유통 결절점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강원도 홍천에서 양덕원을 경유하여 넘어오는 길과 역시 강원도 횡성에서 넘어오는 현재의 6번 국도에 해당하는 길(소위 '경강가도')이 합쳐지는 위치라는 지리적인 이점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의 유통과 관련하여 용두장은 크게 번성하였고, 용두리에 인접한 여물리에는 이들 소와 소장수가 머무는 마방이 여러 채 운영되었다(이에 대해서는 같은 장 제1절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및 제2절 장시와 상인 참조).

전곡장을 대체하는 장시로서 용두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단 사탄장의 양근읍내장으로의 이전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840년대 단계에서는 사탄장이 3·8장으로서 양근군내의 주요장시였고 갈산장은 폐지된 상태였다. 1870년대 단계에 들면 양근군내 중심시장의 고정적인 개시일인 3·8일이 양근읍내장의 개시일로 되고 사탄장은 1·6장이 되며, 1900년대 단계에서는 사탄장이 결국 폐지되고 만다.

양근읍내장이 부활하고 양근군내의 중심적인 장시로서 위치를 장악하게 되면, 사탄장과 전곡장은 읍내장에 지나치게 가까워서 시장권이 중복되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과 서울 사이를 오가는 물자의 수송을 위해서도 거점이 되는 두 장시 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장시에 머물기 위해 이동 간에 중요한 시간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된다. 대체로 이상적인 장시 사이의 거리가 20km(50리) 전후라고 볼 때,¹⁰⁾ 사탄장과 읍내장 사이의 거리는 5km, 전곡장과 읍내장 사이의 거리는 12.5km로 지나치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탄장 및 전곡장이 양근읍내장과 공존할 수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위적 개편이었던 자연사적 과정이었던, 이 문제가 조정된 결과가 전곡장의 용두장으로의 대체일 것이다. 용두

10) 이는 이념형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리적·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 한 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가정할 때 장시 사이의 거리가 20km이면 하나의 정에서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도 2시간 반을 걸어서 장에 도달할 수 있다.



청운면 용두리 식민지 시기의 용두장터



청운면 용두리 해방직후 천변의 용두장터



청운면 용두리 해방직후 우시장터



청운면 용두리 현재의 용두장터



청운면 용두리 용두장 장날

장과 양근읍내장 사이의 거리는 현재의 도로로 27.3km, 약간 멀지만 과거의 장꾼들과 소장수, 전문적인 소몰이꾼(채꾼)은 5~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¹¹⁾

일제강점기에 용두장은 옛 44번 국도 삼거리 부근에 있었다. 장이 섰던 장소는 삼거리 홍천 방면으로 현재 우체국이 있는 곳까지 약 100m의 거리변이었다. 해방후에 약 70m 정도 떨어진 천변으로 이설하였는데, 당시 우전은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장터에서 여물리로 가는 다리 건너편에는 소를 잠시 맡겨두는 마방도 한 곳이 있었다.

그러나 1967년 하천이 범람하면서 수해를 입었고, 장터의 이설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원래의 위치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토지매입가격이 많다는 의견을 쫓아서 논의었던 현 장터 약 3,400평을 양평군에서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24평씩 분할하여 50여 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상가는 상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망이 정비되면서 주민들이 양평장이나 홍천장을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용두장은 쇠퇴하여 1990년대에 이르면 명맥조차 잇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임대료 운영되던 상가 또한 매각되었다.

『양평통계연보』에는 1992년을 마지막으로 용두장이 폐지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용두장에 출장하는 상인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였는데, 1996년 상인회를 조직하면서 용두장은 다시 부활하였고 현재도 매 2·7일마다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다. 물론 우시장은 지금은 폐지되고 없다. 상인회는 장터에 상가를 소유한 상인들로 조직된 상가변영회를 근간으로 하여 장을 출입하는 순화상인(장꾼)이 결합하여 조직되었다. 당시 난장을 벌이는 것은 물론, 시장 입구에 5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20~30명의 장꾼, 그리고 소량의 곡식으로 좌판을 벌이는 농민 10여 명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001년 7월 장터에는 그릇, 어물(2명), 이불, 신발, 건어물(2명), 잡화(2명), 과일, 채소, 곡물, 화훼, 음식(2명), 상, 의류(4명)를 취급하는 상인, 그리고 소량의 곡식을 가지고 나온 농민 등 30여 명의 장사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개시일이 2·7일인 용두장은 인근의 덕소(5·10일), 양평(3·8일), 곡수(4·9일), 홍천(1·6일), 횡성(1·6일)과 더불어 비교적 큰 장으로 꼽혔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웃 삼성리에 금광 채굴이 활발했을 때는 유흥가가 형성될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과거 우시장은 현재의 용두1리 개천변에 있었으며, 부근에는 여물리 쪽으로 큰 마방 한 채가 있었다. 그리고 여물리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채의 마방이 더 있었다. 우시장이 한참 흥할 때는 개천변가로 술집도 많았으며, 술집뿐만 아니라 색시집도 많았다. 그래서 색시집에서 밤

11) 이는 다시 홍천장 등 강원도권 장시의 개시일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른 기회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한편 여기에서 적고 있는 거리(km)는 모두 6번 국도가 현재의 4차선으로 확장되기 전의 '구도로' 또는 '신작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장과 장, 그리고 마을과 장 사이를 오가는 장길은 항상 이보다 더 가까운 지름길을 택하기 마련이다.

새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쌀 한 가마니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시장 외의 일반장은 일제강점기에는 현재 용두1리 소재의 우체국이 있는 국도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해방후 천변의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 있는 자리 약 70m 구간으로 옮겼다. 한국전쟁 직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곧 재개되었으며, 이후에는 천변의 시장터가 협소하여 청운면사무소에서 논이 있었던 곳을 매입하여 마련해준 지역으로 시장터를 다시 옮기게 되었다. 이곳으로 옮긴 것은 1968년의 일이다.

용두장에 출입하던 상인들은 군내에서는 양동면 등에서, 홍천군에서는 읍내, 남면 시동리, 서면 굴업리 등에서, 그리고 횡성 일대에서 주로 왔으며, 양평에서도 더러 왔다고 한다.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청운면은 물론 홍천군 서면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밖에도 단월면, 횡성군 서원면을 비롯하여 인근 주민 모두가 다 모여들었으므로 일대의 큰 장 가운데 하나였다. 용두 우시장이 잘 되던 무렵에는 용문 쪽에서도 우전이 섰지만 '지지하여'(부진하여) 장을 세웠다가 철수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70년대에 교통편이 용문 방면으로 집중되면서 용두장의 장세는 기울기 시작하였다.

용두장은 거래액보다는 출입하는 사람의 수로 더 알아주었던 것 같다. 한 주민은 "동대문 밖으로는 규모는 작아도 용두장을 제일로 쳤다. 그때도 용두장보다 양평장이 더 크긴 했지만 용두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이 많은 것을 장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이 한창 성행할 때는 특히 '대목장'인 '선달 대목', '팔월 대목'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목장에 모여든 장사꾼들은 많을 때는 원주, 여주 등지에서 오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100여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용두장에는 말[斗]을 대주던 말감고 1명 외에 '장세 걷으러 다니는 사람' 1명이 따로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면에서 입찰제로 선발했다. 보통 한두 사람이 입찰을 했다고 한다. 말감고는 말로 되고 남는 쌀·콩 또는 약간의 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고, 장세 걷으러 다니는 사람은 일정 금액의 입찰금을 걸어두고 그만큼을 면에 지불하고 남는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싸전은 한 곳에서만 났으며, 말감고를 통해서 곡식을 되어 거래를 하였는데, 주민들은 노전에서 세를 받는데 농간이 많았다면서 "많이 뺏겨먹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터의 청소는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장 근처에 살림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은 알아서 청소하는 식이었다.

한편 백중날에 딱 맞추어 장이 서는 것은 아니었지만, 백중 때가 되면 천변에서 대규모로 백중행사들이 행해졌다. 백중놀이 기간에 대해서는 "오 일간 했다" "일 주일간 놀았다"는 대답이 많았고, "일 주일 이상 놀았던 것 같다"는 주민도 있었는데, 오 일간 놀았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처럼 보였다. 즉, 김을 맬 때 여기는 두 벌을 매고 세 벌은 흠치는데 마지막으로 매고 머슴을 놀리기 위해서 한 장 도막 휴가를 준다. 그때 오 일간 백중을 세운다. 대개 북중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한 장 도막'이란 한 장터에서 장이 한 번 열리고 다음 장이

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일대의 백중장은 서로 겹쳐지지 않게 일정을 짰다고 한다. 백중 때 벌어지는 씨름이나 노름판은 이장 저장 다 다닐 수 있었고, 특히 씨름 결승은 장날에 맞추어진 백중 마지막 날에 했으므로 중복되지 않았다.

이때 씨름대회는 물론 '심지놀이', '씻다', '도리짓고땡', '야바우', '종자웃', '공굴리기', '빙고' 등 온갖 종류의 사행성 오락, '활동사진'(영화) 상영, 줄타기, 마을대항 농악대 경연 등을 하고 놀았다. 농악대는 백중에서 빠지지 않는 오락거리였는데, 잘 치고 잘 노는 것으로 판가름을 했다. 한 주민은 전라도 일대에서는 7월 15일에 머슴들 옷 해주고 돈 주고 하면서 놀게 하지만, 여기서는 음식장사 벌어지고 씨름 같은 것 하면서 노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백중 무렵에 이렇게 놀이판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백중 선다'(또는 '세운다')고 하는데, 백중이 서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으며 줄 타는 사람은 서울에서 '사다가(불러서)' 놀게 하였다. 이들을 '사당패' 또는 '남사당'이라고 불렀다. 용두장의 백중 씨름대회는 양평, 곡수, 서울, 인천 등지에서 전문 씨름꾼들이 참가하였다. '경전씨름꾼'이라고 불리던 서울지역의 전문 씨름선수들이 주로 1등을 차지하였으므로, 인근의 주민이 입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씨름대회 이야기가 나오자 용두리 노인들은 여물리에도 황소를 탄 사람이 있었다면서 화제로 삼았고, 여물리 노인들은 1등이 아니라 2등이었다고 정정하면서 곧바로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즐거워하였다. 우승상품은 황소 한 마리였고, 2등은 광목 한 동을 주었다. 백중장에 모인 많은 인파들은 주막과 같은 형태의 '영업집'에서 백반, 소머리국밥, 개장국, 빈대떡, 막걸리, 소주 등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용두장에는 백중장이 있었다는 주민도 있었고 없었다는 주민도 있었다. 이 행사는 면에서 장세를 걸어서 그 수익금으로 연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두 해 후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초반, 5·16쿠데타 이전까지 행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민들은 백중장은 요즘의 시장번영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성격을 설명하였다. 백중장이 열렸던 장소 근처에 양조장이 있었다.

용두리에서는 일제시대에는 백중장이 없었다는 주민도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백중놀이가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제강점기 용두리에도 백중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 행사는 장세를 걸어서 남은 수익금으로 연 것이었다고 하며, 중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휴전후 한두 해가 지나서 다시 시작되어 1960년 초반까지 행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앞서 용두장과 양근읍내장 사이의 거리가 약간 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약간 먼 거리'는 두고두고 다른 신설시장들이 파고들려는 틈새가 되었다. 전곡장이 사라진 후 지평장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노력 역시 이 틈새를 파고들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해방후 개설되어 결국은 용두장권마저 흡수하게 된 용문장이 장악하게 된 권역 역시 이 틈새로부터 시작

되었다. 자유당 시기에 개설되었다가 곧 사라지고 만 단월장 역시 그 틈새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단월장은 1950년대 중후반에 생겼다고 한다. 『양평통계연보』에서는 1971년부터 1978년 사이에 폐지된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언제 없어진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김성훈(1977)이 신고 있는 1976년 초 시점의 자료에는 양평군내 7개 정기시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1·6일이라는 개시일만을 적었을 뿐 ‘폐시상태’라는 외에 다른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버스가 다니면서 단월장이 없어졌고 용문장이 커지면서 용두장이 쇠퇴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는 단월면사무소 위치에서부터 단월초등학교가 있는 곳 사이에 30개 정도의 점포가 늘어서 있다.

장이 서게 된 경위에 대해 박○재(70세, 부동산 경영)는 “우리가 한창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500~600명 정도 되니까 멀리 가서 장을 보느니 여기에 장을 만들고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하자고 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군에 오일장 인가를 받았고, 용문중고등학교 교장을 하였던 박호○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재 인천에 사는 최윤○가 거들어서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백중을 세워서 밤에 영사기로 돌리는 영화상영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씨름대회, 농악 등 난장을 벌였다고 한다. 이때 서커스, 줄타기 등도 하였는데, 이들은 시장번영회에서 서울에 가서 예약을 하고 불러온 것이다. 장꾼들을 유치하기 위해 장을 연 첫해는 장세도 받지 않았으며, 용두장 등 다른 장에 다니면서 광고를 하였다고 한다.

장이 서던 위치는 보룡리 보산정 터에서부터 단월초등학교 있는 곳까지의 사이이며, 노점의 숫자는 평균 50개 정도, 많을 때는 60~70개로 장차가 세 개씩 들어왔다고 한다. 우시장도 조그맣게 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만○의 이야기에 의하면, 단월장에는 산음리, 석산리, 명성리를 포함하여 단월면 전체에서 다 왔고 비룡리 등 청운면 일부에서도 왔다고 하였다. 또 단월면 덕수리 덕수터마을에서도 단월장이 설 때는 단월면 전체가 단월장으로 갔고 단월장이 없어지고 난 후 용두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산음리에서는 단월장이 설 때도 용두장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단월장의 시장권 및 그 신설·쇠퇴의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룡리는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설점포가 없었는데 단월장이 서게 되면서 점포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단월장 설치 이듬해부터는 장세를 걷기 시작하였는데, 점포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장세를 받지 않고 노점에서만 장세를 받았다고 한다. 이 장세는 원리상으로는 번영회에서 걷는 것이지만, 매해 번영회에서 하는 입찰을 통해 뽑힌 말감고가 일정 금액을 번영회에 납부하고 말세와 장세를 거두어 자신의 수입을 삼았으므로, 실제로 거두러 다니는 사람은 말감고인 셈이었다. 말세란 말감고가 쌀을 되어주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는데, 말감고를 두어 되게 하는 이유는 곡식을 사고 팔 때 공평하게 가격을 매기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장을 처음 세울 때뿐 아니라 단월장이 활기있게 열리던 동안에는 백중 무렵에 백중놀이가 “밤낮없이 5일 동안 열렸다”고 한다. 역시 ‘백중 선다’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배 중의적삼 입은 놈들이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자고, 농악대, 씨름꾼, 야바위꾼, 노름꾼, 건달들은 다 왔다’고 한다. 백중장 주관은 시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였으며, 백중장이 서게 되면 상인들에게 찬조금을 걷고, 그 돈으로 씨름 일등한 사람에게 송아지나 광목 같은 것들을 주었다. 백중장을 하게 되면 다른 장에 광고를 부치고 다녔다고 한다.

3) 곡수장과 양동장, 그리고 여주권의 장시들

이 지역의 양평군내 장시로는 조선 후기부터 4·9일과 3·8일로 개시일을 지키고 있던 곡수장과 양동장,¹²⁾ 해방후 개설되어 짧은 기간에 폐지와 복설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개군장 등이 있었는데, 이 중 곡수장과 개군장은 폐지되었다. 이 지역과 관계가 있는 인근의 장시로는 여주의 이포장과 여주장, 원주의 문막장, 원주장 등이 있다.

개군면의 경우 곡수장과 양평장 외에 이포장에 자주 출입하였고, 아주 드물게 여주로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개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개군면 구미리의 주민들은 이포장에도 가고 양평장에도 가는데, 이포장에서 살 것이 있고 양평장에서 살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 가령 석유는 이포에서 사야 했는데, 나중에는 유류취급면허를 하자 포리에 사는 모씨가 받아와서 석유를 취급했으므로 하자포리에서 사다 쓰게 되었다고 한다. 석유의 용도는 주로 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소금이나 북어, 호미 같은 것을 사려면 양평으로 갔다고 한다. 양평에는 석유가 없었고, 이포에는 대장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포의 우시장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생겼다고 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포장은 ‘순 먹거리 장사’였으며 반찬거리를 산다든가 하는 것이 주요한 출장의 목적이 되었다.

개군면 상자포리에서는 현재 양평장과 이포장을 다니지만, 예전에는 이포장과 곡수장을 많이 다녔다고 한다. 이외에 인근의 장시로는 여주장(5·10일)과 최근에 들어선 대신장(4·9일)이 있다. 상자포리에서 이포(천양)까지는 10리, 곡수까지 20리, 양평까지도 20리, 여주까지는 40리길이 된다. 상자포리에서 이포장은 천양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이포장에도 1960년대부터는 우시장이 생겼고 거리도 곡수보다는 이포가 더 가까웠지만, 상·하자포리 주민들은 이포나 양평, 여주보다는 곡수 우시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를 사기 위해서나 팔기 위해서나 모두 곡수장을 이용했다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팔 때는 곡수장을 가고 살 때는 시세를 보아 싼 곳으로 간다는 대답도 있었다. 또 송아지를 살 때는 곡수장으로 가며, 소가 강원도에서 오니까 곡수장이 소가 좋고, 소값이 싸

12) 자료에는 일제강점기에 양동장이 폐지된 것으로 나오지만 주민들은 내내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장의 세력이 미미하여 통제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제면 곡수리 옛 곡수장터

기도 하지만 값 차이가 나지 않아도 곡수장 소가 튼튼하고 좋으니까 산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었다(소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같은 장 제2절의 우상관련 내용 참조).

도보로 이동하던 시절 양동면의 경우, 양동장 외에 여주장, 문막장, 원주장 등에 출입하였다. 계정리의 가래골마을이나 담안마을에서는 보통 양동장을 많이 이용하였지만, 더러는 양동에 없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여주나 원주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삼산리 금곡마을에서는 양동장 외에는 여주장(50리)이나 문막장(30리)을 이용하였으며, 중앙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주로 원주장(50리)과 용문장(40리)을 출입하였다고 한다. 양동의 우시장이 없어진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렇지만 양동의 우시장이 있을 때도 인근의 다른 우시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양동의 우시장이 없어진 다음에는 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물론 같은 양동면에서도 삼각산과 수리봉 북서쪽의 고송리 지역은 양동장으로 오지 않고 예로부터 용두장과 단월장, 용문장 등 단월·용문·청운면 일대의 장시를 출입해왔다.

양동장은 원래 단석리의 장대마을에 있던 것이 석곡리 석실(섬실)마을로 옮겨졌고, 중앙선이 개통(1940. 4. 1)된 후 쌍학리에 있는 현재의 장터로 다시 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동면 삼산리 금곡마을에 거주하는 이인○(73세)가 자신이 어렸을 때에 양동장이 장대에서 섬실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는 1930년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곡수장이 없어진 시기 역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양평통계연보』에는 1978년 이후에 없어진 것으로 나오지만, 수곡리에 사는 권○○(50세)는 자신이 중학교 1, 2학년 때이던 1967년경에는 없어졌다고 하면서 당시 깡패들이나 외지사람들의 횡포가 심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장이 쇠퇴하면서 정확히 없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양동면 주민들은 주로 승용차로 장을 출입하는데, 승용차로도 45~50분이 소요되는

양평장에 출입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용문장(차로 20분), 여주장(30분), 원주장(25분), 횡성장(70리, 30분)을 주로 드나든다고 한다.

3. 상인의 여러 모습

1) 장꾼과 행상

각지의 정기시장을 돌아다니는 '장꾼' 들은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장들을 돌아다니다가 여인숙에서 묵는 일이 많았다. 10년 전부터 읍내에서 대○여관을 경영하는 한 주민은 그 전에는 역시 읍내에서 여인숙을 경영했는데, 13년 전만 해도 장꾼들이 여인숙에서 묵었다고 하였다. 보통 장이 서기 전날 저녁에 와서 숙박을 하고 하룻밤 잔 뒤 다음날 새벽에 장으로 나갔다. 당시는 '장차' 라고 부르는 트럭에 짐을 실어 보내고 사람은 따로 이동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하는데, 장차로 짐만 실어 보내는 경우 여인숙 등을 찾기보다는 집에 가서 자는 형태가 좀더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15년 전부터 읍내에서 여인숙을 경영하다 현재는 신○장이라는 여관을 경영하는 주민 역시 여인숙 개업 당시에는 '장돌뱅이' 들이 많이 숙박했다고 하였다. 이 할머니에 따르면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 장꾼들은 기차를 이용해서 한짐을 지고 장에 왔다가 여관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새벽에 장에 나섰다고 한다. 이들의 짐은 주로 야채나 아동복, 생활필수품, 어물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기시장을 도는 장꾼 외에 짐을 지고 마을을 도는 행상으로는 새우젓장수, 빗장수, 어리장수, 방물장수 또는 광우리장수(광주리장수), 옹기장수, 참외장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새우젓장수' 는 해방 무렵까지는 군내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 30~40년 전부터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들 새우젓장수는 새우젓독이 아닌 나무로 만든 새우젓통을 지고 돌아다녔다.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에도 새우젓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양평에 큰 새우젓도가 두 집 있어서 그곳에서 구입하여 행상을 다녔다고 한다.

주민들은 '빗장수' 가 주로 전라도에서 많이 온 것으로 기억했다. 전라도에 대나무가 많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들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참빗, '굴레빗', '얼개빗'(얼레빗) 등을 만들어주었다. 쪼갠 대나무는 얇고 길이가 이쑤시개 정도인데, 그것을 엮어서 빗을 만들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들은 아마 고향에서 봄에 나오면 가을이나 되어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한동네에서 2~3일 정도 머물렀다. 잠은 마을의 연자방앗간 등에서 자며,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마을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밥은 해먹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며, 자기네 밭 담은 대로 다니다가 추워지면 고향으로 향했다. 내

외가 다니거나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다니며 일 년에 한 번 정도씩 마을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데, 빗장수들끼리 한마을에 중복되어 오지 않도록 이들 나름대로 마을들을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보통 빗은 돈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았으며 수명은 1년 이상이었다고 한다.

‘어리장수’는 ‘어리’라고 불리는 철사로 뜬 망을 만들어 등에 지고 “어~리”라고 외치며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어리에는 골무, 실, 단추, 물감, 빗, 성냥, 빨랫비누, 세숫비누 등을 넣어서 다니며, 주로 남자가 혼자 다니지만 가끔씩 내외가 함께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빗장수와 달리 며칠씩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마을에서 자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마을 연자방앗간 등에서 자고 가는 수도 있었다. 강상면 화양리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다녔다고 한다. 별 게 다 들어있는 어리를 통째로 매고, 한 달 만에 오기도 하고 잦을 때는 한 달에 몇 번도 왔다. 한 마을에는 보통 한 사람의 어리장수만 왔지만 자세한 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다. 어리장수가 파는 물건은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해방후에는 사라졌다고 한다.

해방이 되고 어리장수가 없어진 뒤로 한국전쟁 전까지는 ‘방물장수’ 또는 ‘광우리장수’(광주리장수)가 많이 다녔다. 어리장수와 비슷하지만 아줌마들이 광주리를 이고 다니는 점이 다른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북어, 미역 따위 건어물과 곱성냥, 빗, 분 등 기타 잡화를 떼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파는데, 어리장사에 비하면 파는 물건이 음식물 위주라는 점도 차이라면 차이였다.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아줌마가 팔러다니는 것이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주로 물건을 떼는 곳은 양평장이었다. 어리장수와 마찬가지로 주로 겨울에 돌아다녔다고 한다.

옹기장수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고무, 양은 등이 나오면서 옹기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사라졌다. 이들은 동이나 ‘자박지’처럼 작은 옹기들을 옹기점에서 떼어다가 지게에 짊어지고 다녔으며, 큰 옹기의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옹기점에 가서 구입했다고 한다. 보통 옹기장수는 옹기점 부근에 사는 사람이 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화양2리 연양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돈이 아닌 곡식을 받고 파는 행상이 있었느냐고 묻자, 참외장수 정도가 유일하게 밀, 보리쌀 등의 곡식을 받고 팔았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있기는 했지만 해방 이후에 많았으며, 화양1리에서 참외재배를 여러 집에서 했기 때문에 화양1리 사람들이 연양을 비롯한 교평리 정도에까지 참외를 팔러 다녔다는 것이다. 남자는 지게에 한짐 지고 참외를 팔러 다니며, 여자는 광주리에 이고 다녔다고 한다.

2) 선운업

짐을 실어 나르는 강배[江船] 중 한 명이 타는 배를 ‘외손거루’ 또는 ‘외거루’라고 하고, 둘이 타는 것은 ‘두손거루’나 ‘두거루’ 또는 그냥 ‘큰배’라고 하였다. 짐을 더 실으려면 두

척을 나란히 붙여서 짐을 싣는데, 그러면 거의 세 대 묶을 실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쌍둥배’ 또는 ‘쌍거루’라고 한다. 외손거루는 ‘쪼꼬리’를 4,000단 정도 싣는다. 큰배는 지게로 장작을 가져다 놓으면 셋이나 넷이 하루 종일을 실어야 다 실을 정도로 많이 싣었다. 외손거루의 곱도 넘게 싣고 외손거루 두 대를 붙인 쌍거루보다도 많이 싣는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뱃사람을 고용하는데, 보통 1년 계약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하던 사람과 계속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뱃사람은 보통 한 사람을 정해놓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계속해서 같이 다닌다. 큰배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 배를 몰지 않고 뱃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배[江船]에는 추가로 지붕과 벽을 만든 ‘뚝’이 있어서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었으며, 술을 거는 곳이 돛대 옆에 있어서 살림집처럼 술 3개를 걸어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강배를 타고 밥을 해먹어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경우, 장작불로 밥을 해서 노릇노릇하게 되면 ‘배밥’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른다고들 하였다.

두 사람이 타는 큰배는 앞에 타는 사람을 ‘사공’, 뒤에 타는 사람을 ‘밥줄’ 또는 ‘화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밥줄이란 뒤에 타는 사람이 밥을 짓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큰배에 세 명이 승선하는 경우, 이들은 배의 앞에서 물길과 배의 방향을 보는 사람, 가운데에서 물을 푸고 밥을 하는 사람, 배의 뒤에서 키를 트는 사람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선장, 화장(밥줄), 사공으로 부른다. 두 사람이 타는 배를 운행할 때는 앞에 선 사공이 밥줄에게 배의 방향을 지시하며, 세 사람이 배를 탈 경우 배의 앞에 타는 사람이 ‘선장’이 되고 선장이 영을 내리면 뒤에 있는 사공이 이에 맞추어 배의 방향을 틀게 된다. 배 가운데 타는 사람은 가장 말직으로 이런저런 허드렛일을 하게 된다. 사공(또는 선장)이 밥줄(또는 사공)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는, “마고쳐” 하면 곧장 가는 것이고, “어저” 또는 “오저로” 하면 오른쪽으로, “저로저로” 또는 “마마” 하면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라고 한다. 또는 “우 저어라” “좌 저어라”고 영을 내리기도 한다.

이들 승선원간의 관계에 대해 한 주민은 “보통 앞에 서는 사람이 잘 봐야 된다고 하지만, 뒤에 타는 사람이 더 기술자다. 몇 번 다니다 보면 물길을 알게 되는데, 익숙한 사람이 뒤에서 알아서 잘 하면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해도 배가 잘 가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도 하였다. 이 주민은 사공과 밥줄은 어느 한 사람이 뱃사람이라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위계적인 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음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거듭 묻자 다른 한 주민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 위에서 밥을 해먹게 되는데, 식사가 끝나자 선장이 밥을 하는 이에게 ‘거 숭늉 좀 팔팔 끓이지 못하냐’고 야단을 쳤다. 심술이 난 밥을 하는 이가 숭늉을 끓인 뒤 강물에 담가놓았던 차가운 대접에 이 숭늉을 덜어 주었다. 숭늉을 받아든 선장은 대접이 차가웠기 때문에 뜨거운 숭늉인 줄 모르고 냉수 마시듯 이를 들이켰는데,

목구멍으로 뜨거운 숨이 왈칵 들어가자 그만 눈물이 찔끔 나오고 말았다. 이를 본 밥하는 이가 능청을 떨며 '선장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장은 고통스러워도 그런 내색을 못하고 '아, 집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얼버무렸다고 한다.

한여울마을에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중앙선 철도(1938년에 들어옴)를 놓은 다음에도 많았고 한국전쟁 전까지도 거의 그대로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차가 생기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당시 나무가 귀했으므로, 뿔나무 한 짐이면 술 한 되나 쌀 모판 한 되(모판되는 닷 되면 한 말이 됨)씩은 받을 수 있었다.

뱃일을 쉬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목상에게 잘 보여야 했던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¹³⁾ 일을 못 받으면 어떤 사람은 보름도 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뱃일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입이 나은지를 묻자 대답은 단호하게 농사보다는 배가 낫다는 것이었다. 뱃일은 바로 현금을 만지고 '무곡'(또는 '모곡')을 하고 나면 한 번에 쌀을 20가마씩 주니까, 배가 낫다는 이야기였다.

양평관내에서 강을 따라 내려가는 짐배는 주로 장작을 묶어서 실어날랐고, 목적지는 마포나 뚝섬이었다. 나무는 산판에서 나오는 것이 서울로 가는데, 뚝섬의 나무장사꾼들이 사서 서울에 뿔나무를 댔다. 당시는 뱃사람이나 서울 구경을 하지 다른 사람은 서울 구경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마포에 장작을 부리러 간 배는 물론, 뚝섬에 장작을 내린 배도 마포까지 가서 소금이나 새우젓을 싣고 올라왔다. 그 배들이 영월까지 거슬러올라가면서 새우젓과 소금을 팔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조기를 싣고 가기도 한다. 한여울 사람들은 이것을 '무역한다'고 하였다. 상류로 거슬러올라가면 새우젓을 주고 쌀이나 콩, 팥, 배 등으로 바꾸어서 내려왔다. 양서면 양수리에 거주하는 최태현(89세)은 이런 배를 '바꿈배'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바람부는 날은 돛을 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에서 끌고, 쌀하고도 바꾸고 콩하고도 바꾸고, 그래서 바꿈배라고 불렀으며, 같은 배가 일용품도 싣고 소금도 싣고 올라왔으며, 올라갔던 배가 콩하고 쌀하고를 싣고 내려왔다는 것이다. 양서면 청계리에 사는 한 주민은 "소금배가 들어와서 풀고 가면 이 일대의 사람들이 콩, 팥 등을 소에 싣고 가지고 가서 소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 마포에서 나는 새우젓배, 조기젓배가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금배는 소금을 풀고 나서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소금이 중요한 교역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누 남편 얼굴 보느니 소금장수 얼굴 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장작과 소금·새우젓·조기, 그리고 곡식을 단기간에 서로 바꾸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13) 이는 정작 목상일을 했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목상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목상의 사례를 볼 것.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곡식만을 무역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에서는 이를 '무곡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일 년에 한 번 모아서 내려오는데, 쌀뿐만 아니라 팔이나 콩과 같은 잡곡도 가져오고, 때로는 잡곡이 주가 될 때도 있었다. 무곡배는 봄장마에 영월까지 올라가서 영월에 배를 대면 물건을 싣으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내다가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한 척 가득 곡식을 모아서 싣고 오면 그 배가 지금 15톤 트럭보다 많이 싣는데, 뱃사람에게 주는 '뱃값'만 쌀 20가마 정도가 되었다. 이 곡식들 역시 서울로 가는데, 이 마을에서 곡식을 운반하는 뱃사람들은 남한강을 따라 서울로 내려가다가 자기 몫의 쌀을 마을에 내려놓고 나머지 구간을 간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곡식무역만 하는 장사꾼이 따로 있었고, 이들은 장작을 실어나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모곡장사를 하는 배는 한번에 많은 짐을 실어야 하는만큼 큰배만 가게 된다.

3) 곡물상

양평읍내의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양평읍내의 곡물유통은 서너 단계를 거치는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상인'(배상인) - '중상'(또는 중간상인) - 농민으로 연결되며, 하천을 통해 대규모로 곡식을 운반하는 경우 대상인과 중간상인 사이에 배상인이 개입하고, 오지마을인 경우 중상과 농민 사이에 소상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대상인들은 양평읍내의 곡물시장에서 싸전을 열고 있는 상인들을 가리킨다. 중상은 농촌에서 곡물을 수집해서 대상인에게 넘기는 수집상에 해당한다. 배상인은 그 자체가 중상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상이 수집해온 곡물의 운반역할에만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강상면의 세월리, 대석리, 여주군 금사면의 전북리 등에서 중간상인들이 동네에서 수집해온 곡물은, 이를 전달하는 배상인이 양평까지 배로 운반해서 대상인들에게 넘기는 일을 했었다. 트럭운송이 활발해진 후에는 배상인 또는 중상이 오후 세시쯤까지 대상인에게 곡물을 넘기고, 대상인에게 집하된 곡물은 주로 트럭을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유통방식이 정립되었다. 서울로의 운반은 양평관내의 운수업자들이 맡았다. 양평쌀이 질이 좋았기 때문에 청량리 시장보다는 동대문시장으로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 양평 곡물시장의 대상인은 서너 명이 있다가, 1970년 무렵에는 양평 관내에 15인의 대상인이 있었다.

대상인들이 중상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보면, 우선 대상인은 아침 일찍 오늘은 쌀 한 말이 얼마, 콩 한 말이 얼마라고 가게에 써서 붙여놓는다. 중상들은 대상인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보다 싸게 곡물을 건어서 배상인에게 넘겨 운반케 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상인에게 가지고 간다. 보통 한 대상인에게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중간상인들이 정해져 있고, 중간상인은 거의 각자의 구역을 정하다시피 하여 곡식을 수집했다고 한다. 대상인들 사이에서도 자금이 많으면 거래하는 중간상인이 많고 곡물을 수집하는 범위가 넓기 마련이었다.

대상과 중간상인 사이의 선수금 지급은 대상이 장부에 적으면 그만이며 달리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당시 여주의 곡물도 양평으로 수집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상에게 선수금을 주는 액수는 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 그때그때 바로 환수하기 때문에 선수금에 이자를 붙이는 일도 없었다. 대상은 중상에게 선수금을 주고 중상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고시한 가격에 따라 쌀로 받게 된다. 당시만 해도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고 쌀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대상들은 선수금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중상들이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지역을 갖는 방식은 두 유형이 있었다. 가령 당시 개군과 곡수의 쌀이 가장 좋았는데, 수곡1·2·3리의 쌀은 누가 독점을 하고 어디 쌀은 누가 독점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첫번째 유형이다. 한편, 당시에는 모두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던 시절이었으므로 마을의 정미소에서는 누가 언제 도장을 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중간상인이 정미소하고 얘기가 되면 도정하는 자리에서 바로 중간상인이 수집해오게 되는 수도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이다.

소위 '뒷박장사'라고 해서 농간을 부리는 것은 주로 중간상인들이었는데, 뒷박질을 잘하면 장사를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고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양평장 관계자의 이야기였다. 가령 곡식을 팔 때는 막대기로 짊고 살 때는 손으로 짊는데, 팔 때는 막대기를 잡고 밀면서 오른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으로 말의 아래 부분을 살짝 치면 곡식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더 짊이고, 살 때는 손바닥을 살짝 오므려 밀면서 덜 짊음으로써 이득을 남긴다는 것이다. 당시 말질을 잘하면 한 가마에 세 되도 남겼다고 한다.

양평에서도 오지에 있는 마을 같으면 중상 밑의 소상들이 일차적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들은 곡식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멸치나 명태, 미역, 포 따위 부식을 이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로 주로 여성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광주리장사를 하면서 곡물수집의 소상 노릇을 겸하여 곡식을 수집해서 중상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팔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다음에 올 때 뭐 좀 사가지고 오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 그것을 사다가 마을로 가지고 가 주문한 사람에게 넘기는 일도 하였다.

말감고는 곡물시장 안에서 말로 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말, 막대기, 명석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역에서 권위 있고 경우가 밝고 일을 오래 하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말감고를 맡았으며, 양평읍내장의 경우 곡물시장의 말감고가 장세를 건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한 말이 되겠지 하고 쌀을 가져오면 많거나 적거나 하게 되는데, 한 말을 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말감고가 먹었다고 한다. 또 한 말에 모자라면 7홉이다 8홉이다 하는 식으로 말감고가 정해주는데, 2홉 미만은 전부 말감고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쟁적으로 서로 하려고 덤벼들거나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줄곧 맡아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단계적이고 공식적인 유통경로 외에도 편법으로 유통을 시키는 방식이 있기 마련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돼지 창자처럼 몸에 쌀을 감아가지고' 서울에 가지고 갔는데, 당시 장안으로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몰래 팔아야 했다. 그러다가 순사에게 들켜서 곡식인 줄 알고 이쭤마 찢을 칼로 잘랐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붙잡히면 벌금을 물었는데, 돈을 주면 그냥 놓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보통 청량리나 경동시장의 무곡상회에 가서 몰래 가져간 쌀을 팔려놓았는데, 옥천면 신북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여기서 150원 받으면 서울 가면 300원 정도 받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했고, 직접 곡식장사를 했다는 다른 주민은 "여기서 만 원이면 서울 가서 만 이천 원 정도나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상면 송학리 송산마을에서 양평장을 출입하려면, 곡식을 사가는 무곡상 아주머니들이 나루터의 양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화양리 연양마을의 주민들도 이들에 대해 기억이 생생하였다. 해방되고 나서 1970년경까지 장날이면 5, 6명의 '서울아쭤마'들이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양평으로 내려와서 나루터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강건너 양평읍내 쪽에 많았는데, 장을 보려고 나선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나루를 건너면 기다리고 있다가 들고 간 곡식을 '빼앗을 듯이 달려들어서' 사가지고 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곡식을 돈으로 바꿔 양평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격을 알고 있었고, 읍내 곡물시장에 가서 판다고 가격을 더 쳐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통 이 중간상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보통 연양마을에서는 장날이면 10여 명이 나룻배를 타고 양평으로 넘어가서 곡식을 팔았다고 한다.

강하면 성덕리에 거주하는 양남순에 따르면, 성덕리 주민들은 양평장을 보러다녀서 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꼭 양평으로 갔으며 전수1리에서 건너는 다루레기나루를 건넜는데, 양평으로 가는 중간에 곡식을 매매하는 것을 '뜯다'고 말했다고 한다. 곧, 장에 가는 길에 전수2리를 비롯한 3, 4개소에서 뜨고는, 그 돈으로 애들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오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곡식을 떠가는 것은 양평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단월면 산음리에서는 용문장에 다녔는데, 시장에 콩 팔을 가지고 가면 버스에 여자들이 올라와서 사가기 때문에 장까지 곡식을 들고 갈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들을 '무곡장수'라고 불렀으며, 주민들은 콩·팥을 팔아서 좁쌀이나 보리쌀을 사왔다고 한다.

중앙선을 이용하여 서울과 양평을 오가는 무곡상의 경우 차 시간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매 집을 시작해서 오전까지만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때 읍내에는 지게로 '장집'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양평역까지 곡물을 운반해주었다고 한다. 장집 지는 사람은 '양평 사람'이지만 읍내사람은 아니고 '시골사람'이 장날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에도 이렇게 편법으로 곡식을 유통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양평읍내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들을 '망우리아쭤마'라고 불렀다고 한다. 대상인에게 가서 직접 질

이 좋은 쌀을 사서 서울로 가지고 갔으며, 쌀을 12분도로 깎아서 서울의 유명한 밥집에 넘기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통일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끼바레’(秋晴)만을 전문으로 사서 갔으며, 매일같이 10명 정도의 망우리아줌마들이 내려와서 쌀을 사갔다고 한다. 이들을 통칭하는 이름에 ‘망우리’라는 지명이 붙게 된 것은, 당시에 쌀을 일반인이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해서 청량리역에 내리면 단속에 걸리니까, 망우역에 내려서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가 밥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장터 입구와 강가에서만 무곡장수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월면 산음리 고북마을에 사는 한 주민에 따르면, 마을 입구의 가갯집에서 콩·팥을 사다가 서울에 내다 파는 무곡장사를 했었다고 한다. 그는 언제든지 값을 더 쳐주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무곡장수들 사이에 따로 정해진 구역은 없다고 하였으며, 무곡장사가 끝난 지는 한 20년 되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버스가 다닌 뒤로는 없어진 셈이라하며, 장에 가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저마다 장으로 가지고 가지 (산음리의) 무곡장수한테 넘길 일이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개군면 상자포리에서도 곡물장사를 하는 주민이 있었는데, 이 주민은 이포장에서 쌀을 사다가 자기 집에서도 팔고 서울에서 되팔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이포장에서 수집된 쌀을 서울에 가져다가 파는 일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동네 주민이 구입하기를 원하면 지역에서 되팔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자포리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 곡물장사의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4) 목 상

원래 서종면이 고향인 정태○는 24세이던 1957년 양서면 징동리 식곡 골짜기에서 산판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목상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양평군 전역에서 목상활동을 하여 유명한 목상이 되었고, 현재는 양평·여주 일대에서 영지버섯 재배 등을 하고 있다. 영지버섯 재배 역시 영지의 숙주가 되는 원목을 벌채해야 하므로, 그와 산판의 인연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해방 이후 양평에서의 목상 활동에 대해 정리해본다.

산판은 해당 산림의 성장정도에 따라서 간벌과 개벌로 나누어진다. 지역에 따라서 그 산판에 나무가 덜 자랐으면 간벌로 솜아내는데, 한 번 완전히 베어낸 후 20년 정도 있으면 간벌기가 된다. 간벌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다시 완전히 베어내는데, 이를 개벌이라고 한다. 시기적으로 산판일이 제일 많았을 때는 1965~1966년경이었는데, 정부에서 조림을 하기 위해 곳곳에서 벌채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공유림에서 20년의 생장기간을 두고 베어낼 때가 되어 벌채하는 것을 벌기령벌채(伐期齡伐採)라고 한다. 양평에서 컸던 산판으로는 용문면 마룡리, 단월면 산음리와 석산리, 청운면 다대리, 양동면의 몇 개소 등이 있었다.

국공유림인 경우 산판을 벌이기로 계약할 때 사전에 매목(賣木)의 치수를 측량해 놓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양이 나온다고 정해놓고 그 예정대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간벌인 경우

벌채할 나무에 도장을 찍어놓고 그것만 베어가게 한다. 도장을 찍지 않은 나무가 쓰러진 경우를 '손상목'이라고 하는데, 손상목이 나면 매목계약조건의 두 배 가량을 물어주고 손상목을 사야 한다. 가령 도장 찍은 나무를 10원씩 주고 샀으면 손상목에 대해서는 20원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상목이 전체 벌채량의 5% 정도면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10%가 넘으면 손상목 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

사유림에서 산판을 벌이는 경우, 산림의 소유주와 계약조건, 계약기간, 생산물 종류, 수종에 따른 용도 따위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조건으로는 벌채하고 조림해주고 일정면적당 얼마씩 지불한다는 내용을 적게 된다. 간벌인 경우는 면적이 아니라 벌채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유림의 벌채는 보통 산주들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므로 군의 산림당국에서 간벌 또는 개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공유림의 경우에서처럼 40년생이 되면 개벌이 가능해진다. 개벌의 경우 면적으로 계산하고 간벌의 경우 벌채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조건을 정하면 손상목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산판일은 여름(4월말~9월초)에는 없다. 나무의 생장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공유림이나 사유림이 마찬가지이다. 산판일은 빨리 끝날수록 유리하므로 목상들은 가능한 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 산림의 규모에 달렸지만 보통 하나의 산판은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에 일을 끝낸다. 큰 것이 아니면 산판의 규모는 5정(15,000평)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데, 나무가 굵으면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는 면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한다.

국공유림의 경우 반출기간을 정해주는데, 미리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반출기간이 지나면 베어낸 목재도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반출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을 때는 기상증명을 떼어서 연기신청을 내야 한다. 반출기간 중에 비가 온 날이 며칠간이므로 그 일수만큼 반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반면, 사유림은 반출기간이 아닌 벌채기간을 정해준다. 즉 벌채기간 내에 베어내기만 하면 반출은 얼마가 걸리든 상관이 없는 셈이다.

벌목작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므로, 정태○가 아는 한에서는 산판에서의 벌목 일에 마을주민을 쓰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최근 몇 년 간은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산판허가를 내기보다는 영림서에서 베어놓고 목재를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산림에 길을 내고 바로 차로 운반하게 되었지만, 포크레인이 없을 때는 도르레를 걸고 철선을 매어서 목재를 운반했다. 이를 '철선운반'이라고 하며 15~20년 전 까지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목재를 반출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나무를 사람이 지고 단거리 운반을 하는 경우 힘이 세고 요령이 좋은 사람은 100kg까지도 진다고 한다. 정태○의 경우 철선운반을 길게 한 것은 한 3km까지도 해보았으며, 사람이 목재를 지는 것은 서종면에서 200kg(300근)까지 지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철선운반을 하는 방법을 보면, 우선 산의 높은 곳에서부터 산을 타고 내려오며 도르레를

설치하고 철선을 매서 연결한 다음 가장 아래에는 타이어 따위를 받쳐 놓는다. 산에서 벌채한 목재에 고리를 꿰고 이를 철선에 걸어 밑으로 내려 보내면 철선을 타고 내려온 목재들이 타이어에 와서 부딪히고, 부딪히는 충격으로 고리가 풀어지면서 타이어 밑에 싸이게 된다. 커다란 목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장 주변은 몹시 위험하다. 한번은 타이어에 부딪혀 풀린 목재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철선을 타고 내려온 목재가 적재된 목재에 부딪혀서 앞으로 튕겨나간 적이 있었다. 이때 튕겨나간 목재가 50m쯤 날아가서 작업중이던 인부를 쳤고, 날아온 목재에 맞은 인부는 현장에서 즉사하였다고 한다.

1957년에 양서면 징동리 식곡 골짜기에서 산판을 벌였을 때는 대심리 한여울까지 GMC 트럭으로 운반하고 한여울에서 뗏목을 짜서 뚝섬까지 운반했다고 한다. 당시 국수역까지 트럭으로 운반하고 기차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뗏목을 짜서 뚝섬이나 마포로 가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목상 거래는 원목조합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에는 마포와 왕십리에 원목조합이 있어서 각기 마포나무와 뚝섬나무에 대해서는 목재들의 거래를 중개했다고 한다. 이 경우 목재들은 조합 사무실로 일단 갔다가 제재소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뚝섬에서 바로 흥정이 되면 조합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제재소로 가는 경우도 있다. 원목조합은 나무장 주인들과 중간상들이 하는 것인데, 강원도 등에서 큰 산판이 나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나무로 받는 경우도 있다. 원목조합은 통합되어 청량리에 있다가 현재는 망우리로 갔다.

산판에서 나는 수종별로는, 제재소 용재는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을, 화목으로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솔가지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리기다소나무는 화목용으로 많이 심었는데 현재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으며, 참나무는 요즘은 표고목, 영지목으로 많이 사용한다. 숯을 만들기도 했지만 산업적으로 보자면 현재는 그 수요가 많지 않다. 도농삼거리 삼영화학(원진레이온)에서 나일론실을 숯으로 빼냈는데 공장이 망한 후에 별다른 큰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5) 어물상

양평읍내장에서 어물상을 경영했던 이○득은 속초의 현지 상인에게 구전을 주고 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양평으로 가지고 와서 팔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싼 가격에 어물을 거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물유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선은 어업조합의 어판장 경매에서만 거래되므로 현지의 거래인을 통해 물건을 떼어와야 한다. 이○득은 속초에 있는 금성상회와 구매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판장 경매에서 물건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3부의 구전(수수료)을 주었다. 건어물의 경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입하는데, 역시 양평에서는 현지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구매인을 통해 구입하고 4부의 구

전을 주었다. 현지의 구매인들은 속초 끝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누구네 집에 손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초1구 아무개가 미역 얼마, 북어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어느 구매인이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특정한 외지의 구매인이 어떤 물건을 원하고 있고 마침 알맞은 물건이 나올 때가 되었다 하면 외지의 구매인인 해당 어물상에게 연락을 해서 사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통은 구매인과 같이 그 집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외지 구매인이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후 시세를 보아서 다시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 왔던 물건을 사도록 현지 구매인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외지 구매인이 직접 가지 않고 그 물건을 얼마 주고 사서 화물로 보내라고 주문을 내는 전화연락만으로 물건을 사게 된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일수록 유통마진이 컸으므로, 서울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도 직접 속초 등 현지어항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 일이 있었다. 속초에 직접 오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4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고 그때마다 구전으로 유통마진이 붙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동대문시장보다도 양평 물건이 더 싸 수 있었고, 이렇게 현지 구매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트고 있는 어물상회가 양평에 있으면 양평 사람만 아니라 타군 사람들까지도 양평에 와서 물건을 사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선의 경우 속초에서 버스편으로 물건을 사오기도 했다. 전에는 새벽 4시 25분발이 속초를 떠나는 첫 차편이었는데, 그 차가 오전 10시 35분이나 40분이면 양평에 도착하였다. 1시가 넘어 도착하는 물건은 그날 중으로 팔 수 없었지만 그 전에 도착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버스편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도착하는 물건이 매일 10박스가 넘었다. 소위 '도부장사'들도 이렇게 도착하는 물건들을 받아 들고 지역에서 장사에 나섰다.

일단 속초에서 양평으로 도착한 물건은 혹시 하자가 있더라도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양평에서 속초로 떠나는 막차가 오전 10시 30~40분경이므로 첫차로 보낸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받아들면 그날 중으로는 속초까지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는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는 하자 있는 물건을 보내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현지 구매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6) 우 상

현재 양평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한 주민은 정육점 경영 외에 직접 소 거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흥천 → 춘천 → 양평 → 장호원 → 휴식일의 순으로 우시장을 순회한다. 그의 경우도축은 횡성이나 퇴계원에서 하고 있다. 이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습관상' 횡성으로

간다고 한다. 양평장에서 소를 사면 자신의 차를 이용해 곧바로 횡성으로 가서 도축을 하고, 단골들만을 대상으로 이 고기를 판매한다.

그로부터는 소를 부르는 이름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섬보'(또는 '삼보')는 세 살짜리 소로 젖니가 2개 있는 것을 말한다. '채보'는 네 살짜리로 섬보보다 이가 하나 더 빠진 소를 말한다. 그 이상의 대여섯 살 된 소는 그냥 '늙은이' 라고 부른다.

양수시장에서 장의업을 하고 있는 박○근(62세)은 10살을 갓 넘긴 무렵부터 소를 끌고 동대문 송인동 우시장을 다녔다. 당시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송인동이 당시 버스종점이었기 때문에 갈 때는 소를 끌고 걸어갔다가 올 때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했다. 당시 소를 끌어서 주면 품값이 좁쌀 1되 정도였다고 한다. 한 마리를 끌고 갈 때도 있었고 두 마리를 끌고 갈 때도 있었지만 품값은 마찬가지였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며 다니는데, 밤에 끌고 가다보면 졸다가 전주를 들이받기도 하고 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통에 혼비백산하여 도랑에 빠지는 일도 있었으며, 어렸을 때 마장동이나 동대문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꺾팔이들이 은근히 협박을 하고 괴롭히는 통에 몹시 무서웠다면서 고생담을 이야기하였다. 소를 걸러서 갈 때는 '소신'을 직접 삼아 가지고 다니면서 소신은 소 목에 걸리고 본인이 신을 짚신은 뒤에 달고 가거나 역시 몸에 걸고 다녔다고 한다. 마장동으로 가는 일도 있었는데 역시 직접 소장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소장사 하는 사람들에게 몰아다주고 품값을 받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홍천 우시장이 1, 2일 이틀을 켜고,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시장이 2일에, 양평읍내 우시장이 3일에 켜고, 덕소 우시장이 4일에 켜는데, 동대문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 마장동으로도 끌고 갔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소에 눈을 떠서 소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곳저곳의 우시장을 돌게 되었다. 소장사를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라고 한다. 처음에는 덕소나 양수 우시장에서 소를 사서 동대문에 파는 식으로 장사를 하였다. 소 판 돈을 허리에 차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소매치기들이 알고 대여섯 명씩, 때로는 여덟 명씩조를 짜 버스에 타서 훔쳐가고는 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콩나물 버스'로 밀고 들어가 매달려서 가던 시절이므로, 소매치기들은 칼로 전대를 그어서 돈을 훔쳐갔다. 어떤 때는 전대를 찢다가 배를 그어서 소장수가 피를 철철 흘리는 광경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은 "우리야 항상 타기 때문에 누가 쓰리꾼인 줄 알고 그네들이 타면 조심을 하니까" 이들에게 직접 당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 장사를 직접 하면서부터, 특히 차로 우시장을 돌게 되면서부터는 안 다닌 데가 없다고 한다. 경북 안동, 영주, 충북 청주 등지로부터 차로 소를 사모아서 서울에다가 파는 식으로 장사를 하였다. 당시만 해도 양수 우시장이 켜는데, 지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명달리에 사는 김○○(76세)는 전문적인 소장수는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부업' 삼아 소 거래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동대문과 서종면을 오가면서 이 일을 하였는데, 장 중에 제일

큰 장이기 때문에 원래 큰 소만 들어오는 곳인 동대문 우시장에는 비육우를 사다가 4, 5개월 간 먹여서 되팔아 이문을 남기기 위해 출입하였다. 비육우를 팔 때는 동대문으로 다시 가는 일도 있었지만 주로 마석장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소의 체질에 따라서 사온 값의 곱을 남기는 수도 있고, 소의 체질이 좋지 않은 것을 사오면 본전을 찾는 정도에 머무는 일도 있었다. 소의 체질에 따라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몸체가 고르고 뺨다구가 제대로 박히고 고기가 많이 드는 소가 있는 반면, 같이 살이 찌더라도 고기가 들지 않는 소가 있기 때문이다.

명달리에서 동대문까지는 도보로 왕래하였는데 이틀간 쪼새기(쪼신)를 신고 갔다오노라면 두 켄레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다. 한 켄레는 신고 가고 한 켄레는 짐에 짊어지고 가는데, 김○○의 경우 신은 쪼신을 길에다 버리면 내 몸 전체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서 꼭 집으로 돌아온 뒤 밭에 가서 버렸다고 한다.

경안 우시장에 드나드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집에서 일을 시킬 마차소를 사는 것이 주요 출입목적이었다. 경안장에 출입하는 일은 일 년에 서너 번 정도였다고 한다. 경안에는 '아랫넉'의 영남, 충청 등지에서 소가 올라왔는데, '영남치'라고도 불리는 이들 소는 '중소'를 사다가 잘 먹이면 부쩍 굵고 커져서 일을 시키기가 좋았다고 한다.

양수 우시장에는 거의 소가 나오지 않았으며, 춘천에서 오는 소가 설악으로 와서 거래되기도 하였다. 강원도 소는 털이 길고 살이 덜 붙는 특징이 있었다. 영남치가 살이 잘 찌고 가르치기도 쉽기 때문에 이문이 많이 남는 반면, 강원도 소는 산골에서 나오는 소라서 산에서 밭 일 같은 것을 시키면 더 잘하였다고 한다.

개군면 상자포리에서도 강원도 소와 영남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전문적인 우상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의 유통권과 관련해서 참고가 된다. 상자포리에서는 소를 거래할 때 곡수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를 사기 위해서나 팔기 위해서나 모두 곡수장을 이용했다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팔 때는 곡수장을 가고 살 때는 시세를 보아싼 곳으로 간다는 대답도 있었고, "송아지를 살 때는 곡수장으로 간다. 소가 강원도에서 오니까 곡수장이 소가 좋다. 소값이 싸기도 하지만, 값 차이가 나지 않아도 곡수장 소가 튼튼하고 좋으니까 산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 주민은 경기도에 소 생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소고 큰 소고 할 것 없이 강원도에서 많이 나왔으며, 강원도(평창) 소나 영남치나 모두 작지만 힘이 세고 다부지다고 설명했다. 송아지를 사면 3,000원 정도에 살 때 소는 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양동면의 경우 양동의 우시장이 없어진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인데, 양동 우시장이 있을 때도 인근의 다른 우시장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우시장들로는 곡수, 여주, 원주, 횡성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주 우시장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소를 살 때와 팔 때를 구별할 경우, 일반적으로 살 때는 원주장을 많이 이용하고 팔 때는 곡수나 여주, 양평 등

을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청운면 여물리에서 소를 끌고 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는 김○○가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집에 '마방'을 꾸며놓고, 홍천에서 끌고 온 소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고 아침 일찍 용두장으로 끌고가 팔도록 하고, 팔다가 안 팔리면 다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재운 뒤 양평으로 끌고 가서 팔게 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같은 장 제1절 여물리 마방 사례 참조).

7) 나물·약재상

청운면 여물리에 거주하는 김종○(69세)는 21세 때 군에 입대하였는데, 입대 직전 근방에서 장사를 시작하였으며, 제대 후 23세 때부터 약 40년간 중간상인으로서 일했다. 그는 서울의 청량리와 종로5가를 중심으로 거래를 했고 이 일을 그만둔 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다. 또한 서울을 왕래하지 않은 것은 약 20년 정도 된다. 이는 고사리, 고비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 그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었다. 청량리로는 주로 쌀, 콩, 팥, 옥수수, 참쌀 등의 잡곡류와 고사리, 고비 등 나물류를, 종로5가에서는 부산물 및 잔대, 창출, 우룡산 등의 약재를 주로 거래하였다. 이밖에 고무신, 광목, 어물 등은 필요한 양을 적어주면 물건을 떼어다가 화물차에 실어주었다고 한다.

김종○는 인근의 10개 정도의 상점과 거래를 했는데, 늘 현찰거래만 했다고 한다. 한 때 인근에서 많이 산출되었던 잔대로 수입이 좋았으나 중국산이 수입된 이래 수지가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는 따로 좌판을 벌이지 않았으며, 구경차 큰 장에 가는 일은 있어도 거래 목적으로는 양평에도 가는 일이 없었다. 용두장에서는 김종○와 조남○가 이와 같은 일을 했으며, 조남○는 쌀과 잡곡, 부산물을 주로 취급했다.

김종○의 활동영역은 원주 2집, 춘천 1집, 서면(굴업리) 1집, 횡성 여러 집, 홍천 두세 집 등이었고, 원통은 한 번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고사리는 춘천에 단골집을 두고 일 년에 한 번씩 고사리만 사러 다녔다. 횡성에는 서울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러 집과 거래를 했는데, 이에 비하면 원주나 홍천은 서울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거래처도 적었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고사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거래했던 상회는 청량리에는 순흥상회, 종로5가에는 동진상회 등이 있었다. 고사리와 고비는 경동시장의 고사리 삶는 사람에게 모두 팔았다. 그는 한 장에서 최고 1,000근까지 고사리를 사본 적이 있으며 춘천 것을 제외하고 한 해 취급하는 고사리의 양이 약 만근 정도에 달했다. 춘천에서는 한 해에 약 1,000근에서 1,200근 정도의 고사리를 샀다고 한다. 이밖에 대추는 꾸준히 취급했었는데 썩은 것, 곤 것을 모아 서울의 '재수'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많을 때는 100가마 정도 해준 적이 있는데, '재수'는 이것들을 모아 다시 제약회사에 넘겼다고 한다. 경동시장의 '재수'는 남한 것은 다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그 방면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8) 잡화상

단월면 보룡리는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설점포가 없었는데 단월장이 서게 되면서 점포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박만○는 보룡리에 장이 서게 되면서 담뱃가게·잡화상을 겸하는 어물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용○마트로 상호를 바꾸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본인은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다. 개점 당시에는 별다른 상호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동대문시장에 가서 조기, 진어물, 유과 등을 떼어왔으며 동대문에는 장이 선 다음날인 2·7일에 갔다. 6번 국도를 다니는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을 왕래하였는데, 새벽 4시 반 첫차를 타고 가서 막차를 타고 돌아왔다. 나중에 마장동으로 옮긴 버스터미널이 당시에는 송인동에 있었고, 영업을 하는 가운데 동대문시장뿐만 아니라 방산시장, 중부시장, 평화시장 등등에서 물건을 떼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평화시장에서는 양말 등을 떼어왔다. 도매시장에서 떼는 물건들은 화물로 부쳐서 받았는데, 나중에 차들이 직접 오면서 서울에 가지 않게 되었다. 동대문에서는 반품도 외상도 할 수 없었다. 박만○처럼 운영하는 잡화상이 보룡리에 세 집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품목이 거의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상호가 없었다. 세 집 주인들은 동대문에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하게 될 때는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9) 밤장수

강하면 성덕리에 사는 이○녀 할머니는 500평 정도의 밭에 밤나무를 재배해서 직접 동대문까지 밤을 팔러 다녔다고 한다. 이○녀 할머니 집 외에도 성덕리에서 밤나무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통은 마을로 들어오는 밤장수들에게 넘겼는데, 이 할머니의 경우 직접 서울로 가지고 가서 팔으로써 한 톨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였던 셈이다. 이 할머니는 3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그만큼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와 같이 서울까지 밤을 팔러 다닌 경우는 성덕리에서는 이○녀 할머니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당시의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 할머니가 밤을 팔러 다닌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였는데, 당시 밤 한 말에 1,000원 가량을 받고 넘겼다고 한다. 동대문에는 밤뿐만 아니라 버섯, 은행, 호두 등을 닦치는 대로 사는 상여(상회)가 있어 이 집에 밤을 가져다주면 새벽같이 불을 켜놓고 새벽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감고가 다 팔아주었다. 때가 맞지 않으면 이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밤은 벼 베기 전에 파서 날이 추워지기 전에 크기대로 대을, 중물, 초리, 찌꺼기의 네 종류로 고른 후 대을과 중물은 땅을 파서 묻고 초리와 찌꺼기는 내다판다. 한창 바쁜 철에 밤 고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밤송이가 열기 전에 까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을과 중물은 허리가 들어갈 만큼 땅을 파서 묻어두었다가 봄에까지 파는데 특히 설 대목에 많이 팔았다고 한다.

동대문으로 가는 방법은, 기차로 다닐 때는 상심나루를 건너 국수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내려서 전차를 타고 동대문으로 갔다. 이때에는 할머니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만 밥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서울을 왕래하는 차편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운반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일단 소로 끄는 마차를 빌려서 너댓 가마를 전의나루(다루레기나루)까지 운반하고, 나룻배로 강을 건너 다루레기의 주막집에서 하루를 잔 다음 지나가는 차를 만나면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런 차들은 보통 강원도에서 오는 화물차였다고 한다.

10) 양봉업

현재 단월면 산음1리에서는 열 집 정도가 한봉을 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한봉을 하는 집들이 몇 집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꿀 한 사발에 쌀 한 말씩도 찻지만, 시장에 내다 팔거나 하지 않고 이웃끼리 주고받으면서 면식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유통시키는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꿀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장에 가지고 가서는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여 백

제3장 의·식·주생활*

제1절 의생활

1. 개 관

이 글은 『양평군지』 작업의 일환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양평지역의 의생활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의복의 종류 및 의복의 제작과 구입, 의복의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의복의 종류에는 출생 및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복과 평상복, 외출복, 신발류, 머리 모양을 포함시켰으며, 옷감이나 의복의 색, 형태뿐만 아니라 제작·구입과 관련된 사항 및 언제,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하였다. 의복의 제작과 구입에 있어서는 의복의 구입이 현재처럼 일반화되기까지의 과정 및 그 시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의생활과 관련된 관습이나 금기, 의생활 관련 용어들은 조사항목에는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다루지 않고 해당 부분에서 함께 정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양평지역의 의생활에 나타나는 지역적인 특징을 살피기 위해 의복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기 이전의 의생활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와 함께 시대에 따른 변화상도 담아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보자들은 되도록 양평지역의 토박이 중에서도 연령이 높은 사람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의 전체 제보자 수는 26명으로 이 중 남자가 11명 여자가 15명이며,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80대 2명, 70대 20명, 60대 3명, 50대가 1명이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으며 사례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 제3장은 양선아·방인아 집필임.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혔다.

조사방법은 주로 구술에 의존하였으며 의생활 조사에서 유물과 사진자료가 가지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구술자료 이외의 자료수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서술하였으며,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¹⁾에 소개된 다른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양평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각주에서 언급하려고 하였다. 조사내용을 정리할 때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특징적인 용어는 따옴표(‘ ’)로 표현하였으며, 표준어를 찾아 [] 안에 병기하려고 하였다.

2. 의복의 종류

1) 의례복

(1) 출생과 복식

70대 이상의 제보자들은 대부분 짚을 깔고 그 위에다 애를 낳았다. 애를 낳은 후 태는 짚과 함께 거두어서 방에 놓아두었다가 사흘 후에 마당에서 불을 놓아 태우는데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왕겨를 같이 놓아 태운 후 그 재는 개울에 가서 띄워보냈다. 태를 처분하는 일은 ‘삼불 피운다’, ‘삼 나간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나 시할머니 또는 남편이 이 일을 했다. 이 당시에 도 ‘양회포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깔고 애를 낳았으며 점차 양회포대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선(지체면, 79세)은 출산 전 미리 낚아서 떨어진 면옷을 깨끗하게 빨아 장만한 다음에 깨끗이 닦아서 접은 서너 개의 ‘양회포대’ 위에 깔아 두었다가 급할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태줄을 자를 때는 한 뼘 정도 남겨두고 자르고 그 위에다 목화솜을 뜯어 곱게 ‘피슬러서’ 둥글게 만든 것으로 싸주면 자른 자리가 아물면서 일 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저절로 떨어졌다. 아들 난 사람의 속옷을 입고 첫국밥을 먼저 얻어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전하는데 이는 ‘삼신할머니를 뺏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포대기에 싸두는데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하얀 용을 꿰어다가 안에 목화솜을 넣어 누벼서 만들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자 어른 바지를 뜯어서 만들었다. 포대기는 보통 시어머니가 만들었으며 친정어머니가 싸오기도 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이 되면 아이를 씻긴 후에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배냇저고리는 하얀 용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1) 이 책에서는 경기지역을 북부, 동부, 남부로 나누어서 지역에 따른 의생활을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까닭에 경기도의 여러 지역과 양평지역의 의생활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반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78)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구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 구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두었다가 입혔다. 배넛저고릿감으로 읍을 사용한 까닭은 보드랍고 푸근하기 때문이며 ‘모달리’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읍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입었던 낡은 옷을 뜯어서 만들기도 했다. 어린아이들이 입던 배넛저고리는 시험 보러 갈 때 가지고 가면 합격한다는 말이 있어서 잘 보관해두기도 하였다. 기저귀는 어른들이 입던 낡은 옷으로 많이 만들었으며 넉넉한 집에서는 ‘소창’을 꿰어다가 만들기도 하였다.

백일이나 돌에는 상을 차려주고(제3장 제2절 식생활 참조) 옷을 해 입히는데 백일에는 하얀 면으로 된 저고리를 입혔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목단꽃을 앞뒤로 수놓은 조끼를 입히기도 했다. 돌복으로는 주로 인조를 꿰어다가 바지저고리를 만들어서 입혔다. 바지저고리 속에는 집에서 심은 목화솜을 넣어 손이나 재봉틀로 누볐다. 저고리는 보통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했으며 그 위에 양회색으로 꽃무늬를 수놓기도 했다. 잘 사는 집에서는 바지저고리 외에도 조끼, 돌띠, 마고자 등을 입히기도 했다. 조끼는 남색이나 연두색으로, 마고자는 자주색·연두색·분홍색 등으로 만들었고 바지는 보라색 등으로 하였다. 돌띠는 빨간색이나 연두색이었으며 주로 인조를 사용해서 뒤에는 모란꽃이나 매화꽃을 수놓았으며 앞에는 매듭을 달았다. 더 잘해주는 경우에는 모본단이나 양단으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수를 놓아주었다.

(2) 혼례복

대례를 지낼 때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었고 신부는 남자머리를 하고 볼에는 연지끈지를 찍었으며 치마저고리 위에 원삼과 족두리를 갖추었다. 사모관대와 원삼·족두리는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빌려 입었는데 보통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리는 까닭²⁾에 원삼·족두리는 대부분 신부 동네에서 빌려 입었으나 사모관대의 경우는 제보자에 따라 신부 동네에서 빌려 입기도 하고 신랑 동네에서 빌려 입기도 했다. 용문면 덕촌리 조○현(68세)은 신랑이 신부 동네에 가서 사모관대를 갈아입은 경우로, 신부집 옆집에서 혼례복을 갈아입었으나 이 방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신랑집에서 대례를 올린 경우에는 신랑 동네 원삼·족두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42년에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서 양서면 양수리로 시집온 손○순(76세)은 기차를 타고 양수리로 온 후 가마를 타고 신랑집에 가서 대례를 올렸는데 신랑 동네에 있는 원삼을 입었다고 한다. 용문면 만릉리에서 덕촌리로 시집을 온 김○애(70세)는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난리 때(6·25)여서’ 신랑 동네에서 원삼·족두리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원삼을 동네에서 별도로 장만해두지 않은 사례 역시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었는데, 강하면 성덕리에 사는 이○녀(86세)의 말에 따르면 신부 원삼은 미리 장만해둔 수의용 원삼을 빌려서 입었다고 한다.³⁾

2)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리는 것을 ‘마당 빌린다’고 하였다. 신부집이 어려운 경우 신랑집에서 대례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다른 건 못해도 마당이라도 빌려준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웬만해서는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리려고 하였다고 한다(제4장 제3절 관혼상제 참조).

동네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혼례 용구로는 사모관대와 원삼·족두리 외에도 가마, 그릇 등이 있었다. 양평지역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마을에서 혼례용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문면 덕촌리에 사는 조○현(68세)은 본인이 혼례를 올린 1956년도까지도 동네에 가마가 있었으며 70년대에도 사모관대가 있었다고 했다. 단월면에 사는 이○숙(51세)은 1968년에 청운면 신륵리에서 단월면 석산리 인이피로 시집왔는데 신랑 동네에 있는 가마와 혼례복을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마을에 '이중계'가 조직되어 있어서(제5장 마을과 사회조직 참조) 처음에 가입비를 내면 혼례용품들을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다. 1980년 쯤에 결혼한 이○숙의 시누이도 인이피 마을의 원삼을 빌려서 전통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꼭 이 시기까지 사람들이 모두 전통혼례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 이○숙이 혼례를 올린 당시에도 '드레스를 입고 신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1960~1970년대에는 두 가지 혼례방식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부는 원삼 안에 보통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를 입고 그 안에 다시 연두저고리와 남색치마 또는 분홍저고리와 남색치마를 입었다.³⁾ 몇몇 제보자 가운데는 노랑저고리 대신 연두저고리를 입기도 하였으며 옥색치마를 입은 제보자도 있었다. 치마저고리 안에는 속적삼과 속치마를 입고 그 안에 통이 넓고 밑이 막힌 단속곳과 밑이 트인 바지를 입었다.

대례 때 신부가 입는 치마는 보통 채단으로 신랑집에서 받았다. 채단은 잔칫날 아침에 들어오는 함 안에 넣어서 오는데 제보자의 대부분이 신부가 입을 치마 두 '끝'을 받았다고 했으나 몇몇 제보자는 저고리까지 같이 들어있었다고 대답했으며 두루마기감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⁴⁾ 치마는 완성된 상태로 보내왔다는 제보자도 있었지만 대개는 허리를 달지 않은 채로 보내왔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함이 들어오자마자 첫아들을 낳고 복이 많은 사람이 미리 만들어놓은 허리를 재빨리 달아서 대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⁵⁾ 그러나 친정이 넉넉한 경우에는 친정에서 대례 때 입을 신부 치마를 만들어 주었고 신랑집에서 들어온 옷감은 시댁으로 도로 가지고 가서 나중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채단으로 들어오는 옷감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변했는데 70대의 제보자들이 혼례를 올릴 무렵 많이 사용하였던 옷감은 모본단, 뉴똥, 인조, 양단 등이었으며, 이 중 제일 좋은 옷감으

3)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 경기의생활 개관(6)에는 원삼이 없을 때에 수의로 만들어둔 것을 입기도 하였다고 나와 있으나 양평군의 의생활편(147~149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4)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63)에는 혼례 때 신부가 입는 저고리는 '저고리 삼작'(三作)이라 하여 세 벌을 갖추어 입는 것이 격식이었다고 한다. 삼작이란 제일 겉에는 연두색 삼회장저고리, 중간에는 노란색 반회장저고리, 안에는 분홍색으로 된 저고리를 한 틀로 입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양평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례를 지낼 때 '저고리 삼작'을 갖추어 입은 예는 실리지 않았다.

5) 잘 사는 집에서는 저고리까지 보내기도 하였다는 제보자도 있었으나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에 소개된 여러 지역에서는 함 속에 혼수를 많이 넣어서 보내는 것은 '상놈'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양평군 의생활편에서도 "상놈은 혼수가 많지만 양반은 치마허리를 달지 않는 치마감만 신랑집에서 보내온다"(148쪽)고 나와 있다.

6)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에 실린 양평의 의생활에 소개된 사례에는 "함 속에 있는 치마에 치마허리가 없는 경우, 함전애비가 지고 온 함의 땀땀 감을 이용하여 급하게 성글게 만들어 붙여서 대례를 치른다"(148쪽)고 나와 있다.

로 찢던 것이 모본단, 뉴뚝이었다. 잘 해서 보내는 집에서는 집에서 만든 명주를 보내기도 했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이○근(양동면, 83세)은 이보다 좀더 앞선 시기에 제일로 찢던 옷감은 '진시루', '삼천방', '오천방' 같은 것들이었으며 '진시루'가 없어지고 나서 모본단, 뉴뚝 같은 옷감들이 나왔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베로드'[벨로드]를 많이 이용하였다. 함이 들어오면 친청 아버지가 눈을 감고 함문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 잡히는 대로 물건을 꺼내는데 이때 빨간 옷감이 나오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하였다.

함에는 채단 이외에도 사주⁷⁾와 청실홍실, 폐물 등이 들어있었다. 청실홍실은 사주를 적은 종이를 감는 데 사용되었다. 강하면 성덕리 이○녀(86세)는 사주는 문창호지에 쓰고 안은 파랗고 밖은 빨간 실로 싼다고 하였다. 제보자의 대부분이 함은 함진애비가 혼례일 아침에 들고왔다고 하였으나 양동면 계정리에 사는 이○근(83세)은 잔치 일 주일이나 열흘을 앞두고 함이 들어왔는데 이를 봉채(封采)라 한다고 했다(제4장 제3절 관혼상제 참조). 함에 폐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비녀, 가락지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보통 은으로 된 것들이었으며 귀이개까지 받은 제보자도 있었다. 신부가 받는 쌍가락지는 보통 은으로 되어있는데 왼손 중지에 끼며 하나로 된 꽃가락지는 왼손 무명지에 졌다. 비녀는 비녀머리가 오른쪽에 오도록 졌다.

신랑집에 와서 폐백을 드릴 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제보자들도 있었는데, 이 옷을 가리켜 '관례받침' 또는 '관례복'⁸⁾이라고 불렀다. 용문면 덕촌리 조○현(68세)는 '관례받침'은 함에 채단과 같이 들어있었다고 하였으나, 같은 마을에 사는 김○애(70세)는 '관례받침'은 함에 넣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집에서 만들어두었다가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한 후 폐백드릴 때 갈아입었으며 이때 입는 치마저고리는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였다고 했다. 그러나 별도의 '관례복'을 입지 않고 대례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다는 제보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혼수로는 신부가 시집와서 입을 옷, 이불·요·베개, 바느질 도구, 경대 등을 해갔으며 잘 사는 경우에는 농까지 가지고 갔다. 17세에 개군면 계전리 기밭에서 여주 대신면으로 시집을 간 심○선(79세)은 농 대신 '머리장'을 가지고 갔다고 했다. 농이나 경대, 머리장 등은 장에서 구입했다. 신부는 치마저고리, 앞치마, 버선, 적삼, 고쟁이, 속곳 등을 입을 옷으로 가지고 왔다. 이불·요·베개는 집안 형편에 따라 한 채나 두 채씩 장만하였는데 이불과 요인 경우 짝수를 맞추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다.⁹⁾ 심○선은 본인이 시집갈 때는 이불·요 한 채씩을 해갔지만 나이 50에 딸을 시집보낼 때는 이불·요 각각 두 채씩을 장만해주었으며, 이불은 자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사주를 보내고 받는 것은 일종의 약혼의 의미로 혼례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낸다(25권 32쪽)고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함 속에 사주가 들어있었다고 했으며, 용문면 덕촌리 조○현(68세)만이 사주는 혼례일 전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8) 주 4의 저고리 삼작 중 제일 길은 '관례백금'이라 하여 시댁에서 홍치마와 함께 주는 예물이라고 한다. 김○애가 소개한 '관례받침'은 '관례백금'과 동일한 것 혹은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9) 반면 필자가 2002년에 시흥·안산 일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이불과 요 짝수를 맞추지 않고 해가아운이 좋다고 했다.

주색과 연두색, 요는 남색 '물양단'(인조양단)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성덕리 이○녀(86세)는 19세에 혼례를 올렸는데 제보자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불·요를 두 채씩 장만하였으며 위의 혼수 이외에도 인두, 요강 등을 가지고 갔다. 반면 신랑집에서 대례를 올렸던 손○순(76세)은 시집을 때 자기가 입을 옷만 가지고 왔으며 시집에서 솜이불·요 한 채, 배개 하나를 만들어주었으나 해방 이후에 친정어머니가 혼수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여름과 겨울 이불·요 각각 한 채와 시댁 친지들에게 나누어줄 골무 열 죽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혼수로 시댁 식구나 신랑의 옷을 별도로 준비했다는 제보자는 없었다. 청운면 다대리 한○순(72세)은 시집 식구 옷이나 이불을 하게 된 것은 70년대 중반 무렵이며 잘사는 집에서는 이불 한 죽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양말·버선은 신부가 근친¹⁰⁾을 가서 돌아올 때 엿, 떡, 술, 고기 등과 같은 음식과 함께 장만해 와서 시댁 친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근친을 갈 때 친정에도 이와 같은 음식들을 마련해갔으나 제보자에 따라 양말·버선을 친정 식구들에게 주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3) 수 의

수의를 윤달에 자손들이 장만해주거나 상을 당한 후에야 만들기도 했다. 심○선(지제면, 79세)은 보통 며느리가 윤달에 베를 꿰어다가 집에서 재봉틀로 만들거나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들었다고 하였으나,¹¹⁾ 몇몇 제보자들은 수의를 미리 장만하는 것은 요즘 일이며 예전에는 상이 나서야 수의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수의를 만들 때는 미리 장만해두거나 상이 나면 그때야 베를 꿰어다가 수의와 상복을 만들었다. 상이 나면 일가친지와 동네 여자들이 초상집에 모여 수의와 상복을 만들었는데, 나이 든 여자들은 주로 바느질을 하였으며 젊은 여자들은 상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였다. 요즘은 읍이나 면에 있는 포목점이나 농협에서 수의를 사온다.

수의로 입는 바지저고리나 치마저고리, 속옷 등은 모두 베로 만들었지만 원삼을 입을 경우 인조를 꿰어다가 만들었다. 이○녀(강하면, 86세)는 수의용 원삼을 신부가 입을 대례복으로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세 번만 색시를 빌려주면 옷 주인에게 좋다”고 했다.

망자가 여자인 경우 마지막 달거리 때 사용한 광복을 같이 관에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요즘

10) 대례를 올린 후 사용재 되는 날 신랑이 다시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재행(再行)·‘재향’이라 하며 신부가 친정을 가는 것을 근친(親親)이라 하는데 보통 일 년 또는 아기를 낳고 삼 년 정도 지난 후에야 근친을 갈 수 있었다. 양평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신랑만 혼례 후 삼 일 만에 신부집으로 갔으나 이후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부집으로 갔는데 이를 ‘삼일도배기’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이○옥(양동면, 72세)은 딸들을 시집보낼 무렵에 많이 있었던 풍습으로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 생긴 것이며, 지금도 이 말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삼일도배기’ 때에도 근친을 갔다 올 때처럼 친정과 시집 친지들에게 줄 음식과 양말·버선 등을 장만해서 갔다(같은 장 제2절 식생활 및 제4장 제3절 관혼상제 참조).

11) 심○선 본인의 수의는 성당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은 수의를 파는 가게에서 수의 세트로 같이 넣어서 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관습을 들어본 일이 없는 제보자들도 있어서 양평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관습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4) 상복

상복을 입는 것을 '거상(居喪) 입는다'고 한다. 남자 상주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된 바지저고리 위에 배로 된 굴건제복을 입었으며, 여자들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된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테두리'〔首經〕를 들렀다. 요질과 수질에는 배 조각을 끼웠는데 배가 없을 때는 삼을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질의 경우 남자는 머리 왼쪽으로, 여자는 머리 오른쪽으로 매듭이 오도록 했다. 남자들인 경우 굴건제복 안에, 여자들은 치마저고리 위에 배로 된 두루마기를 입기도 하였는데 이 두루마기를 '중단'〔中單〕이라고 불렀다. 딸이 맨 손위인 경우 맏사위는 굴건제복을 입었다. 상복으로 사용하는 광목은 한 번도 빨지 않은 누런 깃광목으로 만들기 때문에 광목으로 만든 상복을 '깃웃'이라고 불렀다. 광목은 장에서 사왔으며 무명은 집에서 짠 것을 이용했다. 상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 상포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¹²⁾

상주가 입는 상복으로 부친상과 모친상을 나타내었는데,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대나무를,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를 짚었다. 좌고우비(左高右卑)라 하여 건의 여밈도 부친상에는 왼쪽으로, 모친상에는 오른쪽으로 오게 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대상을 지냈는데, 이는 아버지가 재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성복(成服)이라고 하며 마당에 퍼놓은 명석 위에 정화수와 상복을 갖다 놓고 곡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은 후 상주 내외가 마주보며 삼배 하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네 번 절을 한 후 성복제사를 올린다(제4장 제3절 관혼상제 참조). 상복은 대상이 끝날 때까지 입었지만 요즘은 49제를 지내고 난 후 불을 놓아 처분한다. 여자들은 탈상 때까지 흰색 땀가리를 들렀다. 근래에는 탈상하기 전까지 상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남자는 배로 리본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다니고, 여자는 실핀에 하얀 리본을 달아 머리에 꽂고 다닌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 딸의 상복은 친정에서 장만해주며, 친정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 며느리 상복은 시댁에서 해준다. 보통 무명이나 깃광목으로 다섯 마를 해주는데 이것으로 겹치마, 겹저고리, 버선, 흰 땀가리까지 장만할 수 있었으며 집안에 따라 속옷까지 보내기도 하였다.¹³⁾ 옷은 완성된 형태로 보내거나 옷감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 풍습은 현재까지 남아

12) 양서면 대아동(청계리와 정동리)과 강하면 전수2리·운심리에서 상포계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아동에서는 배를 태워주는 상포계와 광목계가 있었다고 했으며, 전수2리에서는 운심리와 함께 상포계를 운영해서 상이 났을 때 배 20필을 태워주었으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1985년에 끝이 났다고 하였다(제5장 제3절 혼·상제 및 기타 제조직 참조).

있어서 가게에서 완성된 형태의 치마저고리를 사서 보낸다고 한다. 이 옷을 특별히 '고상옷' 또는 '거상옷'이라고 부르거나 깃광목으로 만들기 때문에 '깃옷'이라고 부르는 제보자가 있기도 하였지만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제보자들도 많았고, 그냥 '상옷해간다'고 불렀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2) 평상복

(1) 어린이

어린이들이 두세 살이 되면 광목이나 무명으로 풍차바지를 만들어서 입혔다. 좀더 자라면 남자아이들에게는 바지저고리를, 여자아이들에게는 치마저고리를 입혔다. 남자아이의 바지는 주로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물을 들였으며 저고리는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하였다. 좀더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저고리를 '물색'¹⁴⁾으로 물을 들여서 입히기도 하였다. 여자아이의 옷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물을 들여서 입혔으며 치마 길이는 긴 것도 있었고 무릎까지 오는 것도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꼬리치마'라고 불렀다. 옷감은 인조나 울, 광목과 같은 면 종류로 만들었으나 주로 광목을 많이 이용하였다. 소창에 줄무늬를 넣은 '줄달리'라는 옷감이 나오면서부터는 이것으로도 어린이들이 입을 옷을 많이 만들었다. 보통 어린이들이 입는 옷은 한두 벌 정도였으며, 선달에 미리 만들어두었다가 정월 초하룻날 입혔으며 물려 입기도 많이 했다. 옷이 귀한 때라 옷을 물려주는 데 특별한 금기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 성인

남자 어른들은 평상시에 바지저고리와 중의적삼을 입었다. 가을, 겨울에 입는 저고리에는 고름을 달았으나¹⁵⁾ 여름에 입는 중의적삼에는 단추를 달아서 입었다. 단추는 손가락 굵기 세 개 크기만큼의 천을 양쪽에 맞대고 오른쪽에는 단춧구멍을 만들고 왼쪽에는 형겅으로 매듭을 만들어서 달았다. 바지저고리인 경우 바지색은 보통 검정색으로 물을 들였으며, 저고리는 흰색으로 하였지만 때때로 옥색으로 물을 들이기도 하였다. 바지저고리 위에는 흰색이나 검정색 조끼를 덧입었다.

여자 어른들은 치마저고리를 두 벌 정도 가지고 있었으나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한 벌만

13)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에는 사돈끼리 상복을 보내는 풍습은 경기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다(9쪽). 그러나 보내는 물품은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데, 양평지역에서는 상복만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외에도 초 한 갑과 창호지 한 권, 북어 한 채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

14) 물감을 들인 빗갸를 뜻하는 것으로 분홍이나 보라같이 색깔이 고운 색을 일컫는 말.

15) 이○근(양동면, 83세)은 말을 따르면 일제 말기에는 저고리 고름을 길게 하면 낭비라고 하여 고름 대신 단추를 달도록 했으며 심지어는 두루마기에도 단추를 달아 입도록 했다고 한다.

가지고 입기도 했다. 옷감은 주로 광목을 이용했으나 인조로 만들기도 했으며¹⁶⁾ 색깔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색의 물감으로 물을 들여서 입었다. 여자 저고리에는 단추를 달기도 했으나 대부분 고름을 달았으며 치마는 왼쪽으로 여몄다. 젊은 사람들은 자주 고름과 남 끝등을 달았으나 나이가 들면 저고리와 같은 색으로 고름을 달았다. 치마저고리 안에는 속적삼과 밀이 트인 고쟁이를 입었다. 여자들이 집안일이나 밭일을 할 때는 치마저고리 위에 광목이나 옥양목으로 만든 하얀 앞치마를 둘렀는데 치마 길이까지 내려오게 입었고 머리에 무명으로 된 수건을 둘렀다.

여자들이 몸빼를 입기 시작한 시기는 제보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심○선(지제면, 79세)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입었다고 했다.¹⁷⁾ 심○선의 말을 따르면 본인이 20살 정도 될 무렵부터 광목을 꿰어다가 검정색 물을 들여서 몸빼를 만들어 입었는데, 당시 몸빼는 외출할 때 입는 옷이었으며 위에는 옥양목이나 광목으로 와이셔츠와 형태가 비슷한 옷을 만들어서 입었고 밭일을 할 때에는 낡은 몸빼에다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녀(강하면, 86세)는 한국전쟁 이후 몸빼를 입기 시작하였으며 사다 입거나 재봉틀로 만들어 입었다고 하였다. 이○순(개군면, 73세)은 기존에 입던 자신의 옷을 몸빼로 변형시켜 입은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겨울에 피난길에 올라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밀이 트인 고쟁이와 가래바지의 밑을 꿰매 몸빼로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제보자들에게서는 이○순의 경우처럼 고쟁이 등을 몸빼로 변형시켜서 입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어서 이 사례가 개인적인 경험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몸빼를 입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노동복은 별도로 갖추어 입지는 않았으며 보통 입다가 낡아진 옷을 입고 일을 하였다. 등걸잠뱅이는 여름에 일을 할 때 입었던 옷으로 중의적삼에는 깃, 소매, 단추가 모두 있었던 것과 달리 깃이 없으며 반소매와 반바지 형태로 되어 있다.

집에서 일꾼을 고용하는 경우 세경으로 곡식 이외에도 옷을 만들어주었다(제1장 생업 참조). 일년살이 일꾼에게는 옷 세 벌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 종류는 제보자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다. 이○녀(강하면, 86세)와 이○순(강상면, 73세)은 중의적삼 한 벌과 등걸잠뱅이 두 벌을 주었다고 한 반면, 김○애(용문면, 70세)는 여름에 등걸잠뱅이 두 벌과 가을에 돌아갈 때 바지저고리를 해주었다고 했으며, 임○현(강상면, 72세)은 바지저고리 한 벌과 작업복용으로 등걸잠뱅이, 나들이복용으로 중의적삼을 주었다고 했다. 한편 계속 사는 머슴에게

16)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광목이나 인조로 치마저고리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 것과 달리 다른 제보자들에 비해 옷감 이음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근(양동면, 83세)은 “옥양목이나 광목을 많이 썼지만 새댁 시절에는 일광단이나 진목단을 장에서 사다가 치마저고리를 만들어 입기도 했다”고 하였다.

17) 1940년대 초반 태평양전쟁시 일제가 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에게 간편한 옷을 강제로 입게 하면서 몸빼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는데 초반에는 겉옷으로 바지를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한다(『경기민속지 IV, 의식주편』).

는 이외에도 겨울에 숨바지저고리를 만들어서 주었다.

비가 올 때는 남녀 구별 없이 보리짚으로 만든 도롱이를 어깨에 두르고 삿갓을 머리에 썼다.

(3) 외출복

일제강점기 시절 남자들은 외출할 때 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고 상투를 튼 경우에는 망건 위에 갓을 썼으며 머리를 짧게 자른 사람들은 중절모를 썼다. 당시에 양복을 입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 보통 한 벌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들도 친정에 갈 때는 옷을 갖추어 입고 갔는데 빨간색이나 노란색, 연두색으로 곱게 물을 들인 옷을 입었다. 외출할 때는 여자들도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여자 노인들은 외투 곁에 머리를 뒤집어 쓸 수 있도록 천을 덧댄 형태의 '아마귀'를 쓰기도 했다.

(4) 신발류

일제강점기에는 짚신과 게다를 많이 신었다. 짚신은 남자들이 삼았는데 쉽게 닳기 때문에¹⁸⁾ 밤낮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짚신을 삼아야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짚신을 지어 팔아 그 돈으로 담배 같은 것을 사서 피기도 하였으나 식구들이 신을 짚신을 감당하는 것만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짚신 삼기를 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 짚신 삼을 때 사용하는 싯줄은 대추나무로 만들었으며 “뒷간에 절을 하고 삼으면 짚신을 잘 삼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였다. 짚신은 해방 무렵까지 신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검정고무신이 나왔으나 당시에는 반으로 배급이 나와서 재비뿔기에 당첨이 된 사람만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신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밖에도 비 오는 날에는 버드나무로 만든 나막신을 신었으며, 겨울에 땔나무를 하러 갈 때는 짚신을 신고 그 위에다 낡은 형짚으로 발을 감았는데 이를 '목달이'라 불렀다. 겨울철 눈발을 다닐 때나 공놀이를 할 때는 목달이 이외에도 '두꺼비짚석'이라는 짚으로 만든 신을 신기도 하였다. 그 모양은 일반 짚신과 달리 발등을 완전히 덮었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올라온다.

(5) 머리 모양

일제강점기에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하이칼라' 머리를 하였다. 일제가 상투머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노인들 중 일부만이 상투를 틀었다. 일제강점기 말 양평읍내에는 이발소가 세 곳 있었지만¹⁹⁾ 가까운 곳에 이발소가 없는 마을의 사람들은 '바리깡'을 사서 집에서 머리를 깎거나 동네 사람 중 이발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발을 하였다. 강상면 화양2

18) 서종면 명달리에 사는 김○영(76세)은 동대문까지 도보로 왕래하였는데, 이틀간 '짚새기'〔짚신〕를 신고 갔다 오노라면 두 겹레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짚신이 빨리 닳았다고 하였다.

리 연양마을에 사는 김○수(71세)의 말을 따르면 동네에 이발하는 사람이 한국전쟁 이후 피난을 와 있어서 특별히 이발소를 차리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 앞애다 의자를 놓고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었으며, 근처 마을인 화양1리와 신화리에는 1960년 정도에 이발소가 생겼다고 한다. 양동면 제정리에 사는 이○옥(72세)은 동네사람 중에 '모곡'을 받고 이발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70대 제보자들의 처녀시절에는 머리를 길게 땋고 다니다가 저고리 길이까지 머리를 자르고 땋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무렵에 무릎까지 오는 '꼬리치마'도 많이 입고 다녔다. 결혼한 후에는 목덜미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뽕뽕 말아서 핀을 꽂고 다녔으며 이와 같은 머리 모양을 '까미'라고 불렀다. 대략 40년 전부터는 '불파마'를 하고 다녔는데 '불파마'란 기계에 머리를 말고 그 안에 숯불을 넣는 것을 말한다. '불파마'를 할 줄 아는 여자가 마을 안에 들어와서 머리를 했다. '불파마' 다음으로 여성들이 많이 하고 다닌 머리 형태가 지금의 파마 머리이다. 여자들의 머리 모양은 대략 이와 같은 유행을 타고 변화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늦게까지 쪽편 머리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 제보자 중 이○녀(강하면, 86세)는 아직도 쪽편 머리를 하고 있으며, 이○옥(양동면, 72세)은 자식들 다 키우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3. 의복의 제작 및 구입

양평지역에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할 옷감 마련을 위해 목화재배와 누에치기를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공출을 위해 목화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누에치기는 해방 이후에도 자가용이 아니라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목화는 보통 해가 잘 비치고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는 좋은 밭에 재배해야 하는데, 이런 밭을 '계상'이라고 불렀다. 목화밭은 보통 별도로 마련해두지만 목화만 재배하는 것은 아니어서 해마다 작황을 보아 목화 소출이 적은 경우에는 그 사이로 녹두 등을 심기도 했다. 또한 목화는 여러 해 같은 밭에 심으면 수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밭을 옮기면서 심어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글로탄다'고 했다.

목화는 보통 입하(5월 5~6일) 무렵에 파종한다. 목화씨를 파종하기 전에 먼저 숨이 붙어

19) 현재까지도 양평읍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엄○섭(79세)은 1943년에 아버지와 형의 도움을 받아 기술자를 데려다가 이발소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엄○섭은 1942년부터 먼 호적서기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월급이 21원이었는데 반해 쌀 한 가마의 가격은 25원이어서 공무원 생활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발소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엄○섭은 양평읍내에서 처음으로 목욕탕 영업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1960년 5·16이 나고 행정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입찰을 받아서 운영했다. 당시 목욕물은 자동차 পে타이어를 태워서 데웠다.

있는 목화씨를 소변에 담가 적신 다음 소똥에 버무린 후 물을 먹지 않은 재에 넣고 손으로 비비면 뒤엉켜 있던 목화씨들이 각각 따로 떨어지게 된다. 목화씨를 분노와 재로 버무리는 이유는 '재 몸에 붙은 거름으로 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음력 8~9월 정도 되면 피는 대로 목화솜을 따기 시작한다. 파종작업은 보통 남자들이 담당하지만, 밭을 매고 목화를 따는 일은 모두 여자들이 한다. 특히 목화를 따는 시기가 벼를 베는 때와 겹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 수는 없다.

목화에서 나온 솜과 실은 옷과 이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목화 재배면적은 필요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김○수(강상면, 71세)는 다섯 식구가 이불솜과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200~300평 정도의 목화를 심어야 한다고 했다.

목화를 재배하지 않게 된 시기는 제보자마다 상이하지만 제보자의 대부분이 해방이 되면서부터 재배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일제의 공출로 의무적으로 목화를 재배해야 했던 사정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제 때 '명'[무명], 누에 등을 공출해갔다. 이를 피하기 위해 누에고치실을 산에 가서 불피워서 뽑았다. 검정고무신과 '광해인조'[강화인조]는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어야 살 수 있었다. 광목은 배급주지 않았다. (김○애, 용문면, 70세)

일제 때는 1단, 2단 하면서 배당을 주었다. 1단은 300평이고 2단은 600평인가 그랬다. 배당을 못 대면 목화깎데기라도 가지고 갔다. 배당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목단강 6개월 보낸다'고 해서 텃밭에 다른 것을 심고 싶어도 여쭙 수 없이 목화를 심어야 했다. 대동아 전쟁 마지막에는 칙첩데기, 광솔까지 공출로 가지고 갔다. 공출로 바쳐도 좋은 목화는 감추었다가 몰래 '명'을 지어서 입었다. 일본에서 목화 씨앗이 나왔는데 조선목화에 비해 목화타래가 굵다. 왜목화 심기 전에는 조선목화를 심었다.²⁰⁾ 당시에는 누에도 공출해 갔다. 텃밭에다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다섯 장씩 쳤는데, 강제로 누에를 쳤으나 목화는 그냥 공출해간 것에 반해 누에는 돈을 주고 사서 갔다. (이○근, 양동면, 83세)

대동아전쟁 때에는 목화를 공출해가고 인조견이나 광목을 배급받았는데, 1년에 서너 차례 배급 나오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받을 사람을 정했다. 한 번에 5~6집만 배급받을 수 있었고 5~6마를 준다. (김○수, 강상면, 71세)

20) 권태익(1988)은 일제의 조선에서의 면화재배정책은 육지면 재배확장정책으로 집약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정책은 세 시기(1912~1918년, 1919~1932년, 1933~)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주로 전라, 경상, 충청 삼남지방에서 행해졌고 경기, 황해, 평안도는 재래면 경작 장려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의 제보는 재래면이 아닌 종자가 일제에 의해서 보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평지역에서도 육지면의 보급이 이루어졌는지는 앞으로의 조사에서 좀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목화를 재배했다는 제보자도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길쌈을 하지 않은 이후에도 이불솜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화를 재배하였다. 심○선(지제면, 79세)은 나이 50에 딸을 시집보냈는데 이불을 만들어 보내기 위해 이때까지 목화를 재배했다고 한다. 조○현(용문면, 68세)의 집에서도 대략 50년 전까지는 길쌈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불솜 때문에 목화를 재배하였다고 했다.

단 목화는 씨아로 씨를 뺀 후 활로 솜을 땀으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면송이찌 솜틀집에 가지고 가서 솜을 타왔다. 솜틀집은 보통 면에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제면에 사는 심○선(79세)은 용문과 지평에 솜틀집이 하나씩 있어서 그곳을 이용했으며 서종면에서는 수입리 비선말에 있는 솜틀질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반면 강상면에 사는 김○수(71세)의 말에 따르면 동네마다 솜틀집이 있었으며, 값은 돈으로 지불하였다고 한다. 한편 입었던 옷이나 이불 속에 있었던 솜을 다시 탈 때도 솜틀집을 이용했다.

씨를 뺀 목화솜은 다듬잇대에 올려놓은 다음 수숫대를 놓고 손으로 밀어서 팔꿈치 길이만큼 '고추[고치]'를 만들고 이것을 물레에 놓고 실을 뽑는다. 물레질로 뽑은 실은 마당에 열두자 길이로 늘어놓은 다음 풀을 바르는데 이때 한쪽 끝에 말뚝을 세워 도투마리에 감고 왕겉불을 놓아 말린다. 도투마리에 감긴 실은 베틀에 얹어놓아 옷감을 짠다. 시골에서는 보통 길쌈을 대부분 할 줄 알았으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송이찌 길쌈을 할 줄 아는 집에 갔다주고, 짠 무명은 반반씩 나누어 갖거나 돈으로 그 값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수내[수나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대부분이 베틀질을 해본 경험이 몇 해 되지 않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베틀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만두게 된 시점은 대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라고 하였다. 심○선(지제면, 79세)은 시어머니는 베틀로 옷감을 짰으나 본인은 딱 한 번 길쌈을 해보았다고 했으며, 김○애(용문면, 70세)의 경우 시집와서 10년 동안은 길쌈을 했으나 43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집에서 옷감을 직접 짜지 않은 이후에도 대부분 장에서 옷감을 사다가 옷을 직접 만들어입었다. 옷감은 장에서 사왔으나 물을 들일 때 사용하는 물감이나 풀무, 실, 단추 등은 동네를 돌아다니는 '어리장사'에게서 구입하였다(제2장 유통과 장시 참조). 한편 양평읍내에는 일제시대에도 상설 포목점이 서너 군데 있었다.

옷은 손으로 지어 입다가 후에는 재봉틀을 많이 사용하였다. 심○선(지제면, 79세)은 손으로 옷을 지어 입다가 며느리가 시집온 이후에 재봉틀을 장만하였으나 본인은 사용하지 않고 며느리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양동면에 사는 이○옥(72세)의 경우는 주로 문막장에서 옷감을 사다가 옷을 지어 입었는데 손으로 옷을 지어 입다가 자식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인 약 40년 전부터 발틀을 사용하였다. 다른 제보자들보다 연령대가 10~20살 어린 이○숙(단월면, 51세)도 시집와서 손바느질로 옷을 지어 입었으며 시부모 한복도 만들어 보았는데 저고리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주로 바지와 치마만 만들었다. 이○숙이 결혼할 무렵에는

한복만 입었던 것은 아니며, 블라우스같이 새로 나온 옷들은 장에서 사다가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도 새로 나온 옷들은 장에서 사다 입기도 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게 된 시기를 제보자들이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옷을 만들어 입지 않으면서부터 여성들이 입는 외출복은 읍·면에 있는 양품점에서 맞추어서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도 잘사는 집에서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어 외출복으로 입기도 하였는데, 당시 양평읍내에는 양복점이 두 집 있었으며 용문에도 양복점이 있었다고 한다. 엄○섭(양평읍, 79세)의 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는 양복 한 벌에 쌀 두서너 가마 값이 들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집에 노적가리나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만이 양복을 입었다고 한다. 양복은 남자들이 직접 양복점에 가서 맞추어 입었다.

4. 의복 관리

빨래 세제로는 잿물, 빨랫비누, 양젓물 등을 사용하였다. 이 중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것은 잿물로서 콩짚이나 메밀짚, 산에서 베온 풀 등을 아궁이에서 태운 후 나온 재를 시루에 담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 내리면 붉은 물이 나오는데 이 물에 빨래를 삶으면 때가 잘 빠졌다. 제보자에 따라 이 잿물을 '짚잿물'이라 부르기도 하고 '상잿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잿물은 보통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옷을 빠는 데 사용하였다.

빨랫비누는 좋은 옷이나 때가 많이 묻은 곳에만 조금씩 묻혀서 사용하였다. 빨랫비누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어리장사'나 '광우리장사'에게서 샀는데(제2장 유통과 장시 참조) 김○애(용문면, 70세)의 말에 따르면 '콩 몇 뒷박씩을 쥐야 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었다.

양젓물은 장에서 사다가 사기그릇에 담아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다. 양젓물을 많이 섞으면 때가 잘 빠졌지만 비싼 편이어서 조금씩 풀어서 사용했다. 양젓물은 버를 짤 때 나오는 고운 가루인 등겨를 방앗간 같은 곳에서 얻어다가 같이 섞은 후 굳힌 다음에 두부 모양으로 잘라 빨랫비누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5. 맺음말

제보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본고에서 다루어진 양평지역의 의생활 모습은 대략 일제강점기 말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변화상에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양평지역의 의생활의 전반적인 양상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복

의 형태, 색, 옷감 면에서 다른 지역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거나 특이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시기는 대다수의 농가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길쌈을 하면서도 평상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목은 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구입해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역시 장에서 유통되는 면직물 이외의 다른 옷감들은 의례복이나 외출복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인조 같은 섬유는 평상복으로까지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각 가정에서의 의복의 소비는 완전한 형태의 자급자족적 생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의 옷감의 유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고급으로 받아들여지는 옷감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 의복의 경우는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본격적인 상품으로서 의복이 유통되는 것은 1960~7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의 형태 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의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부분적인 형태에서 개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복은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지위나 경제력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복은 신분 또는 계층을 나타내는 코드가 될 수 있다. 또한 의복이 가지는 상징적인 기능은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의생활 연구는 의생활 자체를 넘어서 한 사회의 신분이나 계급 질서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의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서 반상(班常)의 구별과 같은 신분적인 차이나 당색과 같은 집단의 차이를 쉽게 찾아낼 수 없었다. 이는 이 시기가 1894년 의제개혁 실시 이후 몇십 년이 지난 시점이며 신분질서가 동요되던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서양 복식이 들어와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가 제보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제보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과 같은 조사방법이나 과정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추후의 조사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식생활

1. 개 관

양평지역은 군 중앙의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뻗은 봉미산과 백운봉, 도일봉, 남동 도계의 성지봉 등이 솟아 대체로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한강이 양평군 남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 그 유역에 약간의 평지가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으로 양평지역에서는 논농사와 밭농사, 화전, 어로 등 여러 가지 생업이 행해졌으며(제1장 생업 참조) 일상음식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시음식에서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칠월 칠석에 해먹는 밀전에 김치나 배추 절인 것을 속으로 넣는 것은 특기할 점이다. 관혼상제례 음식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용어들이 조사되었다. 혼례에서 신부가 처음 친정으로 가는 근친 때 사돈끼리 떡, 엿, 고기, 술과 같은 음식을 주고받는데 이때 '사돈 음식 달아먹는다', '사돈의 음식은 저 울로 쟀다'고 하여 장만해 가는 음식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였다고 한다. 양평지역에서는 신부집에서 대례를 치르고 바로 신랑집으로 간 다음 사흘만에 신부집으로 오는 것을 '삼일도배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상례에서도 '하방미', '손 모두는 날', '반포(頒布)'와 같은 용어들이 조사되었다. '하방미'란 초상집에 점심으로 먹을 쌀을 가지고 가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손 모두는 날'이란 장사 전날 상여를 댈 사람의 수를 맞추는 것을 뜻하는데 반상이 구분되어서 양반들이 상여를 메지 않았을 때 상여꾼들에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누어주던 풍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 '반포'는 장사 전날과 소상, 대상 때 하는 것이었지만 새마을사업 이후로 없어져서 현재는 장사 전날 밤에만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풍습들이 양평 일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일상음식

1) 곡 류

양평지역에서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였으며 산간지역에서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밭농사의 경우 보통 보리, 콩 이모작을 많이 하였으며 이밖에 밀, 메밀, 조, 수수 등도 이모작으로 재배하였다. 화전에서는 보리, 콩 등도 심었으나 가장 많이 심은 것은 조였다(제1장 제1절 농업 참조). 따라서 산간지역에서는 특별한 의례가 아닌 한 일반인들이 쌀밥을 먹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며 이와 같은 곡식들을 주식으로 이용하였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과 저녁에는 밀을 빻아서 그 가루로 만든 국수나, 감자, 옥수수 따위로 끼니를 때웠다. 콩은 갈아서 콩국수나 콩죽을 만들어 먹었는데 콩죽은 들일을 할 때 새참으로도 먹었다. 호밀은 주로 사료로 사용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질 때 이것으로 수제비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보리로논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는데, 보리쌀로 만든 막걸리는 목에 걸려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퍼서 먹었으며 겨울에는 데워서 먹었다.

2) 어류·패류

남한강과 흑천·신내천과 같은 지류에서는 어로활동도 이루어졌으나 전문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적었으며 강에서 생선이나 조개류 등을 잡는 일은 주로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제1장 제3절 어로 참조). 이 일대에서 잡히는 생선으로는 잉어, 붕어, 누치, 매킨, 뱀장어, 쏘가리, 미꾸라지, '그렁채'(빠가사리보다 머리가 작고 몸통이 크다), '빠가사리', '쌔뚝재', '뽕가루' 등이 있었으며 게, 가재, '달팽이'[다슬기], 우렁이, 말조개, 비단조개 등도 있었다. 이 중 송사리나 가재 등은 상류지역에서 많이 잡혔다고 한다. 잡아온 생선은 회를 치거나 조리거나 굽거나 해서 먹었다. 전문적으로 낚시를 했던 김○철(강상면 교평2리, 81세)은 자신이 젊었을 때는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기는 하였지만 매운탕은 없었으며 그 이유는 양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층에서는 매운탕도 만들어 먹었으며 그 재료로 주로 쏘가리나 '뽕가루' 등을 썼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양평지역에서는 생선을 이용해서 어죽을 끓여먹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체보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정○묵(양서면 양수리, 51세)은 '죽탕'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생선, 고추장, 쌀, 라면 등을 넣고 끓여서 먹었다고 하였다. 여럿이 함께 강에 나가 고기를 잡고 이와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면서 놀기도 하였으나, 팔당댐이 생긴 이후로는 장어, 게 등 강에서 잡히는 생선이나 조개류 등이 많이 없어졌으며 이와 같은 소일거리도 사라졌다고 한다.

3) 나무열매

산림이 많은 양평지역에서는 도토리를 이용한 음식만들기도 전승되고 있다. 도토리를 비롯한 나무열매 식량(食糧)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열매를 채집, 식량으로 삼았던 일은 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더구나 채집경제시대에 그것은 주식이나 다름없었다. 한반도와 제주도 선사시대 유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역사시대에도 나무 열매는 식량 구실을 톡톡히 하였던 모양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무주(茂朱) 풍속에, “도토리(橡)와 밤을 식량으로 삼는다(橡栗以爲天)”고 했고, 1679년(숙종 5)에 김성구(金聲九)는 『남천록(南遷錄)』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산에서 밤을

주워다 아침 저녁으로 연명하고 있다(拾山栗以延朝夕之命)”고 했다.

선사시대 나무열매 식량자원 출토지역은 온대림의 낙엽광엽수림대(落葉廣葉樹林帶)와 난대림의 상록광엽수림대(常綠廣葉樹林帶)에 쏠려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한반도 온대림지대의 한복판에 있다.

온대림지역에서는 참나무과의 도토리를 식량자원으로 삼았다. 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의 열매를 온통 도토리라고 하지만, 단월면 산음2리에서 만난 손씨(1937년생)는 도토리를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① 갈참나무도토리 : ‘구나무도토리’ 라고 한다.
- ② 졸참나무도토리 : ‘채롱도토리’ 라고 한다.
- ③ 물참나무도토리 : ‘물갈도토리’ 라고 한다.
- ④ 떡갈나무도토리 : ‘떡갈도토리’ 라고 한다.

가장 양지바른 곳에서 ①이 나오는데, 양지가 차차 기울어져 웅달진 곳에서는 ④가 나온다. 맛도 양지에서 음지로 하향곡선을 그린다. ①과 ②는 도토리묵감으로, 그리고 ③과 ④는 도토리쌀로 삼는다.

도토리 100g 속에는 40~60g의 전분이 들어 있다. 도토리에는 종류에 따라 미미하게 차이가 있지만 뽕은 맛의 타닌이 4~6% 섞여 있다. 그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식용으로 쓸 수 없으니, 수준 높은 타닌 제거기술이 뒤따라야 도토리는 식량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토리를 가공하여 만든 음식으로는 도토리묵과 도토리밥이 있는데, 단월면 산음2리에서 전승 사례를 살펴보자.

《도토리묵》

- ① 음력 9~10월중에 도토리를 따고 집으로 나른다.
- ② 날도토리에 버러지가 일지 않게 집에 오자마자 가마솥에서 한 시간쯤 삶아 말려 보관한다(도토리를 따고 2~3일이면 버러지가 일어난다).
- ③ 멧돌로 알갱이와 껍질을 분리한다(이런 일을 두고 ‘껍질 탄다’고 한다).
- ④ 알갱이를 멧돌에서 갈고, 체로 거르며 가루를 낸다.
- ⑤ 항아리에 가루를 붓고, 물을 담아 앙금을 앉히면, 가루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물은 뜬다. 가라앉은 것을 ‘알국’, 뜨물을 ‘웃국’ 이라고 한다.
- ⑥ 웃국을 떠내 버리고, 알국만으로 묵을 쑤는 동안 국자로 잘 저어준다.
- ⑦ 쑤어낸 묵을 상자에 담아 하룻밤 얼린다.
- ⑧ 두부처럼 잘라낸 묵을 물에 담그는데, 묵에서 노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물을 갈아준다.

〈도토리쌀〉

- ①, ②는 도토리묵의 ① ②과정과 같다.
- ③ 디딜방아에 뿜으며 껍질을 깐다.
- ④ 키에 놓아 까부르며 알갱이와 껍질을 구분한다.
- ⑤ 술에 도토리용수를 얹히고, 그 바깥으로 알갱이를 붓고 물을 담아 푹 삶는다. 이틀 동안 7~8회 용수 안의 물을 빼내고 다시 새 물을 부어 삶기를 반복하며 타닌을 제거한다. 도토리용수는 위아래로 철사를 둥그렇게 만들어 빼대를 세우고, 자잘한 산죽(山竹)을 그것에 붙이는 족족 나일론 줄로 엮어 만든 것이다.
- ⑥ 타닌이 제거된 도토리와 쌀을 3:1 비율로 섞어 밥을 짓거나 범벅을 만들어 먹는다.

도토리쌀은 간식이 아니라 저녁식사로 먹었다. 도토리는 이삼 일만 놓아두면 안에서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했으며 당장 먹지 않고 겨울이나 봄에 먹을 도토리는 껍질을 까서 말린 후 보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평지역의 일상 음식 중 부식과 김치류, 양념류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조사중 발견한 특이한 것은 양평군 동부지역에서는 김치를 '짬지'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배추김치는 그냥 '짬지'라고 하며 열무김치는 '열무짬지'라고 불렀다. 양평지역의 부식과 김치류, 양념류의 종류나 조리방법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세시음식

세시음식에서는 양평지역에서 조사된 세시 관련 음식들을 차례로 살핀 후 한 가정 내에서 만들어 먹는 한 해 동안의 세시음식을 사례로 들었다.

1)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귀밝이술, 묵은나물 등을 먹었다. 오곡밥은 찹쌀, 수수, 차조, 콩, 팥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 귀밝이술로는 막걸리에서 받은 맑은 술인 '약주술'을 썼지만 지금은 소주를 마신다. 보름에 먹는 묵은나물에는 취나물, 고사리, 고비, 호박 등이 있으며 달래순도 산에서 따다가 삶아서 무쳐먹었는데, 기름을 넣고 나물을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하고 마늘과 깨소금을 넣는다. 이밖에도 찰밥을 김이나 나물에 싸먹기도 하였다. 부럼은 '부스럼'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름철 풀밭에 다닐 때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말라는 뜻에서 보름날 아침에 호두, 밤을 깨물어 내버린다. 제보자에 따라 보름날뿐만 아니라 전날인 14일에도 아

침에는 만두국을, 저녁에는 묵은나물을 먹었고, 16일 저녁에는 새알을 넣은 팔죽을 먹고 귀신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팔죽을 조금씩 벽에 묻혔다고 한다. 강하면 항금리 항금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마을에서 '동화제'를 지냈는데 고사가 끝나고 동화에 불이 붙으면 젊은이들이 제물로 사용한 백설기를 조금씩 떼어서 달처럼 둥그랗게 뭉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이를 '달떡'이라 불렀다. '달떡'을 먹으면 운수대통하고 자식들을 잘 낳는다고 해서 서로들 이 떡을 먹으려고 하였다(제6장 세시풍속과 놀이 참조).

2) 2월 머슴날

음력 2월 초하루를 '머슴날'이라 하여 머슴들에게 떡해주는 날이었다고 하지만 양평지역에서는 집안식구 나이를 다 더한 수만큼의 송편을 만들어 먹었으며, 이 떡을 '나이떡'이라고 불렀다.

3) 3월 못자리 고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음력 3월 벼씨를 담글 때 벼를 남겨두었다가 방아에 찧어 팔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냈는데, 이를 '못자리고사'라 불렀다. 떡을 놓는 자리는 가을고사 지낼 때 놓는 자리와 같으며 고사를 지낸 뒤에는 떡을 돌리지 않고 집안식구들끼리만 먹었다(제7장 제1절 집안신앙 참조).

4) 칠월 칠석

김치나 배추 절인 것에 밀가루를 묻혀서 부쳐먹었는데 이를 '밀부치기' 또는 '밀전'이라고 했다.

5) 10월 고사

음력 초사흘이나 말날[戊午日]에는 집안마다 고사를 지냈다. 말날에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이날이 돈을 내서 신이 굿해주는 달처럼 좋은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굿탄맛잡이'라고 표현한다. 10월에 말날이 없는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날로 정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며, 10월에 초상이 나면 동짓달에 지내기도 한다. 이번 양평 조사 중에도 시월고사를 지내는 제보자들을 여럿 볼 수 있었는데, 이 중 몇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단월면 산음1리 고복 김○렬 집

음력 10월 초사흘이나 말날에 팔시루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는데, 귀찮으면 밥만 해서 올린다. 안방에는 '지석'[제석]을 모시고, 마루에는 성주, 부엌에는 조왕, 장독대에는 터주를 모신다. 이외에 우물(현재는 수돗가), 외양간의 '소구영'[소 구유] 머리, 대문간에도 고사를 지내

는데 모시는 신체는 따로 없다. 지석과 성주에는 팔시루떡을 시루째 놓고, 시루 위에 정화수, 막걸리 한 사발을 올리며, 다른 곳에는 잘라놓은 떡을 놓는다. 예전에는 쌀을 서 말 정도 해서 30호 가량 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지만 요즘에는 한 말만 하며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 시루째 썬다.

(2) 개군면 상자포리 김○희 집

매년 음력 10월 상달에 터주를 갈아주면서 고사를 지낸다. 이날에는 원새끼로 끈 금줄을 대문 앞에 쳐놓는다. 고사를 지내기 위해 떡시루 3개와 쌀막걸리, 북어, 초, 정화수를 준비하는데 요즘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맷쌀 5뿔박, 찹쌀 5뿔박으로 팔시루떡을 만들며 모두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사용한다. 무오일에 고사 지낼 때는 무시루떡을 준비한다. 2001년에는 10월에 말날이 없어서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마음에 드는 날을 정해서 고사를 지냈으며 맷쌀 시루 하나, 찹쌀 시루 하나, 맷쌀에 콩을 넣은 시루 하나를 방앗간에 주문하였다.

(3) 개군면 상자포리 박○영 집

음력 10월 상달중 말날에 고사를 지내며 이 달에 초상이 나면 지내지 못하고 동짓달에 지냈으나 이때는 하고 싶은 사람만 지냈다고 한다. 고사를 지내기 위해 콩, 팥 등을 넣고 시루를 찌는데, 팥을 넣는 의미는 부정을 가시기 위한 것이다. 동네사람과 나눠 먹기 위해서는 쌀을 한 말 정도 썼으나 집안에서만 먹으려면 서너 뿔박 정도만으로 떡을 찼다. 찐 떡은 조금씩 떼어다가 집안의 신들을 모시는데 안방-마루-부엌-터주, 터주-대문간-광-우물(현재는 수돗가에 놓는다) 순서로 놓는다. 할머니 때는 시루를 여러 개 찌서 안방과 마루에는 팥과 콩을 넣어 만든 것을 놓았으며, 장독대에는 백설기를 놓았다.

6) 세시음식

(1) 단월면 산음2리 이○기 집 세시음식

- 명일차사[설] : 추석 차례상과 같은 제물을 올리나 국 대신 떡국이 올라간다. 떡국에는 만두를 넣는데 이는 강원도 풍습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²¹⁾ 만두 안에는 무를 삶아 양념한 것과 다진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었지만 예전에는 고기를 넣지 않았다. 연세가 많은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갈 때는 공경한다는 의미로 냄비 같은 것에 떡국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가지고 갔다.
- 복날 :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는다.

21) 이 일대에서 먹는 메밀부침, 메밀전 역시 강원도 횡성과 비슷하다고 한다.

- 칠월 칠석 : 약 10년 전까지 김치나 배추 절인 것에 밀가루를 묻혀서 '밀부치기'[밀전]를 만들어 먹었다.
- 10월 고사떡 : 대청 마루와 부엌 등에 시루떡을 올렸다.
- 김장 : 요즘은 신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서 동지 지나고 나서 김장을 한다. 5~6명 정도가 품앗이로 하루에 한 짐씩 돌아가며 김치를 담근다. 재료는 대부분 각자 농사 지은 것으로 하며 젓갈 등은 공동구입한다.

(2) 양동면 삼산리 덕수 이○용 집 세시음식

한국전쟁 이전까지 정월 대보름, 2월 또는 3월의 한식,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중양절, 11월 동지에 차사(茶祀)를 올렸다. 10월에는 시제가 있었던 까닭에 별도로 차사를 올리지 않았으며, 차사가 없는 12월은 '씩은 달'이라 하였다. 차사의 제수로 대보름에는 약밥, 한식에는 생마, 단오에는 수리취떡, 유두에는 보리감주, 칠석에는 병립, 추석에는 송편, 중양절에는 무시루떡, 동지에는 팔죽을 올렸다고 한다. 차사를 지낸 뒤에는 빈 손으로 묘소를 찾아 절을 올리는 형식으로 성묘를 했으며 고조 이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가는 길이면 들러서 절을 올린다고 한다.

4. 관혼상제례 음식

1) 출생·백일·돌 음식

아이가 태어나면 '산밥'이라고 하여 애기 머리맡에 밥과 미역국을 놓는다. 사흘이 지나야 젖이 풀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에게는 꿀물을 먹이기도 하였다. 양동면에 사는 이○근(83세)은 아이 낳고 사흘째 되는 날에 아이 낳은 자리에 밥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을 상에 차려 올린 후 산모가 먹는다고 하였다.

백일상과 돌상은 집안 형편대로 차려주었는데 백일에는 주로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차려주었다. 이외에도 백설기, 수수떡과 함께 송편, 밥, 미역국 등을 차려주기도 하였으나 백일상을 특별히 차려주지 못하고 돌상만 차려준 경우도 있었다. 돌상으로는 백일상과 비슷하게 수수팥떡, 백설기, 밥과 미역국 등을 차려주었고 돈, 붓이나 연필, 무명실 등을 올려놓았다. 제보자에 따라서 수수팥떡과 백설기 이외에도 인절미나 송편 등을 올려놓기도 하였다. 수수팥떡은 열 살 되는 생일까지 차려주기도 하였는데, '명 길라'는 뜻에서 차려주는 것이다. 특히 첫 돌에 하는 수수팥떡은 삼신할머니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

2) 혼례 음식

함이 들어올 때 신부집에서는 시루떡을 준비해서 함을 받았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의 경우 대례를 올리는 아침에 함이 들어온 것과 달리 양동면 이○근(83세)의 경우 잔치 일 주일이 나 열흘 앞두고 함이 들어왔으며 이날에는 찰떡, 시루떡, 고기 등을 장만해서 대접했다고 하였다.

환갑이나 혼례와 같은 잔치에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쌀 서 말로 떡을 해가거나 술 한 말, 국수 등을 품앗이로 주었다. 이때 가져가는 떡은 빵과 비슷한 '진편', 팔시루떡인 편, 계피떡, 인절미 네 종류였으며, 국수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대례를 올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밀이나 메밀로 만든 국수장국을 대접했는데, 국수는 장에 가서 눌러오거나 집에서 틀로 눌러서 만들었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린 후 당일로 신랑집으로 왔는데, 신랑집에 와서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시어른들께 폐백을 올렸다. 사당이 없는 집에서도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사당차례'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안방이나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방에서 지냈다. 이때 상은 일반 제사상과 동일하게 차렸다는 제보자도 있었으나 청운면 다대리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북어포와 맑은 술, 찹쌀, 삼색실과를 올렸으나 나물은 올리지 않았으며 신주나 지방도 없었다고 하였다. 폐백상은 친정에서 보내며 밤, 대추, 꾸민 닭, 술 등을 올렸으며 닭 대신 용떡을 올리기도 하였다. 용떡은 흰떡을 둥글게 감은 것으로서 대추를 박아 주발에 담는다.

신부가 처음 친정으로 가는 근친 때는 시댁에서 '동그리'에 담은 엿과 떡, 고기, 술 등을 보냈다. 동네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엿은 몇 마 고아서 갔으며 떡은 인절미나 흰떡을 보냈다. 잘사는 집에서는 돼지 한 '장기'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 음식들을 소에 싣고 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돈집에 보내는 음식을 '채반'이라고 부르는 제보자도 있었으나 '가례 폐백'이나 '폐백차례'라고 부르는 제보자도 있었으며 음식들을 나누는 것을 '근친 태운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양평지역에서는 신부집에서 대례를 치르고 바로 신랑집으로 온 다음 사흘 만에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삼일도배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신부는 대례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시부모 아침을 해드리고 나서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 가지고 가는 음식을 '삼일도배기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때 친정에서도 이와 같은 음식들을 장만해서 보냈는데 '사돈 음식 달아먹는다', '사돈의 음식은 저울로 잰다'고 하여 보통 시댁에서 보낸 것과 똑같이 해갔다.

3) 상례 음식

상이 나면 친지들과 이웃들이 품앗이로 쌀, 술 등을 가지고 갔으며 편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이때 가지고 가는 술은 혼례 때 품앗이로 가지고 가는 술의 양보다 많았다고 한다. 상가

에서는 술이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상이 나자마자 술을 담가 장을 치르기 전까지 술이 익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이 난 첫날 초상집에서는 팔죽을 먹고,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팔밥을 먹기 때문에 특히 상이 나자마자 품앗이로 가지고 가는 음식은 팔죽이었다. 초상집에 점심으로 먹을 쌀을 가지고 가는 것을 '하방미'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상가에서는 김치, 두부, 다시마, 북어를 넣고 쌀가루를 풀어 걸죽하게 만든 국을 먹었는데 이 국을 '염푸국'이라 불렀다.²²⁾ 또는 무를 넣고 끓인 국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요즘에는 대부분 육개장을 끓여서 대접한다.

성복을 하기 전까지 상청에는 포와 잔만 놓고 조상을 받는다. 성복을 할 때는 마당에 명석을 깔고 냉수와 함께 '케떡'(커떡)을 놓은 다음 절을 하면서 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안으로 들어가 성복제사를 올린다. '케떡'이란 팔고물로 커를 낸 시루떡을 말한다.

장사 전날밤은 '손 모두는 날'이라고 하여 상청에 차린 음식을 밥샘하는 손님들에게 '반포'(頒布)한다. '손 모두는 날'이란 장사 전날 상여를 멜 사람의 수를 맞추는 것을 뜻하는데 반상이 구분되어서 양반들이 상여를 메지 않았을 때 상여꾼들에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누어주던 풍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 '반포'는 장사 전날과 소상, 대상 때 하는 것이었지만 새마을사업 이후로 없어져서 현재는 장사 전날밤에만 행해지고 있다.

상식은 마루에 손없는 방향으로 차리며 상식으로 올리는 음식은 집안 형편에 따라 다르나 주(맑은술), 과(삼색실과), 포(북어포)는 필수로 올린다. 상식은 삼우제까지만 올린다.

4) 제례 음식

제례음식은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민속분야 조사팀'에서 조사한 여러 집안의 제사상차림 중(제4장 제3절 관혼상제 참조)에서 조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된 몇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5) 각 집안 사례

(1) 양서면 청계리 청주 한씨 기제사

양서면 청계리 반월형마을 청주 한씨 9대 종손 한기창 집은 일대에서는 아식도 벽감사당을 두고 조상 위패를 모시고 있는 유일한 집이다. 2002년 1월 9일 밤에 그 집 조부(1878~1958)의 기제사가 있었다. 조부의 기일은 다음날인 음력 11월 26일이다.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이 집의 종부는 다식판으로 직접 다식을 만드는 등 제물마련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제물의 조리방식과 진설방식을 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밥은 옆으로 긴 육각형 모양으로 고이기 편하게 친다. 밥을 치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담당

22) 양서면 대야동에서는 대동회일에도 이 국을 먹었다(제5장 제2절 동회와 동계 참조).



양서면 청계리 청주 한씨 기제사 진설도



양서면 청계리 청주 한씨 기제사 상차림 ①



양서면 청계리 청주 한씨 기제사 다식 만들기



양서면 청계리 청주 한씨 기제사 상차림 ②

한다. 밤이 없을 경우는 황를을 올리는데, 이는 밤을 통째로 말린 후 껍질을 벗긴 것이다. 배는 위 아래를 자른 후 전체적으로 껍질을 깎아서 올린다. 산자는 작은 크기의 동그란 뽕튀기에 쌀 튀긴 것을 붙여서 만든다. 다식은 송화다식, 깨다식, 쌀다식 세 가지를 올리는데, 각각 노란색, 검은색, 미색을 띤다. 진설할 때는 한 줄에 여덟 개씩 놓으며 전체적으로 송화다식과 깨다식이 사선이 되게 둘러쌓는다. 과줄은 밀가루로 네모나게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다. 진설할 때는 한 줄에 다섯 개씩 놓는다. 사과와 위와 아래만 잘라서 놓는다. 식혜는 밥알만을 건져 작은 종지에 담고 그 위에 길게 썬 대추를 놓아 눈을 박는다.

포는 북어포를 사용하는데 머리와 꼬리를 치고 갈라놓은 쪽이 위로 오도록 놓는다. 조기는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칼집을 넣어 찢은 것을 올린다. 위에 파와 계란지단을 올려 장식한다. 나물로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를 올린다. 침체는 무로 만든 동치미를 올린다.

갈랍은 동태포에 계란과 밀가루를 묻혀서 부친다. 육적과 어적과 계적은 하나의 제기 위에 같이 올리는데, 가장 밑에는 육적을 놓고 그 위에 어적과 계적을 차례로 쌓아놓는다. 육적은 쇠고기를 구워 그 위에 파와 계란 지단, 실고추를 얹었으며, 어적으로는 북어 세 마리를 올리며 파와 계란 지단, 실고추로 장식한다. 계적은 머리를 자른 닭을 삶은 후 통째로 찢어서 올려놓는데 다른 적과 마찬가지로 장식한다. 누름적은 밀가루를 파전 크기만큼 동그랗게 두른 다음, 그 위에 다시마 한 줄, 김치 한 줄, 파 한 줄을 놓고 전을 지진다. 이를 제기에 올릴 때는 테두리의 둥근 부분을 잘라 사각형으로 만들고, 다시 사각의 모를 죽여 모양을 만든다. 청포묵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원래 두부를 지져서 올렸지만 가족들이 잘 먹지 않아 묵으로 대신하였다.

면 자리에는 원래 국수를 밀어서 올려야 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대신 누름적을 말아서 찢은 후 면을 만들어 올린다. 탕은 북어와 무, 다시마, 간장을 넣어서 만든다. 원래 북어가 아니라 쇠고기를 넣었지만 가족들이 잘 먹지 않아 북어를 넣어 탕을 준비한다. 소량의 물에 간장을 넣고 끓여서 빨갛게 되면 여기에 북어와 다시마를 넣고 고아서 만든다. 조청으로는 멀건 조청과 된 조청을 올린다.

인절미는 찹쌀을 찌서 찢어서 만든다. 녹두고물은 녹두 기피한 것을 삶아서 뜸을 들인 후 소금과 설탕을 넣고 주걱으로 으깬다. 이때 곱게 만들려면 '올갱이'에 내린다. 찹쌀 찢은 것을 퍼서 눌러서 녹두를 묻히면 인절미가 완성된다. 진설할 때는 다섯 컵을 쌓아 올린다.

이밖에 술은 주전자에 담아 준비한다. 진다(進茶)는 차 대신 송농을 올렸다.

(2) 양서면 청계리 달성 서씨 시제

2001년 11월 25일 양서면 청계리 반월형마을 달성 서씨 재실 청계사(淸溪祠)에서 있었던 시제 음식은 참사자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에 국, 우측에 매, 가운데 적을 올린다. 적은 초헌 때 육, 계, 어적을 합쳐서 올린다. 우측에는 편을 놓는다. 과일은 홍동백서순으로 좌측부터



양서면 청계리 달성 서씨 시제 진설도

밤, 산자, 약과, 배, 수박, 감, 귤, 사과, 대추를 놓고 가운데 수박을 놓았다. 자세한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떡은 시루떡을 7켜 올리며 두부전 역시 7줄로 놓는다. 식혜는 국물을 빼고 건져서 대추를 썰어 그 위에 얹어놓는다. 망과류는 옥춘이라고 부른다. 밤은 껍질을 치고 올린다. 제사상 옆에 따로 육적만 두었는데 원래는 상 위에 올리는 것이나 양이 너무 많아서 따로 뺀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한 자 정도의 높이로 제수를 쌓아올렸으며 제사 후 참례한 남자에게 모든 제수 음식을 한 점씩이라도 떼어서 '식지'(질긴 종이)에 싸서 나누어주었는데 이를 '봉성[봉송] 나누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반 자 정도의 높이로 쌓을 만큼만 제수 음식을 준비한다.

2001년도 시제 제수 음식은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준비하였다. 제사 예산은 보통 50만 원선에서 책정되나 이번에는 약 70만 원 정도가 들었다. 제사비용은 참례자들에게 성의껏 부조를 받아서 마련한다. 재실 앞의 생활공간은 제사준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거한다. 본래는 묘지기를 위한 공간이나 3년 전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부터는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일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기거하고 제사준비를 한다. 이번의 시제준비는 서○석의 셋째 계수가 담당했으며 주위에 사는 여형제의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고 한다. 제수 음식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사왔는데 예전에는 주로 양평장을 이용했다.

제수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일에는 사과, 배, 감, 대추, 밤을 비롯해서 귤, 수박을 구입했다. 수박은 제철과일이 아니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철과일을 올리는 자리에 올렸다. 그밖에 북어포와 다시마 등을 구입했다. 22일에는 멸치, 연근 등 음복할 때 먹을 마른반찬을 구입했으며 물김치를 담았다. 물김치는 매년 담는다. 23일에는 적에 쓸 쇠고기, 두부, 조기를 장만하였다. 24일에는 제사상



양서면 청계리 달성 서씨 시제 상차림 ①



양서면 청계리 달성 서씨 시제 상차림 ②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씨 댁 추석 차례 상차림

에 올라갈 전을 부치고 적거리를 만들었다.

제사상에 올린 떡은 찹쌀로 만든 흰시루떡이며, 그 위에는 고명으로 팔과 녹두를 넣은 찹쌀 송편, 쑥을 넣어 부친 찹쌀전을 엮는다. 닭을 올릴 때는 통째로 삶아서 머리의 벼슬과 발은 잘라 내고 그 위에 계란으로 만든 지단을 엮는다.

진설할 때는 시제 상차림을 항상 기본으로 하며 일반 제사에도 동일하게 제수를 마련한다. 가짓수는 꼭 지키며, 양도 되도록 차이가 나지 않게 준비하나 형편에 따라 쇠고기를 돼지고기나 닭으로 대신하거나 조기 대신에 북어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추석 차례

제사는 김이선의 4대조, 큰집 조카들로부터는 5대조까지 모시며 설 명절 아침 9시경에 시작한다. 제수는 하루 전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장보는 일은 그 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여주장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고 한다. 장을 볼 때 제수비용은 아끼지 않는다. 음식준

비는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준비하고 남자들은 밤 치는 일 정도를 거든다. 진설과 헌작 등 제의절차는 남자들이 진행하고, 여자들은 갯물이나 국, 밥 등을 나르는 일만 한다.

과일은 '홍동백서'로 올린다. 사과와 위와 아래만 깎고, 배는 통째로 깎는다. 밤도 깎은 밤을 올리며, 감은 꽃감을 올린다. 이밖에도 제철과일로 포도도 올려놓았다. 그러나 복숭아와 같이 털이 있는 과일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병과류로는 약과, 다식, 산자, 젤리, 막과자를 올린다. 적으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쓰는데 닭고기는 통째로 삶아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올린다. 탕 역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삼탕으로 한다. 북어포는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뒤 올린다. 나물에는 가지나물, 숙주나물, 고사리나물 세 가지가 들어간다. 갈랍은 버섯에 녹두물과 계란을 묻혀서 부친다. 국은 본래는 쇠고기국을 올렸으나 며느리들이 잘 먹지 않아 북어국으로 바꿨다고 한다.

(4) 용문면 덕촌리 평양 조씨 집안 제사

용문면 덕촌리 평양 조씨 집안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조리방법과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 메, 갯 : 기제사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상에 같이 차려서 두 그릇씩 올려놓는다. 설에는 메 대신 떡국을 올리며,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 탕 : 기제사에는 단탕을 쓴다. 탕 건더기를 그릇에 담고 네 귀를 도려낸 다시마를 얹은 후 두부를 올려놓는다. 서원제사에는 원래 7탕을 썼으나 나중에는 5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3탕을 쓴다. 각각 다시마 위에 소갈비, 두부, 북어를 얹어놓는다.
- 포 : 기제사에는 보통 북어포를 쓰나 시제에는 대구포를 쓴다. 포는 주둥이와 꼬리를 조금 잘라내고 젓혀놓는다.
- 편 : 시제 때는 네 가지 색의 편을 만들어서 색깔별로 층층이 올려놓는다. 흰색인 찰편이 제일 밑에 놓인다. 노란색인 녹두편은 겉에만 고물을 무친 것이며, 파란색인 당부편은 말린 당귀 잎사귀를 부순 후 채쳐서 떡가루에 섞어서 만든다. 흑색편은 계피로 만들며 역시 떡가루에 섞어서 만든다. 편 위에는 웃기·조약을 얹어놓으며, 문어다리를 가위로 오려서 편 주위를 두른다.
- 조기는 자반으로 올리며, 시제 때는 익히지 않은 잉어를 계란부침으로 싸서 올린다.
- 갈랍 : 소의 간이나 허파를 삶은 후 썰어서 계란을 풀어서 지진다.
- 미 : 두부를 꼭 짜서 주물러 티트린 다음 양념한 후에 계란 부친 것으로 싸는 것을 '미싼다'라고 한다.
- 웃기, 조약(주약) : 웃기는 찹쌀가루를 납작하게 빚은 후 꽃을 놓고 지진 것이며, 조약은 찹쌀가루를 송편처럼 만들어서 지진 것이다. 모두 떡 위에 얹어놓는다.
- 누루미 : '짬지'[김치]나 배추를 절여서 무친 것에 밀가루를 묻혀서 부친다.

- 식혜 : '질근물'[엿기름물)을 걸러서 놓아두면 앙금이 가라앉아서 말갱게 된다. 이 질근물을 덥힌 후 밥풀을 띄우고 5~6시간 담가두었다가 밥풀을 따로 건져낸다. 제사상에는 밥풀만 올리며, 그 위에 대추 세 개를 얹어 놓는다.

5. 기타

- 식생활과 관련된 민속으로 조사된 것 중 앞에서 빠진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음식을 새로 사오면 꼭 '장광'[장독대)에 놓고 고한 다음에 먹었다(양서면 부용리에서 채록).
-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 터고사를 지내고 팔시루떡을 해서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때 팔죽을 쑤기도 한다(단월면 산음1리 고복, 양서면 부용리에서 채록).
- 배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이른 봄이나 음력 10월 상달고사 지낼 때 뱃고사를 지냈다. 양서면 대심리에서 나룻배를 운영했던 최○현(61세)은 음력 2월 20일경에 뱃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머리, 북어, 시루팔떡, 막걸리 등을 제물로 올렸다고 하였다.

제3절 주생활

1. 개 관

양평군은 경기도의 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횡성군·원주시와 접한다. 서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 남쪽으로는 여주군과 접하여, 강원도 영서지방과 경기도의 경계지점에 자리한다.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본 이러한 구분은 자연지리적으로도 반영되어 양평군은 경기도와 강원도 서부 내륙산간 지역의 남서쪽 경계에 해당한다.

양평군의 민가는 지난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 소멸되고 없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몇몇 가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950~1960년대에 다시 지은 집들이다. 이때 건축된 가옥들은 평면계획이나 각 채의 배치에서 전통적인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 집에 비해서 규모를 키우고, 외양간이나 광 따위가 설비된 부속채를 넓히고, 사당을 대

신하여 조상의 신주를 모시던 마루의 벽감(壁龕)을 없애거나 새로운 건축재료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보인다.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고 가족구성원이 변하면서 민가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겪는다.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지피 해결하던 난방은 연탄을 거쳐 기름보일러, 나무보일러, 심야전기 등으로 바뀌었고, 음식조리에는 LPG를 사용하는 집이 늘었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와 개량기와로 변하였고, 부엌도 입식으로 개량하였으며, 안방과 옷방 사이의 벽을 없애고 안방을 넓게 쓰는 경우도 등장한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농기계의 도입으로 이를 수납할 수 있는 부속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양평지역 민가의 평면구조는 안채를 중심으로 했을 때 ㄱ자형과 역ㄱ자형(평면이 ㄱ자를 뒤집어 놓은 ㄱ자가 되는 구조), 一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²³⁾ ㄱ자형과 역ㄱ자형은 옷방-안방-부엌을 잇는 세로 축이 안방(옷방)-마루-건넌방(양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서는 건넌방을 '걸음방', 혹은 '거름방'이라 부른다)을 잇는 가로축과 꺾어서 만나는 구조이다. 이때 세로축이 오른쪽에 놓일 경우 ㄱ자형이며, 왼쪽에 놓이면 역ㄱ자형이 된다. 이는 '곱은자형'으로도 불리며, '꺾인 집'이라고도 한다.

규모가 작은 집일 경우 一자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때는 한쪽에 옷방과 건넌방이 세로로 놓이고, 그 옆으로 안방-부엌이 배치된다. ㄱ자형 집의 평면에서 마루가 없어진 형태인데, 마루가 놓일 경우 건넌방 옆으로 붙게 되어 겹집구조²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한편, 역ㄱ자형인 경우 사랑채는 대문간과 연결되어 一자형을 이루거나 ㄴ자형을 이루어 안채와 마주보며 배치된다. 때로는 안채에 덧붙여서 건넌방 옆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사랑방에서 바로 외부공간, 즉 집밖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굳이 대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사랑방의 뒷마루를 통해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충남·북, 강원 영서지방에서 보이는 '중부형' 민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 중의 하나이다.

23) 1999년에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양평군의 조사대상 민가 136채 중 역ㄱ자형은 76채(55.9%), ㄱ자형은 28채(20.6%), 一자형은 32채(23.5%)로 나타났다(한지만·이상해, 2001,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7권 9호, 참조).

24) 일자형으로 늘어진 두 채를 앞뒤로 붙인 것처럼 배치된 구조이다. 田자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이는 강원도 영동지방을 비롯해 북부지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양통집'이라고도 한다.

2. 각 실의 사용

1) 옷 방

옷방은 경기도 중에서도 양평군을 비롯한 동북부에서 특색 있게 나타나는 공간²⁵⁾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 남서부 지역의 민가 평면구조에서는 옷방을 찾아볼 수 없다. 옷방은 일반적으로 전통가옥의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는 안방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다. 한 칸 정도의 규모로 마루에서 직접 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방을 통해 출입하기도 한다.

옷방의 쓰임새는 주로 살림살이의 저장이다. 안살림에 필요한 살림도구들을 넣어두는 공간이며, 명절이나 집안에서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만들거나 저장해 두는 곳이기도 하다. 방으로 쓰이는 경우는 주로 딸들이나 갓 시집온 새댁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안방에 딸린 아궁이의 고래를 통해 불을 지피기 때문에 옷방은 따뜻하게 데우기가 어렵고, 따라서 가족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살림살이를 저장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2) 벽 감

벽감(壁龕)은 '벽에 만든 감실'이라는 말로 사당 대신 조상의 위패를 모셔두는 장소이다. 별도의 사당채를 만들지 않은 경우, 마루의 벽 위쪽에 감실(龕室)을 만들어 위패를 그곳에 모신다. 제사를 지낼 때는 위패를 꺼내 모시는 경우도 있고, 벽감의 문을 연 채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또 벽감 대신 별도의 방을 '사당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도 몇몇 집에서 벽감과 사당방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집이 헐리면서 벽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상청(喪廳)으로 사용되는 곳을 양평군에서는 '고연'이라 부른다. 고연은 주로 사랑방이나 행랑채의 방을 사용하였는데, 건넌방을 쓰는 경우도 있다.

3) 부엌

부엌은 안방과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꺾여나온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여기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방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한다. 또한, 한켠에 장작 등 땔감을 저장하기도 한다. 특히 부뚜막 위로는 다락이 구성되는데, 안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물건을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안방 외에 건넌방에 구성되는 아궁이는 부엌 안에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한테부엌'이라 하는데, 부뚜막이 따로 설비되지 않고, 아궁이만 있는 것을 뜻한다.

난방설비는 나무를 때던 재래방식에서 점차 변화하였는데, 나무-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를 거쳐, 현재는 기름보일러, 나무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

25) 물론 옷방은 강원도 영서지방 일대와 충청남북도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나 모든 방의 난방을 바꾸지 않고, 주로 사용하는 안방의 난방만을 교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건넌방과 사랑방 등의 아궁이는 채래식 설비를 그대로 두어 두 가지 난방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방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 아궁이에는 벽을 쌓고 지붕을 덧대 나무를 저장하는 '낭구광[나뭇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다.

4) 안방물림

양평군에서는 갓 시집온 새댁은 주로 건넌방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장가는 아들 내외가 건넌방을 쓰고, 안방에서는 어머니와 딸들이 지내고, 사랑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지낸다. 그러다 부모가 나이 들면 살림살이를 넘겨받는데, 안방을 물려받는 시기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돌아가셨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한 규칙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집안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일 경우, 남녀의 공간사용이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딸들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 안방을 사용하고, 아들들은 건넌방에서 지내거나 아버지와 함께 사랑방에서 생활한다.

3. 신앙 및 의례

1) 가신신앙

집안 곳곳을 지키는 신에게 매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의례를 올리는데, 이를 '가을고사', 혹은 '터고사'라고 한다. 주로 '상달'이라고 하는 음력 10월에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무오(戊午)일을 가장 좋은 날로 여긴다.

안방에는 지석[제석], 마루에는 성주, 부엌에는 조왕, 장독대 뒤로 터주신과 업신이 있다고 여기며, 이외에 문과 외양간, 화장실, 광, 우물에도 지키는 신이 있으므로 매년 대접한다. 이때 올리는 제물은 팔시루떡과 정화수, 막걸리 등이며, 제석과 성주에는 시루째 올리고, 나머지에는 떡을 잘라 조각을 올려놓는다.

신앙이 점차 단순화되거나 간략해져서 여러 가신 중 신체(神體)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주나 터주, 업 정도이다. 성주는 마루의 상기둥이나 상량에 창호지를 네모로 접어 안에 쌀을 넣은 후 막걸리나 물을 사용해 붙여놓는다고 하였다. 한 집안의 가장을 지키는 신으로도 알려진 성주는 3년에 한 번씩 새롭게 모셔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때는 무당을 불러 크게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낸 다음, 성주를 봉안한다.

집터를 지키는 신으로 여기는 '터주'는 작은 항아리 안에 쌀이나 돈을 넣고, 그 위에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운 형태이다. 매년 터주의 주저리는 새것으로 갈고 항아리 안의 내용물

도 추수를 마친 후 새것으로 갈아 놓는다. 속담에 누구를 끔찍이 위할 때 편잔을 주는 말로, “터주 주저리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위해”라는 말이 전해지듯이 터주는 매우 신성시되었다.

역시 장독대 뒤에서 터주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엮’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된다. 양평군에서 엮은 주저리 형태로 나타나는데, 소나무 가지를 둥글게 쌓아올려 만든 것으로 지름이 약 1m에 달한다. 집안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저리 안에는 아무 것도 놓지 않은 상태로 비워둔다.

이처럼 가신들에게 올리는 것 외에 일년내내 잡귀의 범접을 막는 장치를 하기도 한다. 대문 양쪽이나 마루 기둥에 소의 코뚜레를 달아 놓는다거나 대문에 엄나무를 매달아 놓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모두 잡귀가 범접하지 말라는 뜻에서 해놓은 것으로, 소의 코뚜레와 엄나무가 쓰이는 용도와 모양을 통해 겁을 주어 잡귀를 쫓으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터고사, 집들이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나 이사하였을 때 지내는 고사를 ‘터고사’라고도 한다. 이때 지내는 고사는 가을고사 때 지내는 것과 이름도 같지만, 내용도 동일하여 집안 곳곳에 재물을 놓고 마을사람들을 불러 대접한다. 단지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특히 새로 짓는 경우에는 집터를 고를 때 창호지를 깔아 놓은 다음, 그 위에 돈과 시루떡, 돼지머리, 과일 등을 놓고 목수와 일꾼, 집주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사를 올린다. 이때 더러 무당을 불러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사한 경우에는 팔죽도 쑤는데, 이는 잡귀를 물리치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한다.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할 경우, 예전에는 특별한 선물이 없었지만 세제나 비누, 초, 성냥, 휴지 등을 가지고 찾아온다.

4. 민가의 사례

1) 민병달 가옥(양서면 부용리)

이 집은 지은 지 120년이 넘는 오래된 민가이다. 한국전쟁 때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폭격을 입지 않아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문간의 상량문에는 “光緒 五年 己卯 二月 二十六日 未時 入住上樑 龍龜”라고 기록되어, 1879년(고종 16)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안채는 이보다 더 오래 전에 지어졌다고 하니 조선 후기에 지어진 집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안채와 행랑채, 부엌과 창고 등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집은 안채와 행랑채로 이루어졌는데 안채는 ㄱ자형, 행랑채는 ㄴ자형 구조로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을 이룬다.



양서면 부용리 민병달 가옥 평면도



양서면 부용리 민병달 가옥 사랑채 전경

안채는 도리가 세 개인 삼랑집으로 동향으로 놓였으며, 모두 6칸으로 구성되었는데, 정면에서 볼 때 1칸 규모의 마루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쪽마루가 달린 건넌방(걸음방)이 1칸 있고, 오른쪽으로 옷방 1칸, 다시 옷방 아래쪽으로 안방 1칸 반, 부엌 1칸 반이 배치되었다.

옛 구조에서 달라진 점은 옷방과 안방을 합쳐 2칸 반의 방을 만들었으며, 안방 앞쪽에 마루를 덧대어 넓혔고, 원래 1칸 반이었던 부엌의 앞과 옆을 터서 늘렸다. 또 여닫이문이었던 안방문은 미닫이문으로 바꾸었고, 안방에서 부엌 쪽으로도 미닫이문을 달아 바로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부엌은 입식으로 바꾸었는데, 안방보다는 낮지만 바닥을 높였으며, 싱크대와 식탁, 찬장 등을 놓고, 밖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달았다. 마루는 우물마루이며, 마루 뒤쪽으로는 현재 여닫이문이 있는데, 원래 막힌 벽이었던 곳을 뚫고 달았다고 한다. 또한 우물마루는 그대로 두고 장마루로 덧댔는데, 마루 앞쪽에서부터 안방 앞까지 7자로 깎였다.

대문을 중심으로 ㄴ자형을 이루는 행랑채에는 남쪽으로 2칸 반의 사랑방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외양간과 창고가 배치되었다. 사랑방 앞으로는 외부로 통하는 툇마루가 놓였으며 각각 1칸, 1칸 반의 방이 있고, 다락이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 밖 다락 아래쪽에는 함실아궁이가 놓였는데 현재는 그곳에 벽을 쌓아 저장공간으로 만들었다. 대문 북서쪽의 외양간과 창고는 각각 1칸씩의 규모로 모두 2칸을 이룬다. 예전에는 소를 길렀으나, 현재는 외양간도 모두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장독대는 창고와 건넌방 사이 마당 한 구석에 놓였고, 부엌 앞으로는 창고와 빨감저장 장소로 쓰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세웠다. 화장실은 사랑채 밖에 외부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지붕만 얹어서 히슬했던 것을 헐고 새로 지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었는데, 원래 초가였던 것을 새마을운동 때 바꾸었다고 한다. 또한, 난방은 나무-연탄아궁이-기름보일러의 순서로 변화하다 3년 전부터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내외가 주로 기거하는 안방의 난방에만 사용하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넌방과 사랑방은 여전히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방식이다.

이 집에서는 현재 민병달 부부만 생활하는데, 주로 안방에서만 기거한다. 예전에 민병달이 어렸을 때에는 조부모가 사랑채에서 기거하였고, 조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가 사랑채를 이어받아 생활하였다. 또 자녀들은 안방과 옷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건넌방이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담아두는 방으로만 쓰였는데, 이는 옷방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제사는 마루에서 지내며, 상청은 사랑방이나 건넌방에 두었다. 또한 타작 등 농사일은 사랑채 앞의 외부에 연결된 마당에서 하였다.

2) 한기창 가옥(양서면 청계리)

이 집은 현재 소유주의 조부가 원래 서종면에 있던 집을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1906년에 이곳으로 옮겨지었다고 하며, 이때 대들보가 너무 무거워 사람들이 짊어지고 오기 편하게



양서면 청계리 한기창 가옥 평면도

상, 하로 나누어 운반하였다고 한다. 현재 마루의 대들보에는 둘로 나뉜 흔적이 남아 있다.

ㄱ자형 안채와 안채에 붙은 一자형 사랑채, 一자형 행랑채로 구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룬다. 안채는 남동향으로 놓였으며, 안채의 정면에서 볼 때 마루를 기준으로 오른 쪽에 옷방과 안방, 부엌이 놓이고, 왼쪽에 건넌방(걸음방)이 놓였다. 건넌방 옆으로 사랑채가 연결되었는데, 사랑방이 2칸 반 크기로 넓고 다락이 있으며, 사랑부엌이 있다. 마당 건너 편으로는 행랑채가 있는데, 여기에는 창고와 외양간(현재는 농기구 보관창고), 뜰아랫방, 부엌, 화장실 등이 있다.

안채에서는 원래 나누어졌던 옷방 1칸과 안방 1칸 반 사이의 벽을 터서 안방을 넓히고 옷방 쪽으로 장농을 두어 다시 두 개의 방으로 나누었다. 현재 옷방은 안살림에 필요한 살림 도구들을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되며, 안방은 한기창 내외가 사용한다. 1칸 반 정도의 안방에는 부엌 쪽으로 다락을 두어 수납공간을 만들었는데, 다락이 부엌 아궁이 위로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다. 안방 앞의 뒷마루에는 찬장과 가스렌지 등을 놓고 조리를 하였는데, 이곳이 입식부

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각종 음식을 만들며, 제사음식 또한 여기에서 만든다. 부엌에는 원래 아궁이가 세 개가 놓였는데, 현재는 그곳에 보일러 설비를 놓아 한 개의 아궁이만 사용한다.

가로 2칸, 세로 1칸 반 넓이의 마루는 우물마루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그릇을 담아 놓은 장식장과 뒤주, 장농 등이 놓였으며, 조상의 위패를 모신 벽감이 있다. 한편, 마당 쪽 기둥에는 잡귀의 범접을 막기 위해 코뚜레를 매달아 놓았다. 건넌방 앞으로는 사랑방으로 통하는 뒷마루를 놓았는데, 널마루를 깔고, 마루의 바닥 높이보다 한 단 높게 구성하였다. 이는 건넌방에 불을 때기 위한 아궁이를 뒷마루 아래에 두었기 때문인데, 높이 치솟는 아궁이의 화기를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건넌방은 마루 왼쪽에 있는 방인데, 1칸 반 규모로 이 집 할머니가 시집와서 사용하던 곳이다. 대청 쪽으로 여닫이문이 있고, 앞 뒷마루 쪽으로도 미세기문에 덧문을 달았다.

사랑방은 가로 1칸, 세로 2칸 반의 넓은 방으로 이 집 할머니가 시집왔을 때 조부가 기거하던 곳이라고 한다. 한기창에 의하면 어렸을 적에는 조부와 함께 이 방을 썼다고 한다. 사랑방 왼쪽으로는 뒷마루를 두었는데, 현재는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에서 바로 외부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방에서 뒷마루로 향하는 문은 미세기문에 덧문을 단 것파 여닫이문 두 개가 있다. 또 부엌 쪽으로는 다락을 두었다. 사랑부엌은 현재 부엌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한다. 난방으로 가스보일러와 나무를 때는 채래식 아궁이 둘 다 이용한다.

안채 뒤쪽으로는 장독대가 있으며, 뒷쪽으로 터줏가리도 모셔놓았다. 행랑채에 있는 뜰아랫방은 상청으로 이용하던 곳인데, 이를 '고연'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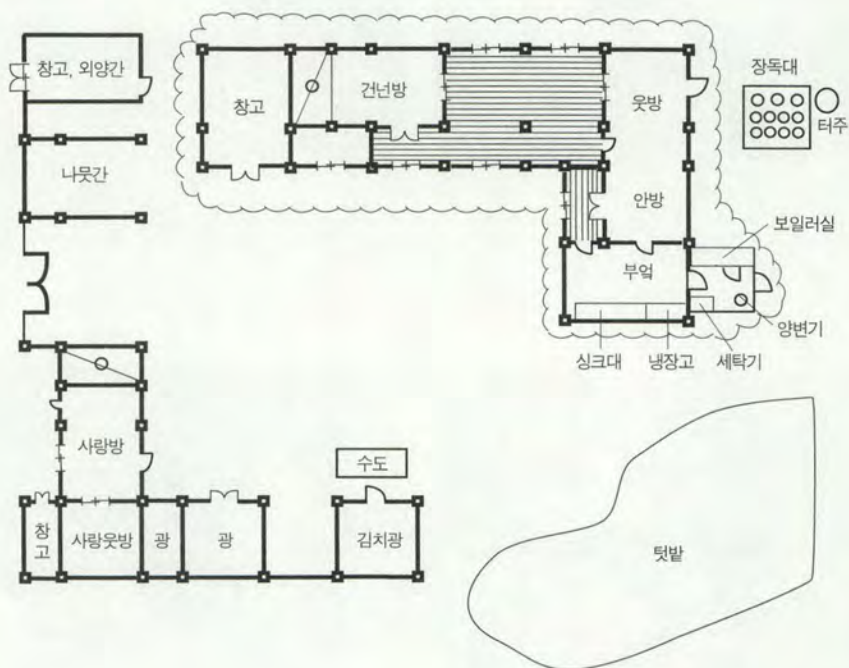
화장실은 행랑채 쪽에 딸린 곳 하나와 담 밖 사랑방 뒤편에 하나가 있어 모두 두 곳이다. 행랑채의 화장실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했으며, 사랑 쪽 화장실은 남자들이 사용했다. 두 곳 다 채래식 설비이다.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었다.

3) 임중현 가옥(강상면 세월리)

이 집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에 지어진 집이다. 마루에 남아 있는 상량문에는 “龍檀紀四千二百九十年 丁酉 六月六日 巴西 立柱上樑 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근에서 집을 잘 짓기로 유명했던 목수가 지었다고 하는데, 원래 심씨네가 살았던 집을 현재의 소유주인 임중현이 사서 들어왔다고 한다.

이곳 역시 이전의 ‘썩어진 집’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문 안쪽이 약 280평, 바깥마당이 약 90평 정도 되는 넓은 집이다.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행랑채가 마주보도록 구성되어 ㄷ자형을 이룬다.

안채는 옷방, 안방, 마루, 건넌방, 부엌,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는 2칸 반의 안방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평면도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안채 전경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안채 상량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행랑채 상량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행랑채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행랑채 아궁이

과 1칸의 옷방을 하나로 터서 안방을 넓게 사용하였다. 예전에 옷방은 창고처럼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마루는 소나무를 재료로 한 널마루였다. 마루 뒤쪽으로 만든 문은 채광을 위해 두었다. 마루의 상량문에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성주가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집을 지은 사람(집주인)의 생년 등을 한지에 쓰고 쌀을 담아서 북어와 함께 걸어두었는데 쏘아져서 부서진 뒤에는 새로 달지 않아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건넌방은 1칸 반 규모이며 부엌 쪽으로 다락이 구성되어 있다. 다락에는 주로 안살림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보관하였는데, 그릇 종류와 바가지도 이곳에 두었다고 한다.

행랑채는 이사를 온 후 지은 것인데, 상량문에 1972년에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문간을 중심으로 나뭇간이 위쪽으로 배치되었고, 그 위로 창고와 외양간으로 쓰이는 칸을 새로 지어서 이었다. 대문간 아래쪽으로는 사랑방과 사랑옷방이 있는데, 이 방들에 불을 지피기 위한 아궁이가 대문간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역시 다락이 구성되었다. 외부 쪽으로 텃마루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문을 통해 바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 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와 나무를 때는 재래식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기름보일러는 부엌과 안방의 난방에만 사용하며, 건넌방과 사랑방의 난방은 재래식으로 한다.

예전에는 마루에서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서울 아들네로 제사권을 이양했다.

또한 이 집에서는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낸다. 딱히 날을 받지는 않고 하고 싶은 날짜에 하는데, 재물로는 팔시루떡과 통북어를 준비한다. 안방-마루대청(성주)-터

주-외양간-우물-대문간순으로 고사를 올리는데, 안방에만 시루째 제물을 올리고, 마루부터는 조금씩 떼어서 둔다. 떡은 예전에는 모판에 담아 동네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현재 터주를 모시고 있는데 안에 쌀과 동전을 넣은 향아리를 놓고, 그 위에 터줏가리를 세운 형태이다. 터주향아리의 쌀은 매년 터주를 새로 갈 때 태운다.



강상면 세월리 임중현 가옥 잠독대와 터줏가리

4) 김이선 가옥(지제면 일신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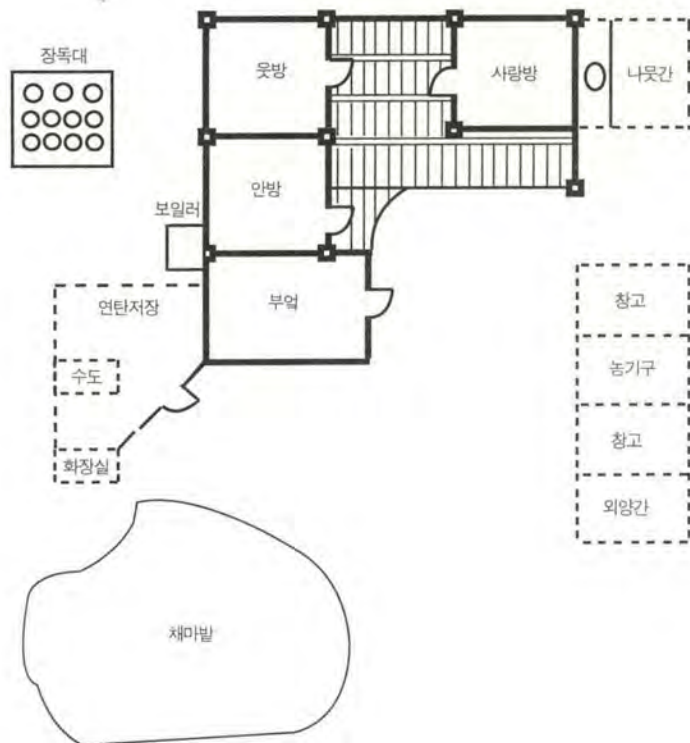
이 집은 1963년에 지은 집이다. 마루의 상량문에는 “龍 癸卯 四月十日 午後五時 立柱上樑 巽坐乾向 辛未生 成造運…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이선은 양동면 단석리에서 5대째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와 집을 짓고 살았다. 나중에 새로 지은 행랑채를 제외하면, 원래는 안채만으로 구성된 규모가 작은 집이다.

안채는 역7자형으로 옷방과 안방, 마루, 사랑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옷방과 안방, 사랑방은 각각 1칸씩이며, 마루도 1칸 규모에 뒷마루를 내었다. 건넌방의 위치를 사랑방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별채의 사랑방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방을 사용하는데, 남녀의 구별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꾸몄고, 옷방과 안방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마루에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옷방이 안방에 부속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 댁에서 옷방은 주로 아이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사용되었다.

부엌은 현재 입식으로 개조하고 넓혔으며, 부엌 뒤편으로는 연탄을 저장하는 곳과 수도시설, 화장실 등을 새로 지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재래식 아궁이를 함께 사용하는데, 안방과 옷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사랑방은 재래식 아궁이를 쓴다. 사랑방에 딸린 아궁이는 원래 별다른 시설이 없었으나 건물을 지어 한쪽에 장작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창고와 외양간, 농기구 보관 등을 위해 마당 오른쪽으로 4칸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었으며, 마당 앞으로는 채마밭을 두어 채소를 가꾸기도 한다.



지제면 일신3리 김이선 가옥 평면도



지제면 일신3리 김이선 가옥 입구



지제면 일신3리 김이선 가옥 상량문



지제면 일신3리 김이선 가옥 안채의 평사랑 구조

대문간에는 잡귀의 범접을 막는 엄나무를 걸어두었다. 이는 김이선이 직접 산에서 해 온 것으로, 상하거나 떨어지면 새것으로 바꾸어 다는데, 이 일은 남자들이 맡아서 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여자들이 맡는 것은 10월에 지내는 고사다. 이 데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준비하여 안방과 옷방, 마루, 우물, 대문간에 둔다. 안방과 마루에는 시루째 올리며 나머지는 떡을 썰어서 조금씩 두는데,

‘부자 되고 돈 들어오기’를 기원한다고 하며, 방에 둘 때는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성주를 받으러’ 갔다. 제물로 떡만 준비하는데, 무당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 정도의 비용이 든다. 성주는 마루에 모시는데 이때 복사나무나, 솔가지 등을 꺾어 함께 매달아 두며,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손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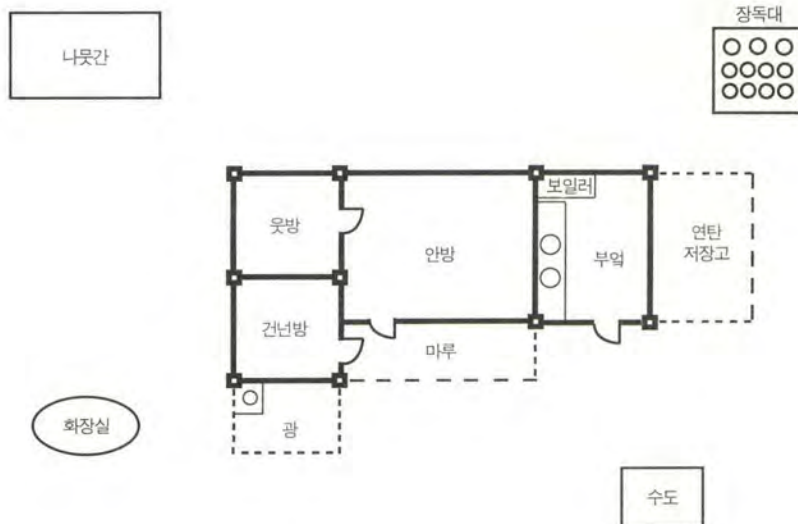


지제면 일신3리 김이선 가옥 입구에 매달아 놓은 엄나무 가지

5) 심상철 가옥(지제면 일신3리)

이 집은 약 6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인인 심상철은 이 집의 다섯 번째 주인으로 한국전쟁 이후 중앙선 복선화공사 때문에 양평에 왔다가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은 약 15년 전으로 당시 70만 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땅 주인은 마을 사람 중에 따로 있어 땅값으로 ‘텃도지’(1년에 쌀 두말 → 4만원, 그 전에는 고봉으로 한 말)를 낸다.

이 집은 소규모의 민가로 안채만 구성되었는데, 一자형 배치를 보인다. 옷방과 건넌방이 각각 한 칸씩으로 겹쳐서 배치되었지만, 오른쪽으로 안방과 부엌이 1칸 반 규모로 이어져 전



지제면 일신3리 심상철 가옥 평면도



지제면 일신3리 심상철 가옥 전경



지제면 일신3리 심상철 가옥 화장실



지제면 일신3리 심상철 가옥 화장실 내부



지제면 일신3리 심상철 가옥 부엌



지제면 일신3리 심상철 가옥의 흙벽돌로 쌓은 벽체

체적으로는 一자형을 이룬다. 마루가 구성되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소규모의 집에서 마루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 부엌과 화장실은 개조하지 않고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엌은 흙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체인 흙벽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화장실 역시 따로 배설물을 모아 두는 시설을 만들지 않고, 한쪽에 재를 쌓아두었다가 곧바로 처리하여 거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근래에 시멘트를 이용하여 높게 쌓은 마루를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새롭게 지었으며, 건넌방 앞으로 나무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부엌 옆으로는 담을 쌓지 않고 지붕만 덧대어 연탄 보관용 저장고를 만들었다.

가족은 심씨 부부와 두 명의 딸,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심씨 부부만 생활한다. 부

부는 주로 안방에서 기거하며 옷방은 아들방, 건넌방은 딸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자녀들이 외지로 떠났기 때문에 현재 자녀들 방으로 쓰던 곳에는 세간을 모아 두었다.

바로 전 주인이 초가지붕을 벗기고 슬레이트를 얹었고, 2000년에 심씨가 붉은색으로 지붕을 칠했다.

난방은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재래식 방법과 연탄보일러를 같이 사용한다. 연탄보일러는 안방에 설치되어 있고, 재래식 방법은 건넌방과 옷방을 데우는 데 쓰인다. 나무는 뒷산(조림목)에서 조림하고 남은 잡목이나 갈퀴나무 등을 이용한다.

이 집의 벽체는 흙벽돌을 쌓아 지었다. 흙벽돌은 산에서 퍼온 끈기 있는 진흙을 물에 개서 널빤지에 넣고 밟은 다음 모양을 만들어 빼고, 말려서 흙벽돌로 사용한다. 흙벽돌로 지으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이 일대의 집은 주로 5~6명이 가을에 짓는데, 양력 8월부터 흙을 퍼다 말린다. 나무는 여주제재소나 양평제재소에서 구해온 것을 썼다.

제4장 친족과 관혼상제*

제1절 성씨 분포와 동족촌락

양평군은 북한강을 낀 서종면과 양서면 서북쪽지역, 남한강변의 양평읍 및 강상·강하 지역, 그리고 옛 지평현 소속 5개면이 각기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인다. 앞의 두 지역은 과거 양근지역으로서 내륙의 지평현 지역과 구분되며, 양근지역은 북한강변과 남한강변으로 구분된다. 1908년 10월 14일 칙령 제69호로 양근과 지평 두 현이 행정적으로 합쳐진 이후에도 향교와 문화원 활동에서 보이듯 각기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종면은 과거 양주목에 포함된 바 있듯이 강 건너 양주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서면 부용리와 목왕리 일대는 골짜기를 따라 팔정승골, 구정곡(九政谷), 구정승골, 구정골, 구정벼랑, 구정배루 등의 다양한 이름처럼 9정승 3판사가 묻힌 곳으로 유명하다. 구정골이 포함되어 있는 산맥은 치악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용문산을 거쳐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끝자락으로 정기가 머무는 곳이어서 많은 정승들을 배출한 명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승을 배출한 명당과 정승이 묻힌 명당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조부 등 음덕을 내릴 수 있는 가까운 조상의 묘를 말한다. 또한 9명의 정승이 누구인지 확실한 답이 없는데, 1991년 간행된 『양평군지』에 따르면 9정승은 다음과 같다.

- 안동 김씨 낙포(洛圃) 김사형(金士衡, 1333~1407) : 좌의정·영의정 추증
- 평산 신씨 신희창(申孝昌, 1364~1440) : 좌의정 증직. 김사형 사위. 여흥 민씨 16세 계증(季曾) 부인 평산 신씨 증조(曾祖)

* 제4장은 오석민·김정미 집필임.

- 노정승(盧政丞, 盧思愼? 盧守愼? 이름 및 본관 미상)
- 광주 이씨 이민성(李民聖) : 영의정 증직
- 광주 이씨 이준경(李浚慶, 1499~1572) : 영의정. 이수정(李守貞, ?~1504)의 아들
- 광주 이씨 한음 이덕형(李德馨, 1561~1613) : 영의정. 이민성의 아들
- 여흥 민씨 민희(閔熙, 1614~1687) : 좌의정
- 여흥 민씨 민암(閔黯, 1636~1694) : 우의정
- 동래 정씨 정창손(鄭昌孫, 1402~1487) : 영의정

그런데 정창손 묘는 1960년대에 서울 암사동에서, 민희 묘는 1984년에 서종면 노루고개에서 이장한 것이다. 민암 묘가 있는 부용리 화개산은 구정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또 여기에 들지 않은 인물 중에는 이수정(李守貞, ?~1504, 본 광주), 유정승(柳政丞), 허정승(許政丞) 등이 있다. 음덕으로 따지면 영의정 이준경의 아버지 이수정(李守貞)의 묘와 영의정 이덕형의 아버지 이민성(李民聖)의 묘가 명당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정골은 그 자체로 아홉 정승을 찾는 것보다는 아홉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그만큼 많은 정승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

다음은 성씨의 입향과 분포를 면별로 살핀 것인데, 미처 조사하지 못한 사항들은 1991년 간행된 『양평군지』(제2장 인문지리 중 제1절 성씨분포현황 24~87쪽) 등에서 보완하였다.

1. 성씨의 입향과 분포

1) 양평읍

양평읍에는 과거 읍치가 되기 이전부터 남양 홍씨 예사공파가 살았는데 지금은 많지 않다. 남양 홍씨는 용문면 화전리에도 있는데 17세기 중반경에 여주에서 이거하였다. 도곡리 일대에는 한양 조씨가 17대에 걸쳐 살고 있고, 제주 고씨가 6대째 내려온다. 원주 변씨(邊氏)는 임진왜란 전에 이곳 양근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초계 변씨(卞氏)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고 한다. 회현리 가소(可巢)에는 문화 유씨가 산다.

양평의 대구 서씨는 크게 두 파가 있는데, 양근에는 소윤공파가 17세기 중엽에 대흥리로 이주한 이래 자손이 퍼져 있고, 첨추공파(僉樞公派) 저작공(著作公) 종중의 좌랑공(佐郎公) 후손들은 양평보다는 안동이나 충주에 많이 살았다. 강하면 상심리에 14세(世) 약봉 서성(徐省, 1558~1631)의 정자가 있었는데 셋째인 경빈과 그 손자가 모셨다고 하므로 양평의 입향은 이때부터로 추정된다. 이들은 양서면 대아동 반월형에도 살았으나 지금은 거의 없고 묘와 근래에 지은 재실이 있다. 봉성리에는 16세기 초에 입향한 원주 이씨가 산다. 회귀한 성으로는 가평 간씨(簡氏)가 몇 호 사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강원도에서 이곳으로 왔다. 덕평리에

는 인동 장씨가 17세기 후반에 와서 일대에 100여 호를 이루고 산다.

2) 옥천면

양근과 지평이 합쳐지기 전 양근현 읍치는 양근리지만 1747년(영조 23)에 이곳으로 이읍(移邑)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옥천면 옥천리에 향교와 함께 읍치가 있었다. 이읍 이후는 그전 읍치를 고읍(古邑)으로 불렀다. 고읍이 된 옥천면은 광산 김씨, 동래 정씨, 연안 이씨 등이 대성이다. 아신리 아랫고닐에 동래 정씨, 웃고닐에 경주 정씨가 모여 산다. 경주 정씨는 개국 공신으로 2대 관한성부사를 지낸 양경공(良景公) 정희계(鄭熙啓)의 후손으로 7세손 인남 때 입향하였다. 이들과는 다른 파로 시조 정진후(鄭珍厚)로부터 10세손인 정인손(鄭仁孫)의 후손들은 임진왜란 이후 지제면 송현리에 거주해왔다.

옥천리 읍치에 거주하던 성씨로는 양근 함씨를 들 수 있다.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사나사에는 함씨각(咸氏閣)이 있어 함씨 원찰(願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나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함왕이 태어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함왕혈(咸王穴)이 있고, 사나사에서 더 올라가면 용문산 중간 산 정상에 함왕성터가 있다. 함씨 조상 중에 중시조에 해당하는 고려 태조 공신 광평시랑(廣評侍郞) 함규(咸規)는 고려 12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함유일(咸有一)의 5대조로 개국공신인 신승점 등처럼 지역의 성황신으로 모셔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인데 아직 관련문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함씨는 본관이 양근보다 강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릉 본관이 등장한 것은 함규의 후손 함제(咸濟)가 현재의 강릉인 명주로 이주하면서부터다. 조선 개국 때 14세 함부림(咸傅霖)은 이성계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릉을 본으로 삼게 되지만 동생 함부열(咸傅說)은 불사이군을 표방하고 양근을 계속 본으로 갖는다. 양근 함씨 죽계공파(竹溪公派)는 함부열이 강원도 간성(杆城)으로 이거한 후 일부는 충남 연기, 충북 청안, 강원도 영월·춘천·원주, 경기도 광주·양주 등지로 세거지를 늘려갔다.

옥천면에는 신북리 등을 중심으로 광산 김씨들이 300여 호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의 입향시기는 16세기 중반경이다. 양평 광산 김씨의 파시조가 되는 김극개(金克愷)는 중종 때 예조참판과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이어 형조참판을 지냈다. 연안 이씨는 14세기 후반경에 이곳 신북리로 입향하였고 용천리 등에 퍼져 있다. 용천리에는 그밖에도 16세기 중반에 입향한 청풍 김씨들과 16세기 말에 입향한 남평 문씨들이 거주하고 있다. 청주 한씨는 기자(箕子)의 후예로 상당(上黨 : 청주의 옛지명) 한씨(韓氏)를 습성하였다는 우량(友諒)의 32세손으로 전하는 한란(韓蘭)을 시조로 모시는데 고려와 조선 전반기에 크게 세력을 떨쳤다.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한란의 7세손 한강(韓康)이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충렬왕(忠烈王) 때 성절사(聖節使)로 원(元)나라에 다녀와 『고금록(古今錄)』을 저술하였다. 그밖에도, 충목왕(忠穆王) 때 좌정승 종유(宗愈),

우왕(禍王) 때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수(脩) 등의 인물을 들 수 있다. 18세기초에 시조 한란(韓蘭)의 24세손인 참의공과 한효영(韓孝永)이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에서 용천리로 이주하여 8대째 내려오고 있다.

3) 강상면

강상면의 영산 신씨는 덕재공(德齋公) 신천(辛戡)의 후손들로 중시조 신신(辛信) 때에 안성 죽산에서 이곳으로 입향하여 16~17대째 내려오고 있다. 양평 관내에 1,000여 호가 살고 있는 경주 김씨가 양평으로 들어온 때는 18세기 후반으로 처음에 들어온 곳은 강상면 지탄(智灘)이며 이후 양근, 개군 등으로 퍼졌다. 병산리에는 선산 김씨가 17대째 사는데 1597년 정유재란 때 경기도관찰사를 지낸 충양부원군(嵩陽府院君) 김이원(金履元, 1553~1614)의 후손들이다. 화양리에는 파평 윤씨, 해주 정씨들이 산다. 장흥 고씨는 교평리에서, 연안 김씨는 송학리에서 8대째 산다.

4) 강하면

전수리 수대마을에는 고령 신씨가 사는데 귀래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의 6세손 신기한(申起漢)이 17세기 중반에 양주에서 이주하였다고 한다. 운십리에는 충주 지씨와 원주 원씨가 각기 20호 가량 된다. 성덕리에는 해평 윤씨 등이 있다. 왕창3리에는 밀양 박씨가 대성으로 있었다. 항금리에는 전주 이씨 완평대군파 후손들이 주민의 반을 넘는다.

5) 서종면

문호리에는 능성 구씨 도원수공파가 16세기 초에 입향한 이래 거주하고 있고, 안동 권씨는 월담공(月潭公) 권덕흥(權德興)이 16세기 말경 양주에서 문호리 수대울로 이주한 이래 자손이 퍼졌다. 정약중, 이가환, 이승훈 등과 함께 신유박해를 당한 권철신(權哲身, 1736~1801)은 권근의 손자인 익평공(翼平公) 권람(權攄, 1416~1465)의 후손으로 건(健) - 의(懿) - 영(詠) - 이(頤) - 화(和) - 준(駿) - 척(倬) - 적(蹟) - 흙(歆) - 돈(敦) - 암(巖) - 철신(哲身)으로 가계가 내려오며, 제신(濟身), 일신(日身), 득신(得身), 익신(翼身), 숙신(淑身)의 형제가 있다. 정배리에는 진주 유씨가 17세기 말경에 유건기(柳建基), 정기(廷基) 형제의 입향 이후 거주하고 있고, 고령 박씨도 비슷한 시기에 입향하였다. 문호리와 수릉리 일대에는 수원 백씨가 300년 이상 거주하였다. 시조 백창직(白昌稷)의 19세손인 백사검(白師儉), 사근(師根) 형제가 입향조라고 한다. 경주 이씨의 수릉리 입향은 이보다 늦은 18세기 후반경이다.

수입리의 전의 이씨 역사는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 1536~1584)의 아버지로서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문성(李文誠, 1503~1575) 때부터 시작된다. 벽계리(壁溪里)는 벽진 이씨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화서 선생의 고조 때인 18세기



양서면 대심리 완풍대군 이양우 신단(神壇)



양서면 대심리 완풍대군 이양우 묘역

중엽에 고양 벽제에서 이곳으로 왔다. 결성 장씨는 우계공(又溪公) 장취오(張聚五, 1687~1771)의 후손들로 우계공의 현손인 동우(東雱) 장회진(張會鎭)은 화서 문인이면서 화서 선생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삼회리에는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사씨(史氏)가 10여 호 산다. 서후리에는 17세기 후반에 입향한 거창 신씨가 20여 호 산다.

6) 양서면

양서면 청계리와 징동리는 원래 대아동이라는 대촌에 속해 있었다. 대아동을 구성한 주요 성씨는 진주 강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함평 이씨, 청해 이씨, 청송 심씨, 함중 어씨, 청주 정씨 등이다. 진주 강씨는 은열공파와 박사공파 두 파가 있는데, 강민침을 파조로 하는 은열공파는 파주에서 10대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고 한다. 박사공파는 경기도 여주에서 대아동 탑골에 현 종손의 9대조 강시보가 입향하였다. 5~6대조 때 대아동 집이 불타서 땃골, 수곡리, 강상면, 대성리 등 부근으로 흩어지면서 정자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청주 한씨는 16세기 초에 남종면 귀여리(歸歟里), 즉 지금의 광주시 소내로 왔다가 양평 일대에 퍼졌다.

양평 내에는 각기 다른 대군 또는 군을 파시조로 하는 전주 이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중 태조의 조카 안소공(安昭公) 이양우(李良祐)의 묘소가 양서면 대심리에 있어 조선초로 그 역사가 올라간다. 지제면 옥현리 광양마을에는 효령대군 보성군파가 50호 정도 거주하는데 퇴우당(退憂堂) 6세 경률(景礫, 1537~1598)의 후손들로 양평 관내에서는 가장 번성하다. 함평 이씨는 16세기 말경에 단월면 부안리로 입향하였다. 원래 수원 밑의 오산 가수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해 이씨는 이 중 일부가 1600년경에 양근 창대리로 입향하여 부근에 퍼졌다.

청송 심씨는 충익공 심충겸(沈忠謙, 1545~1594)이 16세기 말경에 옥천 아신리 아오곡에 입향한 이래 일대에 정착하였다. 대아리의 함중 어씨는 문정공(文貞公) 어세겸(魚世謙, 1430~1500)의 후손인데 문정공의 묘는 여주에 있다. 청주 정씨는 개국공신인 서원군(西原君) 정



단월면 보룡리 무안 박씨 박원검 신도비

충(鄭摠, 1358~1397)의 9세손 정창로(鄭昌老)가 18세기 초에 대이동으로 입향하였다.

국수리에는 지평의 읍치거주 온양 방씨와 본은 같고 파를 달리하는 방씨가 산다. 부용리에는 여흥 민씨 전서공과 후손들이 거주한다. 전서공은 12세조 민세영(閔世榮)이다. 이들이 이곳으로의 입향한 것은 16세기 말경인 17세 충(叢) 때로 추정된다. 함양 여씨는 동강(東江) 여이징(呂爾徵, 1588~1656)이 광해군 때의 폐모론을 꾀해 잠시 남종면(현재는 광주시) 수청리에 은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원리에 뿌리를 내렸다. 북포리에는 덕수 장씨가 10여 호 산다.

7) 용문면

용문면에는 남원 양씨, 평양 조씨, 반남 박씨, 전주 이씨, 신창 맹씨, 해평 윤씨 등이 있다. 마룡리와 덕촌리에 평양 조씨와 해평 윤씨, 영월 엄씨 등이 산다. 평양 조씨는 양심당 조성(趙晟, 1492~1555)과 용문선생 조욱(趙昱, 1498~1557) 형제의 후손들로 처사공파, 승지공파, 돈곡파, 직장공파 등으로 갈라졌다. 해평 윤씨 세장조 남악공(南岳公) 윤승길(尹承吉)은 17세기 초반경에 조현리에 예장되었다. 망룡리와 주원리에는 전주 이씨, 조현리에는 신창 맹씨, 광탄에는 남원 양씨, 금곡에는 현풍곽씨, 다문리에는 연일 정씨, 연수리에는 반남 박씨, 삼성리에는 안동 권씨 등이 각각 많이 산다. 삼성리에는 16세기 후반에 입향한 창녕 성씨 성세평(成世平, 1516~1590)의 후손들이 산다.

8) 단월면

단월에는 무안 박씨, 함평 이씨, 행소리의 온양 박씨, 덕수리의 양성 이씨 등이 있다. 덕수리에는 남원 양씨와 덕수 이씨가 많이 산다. 봉산리에는 강릉 김씨, 삼거리에는 전주 이씨 등이 있다. 무안 박씨는 14세기 후반에 보룡리 대대(大岱), 즉 한터로 입향한 이래 24~25대를 걸쳐 살고 있다. 보룡리 퇴룡골에는 홍천 용씨가 살았었다. 강릉 김씨는 1800년경에 상리로 입향하였다.



양동면 쌍학리 영해 박씨 시제

9) 청운면

갈운리에는 전주 이씨와 무송 윤씨, 신론리에는 여흥 민씨 등이 있다.

10) 양동면

주민들이 양동면에서 10대 이상 거주한 성씨들을 들 때 8~9개의 성을 드는데 거주지역과 관련지으면 다음과 같다.

- 영해 박씨 - 쌍학리
- 순흥 안씨 - 양동 일대
- 한산 이씨 - 삼산리
- 덕수 이씨 - 삼산리, 쌍학리
- 정선 전씨 - 삼산리
- 남양 홍씨 - 제정리
- 문화 차씨 - 제정리
- 원주 이씨 - 매월리
- 강릉 김씨 - 금왕리

영해 박씨의 입향은 15세기 이전으로 이 일대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씨다. 쌍학리 일대는 덕수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입향조는 문정공(文靖公)택당(澤堂)이식(李植, 1584~1647) 선생이다. 여주에서 별세한 부친 이안성(李安性)을 쌍학리 백아곡에 매장하고 전라도 고부에 안재된 조부 이섭(李涉)의 묘와 여주 원통리의 조모 묘를 천장하여 백아곡에 묘산지(墓山地)를 이루게 되었다. 순흥 안씨는 찬성공(贊成公)안경(安璟, 1388~?)의 8세손 동오공(東塢公)광욱(光郁, 1610~?)이 석곡리로 입향하면서부터 일대에 퍼졌다. 매월리 원주 이씨는 16세기 중반경에 입향하였다. 고송리에는 신창 맹씨가 호군공(護軍公)맹석준(孟碩俊)의 11세손 맹면원(孟勉遠)이 1700년경에 입향한 이래로 거주하고 있다.

11) 지제면

과거 지평현을 대상 범위로 성씨분포를 말할 때 “동이(東李)서조(西趙)북량(北梁)남권(南權)”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반성(班姓)을 동서남북 사방에 한 성씨씩 거론한 것인데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면 단위로 대성을 언급하는



양동면 고송리 온양(또는 지평) 방씨 방한중(方漢宗) 묘표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지평의 반성으로 해평 윤씨, 전주 이씨, 광주 이씨, 무안 박씨, 반남 박씨, 밀양 박씨, 신창 맹씨 등을 든다.

광주 이씨는 17세기 초경에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의 6세손이 경기도 광주에서 분파하여 이곳 송현리로 입향하였다. 송현리에는 또 강릉 최씨들이 13대째 내려 오면서 100여 호 분포한다. 밀양 박씨는 15세기 초에 여주에서 이거한 이래 후손들이 각 면에 퍼져 산다.

지제면 지평리, 즉 과거 읍치에 거주한 성씨로는 지평 방(方)씨가 있고, 지평 이씨와 지평 신씨도 있었다. 월산리에 한산 이씨와 전주 이씨, 옥현리에 전주 이씨, 수곡리에 안동 권씨와 경주 최씨가 각각 산다.

12) 개군면

개군면 주읍리에는 17세기 중반에 입향한 평산 신씨, 17세기 말경에 입향한 청주 곽씨가 살고, 조선 중기에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양성 이씨도 있다. 안동 김씨와 교하 노씨는 여주군 대신면에서 향리로 이주한 성씨들로 교하 노씨의 입향시기가 조선초로 올라가는 반면 안동 김씨의 입향은 19세기 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간행한 『朝鮮의聚落』 후편 「2장 동족부락의 연혁」에는 1930년을 기점으로 유명 동족촌락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양평군에 관련해서는 지제면 무왕리 순흥 안씨, 양동면 매월리 서암촌(庶岩村)의 원주(原州) 이씨(李氏) 이대충(李大忠, 360년전) 후손, 갈산면 회현리 가소(可巢)의 문화(文化) 유씨(柳氏) 유옥(柳

玉) 후손, 그리고 단월면 보룡리 대대(大垓)의 무안(務安) 박씨(朴氏) 박정(朴禎) 후손이 각각 구성한 마을을 동족촌락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들은 자료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고, 1991년 간행된 『양평군지』에 양평에 세거하는 성씨에 대한 기록이 망라되어 있어 이것과 『지평향교지』를 주로 참조하였다.

제2절 문중조직

문중(門中)은 지연(地緣), 즉 일정한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부계친족간의 조직이다. 문중조직의 정점은 바로 그 지역에 처음 들어온 입향조(入鄕祖) 또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그 지역에 묘(墓)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서 향(鄕)의 단위는 특정 마을이 아니라 군(郡)·현(縣)이다. 실제 한 동족촌락을 놓고 보면 입향이라기보다는 분가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분가를 통해 마을에 처음 주거를 정한 자가 따로 문중조직의 정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분파가 이루어졌을 때다.

각 지역에서 문중조직을 구성한 이들은 대부분 주로 조선 초·중기에 입향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세습된 신분과 동족적 결합을 한 세력들이다. 조선 초기부터 현상화한 향촌사회 지배세력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거(移居)와 입향,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분가와 분기는 임란 이후에도 계속된다. 단지 시대가 내려올수록 이거와 입향보다는 분가와 분기의 경향을 보인다.

양평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 초·중기 이후 사족들의 입향이 이어지는데, 단지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은 분묘나 별서(別墅), 즉 별장의 설치가 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은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덕수 이씨다. 특히 예제(禮制)의 보급·실행으로 부모의 묘나 그 부근에서 시묘(侍墓)하는 경우 그곳이 별서가 되다가 그 후손들이 대를 물려 살면서 차츰 주거지로 정착되는 예를 보게 된다.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끼고 있어 뱃길로 하루 안에 한양에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양반 사대부들이 별서지로 특히 선호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 후예들이 많고 이들이 조직한 문중도 많은 편이나 이를 다 언급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10개 집안의 사례만 들기로 한다. 양평읍에서는 공흥리의 남양 홍씨, 지체면은 옥현리 전주 이씨와 수곡리 안동 권씨, 개군면은 상자포리의 밀양 박씨, 양동면은 쌍학리와 삼산리의 덕수 이씨를 예로 들었다. 용문면은 덕촌리 운계마을의 평양 조씨, 조현리의 해평 윤씨와 창녕 조씨, 광탄리의 남원 양씨를 들었다. 단월면은 덕수1리 백동마을의 양성 이씨를 들었다.

1. 각 지역별 문중조직

1) 양평읍 공흥리 남양 홍씨

양평과 여주 등에 퍼져 있는 남양 홍씨는 대부분 예사공파(禮史公派) 후손들이다. 남양 홍씨 문중에 대한 사례는 향토사가이신 홍정표 선생에게 들은 것을 정리하였다. 시조 홍은열(洪殷悅)로부터 11세손인 명(溟)은 고려말 재신(宰臣)으로 조선초에 한성판윤을 지냈다. 그의 첫째아들 사석(師錫)과 손자 계연(季涓)의 후손들은 여주 대신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었고, 둘째아들 사제(師弟)와 현감을 지낸 손자 계강(係江)의 후손들은 양근에 자리를 잡았다. 계강의 8세손 홍석구(洪錫龜, 1621~1679)의 자는 국보(國寶), 호는 동호(東湖), 구곡산인(九曲山人), 지리재(支離齋) 등이다. 택당 이식(李植)의 문인으로 1650년에 문과 병과에 합격하였고 관직이 해주목사에 이르렀는데, 글씨와 전각에 능해 많은 편액과 인장을 남겼다. 효종 잡저시에 총애를 받아 세자의 신발을 하사받았다고 하며 나무로 혼천의를 만드는 등 천문학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그와 아버지 홍준의 묘는 수원에 있었는데 고속도로 공사 때 양평읍 길병원 뒤 공흥리 용문산 자락에 있는 남양 홍씨 선영으로 옮겼다. 역관으로 이름을 날린 홍순언은 그의 서손이다. 사패지 등 양근에 땅이 많아 읍치를 옥천에서 갈산으로 옮길 때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2) 양서면 부용리 여흥 민씨

여흥 민씨 전서공파의 입향은 16세기 말경인 17세 총(叢) 때로 추정된다. 전서공파의 종토는 총 3,655평(대지 309평, 전 844평, 답 2,502평)이며 이것으로 14세 승서(承序) 15세 함(諫) 두 대 내외 4위를 모신다. 13년 전부터 전답을 일가가 부치고 있다. 위답은 1982년 3월 26일에 수원 광교산의 14세 내외 묘(양지산으로 緇禮)와 15세 함(諫)의 묘(화개산 부인 충주 박씨 묘에 합함)를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그곳 땅 700평에 대한 보상비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광교산 일원 종토 가운데 논(512평)을 제외한 임야(12정보 2단 2묘)를 매각하여 2억 9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고, 승서 내외분의 이장을 계기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유명무실했던 종중을 활성화시켜 1983년에는 재단법인으로 등기하였다. 1990년에는 파보를 간행하였고, 1993년 장학회를 만들어 대학 신입생 중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정기총회를 3월 셋째 일요일로 바꾸고, 명칭을 '후손의 날'로 정하여 내외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제면 옥현리 전주 이씨

옥현리는 전주 이씨 집성촌으로 주민 이영재(78세)는 효령대군 보성군파의 종손이다. 현재 옥현리 200여 호 중에 50호를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150호 중에 100호가 일가였다. 동



지제면 옥현리 전주 이씨 집성촌 광양마을 전경

부 5개면, 즉 지제면·양동면·용문면·단월면·청운면에 200여 호가 사는데 퇴우당(退憂堂) 6세 경률(景輿, 1537~1598)의 후손으로 그 중에서도 16세 지우(智宇, 1823~1899)의 자손들이 많아 현재 옥현리 광양동에 살고 있는 종중원은 20세 재(宰) 향렬로 볼 때 모두 당 내친에 해당하는 일가들이다. 일부는 경상도 문경, 서울, 성남 등지에도 흩어져 산다. 마을 뒷산에 봉향사가 있다. 봉향사 재실에는 입향조 퇴우당공부터 위패 84위가 한데 모셔져 있다. 고조 이상부터 입향조인 경률까지의 직계 조상 모두를 한꺼번에 음력 10월 10일 시제로 지낸다. 10년 전에는 집에서 지방을 썼다가 소화시켰는데, 10년 전 재실을 지으면서 재실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재실 봉향사(奉香祠) 상량문에 의하면 1971년에 완공된 건물이다. 봉향사의 재실 안은 한가운데 벽에 효령대군 영전이 모셔져 있고, 입향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대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위토는 산소 1기당 5마지기 정도 된다. 이것을 묘지기에게 짓게 하고 일정액의 도지를 받았다(아래 위토대장 참조).

종중 산은 300정보이다. 총사, 총무, 대의원 등의 임원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종중원 중에서 산간수(山看守)를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연탄이 나오기 전에는 땔나무 채취장소로서 소나무, 낙엽송의 잎파리·솔가지·솔잎·검불·삭다리 등을 굽어모아 땔감으로 썼다. 외부인들에게는 1년에 쌀 한 말씩 입산료를 받았다. 원목은 산판 허가를 낸 목상(木商)들이 서울로 직접 날랐는데 달구지나 사륜마차로, 혹은 양평나루나 이포나루에서 뗏목으로, 후에는 자동차로 날랐다.

〈전주 이씨 소장 고문서〉

□ 『위토대장(位土臺帳)』

- 작성연대 : 1976년
- 작성자 : 전주이씨광양종친회(全州李氏光陽宗親會)

- 내용 : 11대조(9世 斗) 이하 조고(祖考)까지 26기의 위토와 도조, 경작자 등을 기록하였다. 평균 도조 총량은 총 459말로 1기당 평균 17.7말이며 여기에 각 기당 제사미(祭祀米) 2말씩을 제한다.

□ 「대종계좌목(大宗稷座目)」(부제 : 食有司參考錄)

- 작성연대 : 1920년 음력 10월 이래로 작성
- 내용 : 전주 이씨 종계원 명단으로 처음 28명 이후부터는 신입 때마다 추가한 것이다.

□ 「규약급종원명부(規約及宗員名簿)」

- 작성연대 : 1967년 이래로 작성
- 작성자 : 광양전주이씨대종계(光陽全州李氏大宗稷)
- 내용 : 선조수호, 삼림금양, 위토관리, 자손교양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계라는 점과 대상 및 자격은 퇴우당공의 자손이다. 종원명부는 3단으로 되어 있어 신입한 장남은 아버지 이름 밑에 적게 되어 있다.
- 임원 및 역원 : 총사(總司)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외무 1명, 고문 약간명, 총대(總代) 약간명, 감사 1명이다. (참고로 1999년 12월 28일에 제정된 대종중 정관의 임원조항에 의하면 종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8명, 감사 1명, 고문 약간명으로 되어 있다.)

□ 「전주이씨대종계통문(全州李氏大宗稷通文)」

- 작성연대 : 1975년(음) 10월 29일
- 일시 : 음력 11월 10일 오전 11시
- 대상 : 종계원 및 채무자
- 장소 : 유사가(有司家). 식유사(食有司)는 모두 11명이다.
- 내용 : 백미대부(白米貸付), 현금대부(現金貸付), 위토도조(位土賭租), 일반도조(一般賭租) 외에 입산자(入山者) 항목이 있는데 모두 39명으로 대부분 타성이지만 이씨 종계원도 포함되어 있다. 입산비는 쌀 한 말 또는 2,100원이다.

□ 기타 종중 서류

- 「지출증빙철(支出證憑綴)」 : 1967년 이래로 작성
- 「입산비수납부(入山費收納簿)」 : 1967년 이래로 작성
- 「대부원장(貸付元帳)」 : 1967년 이래로 작성



전주 이씨 대종계좌목(大宗稷座目) 및 대부원장(貸付元帳)

4) 지제면 수곡리 안동 권씨

수곡리에는 안동 권씨 문중서원인 수곡서원(水谷書院)이 있다. 1930년에 설립된 것이다. 현재 이 일대 90여 호가 살고 있고 수곡리 70호 중 60%인 40여 호가 안동 권씨라고 한다. 일

제 때인 1943년에 일본인이 저수지를 만들고 물리지역 내에 농지개량조합을 결성하였다. 이전까지는 밭이 더 많았고 안동 권씨 위토가 있는 잔다랭이가 당시로는 물을 댈 수 있는 좋은 땅이었다.

1655년에 용문서원이 설립되면서 용문 선생 조옥(趙昱)과 형인 양심당(養心堂) 조성(趙晟), 그리고 굴우정(橘宇亭) 신변(申忭)을 제향하였다. 1714년에 용문서원이 사액되고 같은 해에 향현사(鄉賢祠)가 설립되었다. 향현사에는 신변과 용문 선생의 손자 돈곡(遜谷) 조형생(趙亨生) 및 증손자 둔촌(遁村) 조문형(趙門衡) 세 선생과 함께 권경우(權景祐), 권경유(權景裕) 두 선생의 위패를 모셨다. 용문서원과 향현사는 1871년에 훼손되었다. 권경우, 권경유 양위는 1930년에 지제면 수곡리에 수곡서원을 건립하여 모셨고, 용문서원은 1932년 복원 때 윤계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조옥, 조성 양위와 향현사에 모시던 3위를 합쳤다.

안동 권씨 문중에서는 시제를 10월 3일 하루에 수곡서원 강당 성경재(誠敬齋)에서 모두 지낸다. 서원제향은 2월 중정일(中丁日)이고 2월 초하루에 도유사와 장의 3명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한다. 문중회의인 화수회는 음력 10월 25일에 관리사에서 갖는다. 수곡서원의 위토는 수곡리에 위치하며 9개 지번에 밭 약 4,000평 규모다.

5) 지제면 회현리 가소 문화 유씨

입향조(入鄕祖)는 18세 유희진(柳希津)으로 함경도 감영(監營)의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입진왜란 때 순직(殉職)하였다. 아버지 유오(柳塢)는 첨정(僉正)이었고 아들 유비(柳斐)는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현 종손은 입향조의 13대손이다.

음력 10월 15일이 시제일이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제(朔望祭)를 지내는데 30여 명이 참석한다. 위패는 나무에 종이를 붙여 만들었다. 종토가 3,000평인데 그 중 밭이 500평이고 대지는 입향조 묘으로 텃도지를 받는다. 4년 전에 새로 지은 재실에 제기를 보관한다. 진설은 맨 앞줄에 과일을 조율이시(棗栗梨柿) 순서로 놓고 침채, 탕, 적순으로 배열한다.

6) 개군면 상자포리 밀양 박씨

상자포리의 새터말과 안말은 예전에는 밀양 박씨가 대성으로 있었다고 한다. 상자포리의 밀양 박씨는 현 종손의 27대조인 충훈공 박척(朴陟)을 증시조로 하는 충훈공파이며 22대조인 판서공 박경의(朴敬義, 『萬家譜』에는 敬茂)를 파시조로 삼아 판서공파라고도 부른다. 박경의는 아들 득중(得中)을 두었고 그 아들이 박갱(朴賡)이다. 박갱은 정종의 사위로 지제면 곡수리 삼상포에 묘가 있다. 박갱의 아들 박서창(朴徐昌)은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관찰사를 지냈으며 5명의 아들을 두었다. 박서창 이하의 묘는 상자포리와 산 하나를 격해 있는 개군면 계전리에 있다.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에는 밀양 박씨 사당이 있다. 14대조는 정랑(正郎) 벼슬을 한 박돈(朴濬)인데, 현 종손의 9대조가 박돈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한다.



양동면 쌍학리 덕수 이씨 묘산비(墓山碑)

7) 양동면 쌍학리와 삼산리 덕수 이씨

원래 덕수 이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는 도솔마을에는 현재 한 가구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며, 양동면 관내에는 삼산리 '배내' 마을에 6가구, 단석리 견단마을에 27가구, 황골에 5가구, 제정리 가내골에 6가구, 석곡리 아랫 목골에 2가구, 매월리 설장 설매실과 황곡마을에 4가구, 금왕리 월이터에 7~8가구, 쌍학리에 21가구 등 8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해방 전후로는 총 1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주로 일가에서 면장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30여 년 전에는 130여 가구가, 지금은 8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밖에 양평 관내에는 양평읍 원덕리에 2가구, 용문면 조현리에 5~6가구, 청운면 용두리에 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덕수 이씨는 3정승 7판서가 난 집안으로 유명하다. 택당 이식의 아버지 이안성(李安性)은 무송 윤씨 윤옥(尹玉, 1511~1584)의 사위로서 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을 지냈다. 택당 이식(1584~1647)은 여주 기천서원(沂川書院)에 배향되었다.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1625~1689)와 수곡(睡谷) 이여(李翕, 1645~1718)는 모두 송시열의 문인이다.

종회(宗會)는 양력 11월 첫째 일요일에 재실에서 갖는다. 부연사는 택당 이식 선생을 제향하던 사우(祠宇)다. 마을에 '화주터'가 있어 일가 중 과거에 급제한 자가 있으면 '화주대'에 기를 달아 알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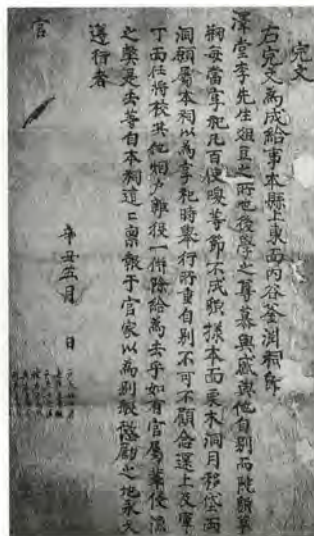
〈덕수 이씨 소장 고문서〉

□ 「덕수이씨종약(德水李氏宗約)」

- 작성연대 : 1699년
- 서문 : 수곡(睡谷) 이여(李翕, 1645~1718)
- 본문(종약) : 태진(泰鎭) 등 택당 증손(曾孫)들



덕수 이씨 소장 고문서 「덕수이씨종약(德水李氏宗約)」



덕수 이씨 소장 고문서 「완문(完文)」

- 내용 : 장손 유(留)가 뜻이 있었으나 일찍 죽고 만조카인 태진이택풍당(澤風堂)에서 있었던 구업(舊業)을 살리고 유훈(遺訓)을 받들어 지키고 살필 것들을 세우고 정해 이를 '덕수이씨종약(德水李氏宗約)'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사서삼경 등 선독(先讀)할 책, 8촌끼리 한 무리가 되어 서로 공부를 돌보고 매월 초하루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의 강독학습 방식, 사시(四時)마다의 재회(齋會)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동자(童子)는 10세부터 이름을 기록한다.

매 한식 때 종손과 재유사는 참석한 손들을 재회와 증왕고(曾王考, 즉 태당 이식) 묘사(墓事)에 참여시킨다.

문행중망자(文行衆望者)를 도유사로 삼고 존행(尊行)으로 종주(宗主)의 위치에 있는 자는 재장(齋長)으로 부른다.

□ 「완문(完文)」

- 작성연대 : 1841년
- 발급자 : 지평현감
- 수급자 : 지평현 상동면(上東面) 내곡(內谷) 부연사(釜淵祠)
- 내용 : 부연사는 택당 이선생을 제향하는 곳인데 보잘것없이 만들어 매년 향사 때면 제대로 모양을 이룰 수 없었는데 본면 울목동(栗木洞)과 월이대(月移臺) 양 동에서 본 사에 속하여 향사 때 이를 돕는다고 하니 환자(還上)와 군정, 면임, 장교 등 잡역을 모두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평양 조씨 집성촌 덕촌리 입구의 암각문 「평양조씨세장동구(平壤趙氏世藏洞口)」



용문면 조현리 해평 윤씨 입학조 남악공 윤승길(尹承吉)의 묘 및 묘비

8) 용문면 덕촌리 윤계마을 평양 조씨

윤계마을 평양 조씨는 과거 용문서원인 윤계서원을 마을 내에 가지고 있다. 서원에는 평양 조씨 외에 평산 신씨가 함께 배향되어 있으나, 최근 서원 행사에 참여하는 후손이 별로 없다. 처사공파와 처사공파에서 양자를 간 승지공파 일부가 살고 있다. 퇴촌에는 평양 조씨 돈곡파가 20호 정도로 퇴촌 전체 가구의 50%를 이루고 있다. 인근 마룡리에는 돈곡 종손과 직장공파가 살고 있다. 퇴촌에 천주교인이 많이 살았을 때는 조씨 일가에서도 천주교인이 있었다. 종종 소유 임야는 안산, 부만이산, 중등머리산, 절골산, 배내미산 등이며 그밖에 자잘한 위토들이 있다고 한다. 윤계서원 제향은 원래 2월 8월 중정일(中丁日)에 지내던 것을 한글날, 10월 4째주 일요일 등으로 옮기다가 지금은 용문선생 생신날인 음력 8월 21일로 고정하였다.

9) 용문면 조현리 해평 윤씨

세장조인 남악공(南岳公) 윤승길(尹承吉, 1540~1616)의 묘가 용문면 조현리 산 346번지에 있다. 남악공 윤승길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일(子一), 호는 남악(南岳)이며 감찰공 홍언의 넷째아들이다. 1564년(명종 19)에 문과 병과에 급제한 뒤 여러 요직을 거쳐 1588년(선조 21)에 구성진병마절제사(龜城鎭兵馬節制使)에 제수되었다. 1603년(선조 36)에 형조판서에 임명되었고 둘째딸이 선조의 일곱째 왕자 인성군과 혼인하였다. 1616년(광해 8)에 77세로 별세하였다. 1680년(숙종 6)에 숙간공(肅簡公) 시호를 받았다.

마룡리와 조현리 일원에는 해평 윤씨들이 많이 산다. 남악공의 3남 도사공(都事公) 윤교(尹璈)의 후손과 도사공의 계씨 창수공(倉守公) 후손들이다. 여주 점동면 사곡리 모래실(沙



용문면 조현리 해평 윤씨 입향조 남악공 윤승길 신도비 제막식

谷] 마을에는 동강공(東岡公, 즉 尹殷弼로 승길의 祖父)파의 종택이 있으며, 남악공의 장파가 많이 거주한다. 세운 지 100여 년 되었는데 지을 당시 아흔아홉 칸 저택이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현재 안채가 마흔여섯 칸이고 대청마루에서 사랑채로 이어지는 곳에 사당이 있는데 두 칸으로 나뉘어 한 칸에 남악공 윤승길의 영정이 있고 다른 한 칸에는 고조까지의 신주를 봉안한다.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영정을 포쇄(曝曬)하고 차례를 올린다.

정양헌(靜養軒) 도사공은 1609년(광해 원년)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1613년(광해 5) 계축 옥사 당시 의금부도사를 지냈는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한 후 용문산 마룡리에서 밭을 일구며 은둔생활을 하다가 병자호란 때 58세의 나이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흑한을 무릅쓰고 행재소(行在所)를 지키다가 순국하였다.

10) 용문면 조현리 창녕 조씨

조승달(曹承達)은 1345년에 송도에서 출생하여 22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佐郎) 벼슬과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였다. 1392년 이성계의 등극에 반대하여 아들과 함께 이곳 조현리에 은거하다가 1404년에 생을 마쳤다.

11) 용문면 광탄리 남원 양씨

남원 양씨 곡산공파(谷山公派) 중증은 음력 10월 1일에 광탄리 남원 양씨 재각에서 시제를 갖는다. 1776년에 종계(宗契)가 결성되었고 1825년에는 학계(學契)를 조직하여 학전(學田)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학전의 재산을 기반으로 서당(書堂)을 운영하였고, 이 서당이 의숙(義塾)으로 발전하였는데, 1916년에 군에 기증하면서 현재의 용문초등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1년 3월 현재 문중에서는 장학회를 설립하여 옛 취지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문중에서는 『굴기도설(掘奇圖說)』 乾·坤(梁垞著), 『하거집(荷居集)』·『병인일기(丙寅日



용문면 광탄리 남원 양씨 재각 숭모전(崇慕殿)

記)』(梁憲洙 著), 『점재집(謙齋集)』(梁昌錫 著) 등의 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활발한 문중활동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남원 양씨 소장 고문서〉

□ 종계좌목(宗契座目)

• 작성연대 : 1776년

「입의(立議)」(23條)

- 종회(宗會)는 매년 3월 4일(음)과 9월 10일로 정한다. 미리 발통(發通)하면 모두 종장택(宗長宅)으로 모인다.
- 적서를 무론하고 혼인한 지는 봄에는 1전씩, 가을에는 모(粃, 보리) 한 말씩 가져와 결계(結契)한다.
- 종회 때 적자와 서자는 구분하여 좌정하고 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는 종장과 집헌(執憲) 2인이 벌을 내린다.
- 계의 재산은 수를 4등분하여 4명의 유사에게 (25냥씩) 주고 장리(長利) 이자를 받게 한다.
- 유사는 돌아가며 맡기지 않고 적서를 무론하고 경향 중에 가산이 넉넉한 사람으로 4명을 정하되 5년마다 종회일에 의견을 물어 교체한다.
- 원전 100냥 외에 이자로 인한 여전(餘錢)과 추입전(追入錢), 예목(禮木) 등으로 생긴 잉여는 장가 들 수 없을 정도의 빈궁한 종중원에게 한도를 정하여 도움을 준다.
- 관례를 하여 성인이 된 자는 그해 춘추 모임 때 예에 따라 납계(納契)하고 좌목에 추록(追錄)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유사가 징봉(徵奉)한다.
- 예목(禮木)은 감사·유슈·통제사는 5필(匹), 부윤·병사·수사는 4필, 목사·부사는 3필, 군수·현령은 2필, 영장·우후(虞侯)·우관(郵官)은 1필, 납계한다.



남원 양씨 소장 고문서 「종계좌목(宗稷座目)」



남원 양씨 소장 고문서 「종계좌목」 중의 입의(立議)

- 외임(外任)에 나간 자는 돌아올 때 예목을 보낸다.
- 상벌(上罰)은 6전, 중벌은 4전, 하벌은 2전이며, 태노(笞奴), 즉 종을 대신 맞게 할 경우 상벌은 15대, 중벌은 10대, 하벌은 7대로 정한다.

「정유추회추록(丁酉秋會追錄)」(12條)

「좌목」: 이름, 자, 생년, 졸년을 적었다. 뒤의 좌목에는 졸년 대신 추입한 해를 적었다.

□ 「남원양씨종계좌목속편(南原梁氏宗稷座目續編)」

- 작성연대: 1902년 1월
- 내용: 우리 종중이 종계를 결성하고 좌목을 만든 지 127년이 지났다. 책자를 다시 정할 필요가 생겨 구편(舊編) 중에 생존인을 옮겨 열람하기 편하게 하였다.

□ 「남원양씨광탄종회규약(南原梁氏廣灘宗會規約)」

- 작성연대: 1960년 11월 15일
- 내용: 남원 양씨가 광탄으로 입향한 지 300여 년이 흘렀고 그 기간에 자작일촌(自作一村)하였다. 그 동안 세상이 변하여 생업이 바뀌었으므로 현대사회에 맞는 종규(宗規) 32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12인, 감사 2인, 유사 2인, 고문 약간인
- 부서는 총무부, 장학부, 외무부, 징계위원회
- 사업: 선영 향사에 제관을 파견하고 선영 수호에 물질을 찬조한다.
종족 계통을 명확히 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시설 및 이를 권장한다.
효자 열녀는 표창한다.
가난한 회원에게 구호사업을 한다.
조향(祖鄉)의 고적을 보호한다.

12) 단월면 덕수1리 백동마을 양성 이씨

덕수리의 양성 이씨는 낭천(狼川), 즉 강원도 화천에서 군수를 지낸 낭천공 이응뢰(李應魯)의 후손들로 이곳에서 10대째 내려오고 있다. 낭천공의 아버지 이영(李英)은 무관출신 통제사(統制使)로 임진왜란 때 평산(平山)에서 기병(起兵)하였다. 낭천공의 묘는 가까운 산 너머에 있고, 9대조 이오(李鰲)의 묘는 먼 산너머 우리실이라는 곳에 있다. 8대조 이익주(李翊周)는 해주목사를 지내 목사공으로 부른다.

시제일은 원래는 음력 10월 1일에 낭천공의 제사를 시작으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루에 두 위씩 제사를 올렸는데 20여 년 전부터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하루에 시제를 마친다. 10대조, 9대조 및 8대조 제사는 8대조 목사공 산소 앞에서 10대조 이하 자손들이 모두 참여해서 제를 올리고 그 이하 산소들은 자손들이 나뉘어 다니면서 제사를 올린다. 한식 때 묘사는 없고 각자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

제물은 목사공의 경우 산자, 감, 대추, 밥, 과일을 올리는데 사과를 쓰지 않는다. 홍동백서(紅東白西), 즉 제사상을 바라보면서 붉은 것이 오른쪽으로, 흰 것이 왼쪽으로 오게 상을 차린다. 삼탕(三湯)은 어탕, 소탕, 육탕이다. 북어 외의 다른 해물은 쓰지 않는다. 삼적(三炙)은 북어와 고기와 닭을 쓴다. 북어는 배를 썬 쪽이 위로 올라오게 젓혀놓는다.

목사공 이익주는 첫째부인 함양 박씨와 둘째부인 온양 정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 셋째부인 선산 김씨를 맞이하여 형수(衡秀), 덕수(德水), 행수(行秀), 징수(徵秀) 등 4남을 낳아 덕수리 일대에 후손이 퍼지게 되었다. 목사공의 영정이 있어 영정각에 모시고 있다. 영정각 뒤에 목사공과 셋째부인의 묘가 있고 우사 뒤에 둘째부인의 묘가, 그리고 그 뒤 산 너머에 첫째부인의 묘가 있다. 영정각 밑에는 넷째아들 이정수의 묘가 있다. 선산 일부가 군사기지로 들어가면서 받은 보상비로 1994년에 재실을 새로 꾸몄다.

제3절 관혼상제

이 절에서는 가족의례를 상징하는 말인 관혼상제례에 대해 현장참여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근거로 다양한 제례관행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관례는 이미 전통이 끊어진 지 오래고 최근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향교에서 행하는 성년식 겸 관례는 과거 예법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 항목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혼상제례 이외의 의례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에 갖는

다양한 전통적인 관행과 풍속들을 출산의례 항목으로 다루었다.

출산의례는 강하면 성덕리와 개군면 상자포리에서 인터뷰로 들은 가까운 과거의 관행들을 정리하였다. 혼례는 양동면 계정3리 가랫골, 계정1리 담안마을,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단월면 산음2리, 양서면 대십1리의 사례를, 상장례는 양서면 대아동 중촌, 양동면 금왕1리 밤골,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단월면 산음2리의 사례를 들었다. 금왕1리 밤골 장례는 문화원 이사로 있는 김형래 선생이 연락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었다.

제례에 대한 조사는 미리 행사일정을 기억해 두었다가 행사 당일에 방문하였으며, 해당 집안 가족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절기에 따른 차례는 모두 제례 항목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이 중 추석차례만 세시풍속 항목으로 다루었다. 조사마을과 대상집안은 다음과 같다.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설 차례, 단월면 산음2리 설 차례, 강상면 송학1리 영산 신씨 한식제사, 양서면 대아동 청주 한씨 기제사, 양서면 청계리 대구 서씨 시제, 양서면 부용리 여흥 민씨 시제, 서종면 노문리 결성 장씨 묘제와 기제사, 지제면 수곡2리 안골 안동 권씨 시제, 지제면 옥현리 전주 이씨 시제, 개군면 상자포리 밀양 박씨 시제, 양동면 삼산리 덕수 이씨 시제, 강하면 운심2리 운포마을 충주 지씨 사당제사, 강상면 세월리마을 기제사 등이다.

1. 출산의례

1) 강하면 성덕리 출산의례

양회종이(회푸대를 말함)도 없이 그냥 지푸라기 한 단 쭉 깔고 맨 땅에서 애를 낳던 시절이 있었다. 나중에 피가 지푸라기로 스며들어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거기서 누워서 낳기도 하고 옆드려서 낳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서 낳기도 하고, 편한 자세로 애를 낳았다. 산파도 없이 그냥 혼자 낳다가 사산하는 일도 많았다.

아이를 낳으면 태는 남편이 3일 후에 태워 흘러가는 물에 버렸다. 아이 낳고 3일 후에 태우는 것을 '삼 나갔다'고 말한다. 지푸라기도 3일 놓아두었다가 같이 태웠다. 미역국도 먹지 못할 형편에는 물만 붓고 간장만 넣어 먹었다. 예전에 가까운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미역을 조금 주었더니 그것으로 국을 한 동이 끓여 머느리를 먹이는 일도 봤다. 애는 낳고 나서 아버지 바지 안감이나 바지 겹감 뜯은 옷감에 싸서 이불 속에 넣어두고, 3일 후에 씻긴다. 그리고 그때 미리 만들어둔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배냇저고리는 아빠 저고리나 바지 안감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다.

백일이 되면 수수팥떡·백설기·송편 등 떡 세 가지를 하고 미역국을 차렸고, 돌상 때도 떡 세 가지와 미역국을 차려주었다. 책, 돈, 붓 등을 놓고 잡게 하는 돌잡이는 나중에 생긴 풍속이고 예전에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애들이 배탈이 나면, 질금물(엿기름)을 해먹였다. 질금물은 보리싹을 말려 맷돌에 갈아 물에 담근 다음 불면 체에 받쳐 걸러낸 물을 따뜻하게 데워 만든다.

2) 개군면 상자포리 출산의례

21살에 짚을 깔고 애를 낳았다. 짚과 태는 강에 버렸으나 배꼽 떨어진 부분은 태열이 날 때 기름을 묻혀 발라주면 좋다고 하여 장롱에 넣어 두었는데 언젠가 없어졌다.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딸을 낳으면 숯검정과 술가지를 인줄에 끼워서 매달아 놓는다. 보통은 일주일간 매달아 놓는데, 가리는 사람들은 3주까지도 매달아서 부정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산밥이라고 하여 애기 머리맡에 밥과 미역국을 놓는다. 아들 난 사람의 속옷을 입고 첫국밥을 얻어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삼신할머니를 뺏는 것이라고 한다.

2. 혼례

1) 양동면 계정3리 가랫골 혼례

주민 이○옥(여, 72세)의 본관은 전주이고 친정은 양동면 삼산리 배넛마을이다. 16세 때 혼인하였다. 혼례 때 신부는 빨간치마, 노랑저고리에 원삼을 입었고 족두리를 썼다. 빨간치마 밑에는 파랑치마를 속치마로 입었으며 저고리 안에도 속저고리를 입었다. 치마저고리 옷감은 인조였으며 잔칫날 아침에 신랑집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로 '채단'으로 함에 담아 온 것이다. 함에는 채단 외에도 청색·홍색실과 은비녀, 귀후비개, 은반지 등을 넣으며 부잣집에서는 두루마기감도 보낸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을 입었는데 각자 자기 동네 것을 사용하였다. 당시는 잔치 때 쓰는 그릇까지 동네에서 빌려서 썼다. 신랑은 대례를 올리기 위해 함진애비와 옷손과 함께 신부집으로 오는데 걸어오다가 동네 들어와서 가마를 탔다. 대례는 마루에서 지냈다. 신부는 당일 아버지와 함께 신랑집으로 갔다.

3일 만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채행이라고 하며, 이때는 신랑만 가고 신부가 가는 근친은 아이를 낳고 3년이 지나야 갈 수 있다. 근친 갈 때는 엿, 술, 돼지고기 같은 안줏감을 싸가지고 간다. 시댁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이나 시댁에서 해준 것보다 더 잘해 줬는데, 안주 외에도 엿, 양말, 버선을 시댁 식구들 수대로 장만해서 가지고 갔다. '삼일도배기'는 3일 만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없던 풍습으로 딸을 시집보낼 때 알게 되었다. 신혼여행과 함께 새로 생긴 풍습이다.

2) 양동면 계정1리 담안마을 혼례

주민 유○순(여, 83세)는 문화 유씨로 고향은 충남 천안인데 외동딸이어서 부친이 사위를

데릴사위 삼으려고 계정리로 데려왔다고 한다. 16살 때 결혼하였는데 혼례를 올리기 전에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대례는 신부집 마당에서 지냈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었으며, 신부는 빨간치마, 연두저고리 위에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속치마·저고리로 남색치마와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원삼과 족두리는 동네에서 빌려서 썼다. 혼례 때 신부가 입는 치마감은 신랑집에서 채단으로 해오는 것이며 저고리는 신부집에서 장만한다.

함에는 신부사주, 채단(치마 두 질), 청실·홍실이 들어있고, 집이 넉넉하면 비녀와 은가락지 등이 더 들어가기도 한다. 잔치 일주일이나 열흘 앞두고 함이 들어오는 것을 봉채(封綵)라고 하는데 지금의 약혼식의 의미다. 봉채가 오는 날에는 찰떡, 시루떡, 고기 등을 장만한다. 보통 세 명에서 다섯 명이 신랑집에서 온다. 세 명인 경우에는 함진애비, '후왕', 신랑이 오며 다섯 명인 경우에는 청사초롱불을 든 사람 두 명이 같이 온다. 부잣집에서나 다섯 명이 온다. 함이 들어오면 친정아버지가 눈을 감고 함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 잡히는 대로 물건을 꺼내는데 이때 홍색채단이 나오면 첫아들을 낳고 청색이 나오면 딸을 낳는다고 했다. 잔칫날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오는데 가마 옆을 뜯어버리고 신랑을 '밑바당'에 태운 뒤 작대기 끝에다 올려놓는 등의 장난을 많이 쳤다. 신부 가마가 친정집 대문을 나갈 때는 '방법'으로 소금을 뿌렸다. 재행은 신랑신부가 같이 갔다. 근친은 혼례 후 삼년 만에 간다.

3)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혼례

환갑이나 혼례와 같은 잔치에는 품앗이로 친척이나 이웃들이 쌀 3말로 떡을 해가거나, 술한 말, 국수 등을 준다. 이때 만들어 가는 떡은 '진편', 팔시루떡인 편, 제피떡, 인절미 등 네 종류이다.

- 혼례절차 : 사주단지를 신랑집에서 보내면 신부 쪽에서 택일을 하고 신랑집에 알리고, 큰 문제가 없으면 신부집에서 정한 날에 혼례를 올린다. 신부의 사주는 혼례 전에 먼저 도착하며, 혼례일에는 함진애비(주로 마을의 소임이 맡았음)가 함을 지고 간다. 함에는 청홍백실과 채단, 그리고 폐백 때 신부가 입는 치마, 저고리인 '관례받침'이 들어 있다.

1956년도까지 동네에 가마가 있었고 사모관대는 70년대까지도 있었다. 신랑은 둘이 매는 가마를 탔으며, 신부는 네 명이 매는 가마를 탔다. 원삼도 마을에서 빌려 입었다. 이 동네 혼례용품은 시집가는 딸과 사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신랑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웃손'과 가마잡이 두 명, 함진애비이며, 신부가 신랑집으로 올 때는 하님과 '웃손'이 같이 왔다.

신랑은 신부집 옆 집에서 혼례복으로 갈아입는다. 이 방을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들어갈 때 재끄러미를 던지고 대례를 치를 때 신랑이 있는 돗자리를 잡아당기거나 입이 꺼렇게 되도록 부지깽이에 국수를 물려주는 장난질을 한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는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이 신부 구경을 하는데, 이를 '색시구경'이라고 하며 이때 신부가 앉은 아랫목을 뜨겁게 한다. '채향[재행]을 가서 신랑달기를 한다. 근친을 삼 일 만에 가는 것을 '삼일도배(기)'라고 하는데, 근친을 갈 때는 신랑집에서 음식(잘 사는 집에서는 돼지 한 장기, 술, 안주 등을 장만함)을 장만하여 간다. 시댁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싸가지고 오며 가족수대로 줄 버선이나 양말 등을 가지고 온다. 근친을 가서 언제 돌아오는가는 대중이 없는데 당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 주당살 피하기 : 일진을 봐서 신랑은 신랑집에 도착해서 부뚜막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국수를 먹는다. 또 일진을 봐서 신랑과 신부가 대문간을 넘어설 때 짚불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신부가 신랑집 대문에서 솔뚜껑을 넘어가도록 하는 집도 있다.

4) 단월면 산음2리 혼례

주민 이○숙(여, 51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숙은 원래 청운면 신론리 새터가 친정 고향인데 어렸을 때 이사워서 18세가 되던 1968년 음력 10월 21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태와 혼인하였다.

대례는 신부집 마당에서 올리고 그날로 신랑집으로 가마를 타고 갔다. 신부가 신랑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고 '장독 붙잡는다'고 하는데 주당살을 피하는 방법의 일종인 것 같다.

신랑집에 와서 처음에 '새댁노릇'을 한다. 새댁노릇이란 동네 어른들이 신부를 보러 오는 것을 말한다. 해가 저물면 시어머니 방에서 사당차례를 지낸다. 사당차례상은 조상에게 제사 올리는 것으로 일반 제사상과 동일하다. 사당차례가 끝나면 폐백을 드린다. 이때는 시부모님, 시숙, 사촌들에게까지 절을 하는데, 시부모님보다 윗분이 있어도 시부모님에게 먼저 절을 하고, 절을 하는 횟수도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된다. 당일에 온 친척 손님들에게는 모두 폐백인사를 올렸다. 폐백상은 친정에서 보내며 밥, 대추, 안줏감, 꾸민 닭, 술 같은 것들을 올린다. 폐백 때까지 혼례복(원삼)을 입고 행사에 임한다.

혼인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 친정집으로 갔으며 시댁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마다 달랐는데 본인은 며칠 밤 자고 왔다. 친정에 갈 때 시댁에서 엿, 떡 같은 것을 싸서 보냈으며 시댁으로 돌아올 때 친정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싸주었다.

혼수로는 장롱, 화장대, 이불, 베개와 신부 본인이 입을 옷만 해왔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것은 장만하지 못했다. 신랑에게 따로 해주는 것도 없었다. 신랑집에서는 신부가 입을 치마와 저고리를 해주었다.

혼례복은 마을에 있는 혼례복을 빌려 입었다. 동네마다 신랑, 신부복 한 벌과 가마와 대례 때 쓰는 물품들을 장만해 둔다. 그리고 동네마다 경조사 때 서로 돕기 위해 이종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입비를 내면 혼례복은 그냥 빌려 쓸 수 있다. 신부복으로 빨간치마(당시



단월면 산음2리 1968년도 혼례사진. 목기러기를 든 신랑 입장 모습



산음2리 1968년도 혼례사진.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4배례를 행하는 신부



산음2리 1968년도 혼례사진. 가마를 탄 신부의 모습



산음2리 1968년도 혼례사진. 옹두리 사진관에서 찍은 기념사진



산음2리 1980년경 혼례사진. 합근례를 하는 신부의 모습

사진에는 꽃무늬가 있는 치마임), 미색저고리, 족두리에 '장삼'(원삼)을 입었고, 신랑은 사모 관대를 입었다.

1968년 당시만 해도 드레스 입고 신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당시 유행은 혼인 전에 준비단계로 면소재지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파마머리를 하고, 혼례 때는 이 머리를 묶어서 큰 비녀를 꽂았다.

5) 양서면 대심1리 안잔치

예식장 혼례에서 잔치를 마을 바깥에서 치른 후 집에 돌아와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안잔치'라고 한다. 예식장에서도 예식에 온 하객을 대접하지만, 이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중에 집으로 인사차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안잔치를 준비한다.

3. 상장례

1) 양서면 대아동 중촌 상례

상여는 대아동 전체가 같이 사용한다. 원래 상여도가의 위치는 현재 마을회관 자리였는데 너무 낡아서 헐었으며 정자동 가는 삼거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상여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여 메는 일은 8개 마을이 두 마을씩 짝을 지어 같이 한다. 예컨대 평촌과 탑곡이 같이 쓰고, 반월형과 중촌이 같이 쓴다. 처음에는 대아동 전체가 같이 사용하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여 리별로 나누다가 더 줄여 2개 마을을 단위로 삼게 되었다.

상복은 시댁에서 상이 나면 며느리 상복을 친정에서 해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거상 또는 '고상옷', '거성'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2) 양동면 금왕1리 밤골 장례

양동면 금왕1리 밤나무골에 초상이 났다. 망인 안상봉은 마을 유지로 66세를 사셨다. 5형제 중에 2남이며, 자녀는 2남 4녀를 두었다. 2001년 10월 7일 오전 2시 30분에 운명하였으며, 10월 9일이 발인일이다. 장지는 금왕2리 금왕산 밑 선영이다. 10월 8일 오전 2시 40분에 엄이 끝나고 입관하였으며 이어 성복제사가 있었다. 마당에 명석을 깔고 가운데 상을 놓고 그 위에 팔고물로 커를 낸 시루떡을 냉수와 함께 놓은 다음 상복을 입으면서 내외가 마주보며 삼 배(拜) 절을 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차례로 절을 올린 다음 내실로 들어와 성복제사를 올렸다. 오전 5시경에 아침상식을 올렸다. 과거에는 저녁제사 이후 밤 1시경 사이에 반포제(頒布祭)를 가졌다. 다음날 발인 때 일할 사람들을 풀어 먹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제물을 올려 푸짐하게 차린다.

발인날 상여가 나가기 전에 지내는 제사는 조전제, 성묘, 발인제다. 그동안 상여가 조립되어 오전 8시 반경 장례행렬이 마을을 출발하였다. 상여는 중틀로 4×6=24명이 매는데 실제로는 20명이 댔다. 선소리는 석곡리 최○상, 매월리 민○돈이 맡았고 요령잡이와 북잡이는 망인의 친구인 김용옥과 이종운이 각각 맡았다.

산소에 도착한 즉시 조부 산소에 고유제를 지낸 다음 산신제를 지냈다. 횡대를 다 덮기 전에 폐백을 드렸고 취토(取土)하여 상주 상복에 흙을 담아 네 귀퉁이에 뿌렸다. 오전 10시 20분에 달공에 들어갔다. 달공 후렴은 “에야 오리 달공”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달공은 봉분이 만 들어진 다음 주위에 둘러서서 옆을 눌러 다지는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반곡제를 지내고 다음날 재우, 그 다음날 삼우제는 식전에 제 지내고 나서 산에 가서 지낸다. 이때까지만 상식을 올린다. 3개월이 지난 후 줄곡을 하고 강일을 택해 탈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용문면 덕촌리 윤계마을 상장례

사람이 죽으면 사자밥을 다 지어놓은 후에 지붕에 올라가서 망자의 옷옷을 흔들면서 복, 복, 복 세 번 부른 후 이름을 부르는 초혼을 한다. 초혼이 끝난 후에 옷을 지붕에 던지며 이 옷은 장사지낼 때 불을 놓아 없앤다. 사자밥은 대문간에 절구통을 얹어놓고 키를 얹은 후에 동전을 얹은 밥 세 그릇을 놓는다.

시신은 망자가 사용하던 방에 모시고 ‘수세’[수시]는 훌이불로 쪼개서 묶은 후 시신을 칠성판 위에 놓고 다시 묶는다.

- 거상 : 상복 입는 것을 ‘거상 입는다’고 한다. 남자는 광목(무명)으로 된 바지, 저고리 위에 베로 된 상복을 입으며, 여자는 광목(무명)으로 된 치마, 저고리만 입는다. 시부모가 돌아가실 때 며느리 상복을 친정에서 장만해주거나 친정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딸의 상복을 시댁에서 장만해주는 것을 ‘깃옷’(상중에 입는, 생무명이나 광목으로 지은 상복. 줄곡 때까지 상주가 입음. 羽衣)이라고 부른다. 상복은 상이 나자마자 보통 수의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초상집에 모여서 같이 만든다.

장사 때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품앗이로 쌀이나 술 등을 가지고 가며 편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상이 나자마자 품앗이로 팔죽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이 일대에서는 사람이 죽는 날 꼭 팔죽을 먹고 장사날에는 팔밥을 먹는다. 초상집 마당에는 겨울에만 불을 놓으며 특별히 부르는 이름은 없다.

망자가 여자인 경우 마지막 달거리할 때 사용한 광목을 같이 관에 넣어드린다.

- 성복 : 명석을 펴는 위에 정화수와 상복을 모두 갖다 놓고 곡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다.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안상주와 바깥상주가 맞절한 후에 동서남북으로 네 번 절한다. 그 후에 성복제를 한다.
- ‘손 모두는 달’과 반포 : 제사 음식을 나누어주는 반포는 세 번 하는데, 장사 전달과 소상,

대상에 한다. 대상, 소상 때 반포는 새마을사업 때 다 없어졌다. 장사 전날을 '손 모두는 날' 이라고 하는데, 상여를 댈 사람의 숫자를 맞추는 것을 뜻한다. 상여는 보통 24명이 메지만 없는 경우에는 12명이나 18명이 메기도 하는데, 이는 손 모을 때 사람 숫자를 보고 결정한다. 반상이 구분되어서 양반들이 상여를 메지 않을 때 손 모두는 날 상여꾼들에게 제삿상 차린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반포라 하였다. 유학계는 해방 이후 반상 구분이 사라지고 나서 같이 상여를 메면서 생겨난 것이다.

관이 나갈 때 바가지를 깨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일진을 보고 하는 것이다.

- 매장 : 땅이 얼기 때문에 깊게 매장한다. 주로 관을 빼고 묻는 탈관을 한다. 내관은 사람 모양으로 따로 파는데, 남자인 경우에는 위쪽을 더 깊게 파고 여자인 경우에는 아래쪽을 더 깊게 판다.
- 회 다지기 : 3~5번 정도 한다. 첫회는 8명만 들어가고 점차 사람 수가 늘어난다. 마지막 회를 다질 때는 장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잔디를 밟는데 헛대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곳에서는 또 매장량을 하지 않는다.
- 평토제 : 산신제를 먼저 지낸다. 산신제는 개토산신제와 평토산신제 두 번 지내며, 평토제는 봉분을 다 만든 후에 지낸다.

장례가 끝나면 상여가 갔던 길로 그대로 되 돌아온다. 영정을 모시는 곳을 '지청'(祭廳)이라고 하며 꼭 교의를 썼다.

4) 단월면 산음2리 상장례

산음1리와 2리가 16명이 메는 상여 하나를 같이 쓴다. 상여 밑에 꽃는 대를 연초대라고 하는데 연초대를 몇 개 꽃느냐에 따라서 메는 사람의 숫자가 달라진다. 상여를 메고 상주로부터 받는 돈은 이중계 기금으로 사용한다. 다른 동네사람이 운구차로 들어와서 이 마을 상여를 사용하게 되면 상여 사용료와 품값을 받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북5도민단체에서 이 동네에 공동묘지를 장만한 이후 이곳에다 묘를 쓰는 일이 많아졌다.

상여소리하는 사람이 산음2리에도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현재는 산음1리에 사는 유○원이 맡고 있다. 엄은 원래 마을주민들이 서로 도와서 했지만 요즘은 마을사람들끼리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농협을 통해 엄할 사람을 구하며, 상여 메는 일과 회다지하는 일만 마을사람들이 한다. 산역도 포크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쉬워졌다.

시집온 여자들의 경우 시댁에 상이 나면 친정에서 딸에게 옥양목으로 된 상복과 양말, 신발, 속옷 등을 해서 보냈다. 마찬가지로 친정에 상이 나면 시댁에서 머느리 상복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것을 거상옷 또는 거성 등의 용어로 표현하지 않았다.

탈상하기 전까지 상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남자는 베로 리본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다니고 여자는 실핀에 하얀 리본을 달아 머리에 꽂고 다닌다.



상차(喪次). 영정과 혼백 앞에 술과 과일을 차려놓는다



혼백(魂帛)을 모신 영좌(靈座) 앞에서 곡을 한다



발인을 앞두고 조전의(朝奠儀)를 준비하고 있다



조전의에 참석한 복인들이 영좌에 절을 하고 있다



마당 옆에 차린 사짓밥. 밥 세 그릇과 옷,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를 놓았다



마을 상여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여가 도착하고 있다



상여 뚜껑과 사방을 두르는 보장(寶藏)을 조립하고 있다.



명정과 공포를 달 깃대를 점검하고 있다



흰 베를 단 공포(功布)와 “學生順興安公之柩”라고 쓴 명정(銘旌). 장례를 주관하는 금왕리 대동계장이면서 망인의 친구인 김형래 문화원 이사가 명정을 들고 있다



영정과 혼백을 앞세워 천구(遷柩)하고 있다



집 문턱에 놓아 둔 바가지를 세게 밟아 잡귀를 쫓는다



영구(靈柩)를 상여 장강(長杠) 위에 올려놓고 있다.



영구 위로 조립한 상여를 놓고 고정시킨다



망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 받는 견전(遣奠) 제사



양장을 단 상여가 영정과 명정, 그리고 공포를 앞세워 집을 나서고 있다



상여행렬이 망자가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다



망자의 옛집에서, 고인이 이사한 새 집에서 얼마 살지 못한 것을 몹시 슬퍼하는 상주들



상여가 마을 입구에서 상주의 절을 받자 잠시 진행을 멈추면서 앞부분을 숙여 답배를 하고 있다



마을을 벗어나 장지로 향하는 장례행렬. 상여는 종틀로 한 줄에 6명씩 4줄에 24명이 메는데 실제로는 20명이 됐다. 선 소리는 석곡리와 매월리에서 온 분들이 맡았고 요령잡이와 북잡이는 망인의 친구들이 맡았다



장지인 금왕산 밑 순흥 안씨 선영에 상여가 도착하고 있다



상여를 걷어내고 영구를 광중의 남쪽에 모신다



광중의 양 옆에서 곡을 마친 상주와 복인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탈관(脫棺), 즉 관을 빼고 시신만 광중으로 내린다



상주가 현훈(玄纁)을 횡대로 받들고 있다



현훈을 광중에 넣으면 상주가 재배하고 복인이 곡을 하는 가운데 횡대로 광중을 덮는다



취토(取土). 상주와 복인은 상복 앞자락에 흙을 담아 네 귀퉁이에 뿌린다



나머지는 일꾼들이 삼으로 흙을 떠서 채운다



광중이 채워지면 재배하고 곡을 한다



회가 섞인 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달궁을 망인의 친구와 대동계원들이 시작한다



'떼상량'이라고 하여 봉분다지기가 완성 되면 윗부분만 남겨 놓고 떼를 다 입힌 다음 상주와 복인들에게 노잣돈을 드리게 한다. 달궁은 세 차례 하는데 마지막 달궁은 봉분이 만들어진 다음 주위에 둘러서서 옆을 눌러 다진다



산신제. 산소에 도착한 즉시 조부산소에 고유제를 지낸 다음 산신제를 지낸다



탈관한 관은 태워 없앤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잔곡제를 지낸다

4. 제례

1)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설 차례

제사는 김이선의 4대조, 큰집 조카들로부터는 5대조까지 모시며 설 명절 아침 9시경에 시작한다. 제수는 하루 전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장 보는 일은 그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여주장(5·10일)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고 한다. 장을 볼 때 제수비용은 아끼지 않는다. 음식준비는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준비하고, 남자들은 밤 치는 일 정도만 거든다. 진설과 헌작 등 절치는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갹물이나 국, 밥 등을 나르는 일만 한다.

과일 진설법은 '홍동백서'로 한다. 사과(위와 아래만 깎음), 배(통째로 깎음), 대추, 밤(깎은 밤), 감(꽃감) 및 제철과일을 올린다. 포도도 올라갔다. 그러나 복숭아와 같이 털이 있는 과일은 올리지 않는다. 병과류로는 약과, 다식, 산자, 제리, 막과자(한과점에서 파는)를 올린다. 적으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통째로 삶은 것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올려놓는다. 삼적 삼탕을 쓰는데, 삼적은 닭적, 쇠고기적, 돼지고기적이고 삼탕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이다. 생닭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북어포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서 올린다. 나물은 가지나물, 숙주나물, 고사리나물 3가지 이다. '버섯 부치기'는 달걀과 버섯, 녹두물로 만드는데 '갈납'이라고 부른다. 국은 본래는 쇠고기국을 올렸으나 며느리들이 잘 먹지 않아 북어국으로 바꿨다고 한다.

명절에 사위들은 제사가 끝난 다음 당일 낮에 오기도 하며, 며칠 전 혹은 후에 다녀간다. 남자 형제들도 제사를 마친 뒤에는 각기 자기 처가로 흠어진다.

제의를순서는 다음과 같다.

진설 → 분향과 등축 → 잔을 행구어 비운 다음 헌작 → 삼시(참사자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 일동 재배 → 잔에 술을 따른 뒤 좌에서 우로 헌작 → 밥을 떠서 국에 말음 → 재배 → 잔을 비우고 제자리에 놓음 → 복반(覆飯, 밥 뚜껑을 덮음) → 재배 → 갹물 → 헌작 → 밥 세 숟가락을 떠 말음 → 정저(세 번 소리나게) → 재배 → 잔을 비움 → 밥 뚜껑을 덮음 → 잔을 제자리에 놓음 → 정저(세 번 소리나게) → 재배(이하 반복)

밥과 갹물을 가는 것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형제들이 번갈아가며 제의에 참여한다.

2) 단월면 산음2리 정월 차례

정월차례를 명일차사(名日茶祀)라고 부른다. 안방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지내는데 생를치기, 닭 잡기, 진설은 남자가 한다. 차례 며칠 전에 마을 사람 몇 명이 돼지를 잡아서 나누어 갖는다. 차례는 아침 일찍 해뜨기 전 6~7시에 지낸다. 차례상은 마소 밥 주기 전에, 조반 먹기 전에 올린다고 하며 "일찍 지내는 게 좋다"고 한다. 차례는 3대까지만 지내고, 메와 떡국을 함께 올리는데 떡국이 국 대신 올라간다. 추석 차례는 떡국 대신 국이 올라간다.



강상면 송학1리 영산 신씨 한식제사 진설도

차례 지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당이 없이 지방을 모시고 지내는 사람은 빈잔을 올려놓고 강신한다. 차사 때는 축을 고하지는 않는다 → 제주인 만이가 단잔을 올린다 → 만자손이 다시 술을 올리고 → 수저를 깨끗고 → 밥을 말고 → 밥뚜껑을 덮고 → 수저를 건으면서 잔을 치우고 → 배례한다.

기제사와 차례의 다른 점은 차례는 단잔 올리는 데 반하여 제사는 3잔을 올리며 세 번째 잔은 침잔한다. 양위를 모실 때는 집사가 2명이며, 양위에 모두 잔을 올린다.

3) 강상면 송학1리 영산 신씨 한식제사

우리 나라는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 즉 묘제(墓祭)를 중시해왔다.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등 4개의 명절에 주로 행하는 제사를 절사(節祀)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묘사(墓祀)가 뒤따른다. 수확물이 풍성한 추석 때와는 달리 한식제사에는 제수(祭需)의 가짓수가 많지 않다.

2002년 4월 6일은 한식날로 마침 토요일이었는데, 강상면 송학1리 송산(松山)마을에 모여 사는 영산(靈山) 신씨 중 5대 장손인 신상훈(辛相勳, 71세) 댁에서 한식 절사가 있었는데, 묘제로 지내야 하나 비가 와서 집에서 지낸 것이다. 원래 친기(親基), 즉 부모님 제사만 춘향(한식)과 추향(추석) 두 차례 절사로 지냈고 4대조인 고조 이하 조부 제사는 기제사만 지냈다. 그러다가 친진(親盡)하여 고조가 5대조가 되면 체천(遞遷)하여 지내는 것이 집안의 오랜 전통이지만 도시화로 각자 흩어지게 되자 이를 한식 절사로 대신한 것이다. 그런데 체천 중인 5대조가 외아들을 두고 그 아래로 4형제를 두었기 때문에 한식 절사에 모인 일가들은 모두 동고조 8촌의 당내친이다. 절사 때는 4형제 후손들이 골고루 제관을 맡는다. 이번 절사에

도 첫째에서 초헌, 둘째에서 아헌, 셋째에서 종헌, 넷째에서 독축과 집례를 맡았다. 나머지 전작과 봉작 중 봉작은 첫째 장손의 큰아들이 담당하였다.

시제(겨울제사) 때는 편을 쓰고 절사(한식과 추석 춘추제사) 때는 송편을 쓴다.

산에서 제사지낼 때 산신제는 나중에 지낸다. 제단은 왼쪽에 있다. 산에서도 독축 삼작을 다한다. 산에서는 먼저 참신하고 집에서는 강신할 때 참신 겸하여 잔 부시고 같이 절한다.

한때 90호에 이르렀던 송산의 영산 신씨들은 덕재공(德齋公) 신천(辛殿)의 후손들로 신상훈의 15대조가 되는 중시조 신신(辛信) 때 안성 죽산에서 이곳으로 입향하였다. 다음의 진설은 집사자 중심으로 배열한 것이다.

시조제사는 춘·추향으로 9세 천(殿)의 4형제까지 지낸다. 원래 음력 3월 15일과 10월 1일 모시던 것을 양력 5월 5일과 10월 3일 공휴일로 옮겼다. 13세 직제학(直提學) 계참(繼參)의 묘가 죽산 남면 칠현산 칠장동에 있다. 12세 정(靖)이 1366년생이다. 14세 신(信)의 묘는 양근 남시면 성화 분토곡(墳土谷)에 있다.



송산마을 영산 신씨의 한식 상차림



체천(遞遷) 중인 5대 조상에 대한 첫째 집 장손의 강신례로 한식절사가 시작된다



분향. 초헌관이 행한다



술을 모사(茅沙)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참신례. 참사자 전원이 재배한다



초헌례. 첫째집 장손이 초헌관을 맡았다



삼시(插匙). 수저를 메에 꽂는다



초헌례 때 육적(肉炙)으로 쇠고기적을 올린다



정저(正箸), 젓가락을 고른다



독축(讀祝), 축관이 축문을 낭송한다



아헌례 때 어적(魚炙)으로 북어적을 올린다



종헌례 때 소적(素炙)으로 두부적을 올린다



첨작. 초헌관이 종헌을 드린 잔에 다시 술을 붓는다



진다(進茶). 갡(국)을 '송냉(송농)'으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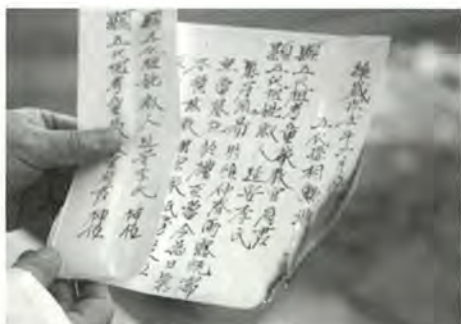
메를 손갈로 세 번에 나누어 떼서 갡물에 만다



일동 재배하여 참신례를 갖춘다



폐독(閉橫), 신주를 주독에 담는다



분축(焚祝), 밖에 나가 축문을 불태운다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례를 한다. 이로써 한식
절사가 모두 끝났다

4) 양서면 대아동 청주 한씨 기제사

요즈음은 사당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집을 찾기 힘들다. 집안 마루에 감실을 둔 집 역시 드물다. 양서면 청계리 반월형마을 청주 한씨 9대 종손 한기창 집은 일대에서 아직도 벽감사당을 두고 조상 위패를 모시고 있는 유일한 집이다. 2002년 1월 9일 밤에 그 집 조부(1878~1958)의 기제사가 있었다. 조부의 기일은 다음날인 음력 11월 26일이다.

이 집의 종부는 다식판으로 직접 다식을 만드는 등 제물 마련에 정성을 다하였다. 다음은 제물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 나물 :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 탕 : 북어, 무, 다시마, 간장
- 인절미 : 찹쌀을 찢어서 만든다. 녹두고물은 녹두를 기피한 것이다.
- 과줄 : 밀가루로 네모나게 만들어 기름에 튀겨 낸 것으로 한 줄에 다섯 개씩 놓는다.

- 포 : 북어포
- 다식 : 송화다식(노란색), 깨다식(검은색), 쌀다식(미색). 한 줄에 여덟 개씩 놓는다.
- 식혜 : 밥알만을 건져 작은 종지에 담고, 그 위에 길게 썬 대추를 박는다.
- 꽃감
- 조청 : 멸건 조청과 된 조청
- 과일 : 사과, 귤, 배, 대추, 밤. 밤은 옆으로 긴 육각형 모양으로 고이기 편하게 친다.
- 산자 : 작고 둥그란 빵튀기에 쌀 튀긴 것을 붙여서 만든다.
- 적 : 육적, 어적, 계적, 쇠고기, 북어 세 마리, 삶은 닭을 하나의 제기 위에 쌓아 올린다.
- 누름적 : 밀가루 전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사각의 모를 죽여 모양을 만든다.
- 갈랍 : 동태포를 계란과 밀가루를 묻혀 부친다.
- 국수(면)
- 무(동치미)
- 간장
- 떡(누름편) : 다섯 컵을 쌓아 올린다.
- 묵(청포묵) : 원래는 두부를 지저서 올려야 하는데, 가족들이 잘 먹지 않아 묵으로 대신한다.
- 조기 :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칼집을 넣어 찢은 것을 올린다. 위에 파와 계란지단을 올려 장식한다.
- 술 : 직접 담근 술을 주전자에 담아 준비한다.

설 때는 감실 문만 열고 개독은 하지 않는다. 선달 그믐 묵은세배 할 때도 사당 문만 연다. 설 때 노인들은 자기가 받을 절을 다 받고 사흘날부터 보름 이전까지 방문하여 사당에 세배를 드리므로 보름까지 사당 앞에 자리를 깔아 둔다. 차례 때도 문만 연다. 기제사 때만 해당 신주를 모셔 개독한다. 그 앞에서 두 번 절한다. 신주는 8위가 있다.

차례 때는 단헌을 올리고 축을 읽는다. 차례를 지낸 후 성묘 갈 때는 맨손으로 가서 절만 한다. 눈이 많이 오면 못간다. 8월 초순경에 별초한 후 산소에 절하고 추석 때는 차례만 지내고 산소에 가지 않는다.

9대조 밑으로 70호를 이루었다.

〈淸州人 韓基昌家 忌祭 笏記〉

一. 獻官以下諸執事詣盥洗位

一. 神主出主

諸執事就位 - 宗孫讀祝 - 諸執事再拜 - 神主奉安

一. 獻官以下諸執事就位再拜

降神 - 參神

- 一. 設蔬果(陳設)
- 一. 獻官詣香案前俯伏跪奉香西向跪奉爐東向跪三上香獻官再拜俯伏興平身
- 一. 執尊斟酒 封爵奠爵
茅沙
- 一. 獻官以下諸執事再拜參神
- 一. 進饌
- 一. 行初獻官詣香案前俯伏
執尊斟酒封爵奠爵
- 一. 大祝正箸入讀祝
獻官再拜俯伏興平身
亞獻 - 終獻官
- 一. 侑食(添酌獻官再拜平身)
- 一. 啓飯插匙正箸
- 一. 闔門 啓門
- 一. 進茶(송내)
- 一. 撤箸(撤匙覆飯)
- 一. 獻官以下諸執事再拜參神
- 一. 燒祝
- 一. 辭神



다식만들기. 종부가 다식판으로 송화다식(노란색), 깨다식(검은색), 쌀다식(미색) 등을 만들고 있다



제물을 제기에 담고 있다



감실(龕室), 마루 좌측 벽에 설치되어 있다



종손이 벽감에서 신주(神主)를 출주(出主)하고 있다



신주 독을 열고 기름을 먹인 제면지(祭面紙)를 깐 상위에 신주를 봉안한다



부복하고 강신례를 행한다



진설(陳設), 소과(蔬果)들을 진설한다



진찬(進饌)에 이어 분향례를 행한다



종손이 초헌관으로 초헌례를 행한다



주주(酒注 : 술주전자)로 술을 따라 헌작한다



모두 부복한 가운데 축문을 읽는다



유식을 위해 함문하는 대신 돌아선다



진다(進茶). 국을 '송냉(송냉)'으로 바꾼다



송냉에 밥을 세 번 만든다



현대를 위해 잠시 부복한다



철저(撤箸) · 삽시(插匙) · 복반(覆飯)



신주를 벽감에 납주(納主)하기 전에 사신례(辭神禮)를 행하고 있다

5) 양서면 청계리 대구 서씨 시제

2001년 11월 25일 양동면 내곡리 재실에서 덕수 이씨 시제가 있던 날 양서면 청계리 반월 형마을 달성 서씨 재실에서도 시제가 있었다. 재실인 청계사(淸溪祠)는 1998년에 건립한 것으로 매년 음력 10월 10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일요일 11시를 택해 이곳에서 시제를 갖는다. 달성 서씨의 묘소는 이곳을 중심으로 강하면 항금리, 만정리, 풍덕 대야현, 북상심리 등에 분포되어 있다.

달성 서씨는 본관이 대구(大丘)라고도 하며 침추공파(僉樞公派) 저작공(著作公) 종중의 좌랑공(佐郎公) 후손인데, 다시 9개 파로 구분된다.

17세 문익, 18세 중기, 19세 명유(배위 2) 등 3대 7위는 제상에 모시고 그 아래는 각각 해당 위패 밑 제단에 단잔을 붙는다. 사당을 짓기 전에는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와 시제를 지냈다. 그 이후는 집에서 차리고 산에서는 절만 한다.



대구 서씨 재실인 청계사(淸溪祠)에 설치된 제단의 모습. 층계는 세대구분을 나타내며 맨 위에 파시조인 17세 저작공(著作公) 서문익(徐文翊)의 위패가 있다



진설은 참사자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에 국, 우측에 메를 놓고, 초헌례때 육적, 계적 및 어적을 합친 도적을 가운데 놓는다



재실에서 제사가 끝나면 산에 올라가 17세 묘소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아무런 제물 없이 참배만 한다



20세 서의수(徐毅修) 등 실전된 5위는 묘 대신 단비(壇碑)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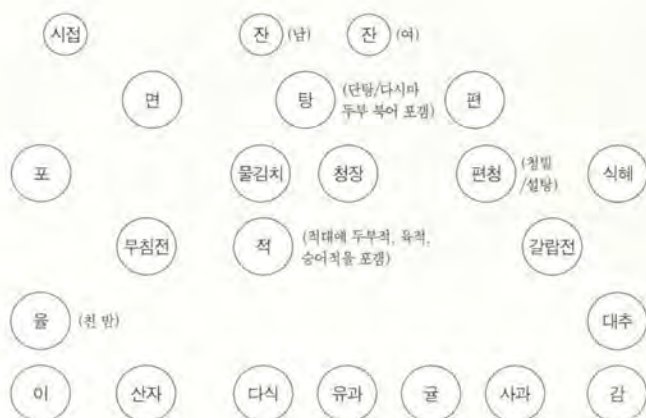
참사자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에 국, 우측에 메, 가운데 적(초헌 때 육·계·어적을 합쳐 올린다), 우측에 편을 놓는다. 과일은 홍동백서 순으로 좌측부터 밤(친 밤), 유과, 약과, 배, 수박, 감, 귤, 사과, 대추를 놓았는데, 수박을 가운데에 놓았다.

초헌관은 종손인 28세 순원(舜源)이 맡았고, 아헌과 종헌은 9개파 지손들이 각각 맡았다. 서씨 일가들은 양평보다 안동이나 충주에 많이 살았고, 지금은 서울에 많이 산다. 강하면 상심리에 14세 약봉 서성의 정자가 있었는데 셋째인 경빈과 그 손자가 모셨다고 한다. 양평의 입향은 이때부터로 추정된다.

「청계사 입주자 준칙」에 의하면 청계리 종산 소재 8기 선조묘에 대한 관리, 전답 및 산림 관리와 이용 등은 청계사 입주자가 무상으로 하되 일년 1회 시제는 입주자 비용으로 차린다 고 되어 있다. 입주자는 일가 중에서 지원자를 뽑는다.

6) 양서면 부용리 여흥 민씨 시제

여흥 민씨 전서공파(典書公派) 시제는 2001년 11월 28일(음10월 14일) 11시에 양서면 부용리 양지산(陽地山)과 화개산(華蓋山)에서 있었다. 시제는 이날 시작하여 17일에 끝난다.



부용리 여흥 민씨 시제 진설도

전서공은 12세조 세영(世榮)이다. 여흥 민씨 전서공파의 입향은 17세 총(叢) 때로 추정되는데 그와 그의 모 충주 박씨부터 이곳에 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손은 해주에 거주하고 그곳 고산(高山)에 선대 묘가 있다. 17세 전첨공(典籤公) 총(叢)의 세 아들(時中, 世舟, 致中) 중 맏이인 시중의 자손들로 해방 전에는 시제 때 왕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손들이 지내게 되었다. 경상도 산청에 사는 일가들이 최근에 뿌리를 찾았고, 작년까지 시제 전달 와서 하루 묵었다.

비나 눈이 올 때는 재실이나 집에서 시사를 지낸다. 이때를 대비해 재실 안에 묘소 전경 사진을 걸어 놓았다.

이 문중에서는 한식차례는 지내지 않는다. 가까운 조상 중에 산자를 먹고 죽은 경우가 있어 산자를 제물로 쓰지 않는 집안도 있다. 제물 진설방식은 흥동백서, 좌포우혜 등이다. 산신제는 시사를 시작하기 전 한번 지내고 그만이다. 산신제 제물은 본 제사와 똑같이 차리지만 제물의 양은 반을 쓴다.

다음은 14세 승서(承序)와 15세 함(諫) 내외 묘소에서 제시순서다. 12시 50분에 시작하여 12시 54분에 끝났다.

분향→강신→퇴주→재배→잔→헌작 2위(좌, 우)→정저→독축→일동 부복, 재배→아헌→잔 퇴주→헌작→정저→재배→종헌 재배→잔 퇴주→분향→헌작→정저→재배→초헌관 첨작(잔을 향로 위로 돌린 다음 첨작)→정저→재배



본 제사에 앞서 묘소의 동북쪽 양지산(陽地山) 기슭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14세 민승서(閔承序) 내외 묘소. 1982년 3월 26일에 수원 광교산에서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여흥 민씨 전서공파(典書公派) 자손들이 14세 조상묘에서 시제를 올리고 있다



15세 민함(閔咸) 내외 묘소. 1982년 3월 26일에 수원 광교산에서 15세 민함의 묘를 이장하여 이곳 화개산에 있던 부인 충주 박씨 묘에 합폄하였다



묘 앞에서 잔을 올리고 있다



초헌관이 잔을 올린 후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16세 민계증(閔季曾)에서 19세 민영(閔諲)까지는 묘 앞에서 주(酒)와 포(脯)로만 간략하게 제사 지냈다

7) 서종면 노문리 결성 장씨 묘제와 기제사

주민 장○덕의 집안은 묘에서 제를 올리는 경우는 절사(節祀)와 세제(歲祭)가 있다. 절사란 원래 춘절과 추절 등 사시절에 제사를 올리는 것인데, 한식절사와 추석절사만 올리고 있다. 이때 집에서는 따로 차사를 올리지 않고 곧장 산소로 간다. 세제란 친진(親盡)하여 기제사를 올리지 않는 5대조 이상에 대한 제사인 시제 또는 시향을 말한다. 이곳 결성 장씨의 경우 음력 10월 15일에 날을 정해 지내던 것을 5년 전부터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로 날을 잡아 지내고 있다. 이외에도 선영에 인사를 올리는 경우는 선달 그믐날 낮에 올라가서 묵은세배를 올릴 때와 설날 아침 집에서 차사를 지내고 '봉심(奉審)'을 하러 갈 때라고 한다.

기제사 제사상 진설은 신위에 가까운 쪽으로부터 반갱줄, 적줄, 탕줄, 채줄(포채줄), 과줄 순으로 차려진다. 반갱은 살아 있는 사람과는 반대로 신위로부터 보아 좌측에 갡(국)을, 우측에 반(배)을 놓으며 그 사이에 잔을 놓는다. 적줄에는 육적, 계적, 어적의 삼적을 올리고 그 양쪽으로 편(신위로부터 보아 좌측)과 면(신위로부터 보아 우측)을 올린다. 탕줄에는 육탕, 어탕, 소탕의 삼탕을 놓는다. 과줄은 조-울-이-시 순으로 놓고 이외에 귤, 사과, 잣, 조과류를 이어서 놓는다고 한다. 포는 머리와 꼬리를 떼지 않고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해서 엮어놓으며, 닭도 엮어 놓는다.

8) 지제면 수곡2리 안골 안동 권씨 시제

지제면 수곡리에 있는 수곡서원은 안동 권씨 문중서원이다. 권씨 문중은 10월 시제를 이곳에서 지낸다. 2001년 11월 17일은 음력으로 10월 3일로 안동 권씨 시제가 있는 날이다. 시제는 원래 10월 초하루부터 3일까지 지내고 이후는 각 파별로 지냈으나 10년 전부터 종답을 부치는 사람이 없어 3일 걸리던 일정을 하루에 모아 지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곡서원 성경재(誠敬齋)에서 안동 권씨 시제가 있었다. 12시에 서 12시 반 사이에 성경재 앞 마당에서 음복례가 있었으며 12시 반에서 1시간 가량 부근 개군면 계전리 해룡산에 있는 권황(權滉) 및 그의 부친 묘역에서 시제가 있었다. 이날 성경재에서의 시제 제사대상은 모두 17기로, 17세 영화(永和) 내외 2기, 18세 질(耆) 내외 2기, 19세 경우(景祐) 4형제 내외 9기, 20세 치(緻) 내외 2기, 그리고 21세 몽익(夢翼) 내외 2기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집례, 전작, 봉작 등이다. 초헌관은 종손, 아헌관은 향렬이 제일 높은 문장(門長) 권중환이 맡았다.

제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제관 모두 성경재 마루 및 앞뜰에 정렬한다.
- 초헌관이 신위 앞으로 나온다.
- 봉작은 초헌관 오른쪽, 전작은 왼쪽에 선다.

- 초헌관은 분향하고 두 번 배례(拜禮)한다.
- 강신(降神)
- 봉작이 잔을 부복하고 있는 초헌관에게 주고 잔에 술을 따른다.
- 초헌관이 잔을 향 위로 세 번 돌린 후 세 번에 나누어 모사기에 붓는다.
- 빈 잔을 봉작에게 주면 봉작은 이를 받아 신위 앞에 다시 놓는다.
- 참신 : 제관 일동 재배
- 초헌관이 신위 내외분에게 헌작하고 헌육(獻肉)한다.
- 축관이 초헌관 왼쪽에 앉아 고축(告祝)한다.
- 초헌관과 축관이 함께 배례한다.
- 아헌관이 신위 앞에 나온다.
- 아헌관이 헌작하고 헌적(獻炙, 계적)한다. 계적은 육적 오른쪽에 놓는다.
- 아헌관 배례한다.
- 종헌관이 신위 앞에 나온다.
- 종헌관이 (반 잔을) 헌작하고 헌적(獻炙, 어적)한다. 어적은 계적 오른쪽에 놓는다.
- 종헌관 배례한다.
-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온다.
- 침작 : 전작이 신위 앞에 놓인 잔에 직접 따른다.
- 계반삼시 : 손가락 안면이 신위 앞을 보게 놓는다.
- 정저(크게 소리를 내며 세 번 두드림)
- 초헌관 배례한다.
- 제관 일동 굴복하여 7~8초 후 '흠흠흠' 기침 세 번 또는 '흥(興)'.
- 갱물 국을 갱물로 바꾸고 메를 손갈로 세 번에 나누어 떠서 갱물에 만다. 정저
- 제관일동 굴복 7~8초 후 '흥(興)'.
- 철수저 및 퇴작(退酌)(손갈 치우고 밥뚜껑 닫고 잔을 약간 뒤로 물림)
- 축관과 초헌관이 마주 보고 축관이 초헌관에게 '해성'(예성)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한다.
- 제관 일동 사신 배례한다.
- 철상한다.
- 음복한다.

제물의 진설은 신위를 중심으로 국·밥·갱물 순으로 놓는다. 신위는 지방만 바피 쓰고 그 때마다 다른 제물은 그대로 놓고 메·갱·적만 바꾸어 올린다. 좌포우혜의 원칙을 따르는데 포, 혜와 과일은 같은 줄에 놓는다. 과일은 흥동백서를 따른다. 왼쪽으로부터 회갓(간 천엽), 미(쇠고기를 저며 계란에 부친 것), 갈랍(밀가루전), 녹두갈랍(작은것), 절편(떡), 쌀다식, 송편(죄기)순으로 놓는다.



지방(紙榜), 초헌관인 종손으로부터 18대조인 17세 권영화(權永和) 내외 신위 2기다



17대조인 18세 권질(權奎) 내외 신위 2기다



16대조인 19세 권경우(權景祐) 4형제 내외 신위 9기다



15대조인 20세 권치(權祿) 내외 및 14대조 21세 권몽익(權夢翼) 내외 신위 4기다



수곡서원 성경재(誠敬齋)에서 강신례로 초헌관인 종손이 분향하고 있다



초헌관이 모사기에 붓고 난 빈 잔을 봉작이 받아 신위 앞에 다시 놓는다



강신례로 초헌관이 재배한다



참사자 일동이 재배하여 침신례를 한다



모두 부복한 가운데 축관이 고축(告祝)한다



축문(祝文), 제관은 축관, 집례, 전작, 봉작 등이다



초헌관이 봉작(奉爵)으로부터 수주(受酒)하고 있다



신위 내외분에게 헌작한 후 쇠고기 육적(肉炙)을 헌적(獻炙)하는 절차다



아헌례 때는 계적(鷄炙)을 올리는데 참사자 기준으로 육적 오른쪽에 놓는다



아헌관의 배례. 아헌관은 항렬이 제일 높은 문장(門長)이 맡았다



종헌례 때 어적(魚炙)을 육적과 계적 오른쪽에 놓는다



헌작과 헌적을 마친 종헌관이 배례를 하고 있다



첨작. 초헌관이 앞으로 나오고 전작이 신위 앞에 놓인 잔에 술을 직접 따른다



계반삼시. 손가락 안면이 신위 앞을 보게 놓는다



점작과 계반삼시를 마치고 초헌관이 배례를 한다



제관이하 참석자 모두 부복하고 10초 정도를 기다린 후 '흠 흠흠' 기침 세 번을 신호로 모두 일어선다



진다(進茶), 국을 갠물로 바꾼다



메를 갠물에 말고 정저(正著)한다



참사자 일동 부복하고 있다. 유식 때와 마찬가지로 부복한 채 잠시 기다렸다가 집례가 '흥(興)' 하는 소리를 신호로 모두 일어선다. 수저를 철수하고 메 뚜껑을 닫고 퇴작(退酌), 즉 잔을 약간 뒤로 물린 후, 축관과 초헌관이 마주 보고 축관이 초헌관에게 '애성(利成)' 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한다



제관 일동 사신(辭神) 배례 후 철상하고 음복한다



개군면 계전리 해룡산에 있는 21세 권몽익(權夢翼) 묘 앞에서 시제를 행하고 있다



22세 권황(權滄) 묘 앞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대구에 사는 종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제를 마친 후 묘소 동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묘소에서 음복례를 행한다

9) 지제면 옥현리 전주 이씨 시제

음력 10월 10일에 지내는 시제는 봉향사 사당에서 입향조 퇴우당공 자손들이 모두 모여 도포와 유건을 갖추고 위패 앞에서 지낸다. 설날에는 아침에 고조 이상부터 입향조까지 성묘 차례를 했는데, 일일이 성묘하기가 너무 힘들어 10년 전부터 재실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었다. 사당차례가 끝나면 당내친끼리 모인다. 추석에도 당내 규모로 모이는데, 차례를 지낸 후 성묘하는 것이 다르다. 한식 역시 당내 규모로 모이는데, 고조의 형제 2명만을 따로 모신다. 원래는 기제사를 지내다가 친진하면서 한식차례로 돌렸다. 종손 이영재의 고조는 차자인데 형이 무후(無後)하여 아들이 양자로 종가를 이었다.

기제사 때는 밥을 올리고,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옛날에는 좌포우혜(포는 양쪽을 자르고, 머리를 동쪽으로), 흥동백서, 어동육서(송어, 머리를 동쪽), 생동숙서, 삼적(닭적, 육적, 어적), 탕은 오탕, 닭은 얹어놓고, 과실주를 쓴다. 돼지는 시제 때 올라간다.

10) 개군면 상자포리 밀양 박씨 시제

밀양 박씨 판서공파의 시제일은 음력 10월 초정일에 시작하며, 이날은 박경의로부터 박서창에 대한 제사를 올린다. 그 뒷대는 밀양에서 시제를 올리고 있다. 이어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차례로 시제를 올린다고 한다. 시제의 제물은 위토의 경작인이 준비하는데, 타성이 위토의 경작을 맡아왔다.

제물의 진설은 우선 과일의 경우 흥동백서 순으로 진설하며, 탕은 칠탕을 쓰다가 중간에 오탕으로 바뀌고 다시 삼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삼탕으로 올릴 때는 동쪽으로부터 어탕, 소탕, 육탕을 놓는데, 소탕은 탕국을 끓이고 두부 위에 다시마를 덮어서 만들고, 육탕은 그 위에 고기를 놓는 것이고, 어탕은 고기 대신 북어나 홍합을 놓는 것이다. 북어를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홍합을 올리기도 하는데 홍합을 올릴 때는 세 개를 놓는다고 한다. 적의 경우 원래 오적을 쓰다가 현재는 삼적을 쓰는데, 오적을 쓸 경우 아래에서부터 북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순으로 쌓아 올리고, 삼적을 쓸 경우 아래에서부터 북어,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쌓는다. 생선을 놓을 때는 머리를 동쪽에 꼬리를 서쪽에 둔다. 포는 젓혀서 놓고 두부를 찌서 얹은 계란 위에 놓고 만 것을 위로 올린다.

설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묘에 가서 포를 올리고 술 한 잔 부어놓는 정도로 간단히 인사를 올린다. 한식 때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바로 묘로 가는데, 이때는 삼색과일과 술, 포를 가지고 간다. 추석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산에 가서는 간단히 잔만 부어놓는다고 한다. 박태영은 고조부까지 기제를 모시는 '5대봉사'(자신을 1대로 쳐서 5대이므로 4대봉사를 말함)를 하고 있다.

11) 용문면 광탄리 남원 양씨 시향

남원 양씨 곡산공파(谷山公派) 광탄 종중의 시향은 음력 10월 1일이다. 1997년까지는 선대 묘소 앞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올렸으나, 1998년부터는 신축한 재실 안에서 합동제례를 올리는 형태로 바뀌었다. 선영을 관리하는 수호인에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외지로 나간 후손들이 많아서 하루에 제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곡산공파 문중에서 건립한 재실은 집성촌인 광탄리 북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상량일은 1998년 6월 15일 오시(午時)이며, 숭모전(崇慕殿)이라 이름하였다. 내부는 계단식으로 단을 만들어 위패를 봉안한 사당 형태다.

재실 전면을 계단식으로 하여 위패를 봉안하는 형태의 재실은 1990년대에 양평군의 여러



용문면 광탄리 남원 양씨 시향

문중에서 건립하였는데, 남원 양씨 곡산공파에서는 입향조의 위패를 하단 전면에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에 모신 것이 아니라 '앞쪽'에 모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종종 원들이 설명하였다.

시향은 재실 뒤편에 만든 산신제단에서 간단한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재실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평상복 차림으로 소략한 제물을 차리고 제례를 마친다. 산신제가 끝난 후에는 재실에 모여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삼헌관은 관복, 즉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고, 나머지 제관은 갓을 쓰고 창의(幘衣)를 입으며, 참례자들은 유건(儒巾)을 쓰고 창의를 입는다. 친·외손을 가리지 않고 모든 후손들이 자리를 같이할 수는 있으나, 배례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없었다.

과실 진설은 집집마다 통일되지 않았는데 1990년대 중반 대종중 이사장의 견해에 따라 홍동백서를 따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1년 시향 때의 경우, 제관이 제상을 마주했을 때 왼편으로부터 밤, 배, 감, 사과, 대추의 순을 따르고, 배와 감 사이에 조과류를 진설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대추와 사과를 제외한 과실은 모두 깎아서 올렸으나, 물이 흘러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여, 맨 위에 올린 사과·감·배의 윗부분을 쳐서 올리게 되었다.

제주는 탁주를 쓰는데, 헌작에 쓰이는 제주잔 크기가 밥주발만하며, 모사(茅沙) 또한 지름이 30cm가 넘는 양동이였다. 2001년 모사의 경우, 모래 위에 술잎 무더기를 곁들 그 사이에 쌀을 뿌렸는데, 헌관의 퇴주를 모두 붓자 약 10cm 깊이의 모래가 잠길 정도였다.

12) 양동면 삼산리·쌍학리 덕수 이씨 시제

덕수 이씨의 시제는 매년 음력으로 10월 11일에 양동면 내곡리 재실(齋室) 2층에서 10시 경부터 거행된다. 원래는 묘제로 지냈고 홀기도 묘제에 맞춘 것이다. 제상 뒤에는 '택당선생 유훈'을 적은 글자병풍을 둘렀다. 일대의 덕수 이씨들은 15세조 이식(李植)의 시호를 따라

문정공파(文靖公派)라고도 하고 호를 따라 택당파(澤堂派)라고도 한다.

이날 제실 시제 대상은 택당의 조부모인 13세 승지공 섭(涉) 내외와 부모인 14세 찬성공 안성(安性) 내외, 그리고 택당 내외다.

제사 절차는 다음과 같고, 같은 과정을 신위를 바꾸면서 세 번 반복하였다. 강신례 → 참신례(제관 일동) → 3헌관 관수, 세수 후 정위 → 봉작과 전작 2명씩 제상 좌우로 배치 → 초헌례 → 독축 → 아헌례 → 종헌례 → 종헌례 때 잔에 술을 받은 다음 관주(灌酒) 후 침작 → 갹물 후 → 음복례(초헌관이 동복을 향해 약간 비스듬히 앉아 음복을 한다. 철찬 후 분축(焚祝) 생략한다.

적(炙)은 초헌, 아헌, 종헌 때마다 육적, 계적, 어적을 차례로 올리되 가적(可炙)하여 포개어 놓는다. 과일도 좌측부터 조율이시 순서로 배열한다. 삼시 때 수저는 동쪽을 향해 꽂았다. 메와 갹은 참사자가 볼 때 좌측에 메, 우측에 갹을 놓았다. 제사를 끝내고 성묘를 가지만 아무 것도 안 가져가고 참배만 하며, 산신제는 지낸다.



진설을 마친 제상의 모습. 과일은 왼쪽부터 조·율·이·시 순서로 배열하였다



제상 가운데 빈 곳에는 초헌, 아헌, 종헌 때 각각 육적, 계적, 어적을 차례로 올리되 가적(可炙)하여 포개어 놓는다



개독(開讀), 택당 선생의 조부모인 13세 승지공 섭(涉) 내외의 지방(紙榜)이다



초헌관이 분향하고 있다



초헌관이 강신례를 행하고 있다



초헌관이 관주(灌酒), 즉 술을 붓는 절차다



모사기에 세 번에 나누어 술을 붓는다



참사자 일동이 재배하면서 참신례를 행하고 있다



초헌관이 초헌례를 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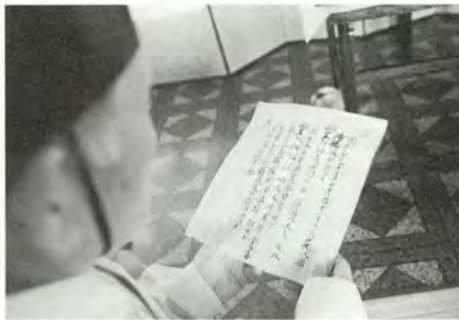
초헌례 때는 쇠고기로 만든 육적(肉炙)이 올라간다



육적을 올린 후 계반(啓飯)하고 삼시(插匙)하고 정저(正箸)한다



축관이 독축하는 동안 참사자들은 모두 부복(俯伏)한다



축문은 묘제축문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



집례는 흥기를 보고 창홀(唱訃)하여 제의를 진행한다



아현례 때 육적 위에 계적을 올렸다



종헌관이 헌작을 위해 제주를 잔에 받고 있다



종헌례 때 육적과 계적 위에 어적을 올려놓았다



초헌관이 첨작(添酌)을 위해 첨잔을 하고 있다



삼적, 즉 육적, 계적, 어적이 가적(可炙)되어 놓여있다



진다(進茶) 절차로 국을 갱물로 바꾸고 있다



메를 갱물에 만다



유식 때처럼 잠시 묵념한 채 서 있다



수조(受胙) 절차로 초헌관이 음복을 한다



철시복반(撤匙覆飯)으로 숟가락을 거두고 밥 뚜껑을 닫았다



사신(辭神) 절차로 참사자 일동이 재배한다

13) 강하면 운심2리 운포마을 충주 지씨 사당

지씨 사당은 충주 지씨 외의 주민이 당집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에서 하던 '지씨네 당굿'은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며, 지씨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무당을 불러다 굿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사당 내부에는 전면 좌측에 '장사 할아버지'로 불리는 무인도(武人圖)와 전면 가운데에 '산신령님'으로 불리는 산신령도(山神靈圖)가 나란히 모셔져 있고, 그 앞으로는 소주병과 술잔이, 그 우측으로 1998년 사당 뒤의 선영을 정비하면서 함께 마련한 '장사 할아버지'의 비석이 서 있다. 장사 할아버지는 현재 운포에 거주하고 있는 지창○의 12대조인 지계윤(池繼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당 안에 세운 비석에는 "縣監公諱繼潤生希 忠州池公武科宣傳官 贈嘉善禦侮將軍 配貞夫人南陽洪氏"라고 되어 있으며, 사당의 뒤편 선영의 맨 위에 있는 지계윤의 묘비에는 "忠州池公武科宣傳官 贈嘉善禦侮將軍 贈貞夫人南陽洪氏"라고 되어 있다.

지창○에 따르면 지계윤은 조선시대에 참판까지 지낸 분이다. 하루는 임금 앞에 있다가 문득 천기를 보니 집에 병고가 있음을 알고 한달음에 운포 집으로 달려왔다 한다. 한달음에 달려서 왔으니 날아서 온 셈인데, 한여울에서 배로 강을 건널 때는 삿대질을 한 번 하니 바로

운포에 닿았다고 한다. 집으로 들어오니 도적떼 삼십 명이 '황닥불'[화덕불, 황더기]을 놓고 노략질을 하고 있었고 도적떼의 괴수는 막 부인을 겁간 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이에 지계윤이 활로 괴수의 눈을 찔러 죽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다른 사람 소피 보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사당 안에 걸려 있는 무인도와 산신령도는 지창환의 부친이 약 5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며, 그 전에는 사당도 없었다고 한다.

사당 뒤로 충주 지씨의 선영이 있는데, 지창환의 14~15대조는 산을 등지고 우측 능선 너머에 모셔져 있으며, 사당 바로 뒤로는 산 위에서부터 12대조, 11대조, 13대조, 10대조 순으로 묘가 모셔져 있다. 13대조의 묘는 주인과 두 부인이 한 분묘 안에 모셔져 있는데, 지창환씨는 이를 '삼합장(三合葬)'이라고 하였다. 묘비에는 "學生忠州池公之墓 孺人寶城朴氏 孺人慶州金氏附左"라고 되어 있다.

사당 옆으로는 원래 지계윤과 그 아들의 묘에 서 있었다고 하는 오래된 비석을 옮겨 세워 놓았으나 마모가 심하여 뒷면의 몇 자를 제외하고는 육안으로 판독할 수 없었다. 그 옆으로는 지창환의 10대조의 묘가 있었고, 그 비석에는 "贈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忠州池公之墓 贈淑夫人寶城朴氏附左"라고 되어 있다.

14) 강상면 세월리의 마을 기제사

세월리 경로당에서는 손이 없이 작고한 한 노인을 위해 대동날 이장과 반장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설군명의 부인이란 분이 돌아가신 후 논 400평, 밭 100평을 마을 재산으로 내놓은 것이고, 마을에서는 그 노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주는 것이다. 제삿날도 따로 없이 대동날인 양력 12월 29일이나 30일에 지낸다.

제5장 마을과 사회조직*

제1절 마을 입지와 역사

양평을 구성하는 각 면들을 지역적인 연관성에 따라 나누어보면 첫째로 남한강변의 양평읍과 강상·강하 지역 및 고읍인 옥천면, 둘째로 북한강을 낀 서종면과 양서면의 서북쪽 지역, 그리고 셋째로 지제·양동·용문·청운·단월의 옛 지평현 소속 5개면 등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된다. 여기에 과거 여주군이었던 개군면을 포함시키면 12개 면이 양평을 구성한다. 서종면은 과거부터 강 건너 양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단월과 청운은 강원도 홍천과 횡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제와 양동은 여주나 강원도 원주와 교류가 많다. 전체로 볼 때 동북쪽은 산간지역이 많고 농사기술도 강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서남쪽은 강 유역으로서 밭보다 논이 많고 그 아래 경기도 평야지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면에 속해 있는 마을이라도 해발 고도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양평읍과 옥천·강상·강하·개군에서는 옥천면 신복리, 강상면 세월리, 강하면 성덕리, 왕창리 왕충마을, 운심2리 운포마을, 전수2리 사호마을, 항금리 항금마을, 개군면 상자포리 등을 조사하였다. 양서·서종은 양서면 대심1리 한여울, 대심2리 상심, 대이동, 국수1리 정자동, 신원1리 샘골, 서종면 노문리 등을 둘러보았다.

동북부에 해당하는 용문·단월·청운에서는 용문면 덕촌리, 조현리, 단월면 덕수리, 보룡리, 수상·수하·수미, 산음1리, 산음2리 고가소, 덕수1리 백동, 청운면 여물리, 용두리 등의 마을을 조사하였다. 지제·양동에서는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양동면 계정리, 금왕1리,

* 제5장은 오석민·김군영 집필임.

삼산리 금곡마을 등을 살펴보았다.

양평은 1972년도 홍수 때 강 연안에 마을이 밀집해 있는 강상면과 강하면 등에 물난리를 크게 겪었고 그 피해로 과거 문서들도 많이 없어졌다.

1. 양평읍과 옥천면

양평읍 읍치는 1747년(영조 23) 지금의 옥천면 옥천리에서 이읍(移邑)하여 설치되었다. 공흥3리의 수청거리는 객사가 있던 양근리 북쪽으로 술청(酒幕)이 많은 곳이었다고 한다. 대흥1리 황골, 또는 대곡은 본래 큰골로 옛날에 주막이 있었다.

백안3리 새숫골 백운봉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곳 약수사에는 조병호 법사의 신당이 있다. 신애1리에는 용문산 제단이 있어 산신제와 기우제를 지냈는데 일제 때 중단되었다고 한다. 양근1리 나루터는 현재 양평대교가 세워진 곳으로 강상 교평리 진변을 건너다니던 곳이다. 또 자작고개는 양근리에서 창대리 새터말로 넘어가는 국도변 고개인데, 큰 수해로 강물이 고개마루까지 자작자작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갈산장은 고읍 사탄에 있던 장이 관아가 이전한 후에 생겼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양평 사거리는 양근리 중앙 관문거리와 강변, 여주, 홍천 및 서울로 가는 네 갈래 길이 있다. 홍문거리는 현 양평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무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일제의 농상공부수산국(農商工部水産局)에서 1911년에 간행한 『韓國水産誌』(4권, 238쪽)에 의하면 양평읍은 “원래 양근읍으로 경성으로부터 동남쪽 16리허 떨어진 강의 좌안(左岸)에 있으며, 원래는 인가 400여 호의 작은 도회지이나 전년의 폭도로 인하여 전 읍이 거의 화재를 입어 지금은 190여 호의 마을이 되었다. 게다가 그 과반수는 화재 후에 신축된 것으로서 모두 초가집이다. 그러나 부근의 농업이 성하며 강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여 상업이 성행하니, 매 음력 3·8일에 장시가 개설된다. 일년 중 강에 의해 이입되는 주요 수산물은 조기 150항아리〔甕〕, 새우젓〔醃蝦〕 4섬옹〔石甕〕, 명태 500태〔駄〕가 된다”고 하였으며 강원도 횡성과 홍천 등의 물자가 주로 거래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옥천면은 고읍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아신3리 구창대(舊倉臺)는 조선시대 군량미 창고가 아홉 군데 있었다고 하는 곳이다. 장고개는 빙고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장이 서던 곳이어서 붙은 이름으로 추측할 뿐인데, 양근으로 이읍하기 전에는 그곳에 장이 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산 김씨, 동래 정씨, 연안 이씨가 대성이고, 아신리 아랫고닐에 동래 정씨, 웃고닐에 경주 정씨가 많이 산다.

양근향교가 읍치에 있지 않고 고읍에 있는 까닭은 신읍으로의 이전에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한말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옥천1리 중부는 고읍내 중앙에

있는 마을로 관아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창말[倉村]은 고읍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사창 창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복리는 신복1리에 해당하는 후평(뒷뜰), 신복2리의 북동, 신복3리의 신촌으로 구성되는데, 북동은 60호 정도가 거주한다. 현재도 집이 들어서고 있어 호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2. 강상·강하면과 개군면

강상면과 강하면 사이에는 양자산과 백병봉이 가로놓여 있어 그 사이에 길이 있으나 서로 간에 왕래가 쉽지 않다. 강하면에서 읍치인 양평읍을 가는 데는 산을 넘는 것보다는 강을 끼고 도는 것이 편리하나 항금리와 같은 강하면 안쪽 깊은 곳에서는 여주 산북면 하품리로 넘어와 다시 강상면 세월리를 거쳐서 간다.

강상면 세월리는 세심과 월리 2개 리로 나뉘어 있던 곳이다. 예전에는 세심은 가자울이라고 했으며 월리는 다리가 많아서 다리골이라고 했다. 세심이 1리이고 월리가 2리에 해당한다. 1952년에서 1954년 사이에는 세심마을은 120호 정도가 살았다. 당시 월리는 40호 정도가 되었다. 일제시대 때에는 더 많이 살았다고 하나 한국전쟁 때에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고 있다. 세심에는 심씨와 장씨가 많았다. 처음에는 청주 한씨가 들어와 살았으나 지금은 후손들이 살지 않으며, 단양 장씨(현재 5호), 경주 최씨(5호 정도), 청송 심씨(10여 호)가 산다. 세월리에는 정미소 조합소 유로 땅 9마지기가 있다고 한다. 마을 노인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도지를 조합에 내고 그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효부상 등을 준다.

강하면 성덕리에는 뚜렷한 대성은 없지만, 성덕1리에는 문화 유씨와 진주 강씨, 해평 윤씨가 많이 살고, 성덕2리에는 삭녕 최씨와 전주 이씨, 성덕3리에는 여흥 민씨가 많으며, 성덕4리는 청해 이씨와 전의 이씨가 몇 집씩 있다. 왕창리는 3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왕창1리의 마을 이름은 '왕창'이라고도 하며 해방 무렵에 28호 정도 거주하던 것이 중간에 호수가 줄었다가 현재는 다시 늘어 70호 정도가 된다. 왕창2리는 '창데미' 또는 '창촌'이라고 부르는 마을과 '새말' 또는 '신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을 합한 것인데, 해방 무렵에 50호 정도 되던 마을 규모가 현재는 80여 호로 늘어나 있다. 새말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서 붙은 이름이다. 왕창3리는 '부루개' 또는 '부루'라고 불리는 마을인데, 해방 즈음에 30호 가량이 살던 것이 현재는 40호 정도가 되었다. 왕창2리와 왕창3리 역시 1리와 마찬가지로, 1960~70년대 마을 규모가 줄었다가 10~20년 사이에 다시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원래 왕창1·2리는 대성이 없었으나 왕창3리는 밀양 박씨가 대성으로 있었다고 한다.

강하면 운심2리 운포마을은 '구름개'라고 부른다. 현재 거주호수는 60호 정도이며, 해방

이전부터 그 정도의 호수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근래에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은 10여 호인데 이들은 주로 마을 외곽지대에 집을 짓고 들어왔으며 마을 중심부에는 대부분 원래부터 살던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주요 성씨는 충주 지씨와 원주 원씨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살던 시기는 한국전쟁 직전인데, 당시 충주 지씨와 원주 원씨가 각기 20호 가량 되었다. 현재는 충주 지씨가 12호, 원주 원씨가 4호 거주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운포의 형세를 두고 “삼태기 같은 동네라서 따뜻하고 물이 좋다. 6·25 때 천호동에서 포를 쏘면 강 건너에까지 떨어졌는데 이 동네는 끄떡없었다”고 하였다.

강하면 전수리는 1리 전의, 2리 사호, 3리 수대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1942년에는 이 마을에 52호 299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사호마을은 사기막이라 부르다가 사호로 바뀌었으며 이것이 전수2리가 되었다. 항금리는 강하에서 양자산 방향으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며, 배나무땀·갓골땀·송곳별땀(땀)·아랫땀·가운데땀·윗땀·개울계땀 등 8개 땀으로 이루어진다. 해방 무렵까지는 행정구역상 두 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를 남촌과 북촌으로 불렀다. 배나무땀, 갓골땀, 송곳별땀, 아랫땀이 북촌에 해당하고, 윗땀, 가운데땀, 개울계땀이 남촌에 해당한다. 해방 직후 호수가 60호 가량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108호이며 실제 거주세대는 100호이다. 이는 최근의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이입으로 늘어난 것이며 그 이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은 30호 가량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주 이씨 완평대군파가 마을 인구의 60% 가량을 점하고 있다고 한다.

개군면 상자포리는 1963년 3월 1일에 여주군에서 양평군으로 편입된 개군면내의 지역이다. 상자포리는 1·2·3반으로 나누어지는데, 1반은 ‘새터말’, 2반은 ‘별말’, 3반은 ‘안말’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자포리의 전체 거주호수는 145호이며, 이 중에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다수 섞여 있다. 자연마을별로는 새터말에 32호, 별말에 40여 호, 안말에 4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3. 양서면과 서종면

서종면에서는 노문리의 노산팔경이 유명하다. 노산팔경이란 이 일대의 뛰어난 경치 8곳으로 곧 세월대의 밝은달, 명옥정의 맑은 바람, 묘고봉의 높이 나는 비연, 자라소의 뛰노는 물고기 잉어, 분설담의 기암, 태극정의 산수, 석문의 절벽, 일주암의 꽃돌 등을 말한다. 벽계는 청화산 계곡을 흐르는 하천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이 마을에서 성리학자 화서 이항로가 태어나 살았으며, 생가가 남아 있다. 오동단은 세월대 아래에 있으며 화서 이항로 선생이 문인들을 가르쳤다. 지금은 수령 약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명달리 삼성당은 300여 년 전 벽진 이씨·경주 김씨·곡성 임씨 성씨를 가진 분이 병자호란을 피해 이곳에 정착한 곳이라고 한

다. 문호2리 장터거리는 안말 서남쪽 외문호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백중놀이터로 유명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구정골(九政谷)은 용문산맥 청계산 목왕리 계곡으로 조선조 때 정승 9명의 묘가 있다 하여 구정골이라 부른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 친족과 관혼상제 참조).

양서면 대심1리 한여울은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마을에 47호가 있었다. 많이 살던 성씨는 경주 김씨와 전주 이씨다. 태조의 조카 안소공(安昭公) 이양우(李良祐)의 묘소가 있다. 대심2리 상심마을은 현재는 전원주택 등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90호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마을에는 27호 정도가 살았다.

양서면 대아동은 마을이 커서 땃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양평의 서부인 양서면 청계산 아래에 있다. 과거 8개 마을로 구성된 대촌이다. 마을 각각의 이름은 고현, 반월형, 자현(刺峴, 자오개 척현) 탐곡, 중촌, 동편, 평촌, 식곡 등이다(반월형, 중촌, 평촌, 탐곡 → 현 청계1·2리, 고현, 동편, 식곡, 자오현 → 징동 1·2리, 정자동(雀多) → 국수1리). 1914년에 증동리에 사는 한○도가 총대를 맡고 청계리에 사는 한○철이 측량총대(測量總代)를 맡아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꼭대기산은 아무도 차지하려 들지 않아 동 소유로 하자는 발의가 있어 두 한씨 외에 어씨, 강씨, 조씨 등 총 6인 명의로 동유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동유립 임목을 팔아서 해방 후에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양수리 학교보다 설립연대가 빠르다.

각 리별로 이중계, 즉 마을대동회를 갖고 각 마을이 모두 모여 대아동 대동계를 갖는다. 20여 호가 살 때는 2년 임기로 돌아가며 맡는 동장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분이 많을 정도로 호수가 많았다. 대동계 때 음식은 동장집에서 차리기 때문에 임기 2년간 두 차례 동장 집에서 대동회를 가졌는데, 동장 실림이 넉넉하지 못해 대동회를 주최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몇 년 전에 경로당을 지은 후부터 그곳에서 대동회를 갖는다. 대동계는 계기금을 계원들에게 빌려주고 계원들이 붙인 이자를 대동계 운영비로 사용한다. 2000년도 대동기금 '방출금'은 연리 8% 이자로 정했다. 그러므로 150만 원 가져간 대의원은 12만 원 이자를 내야 한다. 옛날에는 대동회 때 빌려간 돈을 이자와 함께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 밤늦도록 돈을 채워 장만하느라고 계모임을 연장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계에 들어간 집과 그렇지 않은 집과는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로 구분되며, '신입례'를 하고 신입금을 내면 동등한 회원이 된다. "입장은 아버지 명의를 '제거' 시키고 들어간다"고 하며 '입장 뎀다'는 입회(입계)했다는 뜻이다. 대동계 날씨는 동지 전후다.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은 원주민들로만 60호를 이룬다. 해방 무렵 50호를 이루었다. 현재 당내친 관계에 있는 진주 강씨 11집과 평산 신씨 4집, 함양 여씨 3~4집이 살고, 나머지는 각 성으로 이씨, 김씨, 박씨, 윤씨 등이 산다. 한국전쟁 무렵에는 진주 강씨, 평산 신씨, 함양 여씨가 20여 호를 이루었고 그 외는 다른 성이 었다. 이들 20여 호가 산너머 땃골(대아동)의 대동계에 들어간 집들이다. 마을에서 하는 계도 따로 있으며, 음력 10월 그믐~11월 초순 사이

에 모임을 갖는다. 12월 말에는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잔치를 갖는다.

양서면 신원1리 샘골은 현재 가구가 13호로 이 중 원주 원씨가 세 집에 불과하지만, 원래는 원씨 마을이었다고 한다.

서종면 노문리는 벽계, 속새, 갈문이, 동면, 진대 등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갈문이를 상벽, 벽계를 하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벽 중에도 샘말이라는 곳은 다수를 차지하는 대성은 없지만 화서 이항로 선생의 집안인 벽진 이씨들이 산다. 설악면이 가평군에 편입되기 전에는 갈문이 위 고개 너머의 3개 반도 노문리에 속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문리에 와서 공부하였다.

결성 장씨인 동우(東雲) 장회진(張會鎭)은 화서 이항로의 사위로 양현수, 화서의 아들, 그리고 임규직 등과 함께 화서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장회진의 고조부인 우계공(又溪公) 장취오(張聚五, 1687~1771)는 영조 때 병조참판을 지낸 인물로 영조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 지경편 등의 서적과 어제친필 등이 전한다.

4. 지제면과 양동면

지제면은 본래 지평군 지역으로서 지평 읍내가 되므로 군내면이라 하여 21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융희 2)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의 군면통폐합에 따라 지평군의 옛이름을 따라 지제면이라 하였다.

지평4리 관교는 지평군의 관아와 향교가 있던 곳이라서 관교라 한다. 중말, 뒷말, 향교말, 탑사니골이 있다. 옛날 절터가 있으며 탑이 서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탑사니골의 탑은 현재 지평초등학교 교정에 옮겨져 있다. 월산2리 여적골은 옛날 여단(厲壇)이 있던 곳이다. 지평현 성황사는 관교 뒷산인 봉미산에 있는데 지금도 치성을 드린다. 봉미산은 읍의 주산으로 중턱에 일제가 1940년에 “기쟁리센륙백”, 즉 자기 나라의 ‘기원 2600년 행사’의 일환으로 신사를 지었으나 현재 계단도 무너졌다. 신사 입구에 세우는 도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 건너에는 지평의 읍치성인 온양 방씨 집들이 모여 있었고 지금도 몇 집 남아 있다.

곡수1리 장터는 본래 지평군 남면 지역으로서 근방에서는 가장 큰 장이 섰으며 우시장으로도 유명한 장이었다. 곡수장이 서던 곳이라 하여 장터라 하는데 뒷장터와 아랫장터가 있다. 송현1리 역말은 조선 때 전곡역이 있었는데 1914년 양근군과 합병되면서 역이 폐지되어 없어졌다. 역말은 평구도찰방에 딸린 전곡역의 터로 1896년(건양 원년)에 폐지되었다.

수곡2리 칠성곡은 마을에 우물이 일곱 개가 있었는데 복두칠성 모양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것이기도 하고, 일곱 집이 있었는데 성이 각기 다르다 하여 칠성골이라고도 전한다(양평문화원, 1989, 『향맥』, 양평군 향토사료 제1집 참조). 수골리에는 안동 권씨 문중



지제면 일신리 못저물 마을입구의 숲 '수평'

서원인 수곡서원(水谷書院)이 있다.

지제면 망미2리의 1반은 바깥섬부리, 2반은 안섬부리이다. '섬부리'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주민들 역시 확실히 설명해주지 못했지만 마을 뒷산의 절에 있었다는 '석불'이 '섬부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달아주었다. 새터말은 나중에 생겼다고 한다.

양동면 계정1리는 송정(담안), 작두터골, 개삼밭(논골), 밀양골, 찰지랑이 등이 있다. 계정1리의 전체 호수는 91호이며, 송정에 30가구, 작두터골에 12, 13호, 개삼밭에 13호, 찰지랑이에 12호가 살고 있다. 계정2리는 구창말, 새말, 둔말, 산수말 등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구창말(계정초등학교)은 남양 홍씨가 대성으로 있다고 하며, 새말에는 현재는 모시지 않지만 예전에는 새말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시던 서낭나무가 있다. 계정3리는 가래골, 동이점(대월), 점말, 덕고개의 네 마을로 이루어진다. 가래골과 동이점에는 현재 각 20호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말에는 9호, 덕고개에는 11호 가량이 살고 있다. 계정3리에는 20년 전에는 80호 가량이 살았다고 하며, 해방 무렵에는 아마 이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계정3리에는 횡성 등지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한국전쟁 때 피난나왔다가 정착한 사람들도 있다.

금왕1리는 메덩골이 1반, 김촌이 2반, 안촌이 3반, 점말, 덕결이, 사시락골이 4반, 울곡이 5반에 해당한다. 삼거리는 예전에 주막거리였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광산이 흥했을 때는 하나는 점말에, 다른 하나는 울곡에 각기 한 집씩 있었다. 예전에 안촌과 사시락골이 광산으로 흥했었는데, "일본인들이 다 해먹었다"고 한다. 삼산리 금곡마을은 현재 총 27가구 중 덕수 이씨는 5가구이며, 청주 한씨는 4가구, 정선 전씨는 6가구다. 해방 전후에는 총 60여 가구가 거주했으며, 덕수 이씨 8가구, 청주 한씨 약 5가구, 정선 전씨 약 10가구가 거주했다고 한다.



용문면 광탄리 일대의 전경

5. 용문 · 단월 · 청문면

용문면 덕촌리는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리는 운계마을, 2리는 퇴촌과 덕동이다. 덕촌 1리와 2리는 1987년에 행정상으로 분리되었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에는 조현리 장평마을과 운계마을이 같은 마을이었다. 장평에는 신창 맹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전하는 말에 안산과 부만이산에서 노루가 울면 산의 건너편 마을인 장평마을에서 사람들이 죽고 여우가 울면 불이 나며, 반대로 중등머리산과 절골산에서 노루나 여우가 울면 산의 건너편 마을인 운계마을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용문면 조현리는 중원천과 신점천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서남쪽에 운계 덕촌리, 서북쪽에 오리골 오촌리와 신점리가 인접하였고, 남쪽 두견고개 너머로 쇠일 금곡리가, 동쪽에 중원리가, 동남쪽에 광탄리가 인접해 있다.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에 따라 적현, 장평, 막골, 조좌, 운계, 오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조좌와 적현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조현리라 하고 용문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반인 불응개[赤峴, 즉 붉은 고개] 마을의 가구수는 35호다. 남쪽에 있는 두견고개는 국수장과 용두리장을 다니던 길이다. 막골로 넘어가는 막골 고개가 있고 중원리 소파배기로 가는 불응고개가 있다. 적현산(267m) 정상에 봉화대가 있다. 봉화대 높이는 10m 정도다.

2반인 새마을은 용문산에서 발원한 신점천과 중원산에서 발원한 중원천이 합수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에 위치하며 해방 전후에는 가구수가 3호에 불과했으나 회관, 정미소, 창고, 보건진료소 및 전원주택이 건립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현재 2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3반 장들(장평)마을은 조현리 교량에서 서쪽 1,100m 정도 거리에 남향으로 조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길게 펼쳐진 들이 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약 300년 전부터 신창맹씨 집성촌으로 내려 왔다. 가구수는 28호다.

4반 막골은 조현리 교량에서 용문사 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해평 윤씨 집성촌으로 이어져 왔으며 지금도 막골 전체의 임야와 대지가 해평 윤씨(海平尹氏) 남악공(南岳公) 종중 소유이며, 19호에 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5반 조동(曹洞), 또는 조좌랑골은 조현리 교량에서 용문산 쪽으로 1.3km 떨어진 오촌리 교량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창녕 조씨(昌寧曹氏) 승달공 조좌랑이 이곳에 은거하였으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현재 22호에 61명의 주민이 산다.

□ 조현리 새마을 공유답

조현리 183-3번지, 답(畓) 564평을 1981년 12월 26일 평당가 4,000원, 대금 225만 6,000원에 구입하여 조현리 새마을회 대표자 맹을주로 하여 등기를 마치고, 조현리 181 전(田) 891평은 1983년 12월 말일에 평당가 3,000원, 대금 267만 원에 구입하여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 이곳은 새마을 회원들이 새마을 공유답(共有畓)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유답을 확보하여, 그 추수로 마을 이장의 보수를 해결하고, 해마다 결산총회 때에 백미 수집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구매하였다. 보유 기간이 16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두었고 논으로 사용하던 중에 110평을 분할하여 현재 조현보건진료소 부지로 사용중이다.

단월면 덕수리는 덕수1리인 백동과 2리인 점골 및 덕수터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 양씨와

덕수 이씨가 많이 살고 있지만 일제 때는 해주 오씨인 오○군이 대지주로서 덕수리를 포함하여 단월면 일대가 전부 그 사람 땅이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해방 후 토지분배 때 대부분 분배 대상이 되었다. 덕수터마을의 대지도 5~6년 전까지 오영근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텃도지를 물었는데, 이후 연고자에게 매각되었다. 도지 규모는 집터 1기당 일 년에 나락 20kg을 냈다. 봉상리, 보룡리, 덕수리, 부안리, 삼가리 등 5~6개리의 전답 중 무안 박씨 지평과 소유의 것을 빼면 오○군의 땅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단월면에는 세 개의 재각이 대표적인데 향소리의 남원 양씨 재각, 백동의 양성 이씨 재각, 양안의 함평 이씨 재각이다. 향소1리 방촌말은 방씨 집성촌이다. 부왕리 대왕터는 원주 원씨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다. 덕수교회는 마을에 들어온 지 83년이 되었다.

단월면 보룡1리는 퇴룡골, 재인동, 한터로 구성되어 있다. 퇴룡골(退龍谷)은 용서방들이 살다가 물러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용씨는 흥천에서 나왔다고 하며, 현재 보룡2리에 세 집이 살고 있다. 옛날에 못자리 좋은 것은 용씨들이 다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인동은 재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 하나, 단지 전해지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한터는 무안 박씨가 정착한 마을인데, 터 하나가 제일 좋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거주하는 가구수는 약 110가구이다.

단월면의 수상·수하·수미마을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덕수천의 보룡교를 기준으로 북쪽인 수상(水上)에는 부안, 향소, 덕수가 속하며, 남쪽으로 수하(水下)는 보룡리, 삼가리다. 봉상리는 수미틀이라고 부른다. 수미틀에서는 청운에서 내려오는 흑천 물과 여기에서 내려가는 덕수천 물이 합수되는 곳 아래지역이다. 그러나 이 일대 사람들끼리 수상, 수하, 수미 등으로 편을 갈라 놀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단월면 산음1리는 산대마을이 45호, 고북마을이 15호를 구성하고 있다. 평양 조씨가 먼저 살던 마을에 남원 윤씨인 윤○씨가 김포에서 이 마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주민 윤재정(68세)의 5대조가 되는데, 목수였는지 연모만 걸머지고 이곳으로 와서 개간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양평군에서도 대표적인 화전지대로 지금까지 겨리소를 이용하여 밭을 가는 광경도 볼 수 있다. 깊은 산골에 위치하였으며, 산세가 수려한데다가 최근 산대천 댐 공사가 계획되는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변화의 조짐은 크지 않다. 다만 석산리 등지로 향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정도이다.

단월면 산음2리는 1반이 고가소, 2반이 샘골과 지둔지, 3반이 수청으로, 총 32호가 거주하는 마을이다. 1반과 2반은 이웃한 마을이지만, 수청의 경우 이와 별도의 깊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신제는 물론 이중계까지 별도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산음초등학교가 분교로 바뀌고, 그나마 2001년에 폐교되는 등 인구가 격감하자 1990년대 중반 산신제와 이중계를 통합하게 되었다. 최근 이 마을에 토지를 구입한 주민이 4명 정도 있는데, 산신제에 참석하거나,



청운면 다대리 마을입구 '수평'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제수 비용을 회사하면서 주민들과의 화합을 꾀하는 게 상례라고 한다.

단월면 덕수1리 백동마을은 이름의 유래는 백동(栢東), 즉 원래 마을 앞에 큰 잣나무들이 들어서 있던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청운면 여물리 전체 호수는 총 115가구로, 예전에는 호수를 모두 이장이 관리했는데 요새는 외지인들이 많아 와서 살고, 또 이들은 전입신고만 해도 되므로 누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다. '장사모'는 힘이 센 장사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일제 때 산의혈을 끓으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장사가 탔던 말발자국이 아직까지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여물리 당집이 있는 부분은 용의 목 부분이다. 여물리 이웃 동네 '용두리'는 본래 '용의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용머리'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용두리'라고 부르지 않으면 버스 기사들도 '용머리'가 어딘지 모른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용이 강원도로 가려다 면고개가 막혀서 고개를 돌렸던 자리가 지금의 용두리다. 용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의 '용문'에서 용이 수리니미고개를 넘어서(단월과 청운 사이로 용이 수르르르 넘어갔다고 해서 '수리니미' 고개라고 한다) 가다가, 막혀서 거기에서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지금 여물리 개천가 부분에 아주 깊은 호수가 있었는데, 용이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리를 담갔다는 이야기다. 그 호수는 명주 한 필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깊은 연못이었다. 장마가 저서 흙이 미끌어져 저절로 메워져서 지금은 없는데, 어른들 말씀이 그 연못이 메워진 다음부터는 큰 상인도 안 나고 큰 인물도 안 나게 되어 그 다음부터 여물리가 쇠퇴했다고 한다. 그래서 용머리 부분에 불을 때거나 나쁜 짓을 하면, 용두리든 여기든 꼭 상이 났다고 한다.

청운면 용두리는 1리(시장), 2리(황경뜰), 3리(원모루)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원모루는 1리였는데, 인구가 늘면서 3리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1리와 3리는 서낭당 고사도 같이 지낼 뿐만 아니라 두레를 할 때도 같이했다. 1리와 3리가 분리된 것은 1962~1963년경이다. 용

두리와 특별히 같이 지내는 행사는 없다. 용두 1리는 현재 200세대가 넘는다. 한국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현재 노인회관이 있는 자리와 구시장 개울쪽, 학교쪽에는 집들이 없었다. 용두리 지명은 단월서 용이 머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넘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운면 다대리는 1리(오목동)와 2리(곡촌)로 되어 있다. 현재 확 · 포장된 44번 국도에 의하여 두 마을이 격리된 관계로 두 마을 간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한다. 다대는 홍천에서 양덕원을 거쳐 지평으로 오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당시 청운면소재지였던 마을이다(면사무소 건물은 44번 국도변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이 있는 곳임). 그러나 강원도 횡성(6번 국도)과 홍천(44번 국도)에서 지평으로 오는 큰길의 합류지점인 용두장이 번성하면서 면사무소가 용두리로 이전되었고, 다대는 작은 농촌마을로 쇠퇴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이웃 삼성리에 광산(금)이 있을 당시가 가장 번성했던 때로 기억하고 있다.

제2절 동회와 동계

양평 일대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조직의 특징은 대동계(大同契)와 이중계(里中契)의 이중적인 구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간혹 유학계라고 하여 상여를 협동하여 드는 상계를 볼 수 있는데 마을을 단위로 하지만 성씨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하여 다음 절의 혼상계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대동계와 이중계가 다 있는 경우는 행정리 단위로 모이는 이중계가 끝나면 전체 리가 합동하여 갖는 대동계가 열린다. 이중계의 장은 이장이 되며 주민들이 일 년 동안 수고한 이장과 반장들을 주기 위해 쌀을 거둔다. 대동계는 별도의 계장을 두고 대대로 거주해 온 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마을 단위로 이중계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계장과 행정리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줄면서 자연마을 단위로 운영하던 이중계가 하나의 행정리 단위로 합쳐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때 이중계장은 이장이 맡게 된다.

1. 지역별 동회와 동계

1) 강하면 전수2리 사호마을 이중계

사호마을에서는 2001년 12월 26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이중계를 가졌다. 당시의 이중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계 임원은 이장 1, 총무 1, 지도자 1, 반장 3, 노인부녀회장 1, 부녀회장 1, 청년회장 1 등으로 구성된다. 임원들은 협의하여 이중계날을 정하게 된다. 현재는 100여 세대 중에서 70세대만 실질적으로 이 계에 참여한다. 주민등록상 이 지역의 세대에 구성되어 있으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입회비는 없다.

이중계날에는 1년에 1번 '리세'를 걷게 되는데 벼 2말 값(18,000원)을 내게 된다. 보통은 60세대가 돈을 내어 100만 원 정도가 걷힌다. 이중계는 리별로 별도로 이루어진다. '이중'이란 말에 대해 원래 리마다 조를 걷는다는 '리조(里租)'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풀이한 주민이 있었다. 해방전에도 이런 조직은 있었다. 예전에는 여름에 보리 2말, 겨울에 벼를 걷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걷는다. 기타 마을 수입원은 주로 상가에서 내놓는 돈에 의존하는데 300만 원을 기부한 상주도 있었다.

전수2리의 마을행사로는 3년에 1번 정도 가는 관광행사로, 날을 정해 부부동반으로 가는 데 비용의 절반을 이중계에서 부담한다. 이장과 이중계장은 같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결산보고와 기타 토의, 임원 선출 등을 하였다. 특별히 올해에는 회관 내의 냉장고, 헬스기구 등의 구입으로 인하여 지출이 많았다(700만 원 정도)고 한다. 토의 사항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희망자 신청에 대한 건을 다루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이 52만 4,000원이 지급되며, 농업직불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24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단 이 농업방식을 신청한 사람은 제조제는 쓰지 않고 군에서 지급되는 농약만을 써야하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2) 양서면 대아동 대동계

대아동 대동계는 마을마다 2명씩 대의원을 두어서 동네회의 전에 모여 회의날짜를 정하고 통문을 돌린다. 예전에는 유지들이 모여서 임시회의를 하였다. 동네 대동회의는 일 년에 한 번 하는데, 동지를 전후하여 동지달 초열흘이 넘어가기 전에 '장날이나 상이 나거나, 공휴일 같은 날이 끼지 않는 날'을 임시회의에서 정한다. 동네회의 날짜를 정해놓지 않는 이유는 해마다 농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네회의를 알리는 통문은 소임이 200여 호 되는 집을 다 돌렸다. 통문을 본 사람은 보았다는 표시로 자기 이름 위에 동그라미나 꺾쇠 표시를 하는데, 이를 '도린다'고 한다. 지금은 임시회의에서 동네회의 날짜를 정하면 대의원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 회의날짜를 알리기 때문에 통문은 임시총회 때만 돌린다. 현재 통문에는 회의 날



양서면 대아동 대동계 준비를 위한 대의원 임시회의

짜, 회원 명단, 방출 명단, 입장 명단, 신입 명단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아버지를 잇는 장남은 계원을 계승하므로 계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차남이나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은 가입비를 내서 계원자격을 얻으면 동네 유물을 쓸 수 있다. 가입비는 일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신입의 경우도 연고가 없는 외지인들은 받지 않는다.

동네회의 때는 '입장 땀 사람들', 즉 탈상을 마치고 선친을 이어 계원으로 들어가는 장남들 이 술이나 떡과 같은 음식을 가지고 왔고 연포국(김치, 두부, 다시마, 북어를 넣고 떡가루를 넣어 걸죽하게 만든 국)을 해서 먹었으며 남녀노소가 다 참가했다. 연포국은 총회 때 동장떡 에서 준비한다.

대아동에는 과거에 상민 중에 한 사람을 소임으로 정해 통문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상여도 가도 관리하였다. 소임에게는 일 년에 한 번 가을에 벼 한 말을 주었으며, 시초할 경우 시초 비도 따로 주었다. 소임을 두던 관행은 한국전쟁 후 없어졌지만, 지금도 상여도가 관리인은 정해놓는다. 현재 동장의 임기는 2년이다.

현재 대동계 대의원은 7개 부락에 2명씩 14명이며, 이장은 5명이다. 그러므로 대동계 안에 5개의 이중계가 있는 셈이다.

□ 입장 땀다

동계 좌목에 붙이는 이름을 쓴 종이를 '입장' 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년 째 되는 해에 부모 이름을 떼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입장 땀다'고 한다. 입장에는 본 관과 생년이 명기되어 있다. 대상이 지나면 동네회의 전에 있는 임시회의에서 입장을 땀 사 람의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 중 누구에게는 떡을, 누구에게는 술을 가지고 오라고 알린다. 땀 '입장' 은 '소' 한다(불태운다). 2000년도 입장 때 개인당 떡 2말 또는 5만 원을 내었고 신

규모 가입한 경우는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내었다.

□ 동유림(洞有林)

떨나무 용도의 동유림이 260정보 정도 있었는데 60정 정도를 국수리에 넘기고 100정은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 매각하였다. 일제강점기 초에 산등기 낼 때 면유림으로 하려는 것을 정자동 주민인 당시 면장이 7인 명의로 등기를 낸 것이다. 정자동에서는 나머지 동유림을 최근에 팔았으며 판 돈은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실제 1910년 1월 지적도에는 대아동 소유의 토지가 220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수리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웃 마을인 원북포, 국수리 일부, 대심리에서는 이곳 동유림에서 떨나무를 해가는 대가로 시초비를 냈으며 길 닦는 일도 하였다고 한다.

□ 동네기금

동유림에서 나는 임목을 팔거나 화전을 경작하게 해서 받은 돈을 동네기금으로 만들었다. 목상(木商)에게 돈을 받고 산을 임대해 준 적도 있는데, 1980년대까지 있었다. 화전민에게 받을 도지를 정하기 위해 동네회의 전에 대표로 한 사람이 생산량을 조사하러 갔는데, 이를 '화속 잡으러 간다'고 했다. 이때 조사한 총생산량으로 동네회의에서 도지를 정했다. 동유림에서의 화전은 한국전쟁 후 사라졌다.

예전에는 동네기금을 키우기 위해 몇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것을 '봉수친다'고 하였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이자가 월 5부였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었으며 자원자가 없을 때는 억지로 돈을 맡기기도 하였다. 요즘은 동네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방출'이라고 하며, 통문에 방출자 명단을 적는다. 현재 이자는 연 8%다.

일제시대 때 동네기금으로 국민학교를 세웠다. 해방 이후 동네에서 구입한 학교부지를 문교부로 넘겨주었다. 현재 건물은 문교부에서 지은 것이다. 또한 동네기금으로 상여, 가마(교군과 4인교 각 1채), 쪽두리, 사모관대 등을 장만하며 계원이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다. 상여는 12명이 매었는데, 과거에는 '중인'들이 댔다.

□ 공동체 성격

대아동계의 좌목을 보면 신분제를 전제로 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여러 관행들이 나타난다. 동장을 '촌지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군수가 부임하면 동장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한다. 동네 규약을 어기면 동네회의 때 벌을 내리는데, '조리 돌린다'고 하는 벌은 북을 목 뒤로 매게 하고 소임이 그 뒤를 따라가며 북을 치며 동네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다. '말꿀림'이라고 하는 벌은 말[斗]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인사도 받지 않고 말도 건네지 못하게 하여 결국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결국 마을을 떠나게 하는 벌도 있었다.

□ 대동계 살림

〈1971년도〉

- 상여세 1,500 / 1970년도 방출액 원금 110,000 / 이자 44,000(40%)
- 9개 마을 : 고현 · 반월형 · 중촌 · 탑곡 · 평촌 · 답다 · 식곡 · 동편 · 척현
- 이월액 24,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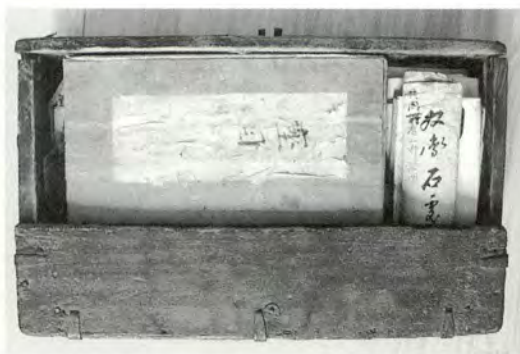
〈2000년도〉

- 상여세 200,000 / 1999년도 방출액 원금 14,000,000 / 이자 1,120,000(8%)
- 9개 마을 : 고현 · 반월형 · 중촌 · 탑곡 · 평촌 · 정자동 · 식곡 · 동편 · 척현
- 전년 이월 3,838,040 / 금년 이월 4,069,359

□ 『좌목(座目)』(표지 포함 42장)

「선생안」, 「좌목」, 「동내입의계서」 등의 합책으로 서문에 “光緒 四年(1878) 11월 日 幼學 姜漢哲 改書”라고 쓰여 있다. 이 책은 동계의 영주(領主), 즉 동장 명단을 1736년(건용 원년)에 현감 정희태(鄭希泰) 공이 서문과 함께 만든 문서 및 명단과 이후의 명단이 오래 전해지도록 다시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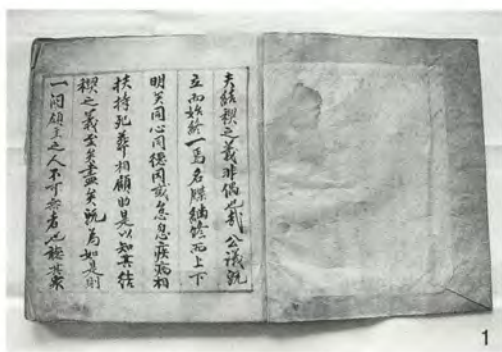
- 「선생안(先生案)」: 유학(幼學) 강형(姜鎭), 현감(縣監) 정희태(鄭希泰) 이하 53명에 15명을 추가, 모두 68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이 중 서문을 쓴 강한철까지는 16명이며, 강한철부터 선생 명단은 52명이어서 동장의 임기를 2년으로 치면 1878년 본 선생안이 성책된 이후로 1980년대까지 이어 내려온 선생안, 즉 동장 명단임을 알 수 있다. 선생안 명단에 들어간 성씨는 진주 강씨, 청주 정씨, 순흥 안씨, 청주 한씨, 청송 심씨, 전주 이씨, 함평 이씨, 함종 어씨, 경주 정씨, 청해 이씨, 고령 박씨 등이며 이 중 진주 강씨와 청주 한씨가 가장 많다.
- 「좌목(座目)」: 동계원들의 명단으로 성책할 당시인 1878년에 시작된 좌목으로 좌목 맨 처음에 나오는 한기창(1934년생)의 조부 한백철(韓百哲)이 1878년생이므로 조부의 조부부터 치면 4대째 ‘입장을 떼면서’ 내려온[上契] 좌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명단은 한 면에 평균 5명씩 기재하여 모두 38면에 187명의 계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동내입의계서(洞內立議契序)」: 일의 중대함은 상장례만한 것이 없으니(事之重大 莫如喪葬) 상하계원(上下契員)이 힘을 합하여 큰 일을 서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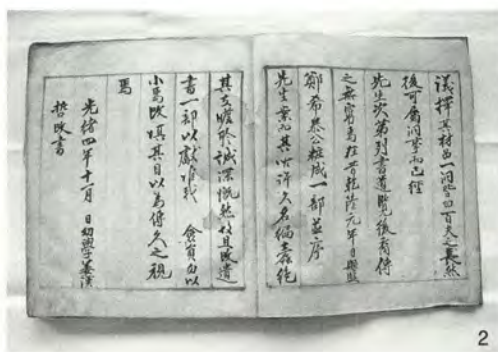
돈케에 보관되어 있는 양서면 대아동 대동계 문서들



양서면 대아동 대동계 좌목(座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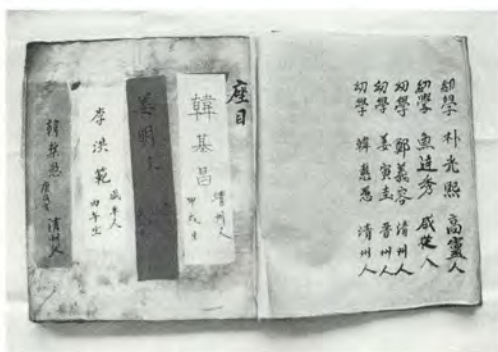
양서면 대아동 좌목 서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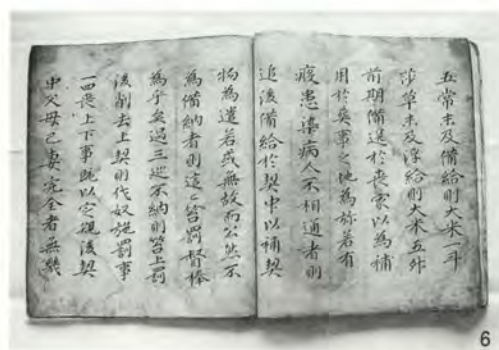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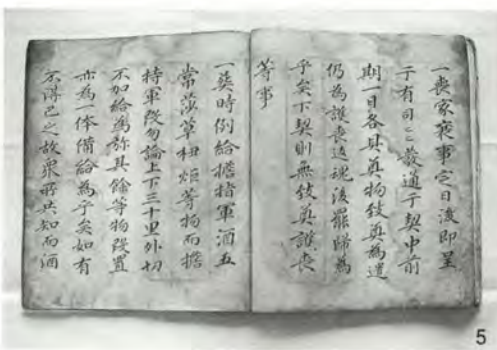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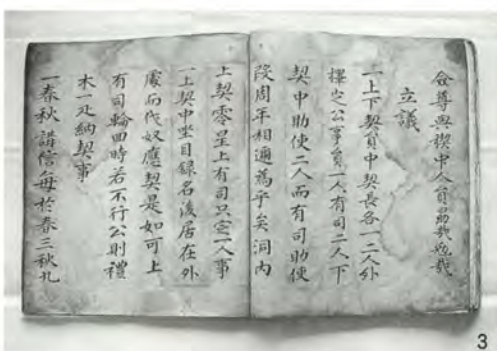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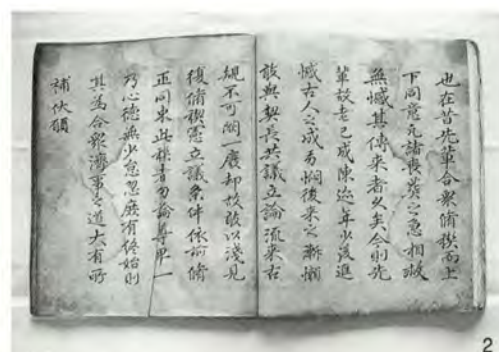
양서면 대아동 좌목 내 역대 대동계장 명단인 「선생안(先生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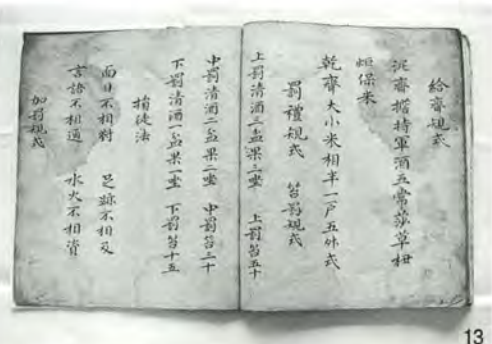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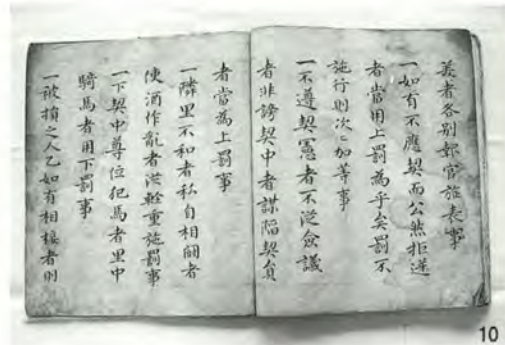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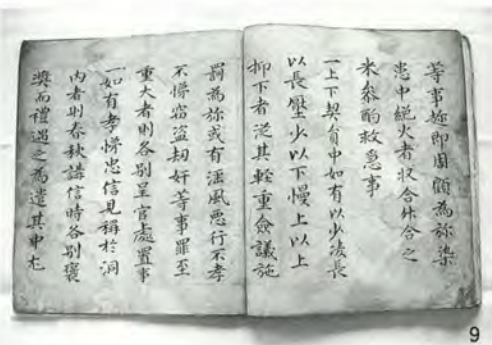
양서면 대아동 1878년 이후 장남으로 '입장'을 붙여온 계원 명단인 좌목

〈입의(立議)〉

- 一. 계장 상계 하계 각 1인(또는 합쳐서 1인), 공사원(公事員) 1인, 유사(有司) 2인, (하계) 조사(助使) 2인(1년마다 교체)
- 一. 좌목에 이름을 등록만 해놓고 종을 시켜 응계(應契)하다가 걸리면 벌로 예목(禮木) 한 필을 계에 낸다.
- 一. 춘추강신(春秋講信)은 각각 3월과 9월에 갖는다. 부득이한 경우 달을 넘긴다.
- 一. 계원이 상을 당하면 상가에서 유사에게 알리고 유사는 통문을 내어 계원에게 알린다. 계원은 상하 물론하고 공석(空石) 1립씩을 내며 상계원의 상에는 계에서 재목을 내어 빈청(殯廳) 3칸을 만들어주고 성복 전에 모여 호상(護喪)하고 하소임(下所任)은 상가에 대령하며, 하계원의 상에도 하소임이 성복 전에 간호(看護)한다.
- 一. 유사는 발인 전날에 전물(奠物)을 갖추어 상을 돕고 치전(致奠)하며 반혼(返魂) 후에 돌아온다. 하계의 경우는 치전이나 호상은 없다.
- 一. 장례 때는 담지군(擔指軍), 즉 상여꾼과 주(酒), 오상(五常), 사초(莎草), 유거(柎炬) 등을 지급하며 상여꾼은 상계나 하계를 물론하고 30리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 一. 사상(四喪), 즉 부모기처(父母己妻)의 네 경우 외에 삼촌, 동생이나 처부모 상에 도움 받기를 원하면 자손이 없어 본인이 담당해야 할 경우만 허급한다.
- 一. 도가(都家)를 정하여 우비 등 장비를 마련하고 곡물은 장무(掌務) 1인을 두어 출입을 관리한다.
- 一. 계의 기물을 입의로 내주면 도가에게는 상벌을 내리고 곡물관리를 못하면 장무에게 중벌을 내린다.
- 一. 강신일에는 상하 계원 모두 부형(父兄)을 모시고 나온다.
- 一. 상하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의견을 모아 벌을 내리고 죄가 심한 경우는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잘한 자는 강신 때 포상하고 그 중 우미(尤美)한 자는 관에 보고하여 정표(旌表)를 받도록 한다.
- 一. 계에 참석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상벌(上罰)을 내린다.
- 一. 계헌(契憲)을 따르지 않고 계를 비방하고 계원을 모함하는 자는 상벌을 내린다.
- 一. 이웃간에 불화한 자, 서로 싸우고 술주정 부리는 자 등은 경중을 따져 벌을 내린다.
- 一. 하계원으로 마을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자는 하벌(下罰)을 내린다.
- 一. 계의 벌을 받는 자는 3년간 서로 접촉을 하지 말며 어기는 자는 상벌을 내린다.
- 一. 소임이 직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중을 따져 벌을 내린다.
- 一. 소임이 지난 일을 험담하면 경중을 따져 벌을 내린다.
- 一. 계의 범사(凡事)는 유사가 맡고 논의는 모든 계원이 맡으며 이를 서로 자천(自擅), 즉



양서면 대아동 작목 중 「동내입의계서(洞內立議契序)」



양서면 대아동 좌목 중 「동내입의거서(洞內立議契序)」

멋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一. 동계는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므로 부친이 사상을 잘 준수하여 자손에게 물려주면 모두 자신과 처의 상만 허급받는 결과가 된다.

- 一. 추입례(追入禮)는 상하를 물론하고 청주 두 동이와 과일 두 좌(坐=접?)를 낸다.

- 一. 추입례 구정에 따라 술과 과일을 내지 않은 자는 예전(禮錢) 4냥을 낸다.

〈급재규식(給齋規式)〉

〈벌례규식(罰禮規式)〉

〈손도법(損徒法)〉

〈가벌규식(加罰規式)〉

- 一. 계원 이외의 사람에게 계물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세를 받은 후에 허급한다.

- 一. 혼례용구에 대한 장세(裝費)는 하루에 2냥이지만 길이 멀어 하루가 더 지나면 1냥을 추가한다.

- 一. 가마는 계원 외에는 빌려주지 않으며 하루에 5전(錢)을 받고 날을 넘기면 추가한다.

정사(丁巳, 1737년) 팔월 이십팔일 서(書)

□ 『좌목(座目)』 권2(표지 포함 7장)

1989년 음력 11월 10일 총회 때 추가기록한 좌목이다. 모두 36명이 추가 기록되었다. 추가된 성씨는 진주 강씨, 나주 정씨, 평택 임씨, 안동 김씨, 경주 손씨, 연안 차씨, 경주 최씨, 죽산 안씨, 안동 권씨, 수원 백씨, 함평 이씨, 문화 유씨, 경주 이씨, 청주 한씨, 의령 남씨, 연안 차씨, 여산 송씨, 인동 장씨, 덕수 김씨, 전주 최씨,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청해 이씨, 평산 신씨, 한양 조씨, 전주 이씨 등으로 기존의 성씨 외에 이전 좌목에 없던 성씨들이 추가되었다.

□ 『동유물출납기(洞有物出納記)』(표지 포함 4장)

戊戌(1958년) 十一月初十日

1958년에 작성이 시작된 출납기로 혼례 때 관대, 족도리, 식기, 차일, 병풍, 교군 등을 대여하였고 천묘(遷墓) 때, 회갑연 때, 장례 때 식기 100개를 빌려주는 등 마을공동재산을 관리한 장부다.

출납의 예

一 李□□子 孤宴 : 식기 30개, 병풍

一 韓□愚女 婚時 : 관대, 족도리, 식기, 차일, 병풍, 교군

□ 『대아동회규약(大雅洞會規約)』

• 범위 : 징동1, 2리, 청계1, 2리, 국수1리 거주민

• 임원 : 고문 - 원로회원 동유림 소유권 명의자 중 연장자 약간명, 동회장 - 1명, 대의원 - 각 부락별○명씩 총○명, 감사 - 2명

- 임기 : 2년
- 정기회 : 연1회 12월에 동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동회 재산(동유림) : 청동리(靑鶴) 산 120번지 임야 14만 9,355평(220정(町) 1910년 4월)
- * 양근 서시면 대아동 달성위(達城尉) 사패산(賜牌山) 문건

□ 「통문(通文)」

매년 대동회의 때 계원들에게 통문을 돌리면 각자는 참석 여부를 표기한다. 여기에서는 양력으로 1997년 1월 5일에 가졌던 대아동회 통문을 예로 든다.

(통문)

- 서기 1996년 대아동회
- 일시 : 1997년 1월 5일
- 장소 : 청례리 평촌부락 동장 자택

□ 증동리 66호, 청계리 65호, 종자동 24호(총155호)

- 방출 : 630만 원(9개 부락에 각 부락마다 2명씩 원금 70만 원 연이자 20% 8만 4,000원)
정자동·탑곡·반월형·평촌·중촌·자오개·동편·식곡·고현
- 입장 12호 : 탑곡 3호, 평촌 2호, 자오개 2호, 반월형 1호, 중촌 1호, 식곡 3호
- 가입 3호 : 자오개 1호, 식곡 2호

□ 「회문(回文)」

1949년에 회의소집을 위해 돌린 회문(回文)이다.

(회문)

동유림 별채에 대해 중요회의를 갖고자 하니 음력 10월 11일 석식 후 韓獎愚家로 速臨하여 주십시오

己丑 음 10월 11일 대아동장 한백주(韓百疇) (회람문을 보시고 필히 날인하여 돌려보내십시오)

高峴	李達性 姜文圭 韓忠愚
東片	魚泳學 韓百道 姜鎬稷 韓基先 韓松愚
息谷	姜元成
半月形	韓百哲 韓百容 李敎憲
中村	韓昌東 沈遠聲 韓獎愚
榻谷	李喆仁 鄭行晋 金永穆
坪村	姜台圭 姜明圭 姜聲勳 韓德愚
番多	姜鳳遠 趙容百 姜聲龍 (→ 자오개 정자동?)

□ 「증(証)」(영수증 1946년)

一金 參百貳拾六円也

洞有林野稅로 領收하되 현금 102円과 鄭寧海 鄭東球分 賭租 8升 代 204円을 정히 영수함.

丙戌(1946년) 12월 21일 李喆仁

洞長 座下

3) 지제면 옥현리 이중계

옥현리에는 이중계가 곧 대동계다. 이중계는 추석을 지나고 갖는다. 계는 쌀 한 말을 내고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대동계 문서들도 보관되어 있다. 원래 계 통문을 돌릴 때 통문 돌리는 사람은 일당을 받았는데 현재는 대동계나 상조계나 마을사람들이 같이 한다.

4) 양동면 금왕1리 대동계

금왕리에서는 주민등록을 이곳으로 옮겨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계에 들어갈 수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강요하지 않는다. 현재 대동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1,700~1,800만 원 정도인데,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에서 회원수로 나눈 액수만큼 내야한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 비용 일부를 마을 재산으로 충당하면서 자산이 많이 줄어든 이후 가입 부담이 적어져 가입자가 많아졌다.

대동계에서는 이장 모곡(2말 반에서 서말 반 정도, 연 240만 원)과 반장 몫을 건어준다. 반장은 쌀 1말, 이장은 2말을 한 달에 받게 된다. 이장 밑에는 5개 반이 있는데, 반장 몫은 반원들만 내게 되므로, 반원이 많으면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이장 몫만 건어준다.

정기적으로 이장 모곡으로 나가는 것 외에, 연말 총회 때에는 안건을 부쳐 30~5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주로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 불우이웃은 마을주민 중에서 선정되는데 기금과 모금을 합해 준다. 또한 면체육대회, 군체육대회 등 체육대회가 있을 때면 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 마을회관 전기세 등 공동경비도 기금에서 납부하는데, 적십자회비처럼 주민들이 납부를 꺼리는 준조세 성격의 가구별 부담금도 공동경비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역을 합하면 수입지출의 규모가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2001년의 경우 수입 592만 8,420원, 지출 409만 7,950원).

예전에는 리 단위의 체육대회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건물이 LG교육원에 매각 되면서부터는 반 대항이나 리 대항의 행사가 없어졌다. 시골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생활이 없어지기도 한다는데, 정초에는 청년회 주최로 윗놀이 행사가 있어 2년 전까지 대동회에서 주관해 왔다. 노인들을 위한 행사로는 여름에는 천렵 행사, 가을에는 관광 행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식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까지 마을에서 부담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버스 전세비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대동계에 신입(新入)하는 절차로서 '입장'을 한편에서는 떼고 한편에서는 써서 붙이고 있다



대동계 결산보고. 마을 단위로 갖는 이중계와는 별도로 갖는 대동계 일년 살림에 대한 보고다



새로 계원으로 들어가는 장남들이 해온 술과 떡 등 음식을 먹고 있다



떼어낸 선친의 '입장'을 태우고 있다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는 마을 자산에 해당된다. 대지 622㎡, 건평 1층 96㎡, 2층 72.75㎡로, '새마을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동계 이름으로 등록한 선례가 없었으므로 1999년에 새마을회 이름으로 등록하였다(등록번호 3143-02340). 그리고 양평군청으로부터 2000년 10월 4일에 증명서를 받았다. 1층 건물에 2층을 올리면서 30평 이상이 되어 법적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동계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공동재산이지만 개인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미리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아들로 상속해서 마을에 증여하는 방식을 취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대신 마을에서 부담했다.

예전에는 정부사업이 있을 때마다 마을 명의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을의 자금이 많이 늘어났지만,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업이 불하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요즘의 유일한 수입원은 상을 당했을 때 상주측에서 마을에 내놓는 돈이다. 상가에서 나오는 돈은 공개되어 집집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출혈



양동면 금왕1리 밤골 대동계 장면

하는 경우도 생긴다. 원래 상이 났을 때 한 뒷박씩 쌀을 가져가는 것은 자기 쌀을 먹고 오라는 의미였지 상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랫동네(금왕2리)에서는 상가에서 내놓는 돈이 30~40만 원 정도 되지만, 윗동네(금왕1리)는 100만 원 이상이 된다고도 한다. 요즘은 상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때 거부하기도 어려워졌다. 상여는 예전에는 36명까지 메었으나 현재는 24명이 메고 있다. 상여 댐 사람이 모자랄 때 대신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을, '우물 메꾼다'고 이야기한다.

대동계 모임은 동짓달 초하루 마을회관에서 아침 9시경에 갖는다. 이 모임에서는 대동계 장 선출, 임원 선발, 대동회 결산보고 및 예산 계획 등의 절차가 있으며 리 총회에서는 이장 선출 및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청년회는 이와는 별도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임원은 계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서기 1명이며 임기는 모두 2년에 해당한다.

음식준비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한다. 금왕1리 대동계 회원의 부인들이 준비하는데, 매해 대여섯 명 정도의 유사를 정하고 유사의 부인이 대동을 위한 음식준비를 한다. 해마다 윤번으로 음식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동계 당일에 먹을 음식 가운데 한 가지를 맡아 개별적으로 준비해온다. 나머지는 마을 대동계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술은 마을에서 내고자 하는 사람이 내기도 하고 모자라면 술유사에게 나머지를 채우게 한다. 이러한 음식준비는 금왕1리에 사는 사람들, 특히 대동계원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준비하는 양은 점심 한 끼에 해당하는 만큼이다. 일단 마을로 이사오면 대동계에 가입하는 것이 마을생활에 적응하기가 수월하다고 한다.

청년회는 별도로 조직되며, 마을에 연고자가 있거나 살았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6~7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청년회는 20~45세 정도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노인회는 61세 이상이다.

5)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이중계

이중계는 덕촌1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1987년에 1리와 2리로 분리되기 전에도 이중계는 1리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여도 각기 따로 있다. 덕촌1리에는 이중계장과 이장이 각각 따로 있다. 이중계장은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데, 이중계 재정 안에서 일 년에 쌀 한 가마를 받는다. 이장은 이중계날 이세로 거두어들인 것을 반장과 나누어 갖는다.

이중계가 열리는 날은 연말에 택일해서 잡는다. 2001년도에는 12월 19일에 계가 열렸다. 이날 이세와 구천제사 비용인 '치성조'를 거두어들인다. 이세와 치성조는 호당 똑같은 액수를 거두어들이며, 현재는 이세 1만 7,000원과 치성조 5,000원, 합 2만 2,000원을 받는다. 1만 7,000원은 현재 쌀 한 말 값에 해당하며 이 돈은 이장과 반장의 수고비로 지불된다. 예전에는 호당 한 말 반을 거두어들여서 반장에게 세 가마를 주고 나머지는 이장에게 주었지만 지금은 동네기금이 있어서 호당 한 말만 받고 모자라는 액수를 여기에서 보충한다. 치성조는 현재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예전에는 해마다 행사 후에 비용을 보고 호당 배정을 하였다. 현재 이중계 회원은 82호이다.

이중계날에는 식유사(食有司)가 갯날 먹을 음식인 밥, 술, 술국, 안주 등을 장만한다. 식유사는 다섯 명이 맡는데, 통문에 적혀진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새로 이중계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입례를 겸하여 가입 다음해에 반드시 식유사를 맡기고 쌀 두 말을 내놓게 한다.

1960년도 이전에는 구장(이장)이 이중계장을 겸했는데 1960년, 1961년, 1962년 3년 동안 이중계 기금운영에 문제가 생긴 결과 구천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자 '재건청년회'가 주최가 되어 노인회를 모셔서 이전에 있던 이중계를 없애고 새로 이중계를 조직해서 재정을 분리시켰다.

현재 마을 공동재산은 마을회관과 마을회관 대지(250평), 창고 등이 있으며 창고를 임대해서 임대료로 매해 70만 원을 받는다. 마을회관은 1979년도 '취락구조사업' 때 지은 것이다. 취락구조사업은 농촌마을개혁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집단으로 주택을 개량했던 사업인데, 운계마을에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였는데 시멘트와 철근만 보조를 받았고 대지는 3년 후에 장만하였으며 마을회관 앞에 있는 집 19채를 개량했다.

운계마을의 평양 조씨 비율은 전체 가구의 40%로 서른댓 집 정도 되며 나머지는 다 각성이다. 구천제사는 특별히 평양 조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네 제사이다.

땔나무로 난방을 할 당시 마을에서는 평양 조씨는 물론 타성까지 종중산에서 땔감을 했으며 이때 입산료 같은 것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타동네 사람들은 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산림순산'을 정하여 딱딱이를 치면서 야경도 돌았다고 한다.



단월면 산음1리 산대마을 이중계 문서 「이중계규약(里中模規約)」



산대마을 이중계 문서 「이중계규약(里中模規約)」 내용

6) 단월면 산음1리 이중계

이중계는 일년 내내 수고하는 이장과 반장들을 위해 마을에서 쌀 한 말씩 ‘모곡’을 건우어 주는 것으로, 이장과 반장에게 줄 ‘모곡’을 건는다는 ‘이중통문’을 돌리고, 날을 정해 총결산을 해서 보고하는 모임인 ‘이중’을 한다. 이중계장은 3년 임기에 무보수로 일을 한다.

‘이중계 모이는 날’은 이장 반장에게 모곡을 건네주면서 일년 지나온 일을 ‘심’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의하는 날이다. 모곡을 건는 것은 일제 때에도 있었던 일이다.

산음1리 마을회관에는 ‘이장조’를 거둘 때 등에 사용하였던 ‘모말’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원형으로, 안지름 23cm, 바깥지름 26.3cm, 그리고 높이가 26.5cm로 소두(小斗)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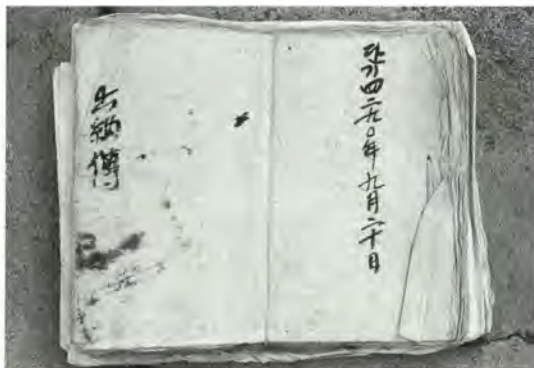
일제 때 산음리에 구장이 셋이고 이중계도 각각 있었다. 산제를 함께 지낼 때도 이중계는 따로 있었다. 산천제사를 지낼 때는 도가와 제관, 축관을 한 마을에 각 한 명씩 뽑아 치렀다. 그러다가 1967년 산대와 안골의 이중계를 병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상이 나면 계장이 장의사에 가서 필요한 물건도 사서 실어온다. 계원들은 그 전에는 상이 나면 술 한 동이씩을 건어서 주었는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부조를 한다. 상여를 매는 것도, 선소리도 마을에서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다른 동네에서 이사오면 술 한 동이와 쌀 한 말씩 내고 (일종의 신입례를 한 다음) 계에 들게 하였다.

그러나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이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청년층의 이출이 심각해졌다. 이에 최근 외지에 나간 장남들은 ‘장남친목계’를 조직하였고, 마을의 초상이 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 「산대 이중계 문서」

- 작성연대 : 1967년 이후
- 조직 당시 주요규약
 - 명칭 : 산음리 산대부락 이중계
 - 자격 : 마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함.
 - 입회비 : 백미 5승과 음식 1기
 - 집회 : 추수 후 택일
 - 기금 적립 : 신입회비 및 유물 1승 대여비
 - 임원 : 계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유물계장 1명, 이사 3명
 - 계원 수 : 79명



단월면 산음1리 고북마을 이중계 문서 「출납부(出納簿)」

□ 「고북 이중계 출납부」

- 작성연대 : 1957년 이후
- 주요내용 : 계 운영 현황

7) 단월면 산음2리 이중계

이전에는 고가수·샘골·지둔지가 하나의 이중계이고, 수청마을이 별도로 이중계를 구성하였는데, 인구가 격감하면서 4~5년 전에 하나로 합쳤다. 그후 이장이 이중계장을 겸한다. 이중계의 주된 역할은 산신제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는 일이다. 이중계가 따로 있을 때는 상여도 따로 있었다. 현재 상여는 16명이 메는 상여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가입비를 내고 이중계에 가입하는데, 이중계를 합친 후로는 쌀 한 말과 돈 3만 원을 내며, 행정리 단위로 계를 합치기 전에는 술 한 말, 두부 한 말을 가입비로 냈다. 이사를 가면 자연탈퇴가 되는 셈이며, 탈퇴한다고 가입비를 돌려주지는 않는다.

상이 나면 상주가 원할 경우 상복의 재료구입을 이중계에서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준다. 상복을 짓는 일은 부녀회에서 맡아서 한다. 상여는 보통 16명이 메는데, 최근 8명이 메는 꽃상여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과거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을 당시에는 32명이 메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작부 등 전력이 좋지 않은 여자의 경우, 백상여에 모시고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상여를 멘다고 하는데, 해방후에 한 차례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중계의 공동소유지는 본래 논이었었는데, 현재는 지목을 대지와 잡종지로 바꾸었다. 이 공동소유지에 마을회관과 그 주변의 땅, 벼 보관창고, 노인정, 농기계창고 등이 있다. 대지가 800평, 논이 500평, 잡종지가 150평 정도다. 이외에 상례를 치를 때 상주가 내는 돈을 적립한



청운면 여물리 '대동지추' 모임 장면

1,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

상여는 곳집에 보관한다. 곳집의 위치는 옛날부터 그대로인데 20여 년 전에 블록으로 새로 지었다. 상여를 교체할 때는 나이 많은 노인을 태우고 마을을 도는 상여놀이를 한다. 1999년 12월 청년회에서 상여를 기증했을 때에도 상여놀이를 했다고 한다.

8) 청운면 여물리 동네기금과 '대동지추'

기금은 동네 공동답에서 나오는 도지에서 마련한다. 도지는 4·6제로, 즉 10가마가 나오면 4가마는 마을공동기금으로 내고 6가마는 지는 사람에게 준다. 동네 논은 총 3,500평이다. 이전에는 그 땅이 '마을숲'으로 놀이터였다. 백중 때도 그곳에서 놀았다. 숲이 울타리삼아 마을을 둘러 있었는데, 놀러서 뭐하냐는 여론도 있는데다가 1979년에 장마가 크게 쳐서 나무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기자 논으로 개간했다. 이 마을 공동숲을 수평이라고 불렀다.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땅이어서 개간할 때도 큰 마찰은 없었다. 15년 전에 새마을회에서 등기를 냈는데 명목이 공유지라서 큰 마찰은 없었다. 가현1리에는 수평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남향 울타리식으로 되어 있으며 나무를 떨감으로 쓰지 않았다.

공동땅을 농사지을 사람은 매해 대동계추 있는 날 제비를 뽑는다. 이전에 경작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제비를 뽑는다. 10가마당 받은 6가마 중 2가마는 불우이웃 돕는 데 보낸다. 또한 공동답 4필 중에 1필지는 점심식사 비용마련 등의 목적으로 노인회와 총무에게 떼어 준다. 지금 노인회에 가입한 어른은 58명이다. 노인회에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쌀 반 말씩의 상여비가 지급된다. 호상인 경우 상여 메고 떠나면서, 돈을 내놓게 하고 다리를 건널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모은 돈이 적어도 80~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모두 마을기금으로 쓴다.

대동지추 때는 임기가 다한 총무, 유물계장(임기 2년), 새마을 지도자, 5개 반장, 이장(임기 3년), 역원(개발 위원들 3명)을 다시 뽑기도 한다.

대동계와는 별도로 '유물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물리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다 가입을 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돈도 내야 한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신입례'라고 해서 신고식을 해야 가입이 된다. 신고식은 대동지추 때 얼마간의 돈을 내든지 술을 사든지 해야 한다. 예전에는 막걸리와 안주로 했는데 어림잡아 한 5만 원 정도 든다. 현재 여물리는 총 106호인데, 소지를 올리는 가구수는 98호이다. 그 이유는 아직 신입례를 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입례를 한 사람은 30만 원을 내놓았다. 유물계장은 마을 총무도 하면서 개발위원을 맡기도 한다. 유물계는 한마디로 동네 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유물은 행상(상여), 그릇판리를 한다. 부녀회와 노인회는 따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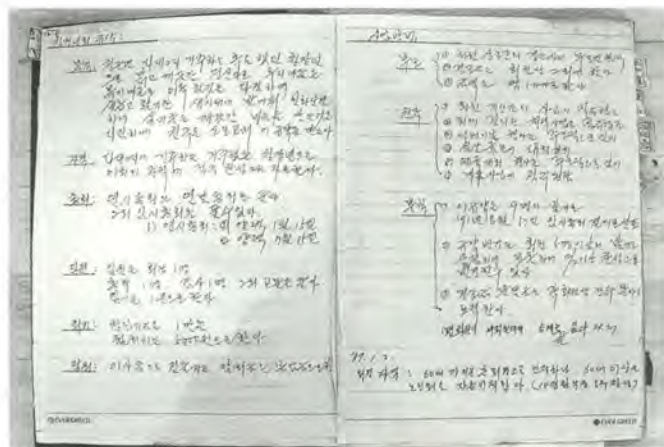
사람이 죽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동지추를 음력 정월에 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안 좋은 일이 있든 없든 10월 15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 대동지추는 이장 인사, 금전출납보고서, 의문 사항, 공동논 경작자 선출, 폐회 순서로 이루어졌다. 총무금전출납보고서는 총무가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동네에 있는 구회관과 곳집은 정부 땅이라 사용료를 얼마간 내야 하며 구회관은 비어 있어서 세를 들여 두 사람으로부터 한 달에 5만 원과 3만 원씩 돈을 받는다. 공동논에서의 소출은 총 19가마 6두의 쌀 중에 당제용으로 1가마 1두를 써서 18가마 5두가 나왔는데 1가마에 16만 원으로 환산하여 모두 296만 원이 나왔다. 향토마을축제경비, 곳집과 구회관임대료, 기타 공동경비로 약 264만 원을 지출하여 총수입 약 540만 원에서 제하고도 276만 원이 남아 마을기금으로 적립되어 지금까지 약 94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보를 관리하는 사람을 '복감고'라고 하는데, 장마가 저서 땅이 허는 일이 발생하면 논에 물대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농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일한다.

9) 청운면 다대2리 상조회

다대리에 상조회가 구성된 것은 마을기금 형성에 따른 것이다. 마을회의 때 사용하는 대동 그릇도 마을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1980년 8월 20일경에 마을 사람들이 날을 정해 동네 주변 잣나무의 잣을 함께 따서 이것을 판 돈으로 기금을 만들었다. 이후로는 장사지낼 때 상여를 메고 상주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운영한다. 상조회는 마을주민 모두 가입하고 있다. 1980년 전에는 상조회와 유사한 것으로 최씨와 조씨가 함께 참여하는 '유학계'와 그 외 타성들의 '유학계' 등 두 개가 있었는데 1962년경에 합쳤다. 전자는 구파, 후자를 신파라고 하는데, 구파는 토박이고, 신파는 각성이다. 최씨와 조씨의 유학계는 기금과 상여를 통해 운영하였는



청운면 다대2리 청장년회규약 내용

데, 돈을 동네에서 빌려줄 경우 연이자가 50%의 장리였다.

다대2리 유학계는 1980년대 초반 청년회로, 다시 1992년 '다대 청장년회'로 재조직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상여를 맬 사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자, 외지로 나간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다대2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가입케 한 것이다.

회원 자격은 60세까지이며, 60세를 넘으면 노인회로 자동 이적하게 되어 있다. 30만 원의 입회비(마을 기금 지분금 제외)를 납부하여야 가입이 허용되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매년 2회의 정기총회(1월 1일 전후, 7월 17일) 및 그 후의 체육대회 또는 산행이 있고, 매달 모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임은 활성화된 편이다. 마을에 거주하는 부모 대부분이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장례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1992년 청장년회원은 18명이었으나 2001년 현재는 32명(양평군 외 거주자 14명 포함)이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회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다고 한다.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금도 상여는 24명이 매는 경우가 많다.

현재 회원의 경조사에 참여하고(회원당 2회, 경조금 쌀 1가마 상당), 설날·어버이날·체육대회(7월)를 주관하며, 일 주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한 문병(비용 2만 원 또는 3만 원)을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설날 새벽에 마을주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해맞이' 행사를 마을 북동쪽 산 위 '호랑바위'에서 했다.

제3절 혼·상계 및 기타 계조직

유학(幼學)이란 용어는 조선 후기 이후 벼슬하지 못한 양반들의 직역(職域)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직역과 신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간에 상대의 집안내력을 알고 있는 향촌사회에서 이를 신분 개념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유학계의 경우 주민들이 설명하는 계의 발생동기를 보면 유학이 양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학계는 양반가계 출신들이 스스로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결성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상여를 메지 않겠다는 사민들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러한 계의 등장은 반상의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생활에서는 더 이상 반상이라는 신분차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 조선시대 양반들은 상민들과 품앗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반상차별이 통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양반출신들이 운구와 산역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계가 유학계라는 설명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유학계는 일제 말엽에 중단되었다가 8·15 해방 이후 다시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혼례를 위한 '유혼계'도 있었다고 하는데, 부리는 종이 없는 양반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유학계가 운영되던 마을도 지금은 대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학계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의식적으로 무시되며 이미 잊혀진 곳도 있다. 예컨대 유학계는 상이 나면 대동으로 참여하며 유학계장은 상여를 가져오고 유품이나 그릇 챙기는 일을 맡는다. 상포계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들어 5~6개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유학계에 대해 물으면 '유악계'라고 해야 된다고 정정해준다. 이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유학계는 의미 자체가 변하여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상계(大同喪契)로 인식되고 있다.

1. 지역별 기타 계조직

1) 옥천면 신복리 상포계

신복리에는 상포계가 2개 있다. 혼인계는 중간에 생겼다. 마을공동 상여집은 하천 옆에 있고, 1997년에 상여추렴으로 상여를 새로 장만하였으며, 이전 것은 소각했다. 상여놀이는 하지 않았다. 상례절차 중 발인 전날 저녁에 '반포'를 하는데, 다음날 상여를 들 동네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푸는 행사다.

2)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

연양마을에는 지금도 16인이 메는 상여가 있다. 상이 나면 주민 모두가 쌀 한 되와 약간의

돈을 상가에 가져가며, 상포계 회원들은 별도로 계금을 걷는다.

3) 강하면 운심2리 운포마을 상포계

운포마을의 상포계는 약 5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상포계는 계원 중에 상이 나면 쌀 한 말씩을 걷어 팔아서 상주에게 돈으로 태워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상여를 보관해두는 도가집은 현재도 남아 있으며, 상여는 중간에 개비를 거둬서 현재 있는 것은 마련한 지 20년 정도 된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마을 공동소유의 사모관대와 사인교, 풍물을 노는 '팽맥팽이'(팽과 리 등 악기)와 상모, 농기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오래 전에 없어졌다.

4) 강하면 전수2리 사호마을 상포계

사호마을에서는 예전에는 이웃 운심리와 상포계를 같이했으며 벼 20필을 '태워주었다'고 한다. 상여는 12명 또는 24명이 댔다. 1985년까지 지속되다가 없어졌다.

5) 강하면 항금리 항금마을 상포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포계는 없으며, 1998년에 마지막으로 태운 이후로 계를 만들지 않았다. 이 상포계는 40년쯤 전에 부모가 계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1998년에 있었던 계원의 초상 때 계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를 타지 못한 계원이 몇 사람 남았지만 그해에 같이 미리 당겨 한꺼번에 태워 없앴다고 한다.

상포계는 상이 나면 계를 태워서 돌아가신 분의 염습비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을 당할 때마다 시가를 기준으로 벼 9필 내지 10필과 광목 1통 40마를 상주에게 전한다. 상주가 벼와 광목을 사다 달라고 하면 물건으로 사다 주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그냥 준다고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계장의 일인데 보통 삼우제 때 상회에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 수합하여 상주에게 전하거나 직접 상회에 갖다준다. 거래하는 상회는 양평읍내에 있다.

상포계에서 쓰던 마을공동 상여는 16명이 메는 것으로, 지금도 상여도가에 보관하고 있다. 마을에는 상포계원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며, 상여는 상포계 소유이지만 상여를 메는 것은 상포계원들만이 아닌 마을사람 공동의 일이었다. 상가에서 사용될 상복을 짓는 일 역시 계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작업을 하였다. 상여행렬을 이끄는 선소리꾼 역시 마을사람이 맡았다.

6)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 상포계

동네 상포계는 다 끝나고 지금은 없다. 상포계는 벼를 태워주는 것이다. '광목제'가 있었는데 상주들이 입을 상복을 짓기 위해 옥양목 등을 사다준다. 상여는 12명이나 10명이 드는

작은 것으로 원래는 땃골, 즉 대아리에서 갓다 썼다. 계원은 별도로 빌리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 한국전쟁 이후 땃골까지 가서 빌리기가 번거로워 별도로 마련하였다.

7) 양서면 대심리 횃계

대심리 횃계는 망자의 봉분을 만들 때 필요한 회를 사다 주는 계다. 장사를 치르려면 한 번에 회가 서너 말에 들어가는데, 서종면에 회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곳에서 구입한다. 원래 어른들이 하시던 횃계가 있었는데 도중에 없어졌다가 다시 만든 것인데 이것도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되었다. 다시 만든 횃계 운영방식은 계원 중에 상이 나면 쌀 한 말씩 내는 것이다. 가입한 호는 30집이었다.

8) 지제면 옥현리 상조계

옥현리 광양마을은 이씨 일가들 집성마을이다. 과거에는 타성씨가 동네 가마, 또는 상여를 빌리려면 돈을 주어야 했는데 상조계가 결성되면서 이씨 문중에서 상여를 동네 재산으로 기증하였다. 상여 메는 것은 원래 일가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발인 아침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메준다.

9)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상포계

운계마을 상포계는 부모상을 위해 조직한다. 계원들의 상에는 백미 세 가마와 술 등을 마련해 준다. 지금도 몇 사람이 남아 있지만 거의 사라지는 단계다. 그 대신 4년 전에 상조계가 만들어져서 외지에 나간 자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상조회장은 이장이 맡고 있다.

10) 단월면 보룡리 유학계와 상포계

유학계의 주목적은 상여 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재인동과 되룡골이 하나의 유학계이고 한터가 별도의 유학계였는데 1989년경에 재인동과 되룡골 유학계가 한터 유학계로 합쳐졌다.

유학계는 상여 메는 일과 산역이나 음식 나르는 일 등을 도와주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하는 것이고, 상포계는 연령이 비슷한 노인을 모신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고 해서 만든 것이다.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유학계원들끼리 쌀 한 말을 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마을회관에 현재도 상여가 있다. 이 상여는 작년, 즉 2000년에 장만한 것으로 16명이 멘다. 상여를 새로 장만하면 나이 많은 노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상여놀이'를 하는 것이 관례이나 작년에는 해당 노인들이 무서워하여 아무도 타지 않고 빈 상여만 메고 돌아다녔다. 상여놀이를 할 때 뚜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노인들이 무서워한 것이다. 박○재가 동네에서 수시(收屍)와 염, 그리고 상여나갈 때 요령잡이 일 등을 주로 하였다.

11) 청운면 여물2리 청년회, 유학계, 상포계

여물리는 요즘 젊은층은 물론 장년층도 없고 다대1리·2리와 신문리에만 청년회가 있을 정도다. 유학계는 동네마다 있다. 상이 나면 유학계장이 상여를 가져오고 주로 유품이나 그릇 챙기는 일을 맡는다. 상포계는 친한 사람들끼리 만드는 친목단체이다. 개인적으로 많을 경우 5~6개 정도 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유학계'라고 발음한다.

12) 청운면 용두리 상포계

상여는 용두1리와 3리가 같이 쓴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초상이 나면 계원들이 상을 차려주는데, 상여 메고 밤 새우고 산역 일을 한다. 계의 관리자는 이장이다. 상포계 단위는 11명 또는 21명이 든다. 만약에 21명이 계를 들었으면 초상난 집을 빼고 20명이 쌀 열가마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한 마을에 상포계가 여럿일 수 있다. 가장 많을 때는 반별로 있었던 때도 있었다. 쌀값은 그때 시세에 따라서 주는데, 동네 정미소에서 가장 좋은 쌀의 시세로 계산한다. 미리 기금을 모아두지는 않는다.

초상집에 조문갈 때는 각자가 그날 가서 점심으로 먹을 쌀을 가지고 가는데 이를 '하방미'라 불렀다(혹 '합번미(合番米)'의 의미인지 모르겠다). 호당 쌀 한 되 값을 가지고 갔으나 이제는 돈으로 가지고 간다. 이웃 향소리에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장사 때는 '군반미(軍飯米?)'라고 하여 쌀 한 되씩 내서 상을 치렀고 그것도 없는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되는 대로 가져오라고 해서 보리나 감자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한다.

유학계에 대해서는 상포계와 같은 정도로 아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노인들도 있었다.

13) 청운면 향소2리 동막골 유학계

유학계란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마을계다. 해방전까지 장례 때는 하계(중인)를 부려서 장사를 모셨는데, 8·15 해방 후 신분구별이 없어지고 중인이 점차 적어져서, 특히 비부(婢夫)가 없는 '토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상을 모시자' 해서 유학계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유학계장으로 있었던 박○재에 의하면, "특정 성씨의 비부로 있었던 사람들이 중인의 대부분이고, 간혹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중인 노릇을 자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 유학계장에 따르면, 일제 말기까지 비부로 부리던 주민들이 마을에 거주하였으며, 머슴은 새경을 주지만 좋은 새경을 주지 않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주민들은 "중인들과 품앗이는 같이 하지만, 혼·상례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양반과 상놈, 또는 중인이 '한 어깨에 가마를 멜 수 없었다'고 한다. 하계 사람들에게 장사 일을 맡겼으며 일손이 모자라면 외지사람까지 불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들어와 가난한 양반집 장사에 하계 사람들이 "돈 더 보라 마라"하며 행패를 부렸다. 당시 마을 전체

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계인들을 불러다 하려면 장리쌀이라도 들여 떡을 하고 과일도 피어야 했다. 양반 체면에 제상에 과일을 놓더라도 서너 개로는 안 되고 많이 쌓아야 했다. 상갓집 주인이 음식장만을 해서 내어주면 음식접대나 음식싸주기, 나누어갓기 등을 할 때 양반들은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양반끼리 하자” 해서 유학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서의 유학계 조직은 해방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마을 유지 양○환이 ‘반상구별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일시 해체되었다가 해방 후 다시 조직되었다. 유학계가 조직된 이후, 과거 하계에 속했던 사람들은 심부름 정도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학계 규약은 약 20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유학계장에 따르면, 주된 조항은 ① 다른 마을 일은 하지 않고, ② 외지로 이사를 가면 자격을 박탈당하며, ③ 아들이 없어서 딸에게 없혀 사는 사람의 상례는 맡으나, ④ 아들이 있음에도 딸에게 없혀 사는 경우에는 맡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동네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면 탈계시키고 불효자는 출동(出洞)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해방 후 최근까지 그러한 사례가 약 네 차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임원으로는 계장과 부계장 각 1인, 그리고 반장이 유사일을 겸한다고 한다. 계장의 경우, 부고장을 돌리는 등 초상일을 전담하므로, “모내기를 전폐하고 매달릴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

유학계의 기금은 상주가 내는 돈을 적립하여 마련한다. 상여꾼들의 짓곳은 장난에 못이겨 상주가 돈을 내는 것은 과거 하계 사람들이 하던 습관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기금 결산은 별도로 하지만, 그 쓰임새는 마을 기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유학계는 30여 년 전 반상의 구별을 없애고 하계 사람들을 받아들여 ‘친목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유학계’와는 별도로 혼례를 위한 ‘유혼계’가 있었다. 혼례 때 품앗이로 가마를 메는 것이었는데, 가마를 메는 일은 자동차가 생긴 후 없어졌다. 유혼계 또한 비부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가마를 메는 경우가 없어지면서 사모관대 등 혼례용구의 관리만 맡다가 유학계에 흡수되었다.

14) 사나사 불양비문(佛養碑文)과 당상계(堂上契)

불양비는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 경내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서 있다. 비신 높이 150cm, 너비 65cm, 두께 20cm(개석은 높이 60cm, 너비 100cm, 두께 60cm) 크기의 비 사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다. 비 앞면 비양의 비문은 모두 12행이나 글자수는 일정하지 않고 총알자국이나 더러 떨어져 나간 부분은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대략의 내용 파악은 가능하다. 양근군에 사는 나이 많은 주민들 중에 납속(納粟)으로 당상(堂上) 이상의 품계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기념하는 당상계

(堂上稷)를 조직하여 사나사의 영세불공(永世佛供)을 위해 논밭을 시주하고 세운 비다.

비신의 기록에는 '乾隆四十年乙未八月'에 비를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건립시기는 1775년(영조 51)이다. 양평현 읍치는 1747년(영조 23)에 지금의 옥천면 옥천리에서 갈산, 즉 현 읍소재지인 양근리로 이읍(移邑)하여 설치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이읍 후 28년이 지났지만 이읍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집단적으로 납속직을 받게 된 동기는 아마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영조 때 간행된 『해동지도(海東地圖)』를 보면 이읍 이전에 이미 남한강을 따라 형성된 육로는 갈산을 지나 읍치인 옥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밑으로 길이 열려 자연히 옥천은 소외되고 읍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없었다. 반면 통행량의 증가로 갈산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상업적인 이득은 커져 갔으며 이읍은 이를 더욱 배가(倍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불양비 뒷면, 즉 비음(碑陰)에 적힌 이름들은 당시의 신분으로는 양반보다는 상민에 가까운 소위 '중인'들과 상민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결국 주막을 운영하거나 강상교역에 참여했던 계층이었을 것이다.

이전에도 비문이 실린 바 있으나 오기가 많고 판독 가능한 부분도 추가할 점 전문을 판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는다.

堂上稷佛養碑文 全文

• 碑陽 - 앞면

(有明朝) 鮮國京畿左道楊根郡境內堂上稷佛養碑我國壽域也上有

(聖人) 享岡陵壽於時朝多耆耆之臣草野之垂黃戴白者不知其幾千人何其盛也惟我恒陽

(一墳以) 壽爵者年過八十而後始登通政之列由是而進則爲嘉善爲①義爲資憲八十九十者

(若比) 其多則六七十者又不知其幾人吾鄉亦盛矣一境中堂上以上人結酒社花朝楓夕笙歌以娛酒半

相與語曰吾儕幸沾雨露之澤共在煙月之衢歌詠 聖德樂此(餘年可)謂極樂界也天堂輪回之說信如釋

氏之言可不卜此樂於他生僉曰孰主張是曰佛也不有大(檀越不能)得(慈悲心)於是各出蠟(氏)之力

得若干田付②彌智山之舍那寺爲永世供佛之資寺(高麗)朝圓證國師道場也因伐石記其事

楊根新邑內公③□伏在帝字六十三句畚八夜未東西長一



옥천면 옥천리 사나사 불양비(佛養碑) 비양(碑陽)의 당상계문(堂上稷文)

百尺西活五十二尺六寸五束□□□□□路南

忠吉畚西白云畚北介崇畚起主邊□泰奴仁石同字一百五圭畚一夜未東西長□□□□□七尺奴忠成□□

□□□二卜一束二□□□□□南成萬畚西路北壬先田起主洪鎮寶宅奴忠成□□□□□落八卜(六束)付諸④⑤⑥⑦⑧⑨⑩以爲永世供佛而本文書段燒火焉

乾隆四十年乙未八月

*1:嘉로 추정됨, 2:諸로 추정됨, 3:土로 추정됨, 4:彌로 추정됨, 5:智로 추정됨
6:山으로 추정됨, 7:之로 추정됨, 8:舍로 추정됨, 9:那로 추정됨, 10:寺로 추정됨

• 碑陰-뒷면

嘉義 高延鶴 金有傑 金舜崗 文德明

資憲 朴大俊 文泰輝 梁大奉 洪振海 鄭俊明 鄭戊金 金永愛 鄭先順 咸世建
崔益獻 李貴贊 申道重

嘉善 咸益成 申貴尙 洪者斤先 崔鎰同 朴斗起 金業先 韓鎰先 宋德世 方順萬
李二金 許今金 林有才 金二奉 崔戊成 金七碩 方莫山 金大天

通政 李固春 文泰傑 申時同 金海先 金己山 朱泰守

折衝 金舜同 金德先 金鎰奉 李振完 金德尙 咸得仁 朴守仁 李守男 咸奉仁
金有弘(?) 元德辰 金永先 河好仁 方天應土里 金愛先 朴奉才 金七先
李同(?)春

嘉善 李奉(?)

通政 曹海尙

領坐 □□□

公員 □□□

堂□ □□□

有司 □□□

僧統 通政 □□

首僧 □□

三寶 □□

別座 采雲

刻手 嘉善 雪行

제4절 친목단체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농촌 고유의 공동체적인 조직이나 집단은 소멸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과 근거리에 있어 통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농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양평, 특히 양평읍 서쪽지역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어디나 공통된 현상이었다.

젊은층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 명절 등을 이용하여 모이는 친목계가 있는가 하면 동네 범위를 넓혀 부족한 젊은 연령의 수를 확보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외지로 나간 젊은 층을 아우르는 향우회인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석불향우회, 젊은층을 상대로 어른들이 교육활동을 벌이는 지제면 일신리의 사례, 지역범위를 넓힌 단월면 산음리의 청년회 등을 사례로 들었다.

1.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석불향우회

망미2리 안섬부리 석불향우회 회원은 47명이며, 그 중 한 명만 여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다. 향우회에서는 정월 보름 무렵의 일요일에 장승제를 올릴 때 행사를 주관하고 가을에는 부모님 효도관광을 보내드린다. 장승제가 끝나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웃놀이는 향우회를 만들면서 시작한 것이다. 동네 경조사, 장사 치르는 일까지 모두 향우회에서 맡아서 한다. 향우회의 회비는 분기당 4만 원이며, 그것 말고도 별도로 비용을 만들어서 행사를 유지한다. 또한 향우회에서 책임지고 회관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모내기철이 끝나면 향우회 단합대회를 한다. 보통 양평군내의 어떤 장소에 가서 놀고 오는 것이 보통이다. 향우회에서는 장승제에 60~70만 원, 야유회에 60~70만 원, 효도관광에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경비는 모두 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향우회 결성은 약 15년 전에 상여를 맬 인원이 모자라 애를 먹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안섬부리와 바깥섬부리, 즉 망미2리가 함께 상여를 맬다. 이중계는 없고 대동계에서 상여를 관리한다. 대동계 모임은 바깥섬불 마을회관에서 한다. 이 회관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것이고, 안섬불 마을회관은 면에서 200만 원을 보조받아 자체 건립한 것이다. 이곳에서 겨울에는 노인들이 다 모이고 자제분들이 음식을 대준다.

향우회 회원은 군대 복무를 마친 이곳 출신 남자로 구성되고, 딸만 있는 집은 사위가 가입

한다. 회비는 한 달에 3,000원이고 명절(설·추석) 전날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갖는다. 장승제를 위해 따로 추렴하지 않는다.

2. 지제면 일신리

현재 일신리는 약 25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옛 상여를 사용하고 산역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할 정도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초등학교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어른들이 상례나 장례와 같은 예절교육 및 영수증 기재방법, 민원처리 실무 등의 상식교육을 한다.

3. 단월면 산음리 산음청년회

산음1리와 2리가 함께 '지역지킴이'들이 합치자고 해서 결성되었다. 설에 척사대회를 하고, 추석에 축구대회를 한다. 1리와 2리가 따로 있는 리별청년회는 이사하여 나간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나, 1·2리가 통합되어 있는 산음청년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1리 10명, 2리 6명, 합 16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음2리청년회는 14명이고, 그 중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6명이다.

제6장 세시풍속과 놀이*

양평의 세시풍속은 경기지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외에도 특기할 만한 것들이 있다. 또한 양평 내에서도 산간지방과 강안지역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남한강 주변에는 아직도 어부심이라는 고사 행위가 남아 있고 용왕신에 대한 개념도 살아 있는데 이것은 동북쪽의 산간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시풍속이다.

정월에 마을마다 척사대회를 갖고 망월(望月), 즉 달맞이 가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풍속이다. 그러나 달맞이행사의 하나인 동화제와 함께 제웅을 만들어 태우는 풍속은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인데 이곳에는 남아 있다. 강하면 항금리 항금마을의 동화제는 군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축제의 하나인데 마을에서는 흔히 '동화 매기' 또는 '동화 태우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편 남쪽지방에서 흔히 나타나는 줄다리기는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예전에도 줄다리기는 흔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오래 전에 없어졌지만 지제면 지평리에서는 석전(石戰)을 행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동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정월 세시풍속의 하나로 외부 장사꾼들이 와서 팔았던 복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양평에는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와 같은 큰절이 있고, 절을 다니는 신도들도 많아 절에서 행하는 각종 예불들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세시풍속과 연결되어 있다. 음력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과 백중, 그리고 특히 용문사의 은행나무와 관련한 행사는 인근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다. 초파일 때는 양평관내 큰절에서 작은절까지 모두 행사에 참여하여 신도들이 갖가지 등을 들고 양평읍내 양평종합고등학교 교정에 모여 시가행진을 벌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주민축

* 제6장은 정승모·김희경 집필임.

제로 이어진다.

남쪽지방에서는 찾기 힘든 단오행사가 동북쪽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행해진 것도 특기할 만한데 벼농사보다는 밭농사 비중이 컸을 때 형성된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일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백중장은 일제시대부터 성행하였는데, 이것도 주로 동북쪽 산간지대에서 활발하였다. 백중놀이는 장에서 대략 닷새 동안 서는데 바쁜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놀다 간다. 백중장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화랭이패도 왔었다고 한다.

놀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중반 강상면 교평리에 정착한 남사당패와 '뜯쇠' 남운영에 대해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은 그들이 이 지역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 풍물패가 부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오히려 강하면 성덕리의 고창굿처럼 대규모 축제가 열리면서 많은 놀이꾼과 구경꾼들이 참여했던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창굿에 관해서는 제7절 민속신앙과 의례편에서 서술하였다. 그밖에도 여름철의 천렵 등은 어디에서나 있는 풍속이지만 계곡과 산이 좋은 양평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난다. 음력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각 지역 마을마다 산신제 또는 산제를 갖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민속신앙 편에서 언급하였다.

제1절 정월의 세시풍속과 놀이

1. 어부심

어부심은 한자로 어부시(魚鳧施)라고 쓰며 의미는 강에 사는 물고기나 오리(鳧)에게 배운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강에서 고기도 잡고 먹감는 일도 많아 강 주인인 물짐승들에게 일년 내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비는 신앙행위였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강가에 사는 집이면 누구나 어부심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로 전해지지 않은 때문인지 지금은 지내는 집이 거의 없다고 한다. 개군면 상자포리에 사는 김연희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같이 뱃사공일을 하는 등 강과의 깊은 인연으로 아직도 정월 보름이면 시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어부심 고사를 정성껏 해오고 있다.



어부심 고사에 쓸 '고양', 즉 공양 메를 바가지에 담고 있다. 고사 전날 방앗간에서 찼어 온 햅쌀로 지은 밥이다(개군면 상자포리)



보름달이 뜬 가운데 강가에서 어부심 고사를 지내고 있다. "아무개, 아무개, 물가에 가도 조심해주세요"라고 기원한다(개군면 상자포리)



발목이 찰 정도의 물로 나아가 강물에 메를 풀어 띄운다(개군면 상자포리)

2002년 2월 26일은 음력으로 정월 보름이다. 새벽 2시경에 김 할머니집의 어부심 고사가 시작되었다. 전날 미리 방앗간에서 찼은 햅쌀로 먼저 '고양'〔供養, 즉 밥〕을 지어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용왕님 어부심"이라고 하면서 삼배(三拜)하고 다음은 아드님 나이를 대면서 삼배, 다음은 며느리, 손자 순서로 나이를 대고 삼배한다.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여기저기 집안 구석마다 한 순갈씩 떠놓지 말고 부엌에만 떠서 부으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고양' 밥을 퍼 들고 강가로 가지고 가서 용왕님 앞에 놓고 '사해 용왕님'을 찾으면서 동해, 남해, 서해, 북해 순서로 돌아가며 일배씩 사배하며 "아무개, 아무개, 물가에 가도 조심해주세요"라고 기원한 다음 발목이 찰 정도의 물로 나아가 왼손으로 바가지에 담은 '고양'을 물에 푼다. 정월 보름에 동네에 부정이 있으면 2월 초하루로 미루어 지내기도 한다.

2. 척사대회, 망월, 제웅

우리 나라는 농한기이면서 두 명절 사이가 길지 않은 정월 설날부터 대보름 사이에 많은 놀이들이 집중되어 있다. 옷놀이도 그중 하나인데, 다른 놀이에 비해 요즈음에 오히려 더 번창하는 것 같다. 모처럼 설날 귀향하는 세배객들을 위해 척사대회, 즉 옷놀이대회를 대동단위로 준비하는 것이다. 정월 보름날 강하면 성덕리에서는 대동이 설을 쇠러 온 귀향객들과 어울려 옷판이 벌어졌다.

한자말로 척사(擲柶), 즉 옷을 던진다는 뜻의 옷놀이는 옷과 말, 팔판 또는 옷판으로 구성된다. 옷판은 원래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것이고, 옷의 둥근 부분은 하늘(天圓)을 나타내며 반대편은 모진 땅(地方)을 상징한다. 옷이 네 개인 것은 땅의 숫자이고 그것이 조합하여 나오는 도, 개, 절, 옷, 모의 다섯 가지는 하늘의 숫자다. 이것을 가지고 옷판에 말을 움직이면 그것은 곧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다. 옷이 바로 서고 뒤집히는 것은 곧 양과 음이 교차되는 것과 일치하므로, 이것으로 천지만물이 형성됨을 상징하고 이를 통해 지상의 길흉화복과 흉풍(凶豊)을 점치려 했던 것이다.

정월 보름밤 달맞이를 '망우리', '망우려'라고 하며, 모두 한자말인 망월(望月)을 의미한다. "달마중, 망우려, 망우려"라고 하면서 달맞이를 한다. 이때 집집마다 액막이를 하는데 주로 아이들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방법은 팔·다리·머리 모양을 낸 허수아비라고 부르는 제웅을 만드는데 잡아매는 매듭을 나이 수대로 한다. 그 다음 제웅 안에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적은 쪽지와 돈(엽전)을 넣어서 물에 띄우기도 하고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한다.

강하면 항금리에서는 보름밤 동화(洞火)를 태우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식구의 나이 수대로 짚을 매서 태우고 달을 보면서 "하느님, 달님, 절 받으세요"하며 절하고 소원을 빈다. 주로 아이들이 하지만 어른들도 같이 한다.

3. 면별·마을별 사례

양평에서 정월 보름을 즈음하여 행해졌던 다음의 풍속들은 아직도 어른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정월 14일 아침에는 만두국을 먹고 저녁에는 시래기, 취나물 등을 먹는다. 밤에 아이들은 거지처럼 꾸미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닌다. 보름날 새벽에 어부심을 하고 아침에 부럼도 깨고 귀밝이술을 마신다. 예전에는 막걸리에서 맑은 술인 '약주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그냥 소주를 마신다고 한다.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찰밥에 김도 싸먹고 나물도 먹는다. 저녁에는 콩과 차좁쌀을 섞은 맴쌀로 밥을 해먹는다.

정월 16일에는 저녁에 새알심을 넣은 팔죽을 먹는데, 일부를 조금씩 벽에다 묻혀서 귀신을

예방한다. 저녁에는 또 화로에 고추씨, 목화, 머리카락, 소금 등을 넣고 불을 붙인다. '얼기미'(가루치는 채), 삼태기, 대바구니를 대문 앞에다 매달아 놓고 신발은 죄 안으로 들여놓는데, 그러면 귀신이 대문 앞에서 그것을 세다가 어느덧 닭이 울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한다. 신발은 달귀 귀신이 신고 가지 못하게 들여놓는 것이다. 혹은 '달귀 귀신날'이라고 하여 부정풀이를 하는데 팔죽을 쑤어 맑은 물에 갠 다음 마당가에 끼얹었다. 마당과 대문간에는 왕겨, 머리카락, 고추씨 등을 태웠다. 그러면 귀신이 그 냄새가 싫다고 도망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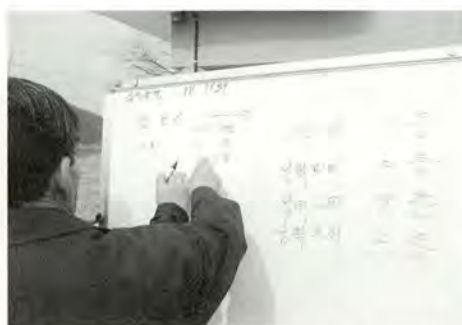
한편에서는 윷놀이 대회가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풍물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강하면 성덕리)



윷놀이는 남녀 각기 구분하여 논다. 남자들의 윷놀이(강하면 성덕리)



여자들끼리 윷놀이를 하고 있다(강하면 성덕리)



성덕리 4개 마을 대항 윷놀이 성적 결과를 적고 있다(강하면 성덕리)



노인 한 분이 '망우리 대'를 높이 들어 보였다
(개군면 상자포리)



'망우리 대'를 태우면서 가정의 평안과 무사를
빈다(개군면 상자포리)



대보를 달맞이의 액막이용 제웅. 제웅 안에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적은 쪽지와 돈을 끼워 넣었다(개군면 상자포리)



벗짚 태우기. 동화(洞火)를 태우기 전 각 가정에서 벗짚을 태우고 달을 보며 절한다(강하면 항금리)



갯짚 태우기. 달맞이 때 하는 액막이의 하나로 갯짚을 나이 수대로 묶어 대를 만든다(개군면 상자포리)

1) 양평읍내 정월풍속

음력 정월 보름에 양근 개울 양편의 관문거리 마을과 아랫마을이 줄다리기를 해서 진 편이 나무다리인 양근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줄다리기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양편이 같은 수로 한다. 다리를 놓는 시기는 해동이 된 봄철이다. 소나무를 베어서 술가지를 놓고 흙으로 덮어 만들었다. 1930년도에 마지막으로 줄다리를 하였다고 한다.

2) 강상면 세월리 웃놀이 보름행사

세월리에서의 대보름 행사로 웃놀이가 있다. 얼마 전까지 농악패들이 돌면서 전복리, 대석리 등까지 다니면서 걸립을 다녔다. 그 농악패를 두레패라고 했는데, 당시에 놀던 분들이 노인이 되거나 돌아가시면서 없어졌다.

3) 강하면 항금리 항금마을 동화제

정월대보름날 달맞이 행사의 하나로 '동화제(洞火祭)' 또는 '해동화제' 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흔히 '동화 매기' 또는 '동화 태우기' 라고 부른다. 정월 대보름날 밤 올라오는 달을 맞이하며 마을 가운데 있는 논바닥에서 동화를 태우는데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이다.

항금리에 거주하는 호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작업에 참여하는 원주민은 줄어들어 동화를 세우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하게 되었다. 전원주택 등에 이사온 주민들은 동화를 태우기 위한 경비 마련이나 동화를 매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일부가 동화를 태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만 참석한다고 한다.

동화를 매기 위한 나무는 집집마다 한 짐씩 가져온 잔술가지를 포함한 여러 종의 나무들을 모아 사용했던 것인데, 현재는 날을 정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틀간 함께 나무 베는 작업을 한다. 나무는 지게로 지고 올 수 있게 길이 2m쯤 되는 것을 베어 온다.

동화를 매는 작업은 당일 오후에 한다. 베어온 나무를 새끼줄이나 밧줄과 함께 늘어놓고 "단임 단임 해서 매듯이" 묶어나간다. 그리고 세웠을 때 위로 올라갈 부분에는 '기'를 단다. 기는 반으로 자른 창호지에 축원문을 적은 것이며, 고사를 끝내고 동화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곳이기도 하다. 동화를 묶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시간 가량이다. 예전에 항금리에서 닥종이를 생산하던 시절에는 동화를 백닥(껍질을 벗긴 하얀 닥나무)으로 감쌌다고 한다. 마을에서 닥종이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

나무를 다 묶으면 양쪽에서는 '동화바'를 당기고 뒤에서는 막대기로 받치면서 일으켜 세운다. 완성된 동화는 높이 16m, (누운 상태에서) 횡단면이 가로 4m 50cm, 세로 2m 20cm였다.

고사 전에 제관 1인과 축관 1인을 선정한다. 제물로는 막걸리와 냉수, 그리고 검은콩을 넣은 시루떡을 올린다. 한때 TV 방송출연으로 돼지머리를 함께 올렸으나 원래 하던 식대로 제물에서 제외하였다. 제주(祭酒)는 지금은 구입한 막걸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는 15일이

나 20일 전에 담가 만든 술을 올렸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였는데, 제관이나 축관을 선정하기 전이므로 제관이나 축관과 중복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고사를 전후해서는 풍물을 치며 흥을 돋우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를 맡아오다가 재작년 방숭에 나갈 때는 '강상두레패'의 어린이 풍물패를 불러다 했고, 작년에는 성덕리의 풍물패가 마을의 풍물패와 함께 참가했다고 한다.

고사가 끝나고 동화를 태울 때는 '불을 장대로 올려서' 꼭대기에 달려 있는 기에 붙이며, 따라서 동화불은 위에서 아래로 타면서 내려오게 된다. 불을 붙이고 서너 시간이면 동화가 전부 다 타게 된다.

동화는 떠오르는 달을 보고 넘어가야 좋다고 해서 일부러 동쪽으로 머리를 놓고 찌기 시작한다고 한다. 동쪽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야 동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만일 동화가 동쪽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려 하면 동화를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한 장대로 동화를 동쪽으로 밀어서 쓰러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동화의 꼭대기에 액막이를 꽂는 일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일부러 아들이 없는 사람을 올라가게 한다고 한다.

동화의 꼭대기에 단 액막이 축원문은 다음과 같다.

祝願文

海東 大韓民國 京畿道 楊平郡 江下面 恒今里 各人各姓이 一心協力하여 壬午年 正月 十五日 望月 致誠하나이다. 南北統一 國泰民安 家給人足 雨順風調. 農者は 天下之大本也라. 百穀이 登豐하여 時和年豐하기를 點指하시고 水災는 春雪之消滅하여 萬事亨通하기를 洞民一同이 空手拜養 祝願하나이다. 西紀 二〇〇二年 正月 十五日

洞民一同

동화를 태울 때는 부정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며, 여자들도 참석한 다. 동화태우기에 사용할 쌀이나 나무를 모을 때 가정에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추렴이나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고사가 끝나고 동화에 불을 붙여 꼭대기의 기가 전부 탄 다음에야 집 밖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사에 사용할 시루떡은 주민들로부터 추렴한 쌀로 마련하며, 그 양은 '한 되도 좋고 두 되도 좋고 성의껏' 내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전부 걷으면 한 가마 반 정도의 쌀이 모인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전체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동네 기금을 사용하며, 요즘은 양평군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은 쌀을 내는 경우 한 말씩 내고 있으며, 모자라는 쌀은 구입해서 충당한다.

시루떡은 예전에는 마을에 있는 디딜방아로 찼었는데, 현재는 대보름날 아침에 쌀을 거두어 방앗간으로 가지고 가서 떡을 찼어온다. 예전에 함금리에는 물(레)방아가 2개, 디딜방아

가 10개 가량이 있었다. 물레방아는 개인소유로 아랫땀과 개울깨땀에 하나씩 있었으며, 디딜방아는 보통 그 땀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갓골땀에 3개, 배나무땀에 2개, 윗땀에 2개가 있었으며, 다른 땀에는 하나 정도씩 있었다고 한다. 달떡을 찢는 디딜방아 역시 깨끗한 곳을 찾아서 이용한다.

제물로 사용한 시루떡은 고사가 끝나고 동화에 불이 붙으면 젊은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주는데, 이를 ‘달떡’이라고 한다. 달떡을 나누어줄 때는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서 손으로 달처럼 둥그랗게 문쳐서 나누어준다. 달떡을 먹으면 운수가 대통하고 아들딸을 잘 낳는다고 하여서 서로들 먹으려고 한다.

항금리가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두 동네가 별도로 동화를 매서 태웠다고 한다. 이는 ‘서로 시새워서’ 했던 것으로, 해방이 되고 남북촌의 구별이 없어지면서부터는 남촌에 모여 함께 동화를 태우고 있다.

동화를 태우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나이 수대로 짚을 매어서 태우고 달을 보고 “하느님, 달님, 절 받으세요”하며 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한다.

4) 강하면 항금리 정월 대보름

다음과 같은 세시풍속들이 과거에 행해졌고 일부는 지금도 행해진다.

- 새 쫓기 : 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이 새 쫓는다고 집안 한 바퀴를 돌며 “휘이” 하며 새 쫓는 시늉을 한다.
- 망우리(횃대) 태우기 : 쫓밧대, 수숫대, 쪼 등을 나이 수만큼 마디를 내 묶어 들고 “하느님, 달님, 절 받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한줄로 독에 모여 서서 절하며 태운다. 약 40~50년 전까지 했다고 한다. 주로 어른들이 쫓밧대를 묶어 주었다.
- 대보름 음식(의식주생활 참조) : 보름날 해먹는 나물을 묵나물이라고 하며, 취나물, 고사리, 실가리(시래기), 고비, 호박 등이 있다. 다래순 같은 것은 산에서 따다가 삶은 다음 말려서 불렀다가 무쳐 먹으며, 기름을 넣고 나물을 볶다가 간장으로 간하고 마늘과 깨소금을 넣어 먹기도 한다. 오곡밥은 찹쌀, 수수, 차조, 콩, 팥 등을 섞은 밥이다. 귀밝이술은 집에서 막걸리처럼 담귀 먹는 술로 한다.
- 부스럼(부럼) 깨물기 : 보름날 아침에 호두, 밤을 깨물어 내버린다. 여름에 풀밭에 다닐 때 종기,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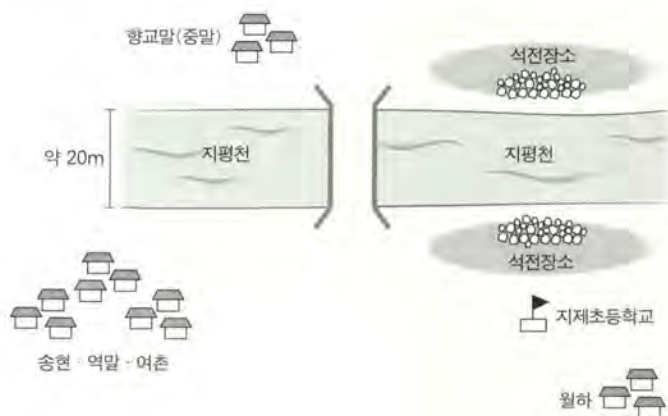
5) 양서면 양수리 정월풍속

정월 설 차례 준비를 위해 작은집은 전날, 즉 선달 그믐에 큰집에 가서 제수를 마련하고 만두를 빚는 등 큰집 일을 돕는다. 차례는 아침 8시경에 지낸다. 세배한 아이들에게 과일이나 다식 같은 것을 주었는데 일제시대 이후 돈을 주기 시작했다.

복조리는 동네 학생들이 팔았다. 복조리는 항상 쌍으로 판다. 설날 아침에 마당에 던져두고 나중에 수금하러 오는데, 이때 반드시 사야 한다. 1년 동안 안방이나 현관에 걸어놓고 해가 바뀌면 사용한다. 지신밟기는 동네사람들이 했는데, 보름에서 그믐까지 한다. 마을에 있는 사람 전부 지신을 밟아주고 방방을 돌아다니며 빌어준다. 이때 막걸리를 대접한다. 고사반에는 돼지머리, 술, 시루떡을 올리고 돼지머리에는 돈을 낸다. 지신밟기를 하여 모은 돈은 모두 동네돈으로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이나 상여를 구입할 때 쓴다.

6) 지제면 지평리 석전

지평리는 과거 지평현 관아가 있던 곳으로 석전(石戰)이 있었다고 한다. 시기는 일제 이전이고 성황제를 전후한 시기인 2월 상순에 했다고 한다. 송현리(松峴里)가 역말이어서 젊은 청년들이 많았으므로 그 쪽이 한패가 되고 지평리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 향교로 나가는 다리 부근에서 지평천을 사이에 두고 석전을 벌였다고 한다.



지제면 지평리 석전도

7) 개군면 상자포리 보름 풍속

다음의 내용들은 현재 70대 노인들이 어린 시절 정월 보름에 했던 놀이에 대한 기억이다.

정월 14일 아침에는 만두국을 먹고 저녁에는 시래기, 취나물 등을 먹는다. 밤에 아이들은 거지처럼 꾸미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보름날 새벽에 어부심(제7장 민속신앙과 의례편 참조)을 하고 아침에 부림도 깨고 귀밝이술을 마신다. 예전에는 막걸리에서 받은 맑은 술인 '약주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그냥 소주를 마신다고 한다. "내 더위 사가라"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찰밥에 김도 싸먹고 나물도 먹는다. 저녁에는 콩과 차좁쌀을 섞은 맵쌀로 밥을

해먹는다.

정월 보름밤 달맞이를 '망우리', '망우려' 라고 하며, "달마중, 망우려, 망우려" 라고 하면서 달맞이를 한다. 이때 주로 아이들 잘 되라고 집집마다 액막이를 한다. 방법은 주로 팔·다리·머리 모양을 낸 허수아비라고 부르는 제웅을 만드는데 잡아매는 매듭을 나이 수대로 한 다음 제웅 안에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적은 쪽지와 돈(엽전)을 넣어서 물에 띄우기도 하고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한다.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는데 '봉까' 라고 하여 깡통에 불을 넣어 돌리면서 "달님 달님, 봉까 봉까", "달님 달님, 절합니다. 올 새년에 잘 되게 해주소"라고 말한다. 깡통 안에 나무를 넣고 철사를 매달아 돌린다.

16일에는 저녁에 새알심을 넣은 팔죽을 먹는데, 일부를 조금씩 벽에다 묻혀서 귀신을 예방한다. 저녁에는 또 화로에 고추씨, 목화, 머리카락, 소금 등을 넣고 불을 붙인다. '얼기미'(가루치는 채), 삼태기, 대바구니를 대문 앞에다 매달아 놓고 신발은 죄 안으로 들여놓는데, 그러면 귀신이 대문 앞에서 그것을 세다가 어느덧 닭이 울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한다. 신발은 달귀 귀신이 신고 가지 못하게 들여놓는 것이다.

혹은 '달귀 귀신날' 이라고 하여 부정풀이를 하는데 팔죽을 쑤어 맑은 물에 갠 다음 마당가에 끼얹었다. 마당과 대문간에는 왕겨, 머리카락, 고추씨 등을 태웠다. 그러면 귀신이 그 냄새가 싫다고 도망간다고 했다.

8) 단월면 산음2리 정월풍속

정월에 특별한 놀이는 없고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아이는 동네 어른들을 모두 찾아가 세배한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떡국을 해서 냄비 그릇에 담아서 갖다 드린다. 세배는 항렬이 높은 분부터 낮은 순으로 세배한다. 특별히 입어야 하는 옷 색깔은 없지만 노랑저고리에 빨간치마를 입었던 기억이 있다.

복조리는 외부의 장사꾼이 와서 팔았다. 요즘은 부녀회에서 단체로 구입하므로 비싸지 않다. 예전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팔러 다니는데, 무조건 달라는 대로 값을 주고 샀다. 복조리를 대청 위(안방문 위가 아님)나 현관 안쪽 위에 걸어놓는데, 쓰던 조리가 망가지면 걸어놓은 복조리를 꺼내 사용하였다. 특별히 버리는 법은 없으나 태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요즘은 일부러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사람은 없고, 또 약하게 만들어서 조리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풍물패가 있어서 정월 보름은 물론 단오, 추석 등 대동으로 놀 때 논다. 지신밟기는 1970년 경까지 정월에 했다. 농악기 1명, 행과리 상수 1명, 부수 1명, 나팔 1명, 장고 1명, 북 1명, 징 1명, 소고를 치는 돌무(상모) 7~8명, 무동(여자 한복 입음) 7~8명으로 구성된다. 악기와 옷은 마을 공동소유로 장만하였다. 마을의 재능 있는 사람이 초청받은 집으로 들어가 고사반을 올리고 집집마다 잘되라고 빌어준다. 지신밟기는 동네 책임을 맡은 집부터 하는데, 주인이 해달

라고 해야 해준다. 대청에서 주로 하는데 풍물패가 지신을 밟는 동안 주인은 성주신에게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낸다. 방식은 시작과 끝에 사배를 한 번씩 한다. 고사반은 보통 쌀을 사발에 담아 올리는데, 법칙은 없고 돼지나 북어 실타래를 올린다. 쌀을 담은 사발에 손가락을 꿸고 실을 걸고 돈(지폐)을 건다. 이때 들어오는 쌀이나 돈 등은 마을 대동의 소유가 된다.

9) 청운면 다대리 척사대회

주민 조○한(72세)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조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씨가 들어왔다고 한다. 정월에 척사대회를 하는데,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1,000원짜리 표를 산다. 상품으로 비료 등을 준다. 시기는 1일에서 보름 사이이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원하면 참가시킨다. 이때에 마을 유지 중에 행사에 보태라고 돈이나 물품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한 마을이 잘 되라고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두레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놀았다.

제2절 초파일과 단오

휘황한 등불을 수없이 밝혀 어두운 밤을 대낮같이 밝게 하고 불꽃을 터뜨려 하늘을 수놓는 축제광경은 초파일 불교행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구경거리다. 등놀이가 널리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로 정월 보름에 행하던 연등회(燃燈會) 전통을 도중에 초파일로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인데, 힘든 농사일을 하고비 넘기고 잠시 쉴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조선에 들어와 등놀이를 국가 행사로 하는 일은 없어졌으나 대신 돈 많은 도시상인들이 이를 계승하여 도시의 행사로 남게 되었다. 등놀이가 근래까지 성황을 이룬 곳은 특히 서울, 개성, 평양, 수원 등의 도읍지인데 시골 구석진 곳에도 이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행해져 내려온다. 이날 하루에 절 세 곳을 찾아 기도하면 극락에 간다고 하여 절구경을 다니는 노인들도 많았다.

등놀이와 더불어 불꽃놀이를 한 지방도 많다. 불꽃놀이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화산대(火山臺)라는 큰 규모의 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즐기기나 딱총으로 하는 놀이다.

초파일을 맞이하여 어머니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 밤새 밝은 불을 켜두는 은은한 정서의 표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등에는 주소와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넣는다. 밤이 되면 등에 불을 밝히고 제등행렬을 한다.

1. 방 생

새벽에 어부심 고사가 있던 날, 즉 정월 대보름날 오후 2시에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사나사 주관으로 남한강가에 위치한 양평읍 갈산공원에서 방생재(放生齋)가 열렸다. 방생은 사람에게 잡힌 살아 있는 물고기와 짐승을 사서 살려보내는 의식으로 살생을 금하는 계율보다 적극적인 선행이다. 이러한 행사는 초파일을 맞아 행하기도 한다.

2. 사월 초파일

2001년 5월 1일은 음력으로 4월 8일 석가탄신일이었다. 저녁 이전에 양평관내 각 절에 신도들이 찾아와 주소와 가족이름을 적은 등을 달고 초파일 예불을 마쳤다. 이들은 제각기 정



등달기.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 절의 초파일 봉축법요식에 앞서 신도들이 주소와 가족 이름을 적은 등을 달고 있다



법당 앞 오른쪽에서 욱불(浴佛) 의식을 하고 있는 신도들



연등 아래에서 기원하는 노보살 함께 할머니



제등행렬. 저녁이 되어 미리 준비한 갖가지 등을 들고 제등행렬에 참여한 불도들

성을 들여 만든 갓가지 등을 들고 양평읍내 양평종합고등학교 교정에 모였는데 그때가 저녁 8시 반경이었다. 이어 한 시간 가량 걸어서, 또는 등으로 장식한 자가용이나 트랙터를 몰고 양평역을 돌아오는 제등행렬이 있었다.

1) 지제면 일신리

동네 차원에서 해마다 양력 4월 초에 한식 때를 전후하여 외지에서 '잘된 분들'을 일신리에 초대해서 약 100~170명 정도가 모여 하룻동안 노는 행사가 있다. 날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하고 한식 때에 맞추는 것은 성묘하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3. 단오 세시놀이

1) 강상면 교평리 단오

교평리에 정자나무가 500년 이상 된 것이 있는데, 단오 때 그 나무에 그네를 매고 놀았다. 느티나무 잎이 파랗게 나왔을 때 입으로 나뭇잎을 따서 내려오고 하는 것을 겨루기도 했다.

그네의 발판을 밀셋개(밀씨개)라고 하는데, 그네는 밀셋개에 줄을 달아서 만든다. 그네를 매면 일 주일 정도를 맨 채로 놓아두는데, 그네는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매고, 다 놓고 쫓 그네는 태워서 버린다. 이곳의 그네가 없어진 것은 일제 때의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였다. 동네 사람들끼리 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번은 순경이 타다가 다치니까 위험하다고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네를 매달던 가지는 썩어서 잘려졌다.

2)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단오

안섬부리에서는 1990년까지 단오 때면 그네를 탔다. 그네를 매달던 나무가 지금도 동네 입구에 있다. 단오 전날 집집마다 짚을 거두어 저녁에 밥을 해먹으면서 그네줄을 동아줄처럼 두겹게 꼬아 만들었다.

3) 단월면 덕수2리 단오

단오 때가 되면 그네, 씨름, 빙고, 윷놀이 등을 했다. 윷놀이는 표를 발행하여 참가자들에게 팔았다. 표값은 1,000~2,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제3절 칠석, 백중, 천렵

음력 7월 7일 칠석날에는 각 가정마다 가족들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칠석치성을 드린다. 또한 칠석날은 칠성신과 관련되어 있어 절에서는 신도들이 칠성각에서 무병과 장수를 비는 치성을 드린다. 음력으로 7월 15일은 백중날(百中日, 百衆日, 百種日)이다. '백중'이라고 한 것은 이 시절에 백 가지의 과일과 채소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촌에서는 두세 벌의 김매기를 마치면 이때가 되어 농민들의 농사력과도 맞는다. 백중날은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이날 승려들은 사원에서 재(齋)를 올리고 불도들은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부처에게 공양을 한다. 민간에서는 밤에 술, 고기, 밥, 떡, 과일 등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부모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지낸다. 도교에서는 1월 15일 상원(上元), 10월 15일 하원(下元)과 함께 7월 15일 중원(中元)의 삼원일(三元日)에는 귀신들이 인간의 죄를 하늘에 알리는 날로 삼는다. 백중장은 백중날을 즈음하여 오일장터에서 열리는 난장으로 각종 놀이와 공연, 씨름 시합 등 볼거리가 벌어지는데, 이는 김매기를 마친 농민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농민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1. 칠월 칠석

2001년 8월 25일은 음력으로 7월 7일 칠석날이다. 양평관내 절 중에서 용문사와 사나사 두 절에서 칠석맞이 행사가 있었다.

용문사 칠석맞이 행사는 오전에 불공, 축원, 법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보살, 즉 할머니들이 많았고 따라온 아이들도 많았다. 한 노보살에 의하면 칠성님에게 아이 낳게 해달라고 빌



본존불을 모신 용문사 본당에서 열린 칠성맞이 불공



삼성각 제단. 칠성신은 아이 낳는 일과 기르는 일을 관장하여 평소에도 부인들이 많이 찾는다

고 아이를 낳으면 또 잘 키워 달라고 빈다고 한다. 용문사에 열심히 다니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여 40년간 다녔다고 했다. 칠석날은 칠성님에게 백설기·미역국·과일을 올린다고 한다.

삼성각(三聖閣)에는 중앙에 칠성님, 좌측에 독성님, 그리고 우측에 산신님을 모셨다. 칠성을 상단으로 모시고 있는 삼성각 제단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광목으로 만든 명다리와 실, 쌀이 올려져 있었다. 아이의 명이 길라고 칠성님에게 바친 것이다. 요즈음은 일상생활에서 실타래를 잘 사용하지 않아 삶지 않은 국수가락을 대신 놓았다. 이 국수가락은 절 행사 때 삶아 공양으로 제공된다.

사나사 삼성각에는 중앙에 산신, 좌측에 칠성, 우측에 독성을 모셨다.

2. 백중 우란분재

2001년 9월 2일 10시 10분경에 용문사 우란분절 법회가 시작되어 오후 1시 소대에서의 회향으로 법회가 끝났다.



영가들을 대표하는 위패



본존불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신도들



축원 의식. 상단 오른쪽에 설치된 영단 벽이 위패로 가득 차 있다



영단 앞에서 조상의 천도를 위해 기원하는 신도들. 백중날은 망혼일로서 민간에서는 조상제사를 겸한다



영단에 조상 위패를 모시고 밥, 떡, 과일 등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부모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지낸다



반야용선. 조상을 천도하여 극락으로 모실 용선(龍船)이 본당 출입문 위에 걸려 있다



본당 바깥에서 향 공양을 하는 신도들



봉송(奉送)의식. 탑돌이를 끝내고 영가 위패와 반야용선 등을 앞세워 소대(燒臺)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소대의식. 영가 위패와 반야용선 등을 태움으로써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회향의식이다

1) 청운면 용두1리 백중날

백중 행사는 보통 7~8월에 날을 잡아서 한다. 특별히 정해진 날은 없다. 전라도 일대에서 7월 15일에 머슴들 옷 해주고 돈 주고 하면서 놀게 하는데 여기서는 음식장사 노점이 벌어지고 씨름 같은 것을 하면서 노는 것이다.

2) 청운면 다대2리 백중날

백중날인 7월 15일에는 마을에서 풍물을 치고(두레는 아님), 거의 매년 개를 잡아먹었다. 백중은 용두리장에서 했는데, 시장에서 '백중한다'고 한다. 거의 일주일을 놀면서 씨름같은 시합도 했다. 정월이나 추석에는 백중처럼 대동으로 노는 것은 없다. 대동회의는 매년 서로 바쁘지 않은 날을 잡아 갖는다.

3) 강하면 성덕리 호미씻이

성덕리에서는 두레패에서 결산하는 날을 '호미씨세'(호미씻이)라고 하였는데, 보통 음력 7월 말에 개최하였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크게 노는 날로, 논매기는 그 전에 끝나지만 다른 급한 농사일을 마무리하면 이때가 행사하기 가장 좋은 때였다고 한다.

3. 백중장

1) 양서면 양수리 양수장의 백중장

양수리 주민들은 백중 전후로 닷새 동안 열리는 양수장 백중놀이에 참가하였다. 화랭이패도 왔는데 언제까지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2) 지평장의 백중장

지평 일대의 주민들은 해방 이후 지평시장 번영회가 생기고 그해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하여 지평장에서 백중장이 섰다고 기억하고 있다. 주된 행사는 씨름대회였다. 양쪽 장날을 끼고 벌어지며 마지막날을 장날로 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1등은 숫소로 중송아지이나 주민들은 큰 황소였다고 말한다. 2, 3등은 광목 1동 정도로 상품이 좋아 상품을 타기 위해 서울에서도 원정 왔을 정도였다고 한다.

행사비용은 상인들이 각출하고 양조장집(이○학)에서 많은 돈을 냈다. 그는 일제 때부터 양조장을 했다. 양조장은 학교 옆에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도 타지 않아 부상병 수용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3) 단월면 단월장의 백중장

단월장에서도 백중장이 있었는데 단월면 전체가 단월 백중장으로 올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백중을 세워서 밤에 영사기로 돌리는 영화도 상영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씨름대회, 농악 등 난장을 벌였다”고 한다. 서커스, 줄타기 등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사는 시장번영회가 주관하여 서울에 가서 예약을 하고 공연할 사람들을 불러왔다. 장이 서던 첫째는 장세도 받지 않았다고 하며 용두장 등 다른 장에 백중행사 광고를 내는 등 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백중장은 백중 무렵에 밤낮없이 5일 동안 열렸다. 이를 ‘백중 선다’고 말하는데 이때가 되면 “백중이 적삼 입은 놈들이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자고 그랬다”고 한다. 농악대, 씨름, 야바위꾼 노름, 심지 뽑기 등을 하므로 온갖 건달들이 다 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씨름꾼이 많이 왔다. 각 마을에서도 농악대들이 나왔다. 이때도 일반장이 섰다. 다른 장에서도 5일 동안 백중장이 열린다. 백중장끼리는 서로 겹치지 않았다.

4) 청운면 용두장의 백중장

용두장에서는 일제시대 때 백중장이 섰다. 백중장을 구경하기 위해 각 면에서 다 몰려올 정도였고 힘쓰는 사람들은 씨름하려고 몰려왔다.

백중장 주관은 시장에서 하며 시장관리인이 진행한다. 백중장이 서게 되면 상인들에게 잔 조금을 견고, 그 돈으로 씨름에서 일등한 사람에게 송아지나 광목 같은 것들을 주었다. 백중장을 하게 되면 다른 장에 광고를 부친다.

음력 7월 중에 7일 이상을 장에 나가 놀았을 정도였다. 그곳에서는 도박과 씨름을 했다. 씨름은 다른 동네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오기도 했다. 각 마을마다 원래 있던 농악패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타지에서 광대들이 줄을 타러도 왔다. 용두리 개울가에서 열렸는데, 백중장이 서로 겹쳐지는 일은 없었다.

홍천에도 백중장이 섰다. 보통 7~8월 한가할 적에 백중장이 섰는데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벌였다. 백중장은 요즘의 시장번영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대의 백중장은 서로 겹치지 않게 한다. 백중 때 벌어지는 씨름이나 노름판은 이장 저장 다 다녔다. 씨름 결승은 백중장 마지막날에 했다. 씨름하기 위해 서울, 각처에서 사람들이 왔다. 여물리에서도 소를 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백중에 벌어지는 노름으로는 ‘졌다’, ‘도리짓고땡’, ‘야바우’, ‘종자웃’, ‘궁굴리기’, ‘숫자판에 침꽃고 돌리는 것’ 등 별 노름이 다 있었다. 이밖에도 윷놀이도 했고, 무대장치를 해서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였고, 마을 대향으로 농악대끼리 경연도 하였다. 농악대는 백중에서 빠지지 않는데 잘 치고 잘 노는 것으로 판가름한다. 서울에서 놀이패도 오고, 국악인 이용관 같은 사람이 오기도 하였다.

한편 백중 때에는 장이 서지는 않았지만 천변에서 대규모로 백중행사들이 행해졌다. 이 때



청운면 다대2리 마을 숲에서 가진 주민들의 천렵 행사



다대2리 천렵 행사. 남녀가 자리를 구분하였다

씨름대회는 물론 줄타기, 활동사진(영화) 상영,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뽕과리패(풍물패) 등이 모여 연주하고 놀았다고 한다.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줄 타는 사람은 서울에서 '사다가(블러서)' 공연하게 하였다. 이렇게 '줄타고 영화돌리던'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던 말은 기억이 나지 않고 '사당패', '남사당'이라 불렀던 것 같다고 한다. 또 씨름대회는 양평, 곡수, 서울, 인천 등지에서 전문 씨름꾼들이 참가하였다. 주로 '경전씨름꾼(서울지역 씨름 전문 선수)'들이 주로 1등을 차지하였다. 여물리에도 2등을 했던 장사가 있기는 했다. 시상은 우승은 황소 1마리, 2등은 광목 한 동을 주었다. 백중장에 모인 많은 인파들은 주막과 같은 형태의 '영업집'에서 백반, 소머리 국밥, 개장국, 빈대떡, 막걸리, 소주 등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4. 천렵

1) 청운면 다대2리 천렵

다대2리 동네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천렵은 초복과 말복 사이에 2~3차례 한다. 천렵하는 날씨는 매년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규정은 따로 없지만 돼지를 내는 사람, 개를 내는 사람, 음료수를 기부하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등이 있어서 이외에 모자라는 금액은 마을기금에서 지불한다.

한○순(72세)은 21살에 횡성 옥계2리에서 청주 한씨집으로 시집왔다. 옥계2리 대산마을은 청주 한씨가 대부분이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기억하기로는 그곳의 노는 날은 어버이날, 초복놀이, 중복놀이, 단오놀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4절 추석, 상달과 세시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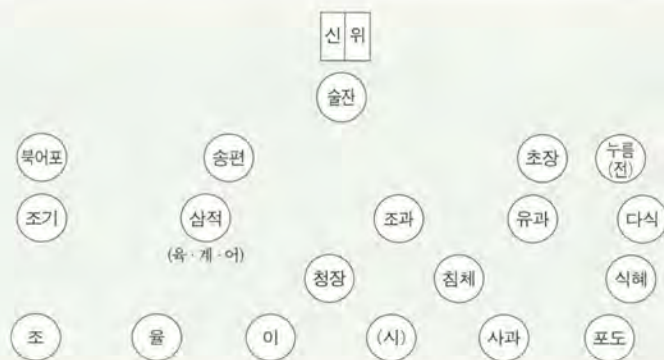
설날·한식·단오·추석의 사명일(四名日)에 행하는 제사를 절사(節祀)라고 한다. 각 집안의 전통에 따라 이날 집에서의 차례와 산소에서 묘사를 모두 행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하나만을 하는 집도 있다. 차례와 묘사를 모두 행하는 집안도 묘사 때 제수를 차리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다.

1. 추석의례

1) 덕수 이씨 추석 차사(茶祀)와 묘사(墓祀)

2001년의 추석은 10월 1일이었다. 이날 과거 지평현 시절 동부지역 사족의 대표적인 덕수 이씨 집안 중에서 양동면 삼산리에 거주하는 이인용 집 추석차례를 조사하였다. 이 집안에서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정월 대보름, 2월 또는 3월의 한식,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중앙절, 11월 동지에 각각 차사(茶祀)를 올렸고 10월에는 시제를 지냈다. 유일하게 제사가 없었던 12월은 '썩은 달'이라고 하였다. 차사의 제수로는 대보름의 약밥, 한식의 생마, 단오의 수리치떡, 유두의 보리감주, 칠석의 병림, 추석의 송편, 중앙절의 무시루떡, 동지의 팔죽 등으로 구별된다.

차사를 지낸 뒤에는 빈손으로 묘소를 찾아 절을 올리는 형식으로 성묘를 마치며, 고조 이상의 경우라 할지라도 가는 길이면 들러서 절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 한식과 추석은 예외여서 위답을 경작하는 묘지기가 마련한 제수로 묘소에서 묘사를 지냈는데, 더 이상 묘지기를 두지 못하면서 현재는 증조부모의 묘사만 이전 방식대로 제물을 차려 지내고 있다.



이번 추석 차사에 차린 제물은 다음과 같다.

기제나 시제 모두 제물은 신위 앞으로 잔-메-적-나물-과일의 순서로 진설한다. 삼적은 육적, 계적, 어적순으로 밑에서부터 포개어 적대 하나에 올린다. 과일은 조율이시 순서를 따르는데, 이번에는 사과와 포도를 올리고 건시를 생략했다. 밤은 껍질을 모두 벗기고 사과는 위와 아래만 치며, 배는 위에 얹는 것만 껍질을 벗기고 나머지는 위와 아래만 친다.



송편을 찰 때 사용할 솔가지



참깨나 불린 콩으로 만든 소(餡)를 떡 안에 넣고 떡과 떡 사이에 솔잎을 겹겹이 끼를 지어 넣어 시루에 찌서 꼭 익으면 꺼내어 물로 씻은 다음 참기름을 바른다



조부모 신위(「顯祖考學生府君神位」, 「顯祖妣孺人恩津宋氏神位」)



진설. 추석차례의 특징인 송편을 메 자리에 올린다. 삼적(三炙)은 육적, 계적, 어적순으로 적대 하나에 쌓아놓는다



일동 재배. 제사를 시작하는 참신례와 마지막 사신례 때 참사자 전원이 재배한다



묘제 참신례. 7대 종손의 증조부모에 대한 추석 절사가 시작되었다



현작. 원래 한식과 추석에는 위담을 경작하는 묘지기(墓直)가 마련한 제수로 이와 같이 묘소에 가서 묘제를 올렸는데, 경작인이 모두 없어져 현재는 제수 마련이 가능한 증조부묘 묘제만 지내고 있다



묘제가 끝나고 분묘 동북쪽에 마련된 산신단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2) 단월면 산음2리의 차례상과 칠월칠석

- 차례상 : 햅쌀로 지은 밥, 햅쌀로 빻은 송편, 탕국(무, 들기름, 북어를 넣는데 요즘은 소고기를 많이 쓰기도 함), 전으로는 부치기와, 고기와 야채를 넣고 조그맣게 부친 전을 올리며, 메밀전병(메밀전병 부친 것에 볶은 고기를 넣는데, 요즘은 메밀이 별로 없어서 밀가루를 주로 씀), 적으로는 북어(양념해서 익힌 후 통으로 꼬챙이를 꿏는다), 닭(익힌 후 고명 없어서 통째로 올린다), 돼지고기(두세 근 정도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통째로 삶은 후 고명 없어서 올림)을 올린다. 햇과일로는 대추, 밤, 감, 사과, 배를 올린다. 나물은 삼색나물을 올리는데, 하얀색으로는 무나 숙주나물을, 고비(고사리와 다름. 자기네는 이상하게 고사리는 올리지 않는다고 함), 파란 채소로 시금치 같은 것을 올린다. 이밖에 옥춘(빨간 사탕이라고 함), 다식(콩을 갈아서 꿀로 빻아서 판에 누른 것), 과질(참쌀을 찌서 방망이로 찼어 으갠 다음 솔잎을 깔고 며칠 동안 숙성시킴. 이것을 다시 햇볕에 말린 후 기름에 튀겨 잘 일어나면 튀긴 쌀이나 조를 조청을 발라 그 위에 입힘. 완성하는 데 보름 정도 걸림)을 올린다.
- 칠월칠석 : 10여 년 전까지는 밀부치기(밀전)를 해서 먹었다. 김치나 배추 절인 것에 밀가루를 묻혀서 부친 것으로 배추전 같은 것이라고 한다.

2. 시월 상달고사

1) 텃고사

일 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상달 중에 터주를 갈면서 지내는 고사다. 새 터주를 세우면 이전 터주는 강에 떠내려보냈는데, 요즘에는 집 앞 텃밭에서 태워버린다. 텃고사 약 한달 전에 미리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말을 정해 놓는다. 원래는 말날[戊午日]에 하는 것이 '굿한 맞잡이'(돈을 내어 신이 굿을 해주는 날처럼 좋은 날이라는 뜻)라서 좋은데, 이번 10월에는 말날이 없어서 그냥 마음에 드는 날로 정한 것이다.

터주 가는 날에는 원새끼로 끈 금줄을 대문 앞에 쳐놓는다. 1970년경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았던 집에서는 터주 옆에 술가지를 쌓고 해마다 위에 덮어서 불룩하게 만든 '엿가리'도 함께 놓았다고 한다.

제물은 떡시루 3개, 쌀막걸리, 초, 정화수, 북어를 준비한다. 떡은 멥쌀 5뿔박, 찹쌀 5뿔박으로 팔시루떡을 만드는데, 모두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사용한다. 이번에는 멥쌀로 한 시루, 찹쌀로 한 시루, 그리고 멥쌀에 콩을 넣어서 한 시루를 방앗간에 주문하였다. 무오일에 고사를 지낼 때는 무시루떡을 준비한다.

고사 지내는 시간은 떡을 집에서 찌면 저녁이 되어야 다 찌지기 때문에 원래는 저녁에 지내왔던 것인데, 요즘은 낮 3시 무렵에 지낸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안당에 시루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가 이 시루를 성주에 옮겨놓고 고사 지낸 후 다시 걸립에 옮겨놓고 고사를 지낸다.

①-1. 안당고사(제석고사) : 시루를 놓고 떡 위 왼쪽에 정화수, 오른쪽에 막걸리를 부은 사발을 올려두고, 북어를 뒤쪽에 꿸고, 초에 불을 켜서 정화수와 막걸리 사발 사이에 고정시킨다. "오늘이 시월 상달 스무닷새입니다. 김씨 가족네 시루고사 지냅니다. 그저 도와주고 받들어주십시오. 덕을 주셔서 다 잘 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빌면서 합장하고 네 번 절을 한다.

①-2. 성주고사 : 안당고사에 썼던 정화수와 막걸리는 새로 갈고, 시루와 초는 그대로 사용하며 안당고사와 마찬가지로 빈다. "김씨 가족에 입은 덕도 많으나,……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주시옵소서……."

①-3. 걸립고사(문전고사) : 문 옆 구석에서 지낸다. 모퉁이 위쪽에 검은 비닐봉지와 북조리가 걸려 있었다. 아래쪽에 떡시루를 옮겨와서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 고사를 지낸다. 그런 후 떡을 조금 떼어서 북조리 한쪽에 담고, 북조리 다른 한쪽에는 북어 대가리를 담는다. 그후 이것을 위의 검은 봉지를 열어 담는다. 검은 봉지에는 예전에 담았던 북어와 떡이 계속 쌓이게 된다. 검은 봉지와 북조리를 다시 걸어놓는다.

② 터주에 다른 시루를 하나 놓고 고사를 지낸다.

- 터주고사 : 초와 북어는 올리지 않고, 정화수와 막걸리를 시루 위에 담아서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 정화수와 막걸리는 터주 위에 붓고, 떡을 조금 떼어내서 터주 위에 올려 놓는다.

③ 강에 나아가 나머지 시루를 놓고 용왕에게 고사를 지낸다.

- 용왕고사 : 강가에 시루, 막걸리, 북어, 초를 들고 가서 마찬가지로 고사상을 준비하고 고사를 지낸다. 이때 정화수는 강물을 사용한다. “사해용왕님께 비읍니다. 사해용왕님께 비읍니다. 김씨네 가족 입은 덕도 많으나 새 덕 주십시오…….”하고 동해, 남해, 서해, 북해 용왕님께 각 방향을 바라보며 4번씩 절하면서 기원한다. 이렇게 한바퀴 돌며 기원한 후 다시 강쪽을 바라보고 “사해용왕님께 비읍니다…….”라고 다시 기원한다. 그리고 나서 막걸리와 정화수를 강에 부으면서, “굽어살피소서, 사해용왕 굽어살피소서…….” 하면서 강가와 북쪽방향으로 떡을 떼어서 던지고 북어는 통째로 강에 던진다. 초는 강가에 꽂아둔다.

④ 고사를 다 지내고 나서는 시루에 있는 떡을 접시에 담아서 안방 제석 위, 건넌방 바닥, 부엌 가스레인지 위, 장독 위, 대문 앞에 각각 막걸리와 함께 쟁반에 담아서 올리고, 이어 기름보일러실 안에, 화장실 안에 놓는다. 순서대로 다 올려두면 다시 이를 ‘주어온다’.

안방에 있는 제석은 원래 새우젓독으로 시할머니때부터 모셔온 것인데, 새로 수확한 쌀을 제일 먼저 이곳에 담는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오면서 다른 곳에 두었는데, 박수가 잘못 놓은 것이라고 해서 현재 안방 위치에 옮겨두었다.



터줏가리 제작. 상달고사 중 텃고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상달 중에 터주를 갈면서 지내는 고사다(개군면 상자포리)



묵은 터주. 새 터주를 세우면 이전 터주는 강에 떠내려보냈는데, 요즘에는 집 앞 텃밭에서 태워버린다(개군면 상자포리)



터줏가리 태우는 장면(개군면 상자포리)



새로 만든 터주 앞에서의 고사. 팔시루 위에 막걸리와 정화수를 놓았다(개군면 상자포리)



안당고사(제석고사). 시루를 놓고 떡 위 왼쪽에 정화수, 오른쪽에 막걸리를 부은 사발을 올려둔다(개군면 상자포리)



성주고사. 정화수와 막걸리는 새로 갈고, 시루와 초는 그대로 사용한다(개군면 상자포리)



걸립고사(문전고사). 문옆 구석에서 지낸다(개군면 상자포리)



모퉁이 위쪽에 검은 비닐봉지와 복조리가 걸려있다(개군면 상자포리)



고사를 다 지내고 나서는 시루에 있는 떡을 접시에 담아서 광에 놓는다(개군면 상자포리)



마찬가지로 제석항아리 짚방석 위에 놓는다(개군면 상자포리)



장독으로 간다(개군면 상자포리)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다 놓는다. 순서대로 다 올려두면 다시 이를 '주워온다' (개군면 상자포리)



용왕고사. 강에 나가 나머지 시루를 놓고 용왕에게 고사를 지낸다(개군면 상자포리)



강가에 고사상을 준비하고 고사를 지낸다. 이때 정화수는 강물을 사용한다(개군면 상자포리)

2) 단월면 산음2리

- 10월 고사떡 : 대청 마루와 부엌 같은 데 올리는데, 백설기 등 네 가지 떡을 올렸다.
- 김장 : 요즘은 신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서 동지 지나서 김장한다. 품앗이로 하는데, 5~6명 정도가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며 김장한다. 재료는 대부분 각자 농사지은 것으로 하고, 젓갈 등은 공동구입한다.

제5절 놀이관련 집단

1. 강상면 교평리 강상두레패 및 남사당패

1950년대 중반에 남운영이 강상면 교평리에 정착하였다. 남운영은 남사당패의 '뜯쇠', 즉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꼭두쇠 바로 밑에 있는, 선임 연희자 출신이었다. 자유당 시절에는 서울에 몰려가 생일축하연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남운영은 서울 국악예고 교사로 가고 부인 박계순이 민속촌에서 아들과 함께 남사당패 활동을 이어나갔다.

남운영은 남사당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그가 작고한 후 부인 박계순이 남사당패 보존회장을 맡고 있다. 양평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일단 맥이 끊겼다. 따라서 강상면 교평리가 남사당패의 마지막 정착지가 된 셈이다. 당시 민속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광복렬(63세)이 그중의 한 사람이다. 현재 사물놀이패를 이끄는 김덕수는 1972~1973년경까지 이곳에서 활동했다. 충남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이곳에서 2~3년간 생활하면서 남사당패에 가담하였으나 이후 외지로 나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곳 남사당패는 맥이 끊어진 상태로 오다가 1996년에 이규태, 안호근, 유진목, 정성철 등의 주도로 강상두레패가 부활되었다. 김덕수의 제자인 홍윤기(30대 초반)를 만나서 학습한 학생 4명, 어른 4명이 1997년에 강상두레패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40명, 어른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패는 셋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학생 이상의 팀으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한 '한소리', 초등학교 팀으로 작년에 교육감상과 조직위상을 받기도 한 '소리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초급반인 '산소리'가 그것이다.

강상두레패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는 백운봉 해맞이굿과 강상면소재지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할 때다. 매년 6월 27일은 강상두레패 창립기념일이라 면민회관에서 해마다 공연행사를 하고, 11월 중순에 정기발표회를 한다. 양평에서 세계사물놀이대회를 할 때 매년 참가하고, 양평 대명콘도에서 봄에 유채꽃 축제를 할 때(4월말~5월초)와 가을에 국화축제를 할 때(9월~10월)도 공연을 한다. 그밖에도 양평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나가서 공연을 한다.

남사당패가 교평리에 정착하기 전부터 교평리에는 두레패 활동이 활발하였다. 남사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풍물로만 하던 것이 남사당이 들어오면서 풍물 이외에 무동태우기, 버나돌리기, 꼭두각시 인형극 등 여러 가지 공연을 하게 되었다. 1964년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남사당패 악기구성은 '앉은반'과 '판굿'이 각기 달라, 앉은반은 4가지 악기로 하고 판굿은 여기에 소고가 7~8명에 상모도 돌리므로 대개 25~30명으로 구성된다.

남사당패는 30~35명 규모로 몰려다녔다. 해방 전에는 따로 본거지가 없었으나 자유당 시절에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었다.

이른봄에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을 향해 내려가서 강원도로 올라와 다시 서울에 되돌아오면 이듬해 7~8월이 된다. 순회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수원에서 진을 치고 보름 정도 머무르다가 오산으로, 다음에는 평택으로 주로 큰 동네를 찾아 갈 지(之)자로 움직이면서 전라도를 거치기도 하고 그냥 부산까지 가기도 한다. 다시 포항 쪽으로 올라와서 갈 지자로 움직이면서 강원도로 올라온다. 비오는 날 외에는 사시사철 쉬지 않고 공연한다.

양평처럼 서울과 가까운 곳은 이러한 순회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간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불러다닌 것은 해방 후의 일로 교통과 통신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해방 전에는 북쪽지방도 다녔다고 한다.

전국순회 때도 경로를 조금씩 바꾸는데 대체로 큰 마을을 골라 다닌다. 하룻밤을 묵으려면 보통 한 집에 두세 사람씩 흠어져서 잠을 자기 때문에 50호가 넘는 마을이어야 한다. 밥도 2~3명씩 나뉘어 여러 집에서 얻어먹었다. 단원 전체를 먹이고 재우는 부잣집도 있었다. 이들이 마을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경우에 깃대를 거꾸로 들고 성황당을 한 바퀴 돌고 나가면 "마을이 염병을 앓는다"고 하여 함부로 홀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마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오일장처럼 사람들로 북적대는 장터는 공연하기 좋은 장소이지만 백중장이나 난장은 특별한 날이나 계기가 있을 때에만 흥행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돈이 많이 나오므로, 장이 크게 열린다고 하면 '기름친다'고 하여 미리 기다렸다가 찾아간다고 한다.

마을을 찾아가 공연할 경우 무작정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연을 할 만한 마을을 골라 입구 서낭당이나 서낭나무 앞에서 북을 쳐서 신호를 보낸 다음 '식화주'(공연교섭

을 담당하는 남사당 단원)는 마을 이장 등 책임자에게 굽실거리고 간사하게 굴어 공연허락을 얻어낸다. 허락이 떨어지면 같이 들어간 전령이 소고(小鼓)로 “따당 따당-”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먼저 마을 유지 마당에서 한바탕 놀아 신명을 보여주면 이집 저집에서 마당을 밟아달라고 한다.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한바탕 크게 공연을 열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줄타기와 버나돌리기는 기본이고 마을사람들의 요청이 있으면 박첨지놀이 같은 꼭두각시공연도 하였다.

공연 보수로 받은 쌀은 마부를 붙인 마차로 본부의 영좌(領座)에게 보낸다. 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쌀을 보낼 수 없을 때는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으로 마련하는데, 시장 장사꾼들은 고사쌀이 재수가 있다고 하여 잘 사갔다고 한다.

단원 중에는 ‘모개비[某甲]’와 짐꾼이 있는데 길 안내와 짐 나르는 일만 한다. 모개비는 무리를 앞장서서 가는데 갈림길이 나오면 갈 곳과 가지 말 곳을 구별하여 갈 곳은 열 십(十)자로, 가지 말 곳은 석 삼(三)자로 길 중앙에 표시한다. 짐꾼은 깃대 들고 쌀을 짊어지되 한 짐거리만 들고 다녔다. 박첨지 놀이도구는 짐꾼이 미리 공연할 곳에 갖다 놓는다. 연주악기는 주로 사서 쓰지만 파는 악기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사면 여러 차례 다시 고쳐서 사용했다.

여자는 모두 세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줄을 땀고, 다른 두 명은 징을 쳤다. 밥을 직접 해먹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해먹게 되면 이들이 밥을 했다. 어린아이들은 비가 와서 공연을 못하는 날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역할을 한다. 양동이 하나에 밥을 담고 다른 양동이에는 국이나 반찬을 담는다. 큰애들을 보내면 음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작은애들이 음식을 얻고 큰애들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준다.

설날 같은 명절 때도 차례를 지내지 않았고, 장가도 못 들고 혼자 죽은 노인들도 있었다. 장례 때 이들은 상여를 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묘자리와 분묘도 갖추지 못했다. 사당패가 죽으면 으레 시신을 거적에 덮고 간단히 장례를 치른 후 길가에 묻는 것이 관습이었다. 남사당패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잘 받지 않았다. 부모가 있더라도 허락받지 못하고 단원을 따라 몰래 집을 나온 아이들이다. 그래서 남사당이 부르는 노래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찾거든 남사당패 쫓아간 줄 알라”는 노래도 있다.

공연 수입으로 남는 것이 있어도 해방 전까지는 나누지 않고 공동의 돈으로 차고 다녔는데, 해방 후부터는 처자식이 있는 단원에게는 개인 몫으로 일부를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분배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전국순회공연은 회사나 위커힐 같은 호텔의 공연요청이 많아지면서 차츰 횡수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 부근에 집을 마련하고 공연이 있을 때만 서울로 올라오는 단원들도 생겨났다. 남운영이 교평리로 들어온 것도 이 시점이다.

제7장 민속신앙과 의례*

제1절 집안신앙

뱃고사 또는 배결이는 강이나 나루와 관련하여 행해지던 강안마을의 민속이다. 뱃사공이 아니더라도 배를 가진 집에서는 이른 봄과 음력 10월 상달고사 등 일 년에 두 번 정도 뱃고사를 지내거나 만신을 불러 뱃굿을 했다. 반면 산간지방에서는 산치성을 지내고 나서 집고사를 지내는 집안들이 있었다. 대부분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지만 정월이나 2월에 집고사를 지내는 집도 많았다.

1. 지역별 사례

1) 양서면 대심2리 뱃고사와 배결이

해토가 시작되는 음력 정월 보름경에 얼었던 강물이 녹을 때 띄 조금과 술로 뱃고사나 배결이를 한다. 돼지머리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집은 안 하는 등 집안마다 다르다. 그 해에 처음 배를 띄우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룻배를 운영하는 뱃사공도 배결이나 뱃고사를 한다. 나룻배를 운영하던 뱃사공 최○현(61세)에 의하면 매년 음력 2월 중순경이면 뱃고사를 지냈는데, 제물로는 돼지머리, 북어, 시루팔떡, 막걸리 등을 놓았으며 과일과 밥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배 앞에 음식을 차려

* 제7장은 정승모·유영희 집필임.

놓고 막걸리를 붓고, 절을 하고, '뱃삼'을 세 번 치고 그 위에 떡시루를 올려놓는 것으로 고사는 끝난다. 무당을 부른 적은 없었다. 배를 새로 만들고 나서 하는 진수식 고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여름에는 장마가 저서 송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배는 주로 봄에 짓는다.

2) 양서면 신원1리 샘골

가을고사는 햅쌀이 나면 음력 9월이나 10월에 집에서 마을 뒤편 부용산을 향해 절을 하면서 가구 단위로 고사를 올렸다.

3) 양서면 부용리

부용리 한 가정에서는 음력 10월 2일에 산치성이 끝나고 그날(10월 2일)이나 다음날 각각 집에서 고사를 지낸다. 햅쌀을 찧어 놓은 집에서는 산치성을 지내기 위해 조심해왔기 때문에 다음날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사를 지낼 수 있다.

고사 지낼 때 떡은 지석(제석, 안방), 성주(마래, 마루), 터주(장광)에 올리고, 대문간, 우물, 화장실에도 놓는데, 화장실에는 일을 보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놓는다. 안방과 마루에는 팔시루떡을 해서 시루째 놓고 술도 놓는다. 터줏가리 안에는 향아리를 놓고 그 안에다 옛날에는 벼(곡식)를 넣었는데, 지금은 돈(동전)을 넣는다. 음식을 새로 사오면 익히거나 조리하기 전에 날 것 상태로 군용을 모시는 장광에 놓고 고한 다음에 먹었다.

음력 3월에는 모자리(못자리) 고사를 지내는데, 봄에 벼 못자리를 만들고 집집마다 팔시루떡을 해서 가을고사를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 늘 놓는 자리에 제물을 놓고 지낸다.

4) 지제면 일신리 김씨 할머니네 집

일신리 김씨 할머니는 구둔에 있는 만신(보살)을 일 년에 정월 초사흘, 4월 초파일, 칠월 칠석, 10월 상달 등 4차례 방문하였다고 한다. 한 번 찾아갈 때 비용은 2~3만 원(쌀 한말) 정도 든다. 따로 만신이 쌀을 거두러 다니지는 않았다. 구둔에 있는 만신은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도 있다. 신병이 나서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자식들 오남매가 다 외지로 나갔다. 지난 10월 상달고사 때는 안방, 옷방, 마루, 우물, 대문간에 팔떡과 콩떡(동부)을 두었다. 가을에는 주로 팔떡을 하고, 콩이 날 때는 콩떡을 만든다. 안방과 마루는 시루째 올리며 나머지는 떡을 썰어서 조금씩 둔다. 대문간에 떡을 놓는 것은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이며, 방에 두는 것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3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꼴로 성주를 받으러 갔다. 이때는 떡만 준비한다. 성주 받을 때는 쌀 한 가마 정도의 비용(약 20만 원)이 든다. 성주 외에, 방과 마루에도 쌀을 놓아두어야 하며, 자리는 복사 나무나 솔가지 등을 꺾어 그것으로 잡는다. 성주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손대지 않는다. 구둔에 보건소가 있지만 멀어서 잘 가지 않는다.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입구의 엄나무



잡귀가 가시에 찔려 들어오지 말라고 걸어놓은 엄나무

5)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엄나무

김이선 집 입구의 엄나무는 김이선이 직접 산에서 구해온 것이다. 상하거나 떨어지면 새것을 구하여 다시 다는데 이것은 남자들의 역할이다. 김이선이 엄나무를 대문에 건 이유는 이전에 꿈자리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잡귀가 가시에 찔려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6) 개군면 상자포리 김연희 할머니 집 집안신앙

- **뱃굿** : 배를 가진 집에서는 이른 봄과 음력 10월 상달고사 등 일 년에 두 번 정도 뱃굿을 했다. 만신을 불러 배에 떡시루, 삼색과일, 술을 차려놓고 징치기, 굿치기를 한다. 절의 보살이 와서 해주기도 한다. 배 안에서 어부심을 할 때는 고사떡을 배 가운데 놓고 지낸다.
- **민간의료** : 할머니의 시할머니가 81살에 돌아가셨는데 보고 배운 것이 많다. 한번은 속병이 나니까 종지에 솜을 넣어 뜨겁게 하였다. 솜에 불을 놓으면 속병이 가라앉는 데 좋다고 하였다. 성주는 집은 창호지 안에 쌀과 참깨를 넣고 막걸리를 조금 묻힌 다음 바깥 바람벽에 붙여놓는다. 한의원은 이포의 천설 서리고개 넘으면 있다. 쌀장사를 하던 어떤 사람은 상청에 놓아두었던 떡을 잘못 먹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대성사 스님이 와서 '상문'이 붙었다고 말하고 풀이를 했다. 최보살은 '낙선님'이라고도 하는데 모시는 돌부처가 미륵님, 낙선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꿈에 돌부처가 나와서 깨웠다고 한다. 최보살은 미륵신을 최고로 친다.

7) 단월면 산음1리 고북마을 가을고사

음력 10월 초사흘날이나 초이렛날, 또는 말일에 팔시루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는데 귀찮으면 밥만 해서 올린다. 안방에는 지석(제석)을 모시고, 마루에 성주, 부엌에는 조왕, 장독대에

는 터주를 모신다. 이외에 우물(수돗가), 외양간(소구영, 구유), 문간(대문)에다 고사를 지낸다. 모시는 신체는 따로 없다.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터고사'를 지냈다. 당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움을 받아 고사를 주재하였다. 팔시루떡을 해서 고사가 끝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집들이를 겸한 것이다. 약 7년 전에 집을 개량하면서 성주는 마루의 상기둥(상량)에 창호지를 네모로 접고 안에 쌀을 넣어 모셨다. 성주를 받을 때는 보살님을 모셔 크게 지낸다.

제물은 지식에게 성주에는 팔시루떡을 시루째 놓고 시루 위에 정화수와 막걸리 각 한 사발씩 올리며 나머지는 떡을 잘라 조각을 놓는다. 예전에는 쌀을 3말 정도 해서 마을 사람들 30호가 다 나누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1말 정도만 한다. 방앗간에서 시루째 찌준다.

8) 청운면 여물리 집안고사

이 마을에는 정월이나 2월에 고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 자기 나름대로 성주를 모시는 고사를 지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살님이나 스님이 와서 해주는 집도 있다. 명절차례 중에 한식차례를 지내는 집은 별로 없다.

제2절 마을신앙

양평의 마을신앙은 산제, 또는 산신제가 대중을 이룬다. 엄밀하게 산제와 산신제는 다르지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신제나 산제 모두 과거의 호환(虎患)과 관련된 듯하다. 산간지역일수록 호환에 대비하거나 호랑이를 달래서 화를 면하려는 의도가 더 남아 있다. 장승신앙도 더러 나타난다. 솟대 또는 집대와 관련된 신앙은 간혹 보일 뿐이다.

성황제 또는 서낭제가 주로 많이 남아있는 곳은 동북지역이다. 지평리 성황제의 경우는 조선 말기까지 읍치 단위에서 행해졌던 것 같다. 그밖의 성황제도 지역범위가 넓었던 것 같으나 이제는 대부분 마을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강하면 성덕리의 고창굿이나 용문면 덕촌리의 구천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마을제사다. 도당굿은 김포, 시흥, 강화 등지에서 행해진 굿인 반면 고(곳)창굿은 광주, 여주, 이천 등지에서 행해지던 굿의 이름인데, 그 차이는 무엇이고 왜 지역적으로 갈라지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 못 얻고 있다. 고(곳)창굿은 1970년대 전반까지 행해졌다. 광주, 용인, 서울



지제면 무왕리 초왕굴마을 입구 돌장승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과 다른 입구를 지키는 초왕굴 돌장승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에서도 남녀 20여 명의 화랭이패가 모여 한해걸이로 하는 놀이였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

양평의 유명한 만신들은 고창굿 또는 도당굿과 관련하여 활동하던 무당들이다.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 동부지역이나 망우리, 양주 등지에서 벌인 곳에도 참가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다. 서울 무당들이 그렇듯이 경쟁력을 갖춘 무당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내력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 조병호의 고창굿

다음은 용문산 약수사를 운영하는 조병호 법사와 2002년 3월에 한 면담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병호는 구리시 별말 교문리 등에서 큰굿을 십여 년 해왔는데 1972년에 큰 홍수가 난 이후 중단하였다. 갈매동에서 하는 곳은 도당굿이고, 강하면 성덕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큰 벼슬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고창굿이라고 한다. 고려시대부터 인가 만든 철로 만든 용마가 국수당에 있고, 작은마누라당과 큰마누라당이 있다. 국수당부터 각 당을 도는 것을 유가라고 하는데 유가를 돌기 전에 동네 양반들이 먼저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화랭이패들이 수원에서도 와서 7일이나 계속 놀았다. 또 예전에 성덕리 마을 단골로 정씨 할머니라고 있었다. 국수당이 있던 데는 원래 막을 쳐놓았는데 지금은 부서져서

없다. 현재 저수지가 있는 자리에서 놀았다.

도당굿과 고창굿의 차이를 말하자면, 도당굿은 호랑이가 내려와서 산신을 해치기 때문에 동네를 잘 보살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고창굿은 벼슬한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 있어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마디로 '나라굿'을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큰 전투가 나서 그곳을 지켜주시는 사람을 모시는 게 한마디로 고창굿으로 역사도 깊다. 그래서 고창굿의 '고'는 예전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고(古)'자를 쓴다. 지금은 다 죽어서 없지만 인천에서 고창굿을 했었고 이북 무당들이 배굿을 함께 했었다. 도당굿은 봉화산을 모시는 제주도 만신과 성이 최가인 만신 등과 수느피, 갈마울, 양주읍내, 태릉, 여신령님 불상 할머니를 모시던 망우리, 홍릉도당, 청량리 떡전거리 등에서 했다. 특히 태릉은 먹골고개를 넘으면 도적떼가 많아서 도당굿을 해온 곳이다.

지금 성덕리에서 다시 크게 굿판을 벌이게 된 건 한 3년 전에 거기서 버스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굿을 하는 곳에 사는 동네 만신도 끼워준다. 예전에는 앙덕에 은행나무굿, 양평에 갈산도당굿도 있었다.

조병호가 서울 청량리로 나가 있는 동안 그가 굿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구리시 별말과 교문리에서 그에게 처음으로 도당굿을 맡겼다. 그때가 서른 살 총각 때이므로 1962년경이다. 원래 교문리에는 단골로 이쁜이무당과 가재울 장씨무당이 있었는데 조병호를 시켰다. 거기에서 이틀 동안 굿을 했는데, 하○백(갈매동 짝이), 농○이 엄마, 광수 큰엄마 등이 왔다. 교문리 굿은 주로 9월 초사흘날 하는데, 날을 받아놓고 초상이 나면 초상도 못 치르기 때문에 이렇게 9월이 되자마자 날을 잡는다. 집집마다 돌면 돈이 한 가마가 걸렸다. 날짜를 잡을 때, 음식을 준비할 상화주와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중화주 집을 뽑는다. 무당은 도가집에서 머물고 유가를 돌면 쌀이 몇 가마가 걸히는데 한 가마니는 화주들 고생했다고 주고, 나머지만 들고 나오기도 한다. 교문리 도당굿은 31살에 시작해서 40살까지 딱 10년 했는데, 1972년 큰 홍수로 인해 이후 도당굿이 중단되었다.

2. 강하면 성덕리 고창굿

강하면 성덕리는 4개 리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에 고창굿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 먼저 고창굿의 중심이 되는 국수당은 대곡(성덕3리)에, 도당 할아버지는 덕촌(성덕4리)에, 도당 할머니는 성촌(성덕1리)에, 삼선당(첩당)은 덕촌(성덕4리)에, 장승은 아주(성덕2리)에 있다. 국수당은 돌로 쌓은 위에 짚을 씌운 형태이며, 할아버지당은 높이 7.5m, 둘레 1.5m의 도나무(고유번호 5-129)로 지정된 말채나무로 수령은 약 500년이다. 할머니당은 원래의 할머니당 나무가 약 50년 전 고사하자 주민들이 밤나무를 캐다 심었는데, 그 옆에서 느티나무가 자라

자 밤나무는 심은 지 5년 정도 지나 베어 버리고 새롭게 당으로 모신 것이다. 칩당은 원래 밤나무였는데 역시 50여 년 전 죽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나무를 새로 심어서 칩당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들 당의 관계에 대해 주민들은 국수당이 제일 웃당이며, 도당 할아버지는 국수당의 아들격이고, 도당 할머니는 국수당의 며느리격이 된다고 하였다. 고창곳은 일종의 산제사이며, 원래는 한날 한시에 각 마을에서 국수당,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에 대한 제사를 동시에 지내던 것인데 어느 때부터가 세 당을 돌아가면서 제를 올리게 되면서 가장 밑에 있는 할머니당부터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할아버지당, 국수당 순으로 옮겨갔다. 칩당은 다른 당처럼 제사를 독자적으로 지내지는 않고, 세 당의 제사를 마친 후에 '대를 모시고'(대내림을 하고) 술한잔 부어놓는 곳이었다. 세 당에서 별도로 산제를



강하면 섬덕리 입구의 '천하대장군' (왼쪽)과 '지하어장군' (오른쪽)

올릴 때에는 각기 화주가 별도로 있었고 소지도 각각 올렸지만, 제물은 할머니당을 모시는 화주가 모두 만들어서 이를 나누어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국수당에서 산제사를 지낼 때는 쇠로 된 동물들을 넣어 둔 곳의 돌을 떼어내고 그 앞에다 늘어놓은 후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현재 국수당의 돌로 쌓은 곳에 앞쪽으로 나와 있는 철마등은 부러지거나 상한 것을 바깥쪽으로 꺼내놓은 것으로, 온전한 것은 모두 안쪽 깊숙한 곳에 들어 있다.

고창곳은 격년으로 지낸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3년에 한 번 지낸다'고 말한다. 음력 정월 그믐날 동네분들이 모여서 '겉택일'을 하고, 2월 초하루에 '속택일'을 하여 그 중 한 날로 잡는데 대부분 겉택일로 잡게 된다. 지금은 음력 2월 3일로 날짜가 고정되었지만, 예전에는 매년 좋은 날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잡았다. 날은 아무리 늦어도 음력 2월 12일을 넘기지 않았다. 날짜를 택하고 2월 초하루날 그 해에 당화주(세 당의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를 맡을 세 집과 도가를 맡을 집, 소임을 맡을 사람 2명(소임이라고 부르면 낮춰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선 유사라고 부른다), 주비(당곳 비용을 걷는 사람으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서너 집이 되기도 하고, 작은 마을은 두 명 정도 나온다)를 뽑았다. 화주는 전 마을 사람들의 생기복덕이 맞는지, 상이 났거나 애를 갓 나온 집의 식구들은 아닌지, 부정하지 않고 내외가 모두 있는지를 가려서 뽑았다.

이 날 뽑힌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날까지 깨끗한 개울에서 매일 몸을 씻어서 몸을 정결하

게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고영두 할아버지는 몸을 씻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다만 옷물(샘물) 세 군데는 3번 치고(3번 우물 청소를 하고), 제사가 끝나도록 사사로운 일에 절대 쓰지 못하게 한다. 이 우물은 제수 음식을 만들 때만 사용한다. 우물은 주로 당과 가까운 곳이 대부분이지만, 부정한 일이 있었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바꾼다. 양남순은 임줄(금줄)을 치지는 않지만 등골이라는 곳에서 씻었다고 한다. 또 떡 감는 데는 금줄을 쳐놓고, 제지내는 사람집에도 금줄을 쳤지만, 떡을 뿜는 방앗간까지 임줄을 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제사 지내는 시기에는 매우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날 받고 나서 초상이 나도 기다렸다가 굿이 다 끝나면 그때 나갔고, 혼례일도 이때는 아예 잡지 않았다. 택일하는 날에도 부정탄다고 마을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국수당은 1970년대 후반에 슬레이트집으로 지어진 일이 있었다. 1974년경에는 젊은이들이 국수당에 슬레이트를 입혀 기와를 올린 도당집을 만들어서 10년간 유지하였는데, 마을 어른들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여서 다시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원상복구하였다는 것이다. 국수당 위에 짚가리 형태로 씌워둔 것은 해마다 고창굿을 하기 전날 새것으로 바꾼다.

무당과 화랭이, 남사당패를 불러다가 하는 곳은 원래 세 당을 다 모시고 난 후 현재 저수지가 들어선 곳에서 판을 벌였는데, 중단되었던 고창굿을 '그러께'(제작년)에 재현하면서부터는 국수당 앞에서 고창굿판을 벌이고 있다. 고창굿이 중단된 기간은 15년이 넘는데, 이 기간에도 무당을 부르고 굿판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산을 위하는 제사는 계속 지내왔다. 굿을 하지 않고 제사만 지내던 15년간은 마을마다 각각 음식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고창굿을 담당하던 만신은 '단골'이라고 불렸는데 전수1리에 살다가 죽었고 그 아들이 안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고창굿을 할 때는 정해놓은 만신에게 '도급'을 주면 만신이 알아서 굿판을 벌일 화랭이패와 줄타기 등을 할 남사당패를 불러왔다. 따라서 주민들은 화랭이패와 남사당패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등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골만신은 '원준이네'가 말다가 '충국이네'에 이어서 '남희네'가 말았으며(충국이네와 남희네의 순서는 명확하지 않다), 화랭이패는 이천, 서울, 수원 등지에서 오는데 이천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줄은 남자들이 많이 타지만 줄타기를 한 사람 중에는 광주시 실촌면 사람의 딸이 왔던 것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인물이 좋기도 했지만 '재수사망'(아마 일종의 축원인 듯)을 잘하였다는 것이다. 보통 줄을 한 번 건너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다시 한 번을 건너고 하는데, 돈을 내면 줄 위에서 "이놈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왔나. 구름에 흘러 왔나 바람에 날라 왔나. 이 돈 삼백 냥 주신 양반 재수사망을 해주시오……." 하면서 축원을 하였다고 한다.

고창굿을 할 때는 술장사를 비롯하여 장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말도 못하게' 붐볐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동네 사람들은 보통 당에서 치르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었고, 특히 비린 것을 먹은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제

삿날을 받아 놓으면 초상이 나도 장사를 못 지내고 기다려야 했고, 일본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면 말굽이 턱턱 붙었다는 것이다. 제사에 쓰인 음식은 부정한 사람은 제사가 끝난 뒤에도 아예 먹지 못했다고 한다. 호랑이는 산신령님이 순찰을 내보내서 다니는 것이고 제물을 차리고 산제(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호랑이를 먹이려는 것은 아니다.

고창굿을 하기 위한 재원은 성덕리 주민들이 모으는 ‘고창세’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내는 ‘제방전[契房錢]’으로 큰몫을 충당하였다. 고창세는 매년 벼 한 말씩을 주민들이 모으는 것으로 삼 년간 모아서(두 해 수확) 한 번의 굿을 치렀다. 제방전은 성덕리 뒤편의 양자산 일대에서 땔나무를 해가는 다른 마을의 주민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는 돈으로 양서면 대심리(건너상십),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왕창리(부루개) 등에서 거두었다고 한다.

고창굿은 1999년에 양평문화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후원해주기 시작하면서 다시 개최되기 시작했다. 4개 부락에서 회장, 즉 이장들이 각각 다 모여서 제관을 뽑는다. 산신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만신들이 너댓 명 정도가 와서 굿을 한다.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쇠머리, 팔떡, 백설기 등을 놓고, 풍물패들도 불러서 너댓 거리 정도를 한다.

예전에는 고창굿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도당굿이라는 말을 쓴다. 고창굿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고창(高唱)’이라고 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노는 축제 모습에서 딴 말이라는 이야기는 있다. 도당굿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를 모시는 굿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한다. 국수당은 굿에서 가장 으뜸(머리 首)이라고 해서, 즉 굿판 가운데 제일 어른으로 모신다는 뜻이라고 한다.

고창굿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마을 단골무당인 양남순은 “산신령을 배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산신령님을 제대로 위하지 않으면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나쁜 짓을 하는데, 산을 위하면 그런 일도 적고, 또한 성덕리 터가 세기 때문에 굿을 한다고 한다. 고영두 할아버지의 설명으로는 성덕리 주민들이 장산(장산은 매우 큰산을 말한다)에 나무를 하러 가는 일도 잦으므로 땔감하러 갈 때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고 주민 모두의 안녕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축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사구장(神祀區長)’이란 일제 때 생긴 용어인데 신사(고창굿)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신사구장은 매년 뽑는 것은 아니고, 하던 사람이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맡는다. 성덕리 노인회장이 신사구장, 또는 신사회장이 된다. 신사구장은 단골에게 날짜를 말해주고 고인을 불러올 것을 청한다. 단골은 그 마을을 단골권으로 삼은 무당을 지칭하는 말로, 그 마을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정한 지역 구분이 있지는 않으며, 이왕이면 계속 같은 사람을 쓰긴 하는데 만일 단골이 하기 싫다고 하거나 죽는 경우에 마을 사람들이 자주 가는 다른 무당이 단골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마을에 사는 경우에는, 굿을 할 때쯤에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다. 가을에 단골이 돌아다니면 벼 한 말씩 걷어주기도 했다.

신사구장이 단골에게 이야기를 하면, 단골이 알아서 얼마 정도 도급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그 돈에 맞춰서 '고인'〔工人〕들을 불러온다. 도급은 곳에 사용되는 경비를 뜻하는 말로, 도급에는 일단 단골이 수고하는 비용, 고인들을 불러오는 비용, 곳 중간에 들어가는 산돈 등을 합쳐서 얼마 정도 필요한지 단골이 예산을 잡아 신사구장에게 말한다. 화랭이패는 약간 비하해서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면전에서는 화랭이패라고 하지 않고 고인 또는 무속인이라고 불러준다. 산돈이란 무당이 곳을 하다가 "시장기가 나서 못하겠다" 하면, 중간에 돈을 쥐서 기운을 북돋을 때 쓰는 돈으로 산돈 놓는 사람도 따로 있다.

고인들은 삼현육각, 즉 피리, 통소, 적, 해금 등의 악기를 다룰 줄도 알고 곳거리를 하는 무속인들을 칭한다. 단골은 지역에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도급을 주고 데리고 오기 때문에, 매년 곳을 해도 같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 곳거리도 여러 거리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도 많은 사람은 단골이 애시당초 도급을 많이 주고 사온다. 그러므로 홀거리(한 거리)밖에 못하거나 기껏해야 장구나 칠 줄 아는 사람은 얼마 못 번다. '화랭이패', '화랭이씨', '화랭이떼' 라는 말을 쓰는데, 대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아예 집안 전체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단골이 부르지 않아도 돈 벌려고 따라오는 사람도 많다. 화랭이패는 무당일수도 있지만 집안 대대로 배우는 사람들이라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만신하고는 다르다. 화랭이패는 또 남사당패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딱 보아도 "화랭이씨는 따로 있다"해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남사당패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노는 패이고, 화랭이패는 축원을 해주러 오는 사람들이라 완전히 다르다.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수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

고창곳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고창곳 경비를 따로 걷어야 한다. 경비를 걷는 역할은 주비집에서 하는데, 경비를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선출한다. 경비는 1등에서 5등까지 층을 정해서, 각자 형편대로 잘 사는 집은 1등 정도를 내고, 못 사는 집은 5등의 돈을 낸다. 1등에서 5등의 수준은 그때마다 신사구장이 정한다. 이 돈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타작하고 나서 거둬들인 깨끗한 쌀을 걷는다. 즉 벼 한 말씩 걷어서 이 쌀로 나중에 제사 때 올릴 떡쌀을 마련하는데, 부정한 사람의 쌀은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따로 모아두었다가 고인들 밥해 먹을 쌀로 사용한다. 고인들이 스물댓 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오기 때문에 쌀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장산은 동네소유 산인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성덕리 사람이 아닌데도 땀감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제방전'이라 해서 얼마간 추렴을 받기도 한다.

산제사는 밤 10시에 세 당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이때 고인들은 도가집에 머문다. 도가집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풀이를 한다. 그 다음날 곳청에 들어가서 부정을 치고 곳을 시작하는 것이다. 제사에 쓰는 음식은 할머니당 화주를 맡은 화주집에 모두 모여 만든다. 할머니당 화

주집에서 음식을 하는 까닭은 아마도 할머니라는 역할과 맞아 그런 것 같다. 제사 때 올리는 음식은 우선 하얀 창호지를 받침으로 깔고, 떡시루(서되 서흡의 백설기), 쇠머리(황소머리가 올라가는데 할아버지당이라고 해서 암소머리를 올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실타래(장수를 뜻함), 날콩(매주를 쏘 때 쓰는 콩), 팔, 대구포, 밤(피밤), 대추, 꽃감(꼬챙이 채)을 올린다. 황소머리는 2개를 준비할 때도 많아서, 하나는 국수당에 올리고 난 다음 화주집에서 삶아 고창굿 경비를 걷는 일을 담당할 주비집에 나눠준다. 나머지 하나는 먼저 할아버지당에서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할머니당 제를 지내고 굿청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고인들이 가지고 가서 단골집에서 삶아 먹는다. 이상과 같이 차리는 것이 원칙이나 그럴 형편이 안 될 때는 찌지 않은 생쌀 서되 서흡의 생시루와 통복어, 창호지, 실을 올려놓고 간소하게 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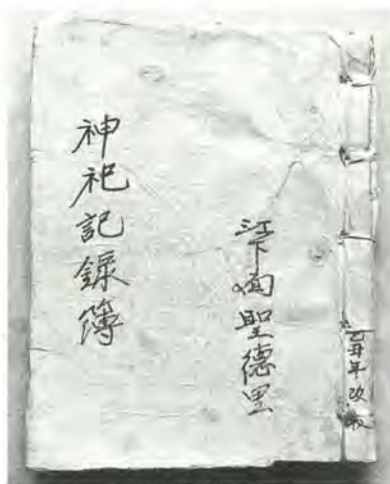
‘고인’들은 먼저 신사구장에게 왔다는 표시로 노래를 부르고 도가집으로 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정을 치고(부정풀이 굿), 산제사 하는 날부터 굿이 끝나는 날까지 도가집에 머문다. 도가집에서는 고인들에게 식사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굿이 시작되면 일 주일간 하는 때도 있고, 사흘간 할 때도 있다. 굿청에는 인절미며 수수팥떡이며 풍성하게 준비한다. 여기에서 고인들이 굿판도 벌이고 연주도 한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불거리로 줄을 걸기도 한다(줄 타는 것을 ‘줄을 건다’고 말한다). 수원서 줄타는 사람을 따로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줄을 해마다 걸지는 않는다. 줄을 걸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고인들은 도급으로 받는 돈만으로는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사를 끝내고 유가(遊家)를 돈다. 개인 집에서는 보통 쌀 한 말을 내고 돈도 각자 형편 되는 대로 내놓고 개인치성을 드린다. 보통 20집에서 많게는 50집이 하는데, 여기에서 고인들이 수입을 올린다. 산제사를 지낸 다음 만신은 신명이 내려 공수할 때 몇몇 조심해야 될 집이 있으면 일러주고 그 집은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린다. 양남순도 작년에 몇 집을 해주었다고 한다. 굿이 벌어지면 강하면 일대가 다 올라와서 복잡하다. 산제사 지낼 때 여자가 참가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 대신 부정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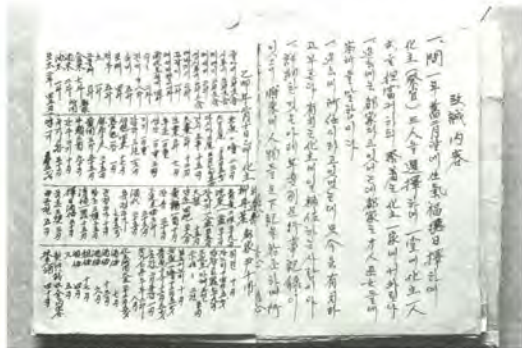
굿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가집에 오면 그날 밤 부정풀이 → 굿청 부정풀이 → 할아버지당 → 근처에 있는 우물에 치성(전에 자주 다니던 우물에서 치성을 드린다) → 국수당 → 할머니당 → 굿청을 돈다 → 첩당에서 부정풀이에 썼던 대(참나무)를 모신다.

굿청은 해마다 굿할 때마다 채를 친다. 바람막이용으로 채만 치는 것이 아니고 불을 펴놓는다. 나중에는 군대 천막을 이용한 적도 있다.

다음은 성덕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을묘년(乙卯年), 즉 1915년부터 약 40차례 80여 년 간의 고창굿 행사기록을 적은 고창굿 관련 문서인데, 국수당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가 훼손되자 뜻이 있는 마을사람이 1985년에 이것을 필사로 정리하여 한 책으로 엮어놓았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하면 성덕리 고창군 역사를 정리한 『신사기록부
(神祀記錄簿)』(1985년 작성)



『신사기록부』 내부 첫장

『신사기록부(神祀記錄簿)』을 축년(1985) 改

국수당-대곡수당(大谷 首堂, 땃골마을 으뜸당), 저수지 쪽 삼선당(三仙堂)

아주리(峨珠里) - 장승 /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양지촌(陽地村) - 저수지 우측 마을, 할머니당

음지촌(陰地村) - 저수지 좌측 마을, 할아버지당

- 저수지 옆에는 삼선당 일명 첩당(妾堂)이 있다.
- 대곡(大谷) 국수당은 수당(首堂)이라고 한다.
- 명칭은 신사(神祀)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고창(高唱)을 한다고도 하였다.
- 예전부터 간일년(間一年) 시행하여 왔다.
- 과거에는 도가(都家)라고 있었는데 재인(才人) 무녀(巫女)들의 숙소를 말함이다.

3. 면리별 마을신앙 사례

1) 옥천면 신복2리 복골 산제사

산제사 장소는 복골마을의 절골이다. 원래는 산봉우리 바로 밑 소나무 아래에 산신제 터가 있었는데, 돼지 한 마리를 지고 올라가기 힘들어 누구도 메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같은 산줄기 밑이라고 여겨 3년 전에 현재 밤나무 아래로 옮겼다. 또 원래는 날을 택일하였으나 요즘은 음력 10월 3일로 정해놓았다. 신복2리 60호 전체가 참여한다. 신복2리에는 전주 이씨, 청주 한씨, 광산 김씨 및 각성들이 산다. 신복3리는 동짓달 초하루, 즉 음력 11월 1일에 지낸다.



육천면 신북2리 복골 산제사, 조라술을 담기 위해 지은 밥을 제단에 먼저 올린다



제단 옆에 구덩이를 파고 조라술을 파묻는다



날이 어둑해지면 당일 낮에 올라갈 때 미리 땅에 묻어 놓은 조라술을 꺼낸다



진설. 제물로 술과 돼지, 노구메, 사과, 배, 삼색실과, 통복어, 제주, 백설기시루떡을 올린다



제주 오른쪽 제관이 제주가 들고 있는 잔에 술을 따르고 있다. 왼쪽 제관은 제주로부터 잔을 받아 상에 올려놓는다. 칼은 미리 깨끗이 닦아 놓았다가 제물을 진설할 때 이것을 돼지머리에 꽂아 놓는다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쟁송(爭訟)과 질병이 없고 호환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소지, 제관과 축관이 번갈아 가며 “○○○ 소지올시다.”, “산신령님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기원한다



제가 끝나면 돼지 귀 조각과 북어를 한지에 싣다



한지에 싣 제물 일부를 제단 앞 나무에 실타래로 묶는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회관에서 동네 유자들이 모여 음복을 한다

제물은 다음과 같다. 돼지는 과거에는 150여 근 되는 것을 지고 올라와 잡았으나 지금은 축사에서 미리 잡는다. 돼지는 낮에 마련해놓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 내장을 빼고 크게 몇 토막을 낸 다음 머리를 제일 위로 하여 차례차례 포개놓는다. 제주는 올라가서 미리 땅에 묻어 놓는다. 기다리는 동안 추위와 시장기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밥과 찌개를 만들어 먹는다. 사정에 따라서는 돼지머리만 쓰는 경우도 있다. 제물은 돼지, 노구메, 사과, 배, 삼색실과, 통북어, 제주, 백설기시루떡 등이다.

제물장만을 담당하는 당주 또는 제주와 제관, 축관이 제를 주관한다.

산제 비용은 각출하는데, 비용이 나는 것을 보아서 걷으려고 미리 걷지 않는다. 즉 당일 들 어간 경비를 계산하여 산신제가 끝나고 대동회를 열 때 이장이 이를 보고하여 호당 나누어

거두는데 대개 한 호당 5,000원 정도 거둔다. 대동계는 양력으로 12월 말경에 따로 낱을 잡는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산제를 시작하는데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특이한 것은 칼을 미리 깨끗이 닦아 놓았다가 제 지낼 때 이것을 돼지머리에 꽂아 놓는다.

소지 올릴 때는 먼저 도소지(都燒紙)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순으로 소지를 먼저 올리면서 “제관 ○○○ 소지올시다”, “축관 ○○○ 소지올시다”, “산신령님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축원한다. 다음은 마을사람들을 미리 적어놓은 명단대로 읽으며 소지를 올리고 축원한다. 제가 끝나면 북어를 한지에 싸서 실타래로 제단 앞 나무에 묶어 놓는다.

겨울철이라 오후 4시 50분경에 해가 졌으므로 제를 시작하여 5시 40분경에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장이 6시 10분경 마이크로 주민들에게 “산신제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로 마을회관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여 주민들을 모았다. 본격적인 동네 전체 음복은 다음날 아침에 한다.

2) 강하면 왕창리 왕충마을 산치성

왕충마을의 다른 이름은 부루개다. 매년 음력 동짓달 초하루에 산치성을 올리고 있다. 현재 초하룻날 밤 11시경에 올라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산치성을 올리며, 자정을 넘겨서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치성을 올리는 자리에는 큰 참나무가 있으며, 그 밑에서 치성을 드린다.

제물은 삼색과일과 살코기를 사다가 만든 돼지적, 막걸리를 올린다. 과거에는 부정 없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집에 인줄을 매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게 한 후 산치성 준비를 맡겼으나, 현재는 이장이 준비를 맡고 있다. 제주 역시 현재는 막걸리를 사다가 올리지만, 과거 10년 전까지는 새벽에 누룩과 쌀을 ‘비벼’ 넣은 조라술을 담가서 올렸다고 한다.

3) 강하면 운심2리 운포나루 관련 의례

주민들은 ‘어부심’이라고 했는지 ‘어부시’라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 정월달에 강가에 나가 밥을 풀어 흘려보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그냥 ‘고기밥 준다’고도 했다. 겨울이 되어 강이 얼면 강에 매두었던 배를 물으로 올려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때 배를 물으로 올리는 것을 ‘배를 건다’고 하고, 봄에 배를 강에 내리는 것을 ‘배를 떼다’고 한다. 배를 걸거나 떼는 일은 기본적으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배를 물에 올려놓을 때 받치는 ‘권목’을 해오는 일이라든가 배를 끌어올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여타 마을 사람들도 전부 강가로 나가서 여기에 참가하거나 참견하였다고 한다. 일이 끝나고 간단한 고사를 치르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4)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 산신제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 산신제 진설도

산신제는 산을 위하는 것으로 동네가 생긴 이래로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음력 10월 상달 초순에(주로 초닷새 안에) 택일을 한다.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뽑기 위해서는 날이 많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관으로는 음식을 차리는 도가와 도가를 돕는 집, 축관 한 집(깨끗한 집으로 축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등 세 집을 선정하고, 세 집 앞에 각

각 황토를 피운다(편다). 생기복덕은 진주 강씨 박사공과 대장군공 후손으로 노인회장인 강성옥(74세)이 본다. 그 전에는 그의 형이 주로 보았다고 한다. 올해 2001년 산제사는 통불사스님이 봐주었는데 초엿새로 잡았다(辛巳十月 壬午 初六日 丁亥).

2001년 11월 19일(음 10월 6일) 산신제에는 강성옥이 축관을 맡았고, 여현구(68세)와 신상혁(46세)이 도가를 맡았다.

‘조례(조라술, 제주)’는 산제일 이틀 전 저녁에 새로 지은 밥을 누룩 섞은 물과 같이 항아리에 담아 국수산 당집에 올라가 당집 안 지정된 장소에다 묻는다.

제물은 제사일을 받아 놓고 장을 보아 마련한다. 밤·대추 각 1되, 감 몇 개, 묵, 양초 2개를 준비하고 떡은 쌀로 서되 서흙을 뺀아 만들며, 북어포도 통째로 한 마리를 올린다. 항상 음복을 위한 떡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네기금에서 쌀 한 말과 소주, 안주 등을 사서 보충한다.

도가집에서는 잡색이 없이 노란 황소머리 큰 것을 서울 마장동에까지 가서 사서 당일 아침에 고아 가지고 저녁 11시경에 올린다. 과거에는 목욕재계하는 곳이 당집 올라가기 전에 있어 그 자리에서 재계하고 올라갔다. 12시 넘어 제사를 지낸다. 초엿새면 당일 새벽에 지내는 것이다. 산신제는 1시간 정도 소요되며 2시경이면 다 끝난다. 제 절차를 보면 재배→잔 올리기→독축→재배→소지올림(각 마을 호수대로 일일이 호명하면서 “신년도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봉송’을 써서 당집지붕 오른쪽 구석에 올려놓는다. 봉송(封送)은 한지 안에 쇠고기 조각, 밤·대추 몇 톨, 감 1개, 묵 조금을 넣어 싼 것을 말한다.

제를 마치고 하산하면서 마을 입구의 큰 오리나무(일명 귀신나무)가 서 있는 곳과 (과거의 큰길이었던 곳의) 마을 입구 두 곳에 쇠머리, 북어, 떡, 과일을 조금씩 놓고 절을 한 다음 역시 ‘봉송’을 써서 나무에 올려놓는다. 마을 입구 두 곳의 제를 다 마친 후에 제물음식 맛을 본다. “어떤 사람은 쇠머리 삶은 국이 찐가 미리 간을 보다가 탈이 났다”고 하여 제 전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주민들은 3일간(제일 이틀 전부터) 기도 치성을 올린다. 이 기간 동안 비린 것은 먹지 않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 산신제 당집



정자동 산신제 축문

는다. 과거에는 제가 끝나면 미리 도가에 모여 기다리던 노인들을 위해 음복하고 음식을 대접했다. 지금은 미리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조반으로 대접한다.

원래 옛날에는 '고창'을 했는데 번거로워하던 차에 어느 스님이 간략히 지내라고 하여 약소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5) 양서면 부용2리 향목마을 산치성

부용1리는 남씨가 많이 살고, 2리는 민씨들이 주로 사는 30여 호로 구성된 마을이나 최근에 17호로 줄어들었다. 1리와 2리를 합한 동네 전체 산치성은 음력 10월 2일 밤 9시~10시경에 한다. 지내는 터가 따로 있고 제를 지낸 후 마을로 내려와서 구장터(마을 입구)에다 제물을 놓고 제를 지낸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쌀 한 되씩 거출(각출)하여 떡을 했다. 당시는 먹는 것이 중요하여 떡을 많이 했다. 지금은 동네 돈에서 간소하게 하고, 1리와 2리가 교대로 한해 걸러 맡는다. 제물은 돼지, 술(조라술, 전날 담근다), 편(시루) 2개, 삼색실과, 포, 적 등이다. 당주 1명, 당주 보조를 위해 깨끗한 사람 1명, 마을대표 이장, 위원 등으로 제관을 구성한다.

6) 양서면 대심1리 서낭과 장승

서낭은 한여울마을에 두 곳이 있었다. 지나갈 때 돈을 놓고 가고, 침을 뱉거나 돌을 엮고 가고는 했다. 수종은 벗나무다. 지금 흥경단 있는 곳에서 큰 길가로 넘어가는 고개에 하나가 있었고, 한여울에서 상심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또 하나가 있었다. 장승은 마을에서 30m쯤 밖으로 나간 곳에 오른쪽으로 두 개가 있었다.

7) 양서면 신원리 서낭당

신원1리 샘골에서 부용산을 넘어 목왕리로 넘어가는 길에 서낭당이 있었다. 이 길은 신원리에서 양수리장을 갈 때 이용하는 길인데, 강가로 큰 길이 나기 전에는 이 길이 큰길이었다.

서낭당 수종은 도토리 나무였는데, 지나갈 때 침을 뱉고 다니고, 각 집에서 고사를 지낸 후에는 서낭나무에 무언가를 ‘잡아 매놓고’ 했다고 한다. 산을 위하는 집에서는 그곳에 가서 직접 고사를 올리기도 했지만, 집에서 산을 향해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다. 서낭당 가는 길이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지금은 일부러 찾는 주민들도 없는 것 같다.

8) 서종면 노문리 산치성

음력 8월 초하룻날 노문리 주민 전체가 산치성을 드린다. 노문리가 서종면과 가평군 설악면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같이 산치성을 지냈으나 갈라진 이후에는 각기 따로 지내고 있다. 우물봉에서 밤 1시경에 제사를 지내며, 제사 전에 제관, 축관, 당주를 뽑는다.

9)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장승제와 척사대회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마을입구의 장승과 솟대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에서는 장승제를 지내고 이어 척사대회를 갖는다. 제일은 원래 정월 보름밤이지만 최근에 안섬부리 향우회가 주관하면서 보름 전후 일요일이나 공휴일 오전 10시경에 행한다. 2002년 행사 때는 정월 보름 전 일요일이 설과 가까워 3월 1일 공휴일로 날을 잡았다. 전날 돼지를 잡고 다음날 10시경에 장승제를 올리고, 이후 노인들을 모시고 종일 효도웃놀이를 한다.

장승은 5년 전에 세운 것으로 내년에 다시 만들어 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두 마을 입구에 각각 천하장군과 지하장군 한 기씩을 솟대와 함께 세웠던 것인데, 한국전쟁 때 이 마을이 중공군들이 있던 곳이었어서 미군들이 불을 놓아 집들과 함께 모두 불탔다고 한다. 1960년부터 다시 장승제를 지냈는데 이때 지금의 장소로 모아 세웠다고 한다. 장승은 소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솟대는 낙엽송인 노가지나무로 만들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못 된 시각에 산신제를 가졌고, 이어 10시 10분에 장승제가 시작되어 약 15분이 걸렸고 10시 25분에 음복으로 들어갔다.

- 산신제 제관 : 전덕기(72세, 노인회장)
- 장승제 제관 : 조영국(78세, 전 노인회장) - 3천 헌관을 혼자 맡음.
 - 축관 : 고창진(75세)
 - 집사 : 조형근(전 향우회장)
- 제물 : 돼지머리와 간단한 주·과·포

장승 옆에는 솟대가 서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의식은 없었다. 솟대는 마을 입구에 있어서 손님이 오는 것을 장승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마을에 홍수 전설이 있고 이때 마을에 있는 목이 잘린 석불이 불당터에서 흘러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솟대 건립의 동기도 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섬부리는 현재 23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창녕 조씨, 정선 전씨, 제주 고씨 3성이 각각 5~6호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각기 12대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장승제가 끝나고 이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율놀이 행사도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된 향우회에서 장승제 행사비용을 지원한다.



목이 떨어진 석불상. 마을 위 불당터에서 흘러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신제를 마치고 제관의 헌작으로 장승제가 시작된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간단한 술과 과일과 포도



축관의 독축, 축문 내용은 신에게 오랫동안 평안히 해달라는 것인데, 그 신은 용신(龍神)이라고 적혀 있다



일동 재배하여 장승제를 마무리한다. 장승 옆에는 솟대가 서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의식은 없었다



제가 끝나고 바로 철상하지 않고 마을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원을 비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별소원을 빌 때는 각자가 준비한 돈을 바치는데, 주로 만 원권으로 한 장 혹은 여러 장을 돼지 입에 끼워 넣는다



웃놀이. 장승제가 끝나고 이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웃놀이 행사는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된 향우회에서 장승제와 함께 행사비용을 지원한다. 향우회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을 위해 매일 점심식사를 대접한다고 한다



마을잔치. 웃놀이를 하는 한편에서는 고기와 술을 대접받는다

10) 지제면 일신리 장승제사

일신리 장승제는 현지에서는 '숲제'라고 부른다. 일신리는 마을입구에 '수평'을 해놓았다. 이전에는 매년 제를 올렸으나 현재는 격년으로 하고 있다. 택일은 음력 2월초를 즈음하여 '좋은 날'로 정한다. 흉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좋은 날' 중에 일요일이 들어있으면 그날을 택한다.

숲제 일주일 전 또는 늦어도 3일 전에 장승과 숲 주위에 금줄을 친다. "흉한 분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삼가고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과 숲에 손대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장승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2기 1쌍으로 마을 주민 가운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매년 깎아서 숲제 당일 새벽에 옛것과 나란히 세워놓는다. 재료는 한솔로 수평에 있는 나무 가운데 택한다. 장승 옆에 세워둔 장대 위의 새는 '기러기'라고 부른다. 주로 소나무 뿌리로 만들



지제면 일신리 못저울 왼편 마을입구의 장승 '천하대장군' 못저울 오른쪽 입구의 '지하여장군' 과 솟대

고 잡목으로도 만든다. 기러기는 한 해 걸리 만든다.

장승 2기는 원래 마을 입구인 현 천하대장군 자리에 같이 세웠던 것이나 건너편에 큰길이 나면서 지하여장군을 그곳 마을 입구로 옮겨 세워 지금은 양쪽 길 입구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제물도 똑같이 두 뭇을 준비하지만, 기러기 뭇은 따로 없다.

한 시루당 서되 서홉의 쌀로 두 시루를 찌서 각 장승에 놓고 약주, 복어, 실 등을 놓는다. 제주는 땅에 묻어 만든 막걸리를 놓고, 제물로는 내장을 뺀 통돼지를 놓는다. 제사 후에는 어른들을 모시고 국을 끓여 먹는다. 쇠소리를 내면 좋다고 하여 한때 종일 농악을 논 적이 있는데 원래 방식은 아니다. 또한 한때는 제사 지낼 때 비느라고 박수를 불렀다. 박수는 이 마을에 살았는데 몇 년 하다가 다시 박수 없이 그 전대로 절만 한다.

11)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구천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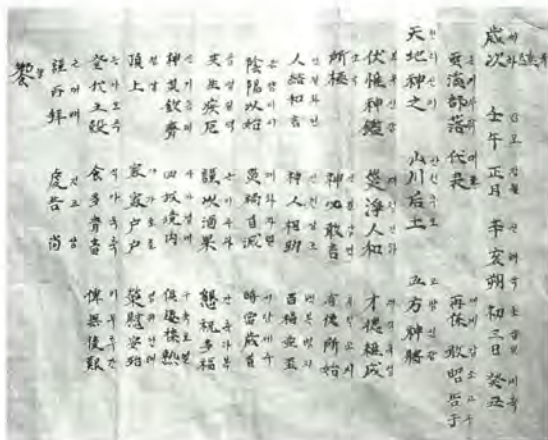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의 동제는 '길제사' 또는 '구천제사' 라고 한다. 음력 정월 3일이 제일(祭日)로 2일 밤부터 진행된다.

제의 장소는 장승거리로 예전에 이곳에 어른 다섯 발 굽기의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앞에 장승이 세워져 있어서 느티나무와 장승을 바라보고 동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장승은 원래 참나무로 만드는 것으로 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아래 토막으로는 천하대장군을 만들었고 윗 토막으로는 지하여장군을 만들었다. 참나무는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매년 만들었으며 새로 만들면 이전 것은 즉시 없앴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장승을 만들었다. 느티나무와 장승은 다 사라졌고 최근에 아카시아 나무로 장승을 새로 만들었는데 위치도 예전의 위치와 다르다.

제사 전에 느티나무에 인줄을 두르고 제사 후에는 당일로 소각시킨다. 장승 위로도 인줄을 두른다. 제사 지내는 곳에 모래를 깔고 그 위를 창호지로 덮는다. 예전에는 제사 전날 낮에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입구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운계마을 구천제 축문

이 일을 모두 하였으나 요즘은 제상을 차리기 바로 전에 한다. 몇 해째 평양 조씨 중중회관을 도가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중중회관이 마을에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중회관 앞에도 도가집임을 알리는 인줄을 둘렀다.

제사에는 제관과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보통 제관 1명, 축관 1명과 도가 1명을 선달 그믐날에 뽑는데, 제관과 축관은 생기복덕을 가려서 맞는 사람을 뽑으며 도가는 정결한 집으로 정한다. 인줄은 도가집에만 두른다. 제관과 축관은 제사를 지낼 때까지 집 밖에서 나서서 흉한 것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월 초하룻날에도 집에서 차례만 지내고 세배나 성묘를 다녀서도 안 된다. 제물운반과 같은 제사준비는 예전에는 소임이 담당하였으나 요즘은 이장과 반장이 맡는다. 재정권을 맡고 있는 이중계장이 제물을 장에서 사온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개고기 살점과 백설기를 뜯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던지면서 고시례를 한다. 소지는 대동으로 올린 다음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풍년, 장사, 자손 등을 들먹이며 축원하면서 개별 소지를 올린다.

- 제물 : 개고기(내장 빼고 통채로 올림), 백설기(시루째 올림), 술, 북어포, 밤, 대추, 귤감 등. 제물은 당일(1월 2일) 장만하나, 요즘은 미리 준비해둔다. 개는 수컷 백구를 사용하나, 요즘은 백구를 구하기 어려워 '일색' 이면 제물로 가능하다. 올해 구천제사에는 황구를 사용하였다. '일색'을 쓰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제사 전날 개를 잡은 다음에 끓는 물에 통째로 넣은 후에 털을 뽑는데 이를 '튀앤다'고 한다. 이제는 '튀에지' 앓고 불에 그을려서 털을 뽑으며, 올해 구천제사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털만 뽑고 생으로 상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제사 끝나고 바로 음복하는 것을 고려하여 먹을 수 있게 삶아서 올린다. 술과 백설기는 버 두 말을 장만한 후 이를 찢어서, 이 중 서홉으로는 술을 담그고 나머지로 백설기를 만든다. 술은 1월 2일에 당주집에서 담근 후 제사 지내기 전에 걸

러서 사용하며, 올해 제사에서는 당주집으로 사용한 평양 조씨 종중회관에서 담갔다(오전 11시 30분경). 술을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다. 개고기 외의 제물은 제사 끝나고 음복할 때 대개 다 없어지며, 주로 개고기로 제삿날 아침에 마을 노인들을 대접한다. 음복할 때는 상주도 가능하다. 마을회관이나 종중회관이 없었을 때는 사랑채가 널찍한 개인집에서 음복하였다.

- 구천제 유래 : 구천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주민들은 과거에 들은 이야기들을 근거로 호환(虎患)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 유지인 조한현에 따르면 “장승거리가 호랑이 길목이었던 것 같다. 산음리에도 평양 조씨가 살았는데 조선 말엽쯤인가 어느 날 밤에 일가 중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한참 후에 시신 중 머리 부분을 그곳과 멀리 떨어진 이 마을 부근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고 하였다.



도가집에서 조리술에 쌀 쌀을 까부르고 있다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따뜻한 아랫목에 담요로 싸둔 조리술



제주로 사용할 조리술을 걸러 주전자에 담고 있다



백설기 시루. 조리술과 백설기는 버 두 말을 잠만한 후 찜어서 이 중 3홉으로 술을 담그고 나머지로 백설기를 만든다



개를 삶는다. 원래는 "끓는 물에 통째로 넣어 털을 뽑을 수 있을 만큼 튀엔다"고 한다



장승 앞에서 구천제를 시작한다. 장승 위로 인 줄을 두르고, 제장에는 모래를 깔 다음 창호지로 덮는다



제관이 장승 앞에서 잔을 올린다. 제사에는 제관, 축관,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나르는 사람만 참석한다



제물 진설. 장승 사이에 내장을 빼고 '튀엔' 개를 통째로 놓고 백설기도 시루째 올리며 술, 북어포, 밤, 대추, 귤감 등을 놓는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있다



분축(焚祝). 축문의 내용은 가가호호 오곡과 가축이 잘 자라고(登我五穀 食多育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없이(俾無後艱) 다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懇祝多福) 글이다



소지올리기. 소지는 대동으로 올린 다음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풍년, 장사, 자손 등을 들먹이며 축원하면서 개별 소지를 올린다



제관들이 마을을 향해 소지를 올리고 있다. 제사를 끝낸 후 개고기 살점과 백설기 조각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던지면서 고시례를 하고 음복에 들어간다

12) 용문면 신점리 산신제

2002년 4월 18일에 용문사 입구 계곡에서 신점1리 주민들이 주관하고 입구 상인들의 협찬 또는 참여로 산신제가 행해졌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집사 2명으로 구성된 제관들은 모두 마을주민들로 의관을 갖추자 오전 10시 10분에 제가 시작되었다.

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향→삼배→잔 붓고(강신)→빈잔 신위 앞에→일동 삼배(참신)→초헌관이 잔 올리고 삼배→부복하고 축관이 독축→초헌관만 삼배→아헌관이 내린 잔을 세 번 지우고 잔 올리고 삼배→종헌관이 내린 잔을 세 번 지우고 잔 올리고 삼배→다시 초헌관이 내린 잔을 세 번 지우고 올리고 삼배→일동 뒤로 돌아 용문산을 바라보고→기침→초·아·종 및 축 4명 일동 삼배→집사자 절→서로 바라보고 예성→축문 태우고 음복

세 번 절하는 것 말고는 일반 유교제사와 같다. 그러나 다음 절차, 즉 일반인들 차례가 되어 제각기 미리 준비한 돈봉투를 놓고 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하는 것은 유교제사에는 없는 것이다.

신점리는 1리와 2리가 있는데 행사는 132호로 구성된 신점1리가 주관한다. 신점리 산신제는 1978년경에 당시 이장인 김창용의 제안으로 시작된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제의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는 제사절차를 따른 것 같다. 당시에 관광객 중에서 목을 매거나 약을 먹고 죽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산신제를 지낸 이후 불상사가 사라졌다고 한다. 도중에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행사가 중단되었으나 이후 다시 재개되어 17회째를 맞고 있다고 한다.



산신제상에 통돼지를 한 마리 놓았다. 과거 양평의 산신제는 대부분 호환과 관련하여 행해졌다



초헌관의 강신례, 세 번 절하는 것 말고는 일반 유교제사와 같은 방식과 진행이다



참신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집사 2명으로 구성된 제관들은 모두 마을주민들로 의관을 갖추었다



초헌관이 헌작하기 위해 집사에게 잔을 받고 있다



분축. 경향 각지에서 관광객과 산악인을 구름같이 모이게 해달라는 내용의 축문을 제사를 끝낸 후 태운다



초헌관이 잔을 세 번 지우고 첨잔한 후 삼배하고 있다. 다음은 일동이 뒤로 돌아 용문산을 바라보고 유식(脣食)의 예를 행하였다



제의절차가 모두 끝나면 철상하지 않고 상인들의 참제(參祭)가 이어진다

13) 단월면 보룡리 산신제

산신제는 음력 10월 14일 밤에 패일산에 올라가 자정을 넘긴 시점에 산밑 제단에서 지낸다. 제물로는 돼지를 잡는데 암수를 가리지 않고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일색인 것으로 구해 산에서 잡았다. 한터, 제인동, 되룡골, 장거리 4개 마을이 같이 지낸다.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4~5인 정도로 제관 1명, 축관 1명, 집사 2명이다. 도가집도 선정하는데 제물을 장만하는 사람을 도가라고 부른다. 제관은 마을에서 사주, 작명, 택일, 궁합, 못자리까지 다 보아주는 지관 김○희가 생기복덕을 따져서 선정한다. 인줄은 원새끼를 꼬아서 창호지를 단 것으로 마을입구 정미소 자리와 도가집에 달았다. 산신제가 끝나면 내려와서 성황제를 지낸다. 성황제는 성황나무 앞에서 지냈는데 일제 때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타서 없어졌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돼지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잡은 돼지를 분육하고 기타 산에 가지고 갔던 음식을 문창호지로 싸서 나누는데 이것을 봉송(奉送)이라고 한다. 산신제에 올린 음식을 먹으면 만사대통한다고 한다.

지금은 산신제 날에 바로 대동계를 열어 일 년 마을살림을 결산한다. 제물구입비는 가구마다 각출하여 마련해왔지만 지금은 마을경비로 충당한다. 각출할 당시는 쌀 한 말씩 걷었는데 남은 쌀은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제는 마을기금으로 비용을 대는데, 기금은 각종 행사 찬조금에서 남은 것으로 마련한다.

산신제각은 1998년에 지은 것이다. 산신제각 주변과 산신제각으로 가는 길에 풀이 무성하여 제 지내기 일 주일 전에 제주를 담그고 난 후 깎는다. 2001년에는 산판을 위한 임도를 냈기 때문에 풀을 깎는 수고를 덜었다.

〈산신제 축문〉

敢昭告于

掛日山神靈地神 令爲洞民一同

安寧秩序 五穀豐登 平和協同

產業興旺 牛馬鷄犬 共爲繁榮

財厄滅掃 佑我太平 伸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脯醢

告神來必

尙饗

14) 단월면 보룡리 기우제

옛날에 “서낭당이에서 지저분을 피우면 비가 온다”고 하여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서낭당 주변에 피를 뿌린 적이 있었다. 해방 후에도 기우제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쾌일산에 올라 가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지냈다. 쾌일산은 해가 걸려 있다는 뜻의 쾌일산(掛日山)이다.

15) 단월면 산음1리 산제사

산제사의 내력에 대한 주민 윤재정(68세), 조한승(54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윤재정의 5대조인 윤행귀가 김포에 살다가 산음리로 들어왔는데, 가축을 먹여도 산짐승들이 전부 가져 가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로 산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옛날에 산음리는 1·2리가 따로 없고 한동네였는데, 모든 일을 리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산제도 나누어진 것이다. 원래는 산음리 전체가 한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2리에서 산제가 동네 치성이 아니라 ‘윤서방네 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원래 산제 지내던 곳에는 제단과 함께 서너 아름 되는 큰 소나무를 당나무로 모셨다. 그 형상이 장군이 말을 타고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산불이 나서 타는 바람에 나무를 바꾸었는데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다른 ‘젯버덩’으로 옮겼고, 그곳도 자리가 좋지 않아서 지금의 세 번째 자리로 옮긴 것이다.

□ 산제사 과정

산제 날짜는 음력 10월 초사흘날로 새벽 1시경에 제를 올린다.

제물은 이전에는 황소를 썼다. 용두장에 가서 색깔도 일색인 것으로 골라서 산 다음 눈 부정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꼭 밤에 끌고 들어왔다. 그러다가 호수는 줄고 소 값은 비싸 약 20년 전부터 돼지로 바뀌어서 지내게 되었다.

제주는 이틀 전, 즉 음력 10월 1일 저녁에 담근다. 술은 쌀 한 되 한 홉으로 담고, 떡은 쌀

서 되 서 흡으로 담근다. 산에는 고기 왼쪽 부위만 가지고 올라가는데, 무엇이든 왼쪽을 높이
기 때문에 그렇다. 제상에 고기를 포개어 놓지 않고 부위별로 늘어놓는다.

그외의 제물은 백설기, 시루떡, 대추, 밤, 배, 복어 두 마리, 생무만으로 올리는 탕, 무를
생것으로 썰어 만든 나물 등이다.

제물을 장만하는 도가는 생기가 맞는 깨끗한 집 중에서 차례로 돌아가며 맡는다. 도가가
정해지면 개울의 찬물에 가서 일 주일 동안 날마다 목욕을 해야 하며, 닭고기나 개고기처럼
비린 것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술가지와 하얀 종이를 쫓은 송침을 만들어 대문
에다 걸어놓아 동네에서 몸이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한다.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임신한 여자도 모두 부정한 자에 해당한다.

다섯 집이 한 통을 구성하고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있는 집이 있으면 통수, 즉 통의 대표
가 산제 비용을 일단 대납하고 분육할 때 비용을 받는다. 2001년도 산제사 도가는 조한승, 제
관은 송민욱이며, 축관은 박중선인데 실제로는 조한승이 맡았다.

□ 도가에서 준비한 제물

떡쌀 서 되 서 흡, 밥쌀 한 되, 술쌀 한 되 한 흡, 복어, 대추, 밤, 배, 누룩, 초, 향, 소주 한 짹
운임 2만 원.

□ 산음1리 산제 축문

維歲次辛巳十月壬午朔初三日甲申敢昭告于

伏惟

尊靈 梧陰一脈 上有赫靈 庇我衆庶

歲歲鎮我 節彼南岡 興瑞降祥

滌我灾痒 誰不荷賜 民各輸誠

匪令匪斯 茲值孟冬 惟我衆庶

於薦牲觴 振古如常 率由舊章

伏願神靈 野盜山獸 酷吏癘鬼

獵猪焊炮 篤棐無疆 揮之門牆

投諸裔荒 屏于殊鄉 六畜疾疫

害穀鳥獸 俾無侵傷 各歸山梁

時風時雨 多黍多杭 樂歲終飽

庶幾溢洋 尙饗

16) 단월면 산음2리 산제사

음력 10월 초사흘날 밤 1시에 지낸다. 초이튿날 음식을 장만한다. 산제당이라고 하여 특별



단월면 산음2리 산제사. 제물을 나르고 있다



산제당에서 제물을 차리고 제관이 절을 올리고 있다

한 건물은 없고 바위로 지붕처럼 가려진 데를 그렇게 부른다. 제물로는 떡, 복어, 돼지, 사과 등의 과일, 술이 올라간다. 돼지는 꼭 검은색 수돼지만 올리는데 원래는 통째로 올렸으나 운반하기가 무거워 머리와 몸통 반만 올리며 익히지 않는다. 술은 원래 도가집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다 쓴다. 제관으로는 제관 1명, 축관 1명, 음식 장만하는 도가 1명과 제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는 이들을 생기복덕 가려서 뽑았지만, 지금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남자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있다가 제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술을 같이 마시거나 했고 날이 밝으면 온 동네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물비용은 이중계 기금으로 장만하며 돼지값은 집집마다 각출하여 충당한다.

2000년의 경우 제수비용은 호당 1만 원씩 걷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에서 충당하였다. 2001년에는 전체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었고 거둔 돈은 18만 원으로 모자라는 비용은 이중계 기금에서 충당하였다. 이중계 기금은 가입비로 받은 것과 상례 때 상여 매주는 일로 마련된 것이다.

원래 산음1리의 산제에 같이 참여하다가 고가소에서는 산제를 따로 지내게 되었다. 수청에서는 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었는데, 고가소에서 산제 지내러 오라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전에는 마을마다 상계가 따로 있었는데, 고가소와 수청은 계를 통합하게 되었다. 계도 같이 하니 산제도 같이 지내자는 동네 여론에 따른 것이다.

17) 청운면 여물리 성황제

청운면 여물리 성황제사는 여성황을 모시는 제사라고 하는데, 지체면의 지평리 성황제사와는 달리 마을단위 제사로 지내온 것이지만 당집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미루어 이 역시 그 근원을 따지면 마을보다 큰 단위의 제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웃마을 용두리 성황을 남서낭이라고 한 것도 현재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그 흔적이라고 생각된다. 그 규모도 예전 성황사 당집은 현재 남아 있는 주춧돌로 보았을 때 총 세 칸인데, 한 칸은 마루이고, 한 칸은 제단

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마루에 올라가서 제단에 음식을 놓고 지냈다고 한다. 지붕은 기와였으며 당집 안에는 말 형상 혹은 여러 가지 짐승을 상징하는 무쇠로 만든 손가락 두마디 크기만한 작은 조형물이 있었고, 말을 탄 장군의 형상을 한 돌로 된 조각 4개가 위패 옆에 있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다시 집을 지었을 때는 당집을 전부 송판으로 둘러쌓았고 지붕은 이엉을 엮었다고 한다. 현재의 당집은 두 칸 집으로 건물 옆면을 앞면으로 사용하여 한 칸만 시멘트벽으로 막아 측벽 선반에 위패를 놓고 맞은편 벽에 문을 내어 나머지 한 칸과 연결하였는데, 이 칸은 우천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 위패는 “여선성황지신위”라고 한글로 썼다. ‘여선’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주민은 없었지만 여(女)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실시되며, 예전부터 택일하지 않고 날을 고정해서 행하고 있다. 용두리에 ‘신수’를 보는 사람(지관)이 있는데 매년 제관 1사람, 음식 만들 집 2집을 뽑아달라고 간단한 선물을 들고 가서 부탁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집, 즉 도가와 제관으로 선정된 집에는 창호지를 꿰은 인줄을 매단다. 성황당에도 인줄을 매달았다. 음식은 성황당 앞에서 준비한다. 인줄은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태운다.

제 지내기 전날 아침 제주(祭酒) 마련을 위해 항아리에 밥과 물과 누룩을 넣어 당집에 있는 구덩이에 파묻는다. 당일 오후 4시 반쯤 방앗간에서 떡가루를 한다. 방앗간이나 제물을 파는 시장도 부정하지 않은 가게에서 산다. 예를 들어 초상을 치른 집은 피한다. 밤 8시 반경 도가집에서 떡을 3개 시루에 나누어 찐다. 뜨겁게 찐 떡시루 중 1개를 시루채로 11시쯤 3명이 지고 올라간다. 3개 시루 중 하나는 도가집에 놓고 먹고, 가장 큰 것은 성황당에 지고 올라가고, 나머지 하나는 성황제사가 끝난 다음 마을 어귀와 예전에 장승 있던 자리에 고사를 지낼 때 북어와 함께 놓는다. 마을 어귀에서 하는 이유는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예전에 장승이 있던 터이기 때문이다. 장승은 그 터가 마을 공동 땅이 아니라 개인 땅으로 땅 주인이 밭을 넓히면서 없었으며, 한편 헐 때마다 알아줘야 하는데 알아줄 사람도 없어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이다.

밤 11시 반경부터 돼지고기를 차려놓고 12시경이 되어 제사를 시작한다. 당집 안에는 본래 세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돼지를 잡는 것도 세 사람만 하는 것인데, 반장이나 총무가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돼지 가격은 근당 1,300원으로 그날 잡은 돼지는 약 170근이었다. 당집에 올라갈 돼지 부위는 돼지머리와 족발, 간, 불알(알과 신을 분리), 꼬리, 콩팥 2개, 살(갈비살), 지라만 올라간다. 이때 돼지머리와 족발만 제사 지내기 전에 삶고, 나머지는 생채로 올려놓는다. 돼지 이외에 당집으로 올라가는 음식은 쌀 서말 서되 서홉으로 만든 떡(소금을 넣지 않는다), 삼색과일, 포 1개다. 돼지는 얼룩이 없는 일색으로 된 수퇘지여야 한다. 돼지는 낮에 마을 청년들이 다같이 잡는다. 낮에 이미 다 손질을 해서 저녁에 양은술과 물, 땀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바로 당집에서 익힌다. 비용은 동네기금에서 마련한다.

소지로 쓸 한지는 철물점에서 100장을 한 세트로 파는 것을 구입한다. 소지 종이는 마을 전체 소지를 올릴 때나, 마을 사람들 올릴 때나 똑같은 종이를 쓴다. 현재 여물리마을에는 106호가 살고 있어, 그 집의 세대주 이름을 고하면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우선 이장을 위해 올려주고, 나머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쪽 순서 없이 올려준다. 소지를 올릴 때는 “○○○ 소지입니다(○○○는 세대주 이름). 잘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하고 제관이 말하면서 올린다. 소지를 접는 방법은 종이를 세로로 두 번 살짝 접는다. 소지가 잘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2번 혹은 3번까지 올려주지만, 그래도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다음날 대동지추 때 소지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준다. 소지가 잘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각자 날짜를 잡아 당집으로 가서 새로 치성을 드린다. 날짜나 준비하는 제물은 제각각이다. 올해는 소지가 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제사가 끝나면 당집에서 내려와 마을 앞 장승백이 앞에서 고시례를 한다. 고시례로 3번 음식을 던지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장승백이에서 제사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하고 제물에 썼던 음식을 먹으며 ‘대동지추’ 또는 ‘대동계추’를 한다. 이 말은 과거 조선 후기에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대동세를 걷는 추봉(秋奉) 행사가 있던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갖는 이 집회에서는 연말 결산보고와 함께 다음 해의 계획 등을 의논한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논다.

예전에는 당집 치성이 끝나고 다음날 대동지추 때 마을 사람이 전부 모여 고기를 나눠먹는 요즈음과는 달리 도가집에서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꼬치를 만들어주면 동네 소임이 지계를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도가(都家) 집 대문에 한지를 꽂은 인줄(금줄)을 매단다. 제관 집도 마찬가지다



도가집 마당에서 세 시루를 찌서 하나를 도가 집에 놓고 먹고, 가장 큰 것은 성황당 제사 때, 나머지는 장승고사 때 제물로 올린다



제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전날 아침에 당집 앞에 파묻어 두었던 술 담은 항아리를 꺼내고 있다



서낭당집. 두 칸 집으로 한 칸만 벽으로 막아 측벽 선반에 위패를 놓고 맞은 편 벽에 문을 내어 나머지 한 칸과 연결하였다



제단의 모습. 위패는 "여선성황지신위"라고 한글로 썼다. '여선'의 '여'는 여자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선'은 잘 알 수 없다



제물은 시루떡과 삼색과일, 그리고 돼지머리와 족발, 간, 불알, 꼬리, 콩팥, 갈비살, 지라 등이다. 돼지머리와 족발만 삶아서 올린다



제관 세 명 중 하나가 축관이 되어 축문을 읽는다. 가축번식, 질병불입, 관제소멸, 호표원적, 도적축출 등을 빌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마을 전체 소지. 마을대표로 이장을 위해 소지를 올린다



가가호호 소지. 동네의 세대주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 소지입니다. 잘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올린다



고시례로 북어와 떡 각 한 조각씩을 세 번 던지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18) 청운면 다대리 서낭제

과거 동네에 서낭이 있어서 정월 초순 밤 12시 이전에 서낭제를 지냈다. 서낭나무는 참나무로 마을쪽 초입에 있었는데 약 30년 전에 없어졌다. 당시 서낭제 지낼 때는 무당이나 박수도 왔다.

19) 청운면 용두리 서낭당 고사

용두1리와 3리의 주민이 함께 서낭당 고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용두리라 부르기도 용머리라 불렀다. 음력 정월 초닷새 이내에 날을 잡아 지내며, 이장이 지관에게 가서 날을 받아온다. 제사는 새벽에 지내므로, 전날 아침부터 돼지를 잡는다.

서낭당 고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원[祭員]'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을 뽑는다. 그 중 한 명은 '도가'라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다른 두 사람은 함께 제사를 올리는데, 그 두 사람을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다. 전날 아침에 원새끼를 꼬고 창호지를 낀 금줄을 지원의 집과 서낭당에 친다. 원래는 아무리 추운 날에도 찬물에 들어가서 목욕재계를 해야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물은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푹 삶아서 올린다. 돼지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일색으로 올려야 한다. 일 년 중의 정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백설기떡과 삼색실과를 올린다. 백설기는 쌀 한 말 정도를 하고, 삼색실과는 사과, 배, 대추, 밤을 올린다. 제주는 쌀로 탁주를 담그는데, 제 지내기 전날 아침 당집에 있는 구덩이에 파묻으면 다음날 새벽에는 술이 익는다. 조라술이라는 말은 안 쓴다. 돼지고기는 그 해의 시세를 보아서 주민들로부터 추렴을 한다. 작년에는 2,000원씩 걷었고, 올해는 3,000원씩 걷었다. 먹고 남은 고기는 마을 사

람 중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판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팔지 못한다.

당집은 원래 초가였는데, 1996년에 현재의 벽돌·기와집으로 개비했다. 초가집으로 있을 때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물이 새지 않게끔 보수를 했다. 보통 10월경에 하는데, 서낭님께는 북어포와 막걸리를 올리고 간단히 고사를 지낸 뒤에 작업에 들어간다. 당집 전면 벽에는 가로로 맨 줄에 접은 한지가 걸려 있고, 그 앞으로는 흰 실에 북어를 묶어서 걸어놓았다. 원래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고기와 떡 몇 점, 북어 한 마리를 당집에 남기고 간다고 한다. 한지는 보통 1년을 두었다가 다음 당제를 지낼 때 태워서 없앤다. 북어와 고기, 떡 등은 며칠 사이에 누군가가 먹어 없어진다.

서낭당 안의 당집 벽과 마찬가지로 붉은 벽돌로 쌓아올리고 석판을 놓은 제단에는 “城隍之神”이라고 적힌 검은색 비석이 있었다. 당집을 새로 지으면서 비석에 글을 새겼는데, 원래는 나무판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낭당 출입문 위에는 “龍頭一·三里 城隍堂”이라고 적힌 편액이 걸려 있다. 이 역시 당집을 새로 고치면서 단 것인데, 그 전에는 나무판에 그냥 “城隍堂”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당집이 초가집이었던 1996년 이전에 있던 위패와 현판은 새로 당집을 지으면서 태워 없앴다.

새로 만든 당집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제주를 파문을 자리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비닐 포대에 모래를 담아서 제단 우측에 놓아두었다가 거기에 술을 묻는다고 한다. 원래 술을 묻었던 자리도 현재 비닐 포대가 놓여있는 곳이다.

원래는 당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으나 지나는 사람들이 괜히 와서 그 안에서 놀다 가고는 해서 문을 잠가놓게 되었다고 한다. 문을 잠그게 된 후로도 고사를 지낸 뒤에는 떡과 고기를 몇 점 떼어놓는데, 보통 고사 후 며칠 동안은 당집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없어진다.

제3절 무속신앙

1. 양평의 만신

1) 양평읍 옥천면 백안3리 약수사 조병호(70세) 법사

조병호는 현재 용문산 아래 약수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양 조씨 한양공파 24대손으로 양평군 원덕리 능말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국전쟁이 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다. 조병호의

몸에 무병이 생긴 때는 한국전쟁 직후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아들인 조병호와 어머니는 장사를 했다.

19세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해서 23세 되어서는 손뼉을 치며 달려가 당시 용문면 조현리(조 자랑골이라고도 부름) 방씨 할머니 덕 뒷동산에서 엽전 13개를 캐왔다. 아직까지 그 엽전으로 점을 친다. 방씨 할머니는 만신이 내려서 점도 치곤 했지만 춤을 추진 않고, 다만 500나한을 모시고 부처님 제사를 지내던 분이다. 그때 캐온 엽전 13개와 점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신을 받은 후 27세에 작두점을 쳤고, 엽전점도 계속 친다. 약수사를 세운 터는 신내림을 받은 곳이라 그 연고로 1,080평을 사서 1984년에 약수사를 세우게 되었다. 지금도 아침이면 백운봉을 다니고, 형제우물이라는 천년수도 다니며 미륵장군님을 모시고 있다.

조병호의 어머니는 밀양 박씨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체국에서 일을 하였다. 신이 내리고 수양을 할 때는 백운봉에서 혼자 잤다. 미륵돌을 집 장롱 속에 모셔다 놓으니 어머니는 “니가 돈이 없어서 미쳤느냐”며 울기도 하고, 무섭다며 미륵 모셔놓은 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엽전점으로 한국전쟁 때 헤어진 큰 누님이 살아오신다는 점괘가 맞은 다음부터는 어머니도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조병호를 인정해줬다.

같이 살던 큰아버지는 “우리 집에 웬 무당이나”고 하며, 그를 몹시 때리기도 하고, 같이 죽자고 울기도 하였다. 큰아버지는 후손 없이 돌아가셨는데, 꿈속에서 자꾸 큰아버지가 사슬에 묶여서 “나 좀 제발 극락 좀 가게 해달라”고 비는 꿈을 많이 껴서 걸립항아리에 모셨다. 사실 큰아버지도 집에 우환이 있으면 신장대도 잡고, 경문도 읽으셨다는데 조병호가 정작 이 일을 할 때는 크게 반대했다. 걸립 항아리는 당에다 모셔놓았다. 걸립 항아리 안에는 쌀이 들어있다.

모시는 주신(主神)은 용문산 산신령이다. 제단에 백운봉 백호신령이라고 한 것이다. 신딸은 함석분으로 나이가 62세나 63세 정도 된다. 원래로 말하자면 조병호가 신아버지가 되는 거지만 그냥 오빠로 하기로 했다. 신딸은 재수굿을 잘 한다. 조병호의 선생님은 이병화로 손녀딸이 아마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성주받이는 봉화산이 있는 먹골 늑대할머니와 천호동 흑대부리 할머니, 장씨 보배 할머니 등에게서 받았다. 적어도 7가지는 해야 큰무당 노릇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 굿의 종류와 내용

자주 하는 굿으로는 진오기굿, 새남굿, 재수굿(운맞이굿, 재수맞이굿, 우환굿)을 자주 한다. 경기도굿이나 서울굿이나 다 비슷하다.

성주 안당제사거리는 요즘은 당에서 하지 집에서 잘 안 한다. 서울에서 많이 하고, 선바위에서는 국사당이 있어 꼭 진오기굿을 하고, 육영수 여사도 여기서 모셨다.

칠공주굿은 함경도 영흥 수한전에서 많이 한다. 바리공주 이야기로 “거수문 본이로다”하고 시작해서 제를 들고 공주를 말미하고 도령 들고 후실 들고 마지막 길을 가르고 나서 뒤영실 놀 때 귀신 영이 내려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게 된다.



양평읍 백안3리 약수사 조병호 법사의 점구인 엽전과 점상

화랭이패들은 주로 수원에서 이용우, 이병화가 유명했다. 광대 줄도 굴리고, 그때는 여자도 많이 (줄을) 탔다. 약사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이춘선, 이일선이 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 아들인 광수가 잘한다. 광수는 피리, 젓대, 해금까지 삼적을 다 불 줄 안다. 여기에 나팔과 장구까지 들어가면 삼현 육각을 갖추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은 잼이 없어도 많이 하는데, 잼이가 하나라도 없으면 신이 안 올라가서 광수 하나라도 부른다. 단골들은 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찾고, 자기가 일이 있을 때면 약사 사무실에서 불러서 보낸다. 지금 화랭이들은 다 죽어서 수원서 온 방식도 죽고, 조씨네 집도 할아버지가 만신이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화랭이였는데 죽었다. 경기도 이화자라고 만신 조합장에 경신회 조합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화랭이굿은 배워서 하는 것이라 신이 내린 만신하고는 다르다. 한 화랭이패는 시어머니가 만신이니까 아들 며느리가 깡깡이를 배워서 한다고 했다. 강릉에서 굿하는 애들도 다 배워서 하는 거라 별 거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창일 때는 강릉 경포대까지 놀러갔는데, 일단 우리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판을 벌리면 거기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실컷 먹고 놀다가 오는데, 강릉굿이 별로여서 우리끼리만 신나게 놀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젊었을 때 조병호는 춤을 잘 추기로 소문이 나서, 수입도 꽤 많이 벌었다. 별상 할아버지를 모시니까 치마 저고리를 이쁘게 입고 춤을 추었으며,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다녔다. 전라도에서도 왔다. 전라도에서는 화랭이를 사당패라고도 한다.

화랭이 큰굿 중에 수원 원대문 안은 아기태자 신령(사도세자를 뜻함)이 무당 공수이고, 김포 마루 통진은 새별상, 개성은 최영장군, 안산은 김부대왕, 적선 감악산은 빗돌대왕(장군 비석)으로 조씨네가 모시는데, 군인들을 모시면 군인 관련된 일은 다 잘 풀린다. 양평에서는 천존대왕, 비틀대왕, 함씨대왕을 모시고, 양평에서만 모시는 건 함씨대왕이다. 함씨대왕은 사

나사 절에서도 모신다. 함씨대왕은 충신인 장군으로, 함씨대왕을 모시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양평에서 함씨대왕은 함씨 자손들을 특히 살펴주신다(조병호의 할머니가 함씨 자손). 태백산은 천존(天尊)대왕을 10월에 천제 및 산제 지내며 모신다. 동해바다에서는 썰물과 밀물을 관장하는 용장군 마누라를 모신다. 마누라를 꼭 여자한테만 쓰는 말은 아니다. 주로 큰곳은 젊은 무당이 잘 하지 늙은 사람은 잘 하지 않는다.

무당 조종은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님, 산지 조종 곤륜산, 수지 조종 황해, 양반 조종 윤현 대감, 아이 조종은 대산 강화도령, 기생 조종은 맨드라미, 다리 조종은 노들다리가 있다.

병곳은 주로 상문 돌다가, 혹은 성주가 집을 옮기다 탈이 났을 때, 혹은 점을 치러 온 사람 중에 탈이 난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 무구(巫具)

- 큰머리 : 7공주를 모실 때 쓰는 것으로 활옷을 입고 용비녀를 꽂은 다음 '도령돈다'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
- 탕화(무신도) : 용문산 탕화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린 사람은 이씨인데 지금 85세이고, 그가 42세 때 그린 것이므로 한 45년 된 것이다. 그때는 주로 삼각산에서 사왔고, 지금은 대화나 망우리에서 많이 사온다. 홍용팔이라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다 그리로 간다. 지금은 왕룡사 쪽에만 있는데 과거 용두사가 헐리기 전 국민대가 있던 곳이 탕화를 팔던 곳이다. 지금도 천신당은 있다.
- 별상님 : 별상님은 화장한다고 꼭 화장품이나 거울을 갖다 놓는다.
- 명두 : 명두는 태양을 바친다고 해서 아침햇벌이 들게 문을 열어놓는다.
- 종은 아침에 한 번씩 쳐준다.

□ 경문(經文)

경문을 읽던 점쟁이로는 상대리에 천복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다. 글자공부를 전혀 안 해서 옥춘경은 못 읽는데 성주풀이는 매우 잘한다. 그런데 성질이 고약해서 후대에 하나도 전수를 해주지 않았다. 아직 그 신아들이 남아 있는데 화전리에 김성배라는 박수가 하나 남아있다.

□ 활동 범위

조병호 법사는 여주, 양평, 의정부, 포천 등지를 다 돌아다닌다. 제자들이 많아서, 일이 있으면 차로 와서 모시고 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간다. 걸어다닐 때(차가 없을 때)는 홍천읍 북방면, 가평, 청평, 설악면, 팔당, 수원, 광주 남한산성, 오산 등지까지 다녔지만 이천은 가지 않았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본토백이가 있고 조직도 탄탄하게 있지만, 양평은 딱히 그런 조직도 없고, 지역 구분이 있지도 않다. 다만 용문산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고, 겹칠 수도 있지만 겹치면 알아서 그만둔다.

이포나루에서는 삼선당곳을 지냈다. 삼선당은 용궁당(용왕), 산신당, 도당 유씨당이다. 도

당 유씨는 그 마을에 살던 원귀신으로 봄에 삼 년 걸어 한 번(즉, 격년) 지낸다. 당지기가 따로 있고 하는 무당이 따로 있긴 하는데, 그 무당이 제대로 안 해서 망했다.

인천하고 여기는 비슷해도 동해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배굿은 음력 7~8월에 했는데, 이때 했던 건 물고기도 잘 잡히고 8월 말이면 홍수도 지고 해서 배굿을 드렸다. 2월 초하루에는 영등맞이를 한강, 서산에서 했다. 인력거쟁이 할머니라고 서울서 인력거 끌다가 여기 와서 무당 노릇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점만 치고 남생이 풀어주는 방생만 했다. 한국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갈산하고 떠드령산에서 지냈다. 떠드령산은 갈산이 장마 때문에 떨어져 내려갔다고 해서 떠드령산인데, 거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안 오던 비가 꼭 왔었다. 떠드령산 언덕에 실타래를 놓아 20리 정도 내려온 자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떠드령산은 갈산보다 서울 쪽에 붙어 있는 곳으로, 지금 양평읍에 있다(오빈산). 배굿은 떠드령산과 갈산, 이포(음력 3월 용왕굿)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공이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강하면 성덕리 양남순 만신

양남순(80세)는 본래 서울 태생이나 16살에 성덕리로 시집을 왔다. 큰며느리를 맞이한 후로 7년 정도 앓다가 말이 나오면서 신내림을 받았다. 신 내려주신 어머니는 강원도에 계신데, 신내림도 거기서 받고 다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문화 유씨인데 일찍 돌아가셨다. 성덕리는 유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파평 윤씨다. 양평에 '기자'(만신을 부르는 말로 다른 말로는 '불귀자'라고 한다)는 조병호와 박보살이 유명하다. 두 기자는 모두 절을 아주 크게 꾸렸는데, 양남순은 집안이 엄해서 신내림을 받았지만 집안에서 손님들을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손님이 적은편이라고 하였다. 현재 성덕리 무속인은 양남순 밖에 없으며 도당국은 조병호가 만신 너댓 명을 데리고 와서 한다. 만신들은 양수리에서도 데리고 오고, 서울에서도 데리고 온다. 양남순은 주로 가을에 병굿, 성주풀이, 10월 상달고사 등을 해준다. 병원이 생기면서 병굿 하는 사람, 아픈 몸을 풀기 위해 오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12거리굿을 할 때는 두 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양평의 김보살이나 박보살과 같이 손을 잡은 만신들과 서로 도와주며 한다.

3) 지제면 일신리 구둔마을 만신 김○수(76세, 여)

김○수는 이문동에 살다가 30년 전에 구둔마을로 들어왔다. 마을 뒷산에 신당을 차려놓고 만신 일을 해왔으나 철거당한 뒤로 현재는 거동도 불편하여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단골들도 모두 떠났다.

고향은 이북인데, 피란 나와 처음에는 철원 근처의 금화에 들어갔다가 진전면 파전리, 의정부, 남양주 등지로 옮겨다녔다. 서울 이문동으로 이주한 이후 꿈에서 '은공'을 받고 이곳으로 와서 산신각을 지었으며 나중에 범당도 지었다. 당시 꿈에서 '구둔만 가면 산다'는 이



지제면 일신리 구둔마을 만신 법당



구둔마을 만신의 점구

아기를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자식이 여섯 명으로 살기가 더욱 힘들었다.

내림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사반’을 해주거나 엽전으로 점을 쳐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예전에 단골들이 많았을 때에는 여주, 별말, 일신리, 지평, 양동, 매곡, 무학리 등에서도 찾아왔었으며, 작년만해도 칠월 칠석이나 초파일에 손님들이 찾아 왔지만 현재는 찾는 사람이 없다. 주로 몸이 아파서 온 사람, 아기 못 낳는 사람을 위해 굿해주거나 고사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시골에는 채수굿은 없으며 고사반이 채수굿에 해당한다. 자신은 현재도 손님과 자손들을 위해서 새벽 5시가 되면 매일 불을 켜놓는데, 자식이 있을 때는 방해될까봐 새벽에 일을 못했지만 요즘은 시간이 나는 대로 경전을 읽는다고 하였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은 칠성님, ‘산불’, 신장님, 오방대신님, 산신님 등이다.

일신리에 만신은 자신밖에 없었으며 지평에 2명, 용문에 2~3명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 온 사람이 많다.

4) 개군면 상자포리 정옥순 만신

현재 74세로, 26세 때 만신이 되었다. 모시는 신은 산신, 조상신, 동자 등이다. 활동지역은 양평과 여주지만 제주도, 부산, 경상도, 충청도 등도 돌아다녔다. 성주풀이나 조상풀이는 성주를 맬 때 하는데, 쌀과 돈을 넣고 조상떡이라고 하여 조상마다 세 조각씩 담아 놓는다. 병굿을 할 때는 신장을 불태워 귀신을 잡는다.

2. 조병호 법사의 진적굿

‘진적굿’이란 말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무가에서는 만신이 무업(巫業)의 번창을 위해 무신에게 올리는 굿으로 자신의 생일에 많이 하며, 봄에 하는 것을 꽃맞이굿, 가을에 하는 것

을 단풍맞이굿이라고 한다. 조병호 법사는 이것을 신령님 진적굿, 또는 회덕(回德)굿이라고 하였으며 증적(曾積)의 뜻일 것이라고 하였다. 1933년생이니까 2002년 음력 3월에 칠순이 되므로 재수굿을 겸한 진적굿을 미리 계획하였다. 번잡을 피해 단골 신도들 20여 명과 제자 만신들, 신팔 등만 불러 5월 7일에 양평읍 백안3리 약수사에서 오전 10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진적굿을 열었다.

조법사는 19세 때 신병을 앓았고 23세 때 신을 받았다. 1984년에 신내림을 받은 터에 약수사를 세웠다. 모시는 주신(主神)은 용문산 산신령이다. 신당 제단에 '백운봉 백호신령'이라고 한 것이다.

굿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주당물림과 부정풀이
- 산신거리(조법사가 산신을 모시기 때문에 불사거리에 앞서 갖는다)
- 불사거리(불사, 천존, 일월성신, 칠성을 모시고 천궁맞이를 한다)
- 큰 거리(장군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등을 하며 별상거리는 별도로 한다)
- 무감(일반 신도들이 무복을 입고 춤을 춘다)
- 별상거리(작두를 탄다)
- 조상거리(대신거리와 같이 한다)
- 안당불사(제석거리다)
- 성주거리
- 창부거리
- 걸림(터주대감거리)
- 뒤틀거리



주당물림과 부정풀이로 법당, 산신당, 용왕당과 주위를 정화하고, 진적굿을 시작한다



불사거리의 한 장면. 조법사는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에 앞서 산신거리를 했다



천궁맞이. 하늘의 신명을 몸으로 받는 거리로 용사실, 또는 용궁사신이라고 부르는 향아리를 탄다. 향아리 안에는 정화수와 돈이 들어있다



산신거리에서 신장을 놀리는 거리로, 오방기를 뽑아 점을 친다. 빨간색 기는 큰 재수를 상징한다.



온돼지 사실세우기. 산신거리의 한 과정으로 통돼지를 삼지창에 끼워 세움으로써 신력을 보여준다



큰거리에서 김경애 만신이 대감거리 도중 쇠머리를 월도(月刀)로 세우고 있다



별상거리 작두타기. 별상장군이 만신 몸에 들어오면 그 신력으로 예리한 작두를 타고 공수를 내린다. 덕물산 최영장군을 별상장군으로 모신다

제4절 불교의례

양평의 대표적인 절로 상원사, 용문사, 사나사가 있다. 절에서 행하는 의례행사와 관련하여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용문사와 사나사의 불사를 주로 참관하였다. 절에서는 4대 명절로 음력 2월 15일(부처님 열반일), 4월 8일(초파일), 7월 15일(우란분제 및 모든 조상에 대한 천도제), 12월 8일(부처님 성도일, 성도제) 등을 꼽는다. 우란분제 대신 2월 8일(부처님 출가일)을 치기도 한다. 어느 때나 신도들은 조상에 대한 영가천도를 한다. 특히 용문사에서는 부처님 열반일인 음력 2월 15일에 은행나무 고사도 지낸다.

1. 사나사 성도제

2002년 1월 19일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사나사에서 성도제(成道齋)가 있었다. 의례 명칭은 「사나사 성도제일 철야정진 기도법회」였다. 참가한 신도는 40명인데 그 중 남자가 2명이었다. 장소는 사나사 대적광전이며, 관당은 1인 1만 원이었다.

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저녁 6시에 관당 예불이 있었고, 8시에 철야정진법회 입재식이 있었다. 9시에 천수다라니경 염불(20분 정도), 포살법문(잘못이 있으면 대중에게 드러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의 시간), 주지스님의 법문이 있었고 10시에 참선 실수(교육)가 있었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참선, 4시에서 5시까지 관음예문, 5시에서 6시까지 예불 불공 시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신도들은 특별한 행사 외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갖는 예불에 참석하는데 주로 초하루에 참석하고 보름은 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1시 반에 시작하여 끝나면 점심 공양을 하고 마친다. 용천리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강원도 살 때는 대부분이 부모 돌아가신 후 생신 때마다 생신차사를 올렸으나 이곳에 오니 올리는 집이 없다”며 그곳과 양평의 풍속이 다르다고 말해주었다.

입춘 때는 입춘 7일 기도를 한다. 이때 삼재풀이도 한다. 정월에는 대보름에 양평읍 갈산공원에서 방생법회를 가졌다.

사나사는 과거 양평 함씨 원찰(願刹)의 성격을 가졌던 절이고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 있다. 경내에 있는 함씨각(咸氏閣) 안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함규대사 마대장군 동상’, ‘현능함숙대부 동상’, ‘삼한 국대부인 연일 정씨 대부인 동상’ 등의 ‘성황신’ 직위와 관련있는 글자들이 적혀 있다. 대웅전 옆 함씨각 앞 비는 「當寺大功德主 寧越 辛氏 頌德碑」인데 “당 사나사는 지금으로부터 1,510여 년 전인 신라 경명왕 15년에 창건된 절이며 기간 수차에 걸쳐 재



목천면 용천리 사나사 경내의 함씨각에 걸려 있는 탕화

건 또는 보수를 거듭하여 오던차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법당과 요사가 전소된 것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거주하는 함명기(咸命基) 선생 영부인이신 영월 신씨가 재건하고 일신수보한 공적이 커서 송덕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다음의 사항도 적어 놓았다.

불기 2517년 甲寅(1974년) 4월 7일

住持 閔秉周 子 咸玟成 敬成 仁成 孫子 英祚 英祐 英夏

2. 사나사 예수재와 호마재

예수재(豫修齋)란 생전에 49재를 지내 미리 저승길을 닦는 불교의식이다. 저승사자를 미리 잘 모셔 죽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호마재(護摩齋)의 ‘호마’는 범어로 화제(火祭)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호마재는 화로에 유목(乳木)을 태워 부처에게 비는 의식인데, 사나사에서는 예수재와 더불어 이 의식을 행하였다.

2001년 6월 19일에 사나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호마재가 시작된 지 4주가 되어 4·7재를 행하였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금강경 독경 → 불공 → 축원 → 영단 및 신중단에서 법문 → 다시 영단으로. 그로부터 3주 후인 7월 10일이 49일째로 예수재와 호마재에 대한 회향재(回向齋)가 역시 사나사에서 있었다. 회향이란 원점으로 돌린다, 또는 공덕을 남에게 돌

린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먼저 영가시련이 있었고, 다음은 관욕, 신중 작법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후 1시경에 살풀이 법고풀이, 즉 법고춤이 있었고, 이어 축원, 영단 시식, 영가 위패 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대(燒臺)에서 호마패를 태우는 호마의식이 있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의식은 오후 3시에 예수재 및 호마재의 회향(回向)으로 끝났다.



호마목에 건강, 소망성취 등의 문구를 적는다



호마목을 다라니경으로 쓴다



호마단 위의 호마목



“삼계만령진제(三界萬靈眞帝)” 위패. 모든 영가(靈駕)들을 대표하는 위패다



남무대성 인로왕(引路王)이 인도하는 영가시련(靈駕侍輦) 행렬



영가시련 때 신도들은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 기원한다



영가시련작법(靈駕侍輦作法)의 한 장면



조상이 불보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숫대야, 찻술, 고무신, 옷가지 등을 준비하고 깨끗이 씻어드리는 관욕(灌浴) 의식을 행하고 있다



남신구(男身軀)와 여신구(女身軀)로 영가의 혼백을 상징한다. 깨끗한 몸이 되는 상징으로 남신구와 여신구를 태운다



관욕을 마치고 신주작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고 있다



수미단 아래 바닥에 모셔놓은 “삼계만령진제 (三界萬靈眞帝)” 위패



신도들이 생전에 미리 저승길을 닦는 불공을 드리고 있다. 예수재는 저승사자를 미리 잘 모셔 죽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



스님들이 나비춤을 추고 있다. 작법의 하나로 행해진다



법고춤, 불공의식의 하나로 법고는 홍고(弘鼓)라고도 한다



법고춤은 불전에 공양드리는 작법의 하나로 북에서 나오는 웅장한 소리와 북채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장삼자락이 장엄을 이룬다



시식(施食). 신도들이 영단을 향하여 영가에게 제사밥 공양을 드리고 있다



예수재단이 된 영단 앞의 "삼계만령진제(三界萬靈眞帝)" 위패



신도들이 조상 영가에 진을 올린다



영단 앞에서 절을 하는 신도들



예수재는 살아있는 부모가 사후 극락왕생하도록 비는 의식
이므로 영단을 예수재단(豫修齋壇)으로 설단하였다



사자단(使者壇).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사자인
운마(雲馬)와 낙타(駱駝) 10필을 봉청(奉請)
한다



생전에 지은 경전빛과 돈빛을 갚았다는 증명서가 든 함을
나누어주고 있다



증명서는 저승에 가서 시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 제출한다고 한다



봉송(奉送), 회향(回向) 의식의 하나로 태울 위패와 옷가지 등을 쌓아두었다.



호마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쌓아둔 호마목들



호마목과 함께 이승의 인연으로 상징되는 물건들을 태운다



호마단에 오곡을 뿌리는 회향의식을 하고 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의식은 오후 3시에 예수재 및 호마재의 회향(回向)으로 끝났다

제5절 군·현 의례

1. 용문산 은행나무제와 산신제

양평의 상징과도 같은 용문산과 그곳에서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은행나무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높은 관심은 봄과 가을 각기 두 차례의 의식행사에서 잘 드러난다. 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일에 용문사에서 행하는 은행나무제와 10월 16일에 양평문화원 용문분원에서 주관하는 영목제는 은행나무를 위한 행사이고, 4월 18일에 용문면 신점1리 주민들이 용문산 입구에서 행하는 산신제와 9월 20일에 백운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용문산령제례는 용문산 또는 산신을 위하는 행사다. 행사 주관자의 성격은 제각각이어서 산령제는 군청이, 영목제는 유림이, 은행나무제는 스님이, 그리고 산신제는 마을주민이 각각 주관한다.

1) 용문산 은행나무제

2002년 3월 28일, 음력 2월 15일에 부처님 열반일을 맞아 용문사 스님들은 은행나무에 고사를 지내면서 모인 신도들을 위해 조상에 대한 영가 천도 행사도 가졌다.

오전 10시 20분에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전부터 신도들은 은행나무 주위로 막걸리를 뿌리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지주스님은 “은행나무 대제는 과거에 나라에서 주관한 행사



용문사 은행나무 앞에 괘불을 걸고 단을 설치하고 은행나무 대제를 시작한다. 오른쪽에는 영단을 설치하였다



영가 제사. 이날은 부처님 열반일로 용문사에서는 은행나무에 고사를 지내면서 모인 신도들을 위해 조상에 대한 영가 천도행사도 가졌다



신도들이 많아 7명이 한 조를 이루어 영단에 붙인 조상위패에 절을 하고 있다



한 신도가 막걸리를 은행나무 주위에 뿌리고 있다. 유림들의 영목제에서도 행해졌던 이러한 행사는 당일 고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탐돌이가 끝나고 회향의식을 기다리는 신도들



영가 위패를 소대(燒臺)에 넣어 태운다



참석한 신도들이 각기 하나씩 받은 복주머니와 다라니경



복주머니에는 은행알이 다섯 개 들어 있었다

다. 뿌리가 든든한 은행나무처럼 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조상님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 나의 뿌리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행사에 임해달라"고 설법하였다.

오전 11시 40분경 상단 오른쪽에 설치한 영단에서 영가에 대한 제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인 스님이 따라 주는 잔을 만지는 것으로 신속히 진행되어 12시 20분에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도들은 스님의 인도로 탑돌이를 하고, 이어 소대에서 위패를 태우고 각자가 든 향을 던져 태우면서 행사가 끝났다. 신도들이 받은 복주머니에는 다라니경 쪽지와 은행 다섯 알이 들어있었다.

2) 용문산 산령제

용문산 산령제는 양평군청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백운문화제 행사의 하나다. 매년 9월 21일은 '양평군민의 날'로 각종 행사가 벌어지는데, 산령제는 그 전날 행사의 하나다. 장소는 양평읍 백안리 산중턱으로, 한창 전원주택 개발붐으로 어지러운 산밑 지대를 약간 벗어난 곳에다 제단과 용문산령(龍門山靈) 비 및 공터를 1995년 3월 22일에 착공하여 5월 13일에 준공하였다.

제관으로는 초헌관에 군수, 아헌관에 군의회의장, 종헌관에 양평문화원장이 각각 맡았고, 대축·집례·좌우집사는 문화원 이사들과 감사가 맡았다. 제관들은 모두 관복을 갖추었고 일반 참가자들은 유건과 유복을 입었다.

제의절차는 참신례→분향례→초헌례→독축→아헌례→종헌례→음복례→망료례→사신례로 유교식 제의형식에 따랐다. 제물은 은행, 밤, 대추를 까지 않은 채 왼쪽부터 놓았고, 비 앞으로는 계적과 육적으로 생닭 두 마리와 불에 그을려 익힌 통돼지 한 마리를 놓았



참신례와 초헌관인 양평군수의 분향례로 산령제가 시작되었다. 제의절차는 유교식 제의형식에 따라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사신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축(大祝)을 맡은 문화원 이사의 독축,国泰民安(國泰民安)과 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초현관 양평군수의 재배. 현관과 제관들은 모두 관복을 갖추었고, 일반 참사자들은 유건과 유복을 입었다



아현관 군의회회장의 헌작. 집례와 좌·우 집사는 문화원 이사들과 감사가 맡았다



중현관 양평문화원장의 헌작. 제물은 은행, 밤, 대추를 왼쪽부터 놓았고, 비 앞으로는 계적과 육적으로 생닭 두 마리와 통돼지 한 마리를 놓았다



초현관 양평군수의 음복례



참사자 일동 재배로 사신례를 행하고 있다. 제의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군 유지들로서 30여 명에 이르렀다

다. 오전 10시 반에 행사가 시작되어 12시경에 끝나고 음복 후에는 읍내의 지정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제의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군 유지들로서 30여 명에 이르렀고, 문화원 관계자와 여성회원, 그리고 공무원도 참석하였다.

3) 영목제

영목제(靈木祭)는 용문산 은행나무를 위하는 제사로 2001년 10월 16일에 9회째를 맞이하였다. 오전 9시 30분경 용문사 산기슭에서 산신제를 가졌고, 10시에 은행나무 앞에서 헌주제(獻酒祭), 11시에 용문산 입구에서 기원제 순으로 진행되어 11시 40분경에 행사를 마쳤다.

이보다 앞서 10월 5일에 양평문화원 용문분원 이사회에서 제일을 택일하고, 제관을 선정하는 모임을 가졌다. 영목제는 7회까지 분원이 주최하였고, 8회 때는 군 주최, 9회부터는 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다시 문화원 용문분원이 주최하게 되었다. 영목제의 제례절목은 당시 문화원 홍정표 운영위원이 비문과 함께 작성하고, 비 제목을 “호국영목은행수송비(護國靈木銀杏樹訟碑)”로 명명하였다.

□ 산신제(용문사 산기슭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

- 초헌관 - 조한현(평양 조씨 문장, 용문면 덕촌리 거주)
- 독축 - 김만선(강릉 김씨, 용문면 다문리 거주)
- 집사 - 박춘근(밀양 박씨)
- 제물 - 과일(밤·사과·대추·감·배, 껍지 않은 채로), 포 1, 적 1, 탁주 1병 등

□ 헌주제(은행나무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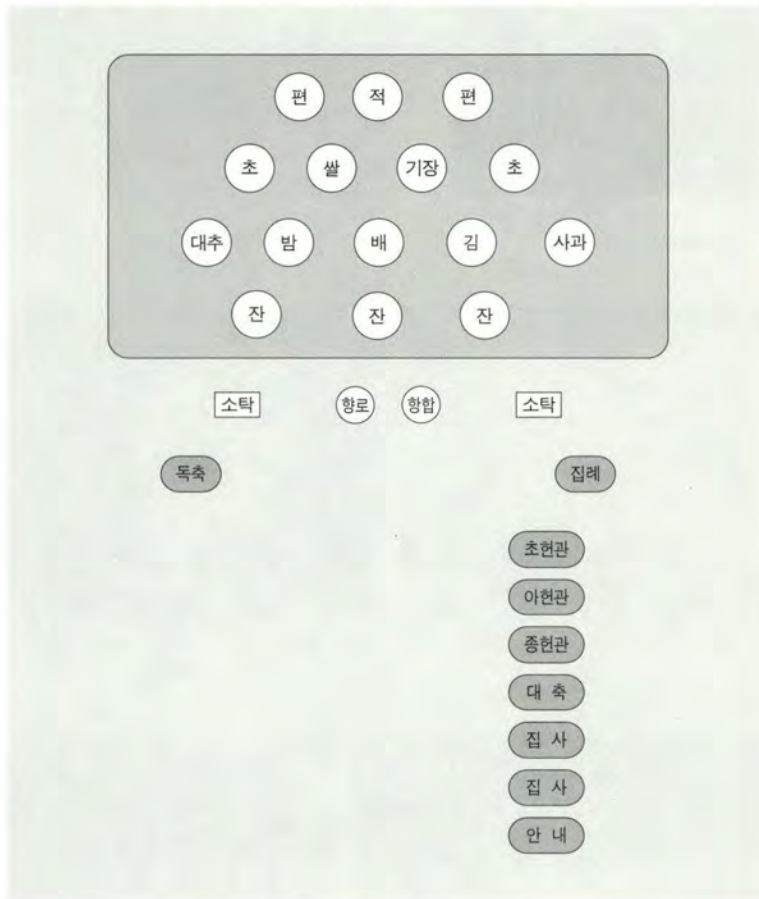
- 초헌관 - 박찬교(반남 박씨, 다문리 거주)
- 아헌관 - 김만선
- 종헌관 - 김창용(연안 김씨, 용문면 신점1리 거주)
- 독축 - 이교훈(전주 이씨, 용문면 다문리 거주)
- 우집사 - 조한현
- 좌집사 - 박춘근
- 제물 - 5색 과일, 포, 적, 식혜, 헌주 50병(은행나무에 뿌린 것은 10여 병)

□ 기원제(용문사 일주문 앞 송비 앞에서 11시에 경과보고, 인사말 등, 11시 20분에 본 제례를 시작하여 20분간 진행)

- 집례 - 이광(덕수 이씨)
- 초헌관 - 군수
- 아헌관 - 군 의회의장

- 종헌관 - 문화원 용문분원장 한규설
- 대축 - 이장협의회장
- 집사 - 우집사(새마을지도자 대표), 좌집사(청년회 대표)
- 제물 - 5색 과일(조·울·이·시·사과 순), 포, 적, 쌀, 기장, 편 2, 설탕, 식혜 등.

영목제단



□ 제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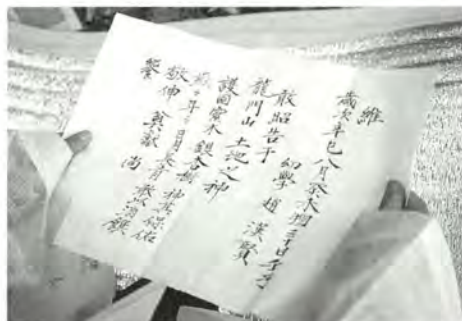
참신례 → 초헌례 → 독축 → 아헌례 → 종헌례 → 음복례 → 사신례(일동 재배) → 망료례
(헌관과 대축이 마주보면서 대축이 분축) → 예필(禮畢)



용문사 동쪽 산기슭에서 산신제 제관들이 참
신례로 일동 재배하고 있다



산신제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제물은 밤·사과·대추·
감·배 등 껍지 않은 과일과 포 1, 적 1, 탁주 1병 등이다



산신제 축관의 독축. 용문산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올리
는 축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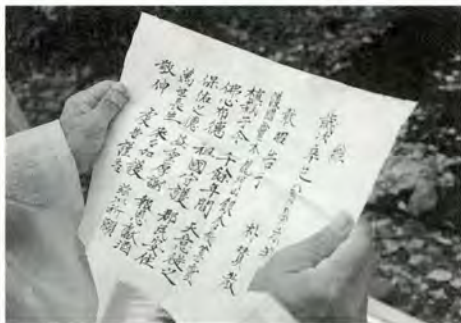
산신제 분축. 산신제 후에는 은행나무 앞에서 헌주제(獻酒
祭), 용문산 입구에서 기원제(祈願祭) 순으로 진행된다



헌주제가 시작되어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은행나무 앞의 제관들. 유림들이 주관하기 때
문에 제의형식도 유교식이다



현주제 독축, 은행나무를 호국영목(護國靈木), 즉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나무로 표현하였다



현주제 축관의 분축



현주의식을 행한다. 은행나무에 10여 병의 탁주를 뿌린다



용문산 입구인 용문사 일주문 앞에 세운 송비(頌碑) 앞에서 초헌관 양평군수의 감신례로 영목제 기원제가 시작되었다



독축, 제관 이하 참석자가 모두 무복한 가운데 이장협의회의장이 축문을 읽고 있다



축문은 은행나무의 은혜에 보답하여 올리는 제사(報恩奉祭)로 군민의 안택(安宅)과 국가의 융성을 비는 글이다



초현관 양평군수의 초현례



아현관 군의회의장의 아현례



중현관 양평문화원 웅문분원장의 중현례. 우집사는 새마을 지도자 대표, 좌집사는 청년회 대표가 각각 맡았다. 제물로 5색 과일을 조·울·이·시·사과 순서로 배열하고 포, 적, 쌀, 기장, 편 2, 설탕, 식혜 등을 놓았다



사신례로 제관 및 참사자 전원이 일동 재배하고 있다. 분축한 후 제의를 끝내고 음복례가 이어졌다

2. 지제면 봉미산 성황제

지제면 지평리는 과거 지평현 시절에 읍치로서 관아가 있었으며, 아전 등 관리들과 읍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현 단위 성황제가 행해지던 곳이다. 일제 때에도 면장을 낸 온양 방씨 주도로 행사가 지속되었다고 하며, 1993년경부터 양평문화원 지제분원에서 성황제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주관해오고 있다. 이곳 성황제를 진행하는 제관은 지금은 유교식 제례를 따라 초현관·아현관·중현관·대축·집사 약간 등 5명 이상을 선출하나 원래는 상유사·중유사·하유사 등을 생기복덕을 보아 뽑았다고 한다. 또한 과거 성황제 때는 당일 자정에 봉행한 후 이어 무당이 밥새 굿을 하였고, 주민들은 산에 올라가 기원하고 놀았는데, 사당패들도 와서 줄타기 등 공연을 하였다. 제일도 음력 3월 초순경이었으나 지금은 음력 2월 초순으로 1일에서 3일 사이에서 택일하며 당일 오전 10시경에 시작한다.



지제면 지평리 옛 지평현 관아터

성황사 건물은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복원하였는데 그것 또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허물어져 1998년에 조립식으로 새로 지었다.

성황제는 도가(都家)를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도가는 식구가 단출하고 부정이 없으며 행사기간 안에도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집을 선정하여 그날로 금줄을 건다. 제관을 제사일 일진에 맞추어 생기복덕을 보아 선정되면 그때부터 근신한다.

제의를 성황대주에 대한 제례와 오방신장에 대한 제례 그리고 소지 올리는 행사로 구성되며, 예전에는 제의에 이어 무녀가 주관하는 마당굿 행사가 있었다. 앞의 두 제례는 절차는 동일하고 단지 제물로 성황에는 백설기를, 오방장군단에는 팥시루떡을 놓는 것이 다르다. 소지는 호마다 일일이 올린다.



당 앞에서 집례가 홀기를 읽으며 제의를 진행한다



유교식 제례의식에 따라 초헌관과 집사가 초헌례를 하고 있다



당 안에서 초헌관과 집사가 부복한 가운데 대축이 축문을 읽고 있다



제관들이 사신례로 일동 재배하면서 성황제가 끝난다



집사가 당 뒤편에서 축문을 태우고 있다



제관들이 당 오른쪽에 있는 오방장군제단으로 옮겨 제를 지낸다



독축, 제물로 성황에는 백설기름, 오방장군제단에는 팥시루떡을 놓는 것이 다르다

3. 양근향교 추계 석전례

2001년 9월 21일은 음력으로 8월 초정일(初丁日)로 향교 석전례가 있는 날이다. 양평은 원래 양근군과 지평현의 두 고을로, 1908년 10월 14일에 하나의 군으로 합해졌으나 향교는 합쳐지지 않고 내려와 현재는 양평 서부 7개 면의 유림은 양근향교에, 동부 5개 면의 유림은 지평향교에 각각 나뉘어 관여한다. 양근향교는 1398년, 1678년, 1895년에 각각 중수(重修) 기록을 갖고 있다.

□ 양근향교 석전례 진행순서

- 진설을 마친다.
- 알자(謁者)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전설을 점검하고 나온다.
- 집례와 묘사(廟司)가 먼저 배위로 나아가 북향 4배하고 손을 씻은 다음 자기 위치로 나아간다.
- 알자와 찬인(贊引)은 다같이 배위로 나아가 4배하고 제자리로 나아간다.
- 찬인은 대축(大祝)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 대축 이하 4배 한다.
- 대축과 여러 집사는 판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 묘사, 봉향, 봉로는 주독을 열고 제기 뚜껑을 열고 복지를 거둔다.
- 봉향과 봉로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 찬인은 대축을 인도하여 전향문에 나아가 축판과 향궐을 받들고 향소로 나아간다.
- 제자리로 돌아온다.
- 알자와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간다.
- 참사자 전원 4배 한다.
-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
-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 분헌례(分獻禮)를 행한다.
-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 망료례(望燎禮)를 행한다.



석전례가 거행되기 전 제물이 진설된 대성전 내부의 모습



봉향과 봉로가 주독을 열고 있다



의식 준비를 마치면 참사자 전원이 네 번 부복(俯伏)하는 배례(拜禮)를 행한다



초헌관이 공자 신위 앞에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를 하고 있다



사준(司尊)이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다. 제주(祭酒)는 초헌 때 예주(醴酒), 아헌 때 양주(盎酒), 종헌 때 청주(淸酒)를 쓴다



초헌관 공자 신위 앞에 진작(進爵), 즉 잔을 올리고 있다



축관이 초헌관 좌측에서 독축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선현들이 모셔져 있는 배위(配位)에서 분헌례(分獻禮)를 하고 있다



아헌관이 아헌례를 하고 있다



증헌관이 증헌례를 하고 있다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례를 행한다



망료례(望燎禮)를 행하고 있다

4. 운계서원 추향제사

용문면 덕촌리 운계서원에
서 2001년 10월 7일 추향(秋
享)제사가 있었다. 이 날은 음
력 8월 21일로 운계서원에서
주벽(主壁)으로 모시는 용문
조욱(趙昱, 1498~1557) 선생
의 생신일이다. 원래는 매년 2
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춘
추 향제로 지내오던 것을 10월
9일 한글날로, 이후 10월 4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다가 지금은 생신날인 음력 8월 21일로 고정하여 지내게 되었다.

매월 갖는 서원 삭망제 중 추향제를 앞둔 음력 8월 1일의 분향제는 대분향이라고 한다. 이
때 추향 제관 등을 정하고 제주, 즉 술을 담기 시작한다. 서원 임원은 도유사와 장의 2명이
고,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봉향, 봉노, 봉작, 전작, 사준 등이다. 금년은
이 중 사준만 용문 선생의 후손, 즉 평양 조씨 중에서 맡았다. 1943년 이래로 지금까지 역대
제관 명단은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금록(靑襟錄)』에 기록되어 있다.

오전 11시에 추향제가 시작되어 12시 반경에 음복례와 망예례(望瘞禮)를 하였고, 이어 아
래 재실에서 점심식사가 있었다.



용문면 덕촌리 운계서원 소장 『청금록(靑襟錄)』



운계서원 소장 『운계서원沿革誌(雲溪書院沿革誌)』

진설도



진설 내용 중 포는 원래 대구포를 올리는데 북어포로 하였고, 녹해는 돼지고기로 대체하였다.
 윤계서원은 처음 향우(鄕宇)로 시작하여 1655년에 용문서원이 되면서 용문 선생과 형인 양심당(養心堂) 조성(趙晟), 굴우정(橋宇亭) 신변(申忞)을 제향하였다. 1714년에 용문서원이 사액되고, 같은 해에 향현사(鄕賢祠)가 설립되어 신변과 용문 선생의 손자 돈곡(遯谷) 조형생(趙亨生) 및 증손자 둔촌(遁村) 조문형(趙門衡) 세 선생을 제향하였다. 용문서원은 1871년에 훼손되었다. 1932년 복원 때 당시 향현사에 모시던 3위를 합쳤고 같이 모시던 권경우·권경유 양위는 그 이전인 1930년에 지제면 수곡리의 안동 권씨 문중서원인 수곡서원(水谷書院)이 설립되면서 그곳으로 옮겨갔다.

始祖 椿

：

12世

揚門

13世

守

14世

晟

昱

15世

舜賓

孔賓仁賓(配 李思紡 女)

16世

繼生

榮生

震生(直長)

亨生(遯谷)

益生(承旨)

謙生(宣傳官)

(장사랑공)

(處士公)

(마룡)

(퇴촌25호)

門宗

門衡(遁村)

門赫

29世

恒萬



신위 앞 진설. 신위는 왼쪽부터 돈곡 선생, 양심당 선생, 용문 선생, 굴우정 선생, 둔촌 선생 순이다. 가운데를 제일 높이고, 다음은 왼쪽부터 두번째, 네번째, 첫번째, 다섯번째 순서다



서원 중앙의 용문선생 신위 앞에서 관복을 입은 초헌관이 무릎을 꿇고 초헌례를 행하고 있다



추향제가 시작되어 관복을 입은 헌관들과 유복을 입은 제관 등 참사자들이 서원 건물 앞에 정렬해 있다



전폐례(奠幣禮), 즉 폐백을 올리는 예를 거행하기에 앞서 초헌관이 중앙의 용문선생 신위 앞에서 세 번 향을 올린다



초헌관이 축관으로부터 폐백을 담은 폐비(幣篋)를 받아 신위 앞 탁자(제상)에 놓는데 이와 같은 분향과 헌폐(獻幣)를 다섯 번 반복하여 각 신위 앞 탁자에 놓는다



사준(司尊)이 봉(封)한 술동이의 맥(棼), 즉 덮개를 열어 잔에 술을 따른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는 초헌례를 행하고 있다



다섯 위에 대한 헌작이 끝난 후 축관이 헌관 좌측에서 독축을 한다



창홀(鳴笏)하는 내용에 따라 의식을 진행하는 세 명의 현관
과 제관들



아현관이 양심당 신위 앞에서 아현례를 행하고 있다



종현관이 종현례를 행하고 있다



초현관이 음복례를 행하기 위해 축관으로부터 잔을 받고 있다



음복례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다음 현관 이하 참사자 일
동이 재배한다



망예례(望瘞禮)는 축문을 예감(瘞坎), 즉 구덩이를 파고 묻
는 예식이지만 망료례(望燎禮), 즉 태우는 예가 더 많다

여 백

제8장 노동요*

제1절 개 관

노동요(勞動謠, 일노래)란 육체적 일과 직접 관련을 가지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불리는 노래를 말한다. 노동요는 그 일의 종류에 따라 농요, 어로요, 임요, 잡역요 및 의식노동요로 나뉜다.

필자의 양평지역의 민요녹음은 1986년에서 1992년의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노동요로서 농요와 임요, 잡역요 및 의식노동요가 수집되었다.

농요(農謠)란 농촌생활중 농사일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불리는 노래를 의미한다. 직접 관련을 가지는 노래란 논매는 소리에서와 같이 농작물을 가꾸는 일의 현장에서 쓰이는 노래를 말한다. 밀접 관련의 예로는 마지막 논을 매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장원질소리를 들 수 있다. 농업노동의 결실로 얻은 산출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과 연관된 길쌈노래나 제분요도 광의의 농요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양평군의 농요로는 소모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맴소리, 타작소리, 밭맴소리, 길쌈노래, 디딜방아노래 등을 채집하였다. 임요로는 꿀베러가는 소리 등 나무꾼소리와 목도소리를 녹음하였다. 잡역요로는 집터다짐소리가 주를 이룬다. 의식노동요로서는 행상소리와 헛소리 등이 수집되었으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의 상부(喪夫)소리』¹⁾에 일부를 언급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지면의 허용내에서 그 중 몇 곡을 싣고서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 제8장은 이소라 집필임.

1) 이소라, 2000, 『경기지방의 상부(喪夫)소리』, 문화재청.

제2절 양평군의 노동요*

1. 소모는 소리〈양평 1〉

양평에서는 예전에 주로 쌍겨리로 논밭을 갈았지만 조사당시엔 호리소로 일한다고 하였다(개군면 이춘복 대담). 겨리소 모는 소리의 존재는 강원도 영향권임을 나타낸다.

〈양평 1〉은 쓰레질할 때 소를 독려하며 방향을 지시하는 소리이다. 말하거나 외치는 듯한 선율이라, 동음연타적(同音連打的)인 촘촘한 리듬에다 “이라 - ”하고 말끝(語尾)을 이따금씩 길게 뻗는다. 구성음은 미(솔)라도레(미)이다.

아래의 쌍겨리 가사는 〈양평 1〉과 동류의 선율로 가창되었다. 강원도에서처럼 오른쪽 소를 ‘마라소’, 왼쪽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있다.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쌍겨리
* 가락은 쓰레질(양평 1) 참조

최원산
89-6-5B

요 허 - 야에 - 에 - 이
마라마마 마라소야
너무 우기지 말고
제골을 찾아가거라 -
와냐 와냐 와냐 와냐 와냐하
마라소야 벌리질 말구서 제골을 찾아
이라 - 에
(“이제 전체 골고루 가는거여”라고 설명 들어갔음)
오호 - 호오, 안소야 슬슬 물러시고
마라소야 우기고 돌아를 -
안소야아 토시끝에 발다칠라
발조심하고 슬슬 돌아를 서거라
마라마마 마라소 너무 넘나
들지말고서 제골을 찾아서 돌아를 가거라 -
와냐 와냐, 와냐 와냐 너무 우기지말구

* 해당 노동요의 악보는 원고의 뒷부분에 일괄 수록하였다.

가거라 - 오호 오,
 안소야 슬슬 물러시고 마라소야 우기고
 돌아를 가거라. 이라 - 와냐 와냐,
 와냐 와냐 - 와냐하며는 안소가 너무
 우기지마러라 - . 호 호.
 돌아를 시거라 - , 어서 - 어서 소야
 가자, 해는 지구, 서산에 지는 해도
 중의 대가리 녹두알 굴리가듯 하는데
 이논배미는 얼른 갈구 가자면
 부지런히 빨리 가야지, 오늘두 이 논자리를
 못다갈구 가겠구나 호호 - 오오.
 오 - 이, 오 - 야

2. 모심는 소리<양평 2·3>

모심는 소리의 유형으로는 남한의 하나류와 상사류, 경상도 교창식 모노래류, 강원도류, 예천류 및 북한류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류를 부른다. 강원도류 모심는 소리의 예로는 자진아라리와 강원도어러리 및 민아리가 있다.

양평군의 모심는 소리로는 자진아라리<양평 2>와 민아리<양평 3>가 녹음되었다.

1) 자진아라리<양평 2>

<양평 2>는 개군면 제전리 토민인 이춘복 창이다. 받음구가 “아 - 에 -, / 아라리요 -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이다. (메)와 (받)이 각각 8분의10박 엇모리 1장단씩이다. 선율은 도미솔 구성의 도선법과 미(솔)라도의 미선법이 공존한다. 요성(搖聲)은 기음과 중간음(도선법의 미·미선법의 라)에 있으며, 기음에서 종지한다.

양평읍 백안2리의 윤갑돌(1914, 남, 토민)은 “심어주게 심어주게 삼배출 자리로만 심어주게”를 가창하였는데 민아리보다는 자진아라리에 가깝다.

자진아라리²⁾는 본디 함경남도 원산소리라며 양양군지역의 모심는 소리로 가창해준 양양

2) 요즈음도 경기민요 소리꾼의 공연 프로그램을 보면, 자진아라리 곡을 ‘강원도아리랑’이라며 가창하는 예들이 있다. 이는 유성기 음반시절에, 서울소리가 아니고 강원도 방면에서 들어온 소리라는 의미로 ‘강원도아리랑’이라 일컫던 것이나, 강원도 민중의 바탕소리인 ‘강원도어러리’가 따로 있는고로 필자는 <양평 2>의 곡풍을 자진아라리라 칭해왔다.

군 제보자가 있었다. 자진아라리는 강릉이나 강원도 고성군 일부 및 경기도의 가평군 가평읍, 여주시 침동면에서도 모심는 소리로 수집된다.

2) 민아리〈양평 3〉

〈양평 3〉은 양동면 석곡리의 모심는 소리이다. “에헤이 예에 - 헤, 심어주게 - 심어만 주 -, 오배출 자리루만 심어주게”에서처럼, 의미구 앞에 “에헤이 예에 - 헤”와 같은 긴 입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경상도 모노래에서와 같은 앞뒤 두 패 가사의 대구적 관계는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비고정장단곡(非固定長短曲)이며, 선율은 미선법과 도선법이 공존한다.

강하면 성덕리의 이흥이(1910, 남), 용문면 덕촌리 출신인 조재규(1922, 남), 옥천면 옥천3리의 김부성(1908, 남, 토민)도 민아리를 모심을 때 불렀던 것으로 나타난다.³⁾

민아리는 경상도 모노래가 북상하여 강원도로 와서, 보다 유장한 곡으로 약간 변개된 형태이다.

3. 논맴소리〈양평 4·14〉

양평군의 논맴소리로는 한마디 오하소리, 두마디 오호야류, 단허리류, 꿩엿네, 석곡 짹소리, 긴방아, 느린방아, 째튼방아, 상사, 민아리, 자진아라리 및 기타 칭칭이 등등이 녹음되었다.

1) 한마디 오하소리〈양평 4①·6②·7①〉

한마디 오하소리는 호미로 논을 매는 애벌매기 때에 느린 속도로 가창되는 경향이 있다.⁴⁾

이는 경기도 출처의 논맴소리로서 광주시·여주군·용인시·이천시에서는 두 마디 오호야소리와 공존하기도 하나 양평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4①>오하 오일 레헤 헤야(강하면 임장옥·홍순돌 창), <6②>오어이, 어허 어이야(개군면 이춘복 창), <7①>오하 오일 레헤 호야(강상면 이금봉 창).

(매)와 (밭)이 각각 느린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도선법<4①·6②> 또는 미선법<7①>이며 기음중지 한다.

2) 두마디 오호야류〈양평 5〉

용문면 덕촌리 조재규 창<양평 5>과 용문면 다문리 이천은(1917, 남, 토민) 창으로 수집되

3) 청운면 갈운3리의 오준용(1920, 남)은 모심을 때 강상면 병산리 여자들이 민아리를 잘 불렀다고 했다.

4) 〈양평 6②〉는 두벌소리로 녹음되었다.

었다. 받음구 예는 “오 호, 오 이/ 오 호이 오 하”〈양평 5〉와 “오호호이/ 오호호야”(이천은 창)이다. 한마디 오하소리에 비해 빠르게 가창된다. 이천을 중심으로 용인·안성·여주·광주·양평과 같은 동남부 경기도를 민요권으로 한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씩이다. 〈양평 5〉는 도미솔라도를 구성음으로 하며 도선법이다.

3) 단허리류 〈양평 4③·7⑤·9·12①〉

단허리류는 충북 충주시와 그 주변지역이 문화중심(cultural center)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동남부 방면인 양평·여주군과 이천·평택·안성·용인시 및 평택시와 인접한 화성시의 양감면과 장안면에서 녹음된다.

‘단허리’〈양평 4③·7⑤·9〉 또는 ‘대허리’〈양평 12①〉란 논지심을 매기 위해 허리를 굽힌 김에 단숨에 해치우자고 일을 독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평군에서는 지제면〈12①〉을 제외하고는 ‘단허리’의 경향이다. 충청도에서는 대허리 쪽이, 강원도에서는 단허리 쪽이 우세하다. 게재악보의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4③〉어 헐싸 단허 리야(강하면 임장옥, 홍순돌), 〈7⑤〉어허 일싼 단허 리야(강상면 이금봉), 〈9〉에하 어를신 단허 리야(양동면 석곡리), 〈12①〉오하 올싼 대허 리야(지제면 김순만).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4③·9·12①〉은 도선법이며, 〈7⑤〉는 솔라도레미의 솔선법이다. 〈9·12①〉은 기음중지하며, 〈4③·7⑤〉는 중간음 중지한다.

4) 꿩었네 〈양평 11①·12②〉

꿩었네류는 손으로 논을 훔칠 때의 소리이며 ‘꿩었네’란 논지심이 꿩아서 일하기 쉽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여주군과 용인·이천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안성군·광주시 및 양평군의 양동면〈11①〉·지제면〈12②〉·강상면(홍창원·이홍이 창)에서도 녹음하였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씩이며, 받음구 예는 〈11①〉“꿩었네 꿩었어/ 뎡이만 슬슬 굴러라”(양동면 석곡리), 〈12②〉“꿩었네 꿩어었네/ 뎡이만 슬슬 굴러라”(지제면 김순만)이다. 도선법(D2)에 속한다.

5) 석곡 짹소리 〈양평 8〉

〈양평 8〉은 양동면 석곡리의 최원산 창이다. 논매기꾼들을 두 패로 나누어 논매 올라가면서 교대로 부른다고 하였다. “에헤헤야,/ 에이 에 요이 -./ 에헤헤야/ 에헤야-”의 입말 가사를 3분박4박 4마디로 가창한다. 출현음은 (솔)도레미솔 ‘라’이며 도죽대선법(죽대D1)에 속한다. 죽대음인 도에서 중지한다. 요성은 도와 미에 있다.

6) 긴방아<양평 4⑤>, 느린방아<양평 13>, 짜른방아<양평 4④>

이들은 모두 맥반형식의 논매는 소리들이다. 긴방아는 자유리듬의 긴 입말 받음구로 된 유장한 소리이다. 짜른방아는 받음구 예가 “에이여라 방아요”<양평 4④>이며 (매)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씩인 반면에 느린방아<양평 13>는 동류의 받음구(에-, 이, 야 라, 방아요)를 가지고 느리게 부른다. 느린방아는 중거리방아라고도 일컬어진다.

<4④·13>은 도선법이며 <4⑤>의 출현음은 (라)도레미이다.

7) 상사<양평 4②·6①·7④·11②·12③>, 자진아라리<양평 10>, 민아리<양평 14>

경기도에서는 짜른 상사를 논맬 때 부르는 곳이 많다. 전형적인 짜른 상사는 (매)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며, 얼릴릴 상사형과 네넬넬 상사형으로 대별되는 바, 후자가 보다 경기도적이다.

양평에서는 얼릴릴 상사형이 지배적이다.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어릴릴릴 사앙사테야<4②>, 어릴러얼릴 사항사테야<6①>, 어릴릴릴릴 상사디아<7④>, 어(릴)릴릴 상사테야<11②>, 얼릴릴 상사테야<12③>. 계재악보의 출현음은 미라<4②>, 라도레미<6①>, 미라도레미<11②>, 솔도레<7④>, 도미솔라<12③>이다.

자진아라리<양평 10>를 양동면 석곡리에서는 두벌 논매기소리로 부른다. 석곡리의 모심는 소리는 민아리이다. <양평 10>은 (매)와 (받)이 각각 엇모리 장단(8분의10박) 4마디씩이며, 받음구 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이다. 도선법이며 중간 음인 미에서 중지한다.

민아리<양평 14>를 단월면 산음2리에서는 상사류, 단허리류와 함께 논맬 때에 부른다. <양평 14>의 가사내용은 경상도 모노래와 다를 바 없으나, 계재악보의 (A)부분에서 보면, 앞행(해-다-지고, 저무신 날에-) 보다 뒷행(웃갯을 하고 어텔-가쇼)의 선율길이가 매우 짧은 점이 서로 다르다. <14>는 도선법에 속한다.

8) 기 타

(1) 칭칭이<양평 6>

개군면 계전리 토민인 이춘복(1918, 남)은 논맬 때에 단허리나 민아리를 안부르고 상사테야와 한마디 오하소리에 이어 “꽤지나 칭칭나네”를 맥반형식(한사람이 매번 가사를 바꾸어 가며 맥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일정한 받음구로 받아나가는 가창방법)으로 가창한다. 방문 녹음한 군내의 다른 마을에서는 경상도가 출처지인 칭칭이를 논매면서 부르는 예가 없었다.

<양평 6>은 (매)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음조적은 미선법(M2)에 기음의 6도윗음에서 중지하고 기음과 그 4도윗음에 약한 요성이 있다.

(2) 변격 논김방아타령〈양평 7②·7③〉

이들은 여주군에서 출생한 이금봉(1936, 남) 창으로, 〈양평 7③〉의 받음구 예는 “호호 호호이./ 헤 헤헤 헤헤 아하/ 예야 데야 에헤 야./ 방 아가 논 다”이고 〈양평 7②〉의 그것은 “호호 호호이./ 헤 헤헤 헤헤 아하/ 예야 디야 에헤 야./ 헤 헤에야 헤헤 예”이다.

양자 모두 받음소리가 3분박4막 4마디이다. 그 선율과 받음구는 제4마디의 노랫말을 제외하곤 차이가 근소하다. 논김방아타령⁵⁾의 변형으로 보인다.

4. 타작소리〈양평 15〉

양동면 석곡리의 〈양평 15〉는 자리개를 가지고 묶은 벼단을 개상에다 매어쳐서 낱알을 떨굴 때의 소리로 양평군에 근접한 홍천군⁶⁾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경기도의 일반 마을에서는 “어여차”라든가 “어 두르나” 또는 “휘 차”처럼 힘껏 내리치며 자연발생적으로 내지르는 외침 정도에 머무른다.

옥천면 옥천3리에서도 벼타작을 할 때 “어여차”, “이여허”하면서 내려치는 정도라고 했다. 개군면의 이춘복은 “후후후”를 받음구로 쓰면서 “앞마당은 앞노적”하고 맥어나갔다(필자 소장태잎 素89-5-8②B). 청운면 갈운3리의 오준용은 벼타작할 때 “우 우”할 뿐이라 하였다. 용문면 다문4리의 이천은은 자리개질 할 때 “빨리쳐라 빨리쳐”하고 외칠 뿐이며, 석곡리류는 모른다고 했다.

〈양평 15〉는 맥받형식이며, 받음구가 “자자자자/ 예허리 자자”이다. 정형적인 경우는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막 2마디씩이며, “체통앞에, 벼쌔였으니/ 녀가래루, 밀어내”처럼 메김구가 4음보씩이다. 그 1음보는 3자 내지 5자씩이다. 벼타작을 하여 벼가 쌓이니 노적가리의 중봉에 봉덕새가 자리를 본다는 뿌듯함을 가사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율은 미선법(M2)을 기초로 도선법(D2)이 공존한다.

개군면의 이춘복은 “넘어간다”를 받음구로 하는 맥받형식의 도리깨질소리를 가창하였다. 메김구로는 “도리깨 꼭지가 말렸네” “막걸리루다 발리보자” 등인데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막 1마디씩이다.

5) 이소라, 1997, 『파주민요론』, 파주문화원, 〈파주 2〉 참조

6) 이소라, 1989, 『한국의 농요 제3집』, 민속원 복간, 〈악보 358~361〉 참조.

5. 발맴소리

서종면 정배2리의 박귀빈(1930, 남)은 무더위가 지나고 풀비러 나가기 직전에 밭을 매다가 석양으로 해넘어 갈 즈음에 민아리를 부르곤 했으며, 논맴 때는 민아리를 안불렀다고 했다. 그가 부른 가사 중엔 경상도 모노래의 대표적 노랫말 중의 하나인 “침의 집은 꽃밭이고 나의 집은 연못이라” 등이 들어있다(素89-5-9B).

개군면의 이춘복은 신세타령을 자진아라리 곡풍으로 불렀다(素89-5-9A). 양동면의 최원산은 부인네들이 시집살이를 한탄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원도어러리 곡에 얹었다(素89-6-5B).

사촌성님이나 신세자탄을 창부타령 곡풍에 얹어 부른 예(강하면 윤간난, 1913, 여·강상면 김화자, 1923, 여)도 있다.

6. 길쌈노래〈양평 16〉

길쌈노래란 대마, 저마같은 섬유식물로부터 삼을 삼아 실을 만들고, 베틀로 베를 짜는 과정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를 일컫는다. 양평군에서는 삼삼기, 물레노래, 베틀노래가 녹음되었다.

양평군 청운면 오준용 창이 삼삼기는 “한발 두발 다 삼으면 열두발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야 삼동세 저달 넘어가도록 삼으만 보세”의 노랫말을 자진아라리 곡풍으로 가창했다.

물레노래는 물레가 빙빙 ‘돌아가는 것’을 언급한 가사가 많으며, 〈양평 16〉도 그러하다. 선율은 전라도에서 흔히 녹음되는 산아지 곡풍⁷⁾과는 다르다.

베틀을 소재로 한 노래로는 “오늘날도 하 심심헌데 벼틀이나 놓아나 볼까”로 말문을 여는 일반형이 수집되었다.

7. 디딜방아노래〈양평 17〉

〈양평 17〉은 개군면 이춘복(1918, 남) 창으로, 부인네들이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 보리방아를 찧어서 보리밥을 준비하는 일상생활을 읊었다. 디딜방아노래의 일반형은 자진아라리

7) 산아지 곡은 섬진강 유역 토민의 바탕소리로서 논맴소리, 창원질소리, 씨름판의 용원가로 애창되었던 곡으로, 천도아리랑은 산아지곡의 메김소리를 그대로 원용하고 발음소리만 변화시켰다.(이소라, 2002, 『광양의 민요』, 광양문화원)

곡풍에 었어 덜커덩 쫓는 방아를 부르는 것이나 <양평 17>은 이것에서 벗어난다.

8. 나무꾼소리, 목도소리, 지경소리 <양평 18>

지계목발을 툇탁치며 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던 나무꾼소리로는 어랑타령(개군면의 이춘복), 위음아리랑(강하면의 홍순돌) 등이 애창되었다. 용문면 조재규 창은 아래와 같다.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나무꾼소리

조재규(1922, 남. 덕촌 출생. 1983년에
양평읍 백안2리 이주) 창
86-4-10-3A

가자 나무들 다 했다
야 어리 가자
내려간다 - 내려간다
앞발 뒷발 다치지 말고
무거운 짐지고 내려간다
야 - 내려간다
오 호 내려간다
어호야 내려간다
저기 저사람 나보고 웃지말게
늙은이 남구지고 간다고 웃지마라
오호야 내려간다
워 허 내려간다
어허 이 집은 어느집으로 갈껀가
우리집이 치다가 우리 아들딸
불때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따뜻한 방에 불땔라고
내가 나무를 지고간다
오호야 내려간다
오호야 오하
오호호야 오호하
오호야 오호하

목도소리는 예전부터 전국적으로 부역에 동원되어서인지 통민요적이다. 청운면 오준용 창도 일반형에다 “외나무/ 다리가/ 요기로/ 구나”하고 이따금 의미구를 넣는 형태였다. 옥천면의 김부성·심광래 창도 일반형이다.

지경소리로는 지경류〈양평 18〉가 수집된다. 지경류는 경기도가 출처지인 집터다짐소리이다. 개군면 이춘복 창인〈양평 18〉의 받음구는 “에이여라 지경이요”이며, (메)와 (받)이 각각 8분의7박 1마디씩으로 8분의12박(3분박4박) 1마디씩인 일반형과는 구별된다.

옥천면 김부성·용문면 이천은·서종면 박귀빈·강상면 이흥이·강하면 임장옥 등과, 단월면 김순환 등·청운면 오준용 등의 받음구도 “에이여라 지경이요”이나 8분의12박 1마디로 가창된다. 양동면 최원산 창외 받음구는 “어기여차 지경이요”이나, 실제 해보진 않았다고 하므로 참고용이다.

〈양평 18〉은 술선법(S1)에 속한다. 옥천면 김부성과 서종면 박귀빈 창도 술선법에 든다. 그 이외의 상기 가창자들은 도선법 계열로 노래하였다.

제3절 양평군 노동요의 특색

의식노동요를 제외한 노동요 중에서 어로요나 모찌는 소리는 따로 없고, 모심는 소리와 논맴소리가 대종을 이룬다. 그밖에 거리소 모는 소리, 집터다짐소리, 타작소리(자리개질·도리개질), 길쌈노래, 디딜방아, 목도소리, 나무꾼소리도 수집된다. 거리소를 몰 때는 강원도에서 처럼 오른쪽 소를 마라소, 왼쪽 소를 안소라 이름하였다.

모심는 소리로는 민아리와 자진아라리가 불리는 바, 이는 강원도 영향권임을 나타낸다.

논맴소리로는 ① 한마디 오하소리, ② 두마디 오호야류, ③ 단허리류, ④ 꿇었네, ⑤ 석곡 째소리, ⑥ 긴방아, ⑦ 느린방아, ⑧ 짜른방아, ⑨ 상사, ⑩ 민아리, ⑪ 자진아라리 및 ⑫ 칭칭이, ⑬ 변격 논김방아타령류가 수집되었다. ①과 ②, ④는 이천 등 한강 이남의 동남부 경기도가 문화중심인 논맴소리이다. ③은 충주시와 그 주변이 문화중심에 있으며 충청도 방면은 대허리가, 강원도 방면은 단허리가 우세하다. ⑫는 경상도가 출처지인 장원질 내지 파연곡(연회를 파할 때 부르는 노래)이며 개군면에서만 그 예가 있었다. ⑬은 경기도가 출처지인 긴 입말을 특징으로 하는 논김방아타령의 변격으로 보인다. 논김방아타령은 동부와 남부 경기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다.

석곡 벼타작소리에는 홍천군 방면의 영향이 엿보인다. 목도소리는 통민요적이다. 집터다 짐소리로는 경기도가 출처인 지경류이며, 받음구는 “에이여라 지경이요”가 지배적이다.

음조적으로는 술선법 계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선법 내지 미선법이 지배적이다.

이리하여 양평군의 노동요는 경기도적인 것과 강원도적인 것이 공존하나 후자의 영향이 조금더 두드러지는 민요권임을 볼 수 있다. 석곡 짚소리 등 개성적인 면도 있으나 전파권은 매우 좁다.

양평 1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쓰레질

최원산(1916. 남. 토민) 창
素89-6-5B

$\text{♩} = 150$

이 라 — 하 — 어 — 어 디 여 어 디 여 어 디 여 허 — —

말 래 을 라 — 서 라 쉬 이 라 — —

어 디 어 디 어 디 여 어 디 여 — 말 래 을 리 서 지
(빨 리)

어 디 를 말 령 비 키 느 냐 —

어 서 — 가 자 네 대 가 리 에 모 — 춤 을 리 가 겠 다*

이 리 — 허 — 이 어 디 어 디 어 디 어 디 어 디

이 — — 슬 슬 돌 아 를 시 거 라

* 소가 빨리 가지 못하면 모꾼들이 모춤을 쇠머리에 올려놓기 십상인 것을 형용

양평 2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모심는 소리

이춘복(1918,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89-5-8-2B)

- (받) 아— 에—, 어라리요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메) ○ 여보소 농부들 말들어 봐요이
서마지기 논배미가 조금 남았네
○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 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
○ 천하지 대본은 농사라는데
어허두나 일꾼들아 힘써 보세
○ 천하지 대본은 농사라는데
어허두나 일꾼들아 농상에 힘써
○ 신농씨 본을 받아 농사를 질제
높은데는 밭출 풀고 낮은데는 논이로다
○ 밭에나 농사를 지여 보자
무씨네〈무슨〉 곡식을 심어 볼까

$\text{♩} = 170 \sim 180$

(메)

만 리 에 타 향 에 강 남 콩 심 고 — 이

치 — 러 형 치 — 령 에 찰 수 수 로 다

(받)

아 — 에 — 아 라 리 — 요

아 리 랑 — 고 — 개 로 넘 — 어 간 다

(매)

- 방정맞인 질금테도 심어 놓고
부모 몽상 히뵈는지 흰콩도 심어
- 밭에나 농사를 다 심었지만
논에해 곡식을 심어 보자
- 은방주라 금방주라 은방주 심고이
두덩이 높어서 남실대라
- 이팔 청춘에 팔달베요
여주야 이천은 자차베로다
- 가을걷이를 당하일적에
우걱뿌리 자걱뿌리 제각 실어
- 안마당 에룬다 안노적이요이
뒷마당 상에는 대주의 노적
- 옆에 노적은 동자노적
바깥 노적은 거리노적이여
- 일년 농사를 지었으니
가을에 고사나 빌어 보자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민아리

(A) 최원산(1916, 남, 토민)
(B) 최원산, 김홍규(1922, 남)
신인업(1915, 남, 토민)
오종완(1925, 남, 토민)
素89-6-5A

- (A) 에헤이 예에 — 헤, 심어주게 — 심어만 주 —
오배출 자리루만 심어주게
(B) 에 에이 예어 — 헤, 오늘의 날은 앞들에서 모심고
내일의, 에이 날은 뒷들로 가세

$\text{♩} = 150$

(A)

에 헤 이 예 에 에 —

헤 는 지 고 — — —

저 문 — — 날 에 — — —

일 소 — — 을

에 에 이 — 빨 리 — 나 —

돌 려 를 — 보 — 세

(B)

에 이 — 예 — — —

에 — — —

지 여 가 네 — — — — —

지 여 — — 만 — 가 네 — —

점 심 — 의 — 에 이 참 이 나 —

지 여 — — — — 가 네

○ 에 헤이 예에 — 헤에에
 오늘의 해도야 — 다 갔는지 —
 꿀 꿀 — 에헤이 마독에
 그늘이라

양평 4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 · 왕청2리

논맴소리

(메) 임장옥(1910, 남, 운심2리 출생,
17세에 왕청 이주)
(반) 홍순돌(1914, 남, 운심2리 출생,
20세에 왕청 이주)
素92-11-2A

① 오하 - 호미 -

♩. = 43

(메) α



오 하 오 일 레 헤 헤 야

- (메)
- 여봄소 농부님네
 - 이내 말을 들어를 봄소
 - 농자 천하 대본이라
 - 농사 한철을 지여를 보세
 - 높은 데는 밭을 갈고
 - 얇은 데는 논을 풀어
[낮
 - 자진<갓은> <곡식을> 심어를 보세

♩. = 55~60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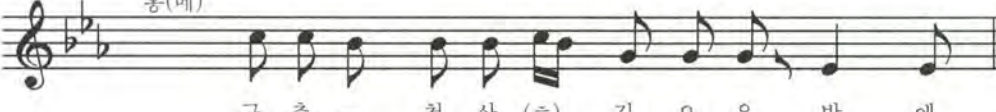
우 물 앞 에 는 샘 - 다 리 요

(반)



오 하 오 이 오 - 흘 레 - 야

홍(메)



구 추 - 청 산 (ㅎ) 깊 으 은 밤 에

- 홍(메)
- 하늘 높고 달 밝은데
 - 울구 가는 저 기러기
 - 객의 수심 돌우 놓고
 - 수잘 놓던 장자방은
 - 객의 수심 돌우 놓고

- 양평의 문화유산

③ 단허리 - 많이 부르진 않는다 -

♩. = 55

(메) 임장옥 (반) 홍순돌

(메) α

어 헐 싸 단 허 리 야

(반)

어 헐 싸 단 — 허 리 야

(메)

여 뽕 소 농 부 — 님 네

- (메) ○ 이내 말을 들어를 보소
○ 농사 천하 대본이라
○ 농가 한철을 지여를 보세
○ 방정 맞다 쥐눈이 콩이요
○ 올목 졸목 청태 콩이며
○ 만리 타국에 강남 콩이며
○ 가진 덕태를 심어 놓고
○ 가진 더를<벼를> 심어를 보세
○ 우물 앞에는 샘달이요

④ 짜른 방아

♩. = 46~54

(반)

에 이 여 라 방 아 — 요

홍(메)

여 보 시 — 요 농 부 — 님 — 네

임(반)

에 이 여 라 방 아 요

- 흥(매) ○ 이 내 말을 들어 보소
○ 올해는 다 풍년이 되면
○ 이밥도 먹고 잘들도 놀세
○ 에이 여라 방아요

⑤ 긴방아

$\text{♩} = 150$

입(반)

이 이 예

이 이 히 이

-이하, 실음은 반음 더 낮음-

아 아 하 아

오 이 예

입(매) ○ 여보시오 농부님네

* 흥순돌 : 20~30살 때 한창 노래하며 논맸다.
논맬 때는 북이나 장구를 치며 노래한다.
장원질 때는 농악만 울린다.
모심을 때는 노래 안했다.

양평 5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두마디 오하소리(논맘)

조재규(1922. 남, 덕촌출생, 1983년
에 양평읍 백안2리 이주)
素86-3-9-1A

♩. = 60~67

(받)

오 호 오 이

오 호 이 오 하

오 하 소 리 는

왜 소 리 나

오 하 소 리 에

어 깨 를 맞 켜

- (매)
- 오하 하는 군방님네
 - 이내 말씀 들어 보소
 - 앞을 보고 뒤를 보고
 - 옆에 줄을 맞춰 논을 맬제
 - 한잔 먹고 두잔 먹으니
 - 신명이 저절로 나네

양평 6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논맴소리

이춘복(1918, 남, 토민) 창
89-5-8-2B

- 단허리, 민아리는 안불렀다 -

① 상사 - 애벌 -

♩. = 33
(발)

어 려 얼 려 사—항 사 데 — 야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the first line of musical notation for the song 'The Little Boat'. It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time signature is 12/8. Above the staff, there is a tempo marking '♩. = 33' and a rehearsal mark '(발)'. The melody begins with a quarter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n eighth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After a quarter rest, there is a quarter note A4, an eighth note G4, and a quarter note F#4. This is followed by a quarter note E4, an eighth note D4, and a quarter note C4. The line ends with a quarter note B3, an eighth note A3, and a quarter note G3. The lyrics '어 려 얼 려 사—항 사 데 — 야' are written below the staff, with hyphens indicating that the notes are sustained across multiple syllables.

(매) ○ 어허 농부들 말들어 봐라하이
○ 하루 배미를 네길 적에
○ 아침 밥은 먹었건 마한

♩. = 67
(매)

제 노 리 참 이 늦 어 간 다

(메) ○ 점심 밥이 늦어 간다

② 오하 - 두벌 -

♩. = 26

(반)

12 8

오 — 어 이 어 허 어 이 야

♩. = 30~37
(♩)

여 보 호 시 요 농 부 님 네

(매) ○ 이상 세상을 사시려 혈제
○ 인간 백세는 사자구 해두
○ 병든 날과 잠든 날과
○ 걱정 근심을 다 제하니
○ 단 사십을 못 사는 구나

- 시월 니월 가지를 마라
- 시월이 갈래면 너 혼저 가지
- 우리네 인생을 왜 늙어 주나

③ 칭칭이 -세벌-

♩. = 60~70
(반)

* 메김소리 때 논매고, 받음소리 하면서 일어나 춤춘다

패 지 나 칭 칭 나 네

(매) ○ 여봐라 농부 들

(매)

서 — 마 지 기 — 논 배 미 자

- (매)
- 반달 만치 남었구나
 -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 월추<월출> 동녘 달 솟네이
 - 집이가구가두 늦어 가네이
 - 이만 저만 고만 두고
 - 집이 가서 부모 모시고
 - 부모 처자를 사랑 하세이
 - 오뉴월이라 단 밤에
 - 단잠을 다가 못자는 구나

양평 7

여주군 금산면
양평군 강상면

논맴소리

이금봉(1936, 남, 금산 출생, 법명은
이해인, 일승종인 관암사 주지)
89-5-9A

① 오하소리 - 호미로 매는 소리 -

♩. = 23~29

(반)

오 하 오 일 레 헤 호 야

(메)

먼 데 사 람 — 은 듣 기 — 만 좋 게

(메) ○ 옆에 사람은 보기만 좋게

② 변격 논김방아

♩. = 41~48

(반)

노 세 노 — — 세

젊 어 청 춘 에 뉘 시 — 다

(반)

호 호 호 호 이 — —

헤 헤 헤 헤 — 헤 — 야 하

에 야 아 디 야 에 헤 야 —



③ 방아가 논다



④ 상사



(메) ○ 서마지기 논배미가 / 반달 만큼 남았으니 /
○ 어허 니가 무슨 반달이나 /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

⑤ 단허리



양평 8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석곡 짝소리(논맴)

최원산(1916, 남, 토민) 창
素89-6-5A

- 두 패가 논매 올라가면서 교대로 부름 -

♩. = 40~46

〈북〉 에 헤 헤 야 / Sim.

에 이 에 요 이

에 헤 헤 야

에 헤 야

- 마칠때는 “우—”하고 외치고 나온다. 이때 북은 짚게 동동동동 거리는 리듬으로 쳐준다 -

양평 9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단허리

(매) 최원산(1916, 남, 토민)
(받) 신인엽(1915, 남, 토민)
오종완(1925, 남, 토민)
김홍규(1922, 남)
素89-6-5A

♩. = 35~40

(매) α

최<북> 오 하 오 을 신 단 허 리 야

/ Sim.

(매) 여 북 소 하 구 두 농 부 님 네 들
(받) 에 하 어 을 신 단 허 리 야

(매)

농 사 나 한 철 을 지 여 나 북 시 다
(받) 에 하 어 을 신 단 허 리 야

(매) 리 야
본

농 사 는 천 하 지 대 본

- (매)
- 농사에 힘을 써 봅시다
 - 어머네 전답을<전답이> 마련이 되었나
 - 높은데 있으면 천궁 지기
 - 낮은데<낮은데> 있으면 지동 지기
 - 어머네 <벼를> 심었더냐
 - 인간의 칠십에 노인네 심었나
 - 추메 넘에나 산들여 심었나
 - 여주나 이천에 옥자매기 심었네
 - 연안에 백천에 밀다리 심었나

- 방주나 보현에 사발벼 심었나
- 우물 앞에나 썸따리 심었나
- 많이나 먹어서 등독이 되나
- 작게나 먹어서 잔달이 되나
- 마당에 쓸벼기 김불기 심었나
- 이름이 좋와서 월남미 심었나
- 어떠네 찰을 심어나 볼까
- 인간의 칠십의 노인찰 심자
- 혼자서나 먹어서 두야지<돼지> 찰인가
- 곡곡에 푸드득 장끼찰 이나
- 아르를 따르륵 까투리 찰이나
- 더우네 더우네 녀살찰 심었네
- 추섬의<추수의> 농사를 지어나 봄시다
- 갈보리 봄 보리
- 귀리 배물 다 갖췄네
- 올콩에 절콩에 정대콩 이나
- 방정 맞다 진오니 콩이야
- 오조 메조를 다 갈았더니
- 우런 농사를 지어나 보세
- 예수 백살이 심었더니
- 사해왕 용왕이 물을 주어
- 홍두께 열음에 방맹이 열음
- 우줄 우줄이 매쳤구나
- 칠팔 월이나 당도 하니
- 앵두 발두네 여한<여자> 님은
- 뚜아리 받쳐서 며 들이고
- 말매 같으네 낭별갑은<남정네는>
- 지게나 받쳐서 저들이고
- 왁쪽에<동쪽에> 발이나 서쪽에 발이나
- 와각에 지각에 실어 다가
- 앞에나 가려서 앞노적 쌓고
- 뒤에나 가려서 뒷노적 쌓세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자진아라리(두벌논매기)

최원산(1916, 남, 토민) 창
素89-6-5A

♩ = 90



(메) ○ 예수나 백가지 심었더니
사해나 용왕이 물을 주어



(메) ○ 앵모나 같으네 여화 님은
또아리 받쳐서 여 들이네
○ 말매나 같으네 말영감은
지게나 받쳐서 저 들이네
○ 왁쪽에 발이나 <서>쪽 발이
별 베기 하구도 노비 걸이
○ 엉덩이 없으면 횡경소요
부랄이 없으면 내관 소라
○ 넘어 갈제는 빈 발이요
들어나 올 제는 찬 발이라
○ 와각에 지각에 실어 다가
앞에나 가려서 앞노적 쌓자

- 뒤에나 가려서 뒷노적 쌓구
옆에나 가려라 옆노적 쌓자
- 여주나 금상에 부인 마마
들 구경을 나가소서
- 떨어진 곡석이<곡식이> 아깝다구
모지랑 비루다 떨어다가
- 앞에나 가려서 앞노적 쌓구
뒤에나 가려서 뒷노적 쌓세
- 참깨나 노적 들깨 노적
앞이에<앞뒤에> 다가루 쌓아 보세
- 앞뒤에다 쌓았더니
날아를 가느네 봉덕 새가
- 중봉 에다가 자릴 보고
상봉 에다가 새길 쳤네
- 한 나래를 등당 치면
이리나 천만석 점지를 해
- 또 한 나래를 등당 치니
저리나 천만석 점지로다
- 무지개 발루나 후린 듯이
서기나 발루나 째은 듯이
- 높으나 산에는 눈 날리듯
얕으네 산에나 재 뿌리듯
- 억수나 장마에 비 퍼붓듯
개천에 바다에 물밀 듯이
- 동해나 바다나 파도 치듯
서해나 바다에 물밀 듯이
- 금년에 농사를 지여 가지고
거부나 장자가 되었구나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① 곶었네

② 상 사

(매) 최원산(1916, 남, 토민)
(밭) 신인엽(1915, 남, 토민)
오종완(1925, 남, 토민)
김홍규(1922, 남)
素89-6-5A

① 곶었네

♩. = 86~100

최(밭)

곶었네 곶었어

최(밭)

덴이만 슬슬 굴러라

(매) ○ 여보소 농부님네
이 덩이를 돌려 주게
○ 이 덩이가 잘 풀어 지면
베가 아주 잘된 단다

어떤 벼를 심어나 볼까

인간 칠십에 노인 변가

(매) ○ 많이 먹어라 등 따시게
작게 먹어라 간 따시게나
○ 앞에 가려라 앞노적 쌓자
뒤에 가려라 뒤편노적 쌓자
○ 앞뒤에다 멍에 노적
참깨 노적 들깨 노적

② 상사

♩. = 57~63

(받)A

어 렐 렐 렐 상 사 데 야

(받)B

어 렐 렐 상 사 데 야

(매)

여 봄 소 하 고 도 농 부 — 님 — 네

(받)A, B

(매) ○ 이내 나 한말삼 들어를 보소

(받)A, B

양평군
지제면 지평3리

① 대허리

② 곱었네

③ 상 사

김순만(1919, 남, 토민) 창
素89-6-5A

① 대허리

♩. = 38~43

(반)

오 하 을 싹 대 허 리 야

대 허 리 소리 — 에 는 잘 만 타 — 네

- (메)
- 혈싸 좋네 둥기둥 칠해
 - 거들 거들 는 잘만 파네
 - 먼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 먼데네<가간데>사람은 보기만 좋게
 - 일시 합력에 는 잘들 파네
 - 무정 세월 가지를 말게
 - 청풍<추풍> 낙엽이 뚝 떨어가 졌네
 - 가던 님을 잡지를 말고
 - 잠시 잠깐만 머물러 주세
 - 내 가면 아주를 갈까이
 - 아주 간다고 잊을 손가
 - 인제<잊어> 버리자 남을 못 믿겠네
 - 차마 진정 못 잊으랴
 - 공산 명월 찬바람에
 -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 한양 성중 가시거들랑
 - 이내 소식을 전하여 주소이
 - 우리 소리 다 그만 두고
 - 한잔 들구 잠시 잠깐만
 - 잠시 잠깐 쉬여 보세

* (반)의 끝 '야' 에 5도윗음으로 동참
했다가 맥었음

② 꿇었네

♩. = 55~63

(반)

꿇 었 네 — 꿇 어 었 네 —
 덩 이 만 슬 슬 굴 러 — 라

- (메)
- 꿇었네 꿇았어
 이 논배미가 다 꿇았네
 - 벼 포기를 짓지 말고
 일심 단절로〈단결로〉 하야 주소이

③ 상사

♩. = 55~60

(반)

얼 려 려 상 사 데 — 야
 상 사 부 사 는 동 부 사 로 — 다

- (메)
- 오 널 널 상사 데야
 - 오늘 해는 다 갔건만
 - 내일 날은 어디 가시나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방아(논맴)

심광래(1917. 남. 토민) 창
素86-4-10-2AB

♩ = 150

(받)

에 이 야 라

방 아 — 요

(메)

방 아 허 — 는

(받)

여 러 분 네

(메)

잘 현 — 다 고

(받)

먼 저 말 고

(메) ○ 못 험다고 야중<나중> 말고
○ 일심 받고 일심 그쳐

양평 14

양평군
단월면 산음2리 고가수

민아리(논맴)

김순환(1933, 남, 토민) 창
86-4-10-2A

♩ = 150

(A)

해 — — 다 — — 지 고 —

저 — — 무 — — 신 — 날 예 — —

옷 갓 을 하 고 어 텔 — 가 쇼

- (B) 첩의 집에 가시려거든
요내 죽는 꼴 보고 가쇼
- (C) 첩의 집은 꽃밭이오
나의 집은 연못일세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버타작

(메) 최원산(1917, 남, 토민)
(받) 석곡 사람들
素92-11-2A

♩. = 75

(메) α

자 자 자 자

에 허 리 자 자

(받) α

* (받)의 '허리자자'에 동참했다가 맥임

(메)

쌍 엮 네 — 쌍 엮 어 —

체 통 앞 이 쌍 엮 — 네

최원산(받)

자 자 자 자

에 허 리 자 자

(메)

알 <나리> 가 는 봉 덕 새 가 —

노 적 가 리 를 — 찾 어 — 와

- (매)
- 높은 산에 눈 쌓이듯
얇은 산에 잿 쌓이듯
 - 쌓였네 쌓였어
앞에 체통*에 버쌓여
 - 알라가는** 봉덕새다
노적가리를 찾아와
 - 앞에 가려라 앞노적 쌓자
뒤에 가려라 뒷노적 쌓자
 - 앞뒤에다 쌓죽이
참깨노적 들깨노적
 - 담북담북 쌓았더니
날아가는 봉덕새
 - 중봉에다 자릴보고
상봉에다 새길 처
 - 한나래를 둥당치면
이리 천만석 점지되고
 - 또 한나래 둥당치면
저리 천만석 점지된다
 - 무지개 발로 후린 듯이
서기 발로 짚은 듯이
 - 억수장마 비 피붓듯
개천바다에 물밀 듯
 - 동해바다는 파도치듯
서해바다는 물밀 듯이
 - 노적가리를 쌓네
 - 여주군산 부인마마
들 구경을 나가서
 - 떨어진 곡석이 아깝다구
모지랑 비로 썰어다
 - 앞에 가려라 앞노적 쌓자
뒤에 가려라 뒷노적 쌓자
 - 앞뒤에 참깨노적
들깨노적을 쌓았네
 - 앞뒤에다 담불담불
쌓았더니
 - 날아가는 봉덕새가
중봉에다가 자릴 봐
 - 한나래를 둥당치면
이리 천만석 점지되고
 - 또 한나래 둥당치면
저리 천만석 점지로다
 - 높은 산에 눈 쌓이듯
얇은 산에 잿 쌓이듯

* 체통은 소나무 혹은 오리나무로 만들

** '알 놓으러 가는' 그러나 반북시에는
'날아가는 봉덕새가'로 가창했음

- 쌓였네 쌓였어
체통앞이 쌓였네
- 앞에 가려 앞노적 쌓자
뒤에 가려라 뒷노적 쌓자
- 체통앞에 버 쌓였으니
너가래루 밀어내
-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얕은 산에는 재 날리듯
- 억수 장마에 비퍼붓듯
개천바다에 물밀 듯
- 오늘 타작한 후에는
거부장자가 되겠네

양평 16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물 레

이춘복(1918. 남. 토민) 창
素89-5-9A

$\text{♩} = 60$

들 어 라 들 어 라 아 - 하

물 레 야 들 어 - 라 - -

- 고추(고치)야 나가거라
실파람 나와라
- 시어머니가 오시면
천벼락 내린다

- 명을 많이 잦아야 시어머니한테 꾸중 안듣는다 -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디딜방아

이춘복(1918, 남. 토민) 창
素89-5-9A

낮에 에는 밭에 일하고
밤에는 보리 방아
방아야 찢여 보자
물을 붓고 보리 붓고
비기 찢기 찢여 보자
겉에 껍데기 벗어지고
속 껍데기 남았으니
속 껍디기를 다시 찢을 적에
곱게 곱게 닦아다가
아버지 진질 싹 올릴 적에
보리밥이 좋을싸구나

♩. = 60

고 치 장 된 장 을 싹 싹발러 잡 수실제
<추>
그 아 니 좋 을 소 나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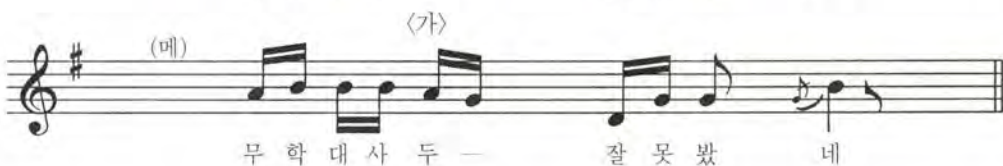
지경소리

이춘복(1918. 남, 토민) 창
이소라 채보(89-5-8-2B)

♩ = 108~132



(메) ○ 여보소 지경꾼아 -



- (메)
- 하명천이두 못보시구
 - 도술 선생두 못 봤네
 - 어떠네 명지관을
 - 모서다 잡었는가
 - 김씨명산을 다
 - 패처를 놓구보니
 - 삼십리 청룡에
 - 오백리 백호라
 - 이 터에 집을 질제
 - 어느 목수를 데렸는가
 - 목수일명 삼었네
 - 굽은 남구 저처 깎구
 - 곧은 나무는 곧게 깎고
 - 네 귀에 기둥 셀제

- 여봐라 지경꾼아
- 봉황의 날개가
- 다칠소라
- 가만히 잘 닦아주게
- 지근재근 닦아주오

* 메김의 끝은 언제든지 올려 퇴성함